56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6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연민수 · 서영수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번에 출간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은 광개토왕이 세상을 떠난 지 1600년 주기를 맞이하여 광개토왕비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작년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한 인물입니다. 북방의 여러 이민족들의 침략을 저지하고 고구려국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남으로는 신라·백제·가야제국 등과 전쟁을 벌였지만, 그 왕조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고구려의 천하질서 속에서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른바 한민족의 통일적 연합을 시도했던 인물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개토왕은 군사적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주변제국과의 외교를 통해 고구려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던 일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광개토왕의 이러한 위업도 대왕의 생전 업적을 기록한 광개토왕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광개토왕비는 근대에 들어와 재발견되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지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비문에는 고구려사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포괄하는 국제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재발견된 근대에 일본에서는 한국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로 광개토왕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아직도 비문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부분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논쟁점들을 재조명한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광개토왕시대는 동아시아의 격동기였고, 자립과 패권을 위한 주변제국 상호 간에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광개토왕비문은 당시 고구려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취한 국가적 정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세계 4대 강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모두 15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연구의 기초가 되는 탁본 문제에서 비가 소재하고 있는 국내성의 역사지리학, 고고학, 금석학, 언어학적인 문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건비의 목적, 수묘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동아시아 속에서 고구려사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귀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학자 여러분과 출판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3년 5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학준

책머리에 13

제1부 | 광개토왕비문의 고고·금석·언어학적 고찰

•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 다케다 유키오

Ⅰ. 왕비 연구의 두 가지 과제 23
Ⅱ. '신묘년'조의 해석 문제 25
Ⅲ. 각종 묵본과 석회탁본 '착묵패턴법' 30
Ⅳ. 각종 탁본의 유형 판정 34
Ⅴ. 원석탁본의 추구 44

•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 조법종

지도와 능비문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51
Ⅱ. 조선시대 지도자료에 나타난 국내성 54
1. 『건주기정도기』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54
2. 『해동지도』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58
3. 『팔도지도』「고축 4709-48」 평안도 국내성지역 59
4. 『동역도』 및 『광여도』 평안도 강계부에 표현된 국내성 63
5.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에 나타난 국내성 64
Ⅲ. 집안지역 지리지, 지도에 나타난 국내성 공간 69
1. 『집안현 향토지』(민국 4년, 1915) 69
2. 『집안현지』(민국 20년, 1931)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모습 72
3. 일본지도 및 자료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75
4. 『집안현문물지』(1984)와 『중국문물지도집』 길림성(1994) 지도 및 자료 검토 78
Ⅳ. 광개토왕릉 비정 원칙과 국내성 공간 84

중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광개토왕의 수묘제 개혁에 나타난 능 비정 원칙 84
2. 집안지역 공간과 광개토왕릉 86
Ⅴ. 맺음말 89

• 고구려 고분 고고조사의 일부 성과 쑨런지에
Ⅰ. 집안 호자구 고분군 고고조사 95
Ⅱ. 집안 운봉 수력발전소 댐 수몰 지구에 대한 고고조사 97
Ⅲ. 집안 마선 상활용촌 산서묘군의 조사 103
1. 서구(西區)고분군 103
2. 동구(東區)고분군 110

•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고광의
Ⅰ. 머리말 119
Ⅱ. 광개토태왕비 서체 연구사 검토 121
Ⅲ. 광개토태왕비 서체 형성의 서사(書寫)문화적 배경 133
Ⅳ. 맺음말 : '광개토태왕비체'의 완성과 유행 145

• 금석학적으로 본 광개토왕비 이우태
비의 형태와 위치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153
Ⅱ. 비의 형태 156
Ⅲ. 비의 위치 161
Ⅳ. 비의 유래 163
Ⅴ. 맺음말 16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학적 연구 권인한

Ⅰ. 머리말 173
Ⅱ. 비문의 해석 175
1. 추모왕~광개토왕의 세계(世系)(1 · 1 · 1~1 · 6 · 39) 176
2.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무훈(武勳)(1 · 7 · 1~3 · 8 · 15) 177
3. 수묘인 제도(3 · 8 · 16~4 · 9 · 41) 183
Ⅲ.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186
1. 음운사적 측면 186
2. 문법사적 측면 192
3. 어휘사적 측면 202
Ⅳ. 맺음말 20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부 |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국제관계(1)

-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연민수

Ⅰ. 머리말 221
Ⅱ. 백제관의 형성과 이중구조 223
Ⅲ. 왜병과 대왜 인식 232
Ⅳ. 신라 속민관과 조공 · 논사 236
Ⅴ. 맺음말 242

-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 스즈키 야스타미

Ⅰ. 머리말 247
Ⅱ. 광개토왕비 및 탁본의 연구사 248

Ⅲ. 왜 기사의 사실 250
Ⅳ.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 255

●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 이용현

백제의 대응을 축으로

Ⅰ. 머리말 259
Ⅱ. 비문의 석문 261
Ⅲ. 관련 각년조의 고찰 263
1. 영락 6년(396)조 263
2. 영락 9년(399)조 265
3. 영락 10년(400)조 270
4. 영락 14년(404)조 288
5. 영락 17년(407)조 290
Ⅳ. 광개토왕의 남진과 남부 여러 나라의 대응 292
1.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패배 292
2. 백제의 대응 : '화통'과 후방공격 294
3. 고구려의 백제 재침과 '노객'관계의 해소 296
Ⅴ. 광개토왕비문의 가야 : 결론을 대신하여 298

●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하여 하마다 코사쿠

장수왕대 전기의 고구려 통치 · 평양천도까지

Ⅰ. 머리말 303
Ⅱ. 장수왕의 휘와 생몰년 304
Ⅲ. 광개토왕의 치적과 유훈 305
Ⅳ. 천도와 신민통치 313
Ⅴ. 맺음말 3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3부 |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국제관계(2)

- 광개토태왕의 국가발전 정책과 현재적인 의미 윤명철

Ⅰ. 머리말 329
Ⅱ. 현재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들 – 민족문제 및 대외관계 331
1. 통일의 문제 332
2.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문제 333
Ⅲ. 광개토태왕의 국가발전 정책과 성과 343
1. 국제질서의 변동과 영토팽창과정 343
2. 광개토태왕의 영토팽창과정 346
Ⅳ. 국가발전 정책의 성격과 의미 351
1. 정치외교의 중핵 – 균형과 조정 352
2. 경제 물류의 거점 – 집산과 중계무역 357
3. 문화의 터전 – 융합과 재창조 363
Ⅴ. 현재적 의미와 가치 – 결론을 대신한 제언 370

- 4세기 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이성제

396년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 문제를 중심으로

Ⅰ. 머리말 381
Ⅱ. 고구려의 요동 영유설에 대한 재검토 384
Ⅲ. 요동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 391
Ⅳ. 고구려와 후연의 책봉조공관계와 그 의미 398
Ⅴ. 맺음말 4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 서영수

Ⅰ. 머리말 411
Ⅱ. 능비문의 구성과 북방관계기사 412
1. 영락 5년 기사 415
2. 영락 8년 기사 417
3. 영락 17년 기사 418
4. 영락 20년 기사와 총결 기사 419
Ⅲ. 패려 정토전의 내용과 성격 421
1. 패려의 정체와 염수구의 위치 421
2. 패려 정벌 기사의 성격 425
Ⅳ. 요동 순수의 역사적 의미 432
1. 요동 순수 432
2.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의 역사적 의미 440
Ⅴ. 맺음말 442

제4부 | 광개토왕비의 건립 배경과 수묘제

•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 김현숙

Ⅰ. 머리말 451
Ⅱ. 광개토왕비의 위치와 비문의 내용 453
Ⅲ. 광개토왕비의 성격 458
Ⅳ. 광개토왕비의 건립 목적 466
Ⅴ. 맺음말 4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중국 고대 수릉 제도와 율령 김택민

고구려 수묘인 제도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Ⅰ. 머리말 477
Ⅱ. 중국 고대 황제릉의 조영과 수위 조직 479
1. 황제릉의 조영과 능읍의 치폐 479
2. 역대 왕조의 수릉 조직 489
Ⅲ. 수릉 관련 율령 495
1. 『한의』와 『고사』 495
2. 수릉에 관한 형률 499
Ⅳ. 읍호 · 능호의 신분-결론을 대신하여 504

찾아보기 50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연 위대한 정복군주인 동시에 고구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한 문화군주였다. 지난 2012년은 광개토왕이 붕어하신지 1,600년 주기가 되는 해로 동북아역사재단은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 2012년 10월 18~19일〉을 주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한·중·일 3국의 전문 연구자가 모두 참가하였으며, 광개토왕비 자체의 금석학적 연구에서부터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망라하여 검토한 시의적절한 국제학술회의였다.

학술회의는 기조강연과 '제1부 광개토왕비문의 고고·금석·언어학적 고찰, 제2부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1) – 남방관계, 제3부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2) – 북방관계, 제4부 – 광개토왕비의 건립배경과 수묘제' 등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큰 주제는 광개토왕비 자체의 문제와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모두 15편의 글이 발표되었으며, 이 책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기조강연을 한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는 일본학계의 광개토왕비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 그동안의 연구를 요약한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를 발표하였다. 다케다 유키오의 연구는 비문의 역사적 해석과 각종 묵본의 유형과 편년 문제인데, 『高句麗史と東アジア – 「廣開土王碑」研究序說』(岩波書店, 1989년)과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1998년) 및 『廣開土王碑墨本の研

究』(吉川弘文館, 2009)로 정리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두 가지 문제를 화두로 하여 종래의 연구 중에서 비문의 최대 쟁점인 '신묘년'조를 재검토하고 각종 묵본의 편년 방법을 제시하였다. '신묘년'조에 대해서는 영락 6년뿐 아니라 이후에 전개된 광개토왕의 남진정책에 연계되어 있다는 대전치문설(大前置文)을 재천명하였다. 능비의 묵본을 원석탁본, 묵수곽전본, 석회탁본으로 나누고 석회탁본은 착묵법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원석탁본은 용지법과 착묵법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어 제1부에서는 조법종, 쑨런지에[孫仁杰], 고광의, 이우태, 권인한의 광개토왕비의 금석학적 연구에 관한 5편의 글이 발표되었다.

먼저 조법종은 각종 지도 자료를 통해 국내성시기의 공간정황을 파악한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지도와 능비문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는데, 이 분야는 그동안 광개토왕비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분야로 주목을 받았다. 고구려 국내성(國內城) 지역인 집안(集安)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검토를 위해 그는 조선시기 지도(地圖)자료에 나타난 국내성 공간의 양상을 정리하고 근대 중국 및 일본 지도들에 나타난 양상과 연결 지어 현재 집안지역의 역사 공간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쟁점이 되어왔던 광개토왕릉에 대해서는 능비문(陵碑文)에 나타난 묘상입비(墓上立碑) 원칙과 이 같은 공간정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군총보다는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집안박물관 연구원으로 오래 재직하였던 쑨런지에는 집안 부근의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최근의 조사 성과를 정리한 「고구려 고분 고고조사의 일부 성과」를 발표하였다. 주로 호자구(蒿子溝)고분군, 양민(良民)일대와 운봉(雲峰)수력발전소 지역, 마선(馬線) 상활용촌(上活龍村) 산서(山西)고분군에 대한 조사인데, 그동

안 국내학계에서 궁금하였던 중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호자구고분 중 JHM1호묘를 동천왕(東川王)의 능묘로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광개토왕비문의 서체연구에 독보적인 업적을 쌓은 고광의는 그 동안의 연구를 정리한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국내학계에서 능비문의 서체에 대한 연구는 예서(隸書)의 팔분(八分)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왔으나, 그는 고구려는 물론 중국의 각종 서체를 비교하여 비문의 서체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신예체(新隸體)의 일종으로 '광개토태왕비체'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 등에 관해 이우태는 「금석학적으로 본 광개토왕비 – 비의 형태와 위치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각종 사진자료와 위성지도 등을 통해 광개토왕비를 금석학적 유물로서 접근한 그는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능과 함께 조성된 것이지만, 능의 위치나 능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으며, 원래 그 자리에 서 있던 선돌을 그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새롭게 주장하였다.

광개토왕비문을 국어학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한 권인한은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학적 연구」를 발표하였다. 발표자는 고유명사 표기자에 대한 음운학적 분석과 이두요소의 존재 및 한자어의 수용정도 등 음운·문법·어휘 등 국어학의 전 부문에 걸치는 방법론을 동원하여 비문을 분석하였다. 다만 신묘년 기사의 '래도해(來渡海)'를 '바다를 건너오다'로 해석하여 문법적으로 맞는 것으로 본 것은 오류로 보인다. '래(來)+동사(動詞)'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상대방의 행위의 종결을 의미하므로[래도(來渡), 래침(來侵), 래방(來訪), 래하(來下) 등] 동사 다음에 명사를 수반할 수 없으며 그런 용례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광개토왕비가 역사적 사료일 뿐 아니라 국어사 연구의 보고라는 점을 환기시킨 논문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를 걸게 해준다.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논한 제2부와 3부에서는 연민수, 스

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 이용현, 하마다 코사쿠[濱田耕策], 윤명철, 이성제, 서영수 등이 7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고대 한일관계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 연민수는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을 통해 광개토왕의 남진정책과 주 정벌대상인 백제, 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인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을 백제에 대한 우월성과 신라에 대한 속민관 및 대왜인식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고구려의 남방정책은 정복지에 군대를 주둔시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속의례를 통한 정치적 상하관계를 맺고 조공(朝貢)을 받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고구려의 주변제국에 대한 천하질서의 구현과 나아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방에 대한 통일적 공동체의 실현이 당대 고구려의 국가적 지향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학계에서 광개토왕비문의 왜 관계기사 연구를 대표하는 스즈키 야스타미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를 발표하였다. 그는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倭)'기사를 기초로 하여 광개토왕 치세 시기의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시아세계 속에서 왜의 실태와 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비문의 왜를 대화(大和) 지역의 왜왕과 각지의 수장들이 편성한 군대의 연합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일본의 정치 상황을 이러한 단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용현은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백제의 대응을 축으로」에서 비문의 영락 6~17년의 남진 기사를 분석하고 고구려의 남진에 대응한 남방 세력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특히 논쟁이 되었던 영락 10년 조의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을 그대로 인정하고 『삼국지(三國志)』 〈동이전한조(東夷傳·韓條)〉의 구야(狗邪)와 함께 양축을 이루고 있었던 안야(安邪)로 보았다. 또한 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와 백제, 왜의 전쟁에 참전한 배경은 신라와 경합하였던 임나가라(任那加

羅), 안라 등 남부가야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 왜·백제와 우호관계를 지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하마다 코사쿠는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하여 – 장수왕대 전기의 고구려 통치·평양천도까지」에서 그동안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장수왕대의 치세를 부왕인 광개토왕 치적의 계승과 발전이란 면과 동아시아제국의 국가형성 과정의 문제와 결부시켜 고찰하였다.

고구려 해양사 전문가인 윤명철은 「광개토태왕의 국가발전 정책과 현재적인 의미」에서 광개토태왕대 고구려의 국가정책을 동아시아라는 큰 틀 속에서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그는 광개토태왕이 추진하고 성공을 거둔 영토확장 정책들은 단순한 영토의 팽창, 인구의 획득이란 차원을 넘어 동아 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으며, 이는 곧 동아지중해 중핵조정역할이었다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였다.

이성제는 「4세기 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 396년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최근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고구려의 요동영유설과 후연과의 외교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광개토왕이 요동 일원을 순수하였던 영락 5년경에 고구려와 후연은 요동을 분점(分占)하고 있었으며, 백제 친정에 나선 영락 6년 즈음에 고구려와 후연 양국은 책봉조공관계를 맺었는데 이는 고구려가 우호외교관계를 통해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던 대후연 관계를 개선시켜 서방(西方)에 대한 우려를 덜고, 남방 경략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서영수는 영락 5년조 기사를 분석한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북방정책 – 능비문 영락 5년조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이 책에는 이를 수정·보완한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를 실었다). 광개토태왕비문의 정복기사 첫머리에 기술

된 영락 5년조 기사를 분석하여 패려정벌과 요동순수 기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유목하던 거란으로 추정되는 패려 정벌은 유목민족을 물리친 단순한 1회적 승리가 아니라 광개토태왕대 고구려 대외 팽창의 전기가 되는 대사건이었으며, 후반부의 요동 동남부 지역의 순수 기사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기록으로 이후 후연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이것이 바로 고구려사관이 훈적비의 서두를 패려 정벌 기사로 장식하였던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제4부에서는 김현숙, 김택민의 발표가 있었다.

김현숙은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에서 광개토왕비의 명칭과 비의 성격에 대해서 재검토하였다. 종래의 능비(陵碑), 훈적비, 수묘호령비 설을 소개하고 '광개토왕비'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장례를 맞이하여 왕의 훈적을 기리면서, 수묘제 관련 개혁의 내용과 수묘인의 구성 및 그들의 출신지 등을 명기하였다. 동시에 장수왕이 선조왕 및 부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자신의 향후 정치적 구상을 거침없이 펼쳐가고자 하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방하려는 장수왕의 의중을 담은 특수한 성격의 비석이라고 정의하였다.

중국의 당대사(唐代史) 전문가인 김택민은 「중국 고대 수릉 제도와 율령 – 고구려 수묘인 제도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에서 중국 고대 황제릉의 조영과 수릉제도 전반에 걸쳐 상세한 소개를 해주었다. 최근 고구려의 국도가 있었던 집안에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새로이 발견되어(2012년 8월) 광개토왕비의 수묘인기사와 더불어 고구려의 수묘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데,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수릉제도에 관한 검토는 한국학계의 수묘인 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비는 19세기 말 재발견된 이후 한·중·일 3국 학계는 물론 구미학

자들 까지 연구에 참여하여 방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고대사 연구 자료가 희소하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원자료가 되는 능비의 손상에 따른 원문 복원의 어려움과 비를 보는 역사적 시각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광개토왕비의 초기 연구는 금석학적 연구를 제외하면 주로 왜의 출현에 따른 고대 한일관계 연구에 치중되었는데 이는 광개토태왕의 훈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세워진 능비의 목적에 어긋나는 비문 연구의 주객이 전도된 것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고구려의 발전과정과 수묘인을 비롯한 고구려 사회의 모습 및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등 건립목적에 걸맞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개토왕비의 금석학적 연구, 국어학적 분석, 옛 지도를 통한 비가 세워진 집안 일대의 공간적 상황 등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광개토왕시대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제관계와 새로운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주제를 망라하여 열린 오늘의 학술회의는 광개토왕비 연구 노정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한다.

학술회의를 주최한 동북아역사재단과 논문을 발표하신 연구자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2013년 5월 16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서영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부

광개토왕비문의 고고 · 금석 · 언어학적 고찰

1. 다케다 유키오 _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
2. 조법종 _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
3. 쑨런지에 _ 고구려 고분 고고조사의 일부 성과
4. 고광의 _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5. 이우태 _ 금석학적으로 본 광개토왕비
6. 권인한 _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학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한국고대사 전공, 도쿄대학 명예교수
대표논저로는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1988, 東京大學出版部), 『高句麗史와 東아시아』(1989, 岩波書店), 『朝鮮史』(편저, 2005, 岩波文庫), 『廣開土王碑와의 對話』(2007, 白帝社), 『廣開土王碑墨本의 硏究』(2009, 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광개토왕비 연구의 제문제

도쿄대학 **다케다 유키오**

I. 왕비 연구의 두 가지 과제

2012년은 고구려 광개토왕(재위 391~412)이 붕어한 지 1600년이 되는 해이자 광개토왕비가 중국 요령성의 집안(集安)에서 발견된 지 132년이 되는 해다. 이 해에 통일논제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의 재조명(再照明)'을 내건 국제학술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이를 기회로 많은 연구성과가 집성되어 학계 공통의 학술적 축적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고해보면 1970~1980년대에 '광개토왕비' 연구가 새롭게 고조되고 있던 때에 필자는 일찍이 다음의 두 가지 과제를 의식했다. 그 하나는 왕비(王碑) 해석의 과제다. 이전의 해석은 비문 각 조를 나누어 축조적(逐條的)이고 개별적인 스타일에 만족하고, 그것이 계승되어 고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왕비의 전체적 해석을 통해 재검토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고정된 틀을 탈피하고 종합적인 비문 해석을 진행시키는 일이 왕비 연구의 당면한 큰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 과제로서 주로 졸저(拙著)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岩波書店, 1989)에서 광개토왕의 영역지배, 동 왕대의 국제관계, 동 시대의 동아시아 인식 등에 대해서 논술했다. 지금부터 4반세기 전의 일이다.

그 본질은 각종 묵본(墨本)의 성격 해명의 과제다. 주지하듯이 왕비에는 다수의 석문(釋文)이 알려져 있지만, 어느 하나 같은 석문은 보이지 않는다. 각종 탁본에 의거한 묵본의 성격이 각각 다르고, 또 그들 묵본이 의거한 비문과 비면 자체가 변화했다. 비석(碑石)과 비자(碑字)도 오랜 세월에 걸쳐 풍화되었으며 비면이 발견 직후에 불에 타기도 하고, 혹은 석회 등을 발라 몇 번이나 수리한 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화하고 변모해갔다.

따라서 비문의 해독이 가령 치밀하게 보여도, 또 감명을 주고 사람의 심금을 울려도 몰래 다가오는 의문은 결코 해소되기 힘들다. 각종 묵본을 변별하고 가장 신용할 수 있는 묵본을 적출해야 한다. 특히 왕비의 연구에서는 학술적인 사료 비판을 전개하고, 학술적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한 현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 과제로서는 전기한 졸저와 졸편저(拙編著)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1998)을 간행하고, 왕비 연구가 본래 의거해야 할 묵본 유형 즉 '원석탁본(原石拓本)'을 가능한 한 적출하여 제시하고 공개했다. 앞에 서술한 제1의 과제는 이 제2의 과제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왕비의 학술적 연구는 마치 질주하는 차의 양 바퀴와 같이 두 개의 과제가 평행하여 양자가 일체화되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원석탁본'은 왕비 연구에 불가결의 제1급 사료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완전한 묵본사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심(肝心)의 '원석탁본'을 적출하여 그 유형과 성격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왕비 연구의 최초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묵수곽전본(墨水廓塡本)'과 가장 널리 유포된 '석회탁본'에도

주목하여 이들의 사료적 성격을 적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원석탁본'과 대비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준별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앞의 졸편저에 이어 졸저 『廣開土王碑との對話』(白帝社, 2007),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吉川弘文館, 2009) 등에서 각종 묵본의 유형, 편년 연구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지금 서술한 과제에 가능한 한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석회탁본'에 관해서는 '불착묵(不着墨) 패턴법'을 제창하고 유형, 편년론을 제시해서 그 자료적 성격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원석탁본'의 사료적 성격을 정확히 해명하고, 보다 더 중시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다.

II. '신묘년'조의 해석 문제

왕비(王碑)가 발견되고 나서 벌써 100여 년이 경과하였다. 왕비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중 가장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킨 해석 문제는 '신묘년(辛卯年)'조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신묘년조에 집중하여 처음에는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왕비의 3단락 구성과 전 8년조로 이루어진 기년기사에 대해 고찰하여 새롭게 신묘년조가 시사하는 중요성을 필자 나름대로 확인하게 되었다.

첫째는 신묘년조의 이른바 '전치문(前置文)'의 문제다. 왕비 제2단락의 기년기사는 모두 8년조로 구성되고 각 조마다 광개토왕(재위 391~412)의 훈적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의 신묘년[391년, 영락(永樂) 원년]조는 그 중 제2조, 영락 6년 병신(丙申, 396)조에 포함된 일부분에 상당한다. 동년조의 훈적을 기록한 '본문'의 앞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전치문'이라고 불린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락 6년조가 백제의 58성, 촌 700을 공취했다는 등 광개토왕이 최대의

〈표 1〉 기년기사 전8조와 '전치문'의 유무

기년	본문		전치문	
영락/간지(서력)	왕궁솔 타입	교견 타입		
5년/을미(乙未, 395)	왕궁솔		유	
6년/병신(丙申, 396)	왕궁솔		유	
8년/무술(戊戌, 398)		교견		무
9년/기해(己亥, 399)	왕순하		유	
10년/경자(庚子, 400)		교견		무
14년/갑진(甲辰, 404)	왕궁솔		유	
17년/정미(丁未, 407)		교견		무
20년/경술(庚戌, 410)	왕궁솔		유	

훈적을 올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묘년조(전치문)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는 '전치문'의 유무다. 전 8년조는 전치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개의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전치문이 있는가 없는가는 기년기사 각 조의 첫 머리 부분에 상투적인 표기법으로 표시된다. 즉 모두 부분은 필히 기년[紀年. 영락 연차(年次)·간지(干支)]으로 시작되고 다음에는 전치문, 그 다음이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본문은 반드시 행위 주체의 '왕(王)'자로 시작되든가[왕궁솔(王躬率), 또는 왕순하(王巡下)], 그렇지 않으면 '교견(教遣)'으로 시작하게 된다. 기년기사의 각 조와 전치문의 유무와의 상호관계는 정리하여 〈표 1〉에 표시했다.

〈표 1〉은 명확한 형태로 전치문과 본문과의 대조적인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 전치문을 갖는 5개년의 조는 본문이 '왕'자로 시작되고 광개토왕이 적극적으로 출동하며, 관군(官軍)을 '궁솔(躬率)'하여 친정(親征)하기도 하고, 혹은 왕도에서 직접 '순하(巡下)'하기도 한다. 반면 전치문이 없는 3개년의 조는 본문이 '교견' 두 자로 시작하고, 광개토왕은 왕도로부터 움직이지 않으며 단지 "교(教)하

여 (관군을) 파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양자의 대응관계에 예외는 보이지 않는다. 전자의 기년기사는 '왕궁솔' 타입, 후자는 '교견' 타입으로 명명해놓는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왕궁솔' 타입의 전치문은 전8조의 기년기사를 기본으로 해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전치문의 존재는 '교견' 타입을 포함한 기년기사의 전체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전치문은 '왕궁솔' 타입의 조에 고유한 것이고, 왕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서술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셋째는 필요불가결한 전치문에 공통하는 대외관계의 일이다. 최초의 '왕궁솔' 타입은 영락 5년조인데, 전치문 "패려(稗麗)가 □인(□人)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계(計) 7자, □는 미석자(未釋字)]는 어떻게 봐도 고구려에게 불리한 대패려(對稗麗) 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 영락 9년조의 전치문 "백잔(百殘)은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했다"(계 8자)는 고구려에 있어 극히 곤경에 처한 대(對)백제·왜 정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영락 14년조의 전치문 "왜는 모반해서 대방(帶方)의 계역(界域)을 침입하여, □□□□□石城□連船□□□했다"(계 22자)는 석문 불능의 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왜가 대방 방면에 진출하여 고구려와 해전(海戰)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 영락 20년의 전치문 "동부여는 구시(舊是)로 추모왕(鄒牟王)의 속민(屬民)이었는데, 중간에 모반하여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계 22자)는 고구려가 동부여의 저항에 직면한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년조의 전치문이 고구려에게 곤경하거나 불리한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영락 6년조의 전치문, 즉 신묘년조도 곤경에 빠진 대왜정세를 중심으로 기술한 기사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묘년조(계 32자)의 후반부는 왜를 주어로 하는 비문이고, 이른바 '왜주도설(倭主導說)'에 따라 "…… 그런데 왜는 신묘년(辛卯年)에 바다를 건너 와서 백잔(百殘)을 파(破)하고 동쪽에서는 신라를 □해서 신민(臣民)으로 삼았다"[□의 문자는 추석(推釋)]와 같이 해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떠한 의문도 남지 않는다. 광개토왕이 즉위한 신묘년 당시 고구려는 남방방면의 국제정세가 급격히 불리하게 전개되었으며 곤경에 직면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지적한 전치문에 의한 기년기사의 해석은 학계에서 전치문설이라고 부르는 해석법이다. 또한 신묘년조는 석문 불능의 세 글자를 포함하는데, 동조가 전치문인 한 고구려에 불리한 정세를 기록하고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묘년조의 임의의 위치에 무리하게 '고구려' 등의 주어를 삽입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문자를 넣거나 문자를 교체한 '고구려 주도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들 비문의 조작법(操作法)과 석독의 방법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무리가 있고, 또 상기의 전치문설에도 모순하기 때문에 그 학설은 찬성할 수 없다.

넷째는 전치문설에 기초한 '대전치문설(大前置文說)'이다. 신묘년조는 영락 6년조에 불가결한 전치문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수한 전치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특수한 성격은 '왕궁솔' 타입의 관두(官頭) 부분의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통상의 '왕궁솔' 타입의 문장 구성은 모두 ①기년→②'전치문'→③본문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데, 영락 6년조만 기년과 전치문이 도치되어 ②'전치문'→①기년→③본문의 순서로 되어 있다. 즉 '전치문(신묘년)'조가 특히 모두에 배치되어 강조되고 있다.

도치된 것은 신묘년조의 문자 수가 다른 전치문에 비해 단연 많다고 하는 사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장문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포함해서 신묘년조에는 고구려의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신묘년조의 신묘년(3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광개토왕이 즉위한 특별하고 중요한 연차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이 해에 '백잔'·'신라'·'왜' 등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고구려 남방의 주요한 나라 전체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어느 전치문과 비교해도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 주목해야 할 것이고, 고구려를 둘러싼 위기의 국제정황이 다양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묘사된 다양한 국제정황에도 불구하고 단지 '백잔'과 대(對)'백잔'전의 승리만을 기술한 점이다. 여기에는 왜도 신라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술방법은 '백잔'을 시작으로 해서 신라와 왜 등의 고구려 남방국들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고, 이들 제국이 신묘년 이래 등장하는 것을 예고한다.

즉 신묘년조는 영락 6년조에 한정된 전치문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전개되어야 할 광개토왕의 남방정책에 연속하며,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신묘년조는 영락 9년조(백잔, 왜, 신라), 10년조[신라, 왜, 임나가라(任那加羅), 안라(安羅)], 14년조(왜), 17년조(백잔 추정)로 표출되는 광개토왕의 위대한 훈적을 예고하고, 고구려의 역사적인 남진정책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전치문 신묘년조의 특수성을 중시하고 여기에 고구려의 장대한 역사적 의도를 적출한 신묘년조의 해석은 학계에서 '대전치문설'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신묘년조의 다이나믹한 서술법에 대해서 논해 보자. 신묘년조는 '백잔·신라'로 시작하여 이들 양국이 말미에서 다시 언급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미일관한 정합적인 기술이 보이는데, 양국은 고구려의 '속민'에서 왜의 '신민'으로 변화하고, 그 전과 후에 양국의 대조적인 대전환이 극적인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

양국의 전과 후를 나누는 것은 '신묘년'이고, 이것은 광개토왕이 즉위한 연차이자 '왜'가 도해해 오기도 하고 고구려를 곤경으로 몰아넣은 연차임에 틀

림없다. 그러나 수세에 몰린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왕자가 등장해야 하는 때이며, 목전의 불리한 상황은 용맹하게 등장한 고구려 태왕(太王)만이 타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광개토경평안호태왕(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곤경을 타파하여 동왕 치세 중에서 최대의 치적을 달성하였다.

신묘년조의 해석은 전치문설에 기초를 두고 이를 받쳐주는 '대전치문설'에 따라 해석할 수 있으며, 또 거기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II. 각종 묵본과 석회탁본 '착묵패턴법'

광개토왕비의 학술적인 연구는 가장 양질의 묵본자료를 이용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회인현(懷仁縣) 지현(知縣) 장월(章樾)의 막객(幕客)인 관월산(關月山)이 심하게 풍화된 왕비(王碑)를 발견한 1880년 이래 다양한 종류의 묵본이 제작되어 각지에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적절한 연구자료가 아니었다고 평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왕비의 연구사상 가장 일찍 주목되고, 초기연구를 주도했던 것은 사카와 카게아키본[酒匂景信本], 즉 풍화되어 파손된 상태에서 흐릿한 비자(碑字)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손으로 베껴 분명한 점획(点劃)을 완성한【B형】유형의 묵수곽전본이다. 그것에 이어서 거친 비면에 석회를 도부하여 흐릿한 비자를 석회로 가공해 명석한 점획으로 다시 만들어【C형】유형의 석회탁본이 탁출되었다. 석회탁본은 가장 많이 제작되어 가장 널리 유포되었고,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묵수곽전본과 석회탁본이 명확한 문자 제작을 우선했기 때문에 문제를 포함한 석문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

다. 이것들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묵본자료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묵수곽전본을 식별하는 일이다. 겨우 2본이 현존할 뿐이고, 두터워진 점획의 서법과 독특한 농묵의 곽전기법(廓塡技法)으로 대략 식별할 수 있다. 셋째는 광범위하게 유포된 석회탁본은 그 양만큼 다종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작업이다. 이후에도 석회탁본의 성격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는 묵수곽전본과 석회탁본의 기본이 되며 가장 적절한 묵본자료로 간주되는 원석탁본의 추구다. 그러나 이것은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석회탁본의 식별분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종다양한 석회탁본의 성격을 식별분류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우선 탁본자료 간 동일문자의 자형 변화에 착안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견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견해는 아직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자형의 변화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는 실물 탁본과 정밀한 영상자료 등 양질의 탁본자료를 관찰할 수 있는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또 관련자료의 일정 정도의 축적을 불가결한 전제로 하며 무엇보다 잘 훈련된 개인적 역량과 정밀하고 계통적인 식별기법이 요구된다. 착묵(着墨) 전의 석회가공뿐 아니라 몇 번이나 석회로 보수하고, 또 탁출 후나 표구시에 가해진 묵적(墨跡)을 식별하는 역량도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필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비교적 용이하고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어느 정도 양질이라고 할 수 없는 탁본자료(예를 들면 부분적이거나 명료하지 않은, 멀리서 본 축소 영상자료와 스냅사진 등)라도 유효하게 활용하여 비교적 간단 명료하게 식별가능한 편년, 유형론을 모색하여 이른바 석회탁본의 착묵패턴법을 제창했다. 가장 중시한 것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유형별 판정 기준은 〈표 2〉에 게재한 대로다. 또 각 유형에 대응하는 편년의 개략은 역시 잠정적인 것이지만, 〈표 3〉에 표시한 대로다.

〈표 2〉 유형 · 불착묵 패턴 대조표

	제 I 면	제II면		제III면			비고
포인트	①	②	③	④	⑤	⑥	
C0형							
C0−1형	[착 묵]						
C0−2형	[불착묵 포인트 하나 이상]						
C1형	연속 4~7행	연속 3행×10~11자격(字格)	연속 2~1행×6~4자격	연속 9행	연속 3행	연속 7행×11자격	
C0−1형	연속 4행	(10자격이 많음)	연속 2행×6자격				
C0−2형	연속 5행	(11자격이 많음)					
C0−3형	연속 6~7행		연속 2~1행×6~4자격				
C2형	우방선단(右方先端) 6~8행(7행 이상이 많음) 좌측착묵(左側着墨)	연속 2~3행×2~6자격 (2행, 5자격이 많음)	[착 묵]	연속 7행 이하(5행 이상이 많음)	연속 3행	연속 7행 이하×10자격 이하(7행, 10자격이 많음)	① 드물게 좌측불착묵(左側不着墨)의 예가 있음 ① 극세백선우단(極細白線右端)까지의 예를 포함
C3형	우방선단 7~9행 좌측착묵	[착 묵] 또는 1행×4~3자격	[착 묵]	[착 묵]	[착 묵]	[착 묵]	① 극세백선우단까지의 예가 많음 ④⑤ 드물게 1행의 예가 있음
C4형							1945년 이후에 척출(拓出)

* 자격(字格)의 셈법 : 당해 범위 내에서 별행(別行)이 어떤가는 관계없고, 최상의 위치를 점하는 자격에서 최하의 자격까지의 자격 수. 다만 제Ⅲ면 제1행(포인트④⑤⑥)의 자격은 세지 않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석회탁본' 유형 · 편년 잠정표

유형		제작기간
C0형	C0-1형	1890년대 전기 전반
	C0-2형	1890년대 전기 후반
C1형	C1-1형	1895년 전후~1902년~?
	C1-2형	?~1905년~1913년 전후
	C1-3형	1913년 전후~?
C2형		?~1927년경~1934년 전후
C3형		1934년 전후~1938년경
C4형		1963년~

위의 두 개의 표에서 표시한 착묵패턴법의 특징은 첫째, 탁본 탁출시의 불착묵(不着墨) 부분과 그 번진 부분을 중시한 것이다. 문자의 점획은 당연 중시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것에만 구애받지 않고 곽전(廓塡) 부분을 포함한 자격(字格) 전체와 여기에 연속하는 자격군(字格群)과의 관련성에도 주목한다. 또 특히 불착묵 부분을 중시한 것은 유형판정에서 시각적인 검색의 편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불착묵 부분은 탁본 여섯 포인트를 특정했다. 포인트 ①~⑥에 대응하는 석비의 정황은 원석 본래의 양태와 풍화, 파손 등에 의해 착묵할 수 없었거나 착묵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각 면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았다(제Ⅳ면은 포인트 없음). 포인트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지만, 유형을 판정하는 데에는 이 정도에서 과부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셋째, 석회탁본을 시간적인 계열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일이다. 각 탁본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본형으로【C0형】,【C1형】,【C2형】,【C3형】의 네 유형으로 대별했으며 세부적으로 더욱 분류가 가능한 사례도 보이는데, 탁본자료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적절한 유형화, 세분화가 가능하게 된

점이다.

넷째는 판정된 유형은 탁본의 제작시기와 원만한 형태로 대응하는 점이다. 양자의 대응관계가 확실한 탁본과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되는 탁본은 '표식적(標識的) 탁본'이라고 하여 중시된다. 그러나 현상에서 표식적 탁본은 아직 극히 소수가 확인될 뿐이다.

'착묵패턴법'에 의한 유형, 편년론은 탁본이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자의 대응관계는 필히 획일적인 것은 아니고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상호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먼저 착묵 정황이다. 전기한 문자와 자격(字格) 외에 묵색(墨色)의 농(濃)·담(淡), 자화(字畫)의 수(瘦)·비(肥) 등의 속성이 거론된다. 다음은 용지법이다. 착묵 시의 용지의 매수와 층수, 각 면에 이어붙인 용지의 매수·넓이·형상·단수와 이어붙인 순서 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표시한 '착묵패턴법'은 석회탁본의 유형, 편년론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각 탁본의 개별적인 착묵 정황과 용지법에도 주목하여 이것의 통시적 위치를 고찰해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각종 탁본의 유형 판정

근래 주목되는 새로 알려진 각종 석회탁본 중 표식적 탁본이거나 거기에 준하는 탁본 네 개를 선택하여 그 유형을 제정하기 위해 착묵패턴법을 적용하고, '불착묵 패턴 대조표'를 중심으로 검증해보자.

첫째는 '정효서하명척출본(鄭孝胥下命拓出本)[정효서본(鄭孝胥本)]'에 속한다고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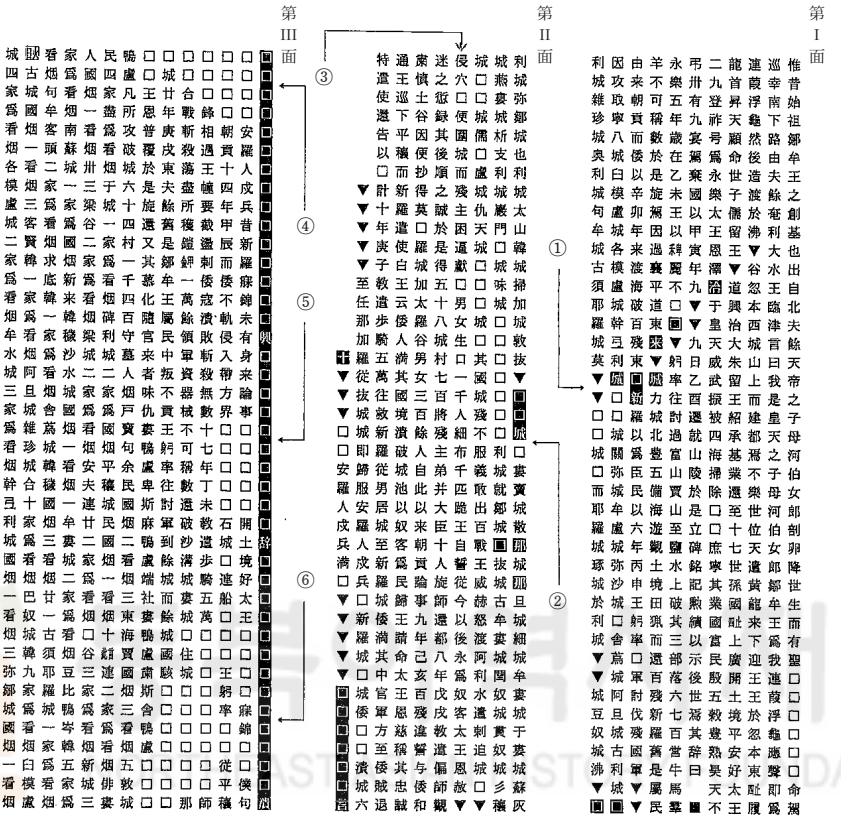


그림 1_ '서학원본' 불착묵 정황 복원도

불착묵 패턴 : 6포인트①②③④⑤⑥
■■■■■ : 불착묵의 자격(완전 공백의 자격)
▼▼ : 일부 불착묵의 자격(불완전 공백의 자격)
××: 武田幸男, 『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부록 2 「광개토왕비」에 의함

되는 '서학원본(書學院本)'이다. 이른바 '정효서본'의 실체는 저서 『광개토왕비묵본의 연구[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각론 제6장의 「서학원본과 관호력송본(關戶力松本)의 경우」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학원본'에서 알 수 있듯이 석회탁본이다. 동탁본은 1935년에 당시 만주각총리(滿州閣總理) 정효서의 명을 받아 문교부(文敎部) 사학관(史學官) 이등이팔(伊藤伊八)이 현지에서 제작을 담당한 20수본(本) 중 1본으

로 봐도 좋을 것이다. 척출(拓出) 연차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식적 탁본이고, 탁본 편년론에서 드문 귀중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그 연차는 『정효서일기(鄭孝胥日記)』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즉 일기의 1935년 5월 1일(양력)조와 7월 5일(양력)조에 제각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程明超來, 求往安東, 考察好太王碑
> 정명초(程明超)가 와서 안동에 거주하여, 호태주비(好太主碑)를 고찰할 것을 원하다.
> 程明超來, 言派往安東, 察看好太王碑情形
> 정명초가 와서 안동에 파왕(派往)하고, 호태왕비의 정형(情形)을 관찰할 것을 말하다.

정효서는 정명초의 요청을 받아 즉시 하명한 것 같고, 문교부 기구의 말단은 늦어도 7월 5일에서 9일까지 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서학원본'의 유형인데, 그림 1 착묵 복원도를 〈표 2〉 불착묵 패턴 대조표와 대조해보자. 우선 포인트 ①에서는 좌단에서 불착묵과 일부 전착묵(全着墨)의 자격(字格)이 좌상으로 뻗어 합쳐 9행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공백 부분의 '우측선단 7~9행', 동시에 '좌측 착묵'에 해당한다. 이 요건은【C3형】유형에만 적합하다.

기타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검증해보자. 포인트 ②에서는 다행히 공백 부분이 인정되며 이는 '1행×4~3자격'에 해당한다. 또 포인트 ③~⑥은 '착묵' 부분만 공백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즉 여섯 포인트 전부가【C3형】유형을 지향한다. '서학원본'은【C3형】유형으로 판정된다.

다만 포인트 ④~⑥에는 제1행 41자격의 공백 부분이 존재하며 자격을 세는 것이 어려운데, 제III면의 세 포인트에 대해서는 〈표 2〉 말미의 '자격의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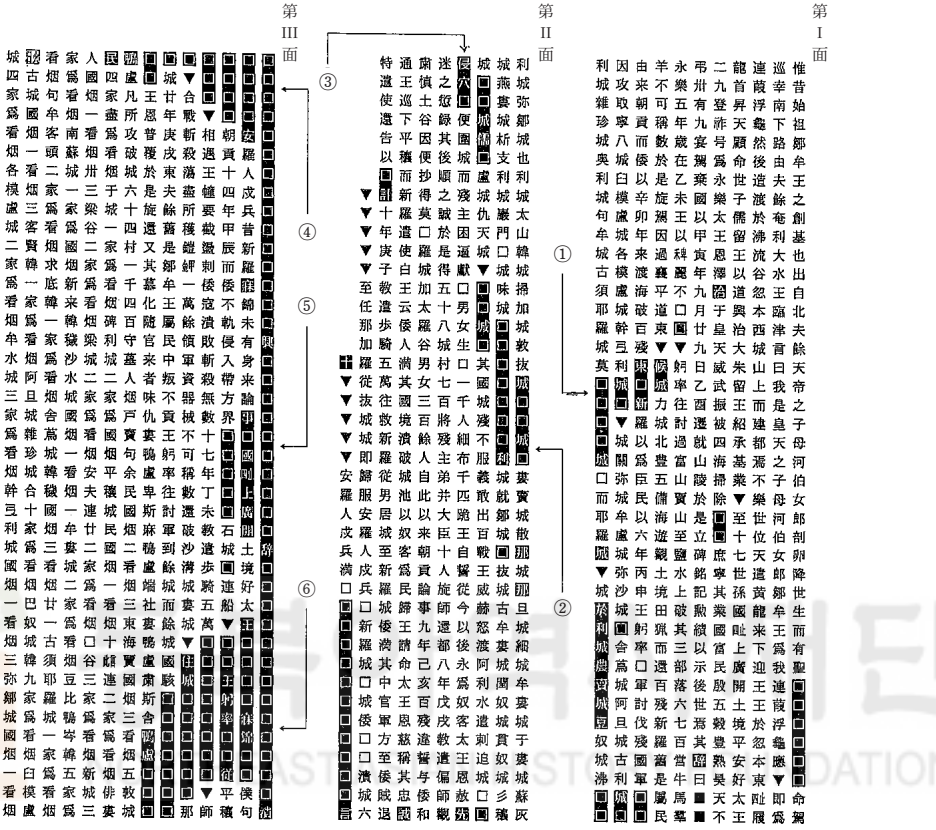


그림 2_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구장본(舊藏本) 불착묵 정황 복원도

법'을 참조하기 바란다.

착묵 정황의 특징은 담묵(淡墨) · 수자(瘦字)로 척출(拓出)되어 있고, 동 유형의 '관호력송본(關戶力松本)', '족립행일본(足立幸一本)'과 공통한다. 특히 석회문자 '황(黃)'[정석(正釋)은 '리(履)']자에 관해서는 그림 5에서 보듯이 통시적으로 정리한 각 유형 묵본 중에서 가장 흐릿하게 되어 있어 석독할 수 없고, 도부한 석회가 가장 탈락한 제작단계에서 특유한 자형을 표시한다.

서학원본의 용지법은 미조사다. 같은 유형인 족립행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어붙인 용지는 장방형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상과 크기는 일정하지 않고, 또 각 면도 상하 6단으로 이어져 있어 공통한다. 이상 지적한 속성은【C3형】유형에 공통하는 것으로【C3형】유형에서만 보이는 독자의 것이 있고, 다른 유형의 사례와 다른 것이다.

둘째는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구장본(舊藏本)'이다. 예전에 세키노 다다시가 소장한 탁본의 소재는 근년에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것은 1913년 고구려유적조사단을 인솔한 세키노와 그 일행이 집안에서 취득한 것이다. '세키노 다다시본[동대(東大)건축본]', '조선총독부본', '이마니시 류[今西龍]본'을 조합하면 동년에서 그다지 올라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탁본군으로 상정된다. 즉 이상의 네 탁본은 표식적 탁본에 준하는 귀중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림 2 착묵 복원도를 불착묵 패턴 대조표와 대조해보면 불착묵 부분은【C3형】유형에 비해 증가하고, 상당히 확대된다. 또한 포인트 ①의 공백부분은 연속 5행에 미쳐 전형적인【C1－2형】유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또 면밀히 기타 포인트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면 포인트 ②는 우단에서 연속 3행에 달하고, ▼인(印, 일부 불착묵의 자격, 불완전 공백의 자격)을 포함해서 상하 11자격이 나온다. 포인트 ③은 연속 3행×6자격, 포인트 ④는 우단에서 '민'자까지 연속 9행, 포인트 ⑤는 연속 3행, 포인트 ⑥은 연속 7행×11자격이 확인된다. 즉 전 포인트가【C1－2형】유형의 요건과 일치한다.

더욱이 묵색(墨色)이【C3형】유형에 비해 꽤 짙고, 또 전혀 석독할 수 없었던 그림 5의 문자는 석회가 탈락했기 때문에 약간 불분명하지만, '황(黃)'자로 읽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어붙인 용지의 기본은 거의 일정한 67×39cm 정도의 장방형이며 각 면 모두 9단으로 이어져 있다. 또 이어붙인 순서는 면마다 일정하고, 대략 단순하고 정돈되어 있다. 이상의 속성은 앞에서 지적한 같은 유형의 '세키노 다다시본', '이마니시 류본'의 사례와 합치하고 있고,【C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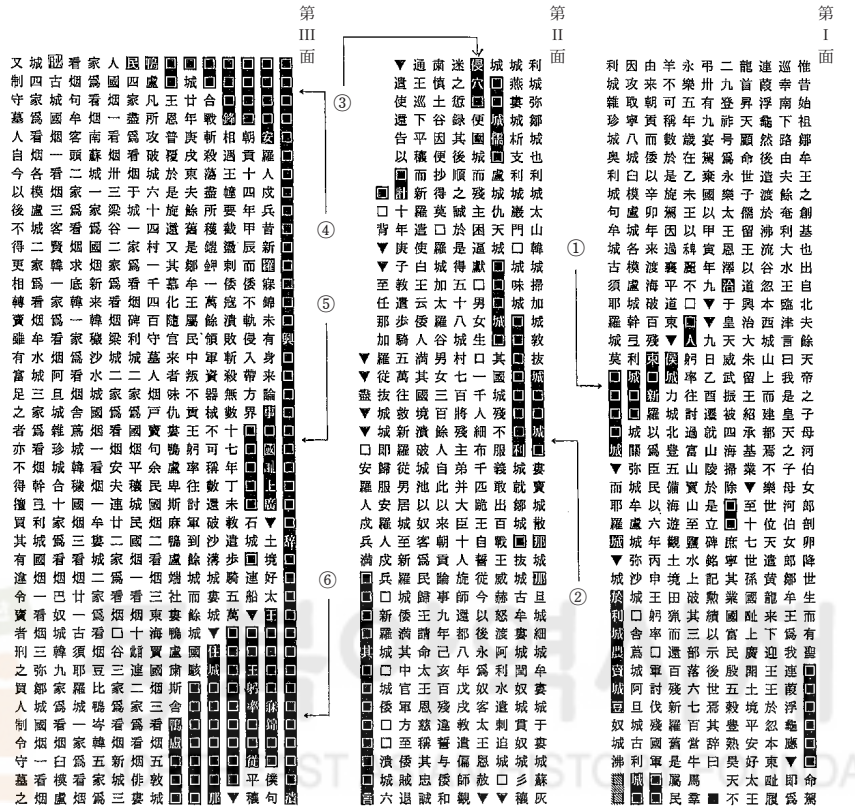


그림 3_ 요시다 도고[吉田東伍]본 불착묵 정황 복원도

2형】유형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요시다 문고본[吉田文庫本](요시다 도고본)'이다. 요시다 도고는 저명한 역사지리학자로 『일한고사단(日韓古史斷)』(富山房, 1893)의 저자다. 근년에 그는 구장(舊藏)의 묵본(墨本)을 자세히 볼 기회를 얻었다. 그 내력은 분명하지 않지만, 요시다 유키[吉田ゆき]와 이성시에 의하면 1915~1916년에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는 '세키노 다다시 구장본' 취득의 2~3년 후에 해당하며, 그렇다면 '요시다 도고본' 역시 표식적 탁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시다 도고본의 착묵 정황은【C1－2형】유형에 속하는 세키노 다다시 구장본과 거의 같은 패턴이 보인다. 그림 3을 불착묵 패턴 대조표와 대조하고 새롭게 확인해보면 세키노 다다시 구장본 포인트 ⑥의 '사(師)'자가 요시다 도고본에서는 불안전 공백으로, '나(那)'자가 완전 공백으로 변한 정도이고, 그 외에 포인트 ④~⑥의 3자격의 불완전 공백이 완전 공백이 되었을 뿐이다. 유형의 판정에 관련된 행(行)수와 자격 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포인트 ①은 미묘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키노 다다시 구장본의 연속 5행이 요시다 도고본에서는 ▼인(印)을 포함해서 '치(治)'자까지 최대 7행 연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탁본 실물에 의하면 공백 부분은 좌측에서 5행까지 연속하며 우측의 두 자 '(九)月廿(九)'의 좌단에 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거기에 다소 묵(墨)이 들어가 공백 부분이 종료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월(月)'자의 좌측에 작은 공백 부분이 존재하는데, 공백 부분의 '치(治)'자와는 연속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는 연속행수를 5행으로 보는가(【C1－2형】유형), 6행으로 보는가(【C1－3형】유형 또는【C2형】유형)다.

여기에서 상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포인트 ②~⑥이【C1－2형】유형의 '세키노 다다시 구장본'과 거의 합치하는 점이다. 또 기타 속성으로는 묵색의 농담과 비수(肥瘦)도 거의 같다. 다만 아마도 후에 첨가한 가묵(加墨)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림 5의 석회문자 '황(黃)'자에서 보듯이 요시다 도고본에는 석회탈락의 흔적이 매우 적은데, 선행하는 농묵(濃墨)의【C1－1형】유형과 후행하는 석독불능의【C2형】유형과는 명확히 다르다. 또 이어붙인 용지의 크기와 형상도 세키노 다다시 구장본과 거의 동일하고 각 면의 9단 구성도 변하지 않으며, 이어붙인 순서도 대개 일치한다(다만, 제II · IV면의 최하단은 역순서로 붙여져 후행 유형으로 기운다).

이 속성은 완전히【C1－2형】유형과 공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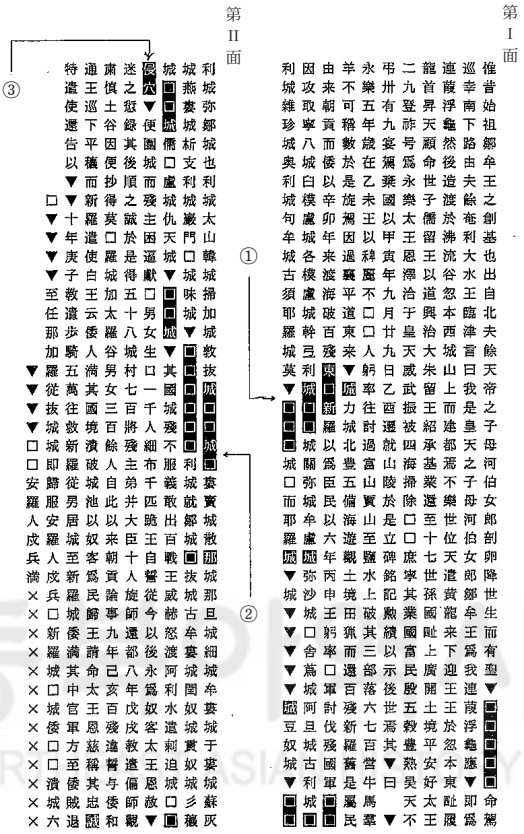


그림 4_ '문운당구장본(文運堂舊藏本)' 불착묵 정황 복원도
(제Ⅲ면 미상)

①은 다소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기준과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요시다 도고본은【C1－2형】유형으로 판정해두고 싶다.

넷째는 '문운당구장본(文運堂舊藏本)'이다. 이 탁본은 쉬젠신[徐建新], 『광개토왕비탁본의 연구[廣開土王碑拓本の研究]』(東京堂出版, 2006) 제6장 '호태왕비 초기석회탁본의 연구[好太王碑初期石灰拓本の研究]'에서 지적했듯이, 종래 알려진 석회탁본에 선행하는 '문운당구장본', 이른바 제작 개시기의 석회탁본을 발견하고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제시했다(제Ⅰ·Ⅱ면). 탁본의 내력은 분명하지 않으나 쉬젠신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여기에 선행하는 제작 개시기 탁본의 존재가 상정되기 때문에, 모두【C0형】우형을 신설해보고 싶다. 동 유형의 탁본은 지금 현재 결정적인 자료부족으로 착묵 정황과 여러 속성에 대해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지금 시도하는 선행하는 탁본은【C0－1형】유형, '문운당구장본'은【C0－2형】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표 2〉·〈표 3〉 참조).

'문운당구장본'을 포함해서【C0형】유형의 특징은 우선 다이내믹하게 석회를 바르는 방식에 있고, 이를 전제로 해서 분명한 담묵착묵(淡墨着墨), 자획의 비수(肥瘦)를 확인할 수 있다. 비(肥)인가 수(瘦)인가의 미묘한 견해는 '묵수곽전본'의 문자는 어느 정도 수(瘦), '원석탁본'과【C1형】유형 및 이하의 '석회탁본'은 다소 비(肥)라는 것에 유의한다.

특히 주의하고 싶은 것은 '착묵패턴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도리어 독자의 성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그림 4의 착묵 복원도를 불착묵 패턴 대조표의【C1형】유형 이하에 대조해보자. 우선 포인트 ②의 연속 2행×4자격은 해당하는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포인트 ①의 연속 4행은【C1－1형】유형으로, 포인트 ③의 연속 2행×4자격은【C1－3형】유형에 해당한다.

이는 문운당구장본의 유형을 판정할 때 불착묵 패턴 대조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획기적인 석회탁본의 제작을 착상해서 원석탁본의 흐릿한 점획을 명석하게 탁출하기 위해, 또 '묵수곽전본' 제작에 소요되는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을 삭감하기 위해 새로운 착묵기법과 용지법 발견을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했음에 틀림없다.【C0형】유형은 단기간에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대담하게, 혹은 신중하게 다양한 형태로 착묵기법을 공부했다고 생각된다. 불안정한 착묵 정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기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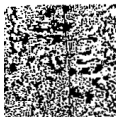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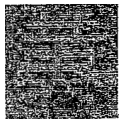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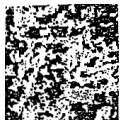
原石拓本 A형 水谷悌二郎本		石灰拓本 C1−2형 關野貞舊藏本	
墨水廓塡本 B형 酒匂景信本		石灰拓本 C1−2형 吉田東伍本	
石灰拓本 C0형 文運堂舊藏本		石灰拓本 C1−3형 梅津忠淸本	
石灰拓本 C1−1형 內藤湖南本		石灰拓本 C2형 梶本益一本	
石灰拓本 C1−1형 吳椒甫本		石灰拓本 C3형 書學院本	

그림 5_ 각종 묵본의 '리(履)'자[103−41]의 변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다. 착묵 정황이 안정된 것은【C1형】유형의 제작부터다.

본 장을 마무리하면서 잘 알려진 석회문자 '황(黃)'자[정석(正釋)은 '리(履)'자]의 자형(字形) 변화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그림 5에 제시한다. 유형별 및 같은 유형 내의 공통점과 상위점, 혹은 자형의 통시적 방향성에 대해 여기서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보고자 한다.

V. 원석탁본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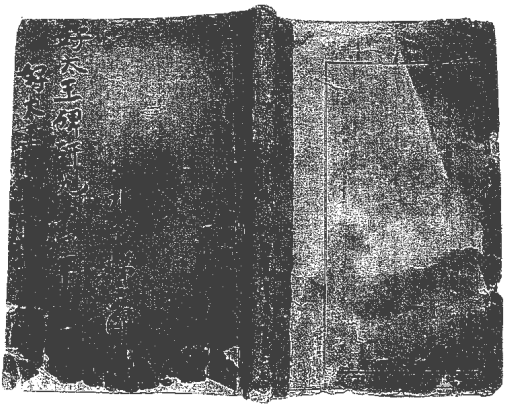
광개토왕비를 연구할 때에는 '묵수곽전본'과 '석회탁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들 연구는 최고(最古) · 최량(最良)의 묵본자료, 즉 '원석탁본'을 추구(追究)해서 그 조사, 연구에 집약되는 것을 중요 과제로 해보고 싶다. 원석탁본의 제작은 아마도 왕비(王碑)가 발견된 1880년에 시작되어 1887년 제작의 '양이본(楊頤本)', 이어서 '오대징본(吳大澂本)'이 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1889년 수탁(手拓)된 '이운종본(李雲從本)'이다. 이 탁본은 분명한 척출(拓出) 사정과 명확한 척출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몇 개가 존재하며 높이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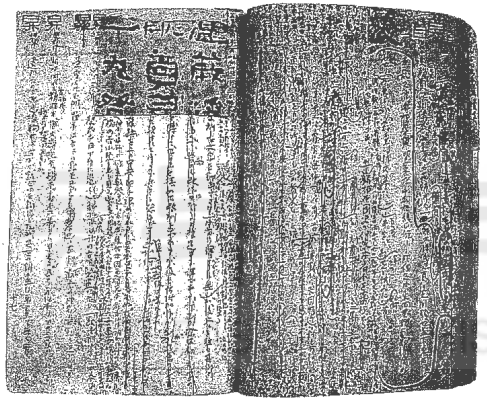
그러나 문자의 상당 부분이 흐릿하기 때문에 원석탁본 본래의 진가는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못한 것 같다. 사견에 의하면 원석탁본의 평가를 높이는 최초의 신호는 1898년의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 「고려고비고추가(高麗古碑考追加)」(『고고학잡지』 제2편 제5호)의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미야케는 '고마쓰노미야[小松宮]본'에 착안해서 '묵수곽전본'과 대조한 결과 사실상 원석탁본으로 판단하고 중시했다고 생각된다.

제2의 신호는 1913년의 세키노 다다시 · 이마니시 류에 의한 원비(原碑)조사이다. 세키노 다다시, 「滿州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時代の遺跡」(『고고학잡지』 제5편 제3호, 1914)과 이마니시 류,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久米邦武 著, 『訂正增補 大日本時代史』 古代, 1915)에 의하면, 비면에 석회 가면(假面)의 자를 만드는 석회탁본의 제작현장을 직접 보고 분개하는 한편, 학계와 학자들에게 그 사실을 경고했다. 즉 예기치 않게 발견한 석회탁본에 대해 석회로 가공하지 않은 원석탁본을 대치한 것이다.

제3의 신호는 본격적 · 획기적이었다. 1959년에 재야 연구자인 미즈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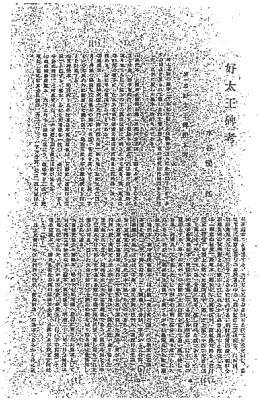
▶「호태왕비연구(好太王碑研究) 제2장」[「소화 20년고본(昭和20年稿本)」] 표지





◀위 고본의 「수(首)」 「리(履)」 자조(字條)

▶「서품(書品)」 100호와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논문(첫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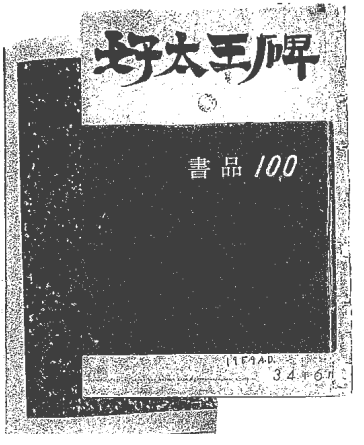


그림 6_ 미즈타니 데이지로의 고본(稿本) · 논문

데이지로[水谷悌二郎]의 「호태왕비고(好太王碑考)」(『書品』 제100호)가 그것이다. 미즈타니는 1945년 5월 15일, 미군기의 포격으로 주위가 초토화된 도쿄 본향궁정(本郷弓町)의 강전문아당(江田文雅堂)에서 염원했던 '최초 탁본'을 취득했다. 당일 일기에 '바로 최초 탁본임에 틀림없다. …… 3시 반 문아당(文雅堂), 400엔의 돈으로 보물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미즈타니 원석 탁정(拓整)본', 이른바 '미즈타니 탁본'이다. 미즈타니가 최초로 원석탁본을 적출하고, 최초의 원석탁본이라고 인식 후 입수했던 것이다. 제1의 신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경과할 즈음에 획득한 것은 '이운종(李雲從)본'이었다.

미즈타니는 획득한 이튿날부터 고본(稿本) 『호태왕비연구 제2장』(1945년 「고본」)의 개정에 착수한다. 이 고본은 미즈타니가 혼신을 다해 비문연구를 축적한 것으로 배지(背紙)에 세자(細字)로 쓴 문장은 반복해서 첨삭한 것이며, 전면은 거의 글자로 채워졌고 접히고 붙인 자국 등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미즈타니의 끝없는 집념을 볼 수 있는 산물이다.

이 고본을 기초로 왕비 연구사를 2분하는 획기적인 논문 「호태왕비고」를 발표했다. 논문의 발표를 앞두고 왕비 연구의 족적을 돌아보면, 1959년 4월 28일의 일기에 요령 있게 매우 명쾌히 지적하고 있다.

> ○선배는 (1)대개 수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음. (2)(나 미즈타니는) 이마니시 (류) 박사가 발견한 칠식(漆喰, 석회) 가면(假面)의 존재를 탁본 선별의 기준으로 함. ○류절(○劉節) 씨는 (1)을 실행하고, (2)를 모름. (3)(나는) 쌍구곽전본[雙鉤廓塡本, 묵수곽전본(墨水廓塡本)]을 연구함. (4)(나는) 쌍구곽전본의 탁본과 사진을 비교함. ○선배는 (3)을 했지만, (4)를 하지 않음. (5)(나는) 앞의 4항의 연구의 결론에 합치하는 고(古)탁본(미즈타니 탁본)을 얻을 수 있었음(괄호는 필자).

그럼 필자의 방법으로 다시 미즈타니의 연구성과를 정리해보자. (a)우선 관련자료를 가능한 한 수집해서 정리한 일, (b)기본적 유형의 묵수곽전본, 석회탁본에 주목해서 연구한 일, (c)특히 석회탁본의 석회문자를 상세히 지적한 일, (d)무엇보다도 원석탁본을 적출해서 그것을 취득하여 연구한 일, (e)그로부터 당시의 수준을 능가하는 '미즈타니 석문(釋文)'을 제시한 일, (f)탁본의 원초적인 유형, 편년론을 제시한 일, (g)이상으로부터 학술적인 왕비 연구의 기초, 기반을 확립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1945년 전쟁 종결의 어려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왕비 연구에 대한 미즈타니의 반세기에 미친 족적과 끝없는 열의와 집념이 자극제가 된 것은 아닐까.

1988년의 편저 『광개토왕비원석탁본집성(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2009년의 저서 『광개사일왕비묵본의 연구[廣開土一王碑墨本の研究]』는 오로지 미즈타니의 뒤를 좇아 겨우 도달한 지점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2006년의 쉬젠신, 『호태왕비탁본의 연구[好太王碑拓本の研究]』는 원석탁본의 조사, 연구를 더욱 추진시킨 것이다.

원석탁본의 편년, 유형도 다양하고 자료의 부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사견에 의하면 독자의 용지법(用紙法)과 착묵법(着墨法)을 기준으로 현재 다음의 네 유형이 지적된다. 비석 발견 직후의【A1형】탁본은 소지(小紙)에 한 문자나 여러 문자가 탁출된 것, 혹은 뒤에 가묵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현존 사례는 알려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 이어【A2형】탁본은 전4면의 착묵시에 용지가 총 150~160매 정도로 각 면 11~12단으로 구성되며, 다소 불착묵 부분이 확인되고 문자는 약간 두텁다. 현재 네 탁본이 확인되고 있다.【A3형】탁본의 용지는 총 60매 전후로 8~9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거의 전면에 착묵해서 수자(瘦字)다. 사진을 포함해서 두 탁본이 알려져 있다. 다음은【A4형】즉 1889년의 이운종 수탁본(手拓本)이다. 용지는

총 12매, 3단 구성으로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착묵이 거의 전면에 미치고 문자는 수자(瘦字)이다. 합쳐서 일곱 탁본이 현존하는데, 이것들은 최고(最古)·최량(最良)의 묵본 자료다.

광개토왕비의 학술적 연구는 이미 원석탁본 시대의 중심에 있다. 앞으로는 【A형】 유형의 제탁본을 중심으로 관련자료의 공개와 자유로운 학술교류를 하면서 해석문제와 묵본연구를 균형 있게 잘 융합하여, 착실하고 냉정하게 진전시켜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법종(趙法鍾)
한국고대사(고조선, 고구려사) 전공,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2006, 신서원), 『이야기 한국고대사』(공저, 2007, 청아출판사),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硏究」(1995, 『韓國古代史硏究』 8), 「衛滿朝鮮의 崩壞時點과 王險城 · 樂浪郡의 位置」(2000, 『韓國史硏究』 110), 「한국 고중세 백두산신앙과 만주명칭의 기원」(2009, 『韓國史硏究』 147) 등이 있다.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

지도와 능비문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조법종**

I. 머리말

고구려 광개토왕릉에 대한 비정 문제는 광개토왕릉비문 발견과 함께 일찍부터 검토되어 온 논의다. 이들 논의의 핵심은 광개토왕릉이 현재의 태왕릉과 장군총 중 하나일 것이란 관점에서 전개되었다. 전체적인 입장은 능의 전면에 비(碑)가 위치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 장군총 묘실 전면에 광개토왕릉비가 위치했기 때문에 장군총을 광개토왕릉으로 보는 입장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중국이 집안(集安)지역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집안지역 유적을 정비한 후 왕릉관련 유적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2004년에 『집안고구려왕릉(集安高句麗王陵)』을 발간하면서 새로운 입장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왕릉급 대형고분 발굴정비 과정에서 새로운 공간, 즉 '제대(祭臺)'로 표현된 제사 관련 공간유적이 대부분 집안지역 대형 고분에서 확인되었고, 다양한 유물이 반출되자 중국학계는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급 고분 비정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광개토왕릉의 위치를 기존 우세한 입장이었던 장군총에서 태왕

릉으로 비정해 발표하여 논란이 심화되었다.[1] 이후 한국·중국·일본 학계에서는 새로운 자료 및 기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론이 제기되었다.[2]

이들 논의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으로 보는 입장이 부각된 한편, 기존 논지의 입장을 강화해서 여전히 장군총이

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 文物出版社

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査測繪報告』;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 文物出版社 ; 이도학(2005), 「환인(桓仁)·집안지역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의 검토－태왕릉과 장군총의 피장자(被葬者) 문제 재론」, 『고구려연구』 ; 강현숙(2006), 「중국 길림성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1 ; 여호규(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 최종택(2006), 「집안 고구려 왕릉 출토 유물의 제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 東潮(2006), 「高句麗 王陵と巨大 積石塚」, 『朝鮮學報』 199·200合輯 ; 백승옥(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 이희준(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한국고고학보』 59 ; 張福有·孫仁杰·遲勇(2007), 『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 孫仁杰·遲勇(2007), 『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 張福有(2007), 『高句麗王陵統監』, 香港亞洲出版社 ; 魏存成(2007), 「集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研究」, 『社會科學戰線』 2007－4 ; 이도학(2008),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에 관한 신고찰」, 『고구려 발해 연구』 30 ; 공석구(2008),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조영」, 『고구려 발해 연구』 31 ; 정호섭(2008), 「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43 ; 이도학(2009), 「고구려 왕릉연구의 현단계와 문제점」, 『고구려발해연구』 34 ; 임기환(2009),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비정」, 『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東潮(2009), 「고구려왕릉과 능원제」, 『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桃岐祐輔(2009), 「고구려왕릉출토 기와, 부장품으로 본 편년과 연대」, 『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강현숙(2009), 「고구려 왕릉 복원 시고－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기경량(2010),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 『한국사론』 5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정호섭(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 篠原啓方(2011), 「高句麗太王陵出土銅鈴の釋讀について」, 『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 4, 關西大學 文化交涉學教育研究據點 ; 이도학(2011), 「고구려왕호와 장지에 관한 검증」, 『경주사학』 34 ; 김태식(2012), 「광개토왕비, 부왕의 운구 앞에서 청년왕이 보낸 경고」, 『한국고대사탐구』 10

광개토왕릉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유지되었다. 특히 한국 학계에서는 고고학적 논거를 중심으로 장군총을 여전히 광개토왕릉으로 보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필자는 광개토왕릉의 수묘인(守墓人) 관련 논고[3]와 태왕릉에서 발굴된 호대왕명(好大王銘) 방울에 대한 중국 측 발굴자료[4]를 소개하는[5] 과정에서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하였었다.[6]

이 글에서는 이 같은 논의의 기초적 자료 마련이란 차원에서 고구려 국내성지역인 집안지역에 대한 역사지리적 검토를 통해 고구려 국내성시기의 역사공간 정황 파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지도자료에 나타난 국내성 공간의 양상을 정리하고, 근대 중국 및 일본 지도자료에 나타난 양상과 연결지어 현재 집안지역의 역사공간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편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묘상입비(墓上立碑) 원칙과 이 같은 공간 정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趙法鍾(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硏究」, 『韓國古代史硏究』 8, 韓國古代史硏究會

4) 吉林省文物考古硏究所, 集安市博物館(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 文物出版社

5) 趙法鍾(2004), 「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 방울」, 『韓國古代史硏究』 33, 한국고대사학회

6) 조법종(2006), 「광개토왕 능원과 수묘제」,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II. 조선시대 지도자료에 나타난 국내성

1. 『건주기정도기』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는 신충일(申忠一)이 1596년(선조 29) 건주(建州) 누르하치 성[奴爾哈齊城]에 다녀와서 쓴 견문록[7]이다. 1595년 청(淸) 태조 누르하치가 여을고(女乙古) 등을 사신으로 보내어 통교를 요청해오자, 조선은 신충일을 답사로 보냈다. 신충일은 누르하치 성으로 가는 동안의 견문을 97개조로 나누어 쓰고 정밀한 지도를 붙여 완성했다. 그는 그해 12월 만포진(滿浦鎭)을 떠나 건주로 가는 동안의 정경과 누르하치 거점인 현재의 구노성(舊老城)의 상황 및 실정, 호인(胡人)의 동정·습관·군비(軍備) 등에 관해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만포에서 결빙된 압록강을 건너 현재 집안지역을 지나며 국내성지역에 대한 지도를 남겨 가장 오래된 국내성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원본에 산=흑색, 물=푸른색, 길=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산과 물줄기, 길이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본과 소개본[8]으로 현재 집안시내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지도에는 황성(皇城)과 황제묘(皇帝墓), 비(碑)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다. 위치로 볼 때 황제묘는 현재의 장군총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7) 1595년 한성부 南部主簿로 있을 때 奴兒哈赤의 居城에 들어가 그들의 발호에 대한 명나라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동정과 산천·풍습 등을 살펴 이듬해 1월 귀국, 복명하면서 韓滿史硏究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는 『建州紀程圖記』를 작성하여 올렸다.

8) 稻葉岩吉(1939), 『興京 二道河子 舊老城』, 建國大學校(滿洲) ; 李仁榮(1939), 「申忠一 『建州紀程圖記』에 대하야 – 최근 발견의 淸初史料」, 『震檀學報』 10 ; 李仁榮(1940), 「建州紀程圖記解說」, 『淸芬室叢刊』 v.1, 朝鮮印刷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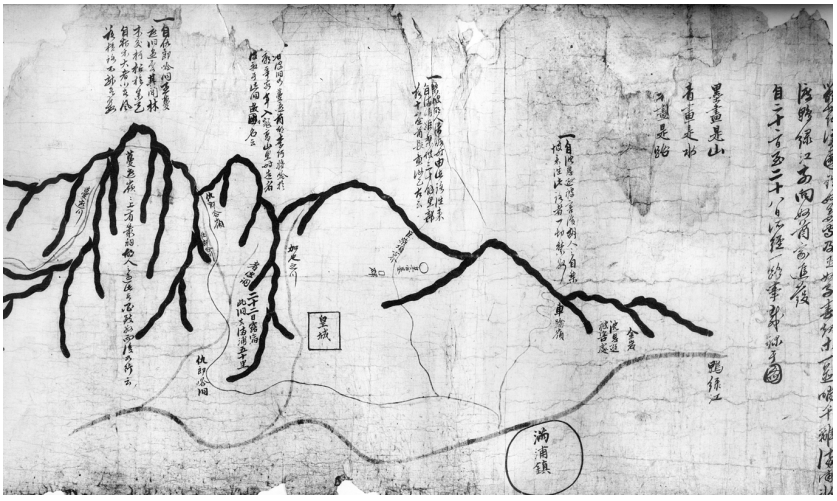


그림 1_ 신충일,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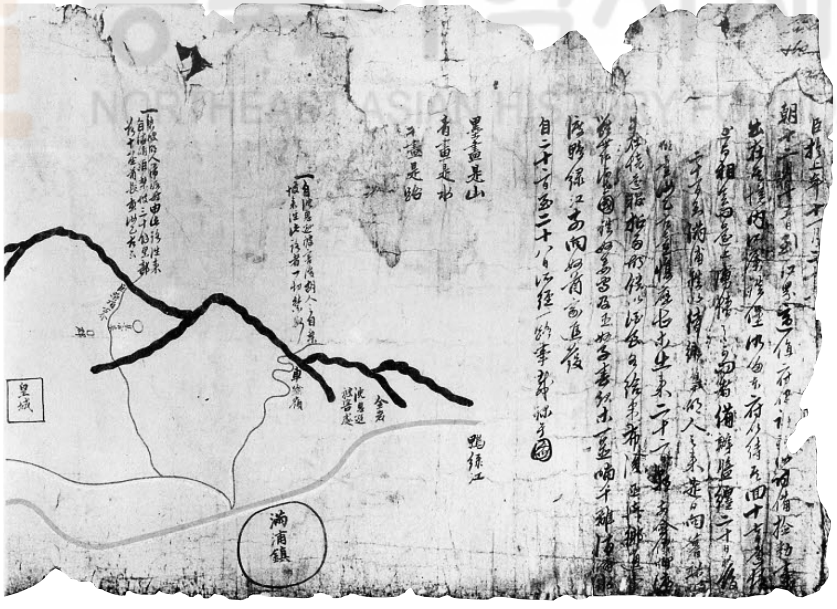


그림 2_ 稻葉岩吉(1939), 『興京 二道河子 舊老城』, 建國大學校(만주)에 소개된 원본상황 표시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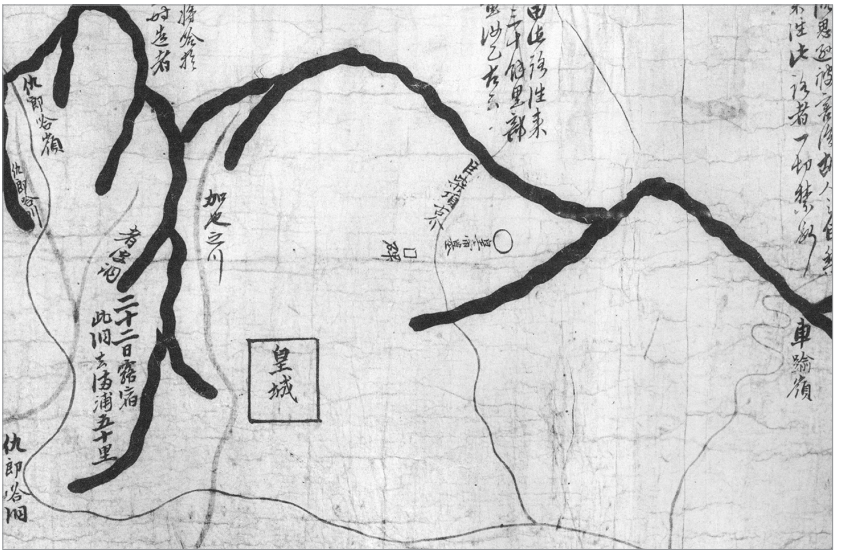


그림 3_ 국내성 부분 확대도

현재의 공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집안지역 앞을 흐르는 강에 대해 압록강(鴨綠江)이란 표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성유적에 대해 황성, 즉 금(金, 1115~1234)의 초기 도읍지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옆에 있다는 황제묘도 함께 그려져 있다. 내용을 보면 황제묘와 비 그리고 황성의 위치 대비 관계가 현재 상황에 부합하며, 국내성 옆을 흐르는 현재의 통구하(通溝河)와 마선구하(麻線溝河)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당시 통구하의 명칭은 '가야지천(加也之川)'이었고, 마선구하는 '구랑합천(仇郎哈川)'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토구자산 우측 자락을 넘는 길 쪽으로 '거유령(車踰嶺)'으로 표현된 교통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곳은 국내성시기 수레가 넘을 수 있는 고개를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한편 현재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 사이에 나있는 '집청공로(集青公路)'길과 거의 일치하는 길이 표시되어 있다. 이 길은 현재 통화에서 집안으로 진입하는 길로서 현재의 우산



그림 4_ 현재 집안지역 지도 – 태왕릉 주변

(禹山) 측면 자락을 넘어가는 고개로 '거시항고개(巨柴項古介)'로 표현하고 있다. 이 길은 현재 집안 – 통화 철길이 연결된 곳이다. 이 고개에 대해 "梨坡胡人歸順時 由此路往來 自滿浦距梨坡三十餘里 部落十八座 酋長童汝乙古云", 즉 "이파는 호인들이 귀순할 때에 이 길로 왕래한다. 만포로부터 30여 리 떨어져 있는데 부락은 18가구로 추장은 동여을고라 한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를 통해볼 때 현재 태왕비와 장군총 사이의 '집청공로'는 여진인들이 조선과 교류할 때 활용한 교통로로서 만포진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은 고구려시기에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장군총과 태왕비 사이는 교통로로 구분되는데, 그 사이에 계곡 물길이 존재하여 자연적으로 경계가 형성된 상황임을 보여준다. 태왕비와 장군총 공간은 별

개의 공간으로 양분되고 있음이 1596년 시점에도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그림 4의 현재 집안지역 지도에서도 확인된다.

2. 『해동지도』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건주기정도기』로부터 약 150여 년 뒤인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의 평안도 강계부 지도[9]에는 현재의 집안지역이 앞서 『건주기정도기』의 모습과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유적에 대한 이해와 물길의 위치 및 명칭 등이 혼돈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만포진 건너편에 표시된 오국성(五國城)이다. 이는 앞서 금(金)의 황성으로 인식되었던 곳으로, 금에 포로로 잡혀왔던 송나라 황제가 유폐된 오국성[10]으로 이를 파악한 모습이다. 또한 이 지도는 앞서 파악된 두 물길이 국내성지역의 좌우로 배치되어 있고, 국내성 옆에 대형 고분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제작시기 : 1750년대 초, 규격 : 47.0×30.5cm, 구성 : 8책, 1750년대 초에 제작된 회화식 군현지도집.

10) 五國城은 북송의 徽宗과 欽宗이 1126년 도읍인 개봉을 함락당하고 포로로 잡혀 금나라로 끌려가 억류생활을 하다가 죽은 '靖康의 變(1126~1127)'을 당한 황제들과 관련된 곳이다.
금나라는 북송 휘종과 흠종을 비롯한 황후, 황태자, 친왕, 공주, 황족 등 무려 3,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 이들을 북쪽으로 끌고 와 백두산 남쪽 五國城에 억류하고는 휘종에게는 重昏候, 흠종에게는 昏德公이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붙이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생활을 하다가 죽게 된다. 금나라는 후일 휘종이 죽은 뒤 휘종(당시 남송 고종의 아버지)의 유해와 남송 고종의 생모인 위씨는 송환했지만, 흠종은 끝내 송나라로 돌려보내지 않아 그는 오국성에서 죽어 그 부근에 묻히게 된다. 이 오국성을 조선시대 일부 학자들은 현재의 집안지역으로 오해하고 오국성이란 표현을 기록하였다. 18세기 초~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에는 오국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데, 바로 黑龍江 북안 밖이다(서울대 규장각, 해동지도 자료해설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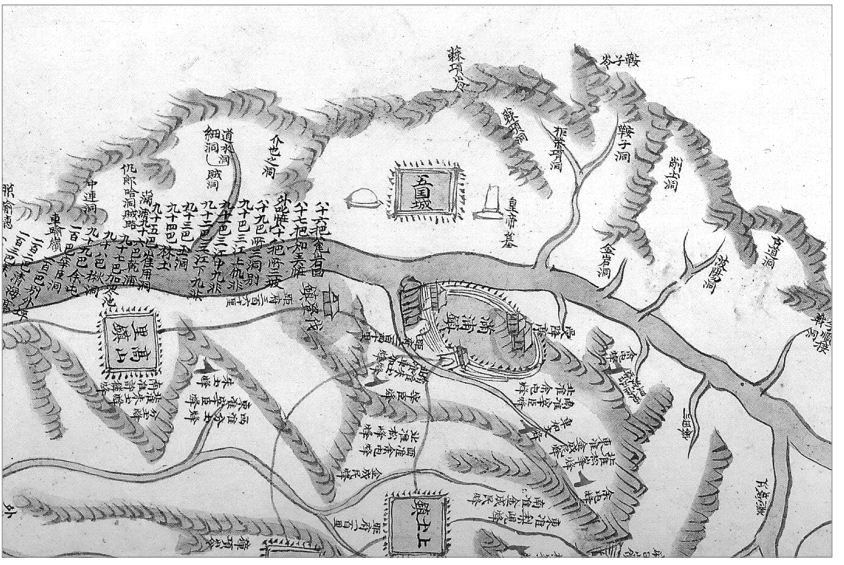


그림 5_『해동지도』 강계부 지도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묘사되고 광개토왕릉비를 우측에 배치하는 등 전반적 오류와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해동지도』 강계부에 묘사된 내용은 기존 금의 초기 도읍으로 보는 인식에 송황제의 유배처인 오국성으로 보는 인식이 중첩되어 부정확한 위치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3. 『팔도지도』 「고축 4709-48」 평안도 국내성지역

『팔도지도(八道地圖)』 「규장각, 고축(古軸) 4709-48」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원본 계통의 평안도 지도다.[11] 이 지도는 국내성지역에 대해 '황성평(皇城坪) 고

11) 『東國大地圖』는 조선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지도다. 42만분의 1 축척의 『동국대지도』는 축척과 방위가 매우 정확하며 최초로 백리척을 이용하여 축척을 나타내고 지도



그림 6_『팔도지도』「고축 4709-48」 평안도(규장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금도(故金都)'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금(金) 관련 유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유지

상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상기의 발문에는 평안도의 동북쪽이 넓어 함경남도의 지도에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평안도에 속한 古閭延과 古茂昌의 영역이 본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지도의 위쪽에는 세종 때 개척되었다가 세조 때까지 모두 폐해진 廢四郡 중 본 지도에 그려진 虞芮廢郡과 慈城廢郡의 사방 경계 및 유례가 간략하게 적혀 있다. 가운데 위쪽의 압록강변에 있는 理山은 1776년(영조 52)에 楚山으로 개명되지만 본 지도에는 개명되기 이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도 위쪽에는 英宗(즉 영조) 丙申년(1776)에 理山과 嗣聖(즉 정조)의 이름이 소리가 가까워 고호인 楚山으로 개정한다는 주기가 적혀 있다. 이를 통해 본 지도가 원본을 거의 그대로 필사하면서 이후의 지명 변화를 주기에 반영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오른쪽 위의 지도 이름 근처에는 평안도가 鐵嶺關 서쪽에 걸쳐 있어 關西라 부르며, 청천강 일대를 중심으로 남북(淸北과 淸南)으로 나눈다는 짤막한 유래가 적혀 있다. 李丙燾(1965), 「鄭尙驥와 東國地圖」, 『書誌』 1-1 ; 方東仁(1976), 『한국의 지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오상학(1999), 「농포자 정상기와 동국지도」, 『국토』 v.210(1999-04)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가운데 위쪽의 압록강 맞은편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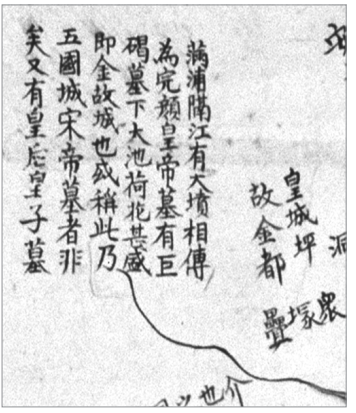


그림 7_『팔도지도』 설명 부분

> 만포에서 강을 건너면 큰 무덤이 있는데, (금나라의 초대 황제인) 완안황제묘(完顔皇帝墓)라 전해진다. 큰 비석이 있고, 무덤 아래의 큰 연못에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금나라의 옛날 성이다. 혹 이것이 오국성의 송나라 황제묘라 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황후와 황자의 묘도 있다(萬浦隔江有大墳 相傳爲完顔皇帝墓 有巨碣 墓下大池 荷花甚盛 卽金故城也 或稱此乃五國城 宋皇帝墓者非矣 又有皇后皇子墓).[12]

이 지도에 수록된 내용[13]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황제묘로 설명된 장군총과 함께 거갈(巨碣), 즉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소개 및 묘 아래에 존재한 큰 연못에 대한 언급이다. 본문의 "有巨碣 墓下大池 荷花甚盛"에서 언급된 묘는 앞서 황제묘로 언급된 대분(大墳) 또는 별개의 묘로도 볼 수 있다. 일단 장군총으로 이해하면 이 내용은 "큰 비석이 있고 묘 아래에[墓下] 있는 큰 연못[大池]에 연꽃이 만개해 피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황제묘로 파악된 장군총 아래 부분에 연꽃이 만개한 연못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지형을 감안할 때 태왕비(太王碑)와 임강총(臨江塚) 사이로 흘러내리는 계곡물과 연결된 연못이거나 임강총 아래 도모구(刀茅溝)지역에 남아 있는 연못

12) 『八道地圖』(古軸 4709-48),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지도
13) 이기봉, 「팔도지도(古軸 4709-48) 해제」,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지도



그림 8_ 무용총 연꽃문양과 현악기를 연주하는 신

형태의 물웅덩이 지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장군총 아래 지역에 연꽃이 만개한 큰 연못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황후묘와 황자묘를 언급하고 있는 점은 태왕릉을 비롯한 여러 고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도에 여러 무덤이 겹쳐 있다는 '중총첩(衆塚疊)'이란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팔도지도』에서는 장군총 아래, 즉 현재 임강총과 광개토왕릉비 사이 계곡으로 흐르는 물길과 연결된 거대한 연못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재 집안지역 평야지역의 상당 부분이 습지와 연못 등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정황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연꽃이 단순히 불교 영향에 의한 불교적 이미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국내성지역 연못 및 물웅덩이에 연꽃이 상당수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무용총에 묘사된 '연꽃문양과 현악기를 연주하는 신'의 모습이나, '묘주가 손님과 평상에서 담소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에서 주변에 연꽃이 만개한 모습 등은 국내성지역의 습지 등에 만개하였던 연꽃 이미지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즉 고구려 고분에 자주 등장하는 연꽃 문양은 이 같은 국내성의 자연환경과 연결되어 나타난 대표적 의장이었다고 파악된다.

4. 『동역도』 및 『광여도』 평안도 강계부에 표현된 국내성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통의 하나인 『동역도(東域圖)』의 평안도 부분에 나타난 집안지역은 앞서 오국성(五國城)으로 파악한 인식이 나타난 전형적인 지도다. 『동역도』에는 황성평(皇城坪), 황제묘, 오국성, 금국소도(金國所都)라고 표시되어 있다.

한편 1800년경에 만들어진 『광여도(廣輿圖)』의 강계부 지도에 나타난 집안지역의 모습은 국내성이 오국성으로 표현되었고, 광개토왕릉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특히 집안지역 명칭으로 구즉합동(仇卽呵洞), 개야지동(介也之洞)과 함께 거시항(拒柴項), 극항동(棘項洞), 극성령(棘城嶺) 등의 명칭이 나와 주목된다. 그리고 극항동 근처에 여러 무덤이 겹쳐져 그 수를 알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현장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제시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9_『동역도』 평안도, 집안 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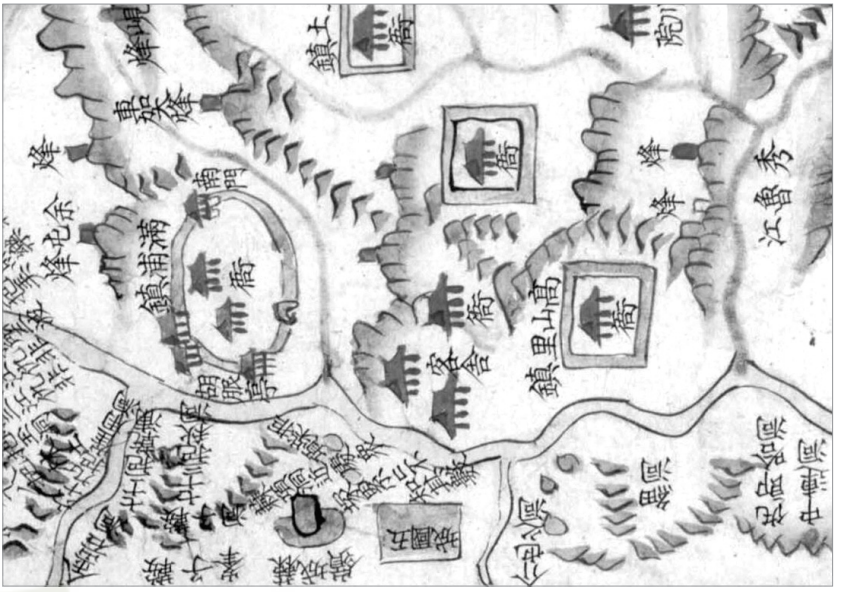


그림 10_『광여도』 평안도 강계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에 나타난 국내성

1860년경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집안지역은 관련 명칭 중심으로 표현이 나타나 있다. 즉 유적과 관련된 명칭으로는 황묘(皇墓), 황성(皇城), 주변 명칭으로 여운포(如雲浦), 금암(金岩), 거시항동(据柴項洞), 개야지동(介也之洞), 구랑합동(仇郎哈洞), 고도수동(古道水洞), 세동(細洞) 등의 명칭이 보인다. 이들 명칭은 앞서 제시된 지도들과 비교할 때 명칭의 순서와 위치가 제대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동여도』에는 황묘, 황성평(皇城坪)과 함께 고환도(古丸都)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명칭으로 여운포(如雲浦), 금암(金岩), 거시항동(据柴項洞), 개야지동(介也之洞), 구랑합동(仇郎哈洞), 고도수동(古道水洞), 세동(細洞) 등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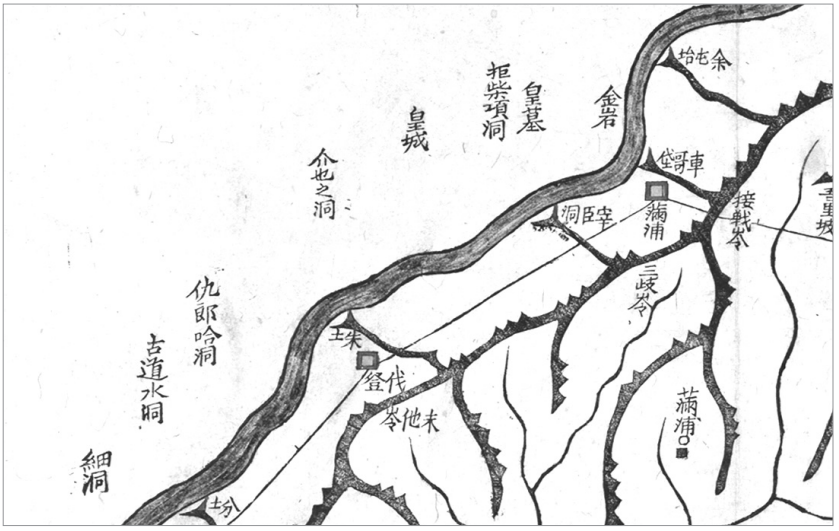


그림 11_『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집안지역

록되어 있다. 주목되는 것은 '고환도'라는 표현이다. 환도는 고구려 태조왕 및 산상왕 때 기록에 등장하는 집안지역에 대한 표현[14]으로, 앞서 오국성으로 표현하던 내용이 바뀌고 고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15] 이것은 이 지도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이 지역에



그림 12_『동여도』에 나타난 환도 명칭

14)『三國史記』卷第15「高句麗本紀」第3 太祖大王, "九十年 秋九月 丸都 地震";『三國史記』卷第16「高句麗本紀」第4 山上王, "二年 春二月築 丸都城"

15) 그러나 여전히 황묘와 황성이란 표현이 병존하고 있어 古丸都라는 표현 등장에 대해 별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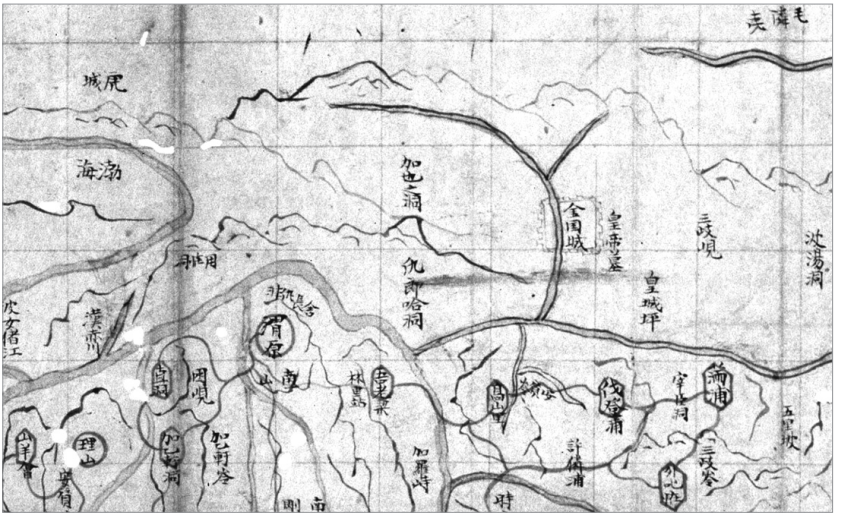


그림 13_『조선고지도』(고4709-77)에 나타난 집안

대한 지명 전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흔적이다.

또한 주목되는 표현은 황성평(皇城坪)이다. 이는 황성에 평(坪)이 부가된 것으로 이미 조선 연산군 시기에 언급된 황성평[16]이 지도로 표현된 사례다. 황성평이란 표현은 현재 집안시 압록강 연안의 평지부분으로 구체화된 공간, 즉 평평한 평원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다.

『여지도』 평안도지도에는 오국성, 황제묘와 함께 금암동(金岩洞), 거자항(巨紫項), 개야지동(介也之洞), 구랑합동(仇郎哈洞), 고도수동(古道水洞), 세동(細洞), 삭북동(削北洞) 등이 보인다.

또한 『조선고지도(朝鮮古地圖)』(고4709-77) 평안도지도에는 주변 상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16) 『燕山日記』 28卷, 3年(1497 丁巳, 명 弘治 10年) 10月 7日(乙亥), "三衛宣諭官童淸禮復命啓 …… 二十五日, 臣乘舟, 夕宿高山里. 甫下土等越江宿皇城坪"

지도에서 주목되는 점은 금국성(金國城)으로 표현된 국내성의 모습과 국내성 서벽 쪽으로 흐르는 통구하의 물줄기가 성 안을 관통하는 것으로 묘사된 점이다. 이 내용은 현재의 국내성 성곽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국내성 뒤에 존재하였던 환도산성에 대한 정보가 중첩되어 함께 묘사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또 하나 이 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황제묘 밑으로 묘사된 황성평이다. 현재의 집안시내에 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림 14_『지도』(고4709-92) - 평안도지도

『지도』(고4709-92) - 평안도지도는 금국성(金國城)과 옆에 파자성천(破子城川)이란 명칭이 병기되어 주목된다. 즉 금국성과 달리 또 다른 성의 존재를 염두에 둔 파자성천이란 표현은 환도산성이 물줄기에 의해 나뉜 듯한 상황과 연결되는 것으로, 환도산성을 고려한 명칭이다. 다른 지도와 달리 국내성과 환도산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통구하와 마선구하가 함께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되는 『지승(地乘)』(규15423) 강계부에 나타난 집안지역의 모습은 상당히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집안의 지리적 정황을 가장 근접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국내성을 오국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통구하 오른쪽 옆에 정확히 배치한 것과 광개토왕릉비를 염두에 둔 비석 및 거대 봉분의 모습을 6기 표현한 것 등은 집안지역에 대한 공간적 정황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 능선의 표현을 형세에 맞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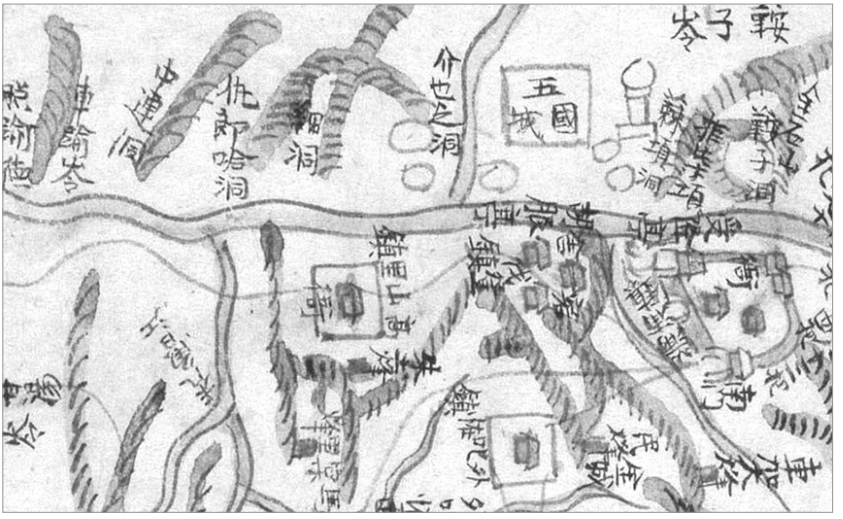


그림 15_『지승(地乘)』(규15423) 강계부

표현하여 국내성 우측의 우산 능선과 통구하 왼쪽의 칠성산 능선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금암산(金岩山), 안자동(鞍子洞), 안자령(鞍子岭), 거시항(拒柴項), 극항동(棘項洞), 개야지동(介也之洞), 세동(細洞), 구랑합동(仇郎哈洞) 등 관련 명칭이 표시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I. 집안지역 지리지, 지도에 나타난 국내성 공간

1. 『집안현 향토지』(민국 4년, 1915)

『집안현 향토지』[17]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당시 집안지역의 지리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항목으로 지리, 산수(山水), 도로 등의 항목이 확인된다.

지리 항목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은 집안현성에 대한 내용이다. 현성에서 제시된 내용은 고성(古城), 성황묘(城隍廟), 관제묘(關帝廟), 학당(學堂), 순검구서(巡檢舊署), 열연교(閱蓮橋), 도구(渡口)다. 이 가운데 당시 지리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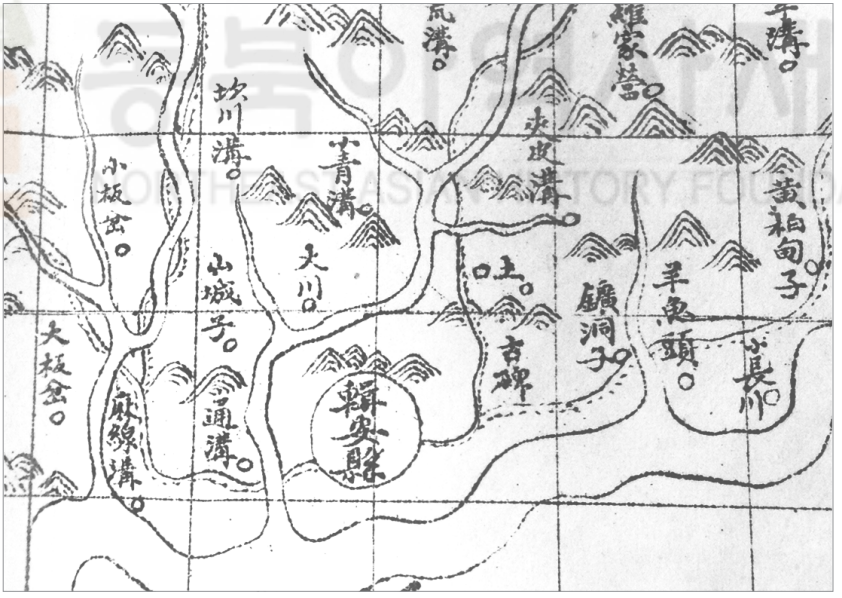


그림 16_『집안현 향토지』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모습

17) 吳光國(1915), 『輯安縣鄉土志』, 新作印刷局

로 주목되는 것이 열연교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東門外溪水自東岡來繞城南面西入通溝河 橋之東南有蓮花泊.[18)]
> 동문 바깥 계곡물은 동강으로부터 오는데, 성의 남쪽면을 돌아 서쪽으로 통구하에 들어간다. 다리의 동남쪽에 연화박(蓮花泊)이 있다.

이 내용은 국내성 동문 쪽으로 물이 흐르는 수로가 존재하며 이를 건너기 위한 다리가 이 시기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물이 동강(東岡)지역, 즉 현성(縣城)의 동쪽 5리에 있는 현재 우산(禹山) 아래 능선일대 지역에서 흘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서 언급한 동문의 위치는 국내성이 민국 10년(1921) 대대적으로 보수되면서 형태가 바뀌기 전인 1914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가 조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19)] 동벽과 남벽이 만나는 부분에 거의 인접해 표시되고 있다. 이는 현재 집안시내 동벽지역에서 서문으로 연결되는 승리로(勝利路)와 대략 일치하는 공간에 동문이 위치하며, 그 바깥에 계곡수가 흐르는 하천과 다리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20)]

흥미로운 것은 다리 이름이 '열연교(閱蓮橋)'라는 점이다. '연꽃을 헤아린다'는 의미의 열연교는 앞서 『팔도지도』에서 집안지역에 대한 설명에서 나온 연꽃이 흐드러지게 핀 큰 연못의 존재를 언급한 상황과도 연결된다. 즉 1700년

18) 吳光國(1915), 『輯安縣鄉土志』, 76쪽
19) 關野貞(1914), 「滿洲輯安縣及平壤附近於高句麗時代遺跡」, 『考古學雜誌』 5卷 3號 聚精堂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6~7쪽 재인용
20)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집안에 거주하는 40~50대 조선족들의 증언으로 국내성 남벽 일대에 큰 하천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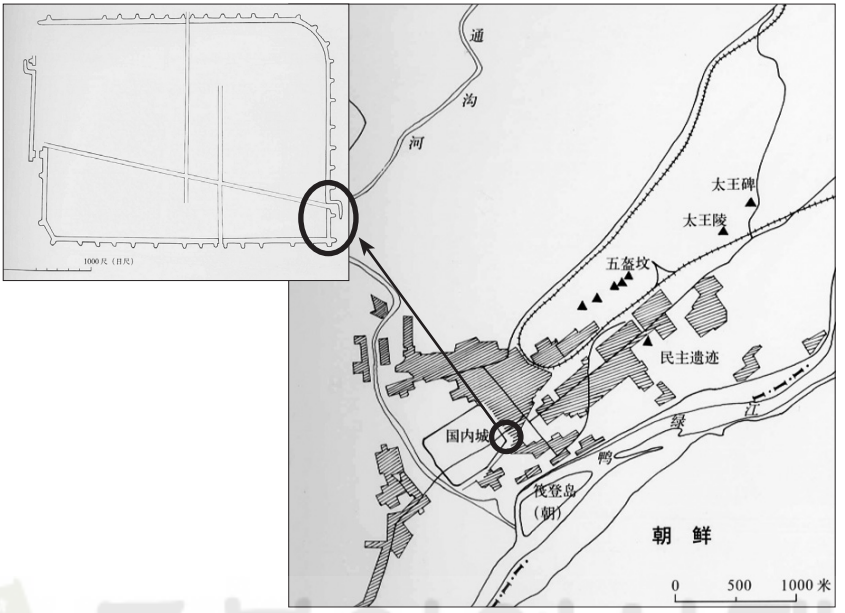


그림 17_ 關野貞(1914), 『滿洲輯安縣及平壤附近於高句麗時代遺跡』에 나와 있는 국내성 성문 모습과 현재 위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 장군총 아래 부분의 연꽃 연못과 연결되는 공간상황이 국내성 동문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리 동남쪽에 연화박(蓮花泊)이 있다는 표현은 바로 압록강과 연결되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나루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그 명칭이 연화라는 것도 앞서 상정한 연꽃이 국내성지역을 장식한 요소일 것이란 점과도 연결된다. 결국 현재 국내성 동문 쪽과 남벽(南壁)에 거의 인접해 하천이 흐르고 동문 바깥에 다리가 존재했으며, 다리 동남쪽에 압록강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나루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조선시대 지도자료들과 연결 지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 수백 년 전과 연결되는 상황이며, 고구려시대로 소급 가능한 상황이라고 유추된다.

한편 수로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행정구역상 나눈 집안현성 지역은 통구하로, 동강(東岡)지역의 물은 동강수(東岡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 설명을 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강변 연안로는 대부분 지로이고 중요 교통로의 본선은 산 능선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성의 동쪽방면 도로체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城之東方行五里至東岡與羊魚頭 支徑會其支路 東方自黃柏店子來向西行十五里爲礦洞子 渡羊魚頭河至下羊魚頭 逾嶺二十里來會本路.[21]
> 성의 동쪽방면은 5리를 가면 동강(東岡)과 양어두(羊魚頭)에 다다른다. 지름길은 샛길로 모이는데 동쪽은 황백점자에서 서쪽으로 15리를 가면 광동자가 되고, 양어두하(羊魚頭河)를 건너[渡] 하양어두에 이르러 고개를 넘어 20리를 오면 본길에 이른다.

상기 내용을 보면 현재 압록강 연안을 활용한 집안 교통로 체계와 달리 본로는 산의 계곡과 능선을 활용하고 있으며, 압록강 연안의 교통로는 특히 양어두하를 건너야 하는 등 거리는 단축되지만 불편한 교통체계였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역시 고구려시기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고 파악된다.

2. 『집안현지』(민국 20년, 1931)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모습

1931년 편찬된 『집안현지(輯安縣志)』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현의 행정구역 지도에 나타난 모습[22]이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모습은 현성 오른쪽에

21) 『輯安縣鄉土誌』(1915), 道路 43
22) 劉天成等修(1931), 『輯安縣志』, 吉林 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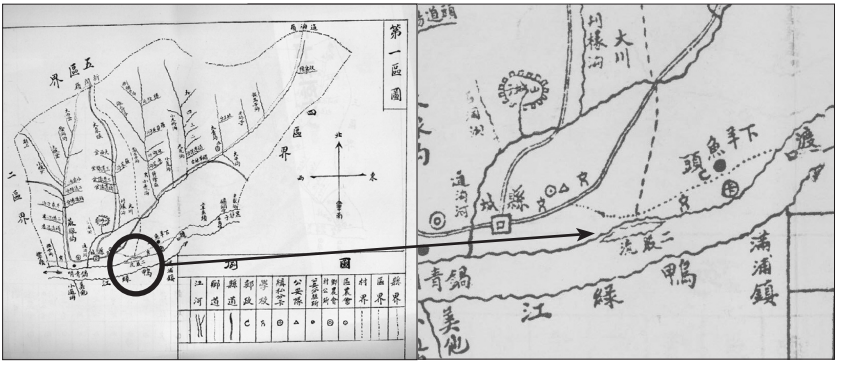


그림 18_ 民國 20년(1931) 『집안현지』에 나타난 집안지역 모습. 이고류(二股流)지역이 섬으로 표시됨.

묘사된 이고류(二股流)의 모습이다. 현재 이고류지역은 집안시내로 편재된 육지 지역인데 1931년 지도에는 압록강 안에 존재하는 섬으로 집안 시내지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팔도지도』와 1915년간 『집안현 향토지』에 언급된 정황을 더욱 구체화해준다.

한편 교량을 설명하면서 집안현 시내에 존재하는 고정된 교량에 대해 다음의 네 개를 제시하고 있다.[23]

閱蓮橋 在縣城經武門外木橋 長二丈寬一丈二尺 赴東岡者所必經
秩東橋 在東岡村木橋 長二丈寬一丈五尺 赴土口嶺者經此橋
阜民橋 在襟江門外木橋 長一丈五尺寬九尺 赴江沿者經此僑
會文橋 在濬文門外木橋 長三丈寬五尺 自縣城西行經此橋

이들 다리는 앞서 1915년에 언급된 열연교에 세 개의 다리가 추가된 내용이다. 민국 10년(1921) 국내성을 대규모로 중수할 때 이들 다리의 언급이 없었

23) 『輯安縣志』 권4 교량

던 것으로 보아 원래부터 있었던 다리로 추정된다. 다리의 구성은 동문인 경무문(經武門)과 연결된 다리가 열연교이고, 이어져서 동강지역에 질동교(秩東橋)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성지역에서 태왕릉이 있는 태왕향(太王鄕) 일대인 동강촌(東岡村)지역으로 가서 현재 집안으로 진입하는 토구자산(土口子山)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지나가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赴土口嶺者 經此橋). 또한 다리 길이도 열연교보다 조금 더 긴 2장(丈)의 길이에 1장 5척의 폭을 갖는 규모로, 동강을 흐르는 하천의 중간 규모가 2장에 달하는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문지역에는 부민교(阜民橋)가 설치되었는데 압록강 연안으로 가려는 자는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회문교(會文橋)는 서문인 준문문(濬文門)을 나가 통구하 쪽을 건널 때 사용하는 다리로 파악된다.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집안시내 동쪽방향에는 다리를 건너가야 할 계곡형의 물줄기가 최소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폭도 최소 6m 내외의 규모로 실제 폭은 더 넓었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성 동강, 즉 태왕릉과 장군총이 있는 지역을 흐르는 제법 큰 물길이 두 개 이상 존재함을 알려준다.

한편 '집안현성전경십육경(輯安縣城全境十六景)'[24]의 소개 중 동곽연당(東郭蓮塘)과 남계징파(南溪澄波)의 내용은 성 동쪽의 연꽃 연못과 성 남쪽 통구하물의 맑은 물결을 부각한 것으로, 앞서 집안지역 물줄기의 흐름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24) 『輯安縣志』 卷1, 輯安縣城全境十六景

3. 일본지도 및 자료에 나타난 국내성지역

일본이 만주 진출을 위해 1933년 제작한 5만분의 1 지도와 1938년 국내성 지역에 대한 본격적 학술조사자료인 『통구(通溝)』 상(1938)에 나타난 국내성지역의 모습을 보면 그림 19, 20과 같다.

특히 『통구』의 지도를 보면 광개토왕릉비(도로 우측에 비 표시, 실제는 도로 좌측)와 장군총이 도로에 의해 구분되고 있으며 이고류지역이 섬처럼 구분된 상황이 잘 묘사되고 있다. 특히 서강(西崗) – 집안현성 사이에 하천이 뚜렷하게 표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 지도는 현재 집안지역의 공간지형을 바꾸게 된 대표적인 요소, 즉 집안 철도 개설에 따른 집안 평야지역 물길 변화와 운봉(雲峰)댐 건설에 의한 압록강 수량 변화 현상이 반영되기 전의 모습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다. 1936년 2월~1938년 5월 사이에 완성된 집안까지 연결된 철도인 매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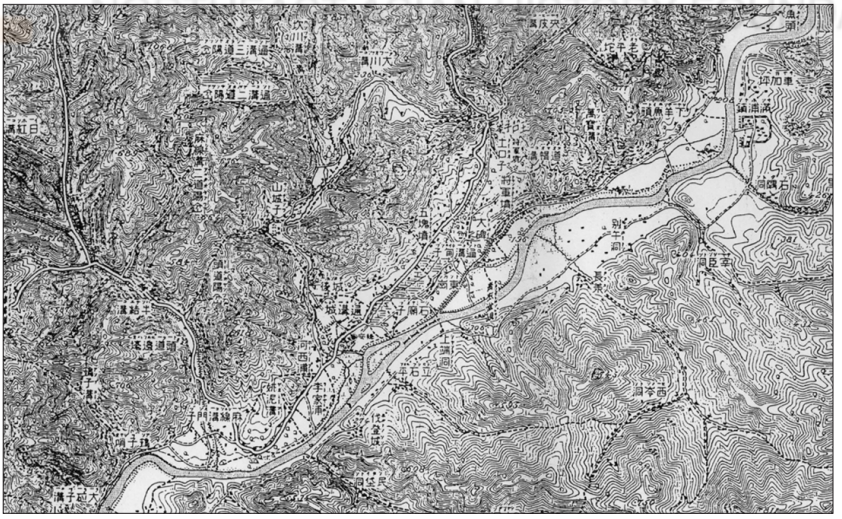


그림 19_ 만주 5만분의 1 지도(1933) – 만포진(滿浦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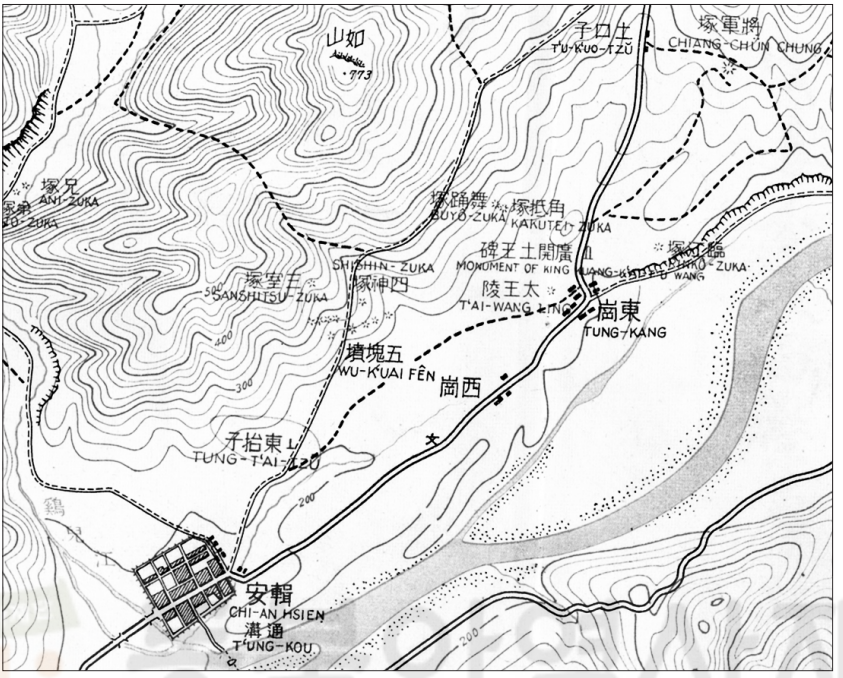


그림 20_『통구(通溝)』 상(1938) 집안지역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梅輯線, 길림성 매하구(梅河口)~집안] 건설에 의해 집안 평야지역의 내부를 흐르는 물길은 변형을 겪고 도시화 과정에서 존재가 약해졌다. 또한 1939년 10월 만포철교(滿浦鐵橋)가 완성되어 북한지역의 만포선(滿浦線)과 연결되면서, 양어두지역과 배를 통해 연결되던 강변 교통로가 육지로 연결되어 과거 임강총(臨江塚)이 있는 산자락을 통해 이동하던 교통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1959년 착공되어 1967년 4월 완공된 운봉댐[25]은 총담수량 45.8억m^3로 운봉호 수역면적 102,500m^3, 연간 유량(流量) 87.6억m^3에 달한다. 운봉댐

25) 정상수위 325m, 전장 828m, 높이 105m, 폭 7~14m, 中孔閘門 4개, 溢流閘門 21개(65톤)

의 담수량은 댐 하류 지역인 집안지역 압록강의 수위 변화를 일으켜 이고류의 육화(陸化) 등 지형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1961년 통구 이고류 호안(護岸)이 680m 길이로 건설되었고, 태왕제방이 하해방-태왕촌 사이에 개설되고 이고류 제방과 1971년에 연결되어 총 8,700m에 달하는 압록강변 제방 구축이 완성되었다.[26] 이 같은 강안(江岸) 구축은 집안 평야지대를 훨씬 넓게 만들어 집안지역의 면모를 변화시켰다.

이 같은 집안지역의 공간정황 변화 양상, 특히 수로 변화 상황을 감안한 고구려시기 국내성 공간 설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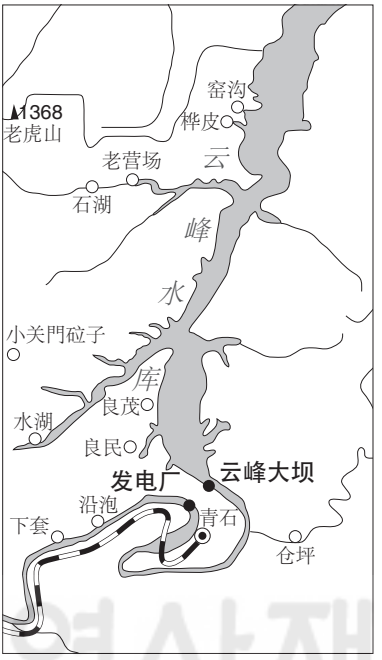


그림 21_ 운봉호 양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6) 集安縣地方志編纂委員會(1987), 『集安縣志』, 184~199쪽

4. 『집안현문물지』(1984)와 『중국문물지도집』 길림성(1994) 지도 및 자료 검토

신중국 건국 이후 간행된 자료 가운데 『집안현문물지(集安縣文物志)』[27]와 『집안현지(集安縣志)』[28] 『중국문물지도집(中國文物地圖集)』 – 길림분책(分冊)[29]에 나타난 집안시내 공간정형을 보면, 앞서 검토하였듯이 철도 개설에 따른 물길의 일부 변화와 이고류지역의 육화(陸化)가 확인된다. 먼저 『집안현문물지』에 나타난 「통구고묘군분포도(洞沟古墓群分布圖)」를 보면 수로 표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로와 연못으로 표현된 공간을 덧칠해 표현하면 그림자료와 같다. 이와 함께 『집안현지』(1987) 「집안진가로도(集安鎭街路圖)」에 묘사된 물길을 보면 양 지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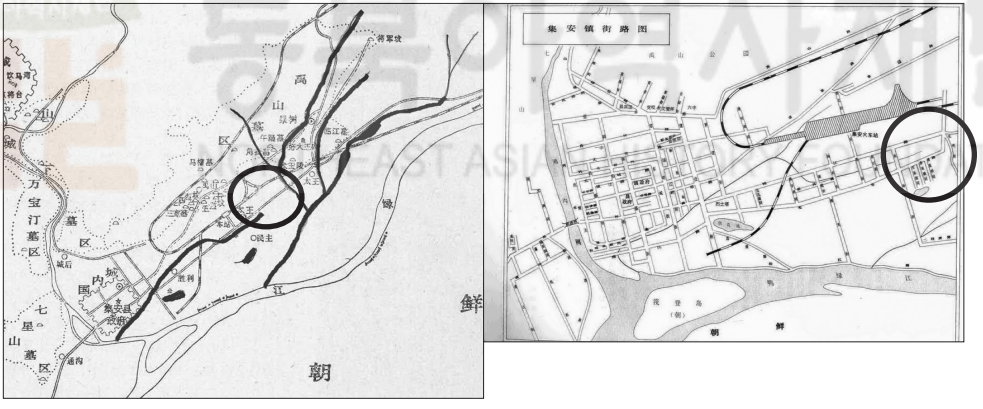


그림 22_ 『집안현문물지』(1984) 「통구고묘군분포도」(좌), 『집안현지』 (1987) 「집안진가로도」(우)에 표시된 부분은 물길이 갑자기 평지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철길에 의해 물길이 끊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27)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1984), 『集安縣文物志』
28) 集安縣地方志編纂委員會(1987), 『集安縣志』
29) 國家文物局(1993), 集安市文物圖(集安市舊都) 『中國文物地圖集』 – 吉林分冊, 中國地圖出版社, 75쪽

공통적으로 우산묘구(禹山墓區)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연결될 부분이 철길에 의해 단절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현재 이 단절된 부분은 일부 물웅덩이와 습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집안현문물지』와 『중국문물지도집』 – 길림분책 자료에 나타난 압록강 인근 문물유적의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구하구유지(洞溝河口遺址)(고구려)

하구 향동 500m, 남북 약 70m 범위의 공간으로 방지, 강제지(江堤址) 거주지, 고구려 도병(陶甁), 도관(陶罐) 등이 발견되었다.

연화지건축유지(蓮花池建築遺址)(고구려)

석절대계(石切臺階) 위주의 구성이며 대계(臺階) 100m, 도편(陶片), 와(瓦) 등이 출토된 곳으로 고구려식 방호제방(防湖堤防)으로 보고되었다.

진강유지(鎭江遺址)(고구려)

15,000m², 노지(爐址)와 온돌[갱지(坑址)], 석장(石墻)유적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참(氣象站) 서유지(西遺址)(고구려)

현성(縣城) 동 1km 우산 남쪽 통구평원, 압록강 0.5km 3만m²의 공간으로 소토(燒土), 노지탄층(爐址炭層), 초석(礎石), 전장(塼墻), 석장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구려시기 홍도망추(紅陶網墜), 홍색연문와당(紅色蓮紋瓦當), 판와(板瓦), 통와(筒瓦), 철촉(鐵鏃) 등의 유물이 보고되었다.
이 공간은 고구려시기 주민들의 촌락유적으로 요(遼), 금(金) 시기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전가남유지(站前街南遺址)(고구려)

200m²의 규모로 전(塼)과 와(瓦) 등 건축자재가 발견되었으며 부근에 석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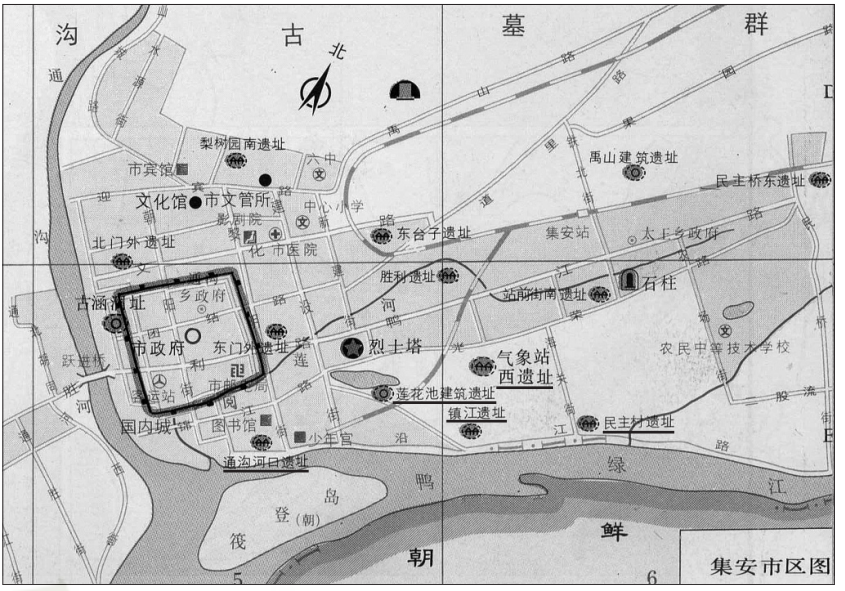


그림 23_『중국문물지도집(中國文物地圖集)』- 길림분책(分册)(1993), 「집안시문물도(集安市文物圖)」 유적 표시 상황

(石柱)가 양좌(兩座) 존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민주교동유지(民主橋東遺址)(고구려)

한(漢)대 화폐교장(貨幣窖藏), 고구려도기와 함께 금대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민주촌유지(民主村遺址)(발해)

이 유적은 발해시기 유적으로 전해지며 노지(爐址)와 온돌유적 등이 보고되었다.

이 같은 1984년 『집안현문물지』와 1993년 『중국문물지도집』 - 길림분책 「집안시문물도」의 지도와 내용을 감안하면 이고류지역에서는 유물이나 유적



그림 24_「집안시여유도(集安市旅遊圖)」(2006)

이 확인되지 않는 대신 현재 국내성에서 민주촌유적까지 연결되는 공간은 집안평원으로서 고구려시기에도 활발히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목되는 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성 동문 쪽으로 흘러 남벽을 돌아 압록강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의 존재가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 물줄기는 지도에 '열연하(閱蓮河)'로 표시될 정도로 물의 수량이 많은 하천이며 국내지역의 '중간'을 관통하는 물줄기로서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유의되는 것은 이 물줄기의 원천이 산과 연결되지 않고 집안역 앞쪽을 지나 민주교 유적이 있는 지역에서 단절된 형태로 표시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철길 건너 우산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철길을 뚫고 이고류 물줄기와 만나고 있다. 이는 1938~1939년 완성된 집안철도 및 만포철도와의 철도 연결 과정에서 물줄기의 변화가 초래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은 2006년 간행된 집안지역 관광안내도인 「집안시여유도(集安市旅遊圖)」에 잘 나타나 있다.

지도를 보면 지도의 오른쪽 하단에 해당하는 이고류지역은 물길에 의해 완



그림 25_ 「집안시여유도」에 나타난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을 구분 짓는 물길 표시(오른쪽 물길)

전히 섬처럼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태왕릉의 좌측, 즉 우산 쪽 경사면을 따라 세 개의 지천이 합쳐진 별도의 하천이 태왕릉의 왼쪽을 감싸고 이고류를 구분지어 흐르는 물줄기와 합류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집안현문물지』의 「통구고묘군분포도」와 『집안현지』「집안진가로도」, 그리고 『중국문물지도집』 – 길림분책 「집안시문물도」에서 확인되었던 열연하(閱蓮河)의 모습이 이 지도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집안역 앞쪽에 연못 형태의 물웅덩이가 표현되어 있으며, 철길 건너 우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별도의 소하천



그림 26_ 태왕릉 정상에서 본 토구자산(土口子山) 아래 장군총과 그 주변의 Y자형 물길이 광개토왕릉비 앞을 흐르는 모습(2004년 태왕릉 주변 정비 이전 모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류가 이 지역과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장군총의 옆쪽을 흐르는 하천이 광개토왕릉비와 태왕릉이 연결된 공간과 장군총을 구분하며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도는 2006년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 집안지역 정황을 가장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지도에는 장군총의 뒷산인 토구자산(土口子山, 용산) 자락의 물줄기가 장군총의 옆 공간인 필가(畢家) 사이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현장사진과 연결시켜 보면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장군총은 토구자산을 뒤로 하고 좌우를 감싸는 듯한 계곡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계곡으로 소하천이 형성되어 물이 흐르고 있다. 이 물줄기는 Y자 형태로 합류하여 광개토왕릉비 앞 태왕촌을 지나고 있다.

즉 지도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은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은 물길에 의해 공간분할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을 연결

짓기 곤란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요소라고 생각된다. 특히 1.7km에 달하는 서로간의 거리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태왕릉은 400m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며 여기에 물길이나 계곡으로 구분되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광개토왕릉비와 연결되는 무덤임을 알 수 있다.

IV. 광개토왕릉 비정 원칙과 국내성 공간

1. 광개토왕의 수묘제 개혁에 나타난 능 비정 원칙

광개토왕릉 비정을 위해서는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묘상입비(墓上立碑), 즉 수묘인(守墓人)들로 하여금 자신의 수묘 대상 왕릉을 차착(差錯)치 않게 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먼저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1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教言 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 守墓灑掃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조왕과 선왕께서는 원근 지방에 사는 구민(舊民)들만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청소를 하게 하였다.

A-2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내 구민들이 점차 고달파져 열악하게 되면 내 만 년이 지난 뒤에는 누가 수묘하겠는가?

A-3 但取吾窮巡所略來韓濊 令備灑掃 言教如此
(때문에 내가 죽은 뒤 내 무덤을 지킬 자들은) 내가 직접 돌아다니며 데리고 온 한(韓)족이나 예(穢)족 들에게 수묘·소제하는 일을 맡게 하라고 하셨다.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았다.

B-1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한족과 예족 220가(家)를 데려오게 하였다.

B-2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그러나 이들이 법칙을 모를까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데려와 새로 온 사람들과 합치니 묘지기 호수가 국연(國烟) 30가, 간연(看烟) 300가가 되어 모두 330가가 되었다.

C-1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조선왕(祖先王) 이래 묘에 비석을 갖추지 못하여 묘지기 연호(烟戶)들이 착오를 일으켰다.

C-2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墓上立碑 銘記烟戶 不令差錯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조선왕(祖先王)의 무덤에 모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착오가 없도록 하셨다.

C-3 又制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 人制令守墓之
또 묘지기 제도를 제정하여 앞으로는 묘지기가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고, 법령을 어기는 자 가운데서 파는 자는 벌주고 사는 자는 법을 만들어 그 자신이 묘지기가 되도록 하였다.

상기 내용에 의하면 광개토왕이 우려하고 있는 수묘인의 문제점은 구민 수묘인이 약해지고 적어지는 이열화[전당이열(轉當羸劣)]였다. 또한 수묘제 운영의 문제점은 수묘인들이 자신의 수묘무덤을 찾지 못해 나타나는 혼란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광개토왕의 수묘제 개혁은 다음 내용과 같이 정리된다.

1) 자신의 수묘인을 구민에서 신래한예로 교체

–장수왕이 법칙 모를 것 우려해 구민 1/2(110가) 추가

2) 수묘인 관련 매매금지 : 수묘인의 이열화 방지

3) 조선왕 무덤에 비석 설치 연호 명기 : 수묘인의 혼란 방지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장수왕 보완
구민 수묘인 몰락 [전당이열(轉當羸劣)]	1)농업 생산력 차이(?)	수묘인 신래한예(新來韓穢)로 교체	구민 110가 보충 (국연 10, 간연 100가)
	2)수묘인 매매	수묘인 매매 금지 1) 不得更相轉賣 2) 富足之者不得擅買 처벌 규정 명시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수묘인 혼란 [守墓人烟戶差錯]	墓上不安石碑	비석건립 연호 기록 墓上立碑 銘其烟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내용 가운데 비석을 수묘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묘상(墓上), 즉 묘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세웠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광개토왕이 모든 조선왕(祖先王)을 위해 비를 세워 수묘인의 혼란을 방지하게 하였다는 원칙은 광개토왕 자신의 무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다.

2. 집안지역 공간과 광개토왕릉

현재 집안지역에 대한 지도자료 검토에서 확인된 것처럼 집안 평원지역의 물길은 공간 분할과 각 지역별 내용을 규정하는 자료다. 특히 국(國)[국원(國原), 국

천(國川), 국양(國壤), 국강(國岡)]과 천(川)[동천(東川), 서천(西川), 중천(中川), 미천(美川), 국천(國川)]과 관련된 고구려 역대 왕들의 장지명을 이해하는 데 이들 물길의 양상은 중요하다.[30] 이 글에서 우선 문제 삼고자 하는 하천은 광개토왕릉비 앞을 지나는 태왕향의 소하천이다. 이 하천은 2006년 「집안시여유도(集安市旅遊圖)」에 나타나고 있듯이 장군총과 광개토왕릉비를 공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은 거리상 약 1.7km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하천에 의해 공간적으로도 분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광개토왕릉비와 약 400m 거리에 존재하며 물길이나 자연지형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 태왕릉과의 관계에서 볼 때, 광개토왕릉비의 주인공 무덤이 자연스럽게 태왕릉으로 비정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파악된다. 즉 광개토왕릉비는 비석과 해당 주인공의 무덤이 수묘인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근접하게 위치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지형상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군총은 광개토왕릉으로 보기에는 거리의 원격성과 계곡과 물길에 의해 구분된다는 현실적인 요건 때문에 해당 무덤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중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실시한 태왕릉에 대한 조사보고[31]에 의하면 태왕릉은 능역에 무덤과 제단유적, 관련 건축물, 배장묘 등이 존재하는 고구려의 독특한 장묘문화와 내용을 보여준다.[32] 특히 광개토왕릉비문과 가장 인접한 능묘일 뿐만 아니라 호태왕명문 동령(銅鈴)이 호석(護石) 주변에서 출토되어 주인공이 명확해졌으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인 공간과 대응시켜

30) 고구려 장지명 왕호와 관련된 國과 川 관련 논의는 별고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3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32) 조법종(2006), 「광개토왕 능원과 수묘제」,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논문 참조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같은 공간 정황으로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수묘제도와 관련하여 330가에 달하는 수묘인 집단의 존재방식과 활동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남쪽 100m, 동쪽 130m에 능역을 구분하는 담장의 존재 확인이다. 북쪽과 서쪽은 주민 거주공간 때문에 더 이상 확인되지 못하였지만, 약 100~150m 내외의 공간이 광개토왕릉의 능역으로서 존재하였다. 또 남쪽 담장에서 문 유적이 확인되어 적어도 남쪽으로 출입한 흔적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영역 내에는 제대(祭臺) 두 곳과 건축유지 한 곳만이 확인되어 기타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수묘인들의 거주공간과 활동공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 능역 내에는 수묘인들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거주공간은 현재의 주민거주지역 또는 그보다 더 먼 공간에 위치되어야 한다. 즉 동으로는 집안에서 청석으로 가는 도로와 남으로는 집안–만포진 철로에 의해 구획된 공간 일대, 그리고 북으로는 과거 태왕향소학교 뒷길로 구획된 공간 주변지역이 이들 수묘인들이 거주하였을 공간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들의 존재형식인데, 필자는 이미 국연과 간연의 기능적 공간 분리를 제시하여 국연은 국연지역에 존재하면서 실질적인 수묘역을 수행하는 존재로 보았고, 간연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담보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33] 이 경우 수묘역과 관련된 실제 수묘인은 국연 30가가 현재 공간에서 수묘역을 수행하고 간연은 이들 활동의 경제적 담보를 생산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 즉 농업생산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진행한 왕실 직할령과 같은 공간에 분

33) 조법종(1995),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 『韓國古代史研究』 8, 韓國古代史研究會

산되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4]

따라서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입비 원칙인 묘상입비(墓上立碑), 즉 비의 대상 고분과 근접해야 한다는 점과 지도 및 현지 지형을 통한 공간 확인에서 장군총은 비와 1.7km 이상 떨어져 있고 물길과 계곡으로 구분되어 광개토왕릉으로 파악하기 곤란함을 확인할 수 있다.

V. 맺음말

고구려 국내성이 있었던 집안지역의 역사지리적 공간은 근현대 시기 철도 개설과 댐 건설 및 호안(護岸) 구축 등 여러 지형적 변형요소에 의해 고구려시기 지리공간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압록강 댐 건설에 따른 하중도(河中島)의 육지화와 철도 개설에 따른 소하천의 유로(流路) 변화 및 수량 감소 등은 고구려시기 지형과 현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 같은 지형변화 상황을 조선시대 고지도 자료와 근현대 지도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변화상을 추적하고, 특히 소하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현재 집안 평원지역을 구성하는 이고류지역은 1960년대까지 하중도로서 존재했으며 현재 양어두지역으로 연결되는 강변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집안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두 개 이상 존재하였다. 또한 집안 시내에는 소규모 연못이 과거 물길과 연결되어 존재하였으며, 이들 연못에 연꽃 등이 많이 존재하였다. 이는 고구려 이래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릉비와 장군총 사이에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 같은 묘역으로 연결 짓기 곤

34) 수묘인의 거주공간을 국연과 간연으로 분리하였을 때 간연의 구체 거주 및 활동공간과 이들을 통제하는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검토코자 한다.

란하다.

이 같은 기초적인 공간정황 파악을 통해 향후 고구려 장지명 왕호에 나오는 국(國)과 천(川) 관련 지명의 구체적 공간 확정을 위한 기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지도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장군총과 광개토왕릉비 사이에 소하천이 흐르는 능선 공간이 존재함을 확인한 점은 광개토왕릉 비정과 관련하여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으로 비정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또한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입비와 수묘제 관련 제도의 변화를 통해 광개토왕릉은 묘상입비(墓上立碑), 즉 가장 근접한 고분에서 대상 고분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광개토왕릉이 현재의 태왕릉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태왕릉과 광개토왕릉비는 동일 공간에 위치한 것에 비해 장군총은 광개토왕릉비와 하천에 의해 별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는 수묘인의 능묘 관리를 위해 관련 능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할 때 태왕릉이 바로 광개토왕릉비와 연결되는 고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단행본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2002),『洞溝古墓群 – 1997年調査測繪報告』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 集安市博物館(2004),『集安高句麗王陵 – 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査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1984),『集安縣文物志』

稻葉岩吉(1939),『興京 二道河子 舊老城』, 建國大學校(滿洲)

劉天成等修(1931),『輯安縣志』, 吉林

方東仁(1976),『한국의 지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孫仁杰 · 遲勇(2007),『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吳光國(1915),『輯安縣鄉土志』, 新作印刷局

張福有(2007),『高句麗王陵統監』, 香港亞洲出版社

張福有 · 孫仁杰 · 遲勇(2007),『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정호섭(2011),『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集安縣地方志編纂委員會(1987),『集安縣志』

논문

강현숙(2006),「중국 길림성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한국고대사연구』41

강현숙(2009),「고구려 왕릉 복원 시고 –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공석구(2008),「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의 조영」,『고구려 발해 연구』31

關野貞(1914),「滿洲輯安縣及平壤附近於高句麗時代遺跡」,『考古學雜誌』5卷 3號 聚精堂

國家文物局(1993),「集安市文物圖(集安市舊都)」,『中國文物地圖集』– 吉林分册, 中國地圖出版社

기경량(2010),「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한국사론』56, 서울대학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사학과
김태식(2012),「광개토왕비, 부왕의 운구 앞에서 청년왕이 보낸 경고」,『한국고대사탐구』10
桃岐祐輔(2009),「고구려왕릉출토 기와, 부장품으로 본 편년과 연대」,『고구려 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東潮(2006),「高句麗 王陵と巨大 積石塚」,『朝鮮學報』199·200合輯
東潮(2009),「고구려왕릉과 능원제」,『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李丙燾(1965),「鄭尙驥와 東國地圖」,『書誌』1-1
백승옥(2006),「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한국고대사연구』41
篠原啓方(2011),「高句麗太王陵出土銅鈴の釋讀について」,『東アジア文化交涉研究』4, 關西大學 文化交涉學教育研究據點
여호규(2006),「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한국고대사연구』41
오상학(1999),「농포자 정상기와 동국지도」,『국토』v.210(1999-04)
魏存成(2007),「集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研究」,『社會科學戰線』2007-4
이도학(2005),「환인(桓仁), 집안지역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의 검토 ; 태왕릉과 장군총의 피장자(被葬者) 문제 재론」,『고구려연구』
이도학(2008),「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에 관한 신고찰」,『고구려 발해 연구』30
이도학(2009),「고구려 왕릉연구의 현단계와 문제점」,『고구려 발해 연구』34
이도학(2011),「고구려왕호와 장지에 관한 검증」,『경주사학』34
李仁榮(1939),「申忠一『建州紀程圖記』에 대하야 - 최근 발견의 淸初史料」,『震檀學報』10
李仁榮(1940),「建州紀程圖記解說」,『淸芬室叢刊』v.1, 朝鮮印刷株式會社
이희준(2006),「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한국고고학보』59
임기환(2009),「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비정」,『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정호섭(2008),「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한국사연구』43
趙法鍾(1995),「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韓國古代史研究』8
趙法鍾(2004),「중국 집안박물관 호태왕명문 방울」,『韓國古代史研究』33, 한국고대사학회

조법종(2006), 「광개토왕 능원과 수묘제」, 『고조선 고구려사연구』, 신서원
최종택(2006), 「집안 고구려 왕릉 출토 유물의 제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쑨런지에[孫仁杰]
고구려사 전공, 중국 집안박물관 연구원
대표논저로는 『高句麗王陵通考』(공저, 2007, 香港亞洲出版社), 『集安高句麗墓葬』(공저, 2007, 香港亞洲出版社), 『高句麗千里長城』(공저, 2010, 香港亞洲出版社), 「集安縣上活龍古墓發掘簡報」(1984, 『文物』), 「論高句麗石室墓的起源」(1997, 『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 등이 있다.

고구려 고분 고고조사의 일부 성과

집안박물관 **쑨런지에**

I. 집안 호자구 고분군 고고조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호자구(嵩子溝)는 집안 국내성에서 31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호자구고분은 호자구의 좁고 긴 평지의 중간에 위치하는데, 북측은 높은 언덕의 대지(臺地) 위로 이어진다. 대지는 동서 길이 1.5km이다. 남북의 넓이는 약 1km 전후이며 대지 남측은 비교적 좁아 약 100m이다. 대지는 평지에서 약 30m 높이다. 그리고 도로 남측은 압록강이고 고분은 대지의 최남단에 분포되어 있다.

1983년 5월, 『집안현문물지(集安縣文物志)』를 편찬하기 위해 조직된 집안현 문물조사대가 일찍이 호자구에 대해 조사, 측량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까지 호자구 고분에 대해 몇 차례 다시 조사를 진행하여 측량·기록 및 촬영을 하였고, 이를 통해 호자구 고분군이 고구려시기의 중요한 묘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는 6기의 고분이 존재하는데, 각각 JHM1, 3, 4, 5, 6, 7호로 번호를 매겼다. 1983년 조사 내용과 다른 점은

당시 조사한 JHM2호묘는 지금 보건데 고분이 아닌 JHM1호묘의 부속 시설이어서 편호하지 않았다. 원래의 편호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나머지 묘장은 원래의 편호와 변함이 없다. 또한 이번 조사 중 발견한 JHM1호묘의 동서 양측에는 모두 부속시설이 있으며 나머지 5기의 묘장은 모두 JHM1호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JHM1호묘는 대지 남단 서측에 위치하는데 동경 126°22′632″, 북위44°l7′926″이다. 북측의 지세는 약간 높은 편이며 남면이 비교적 낮고, 높이 차이가 약 2m이다. 묘장은 유단적석석광묘(有壇積石石壙墓)이고 평면은 장방형이며 남북 길이 35m, 동서 너비 25m, 잔고 2.5m이다. 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 무덤 네 주변의 가장자리에는 기단이 있다. 기단은 돌을 겹쳐 쌓은 석장(石牆) 방식으로 대개 4~7단으로 돌을 쌓았다. 기단 석장에 사용된 돌은 가공하지 않은 산돌을 깨낸 자연석이다. 석장의 외측 네 주변에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곳에 1층으로 큰 돌이 놓여 있다. 세워서 쌓은 돌은 대부분이 가공하지 않은 긴 판상형 자연석이다. 석질은 홍갈색 화강암, 회색 화강암 또는 현무암이다.

JHM1호묘 정상의 가운데 부분은 원래 석광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훼손이 심각하여 무덤돌들 대부분이 밀려났거나 빼내어 가서 무덤의 정상부는 교란된 상태다. 무덤 돌 사이에서는 많은 판와와 통와 잔편 및 불에 녹아내린 돌덩이를 볼 수 있고, 일부 기와는 불에 의해 변형되거나 무덤 돌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다. 몇 번의 조사에서 모두 무덤 위에서 판와와 통와의 유물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묘장의 연대는 서기 3세기 전후다.

JHM1호묘의 동·북 양측의 유적은 모두 장방형 돌 더미인데 무덤의 담장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담장 시설은 단지 왕릉에만 있는 것이다. 나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 5기의 무덤은 당연히 JHM1호묘의 배장분이다. JHM1호묘는 고구려 초기 적석묘 가운데 대형 묘장으로 지세가 높고 트였으며, 무리지어 있지 않고 홀로 있어 능장(陵牆) 시설과 배장묘들로 호위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분석해보면 이 무덤은 당연히 고구려 시기 왕릉 가운데 하나다.

JHM1호묘의 연대는 약 서기 3세기 전후이고, 묘장의 규모 및 부속시설은 왕릉의 구비 조건에 부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동천(東川)', '서천(西川)'은 국내성에 소재한 중천(中川)을 중심점으로 한다. 호자구는 국내성 동쪽에 면한 압록강 '장천(長川)'의 위쪽이다. 공교롭게도 동천의 중간에 속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 무덤이 고구려 제11대 동천왕(東川王)의 능묘일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집안 운봉 수력발전소 댐 수몰 지구에 대한 고고조사

2006년 4월 5일, 우리는 집안(集安) 양민(良民) 일대에서 42년 동안 수몰되었던 고구려 묘지를 발견하였다. 이곳은 길림성 동남부 중국과 북한의 경계인 압록강 중류지역의 운봉(雲峰) 수력발전소 저수지로, 임강시(臨江市) 위사하진(葦沙河鎭) 이마구촌(二馬駒村)에서 집안시 청석진(靑石鎭) 양민촌(良民村)의 45km 지역 범위다. 2006년 4월, 운봉저수지의 댐을 수리하는 중에 수위가 41m 내려가면서 수몰선 아래의 옛 고분들이 노출되었다. 이들 고분은 8개의 비교적 큰 고분군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양민 고분군에서 1,008기, 추피(秋皮) 고분군 465기, 석호(石湖) 고분군 36기, 적태(滴台) 고분군 24기, 선인동(仙人洞) 고분군 34기, 대장천(大長川) 고분군 24기, 이도구(二道溝) 고분군 434기, 이마구

(二馬駒) 고분군에서 231기의 옛 무덤을 발견하였다.

5월 15일~8월 3일, 길림성 문물고고 부문은 저수지 우안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하여 모두 21개 옛 고분군과 2,753기의 옛 무덤을 발견하였다. 고분군과 고분에 대한 측량과 기록을 진행하는 동시에 집안 양민, 석호왕팔발자(石湖王八脖子), 묘응구(猫鷹溝), 적태(滴台), 백산이도구(白山二道溝) 고분군 및 임강이마구(臨江二馬駒) 고분군 등 6개 고분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고, 모두 73기의 묘장을 발굴하였다.

고분은 적석묘와 봉토묘 크게 두 종류이다. 적석묘는 무광적석묘(無壙積石墓),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 유단적석석광묘(有壇積石石壙墓), 계단적석석광묘(階壇積石石壙墓), 계장적석석광묘(階牆積石石壙墓), 적석관묘(積石串墓), 계단적석광실묘(階壇積石壙室墓) 그리고 봉석석실묘(封石石室墓)로서, 봉토묘는 단지 봉토석실묘 한 종류이다. 고분의 연대는 기원전 1~5세기 말까지 연속된다.

무광적석묘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한 유형으로 그 연대는 늦어도 기원전 1세기다. 이 유형의 묘장은 당시 지표 위에 쌓은 것으로 구(丘) 형상을 보이고 석광이 없으며, 수장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묘응구 고분군과 이도구 고분군 중에 23기를 정리하는 가운데 일부 묘장의 정상부에서 불에 탄 후 균열이 간 돌덩이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묘응구 M27은 평면이 원각장방형(圓角長方形)을 나타내고 남북 길이가 4.7m, 동서 너비 2.7m, 높이 0.4m이다. 묘장은 보존이 비교적 좋고, 상부 표면이 비교적 편평하다. 강돌이 불에 탄 흔적이 있고 돌은 이미 부서져 파열되었으며, 묘광과 유물은 보이지 않는다.

적석석광묘는 기원전 1세기 전후로 대부분이 화장을 하였다. 양민 고분군의 M559는 평면이 불규칙적인 원형을 나타내며 직경 6m, 잔고 0.55m이다. 묘장 상부 가운데 부분에 석광을 구축하였다. 석광 평면은 장방형이고, 동서 광(壙)벽은 각각 길이가 1.3m, 남북 광벽은 각각 너비 0.55m, 광 바닥에서 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덤 정상부까지의 평면은 0.3m이다. 석광 바닥에는 산돌을 깔고 광 내부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다. 유물은 보이지 않으며 묘장은 산돌로 봉분을 쌓았다.

유단적석석광묘의 유행 연대는 2~3세기다. 양민 M742는 평면이 방형에 가깝고, 남북 길이는 6.36m, 높이 1m이다. 돌을 쌓은 방법은 우선 약간 가공한 큰 돌을 네 변의 기단에 둘러서 쌓고 기단 내부에 다시 깨어진 산돌을 채웠으며, 상면을 편평하게 하고 다시 무덤 위 평면의 가운데 부분에 석광을 만들었다. 석광은 장방형으로 길이 2.15m, 너비 1m, 광 깊이 0.3m이다. 석광 밑부분은 불에 탄 후 잘게 부서진 홍색 산돌을 깔았고, 석광 내부에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계단적석석광묘의 유행 연대는 3~4세기다. 양민 M375는 묘장의 평면은 방형이고 남북 길이 7.5m, 동서 너비 7.2m, 높이 1.2m이며, 3층 계단을 쌓았다. 고분 위에는 부서진 산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었다. 석광은 묘장의 가운데에서 서쪽으로 치우쳤고, 2층 계단 윗부분에서 시작하여 3층 계단의 꼭대기 부분까지 쌓았다. 석광 평면은 정방형이고 남북 길이 1.8m, 동서 너비 1m, 깊이 0.55m이다. 석광의 밑부분에 한 층의 부서진 산돌을 깔았고, 불에 탄 흔적이 보인다. 석광 내부에서는 철모(鐵矛) 1건이 출토되었다.

계장적석석광묘의 유행은 2세기 전후다. 양민 M358은 묘장의 평면은 대략 방형이고, 동서 길이가 9.6m, 남북 너비 8.6m, 잔고 0.98m이다. 쌓는 방식은 먼저 지표에 돌을 쌓아 작은 분구 형태를 만들고, 다시 그 네 면에 안에서 바깥 주위로 계장(階牆)을 쌓았다. 첫 번째 계장은 장방형을 나타내고 남북 길이 4.5m, 동서 너비 3.6, 높이 0.8m이다. 계장 안에는 부서진 산돌을 채우고, 편평하게 한 후 석광의 밑부분이 되게 하였다. 첫 번째 계장의 외측에 다시 두 번째 계장을 둘러쌓았는데, 대략 방형으로 남북 길이 6.5m, 동서 너비 6m, 높이 0.7m이며, 두 계장 사이에는 부서진 산돌을 채웠다. 두 번째 계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외측에 다시 묘장 둘레로 세 번째 계장을 쌓았는데, 계장 사이에는 다시 부서진 산돌을 채웠다. 첫 번째 계장의 윗면 가운데에 석광을 쌓았고, 석광은 방형으로 남북 길이 1.75m, 동서 너비 1m, 깊이 0.35m이며 그 위에 다시 부서진 돌들로 봉분을 쌓았다. 석광 안에서는 인골 잔편이 출토되었고 다른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적석관묘의 유행 연대는 2~4세기다. 석호 M22는 계장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유단적석석광묘의 3종 유형으로부터 연결되어 형성된 적석관묘이다. 묘장의 평면은 장방형을 나타내며 남북 길이 38m, 동서 너비 8.5m, 잔고 1.45m이다. 이 묘장은 모두 9기의 개별 무덤을 북에서 남으로, 언덕 위에서 아래로 연결하여 축조하였으며, 각 묘장에는 석광이 하나씩 축조되었다.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묘장을 편호하였는데 M22-1은 계장적석석광묘, M22-2, M22-3, M22-4, M22-5, M22-6, M22-7은 계단적석석광묘, M22-8, M22-9는 유단적석석광묘로서 묘장의 네 면에는 호석을 둘러 세웠다. M22-3의 석광 안에서는 철삭(鐵削)·철도(鐵刀)가 출토되었고, M22-4 석광 안에서는 철렴(鐵鐮)·철정리(鐵釘履) 등이 출토되었다.

계단적석광실묘의 유행 연대는 4~5세기다. 양민 M920의 평면은 방형을 나타내며 동변 길이 9m, 서변 길이 8.3m, 남변 길이 8.5m, 북변 길이 8.8m, 높이는 1.2m이다. 묘장은 네 단의 계단이 있고, 제2단에서 제4단까지 네 면의 거리가 같지 않게 들여쌓았다. 광실은 제2단 평면 가운데 부분에 구축되어 있고, 제4단에는 입구가 있다. 광실은 방형이고 남북 길이 3.1m, 동서 너비 2.2m, 깊이 0.6m이다. 광실 남벽은 상징적인 묘도가 있고, 광실 및 묘도의 돌들은 대부분 그 위치가 옮겨져 있다. 광실 밑부분은 먼저 한 층은 부서진 돌을 깔고, 그 위에 다시 0.15m도 또 한 층 붉은색의 부서진 돌을 깔았으며, 광실 안에는 불에 탄 흔적이 있다. 광실 및 묘도는 부서진 산돌을 채웠다. 광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안에서는 철도(鐵刀)·철장구(鐵帳鉤) 및 인골 잔편이 출토되었다.

적석석실묘의 유행 연대는 4세기 중엽~5세기다. 양민 M848의 평면은 장방형이고 남북 길이는 8m, 동서 너비 6m, 높이 0.9m이다. 묘장은 묘실과 묘도로 조성되었으며 산돌로 봉분을 쌓았다. 묘실은 '도(刀)'형을 나타내고, 남북 길이는 2.25m, 동서 너비 1.25m, 높이 0.6m이다. 묘실 동서 양측 벽은 가공을 거친 퇴적암으로 2~3층을 쌓았고, 묘실의 북벽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커다란 퇴적암으로 조성하였으며 내측 벽면은 비교적 편평하다. 북벽을 이룬 큰 돌은 불규칙한 삼각형 형태이고 밑변은 길이 2m, 높이 1.5m이다. 묘실의 바닥은 두께 0.06m 정도로 부서진 돌을 고르게 깔았고, 정상의 덮개돌은 이미 유실되었다. 묘실 바닥은 편평하다. 그리고 묘도는 장방형이며 남북의 길이는 1.7m, 동서 너비 0.75m, 높이 0.5m이다. 묘도의 동서 양측 벽 역시 퇴적암을 가공하여 쌓았고, 내측 벽면은 2층으로 비교적 편평하게 쌓았다. 묘도 바닥은 황색 생토이고 조사 중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봉토석실묘의 유행은 4세기 말~7세기다. 양민 M753은 평면이 원구형(圓丘形)을 나타내고, 봉토의 직경은 6.5m, 잔고 1.35m이다. 묘장은 묘실과 묘도 두 부분으로 조성되었다. 묘실은 '도(刀)'형으로 남북 길이 2.4m, 동서 너비 1.5m, 높이 0.6m이다. 묘실의 네 벽은 3층으로 가공한 돌을 쌓았으며 바닥은 깨진 돌을 0.05m 두께로 깔았다. 묘실을 따라 양측 벽 위에는 가로 지른 덮개돌을 두 개 올려놓았고, 현재는 이미 묘실 안으로 떨어져 내린 상태다. 묘실 바닥에 깔아놓은 돌 위에서 포금환(包金環) 1건, 끊어진 막대형 철기 2건을 출토하였다. 묘도는 묘실의 남측에 이어져 있고 방형을 나타내며, 남북 길이 1.6m, 동서 너비 1.05m, 높이 0.45m이다. 묘도 양측 벽 또한 가공한 돌로 쌓는 방식을 채용하여 1~2층으로 쌓았다. 묘도 바닥의 재질은 비교적 단단한 황사토(黃沙土) 층이다. 묘실과 묘도가 이어진 곳에는 묘실을 가로 막은 돌담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는데, 돌담의 길이는 1.05m, 높이 0.6m로 돌담과 묘실을 쌓은 석재는 동일하다. 한편 발굴 중에 도기, 철기, 청동기, 유리기, 금, 포금기, 은기 등 228건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도기는 매우 적은데, 복원할 수 있는 것은 4건이다. 그 중 양민 M948에서 협사홍갈도쌍이평저관(夾砂紅褐陶雙耳平底罐) 1건이 출토되었는데 연대는 동한(東漢) 시기다. 그리고 석호(石湖) M28에서 출토된 1건의 협사갈도사이장경호(夾砂褐陶四耳長頸壺)의 연대는 늦어도 서한(西漢)시기다.

운봉저수지 수몰지구 고분의 조사와 발굴은 압록강 유역의 비슷한 묘장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그러한 유형의 고분의 변화발전 순서 및 관련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상세하고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신점산(辛占山) 선생은 "양민 일대 고구려 묘장의 수량이 많은데, 연속된 시간이 길고 묘장의 종류가 다양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성을 제외하고는 유일무이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민전자(良民甸子)는 고구려 묘장의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종류 또한 다양하다. 묘장의 분포 지역이 넓고 연용한 시간이 길며, 고성(古城)이 존재한다. 우리가 양민지역의 노인 왕항영(王恒英), 손지강(孫志强), 오희귀(吳喜貴), 여무덕(呂茂德), 왕금순(王金純), 강숭국(江崇國) 및 양민에서 다년간 살아온 풍진원(馮振遠) 등에게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64년 수몰 이전에는 양민지역에 옛 성터의 성벽이 남아 있었고, 가장 높은 곳은 3m 정도이고 가장 낮은 곳은 1m 남짓이었으며 흙으로 된 성장(城牆)의 너비는 3m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토성 벽의 북변에는 3m가 넘는 깊은 도랑이 있고, 서변에는 서쪽 산인 노려소구(老厲小溝)와 유방구(油坊溝)에서 아래로 흘러 성을 보호하는 강물이 있다. 고성 토벽의 동변에서 북쪽으로는 양민과 추피(秋皮) 사이의 입자두(砬子頭)에 이르고, 그 길이가 550~600m 정도 되는 석벽이 있다. 양민은 국내성의 동북에 위치하고, 국내성을 제외하고는 압록강 우안의 가장 큰 평원이다. 이곳에 많은 양의 유적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분포하는 것은 고구려시기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

III. 집안 마선 상활용촌 산서묘군의 조사

2010년 5월 고구려시기의 고분군을 새로 발견하였는데, 고분군은 집안시(국내성) 서남쪽으로 12km 떨어진 마선향(麻線鄕) 상활용촌(上活龍村) 산서사조(山西四組) 북쪽 산골짜기 및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었다. 압록강을 따라 동서로 뻗은 높은 산이 이곳으로 이어지며 남북으로 향하는 산봉우리 아래 강기슭에서 활용(活龍)이 나눠지는데 강 상류를 상활용(上活龍), 하류를 하활용(下活龍)이라 부른다. 무덤군은 이 남북으로 뻗은 산봉우리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산서고분군이라고 부른다. 산서 북측의 동서 양쪽에 자연적인 산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고분군은 산골짜기와 산비탈에 분포하고 있다. 동측 골짜기에 분포하고 있는 묘장을 동구(東區), 서측 골짜기에 분포하고 있는 묘장을 서구(西區)라 하는데, 이 두 곳의 고분군은 모두 북쪽으로는 산, 남쪽으로는 압록강에 임해 있으며, 향(鄕) 간 도로가 고분군과 압록강의 중부를 관통하고 있다. 전체적인 입지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북측 가장 높은 곳의 묘장은 산골짜기 근처이다. 그 아래는 남쪽으로 경사진 언덕이 하나 있으며, 가장 낮은 부분의 묘장은 언덕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1. 서구(西區)고분군

산서고분군의 서측 산골짜기에 위치하며 골짜기는 비교적 넓고, 고분군 중심 부분의 좌표는 동경 126°06′589″, 북위 41°02′570″, 해발 239m이다.

• 1호묘

산비탈의 중부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향로(殉路)와 약 60m 떨어져 있으며, 유단적석석광관묘(有壇積石石壙串墓)다. 남북 길이는 14m, 동서 너비 5m, 현재 보이는 높이는 1m 전후다. 묘장의 네 변에 드문드문 기단석을 볼 수 있고, 단지 1층만 보이며, 대다수의 돌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빼갔다. 기단석은 대부분 약간 가공한 화강암을 이용하였고, 돌의 크기는 길이 0.7m, 너비 0.4m, 높이 0.3m 전후다. 기단 내부는 산돌로 채웠고, 대개 0.3×0.2×0.2m 전후다. 묘의 상부에는 장방형의 오목한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의 상태로 보아 세 개의 석광이 남북으로 나뉘어 배열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구덩이의 동서 길이 1.5m, 남북 너비 1m, 깊이 0.2m 전후다. 묘의 정상부는 산돌과 소량의 강돌로 봉분을 하였고, 돌은 0.2×0.2×0.1m 전후다. 이 묘는 일찍 도굴되어 보존이 좋지 않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호묘

남쪽으로 1호묘와 약 30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有壇積石石壙墓)이며 방형을 띠고 변의 길이가 6m이다. 묘의 가장자리는 계단을 쌓았고, 계단의 돌은 비교적 크며, 약간 가공하였다. 가장 큰 돌의 길이는 0.8m, 너비 0.6m, 높이 0.4m이다. 나머지 계단석은 대략 0.5×0.3×0.2m이며, 계단석 대부분이 결실되었고 서남각 북측 계단은 대부분 이미 파괴되었으며, 북측 계단석 또한 많은 수가 빠져나갔다. 제2단 계단석은 묘의 서측에서 몇 개가 보일 뿐, 나머지는 파괴되었다. 묘의 상부 중간에서는 장방형의 오목한 구덩이를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잡다한 물건들로 덮여 있다. 무덤 꼭대기의 봉분석은 대부분 산돌이고 0.2×0.2×0.15m 전후다. 이 무덤은 이미 파괴되었고 무덤 위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쌓여 있다.

• 3호묘

남쪽으로 2호묘와 약 50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로서 대략 방형이다. 네 변의 길이는 7m, 높이 3m로 무덤의 북쪽이 높고 남쪽은 낮으며, 네 변은 모두 기단을 쌓았다. 그러나 북측 기단은 이미 파괴되고 경지가 침범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나머지 세면의 기단은 보존이 비교적 좋다. 기단석은 약간 가공한 화강암을 쌓았는데 평균적으로 돌의 길이가 0.6m, 너비 0.4m, 높이 0.2m이다. 기단은 2층으로 겹쳐 쌓았고, 높이는 0.5m 전후다. 기단 안쪽에는 0.3×0.2×0.2m의 산돌을 채웠다. 무덤의 정상부 중간에는 남북으로 두 개의 오목한 구덩이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는 남북으로 배열된 두 개의 묘광으로 동서 길이 1.6m, 너비 0.8m, 깊이 0.2m 전후다. 묘 정상부의 봉분석은 다수가 0.2×0.2×0.1m 전후의 산돌 및 소량의 강돌이며, 묘의 보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4호묘

3호묘 동쪽 약 93m에 위치해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로서 방형을 나타내며 변의 길이는 5m, 현재의 높이는 1m이다. 묘장 가장자리의 기단석은 대부분 빼내갔으며, 현존하는 기단석은 0.7×0.4×0.3m로 비교적 크다. 나머지는 0.5×0.4×0.2m이며 묘의 상부는 이미 파괴되었다. 무덤 내부를 채운 돌과 외부의 봉분석은 대부분이 산돌이지만 소량의 강돌도 있으며, 돌의 크기는 0.3×0.25×0.2m이다.

• 5호묘

남쪽으로 4호묘와 약 3m 떨어져 있으며, 유단적석석광묘로 동서 6m, 북남 4m, 잔고 0.7m이다. 기단석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빼내갔으며, 무덤 위에

쌓은 돌은 산돌이다. 이 묘는 파괴가 매우 심하다.

• 6호묘

5호묘의 북쪽 약 6m에 위치해 있으며, 유단적석석광묘로서 대략 방형을 나타내며 변의 길이 5m, 현재 높이 1.2m이다. 무덤의 북쪽이 높고 남쪽은 낮으며 네 변의 기단은 일반적으로 0.6×0.4×0.3m 전후다. 돌은 대부분 약간 가공하였으며 파괴로 인해 일부 기단이 손실되었다. 기단 안쪽은 산돌로 채우고 무덤의 상부 중간에는 한 개의 오목한 구덩이가 있는데, 묘광이 있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 무덤은 산돌로 봉분을 쌓았고 돌의 크기는 0.2×0.2×0.1m 전후다. 이 무덤은 보존이 비교적 좋다.

• 7호묘

남쪽으로 6호묘와 약 4m 떨어져 있으며, 계단적석석광묘(階壇積石石礦墓)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방형이다. 동서 길이가 6m인데 경작지로 파괴되어 현재 남북 길이는 4m 정도 남아 있고, 높이는 1m이다. 무덤의 남측은 1단의 계단석만 남아 있으며 동서 양측 일부는 제2단의 계단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2단 계단은 제1단 계단에서 0.5m 안쪽으로 들여쌓았다. 제1단 계단석은 비교적 커서 큰 것은 0.9×0.6×0.4m 전후이고, 작은 것은 0.5m 정도다. 제2단의 계단석은 다수가 0.4×0.4×0.3m 크기로 대부분이 약간 가공한 것들이다. 계단석 안에는 산돌을 채웠는데 일반적인 크기가 0.3×0.3×0.2m 전후로 무덤의 봉분석은 0.2×0.1×0.1m 정도다. 이 무덤은 심하게 파괴되었다.

• 8호묘

남쪽으로 7호묘와 약 30m 떨어져 있다. 계단적석석광묘로 대략 방형을 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타낸다. 묘장의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무덤은 남북 길이 15m, 동서 너비 13m, 현재 높이 2.5m이다. 이 묘는 무덤군 가운데 가장 큰 것이지만 심하게 파괴되어 무덤 돌 다수가 밭의 계단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돌을 통해 묘장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이 무덤에는 두 단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단 계단을 쌓은 돌의 크기는 다수가 0.8×0.6×0.4m 전후다. 무덤 남측에서는 제2단의 계단을 볼 수 있는데, 제2단 계단은 제1단 계단 위에 안쪽으로 0.7m 들여쌓았고, 사용한 돌은 비교적 작은 것이다. 무덤 동·북 양측의 계단석은 다수가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측 제2단 계단 역시 몇 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무덤 위의 남북 양측 봉분석 역시 파괴되어 묘광은 분명하지 않으며 봉분석은 대부분 0.2×0.2×0.15m 전후의 산돌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9호묘**

서남쪽으로 8호묘와 약 20m 떨어져 있으며, 계단적석광실묘(階壇積石壙室墓)이다. 무덤의 남북 양측은 경작지로 인해 파괴되어 현재는 9m가 남아 있으며 동서는 12m, 현재 높이는 2m이다. 남북 서측 계단석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동측 계단은 상반부만 남아 있고, 두 단의 계단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제1단 계단은 비교적 큰 산돌로 쌓았으며 현재는 두 층을 볼 수 있다. 계단석은 길이 0.6m, 너비 0.5m, 두께 0.3m 전후이고, 제1단 계단의 높이는 0.7m이다. 제1단 계단 윗면에서 안쪽으로 0.8m 들여 제2단 계단을 쌓았고, 제2단 계단은 두 층으로 쌓았다. 돌의 크기는 0.4m 전후이며 제2단 계단은 0.6m 정도의 높이로 쌓았다. 제1단과 제2단 계단의 내부는 산돌로 채웠는데 돌의 크기는 대략 0.3m 전후다. 무덤의 상부에서 남북으로 배열된 오목한 구덩이를 볼 수 있는데, 남측 구덩이는 묘장 상부의 동측으로 약간 치우쳐 있다. 크기

는 구덩이 남측의 너비 1.3m, 동서 길이 3m 전후, 깊이 0.2m로, 이 구덩이는 남쪽 광실이다. 북측 구덩이는 무덤 상부의 서측으로 치우쳐 있는데, 구덩이의 남북 너비 1.5m, 동서 길이는 3m이고, 이 구덩이는 북쪽 광실이다. 그리고 구덩이의 서측에서 입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북쪽 광실의 묘도(墓道)일 것이다. 북쪽 광실의 동벽과 북벽의 석축은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다. 0.4×0.3×0.2m 전후의 돌로 쌓았으며, 나머지 광실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현재 북쪽 광실의 깊이는 0.5m 전후다. 한편 북쪽 광실 동측에서 원형 구덩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는 후대에 돌을 빼내어 가기 위해 파괴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남북 두 광실의 위치와 현존 상태를 통해 분석해보면 이 무덤은 계단광실묘(階壇壙室墓)에 속하고, 묘도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0호묘

남쪽으로 9호묘와 약 35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남북 길이 8m, 동서 너비 5m, 현재 높이 1m이다. 무덤의 네 변은 기단이 있는데, 기단석은 비교적 큰 편이나 현재 대부분 빼내간 상태다. 남아 있는 기단석 크기는 0.6×0.4×0.3m 전후다. 현재 무덤 상부는 이미 파괴되었고, 무덤을 쌓는 데 사용된 돌은 대부분이 산돌이며 소량의 강돌도 포함되어 있다. 묘장은 심하게 파괴되었다.

• 11호묘

남쪽으로 10호묘와 약 10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대략 방형을 나타낸다. 변의 길이는 5m, 현재 보이는 높이는 0.8m이다. 무덤 네 주변 가장자리에는 기단을 쌓았는데 무덤 상부에는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분명히 알 수 없고, 무덤 돌은 다수가 0.4×0.3×0.2m 크기

의 산돌이며 무덤의 보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 12호묘

서남쪽으로 11호묘와 약 100m 거리에 있고, 유단적석석광관묘다. 이 무덤의 지세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데, 남북 길이 10m, 동서 너비 5m, 높이 0.6m이다. 무덤의 네 주위는 약간 가공한 화강암으로 기단을 쌓았는데, 기단석의 크기는 0.5×0.3×0.2m 전후다. 무덤 위에는 남북으로 배열된 두 개의 오목한 구덩이가 있는데 묘광의 위치일 가능성이 있다. 무덤 위 봉분석은 산돌로 크기가 0.2×0.2×0.1m이고, 무덤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 13호묘

13호묘는 서남쪽으로 12호묘와 약 3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관묘다.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으며 남북 길이 10m, 동서 너비 5m, 높이 0.5m이다. 이 무덤의 네 주변 가장자리에는 기단을 쌓았는데, 동남면의 기단석은 가장 큰 것이 길이 0.6m, 너비 0.5m, 높이 0.4m이다. 남측의 기단석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무덤 상부에는 남북으로 배열된 두 개의 오목한 구덩이를 볼 수 있는데, 묘광의 위치로 보인다. 묘광과 묘광 사이의 간격은 1m이다. 무덤 위의 봉분석은 산돌이고 돌의 크기는 0.2×0.15×0.1m 전후이며, 무덤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 14호묘

동쪽으로 12호묘와 약 15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다.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으며 정방형을 나타낸다. 남북 길이 6m, 동서 너비 5m, 높이 0.6m이다. 무덤의 네 주위에 기단을 쌓았고 기단석은 약간 가공하였으며, 무덤 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봉분석은 0.25×0.2×0.1m의 산돌이다. 무덤 상부에는 오목한 구덩이가 한 개 있는데 이는 묘광의 위치다. 이 무덤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2. 동구(東區)고분군

동측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으며, 고분군 중심지역의 좌표는 동경 126°06′702″, 북위 41°02′624″, 해발 246m이다.

• 15호묘

서북쪽으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구(西區)고분군 9호묘와 약 180m 거리에 있다. 유단적석석광관묘이고 장방형을 띠며, 남북 길이 10m, 동서 너비 5m, 높이 1.2m이다. 무덤에는 기단이 있으나 기단석은 대부분 빼내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남아 있는 나머지 소수의 몇 개를 보면 약간 가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돌의 크기는 0.5×0.4×0.3m 전후이다. 무덤 위의 봉분석은 0.3×0.2×0.2m의 산돌이고, 무덤 상부에는 구덩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 16호묘

남쪽으로 15호묘와 약 50m 떨어져 있으며 유단적석석광묘다. 무덤은 대략 방형을 띠는데 남북 길이가 11m, 동서 너비가 10m, 높이가 2m이다. 무덤은 기단이 있으며 기단석은 비교적 크나 대부분 결실되었다. 돌의 크기는 0.8×0.6×0.5m 전후다. 무덤 위의 봉분석은 대부분 0.4×0.3×0.2m 정도의 산돌이고, 무덤 상부의 중간 부분이 파괴되어 현재는 경작지가 되었다.

• 17호묘

남쪽으로 16호묘와 약 20m 떨어져 있으며, 유단적석석광묘로 방형을 띤다. 변의 길이 6m, 현재 높이 1.3m로 무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기단석은 대부분이 0.5×0.4×0.3m 전후이고 석재를 약간 가공하였으며, 파괴로 인해 일부 기단석은 결실되었다. 기단 내부에 산돌을 채웠으며 무덤의 상부 중간에 오목한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는 묘광이다. 무덤의 봉분석은 산돌로 돌의 크기는 0.2×0.2×0.1m이다. 무덤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었다.

• 18호묘

남쪽으로 17호묘와 10m 떨어져 있으며, 유단적석석광묘로 방형이다. 변의 길이 5m, 현재 높이 1m이고 기단석의 다수는 0.5×0.4×0.2m 전후인데, 기단석의 결실이 비교적 많다. 무덤 내부에는 산돌을 채웠으며 상부 중간에는 오목한 구덩이가 있는 묘광이다. 무덤 위는 산돌로 봉분을 쌓았고 돌의 크기는 0.3×0.2×0.1m이며, 보존 상태는 보통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9호묘

남쪽으로 18호묘와 약 10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이며, 대략 방형을 띤다. 무덤의 규모는 5×4.5×1m이고, 기단석은 대부분 결실되었다. 무덤 내부는 산돌을 채웠으며 무덤 상부 중간에는 구덩이가 한 개 있다. 무덤은 산돌로 봉분을 하였는데 돌의 크기는 0.25×0.2×0.1m 전후이며, 보존 상태는 보통이다.

• 20호묘

서쪽으로 19호묘와 약 5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로 대략 방형을 띤

다. 무덤의 규모는 4×4.5×1m이고 기단석 대부분은 결실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0.4×0.4×0.3m이다. 무덤 내부에는 산돌을 채웠으며 무덤 상부 중간에 구덩이는 보이지 않는다. 무덤 위는 산돌로 봉분을 쌓았으며 돌의 크기는 0.25×0.2×0.1m 전후다. 무덤의 보존 상태는 보통이다.

• 21호묘

북쪽으로 19호묘와 약 5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묘다. 남북 길이 6m, 동서 너비 4m, 현재 높이 0.5m이다. 무덤의 기단석은 현재 대부분 빼내 간 상태이며 남아 있는 기단석의 크기는 0.5×0.4×0.3m 전후다. 무덤은 산돌로 축조하였고, 심하게 파괴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22호묘

남쪽으로 19호묘와 약 25m 떨어져 있고, 유단적석석광관묘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남북 길이 15m, 동서 너비 5m, 높이 0.9m이다. 무덤의 가장자리에 기단을 쌓았으며 기단석의 가장 큰 것은 길이 0.6m, 너비 0.5m, 높이 0.4m이다. 무덤 상부에서 두 개의 구덩이를 볼 수 있는데, 남북으로 배열되었다. 무덤 위에는 산돌로 봉분을 했는데 돌은 0.3×0.2×0.1m 전후이며, 무덤의 보존 상태는 보통이다.

• 23호묘

서남쪽으로 22호묘와 약 5m 떨어져 있다. 유단적석석광묘로 대략 방형을 띠고 있는데, 변의 길이 5m, 높이 1.2m이다. 무덤에는 기단이 있으며 동·서 양면의 기단은 비교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기단은 약간 가공한 산돌로 쌓았는데 돌의 길이 0.6m, 너비 0.5m, 높이 0.3m이다. 그리고 기단 내부에는 산

돌을 채웠으며 그 크기는 0.3×0.2×0.2m 전후다. 무덤의 정상부 중간에는 구덩이가 있다. 무덤은 0.2×0.2×0.1m 정도의 산돌로 봉분을 하였으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상활용 산서고분군 동·서 양 구역의 다수 묘장은 관목과 잡초가 우거진 시냇가에 분포하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조사한 23기의 묘장 이외에도 7기가 더 있는데, 흔적만 있는 상태로 무덤돌을 모두 빼가서 약간의 잔석이 남아 있을 뿐 그 형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전체 묘지로 보아 동·서 두 구역의 묘장 유형은 기본상 일치하는데 모두 부서진 산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묘장 유형은 비교적 단일하며, 적석묘 유형에 속한다. 23기의 묘장 중에서 유단적석석광묘가 20기인데, 그 중 관묘(串墓)가 6기다. 그리고 나머지 3기 중 계단적석석광묘(階壇積石石壙墓)는 2기이고, 계단적석광실묘(階壇積石壙室墓)는 1기다. 기왕의 연구에 의하면 유단적석석광묘의 시작 연대는 고구려 건국 전후이며 계단적석광실묘의 연대는 대략 기원 3세기 말에 이른다. 따라서 이 무덤의 연대는 고구려 건국 전후에서 기원 4세기 초까지다. 그중 8호묘는 가장 큰 계단적석석광묘로서 무덤들 가운데 신분 등급이 가장 높은 것이다.

묘장의 배열을 관찰해 보면 모두 북측의 산 아래에서 남쪽 산 언덕을 향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발전하고 있어, 북쪽 높은 곳의 묘장은 남쪽 낮은 곳의 묘장보다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북측의 묘장은 대부분 낮고 왜소하지만 남측의 묘장은 비교적 북측보다 크고 높아, 낮고 작은 것에서 높고 큰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관묘(串墓)와 묘장의 배열 상황으로 보아 이 고분군이 긴밀하게 연관된 가족묘지라는 것 이외에도 고구려 석조 기술의 진보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건축 공예의 발전을 잘 알 수 있다.

상·하활용은 모두 압록강 중류 우안의 면적이 넓지 않은 평지로, 고구려시기 역시 인구가 밀집한 지역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상활용 산서고분군은 상·하활용 고분군의 중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상·하활용 고분군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상·하활용 고분군은 1982년 5월 노호초(老虎哨)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 때 발굴되었다. 이 지역의 묘장 분포에 대한 전면적 이해를 위해 발굴 정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상활용 고분군에서 발굴된 묘장은 14기이며 그 가운데 적석묘가 3기다. 규모는 기본적으로 서로 같으며, 모두 파괴되었다. 고분의 평면은 방형으로 모두 지표에 강돌을 구(丘) 형태로 쌓았다. 고분 중 잔존하는 도편(陶片)의 기형(器形)형은 도관(陶罐)과 도증(陶甑) 등이 있다.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는 5기다. 그 중 M5는 보존이 비교적 좋고 방구상(方丘狀)을 띤다. 방단(方壇)은 석회석 돌을 3층으로 나누어 쌓았다. 방단의 안쪽에는 강돌을 채워 편평하게 기초를 고르고 윗면의 네 변 안쪽에 계장(階牆)을 쌓았다. 그리고 계장 안쪽에는 다시 돌을 채워 편평하게 골라 광실(壙室)의 바닥을 만든 후 광실을 쌓았다. 광실은 남북방향의 장방형으로 길이는 약 3m, 너비는 불분명하다. 묘광의 상부는 크고 작은 강돌로 봉롱(封壟)을 조성하였다. 이 무덤에서는 일찍이 절반의 연화문 와당과 '강(岡)'자가 새겨진 도편이 발견되었다.

봉토동실묘(封土洞室墓)는 6기이며 두 개의 형식으로 분류된다. 조영 방법은 기본적으로 서로 같고 대부분이 석재를 쌓아 묘실을 축조하였으며, 묘도 위에 덮개석을 놓은 후 황토로 봉하여 외관상으로는 원구상(圓丘狀)을 나타낸다. I식의 묘실 평면은 도(刀)형이고, II식은 산(鏟)형이다. 부서진 동경 1건과 협사회도(夾砂灰陶)와 니질회도(泥質灰陶) 조각이 출토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활용 고분군은 34기의 고분이 존재하는데, 모두 적석묘다. 전부 정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가운데 M8은 보존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 동서 너비 7.5m, 남북 길이 9.5m, 높이 0.5~1.2m이며 직경 0.5m의 지표에 크고 작은 강돌을 둘러 묘변(墓邊)을 쌓았는데, 평면이 원형이다. 그런 다음 묘의 중간에 묘광을 조성하였는데 네 벽에는 직경 0.3m 정도의 강돌을 이용하여 쌓았다. 묘광 상부는 작은 강돌로 봉분을 만들었다. 부장품으로는 마노주(瑪瑙珠), 도관(陶罐), 도망추(陶網墜), 도방륜(陶紡輪), 동포(銅泡), 환수철도(環手鐵刀), 철분(鐵鋍), 염도(鐮刀), 철대식(鐵帶飾) 등이 있다.

하활용 적석묘에서 출토된 철기는 대부분 한대(漢代)의 기물이다. 도기는 모두 수제이나 불의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여 고구려 초기의 도기 제작 방식이 나타난다. 묘장의 형태와 출토유물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하활용 고분군의 연대는 대략 동한(東漢)시기로, 하한은 한말(漢末) 위초(魏初)를 넘지는 않는다.

상활용의 적석묘와 방단적석묘에서 출토된 도기의 재질과 제작법 및 형태를 살펴보면 서로 비슷하다. 묘장의 연대 역시 서로 멀지 않은 시기로 대략 남북조시기다. 봉토동실묘에서 화문 동경이 1개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종류의 동경은 당대(唐代) 중후기에 비교적 성행한 것으로 이 무덤의 연대 또한 대략 이 시기다.

한편 상술한 상·하활용 고분군의 입지 선택, 묘장의 분포와 배열, 묘장의 결구 및 건축 재질 등을 상활용 산서 고분군과 비교해 보면 비록 연대상은 별 차이가 없지만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묘의 입지 선택과 묘장의 분포 배열이 다르다. 상·하활용 고분군의 입지는 모두 압록강 우안의 높은 침수지역에 위치하는데, 묘장은 그 중부에 분포하고 압록강이 흐르는 방향에 맞게 상류에서 하류로 배열되었다. 한편 상활용 산서 고분군의 입지는 산골짜기와 산비탈을 선택하였고 묘장은 산 위에

서 산 아래를 향하는, 즉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배열되었다.

다음은 묘장의 결구와 건축 재료의 선택의 차이다. 상·하활용 고분군 가운데 적석묘의 묘장 외형은 대부분이 불규칙한 원형과 타원형으로 묘광은 대부분 지표에 보이며, 축조 재료는 강돌을 선택하였다. 반면 상활용 산서고분군의 묘장은 대부분 방형과 장방형으로 묘광은 묘장의 꼭대기 부분에 위치하고, 축조 재료는 산에서 깨어낸 돌이다.

양자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결론은 상·하활용 고분군과 상활용 산서 고분군은 한 가족의 묘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하활용 고분군의 묘장은 요령성(遼寧省) 환인현(桓仁縣) 망강루(望江樓) 고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상활용 산서고분군은 집안 마선묘구의 M626, M2378, M2381과 칠성산(七星山) 고분군의 M871등의 묘장과 서로 같은 유형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조사 상황은 이전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었고 보다 정밀한 고고조사를 통해 약간의 새로운 사실을 얻을 수 있었다. 바로 호자구1호묘(蒿子溝1號墓)는 왕릉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의 조사는 양민 유방구(油坊溝) 일대에 한정한 것으로 170여 기를 발견하였으며, 양민 유방구 이외의 기타 지역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2004~2006년에 필자는 양민지역의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해 풍부한 수확을 얻었고 위와 같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공유함으로써 더욱 좋은 고구려사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고구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集安高句麗王陵』
『集安高句麗墓葬』
『文物』
『高句麗王陵通考』
『2007中國重要考古發現』
『東北史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광의(高光儀)
한국고대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渤海の歷史と文化』(공저, 2009, 明石書店), 『高句麗的文化與思想』(공저, 2010, 香港社會科學出版社), 「浦項 中城里新羅碑 書體와 古新羅의 문자생활」(2010, 『新羅文化』 35), 「樂浪郡初元 四年 戶口簿 재검토」(2011, 『木簡과 文字』 7),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형태와 書體」(2013, 『高句麗渤海研究』 45) 등이 있다.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동북아역사재단 **고광의**

I. 머리말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광개토태왕은 412년(재위 22) 겨울 10월에 훙거(薨去)하였으니 올해로 1600주기가 된다. 아들 장수왕은 414년[갑인년(甲寅年)] 9월 29일 산릉(山陵)에 부왕을 모시고 거대한 비를 세워 그의 생애와 공훈 및 유훈 등을 기록하여 천추만세 기억토록 하였다. 비가 건립된 지 이미 1598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오직 한 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며 고구려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광개토태왕비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 국내성 고지(故地)에 있다. 비의 높이는 6.39m, 각 비면의 넓이 1.3~2m, 무게 약 37톤에 이르는 불규칙한 사각기둥 형태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졌다. 석질은 연한 녹회색의 기공을 가진 안산암질(andesitic) 또는 석영안산암질(dacitic) 용결 래필리응회암(welded lapilli tuff)이다.[1] 비문은 4면에 사각형의 구획을 정하고 그 안에 세로로 선을 긋고 글자들

1) 고구려연구재단(2005), 『환인·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 지질조사 보고서』, 고구려연구재

을 음각(陰刻)하였다. 글씨는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나갔으며 글자의 크기는 세로 9~12cm, 가로 10~12cm이다. 한 행의 최대 글자 수는 41자이고, 제1면 11행, 제2면 10행, 제3면 14행, 제4면이 9행으로 약 1,775자 정도가 파악된다. 비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처음부터 제1면 6행까지로 고구려 왕조의 유래와 광개토태왕의 생애를 기술하였다. 둘째 단락은 7행부터 제3면 8행 15자까지로 왕의 정벌 활동에 관한 기사다. 셋째 단락은 그 다음부터 끝까지로 왕릉의 수묘(守墓)를 위한 연호(煙戶)와 관련 법령을 기록하고 있다.

비는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잊혀져 있다가 19세기 말에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재발견 초기에는 주로 중국과 일본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의 연구는 일제시기 신채호나 정인보에 이어 1960년대 중반 북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된 내용을 주제에 따라 나누어 보면 비의 발견, 비문의 내용, 석문(釋文) 및 역주(譯註), 탁본, 서예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2]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서예학 분야다. 특히 서체에 대한 연구는 청말(淸末) 금석학자(金石學者)들에 의해 논의가 시작된 후 여러 권의 연구서와 논문들이 발표되면서 약간의 논급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광개토태왕비 서체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의 서체가 형성되었던 시대를 전후한 서사(書寫)문화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고구려의 독특한 서체 양식으로서 '광개토태왕비체(廣開土太王碑體)'

단, 100쪽

2) 고광의(2004), 「중국학계의 廣開土太王碑 연구 현황－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고광의(2005), 「중국의 廣開土太王碑 釋文 연구의 현황과 검토」, 『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개진해보고자 한다.

II. 광개토태왕비 서체 연구사 검토

광개토태왕비가 재발견된 이후 금석학자들에 의해 서체에 관한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극히 단편적인 내용이었다. 청말민국시기에 간간히 언급되던 서체에 관한 논의는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66년 북한의 박시형을 필두로 1970년대 남한의 서예가와 금석학자들에 의해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중국과 한국 등 역사학·고고학·문자학·서예학 분야에서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서체 연구는 광개토태왕비학(廣開土太王碑學)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광개토태왕비 서체 연구사

연구자	서체[자체]	출처
王志修	追慕秦漢超隋唐, 類漢隸	「高句麗永樂太王古碑歌」(1895) 「高句麗永樂太王碑考」(1895)
鄭文焯	八分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1898)
葉昌熾	隸楷之間	「奉天一則」, 『語石』(1901)
榮禧	篆隸相羼, 極似魏碑. 楷法甫有二三, 篆隸仍存六七	『高句麗永樂太王墓碑讕言』(1903)
張風台	非秦漢以下文字	「按說」(1910)
顧燮光	隸楷之間	「夢碧簃石言」(1918)
歐陽輔	似楷似隸, 眞書	「高麗好太王碑」, 『集古求眞』(1923)
박시형	해예지간, 예서	『광개토왕릉비』(1966)
김응현	廣開土王碑(字)體, 해(楷)보다 예미(隸味)를 더한 것	「高句麗書法考」, 『書通』 創刊號(1973) 「高句麗金石의 定立」, 『書通』 9(1979)
김기승	한예(漢隸)의 팔분서(八分書)	新稿 『韓國書藝史』(1975)

연구자	서체 [자체]	출처
임창순	예서(隸書), 해(楷)로 변해가는 예서	「高句麗의 金石과 書藝」, 『書通』 創刊號(1973) 「中原高句麗碑小考」, 『史學志』 13(1979)
王健群	동진(東晋)의 예서	『好太王碑研究』(1984)
吉林省 文物志 編委會	예해지간(隸楷之間)	『集安縣文物志』(1984)
이형구· 박노희	고예(古隸), 창조성을 띤 종합 서체	『廣開土大王陵碑 新研究』(1986)
羅繼祖· 叢文俊	隸書	「簡談好太王碑字體」, 『博物館研究』 1986-1
東夷	隸書體段, 承襲東漢的〈開通褒斜道刻石〉的隸法	『中國美術全集』, 書法篆刻 編 2(1986)
郭子緖	隸書	『中國書法鑑賞大辭典』(1989)
張道興	隸·楷相間	『中國書法鑑賞大辭典』(1989)
조선유적 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예서	『조선유적유물도감』 3(1990)
김세호	한대(漢代)의 해서체	『韓國美術辭典』(1991)
秦維國	漢隸書體	「好太王碑及其書法藝術」, 『商報』, 1991年 9月 25日⑫
서영수	한예(漢隸)의 팔분서(八分書)에 가까운 고구려 특유의 웅혼한 필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周榮順	隸書	「好太王碑書法淺談」, 『高句麗研究文集』(1993)
耿鐵華	隸書	『好太王碑新考』(1994)
劉濤· 唐吟方	隸書	『中國書法史圖錄解說』(1995)
王靖憲	隸書	『中國書法藝術』(1996)
李樂塋	古隸體	「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 『通化師院學報』 1996-1
叢文俊	舊體銘石書	「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199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자	서체[자체]	출처
김양동	儀式用 '國定書體', 隸書[(파임이 없는 고예(古隸)]	「'高句麗好太王碑 文字와 書法에 관한 硏究'에 대한 토론」, 『廣開土好太王碑 硏究 100年』(1996)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中原高句麗碑 新照明』(2000)
이완우	古隸	『韓國書藝二千年』(2000)
이규복	隸書(國家 儀式用 公式書體)	『槪說 韓國書藝史』 I(2001)
고광의	隸書, 廣開土太王碑體	「5세기 高句麗 書藝의 特徵 硏究」, 『書藝學』 2(2001) 「書體를 통해서 본 高句麗 正體性」, 『高句麗 正體性』(2004) 「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2005) 「고구려의 금석문과 서체」,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2007)
耿鐵華	서체는 예서에서 해서로 변화되는 시기의 것, 고구려 국가의 관방(官方) 서체	『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2003)
김병기	서한(西漢) 시대의 예서인 고예(古隸), 고구려체 혹은 광개토대왕비체	『사라진 비문을 찾아서』(2005)
박영도	예서체, 예서의 한 종류인 고예의 전형적인 필체	『조선서예발전사』(2008)

위의 〈표 1〉은 광개토태왕비가 발견된 이후 서체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해본 것이다. 그간 '고예(古隸)'·'한예(漢隸)'·'팔분(八分)'·'예해지간(隸楷之間)'·'진서(眞書)'·'동진예서(東晋隸書)'·'예서(隸書)'·'구체명석서(舊體銘石書)'·'의식용 국정서체'·'고구려 관방서체'·'광개토태왕비체'·'고구려체'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들 주장을 보면 대략 '고예'와 '팔분[한예]', 이를 포괄하는 '예서', 예서와 해서(楷書)의 과도적 요소에 중점을 둔 '예해지간', 그리고 보다

확대된 서체 개념으로서 '구체명석서'·'국정서체'·'관방서체'·'광개토태왕비체'·'고구려체'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먼저 '고예'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자. 주지하듯이 예서는 전서(篆書)에서 변화 발전한 서체다. 전서가 주로 사용되던 전국(戰國)시기에 일상 서사(書寫)에서는 규범적인 전서와는 또 다른 형태의 글자들이 사용되었다. 이 글자들은 진대(秦代)와 서한(西漢) 초기에 이르러 전서의 번잡한 형태와 필법을 더욱 간략하게 개조하여 일상에서 폭넓게 사용되었는데, 그러한 서체를 '진예(秦隸)' 또는 '고예(古隸)'라 한다.[3] 이들 서체의 결구는 간결해졌지만 일부 자형은 여전히 전서의 형태들이 남아 있다. 필획은 원전(圓轉) 형태에서 방절(方折) 형태로 바뀌고, 모필(毛筆) 서사의 흔적이 명확해지는 동시에 파책이 글자의 아래쪽으로 향하는 특징이 있다. 운몽(雲夢) 수호지(睡虎地) 진간(秦簡)이나 마왕퇴(馬王堆) 백서(帛書) 노자(老子) 갑본(甲本)(그림 1 참조) 등의 서체가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광개토태왕비 서체의 고예설은 주로 남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啓功(1999), 『古代字體論稿』, 文物出版社, 28~29쪽 ; 裘錫圭(1996),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77~81쪽 참조. 漢字의 隸書體에서 '古隸(秦隸)'는 '八分(漢隸)'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漢隸' 즉 '八分'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예서를 '秦隸' 또는 '古隸'라고 한다. 이들 서체의 특징은 파책이 명확하지 않고 여전히 篆書의 자형 결구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며, 시기적으로는 漢代 초기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시기의 의미가 부각되는 '秦隸'라는 표현보다는 후대에 새롭게 완성되는 八分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전의 예서체라는 개념에서 古隸라는 명칭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八分'이란 명칭은 대략 漢末 魏初에 출현한다. 그런데 당시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예서 가운데 규범적인 八分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서체가 나타나는데, 啓功과 裘錫圭 같은 학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서체를 '新隸體(新俗體, 新隸書)'라고 칭하여 구분하고 있다. 新隸體는 형태상 楷書의 초기 모습을 띠며 八分에 비해 새로운 예서라는 의미가 있다. 이들 예서의 개념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唐代까지도 일반인들은 당시 통행되던 楷書를 隸書라고 칭하고, 漢隸는 八分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古隸' 개념에는 楷書의 또 다른 명칭인 '今隸'에 대한 상대적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古隸는 기타 서체와 대별되는 隸書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그림 1_ 마왕퇴(馬王堆) 백서(帛書) 갑본(甲本)[서한(西漢), 고예(古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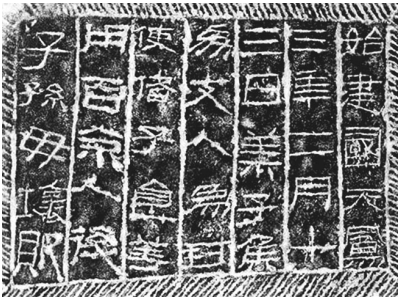


그림 2_ 내자후각석(萊子侯刻石)[신망(新莽), 고예 풍격 예서]

는데, 남한의 이형구·박노희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논지를 살펴보면, 능비문(陵碑文)의 필획과 사법(寫法)은 고예법을 준수하여 진(秦)대 권량명(權量銘)·서한초(西漢初) 각석(刻石)(예를 들면 그림 2 내자후각석)·한(漢)대 금문(金文)·전문(塼文)·인문(印文)의 전아한 고예 풍격을 표현해 낸 것에 가깝다고 한다. 또 비의 문자는 비록 예서에 속하나 '팔분서(八分書)' 특유의 파세(波勢)와 책세(磔勢)는 없으며, 그 대신 전서(篆書)의 유운(遺韻)을 가지고 있어 고예 필획과 비슷하다고 하였다.[4] 비문의 서체가 예서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 그 파책(波磔)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예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본 듯하다.

4) 李亨求·朴魯姬(1986), 『廣開土大王陵碑 新研究』, 同和出版公社, 39~41쪽. 공저자인 박노희는 당시 국내의 대표적 서예가인 金膺顯과 대만의 莊尙嚴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東方研書會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서예학에 근접한 고찰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국내 학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서도 광개토태왕비체의 서체를 '예서체', 구체적으로 '예서의 한 종류인 고예의 전형적인 필체'라고 주장하고 있다.[5] 필획에서 파임의 적용 여부를 통해 고예와 팔분으로 나누고 광개토태왕비를 파책이 없는 고예로 본 듯하다. 즉 이들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고예로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는 파책이 없다고 본 점이다.

그러나 광개토태왕비에서 파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人)'·'대(大)'·'천(天)'자 등에서는 파책이 비교적 명확한데, 그 형태가 고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팔분과도 역시 다른 모습이다. 팔분의 파책 형태를 함축하는 한편, 오히려 해서(楷書)의 필의(筆意)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처한 서체 연변(演變)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광개토태왕비와 시기가 멀지 않은 안악3호분의 주서(朱書)나 산성하332호분과 장천2호분의 묵서(墨書)에 팔분 필의가 나타나고, 덕흥리 벽화고분에서는 초서(草書)나 해서 및 행서(行書)까지도 이미 사용되고 있다[6]는 점을 통해서도 서사자는 이미 예서 이외의 서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는 이미 팔분과 해서

5) 박영도(2008), 『조선서예발전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80·108쪽 참조. 그리고 '3절 우리 민족의 우수한 서예유산 광개토왕릉비와 《예서체》의 민족적필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서예유산의 하나인 광개토왕릉비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고상한 정서, 미감에 맞는 민족적 필치인 예서체로 쓰여진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한 서예유산으로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감상 보편적 서체의 하나인 예서체가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서와 미감에 맞는 민족적 서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아마도 특별히 광개토왕비에 나타나는 엄정하고도 원숙한 예서체의 독창적인 풍격을 지칭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여, 그간 직관적으로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언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예의 발전사라는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6) 高光儀(1999), 「4~7世紀 高句麗 壁畵古墳 墨書의 書藝史的 意義」, 『高句麗硏究』 7, 고구려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구에 대한 충분한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예변(隸變) 과정에 놓인 고예의 형태로 판정하는 것은 당시 고구려 서체 연변의 맥락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예서의 초기 발전 단계로서 성격이 강한 명칭인 고예는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설명하기에는 다분히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팔분[한예(漢隸)]'설에 대해 검토해보자. 팔분설은 청말의 왕지수(王志修)와 정문작(鄭文焯)을 시작으로 최근까지도 간혹 주장되고 있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비의 서체를 팔분에 가깝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 무제(武帝) 후기 이후 거연(居延)과 돈황(敦煌) 등지에서 발견되는 간독(簡牘)에는 전서(篆書)의 자형들이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특히 종세(縱勢)를 형성하던 자형이 좌우로 펼쳐지는 횡세(橫勢)를 나타나는데, 이러한 서체가 전술한 '팔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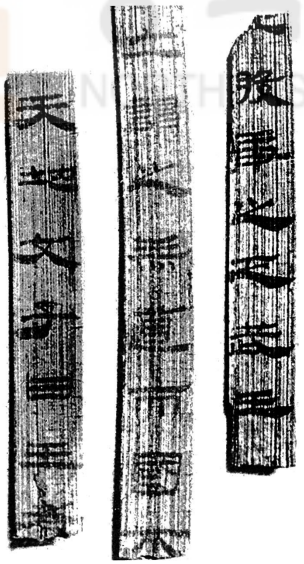


그림 3_ 정현(定縣) 한간(漢簡)[서한, 팔분(八分)]



그림 4_ 조전비(曹全碑)(동한, 팔분)

또는 한예'다. 그 특징은 전체적인 형태가 좌우로 긴 편방형이고 필획은 가로획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수평을 이루며 세로획은 수직에 가깝다. 가로획은 기필(起筆)과 수필(收筆)에서 각각 돈세(頓勢)와 파세(波勢)가 강조된 잠두안미(蠶頭雁尾)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별(撇)의 수필 부분에서는 약간 위쪽으로 치켜 올리는 듯한 도법(挑法)이 나타나고, 날(捺)은 각 글자의 주획(主劃)으로서 강한 파책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그림 3·4).

이러한 팔분의 특징과 비교하여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살펴보면, 자형은 기본적으로 정방형 또는 장방형을 유지하고, 필획은 가로획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수평을 이루며 세로획은 수직에 가깝지만 별획의 도법과 날획의 파책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팔분의 별과 날이 횡장세(橫長勢)를 형성하여 좌우로 긴 편방형 결구를 이루는 것에 비해 광개토태왕비에서는 파책이 자제되면서 글자의 형태가 정방형 또는 위아래로 긴 형태를 이루는 것들이 많아 전체적으로 팔분의 서체 특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왕지엔췬[王健群]도 '비록 개별 글자는 약간의 파세(波勢)가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표현한 파책과는 달라서 팔분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정문작(鄭文焯)이 주장한 팔분설에 대해서도 비교적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7]

광개토태왕비에는 예서, 해서 결구와 함께 행서나 초서, 심지어 전서의 자형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섭창치(葉昌熾)와 고섭광(顧燮光)은 '예해지간(隸

7) 王健群(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55·197~198쪽 참조. 鄭文焯이 「高麗國永樂太王碑釋文纂考」에서 "甲寅棄國之明年癸丑至甲寅九月始遷山陵立碑紀功卽在是歲實當建興之十二年也. …… 字體八分遒渾. …… 此碑隸體, 如錐畫沙, 其時去東京未遠, 多漢人遺意, 尤神似吳九眞太守谷朗碑. 蜀漢石文, 世不數覯, 東國得此, 足補史乘之闕, 可謂後出最古者矣"라고 한 것에 대해 왕건군은 鄭氏가 비의 건립 연대를 (蜀)漢 建興 12년, 즉 234년으로 시대를 잘못 봄으로써 字體의 評論도 틀렸다고 비판하였다.

楷之間)', 영희(榮禧)는 "篆隸相雜, 兼多省文, 古樸可喜, 極似魏碑, 而書法過之, 洵足珍矣. …… 楷法甫有二三, 篆隸仍存六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예서와 해서 등의 과도적인 결구의 혼잡으로 인해 청말 민국시기 다수의 금석학자들은 비의 서체에 대해 '예해지간(隸楷之間)' 또는 '사해사예(似楷似隸)'라고 표현하였다. 말 그대로 예서와 해서의 중간 형태라는 것이다. 어쩌면 광개토태왕비가 서각(書刻)된 당시, 예서에서 해서로 변해가는 서체 연변(演變)의 시대적 상황을 비교적 적절하게 묘사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의 박시형은 '해예지간(楷隸之間)', 즉 예서에서 해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것이지만 그 대부분의 자형은 이미 해서로 전변되고 일부는 아직 예서의 자형을 보유한 것이라 하였고, 남한의 임창순은 전체적으로는 예서로 보지만 '해로 변해가는' 과도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을 어느 면에서는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고예나 팔분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자형의 변화상을 보다 가깝게 설명하고 있지만, 서체의 명칭으로는 여전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

반면에 중국의 왕지엔췬 같은 이는 비교적 구체적인 서체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저서에서 「호태왕비의 자체(字體)」라는 독립된 절(『호태왕비연구』 제5장 7)을 할애하여 문자 특징과 서체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는 광개토태왕비 서체를 '동진(東晋)의 예서'라고 확정하고, 광개토태왕비의 일부 글자들을 한대의 조전비(曺全碑)(그림 4 참조)와 장천비(張遷碑), 북위의 손추생조상기(孫秋生造像記), 남조(南朝) 송의 유회민묘지(劉懷民墓誌)와 찬룡안비(爨龍顔碑) 등 한진남북조(漢晉南北朝)의 비각 자료들과 비교하고 있다. 광개토태왕비 서체의 계통이 직접 한예(漢隸)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고 그 시기를 '동진' 시대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동진과 고구려가 상호 독립된 국가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광개토태왕비를 동진에 귀속하는 표현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동진의 예서'라 할 경우에도 서체 변화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당시 비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예서는 주로 한대부터 정형화된 팔분이 연용되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 풍격과는 차이가 난다.[8)]

1960~1970년대 중국에서 광개토태왕비 연구가 주춤하고 있는 동안 남북한 학자들은 비의 서체를 고예나 팔분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서'로 폭넓게 지칭하기 시작하였다. 고예나 팔분의 특정 개념보다는 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중국 학자인 루어지주[羅繼祖]와 총원쥔[叢文俊] 역시 서한대(西漢代)의 일부 동기명문(銅器銘文)이나 석각(石刻) 문자의 풍격과 유사한 점을 들어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예서'라고 주장하였다. 예서설 역시 다소 모호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예나 팔분의 자형 특징뿐만 아니라 해서로의 과도적 요소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설명하는 데 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광개토태왕비가 소재한 중국 집안과 통화 지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비의 서체에 대한 창작 활동과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기 시작했다. 현지의 서예가인 친웨이궈[秦維國]는 '호태왕비서법연구회(好太王碑書法研究會)'를 조직하고 회장을 맡아 광개토태왕비 서체를 근거로 창작 활동을 펼치면서 국내외 홍보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그는 비의 서체를 '한예'라 하고 예서를 위주로 하여 전예(篆隸)의 필의와 초서의 필획이 혼합된 형태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과도기적 서체는 중원 문화와 동방 소수민족 문화가 융합하여 형성된 독특한 풍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주롱순[周榮順]은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는 고졸한 예서(隸書)로서 그 당시 초기의 과도기적 자체라고 보고, 자

8) 叢文俊은 동진예서설에 대해 시기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서체특징 측면에서 보면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하고, 魏晉시기의 碑刻은 八分隸書를 숭상한 것으로 광개토태왕비와 양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叢文俊(1996),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회, 294쪽

형 결구와 비문의 포백, 입비의 시기 및 양식에 대해서도 고찰을 시도하였다. 리뤄잉[李樂營]은 광개토태왕비와 비슷한 시기의 모두루묘지 서체가 해서인 점을 들어 비에 나타난 고예체(古隸體)는 낙후가 아니라 고구려인이 한자를 용용한 선택이라고 보았다.

한편 최근에는 광개토태왕비의 자형만을 통해 서체를 언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비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단편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김응현은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광개토왕비(자)체',[9] 자형 특징은 해(楷)보다 예미(隸味)를 더한 것이라고 하여 기존의 서체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형구·박노희는 예서로 풍골(風骨)을 삼고 전서·해서·행서·초서의 새로운 운미(韻味)를 혼합한 '창조성을 띤 종합 서체'라고 하였고, 서영수는 한예(漢隸)의 팔분서(八分書)에 가까운 '고구려 특유의 웅혼한 필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자형의 특징과 함께 서체에 내포된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하려는 나름의 고려가 담긴 것이라 생각된다.

총원쥔은 비의 자형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 비교하고 그 특징을 부각하여 새로운 개념의 '구체명석서(舊體銘石書)'설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한 논지를 보면

9) 金應顯(號 如初)은 『書通』 창간호에 기고한 「高句麗 書法考」 '廣開土境好太王碑' 절에서 碑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면서도 특정 서체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이어지는 '廣開土地好太王壺杅' 절에서 "이 字體에서 보아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有名한 廣開土王碑를 范(골)으로해서 銅을 끄려분다면 다름 아닌 이 壺杅字의 字體가 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廣開土大王碑字가 波勢와 磔勢가 없는 特有의 字體를 이루어서 篆도 아니고 隸도 아니며 楷도, 勿論 아니나 이들 三體를 하나인 書體, 卽 廣開土王碑(字)體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지나친 誇張이라고 할 수 없겠다. 이야말로 高句麗人이 만들어낸 特有의 書體인 同時에 韓民族의 脈搏을 通하여 不滅의 化身이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指摘한대로 近千年後인 朝鮮朝의 世宗大王이 製定하여 頒布한 國文訓民正音의 原形이 이와 같았다는 事實을 다시 想起치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金應顯(1973),『書通』 創刊號, 東方研書會, 41~42쪽

진당(晉唐)에서 팔분예서(八分隸書)를 '명석서(銘石書)'라 하였고, 동진인(東晋人)들이 한창 왕희지(王羲之)·왕헌지(王獻之)의 해서 풍격을 따르고 있던 시기에 광개토호태왕비의 문자는 아직 팔분예서에 의해 도태된 이전의 예서해식(隸書楷式)에 머물러 있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김양동은 고구려가 왜 그런 서체를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비의 건립 이유와 직결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동진과의 교섭이 활발했던 고구려가 중원의 서체변화를 몰라서 굳이 서한시대의 고예(古隸)를 쓴 것이 아니라, 장수왕이 국력을 기울인 이 기념사업에 국가적 권위와 위엄을 갖추기 위해 고구려다운 정취와 풍격이 우러나는 전형적인 자형을 염두에 둔 '고구려의 선택'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의식용 '국정서체'이며 단순한 지역의 편벽성이나 문화적 폐쇄성에서 오는 낙후된 모습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10]

김응현을 비롯한 이들의 논의는 광개토태왕비의 서체를 그간 자형 결구를 중심으로 접근하던 형태학적 측면에서 보다 더 확장된 서체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인식하에 비의 서체가 지니는 예술성과 자형결구(字形結構)의 다양성 및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이 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광개토태왕비체'라고 명명하자고 주장해왔다.[11] 그리

10) 叢文俊(1996), 「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회, 295쪽 ; 김양동(1996), 「'고구려 호태왕비 문자와 서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회, 351쪽 ; 김양동(2000), 「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 『中原高句麗碑 新照明』, 고구려연구회, 581~582쪽 참조

11) 高光儀(2001), 「5세기 高句麗 書藝의 特徵 研究」, 『書藝學』 2, 韓國書藝學會 ; 高光儀(2004), 「書體를 통해서 본 高句麗 正體性－廣開土太王碑體의 형성을 중심으로」, 『高句麗 正體性』 高句麗研究18, 高句麗研究會 ; 高光儀(2005), 「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廣開土太王碑體와 石柱碑 樣式의 獨創性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 高光儀(2007), 「고구려의 금석문

고 최근에 김병기는 광개토태왕비의 글씨는 자체(字體)로는 예서, 그 중에서도 서한시대의 예서인 고예(古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서체로는 중국과는 판이한 '고구려체' 혹은 '광개토대왕비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확대된 서체 개념들은 광개토태왕비 자형에 나타난 과도적 요소들에 대한 형태학적 귀납의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비에 담긴 역사와 문화 및 예술적 시대상을 반영하여 광개토태왕비 서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보려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I. 광개토태왕비 서체 형성의 서사(書寫)문화적 배경

고구려는 초기부터 중국 한군현(漢郡縣) 세력과 다양한 교섭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고구려가 건국하여 발전한 지역은 한이 고조선을 멸하고 설치한 현도군과 낙랑군 등을 통해 문서행정을 시행하던 곳으로, 고구려 또한 일정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현도군이나 낙랑군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자 유물들은 그러한 정황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점제현신사비(粘蟬縣神祠碑)를 비롯하여 인장(印章)과 봉니(封泥) 및 간독(簡牘) 자료들이 다수 전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점제현신사비(그림 5)는 1913년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평안남도 온천군 성현리(구 용강군 해운면 운평동)에서 발견되었다.[12] 화강암 석질로 높이 130cm, 너비 109cm, 두께 21cm의 규모이며 비신의 윗부분이 일부 파손되었다. 모두 80여

과 서체」,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12) 朝鮮總督府(1927), 『古蹟調査特別報告－樂浪郡時代の遺蹟』 第4冊, 234~244쪽



그림 5_ 점제현신사비(秥蟬縣祠神祠碑)

자가 확인되는 비문의 내용은 군현에서 행한 농경의례 중 산신숭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20자 내외가 잘 판독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건립 연대를 원화(元和) 2년(서기 84)으로 보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비면에 세로로 계선을 치고 하단부에 마무리 구획선을 긋고 글자를 서각(書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법(章法)이 비교적 단정하게 보인다. 글자의 서체는 파책의 완성도가 떨어지며, 직선 필획이 강조된 예서다. 전체적인 계격(界格)의 형식을 비롯하여 체세(體勢)와 풍격이 광개토태왕비와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낙랑지역에서 출토된 와전(瓦塼) 명문의 제작 방법과 서풍(書風)이 국내성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기 와전 명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과도 통하는 면이라 할 수 있다.

인장은 옥, 청동,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이 사용되었다. 손잡이의 형태는 구뉴(龜鈕)와 비뉴(鼻鈕)가 주를 이루며, 관인(官印)과 사인(私印) 및 길상인(吉祥印)이 공존한다. 또한 인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봉니가 상당수 전하고 있는데,[13] 이들 서체는 필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간격이 고른 한대의 전형적인 인장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 인장과 봉니 유물은 당시 아직 종이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 상대적으로 간독(簡牘)이 많이 활용되던 문서행정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

13)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301~356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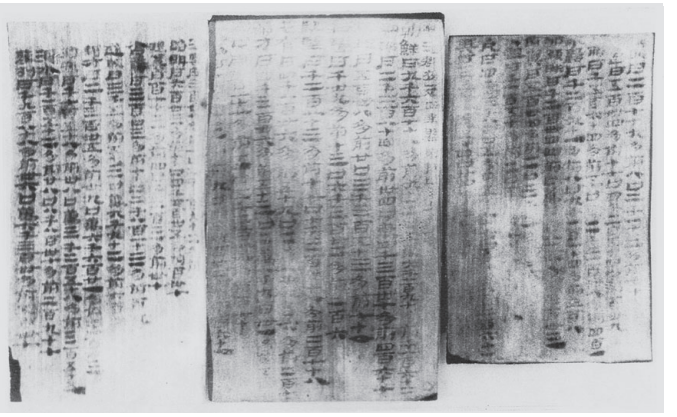


그림 6_ 낙랑군 호구부 목독[기원전 45, 팔분(八分)]

들이다.

낙랑군에서는 실제 간독문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일제시기 채협총(彩篋塚, 남정리 116호 무덤)에서 목찰[木札, 목독(木牘)]이 출토되었고, 최근 평양 정백동 364호에서는 낙랑군 '초원(初元) 4년 호구부(戶口符)' 목독[14](그림 6)과 『논어』 죽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손영종(2006a), 「락랑군 초원 4년(B.C. 45) 현별호구다소□□」, 『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0쪽 ; 손영종(2006b), 「락랑군 남부지역(후의 대방군지역)의 위치－'락랑군 초원4년 현별 호구다소□□'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력사과학』 198(2006－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0～33쪽 ; 손영종(2006c), 「료동지방 전한 군현들의 위치와 그 후의 변천(1)」, 『력사과학』 199(2006－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9～52쪽 ; 손영종(2008), 『조선단대사(고구려사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97쪽 좌면(화보) '락랑군 초원 4년(B.C. 45) 현별 호구 다소□□' · 206쪽 [부록 3] '락랑군 호구통계 및 기타자료' ; 김정문(2008), 「사진 : 락랑유적에서 나온 목간」, 『조선고고연구』 149(2008－4), 사회과학출판사, 49쪽(뒷 표지 안쪽 면) ; 金秉駿(2008), 「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木簡을 단서로」, 『木簡과 文字』 創刊號, 한국목간학회 ; 尹龍九(2009), 「平壤出土'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研究」, 『木簡과 文字』 3, 韓國木簡學會 ; 권오중 · 윤재석 · 김경호 · 윤용구 · 이성제 · 윤선태(2010),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고광의(2011), 「樂浪郡 初元 4年 戶口簿 재검토」, 『木簡과 文字』 7, 韓國木簡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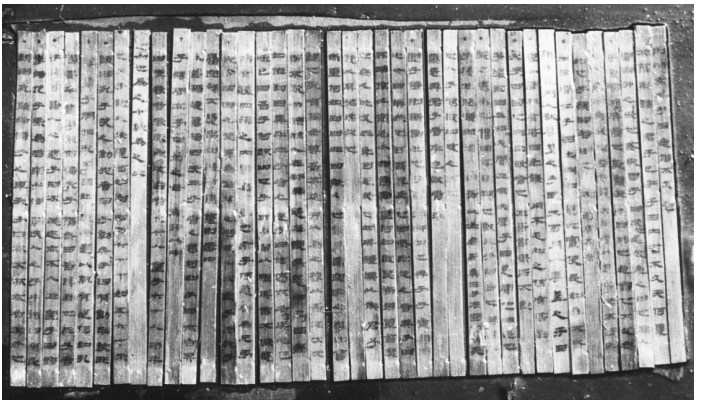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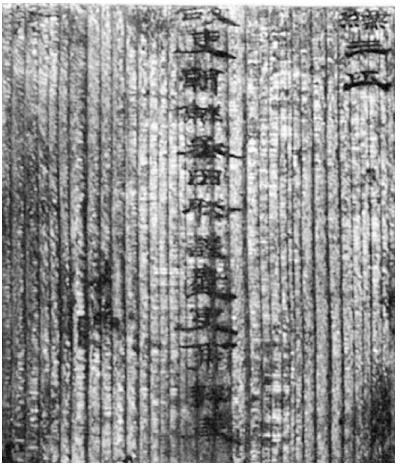


그림 7_ 평양출토 『논어』 죽간[기원전 45 혹은 그 이전, 팔분(八分)]

(竹簡)[15](그림 7)이 수습되어 알려지고 있다. 채협총 목독(그림 8)은 장방형 목판으로, 비단 세 필을 속리(屬吏)인 조선승(朝鮮丞) 전굉(田肱)이 하리(下吏)를 보내 가지고 가게 하여 제사 지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목독 한쪽 면의 위에서 아래로, 우에서 좌로 3행의 묵서(墨書)가 서사되었는데, 서체는 전형적인 팔분이다. 또 선진(先進)·안연(顔淵)편의 일부를 전하는 『논어』 죽간 역시 전형적인 팔분으로, 채협총 목독에 비해서 더욱 단정하게 서사되었다. 반면에 초원 4년(기원전 45) 낙랑군의 호구를 기록한 호구부 목독의 서체는 장초(章草)나 신예체(新隸體) 등의 풍격이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팔분의 정형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들 간독은 아직 실물이 공개되지 않아 그 상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문서의 형태나 기재 방식 및 서체가 당시 한(漢) 내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 李成市·尹龍九·金慶浩(2009), 「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論語』에 대하여」, 『木簡과 文字』, 한국목간학회[橋本繁 譯(2010), 「平壤貞柏洞三六四號墳出土竹簡『論語』について」, 『中國出土資料研究』 第14號, 中國出土資料學會]

아직 고구려 초기 문자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 서사문화상은 주변국들과 이루어진 문서의 교류 사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무신왕 11년에 요동 태수가 고구려를 침입하여 위나암성(尉那巖城)을 포위하였을 때 왕이 화친을 요구하는 '서(書)'와 함께 술과 잉어를 보냈고, 이에 한나라 장군이 답장을 보내고 물러갔다고 한다.[16] 고구려와 한나라 사이에 문서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이라는 대치 상황에서 상호 소통이 가능한 문서행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고구려의 문장 작성 능력과 서사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림 8_ 낙랑 채협총 목찰[낙랑, 팔분(八分)]

고구려에서는 왕위 계승에서 문서의 장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무신왕 4년에 이물림(利勿林)에서 금새(金璽)를 발견하고 왕이 절하고 받았다[17]는 것이나 신대왕과 미천왕의 왕위 계승 과정에서 출현하는 국새(國璽)나 새수(璽綬)의 양도[18]는 최고 권력의 상징물로서 문서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16)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11년, "秋七月, 漢遼東太守將兵來伐. 王會群臣, 問戰守之計. …… 王從之. 貽書曰, 寡人愚昧, 獲罪於上國, 致令將軍, 帥百萬之軍, 暴露弊境. 無以將厚意, 輒用薄物致供於左右. 於是, 漢將謂城內有水, 不可猝拔. 乃報曰, 我皇帝不以臣駑下, 令出師, 問大王之罪. 及境踰旬, 未得要領. 今聞來旨, 言順且恭, 敢不藉口以報皇帝. 遂引退".

1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大武神王 4년, "冬十二月, …… 抵利勿林宿, 夜聞金聲. 向明, 使人尋之, 得金璽兵物等. 曰, 天賜也. 拜受之".

준다. 신대왕과 미천왕의 왕위 계승에서 국새와 새수를 바치는 역할을 하는 어지류(菸支留)와 창조리(倉助利)는 대주부(大主簿)로서,[19] 주부는 한대에 설치되어 중앙과 지방 군현의 관청에서 문서와 인감을 주관하는 막부(幕府)의 중요한 속관(屬官)[20]이라는 점으로 보아도 당시 고구려 조정에서 어느 정도 문서행정 체계가 갖추어 졌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문서는 외교나 왕실뿐만 아니라 대사령(大赦令)이나 법의 제정 등 고구려 국내 일반 행정에서도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1] 진한시대 군현체제에서 중앙의 문서가 지방에 하달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크고 분명하게 써두어 백성들이 모두 잘 알도록 했다[22]는 것은 당시 고구려에서도 그러한 문서의 반포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고구려의 중앙과 지방에서 일찍부터 문서행정이 일정하게 시행되고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新大王, "新大王, 諱伯固固一作句, 太祖大王之季弟. 儀表英特, 性仁恕. 初, 次大王無道, 臣民不親附, 恐有禍亂, 害及於己, 遂遯於山谷. 及次大王被弑, 左輔菸支留與群公議, 遣人迎致. 及至, 菸支留跪獻國璽曰, '先君不幸棄國, 雖有子, 不克有國家. 夫人之心歸于至仁, 謹拜稽首, 請卽尊位.' 於是, 俯伏三讓而後卽位, 時年七十七歲"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美川王, "美川王一云好壤王. 諱乙弗或云憂弗. …… 是時, 國相倉助利將廢王, 先遣北部祖弗 · 東部蕭友等, 物色訪乙弗於山野. 至沸流河邊, 見一丈夫在船上, 雖形貌憔悴, 而動止非常. 蕭友等疑是乙弗, 就而拜之曰 : "今國王無道, 國相與群臣陰謀, 廢之. 以王孫操行儉約, 仁慈愛人, 可以嗣祖業, 故遣臣等奉迎." 乙弗疑曰 …… 遂迎王孫, 上璽綬, 卽王位".

1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次大王 2년, "秋七月, 左輔穆度婁稱疾退老, 以桓那于台菸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烽上王 3년, "秋九月, 國相尙婁卒, 以南部大使者倉助利爲國相, 進爵爲大主簿".

20)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1993), 『漢語大詞典』 第1卷, 漢語大詞典出版社, 706쪽

2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新大王 2년, "春正月, …… 初, 明臨答夫之難, 次大王太子鄒安逃竄. 及聞嗣王赦令, 卽詣王門告曰, 禦國有災禍, 臣不能死, 遯于山谷. 今聞新政, 敢以罪告. 若大王據法定罪 …….."

22) 김병준(2011), 「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44쪽 및 각주 10 참조

저변에까지 서사(書寫)문화가 보급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낙랑군과 대방군의 축출을 기하여 고구려의 문자 유물은 그 이전에 비하여 수량이 훨씬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중국 군현의 잔여 세력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한문자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그간 다소 정체되었던 고구려의 서체 연변(演變)이 중국과 비슷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라 할 수 있다.

당시의 서체는 예서와 해서의 과도적 요소가 많은 형태로서 이른바 '예해지간(隸楷之間)'의 특징을 갖는 자형들이 많이 나타난다. 서체 연변에서 예서가 팔분으로 완성되어 비각에서까지 팔분이 공식적인 명석서(銘石書)로 사용되던 동한(東漢) 중후기 즈음, 일상적인 서사에서는 규범적인 팔분의 필법과는 다른 형태의 글자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 특징을 보면 삐침과 파임의 끝 부분에서 상향으로 전환되는 팔분의 전형적인 필법 대신, 끝이 뾰족하고 필획의 방향이 좌하 또는 우하로 향하는 등 예서에서 해서로 변화되는 과도적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새로운 풍격의 서체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정형화된 팔분에 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예서로서 '신예체(新隸體)'라고 한다.[23]

이러한 신예체는 로우란[樓蘭]에서 발견된 간독(簡牘)이나 잔지(殘紙)에 비교적 전형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9·10). 특히 위진16국 시기의 비각이나 묘지(墓誌)의 서체들은 해서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요소가 많아 비지(碑誌) 문자(그림 11·12)에서도 신예체가 채용되어 이미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24]

---

23) 裘錫圭(1996), 앞의 책, 89~90쪽 ; 啓功(1999), 『古代字體論稿』, 文物出版社, 28~29쪽 참조

24) 신예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碑誌 문자로는 魏 景元 四年(263) 〈李苞通閣道題字〉, 吳 鳳凰 元年(272) 〈谷朗碑〉, 東晋 咸康 七年(341) 〈王興之墓誌〉, 東晋 永和 元年(345) 〈顔謙婦劉氏墓誌〉, 東晋 升平 元年(357) 〈劉剋墓誌〉, 前秦 建元 四年(368) 〈廣武將軍碑〉, 東晋 太元 元年(376) 〈孟府君墓誌〉, 東晋 隆安 三年(399) 〈楊陽神道闕題字〉, 東晋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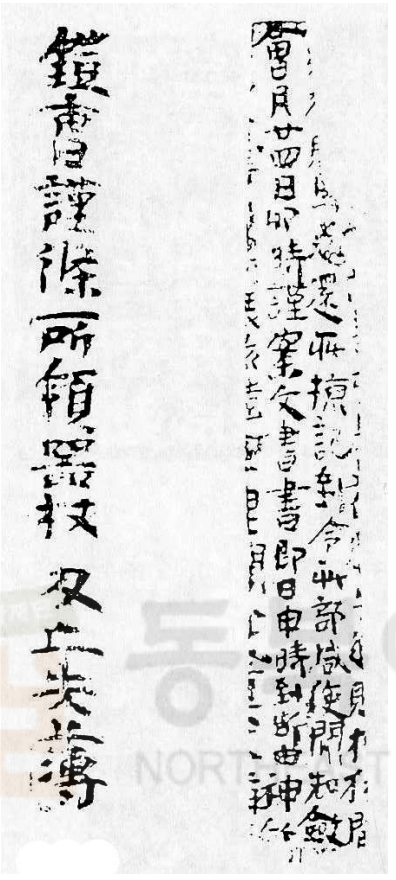


그림 9_ 로우란[樓蘭] 유지(遺址) 출토 위진시기 목간 2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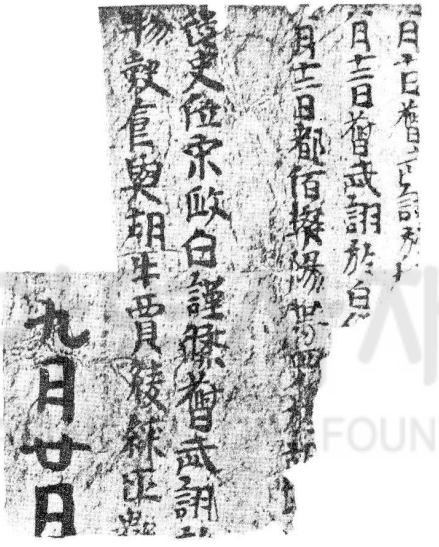


그림 10_ 로우란 유지 출토 진대 잔지(殘紙)(부분)

이들 신예체의 풍격과 유사한 자형들이 낙랑과 대방 지역의 문자 유물에서도 보인다. 한대 기년이 있는 칠기 명문[25]과 동경[26] 및 와(瓦)·전(塼) 명문[27]에

熙 元年(405) 〈爨寶子碑〉 등을 들 수 있다.

25) 梅原末治(1943), 『支那漢代紀年銘漆器圖說』, 東京帝國大學文學部 考古學資料叢 刊 第2册, 53~54쪽

26) 梅原末治(1942), 『漢三國六朝紀年鏡圖說』, 桑名文星堂, 5~7쪽

27) 井內功(1976), 『朝鮮瓦塼圖報』 Ⅰ 樂浪·帶方, 井內古文化研究室



그림 11_ 전진(前秦) 건원(建元) 4년(368) 〈광무장군비(廣武將軍碑)〉 탁본(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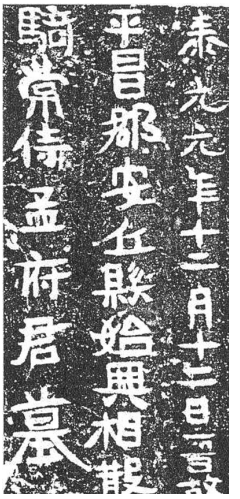


그림 12_ 동진(東晋) 태원(太元) 원년(376)〈맹부군묘지(孟府君墓誌)〉 1종 탁본

일종의 신예체가 사용되었고, 위진 시기의 기년명 전(塼)[28]에서는 더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장식성과 경건함이 요구되는 전문(塼文)에서까지 신예체가 채용되었다는 것은 일상 서사뿐만 아니라 명석서(銘石書)에서도 그러한 서체가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신예체 풍격의 와·전 명문은 고구려 문자유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보고에 의하면 집안 지역에서 출토된 명문 와당으로는 '大吉/大歲(甲)(戌)九月造(作)'[29](그림 13), '太寧 四年(326)'(그림 14), '丁巳'명[30](그림 15) 등 대략 11종이 알려

28) 梅原末治(1933),「朝鮮北部出土紀年塼集錄」,『支那學』第7卷 第1號, 弘文堂, 121쪽 ; 朝鮮總督府(1932),「樂浪帶方郡時代紀年銘塼集錄」,『昭和七年度古蹟調查報告』, 第1冊 附錄 ; 井內功(1981),『朝鮮瓦塼圖報』Ⅶ, 23~24쪽

29) 보고서에는 '大歲△△年造瓦九'로 판독하였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99~101쪽]. 그러나 판독 불가로 처리된 두 글자는 남은 자적이 '甲戌'자 형태에 가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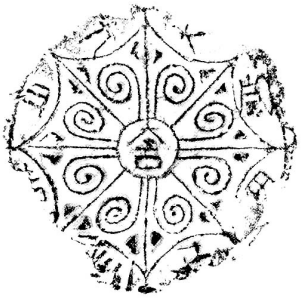


그림 13_ 집안시 제2소학교 출토 '대길(大吉)' 와당(2001JGDRX撥 : 4) 탁본



그림 14_ 집안 출토 '태(太) [령(寧)] △년' 와당 탁본



그림 15_ 우산(禹山)3319호묘 출토 '정사(丁巳)' 와당 탁본 (2003년 출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져 있다. 제작 연대가 4세기 초반부터 중반에 집중되어 있는데, 명문의 서체는 예서와 해서의 과도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다.[31] 특히 '太寧 △年'명을

고, 또 '年造瓦九'로 판독된 글자들은 그 배치 방식으로 보아 '△△/太寧△年四月造作' 와당과 같은 방식으로 보여 '九月造作'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와당을 '大歲(甲)(戌)九(月)(造)(作)'으로 판독한다. 여기의 (甲戌)년은 254년, 314년, 374년 중 하나일 것인데, 와당의 문양과 서체로 보아 314년일 가능성이 크다.

30) '丁巳' 와당은 1962년, 1983년에 이어 2003년에도 1건이 발견되었으며, 세 건을 조합한 결과 전체 석문은 "太歲在丁巳五月廿日, 爲中郎(及)夫人造盖墓瓦. 又作民四千, 餟盦(禾+又)用, (盈)時興詣, 得(享)萬世"이다. 張福有(2004),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 『東北史地』 제1기

비롯한 일부 와당 명문에는 광개토태왕비의 자형과 비슷한 결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서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주목된다.


그림 16_ 천추총(千秋塚) 출토 문자전(文字磚) 탁본

명문전(銘文塼)은 왕릉급으로 분류되는 천추총(千秋塚)과 태왕릉(太王陵)에서 출토되었다. 천추총에서 발견된 '천추만세영고(千秋萬歲永固)'명과 '보고건곤상필(保固乾坤相畢)'명(그림 16)의 서체는 대체로 예서와 해서의 과도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곤(坤)'자의 결구는 한비(漢碑)에서 주로 사용된 이체자로서 천추총이 조성된 4세기 무렵에는 이미 잘 쓰이지 않는 고식(古式) 결구다. 또 태왕릉에서 발견된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그림 17) 명문전의 서체는 기본적으로 광개토태왕비의 서체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자형이 장방형으로 길어져 부분적으로 해서의 체세(體勢)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성 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시기 와·전 명문은 낙랑과 대방지역에서 출토된 것들과는 양식적 측면에서 다소 다른 점이 있고, 서체 또한 광개토태왕비 서체와 상관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신예체 풍격의 자형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4~5세기로 편년되는 벽화고분의 묵서 중에 안악3호분의 동수묘지(冬壽墓誌)를 비롯하여 복사리 벽화고분·감신총·미창구 장군묘·덕흥리 벽화고분·모두루총·장천1호분·천왕지신총 등의 묵서나 주서(朱書)의 부분적인 결구에서 파책이 나타나고 횡장세(橫長勢)를 보이는 등 팔분 서사법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31) 이러한 와당명문의 서체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중원에서 유행한 漢隸의 變體라고 보고 있다[林至德·耿鐵華(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 1985-7]. 여기서 '漢隸의 變體'는 일종의 新隸體와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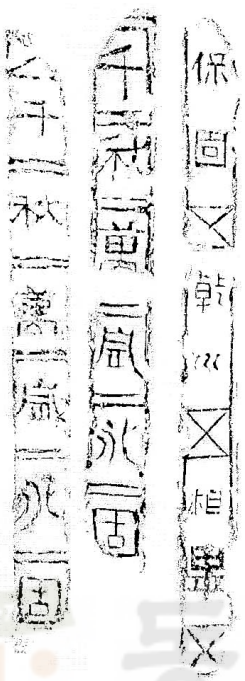


그림 17_ 태왕릉 출토 문자전 탁본

체세는 규범적 팔분과는 거리가 멀고 해서나 행서[32]에 더욱 근접된 형태로서 일종의 신예체적 자형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와·전 명문과 벽화고분의 묵서나 주서의 자형 결구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예서 서사법들은 고예(古隸)에서 팔분(八分)으로 변화하는 예변(隸變)을 거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원의 서체 연변처럼 고예 단계를 지나 팔분의 형성과 해서의 발전이라는 서체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신예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광개토태왕비 글자에 보이는 고식 결구들과 예해지간의 과도적 요소들이 시대에 뒤떨어져 낙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즉 광개토태왕비의 과도적 요소로 인한 독특한 서체 풍격은 당시 동아시아 서체연변사(書體演變史)의 보편성 속에서 고구려의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32) 409년 이전 서사된 덕흥리 벽화무덤의 묵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광개토태왕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새로운 서체인 草書나 楷書 및 行書의 결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IV. 맺음말 : '광개토태왕비체'의 완성과 유행[33]

광개토태왕비(그림 18) 글자가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다양한 서체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형 특징이 기존의 서체 분류 방식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형 특징과 함께 비에 내포된 역사문화적·예술적 함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서체를 명명하려는 시도는 광개토태왕비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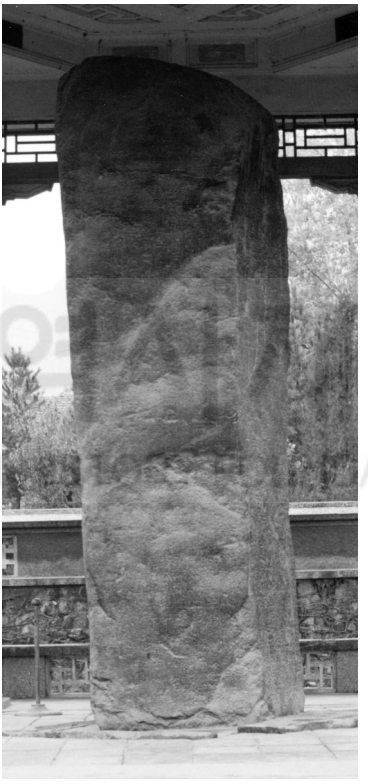


그림 18_ 광개토태왕비

서체의 명칭은 그 용도 및 서사 재료, 개인적인 풍격 등의 차이에 의해 시기별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예를 들면 갑골(甲骨)이나 종정(鐘鼎)에 새겨진 문자는 각각 '갑골문(甲骨文)'과 '종정문[鐘鼎文, 혹은 금문(金文)]'으로, 북위 시대의 비 또는 묘지(墓誌)에서 주로 사용된 해서는 '위비체(魏碑體)', 구양순(歐陽詢)이나 안진경(顔眞卿) 및 김정희의 서체는 각각 '구체(歐體)'와 '안체(顔體)' 및 '추사체(秋史體)' 등으로 불리는 것은 글자에 나타난 개성적인 풍격이나 예

33) 본 장은 高光儀(2005), 「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 – 廣開土太王碑體와 石柱碑 樣式의 獨創性을 중심으로」,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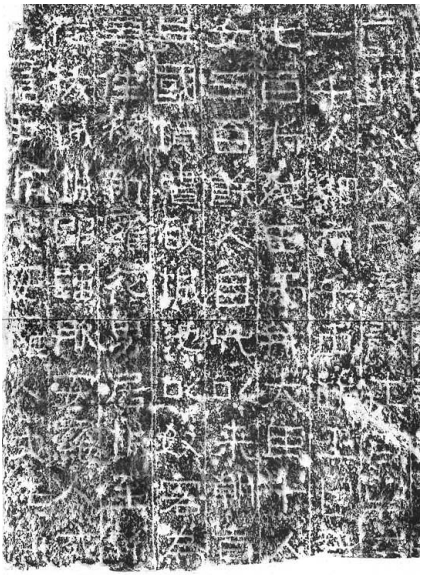


그림 19_ 광개토태왕비 탁본(미즈타니[水谷]본 부분)

술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개토태왕비 서체의 명칭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개토태왕비 자형 결구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고예나 팔분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포괄하여 '예서(隸書)'라 칭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내포된 예술성과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이 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광개토태왕비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광개토태왕비체(그림 19)는 용도상 명석서(銘石書)로 분류할 수 있다. 중원에서 위진시대의 공식적인 명석서는 여전히 팔분이 통용되었지만, 고구려에서는 이와 다른 광개토태왕비체와 같은 독특한 서체가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4세기 전반기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와당 명문에 나타난 신예체(新隸體)는 고구려 명석서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으로는 천추총과 태왕릉에서 발견된 명문전을 들 수 있다. 여기의 서체는 고식(古式)의 자형 결구와 평직(平直)한 필획을 취하고 있어, 전체적인 풍격이 광개토태왕비체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러한 서체는 광개토태왕비가



그림 20_ 광개토태왕 호우(壺杅) 명문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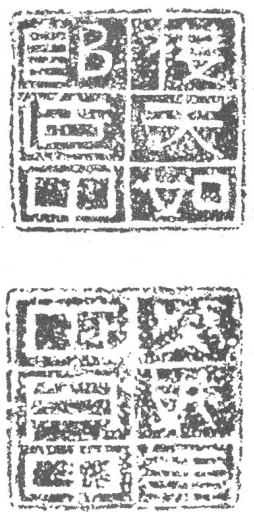


그림 21_ 집안 출토 '계해년(癸亥年)'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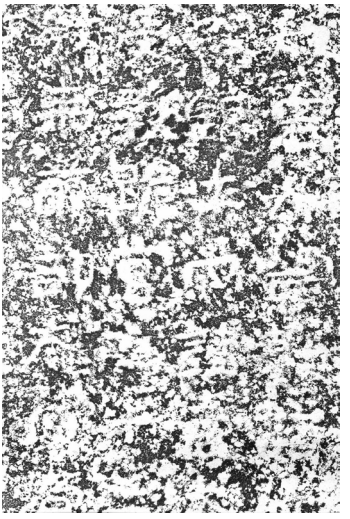


그림 22_ 충주 고구려비 탁본(부분)

서각(書刻)되기 이전 시기에 고구려 조정에서 왕릉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기 위해 고안되었던 것으로, 고구려 명석서의 발전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개토태왕비체는 이러한 고구려 명석서의 발전 과정에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을 위하여 국력을 집약해 비를 건립한 특수한 상황과 결부되어 하나의 서체 양식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에서 광개토태왕비체가 완성된 이후, 이 서체는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 서사(書寫)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비가 세워진 이듬해인 415년에 제작된 명문 호우(壺杅, 그림 20)는 광개토태왕을 추모하는 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물로서, 서사 시기나 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서체는 광개토태왕비체와 흡사하다. 광개토태왕비체가 완성된 이후에도 광개토태왕과 관련된 기물에 동일한 서체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서체의 완성을 통해 부여하고자 했던 왕의 추모라는 특수한 목적에 대한 부합인 것이다.

또한 10년 뒤 계해년(癸亥年, 423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34](그림 21)의 서체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위진시대의 인장 서체는 관행처럼 무전(繆篆)이 주로 사용되었고, 광개토태왕비체와 같은 예서 결구가 사용된 예는 극히 드물다. 주로 3~4세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관인(官印) 역시 무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인(私印)은 광개토태왕비체를 사용하고 있어 이미 왕의 추모라는 공식적인 성격을 벗어나 보편적인 서체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체 선택이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인장에서까지 광개토태왕비체가 채용된 것은 5세기 초기 고구려에서 이 서체가 이미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개토태왕비체는 이후 특유의 자연석주비(自然石柱碑) 양식과 함께 충주고구려비의 서체(그림 22)로 이어져 고구려 서사문화의 주요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4) 이 인장은 1962년 3월 集安縣 台上鄕 東明村에서 출토되어 현재 集安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인장은 鈕가 없고, 측면에 구멍이 나있어 印綬를 달아 패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재질은 銅印으로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5.8cm, 두께 0.9cm이다. 양쪽 면에 모두 글자가 있는 兩面印이며 한쪽 면은 "△天如郎(造)中", 또 다른 면에는 "癸亥年正月中"이라고 되어 있다. 印文은 사각형의 계선을 치고, 그 안에 廣開土好太王碑와 흡사한 서체로 음각하였다. 내용이 "癸亥年正月中"으로 한시적인 점과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부장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癸亥年은 363년·423년·483년 중 어느 한 해로 추측할 수 있으나, 중국에서 兩面印은 漢魏시대에 유행하였다는 점과 印文의 서체가 廣開土好太王碑의 서체와 같아 이와 비슷한 시기인 423년일 가능성이 크다. 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4), 『集安縣文物志』, 244쪽 참조

•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단행본

耿鐵華(1994),『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耿鐵華(2003),『好太王碑一千五百八十年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啓功(1999),『古代字體論稿』 제2판(1964 초판), 文物出版社

고구려연구재단(2005),『환인·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 지질조사 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裘錫圭(1996),『文字學概要』 3차 인쇄(1988 제1판), 商務印書館

권오중 외(2010),『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4),『集安縣文物志』

김기승(1975), 新稿『韓國書藝史』, 東方書藝研究院

김병기(2005),『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학고재

梅原末治(1942),『漢三國六朝紀年鏡圖說』, 桑名文星堂

梅原末治(1943),『支那漢代紀年銘漆器圖說』,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考古學資料叢刊 第二册

박시형(1966),『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박영도(2008),『조선서예발전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손영종(2006),『조선단대사(고구려사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손영종(2008),『조선단대사(고구려사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王健群(1984),『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王靖憲(1996),『中國書法藝術』 魏晉南北朝, 文物出版社

王靖憲 主編(1986),『中國美術全集』 書法篆刻編 2, 人民美術出版社

劉濤·唐吟方(1995),『中國書法史圖錄解說』, 中央美術學院
劉正成 主編(1989),『中國書法鑑賞大辭典』, 大地出版社
이규복(2001),『槪說 韓國書藝史』I, 이화문화출판사
이완우(2000),『韓國書藝二千年』, 예술의전당
李亨求·朴魯姬(1986),『廣開土大王陵碑 新研究』, 同和出版公社
井內功(1976),『朝鮮瓦塼圖報』I. 樂浪·帶方, 井內古文化研究室
井內功(1981),『朝鮮瓦塼圖報』VII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90),『조선유적유물도감』3
朝鮮總督府(1927),『古蹟調査特別報告－樂浪郡時代の遺蹟』第四册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1992),『譯註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편찬부(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1993),『漢語大詞典』第1卷, 漢語大詞典出版社

논문

高光儀(1999),「4~7世紀 高句麗 壁畵古墳 墨書의 書藝史的 意義」,『高句麗研究』7, 고구려연구회
高光儀(2001),「5세기 高句麗 書藝의 特徵 研究」,『書藝學』2, 韓國書藝學會
고광의(2004),「書體를 통해서 본 高句麗 正體性－廣開土太王碑體의 형성을 중심으로」,『高句麗 正體性』高句麗研究 18, 高句麗研究會
고광의(2004),「중국학계의 廣開土太王碑 연구 현황－1980년 이후를 중심으로」,『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高光儀(2005),「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廣開土太王碑體와 石柱碑 樣式의 獨創性을 중심으로」,『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고광의(2005),「중국의 廣開土太王碑 釋文 연구의 현황과 검토」,『중국의 한국고대문화연구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고광의(2007),「고구려의 금석문과 서체」,『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고광의(2011),「樂浪郡 初元 4年 戶口簿 재검토」,『木簡과 文字』7, 韓國木簡學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金秉駿(2008),「樂浪郡 初期의 編戶過程과 '胡漢稍別' -「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多少□□」木簡을 단서로」,『木簡과 文字』創刊號, 한국목간학회
金應顯(1973),「高句麗 書法考」,『書通』創刊號, 東方研書會
김병준(2011),「낙랑군의 한자사용과 변용」,『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김양동(1996),「'고구려 호태왕비 문자와 서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회
김양동(2000),「中原 高句麗碑와 高句麗 金石文의 書體에 대하여」,『中原高句麗碑新照明』, 고구려연구회
김응현(1979),「高句麗 金石의 정립」,『書通』9, 東方研書會
김정문(2008),「사진 : 락랑유적에서 나온 목간」,『조선고고연구』149(2008-4), 사회과학출판사
羅繼祖·叢文俊(1986),「簡談好太王碑字體」,『博物館研究』1986-1
梅原末治(1933),「朝鮮北部出土紀年塼集錄」,『支那學』第七卷 第一號, 弘文堂
尹龍九(2009),「平壤出土'樂浪郡初元四年縣別戶口簿'研究」,『木簡과 文字』3, 韓國木簡學會
李樂塋(1996),「從冉牟墓志和好太王碑看高句麗書法」,『通化師院學報』
李成市·尹龍九·金慶浩(2009),「平壤 貞柏洞364號墳출토 竹簡『論語』에 대하여」,『木簡과 文字』, 한국목간학회
林至德·耿鐵華(1985),「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考古』1985-7
임창순(1973),「高句麗의 金石과 書藝」,『書通』創刊號, 東方研書會
임창순(1979),「中原高句麗碑小考」,『史學志』13
張福有(2004),「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東北史地』제1기
朝鮮總督府(1932),「樂浪帶方郡時代紀年銘塼集錄」,『昭和七年度古蹟調查報告』第一册 附錄
周榮順(1993),「好太王碑書法淺談」,『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秦維國(1991),「好太王碑及其書法藝術」,『商報』1991年 9月 25日⑫
叢文俊(1996),「關於高句麗好太王碑文字與書法之研究」,『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고구려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우태(李宇泰)
한국고대사 전공,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永川 菁堤碑를 통해 본 菁堤의 築造와 修治」(1985, 『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금석문을 통하여 본 한자의 도입과 사용—특히 금석문의 '之'의 용례를 중심으로」(2005, 『한국고대사연구』 38), 「한국의 買地券」(2010, 『역사교육』 115) 등이 있다.

금석학적으로 본 광개토왕비

비의 형태와 위치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우태**

I. 머리말

광개토왕비는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금석문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금석문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크며, 중국에서도 광개토왕비와 같이 거대한 비는 찾아보기 힘들다.[1] 또 광개토왕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금석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관구검기공비나 점제현신사비 등 중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금석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석문 중 광개토왕비보다 오래된 것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금석문만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광개토왕비는 우리나라 금석문 중 가장 처음인 동시에 가장 큰 것이 되는데, 이는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1) 중국에 광개토왕비보다 큰 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안 乾陵의 則天武后의 無字碑는 높이 7.53m, 넓이 2.1m, 두께 1.49m에 달하는 거비로 무게는 약 98.9톤에 이른다. 그러나 이 비는 광개토왕비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말 그대로 한 글자도 쓰이지 않은 비인 까닭에 엄밀한 의미에서 금석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없다. 대부분의 유물이나 건조물들은 시원(始原)은 작고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여 점차 웅대하고 복잡한 것으로 발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른바 '유소이대(由小而大)'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유물이나 유적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고분의 경우에도 양식상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작은 크기에서 출발하여 점차 커지다가 국력이나 왕의 권위가 가장 큰 시기에 규모도 가장 크고 화려한 것이 등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석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광개토왕비의 경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리고 광개토왕비의 또 다른 특성은 다른 시기의 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면비(四面碑)라는 점이다. 비슷한 형태의 비로 중원비가 있어서 고구려의 특징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고구려의 특성인지 아니면 특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양식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비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발표되어 광개토왕의 업적은 물론, 이 시기 고구려와 주변 국가들의 역사상을 규명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아마도 광개토왕비는 하나의 사료로 가장 많은 연구 업적을 창출한 사례임에 틀림없을 것인데, 이는 이 비문이 갖는 사료로서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광개토왕비는 당대의 사람들에 의해 직접 작성된 사료라는 점에서 여타의 문헌 자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이는 금석문 자료가 갖는 특성인 동시에 장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비문의 내용이 전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비문의 변조를 둘러싼 논쟁을 거쳐 비의 성격이나 건립 목적 등에 관한 최근의 활발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비문의 판독과 해석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비문이 새겨진 비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여겨진

다. 금석문의 특징 중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금석문은 문헌 자료인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유물이라는 점이다. 즉 비문이 전하고 있는 텍스트가 사료로서의 1차적 중요성을 갖는다면, 그 못지않게 그러한 텍스트가 새겨진 비의 형태나 크기 및 위치 등의 형식적인 면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그 형태가 갖는 특징을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비의 건립 과정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형식의 비의 유래와 기원을 금석학적 특성이나 다른 금석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본 비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의 성격과 능묘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즉 비의 위치가 광개토왕릉을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비문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비의 형태 등 금석학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금석학적인 연구에 필요한 비교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 전개에도 많은 부분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이 이 글의 한계가 될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 글이 광개토왕비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오래 전부터 광개토왕비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의문점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의 질정을 바라마지 않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비의 형태

광개토왕비 형태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점일 것이다. 광개토왕비를 세우고 글씨를 새기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손질이 있었음은 틀림없으나, 비면의 상태나 각면의 불균정성, 그리고 특히 정상부의 부정형적인 생김새로 미루어 보아 일찍부터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광개토왕비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능비는 대석(臺石)과 비신(碑身)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석과 비신의 일부는 땅속에 묻혀 있다. 대석은 약 20cm 두께의 화강암을 사각형으로 다듬은 것인데, 길이 3.35m, 너비 2.7m의 장방형으로 3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깨어졌다. 그리고 비신은 방주형(方柱形)의 각력응회암(角礫凝灰岩)에 약간의 인공을 가한 것으로, 너비 1.35~2.0m, 높이 6.39m(朴時亨은 6.34m로 관측하였으며, 중국 측의 안내표지판에는 6.12m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王健群의 최근 관측에 의하였다)에 달하는 한국 최대의 크기이며, 개석(蓋石)이 없는 고구려 석비 특유의 형태로 되어 있다.

자연석에 약간의 인공을 가하였다는 표현은 어느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비의 형태로 본다면 제2면과 제4면이 비교적 평면에 가깝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1면과 제3면은 굴곡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참조).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광개토왕비는 비를 세울 때 아랫부분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대석에 수직으로 설 수 있도록 다듬은 것을 제외하면 제1면에서 제4면에 이르기까지 글자를 새기기 위한 약간의 손질 이외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특히 그림 2의 평면도에서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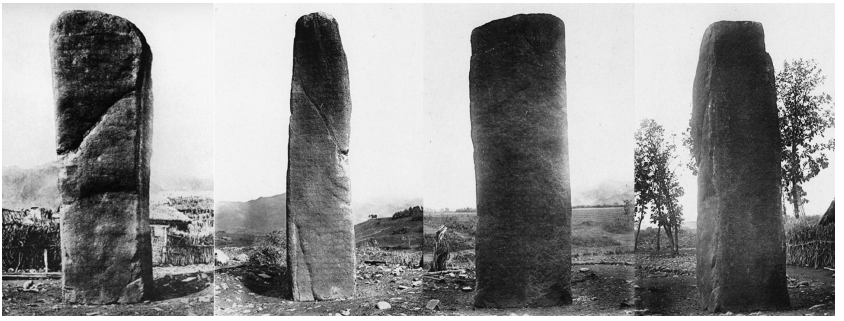


그림 1_ 왼쪽부터 광개토왕비 1~4면의 모습(『조선고적도보』, 312~314쪽)

것처럼 비의 사면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불균정한 사다리꼴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이나, 비의 상하의 폭이나 모양이 균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 비가 일반적인 비석과는 달리 치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광개토왕비의 모습은 상당히 기이한 느낌을 준다. 장수왕이 아버지인 광개토왕의 능과 비를 조성한 기간은 2년여가 되는데, 그 준비 기간에 비해 완성된 왕의 비는 어떻게 보면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개토왕의 능이 장군총인지 태왕릉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느 것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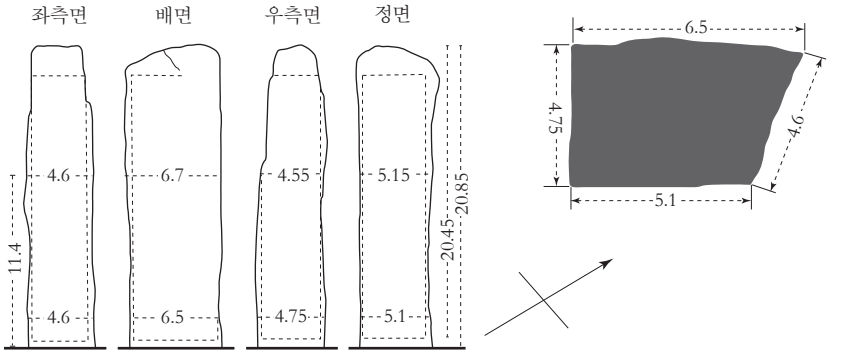


그림 2_ 광개토왕비 실측도, 입면도(좌)와 평면도(『조선고적도보』, 309쪽)



그림 3_ 장군총 석실 연도[池内宏(1938), 『通溝』 上, 도판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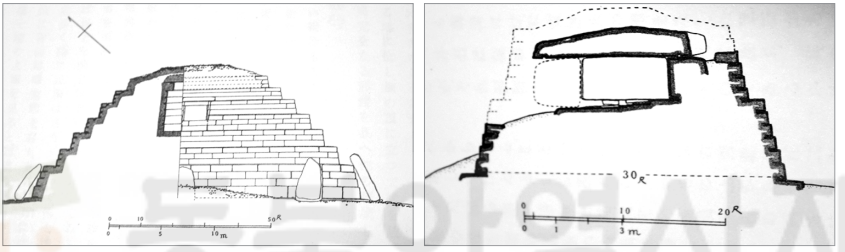


그림 4_ 장군총(왼쪽) 및 장군총 배총 실측도[池内宏(1938), 『通溝』 上, 51 · 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간에 조성된 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칠고 다듬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중국의 한나라 시대 비나 북위의 비처럼 매끈하게 다듬은 아름다운 모양의 석비를 세우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당시 고구려인들이 중국의 비석들을 보지 못했을 리가 없고, 또 비문의 작성에도 중국의 비문들을 참고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도 이렇게 독특하고 거친 형태의 비를 건립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고구려인들이 보다 큰 비를 세우기 위해 일부러 석재를 다듬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웅장하고 거대한 비를 세우기 위하여 국내성 부근에서 가장 큰 석재를 찾아서 이를 가공하지 않은 채 세웠다는 가정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광개토왕의 능으로도 추정되는 장군

총의 경우 모두 1,100여 개의 잘 다듬은 돌들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인데, 몇 개의 호석과 일부 석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끈하게 다듬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그 크기도 광개토왕비와 비슷한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석실의 뚜껑돌은 그 규모가 광개토왕비와 비슷하며, 장군총 배총의 석실 덮개돌도 광개토왕비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것으로 보이는데(그림 3·4 참조), 이는 광개토왕비 정도 크기의 석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광개토왕비는 이 정도 크기의 석재를 구하여 다듬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광개토왕비의 조성은 능에 비해 그다지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비를 받치고 있는 받침돌인 대좌(臺座)의 상황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광개토왕비를 받치고 있는 대좌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의 『통구(通溝)』 상(上)의 해설에 상세한 설명이 보인다. 이는 본인의 직접 답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 지역을 답사한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보고와 사진을 기초로 한 것인데, 비의 대좌에 관한 가장 자세한 보고로 여겨진다.

구로이타 가쓰미의 보고에 의하면 비의 대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갈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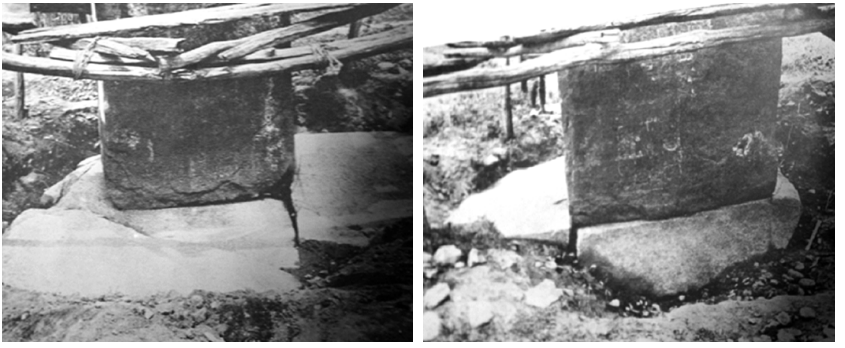


그림 5_ 광개토왕비 대좌의 균열 상태. 제1면(왼쪽)과 제3면[池內宏(1938), 『通溝』 上, 도판 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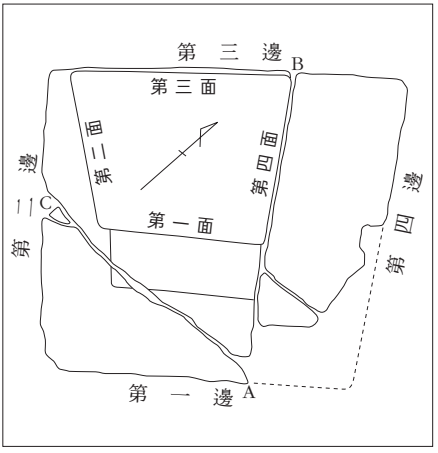


그림 6_ 대좌실측도[池內宏(1938), 『通溝』 上, 40쪽]

상태로 비는 대좌의 중앙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곳에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그림 5·6 참조).

최초의 답사자인 구로이타 가쓰미는 대좌의 이러한 상황과 비의 상단부의 손상을 기초로 비가 한 차례 도괴되었다고 추측하였으나, 이케우치 히로시는 이러한 추론을 반박하고 비의 손상은 비 표면의 이끼를 제거하기 위한 소각(燒却) 작업의 결과로 생긴 것이고, 대좌의 균열은 입비 당시의 상황이라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비와 대좌의 상황을 기초로 비의 각석은 비가 세워진 이후에 행하여졌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2]

이들 논쟁의 쟁점에 대해 상론을 피하고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비의 도괴 여부와 상관없이 비의 입비 작업은 상당히 허술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의 대좌는 길이 3.35m 폭 2.7m의 커다란 화강암 돌 하나인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두께도 일정하지 않아 북서쪽은 63cm인데 반해 동남쪽은 16cm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3] 아마도 이러한 대좌의 불균형이 파손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입비 당시에 비가 미끄러지면서 대좌가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이를 새로운 돌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왕의 비에 대한 고구려인들의 자세라고 보

2) 池內宏(1938), 『通溝』 上, 38~45쪽
3) 王健群 著·林東錫 譯(1985), 『廣開土王碑硏究』, 역민사, 28쪽

기 힘들다. 그리고 만약 이 비가 고구려 시기에 도괴되었다가 다시 세워진 것이라면 당연히 새로운 대좌를 마련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했을 것인데, 깨어진 대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비의 대좌 마련에는 비신보다도 훨씬 주의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왕의 능을 조성하면서 이 능이 영원히 잘 보전되기를 빌어 "원컨대 태왕의 능이 산악과 같이 안정되고 굳건하기를 원한다(願太王陵 安如山 固如岳)[태왕릉전명문(太王陵塼銘文)]"는 명문을 새겼던 고구려인들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비의 위치

비의 위치는 잘 알려진 것처럼 압록강 중류의 만포진(滿浦鎭)에서 마주 보이는 중국 길림성 통화전구(通化專區) 집안현(輯安縣)의 현청 소재지 통구성(通溝城)으로부터 동북쪽 약 4.5km 지점인 태왕촌(太王村) 대비가(大碑街)에 서 있다. 비의 서남쪽 약 300m 지점에는 태왕릉이 있고, 동북쪽 약 1.5km 지점에는 장군총이 자리 잡고 있다. 능비는 동쪽으로 45° 정도 치우친 동남향에서 서북향 방향으로 서 있다. 1928~1976년까지는 집안현 지사였던 유천성(劉天成)이 세운 2층 비각 속에 있었으나 현재는 1982년에 중국 당국에 의하여 새로 건립된 단층의 대형 비각 속에 있으며, 비 주위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철책으로 된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7·8 참조).

광개토왕의 능은 태왕릉이나 장군총 둘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4]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추론은 일단 유보하고 이들 두 능과 비의 위치관계에



그림 7_ 광개토왕비 부근 항공사진(2005, 구글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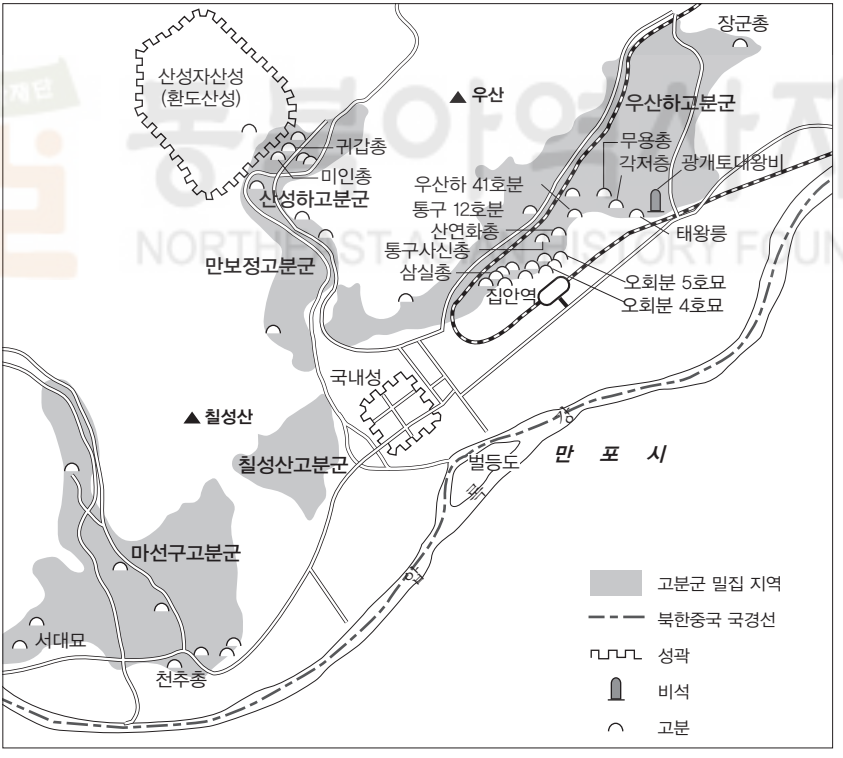


그림 8_ 국내성 부근 유적분포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군총의 경우 비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 비정의 최대 문제점이다. 혹자는 일반적으로 신도비가 묘의 서남쪽에 위치하므로 장군총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광개토왕비를 장군총의 신도비와 같은 성격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광개토왕비의 방향이 동북쪽이어야 하는데 실제 비의 방향은 그와는 반대인 제1면이 동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그림 6·8 참조). 반대로 태왕릉을 광개토왕의 능으로 본다면 비가 능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그 방향도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비의 위치나 방향이 광개토왕의 능을 비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능과 함께 조성된 것이지만, 능의 위치나 능과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비의 유래

이상에서 비의 형태와 위치를 중심으로 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광개토왕비는 왕의 능과 함께 조성되었으면서도 능에 비해 별로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위치도 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세워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왕의 비에 대해 왜 고구려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으며, 또 그 위치는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4) 余昊奎(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41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억측에 지나지 않겠지만, 필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일단을 피력하고 여러분의 질정을 받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의문에 답할 수 있는 추론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비 자체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본 비는 능비(陵碑)라기보다는 수묘인연호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비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수묘인연호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러한 수묘역 체제의 창출이 광개토왕 훈적으로서 칭송될 수 있는 것이며, 광개토왕 비문의 건립 목적은 이러한 체제를 창출한 광개토왕의 공덕을 칭송하는 송덕비"[5]라는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비의 형태에서 주목되는 점은 비문의 글자가 크다는 점이다. 엽창치(葉昌熾)가 『어석(語石)』에서 '글자의 크기가 주발만하다[碑字大如盌]'고 하였듯이 글자가 다른 비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비의 글자가 크다는 것은 비를 처음 만들 때부터 글자의 크기를 염두에 둔 것임에 틀림없다. 즉 비의 제작자는 이 비의 가독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개토왕비를 읽는 독자는 누구였을까?

물론 광개토왕비는 도성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이곳이 왕의 능이 있는 곳임을 알리고 동시에 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비문의 일차적인 독자는 바로 비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연(國烟)과 간연(看烟) 자신들이었을 것이

5) 李成市 저·류미나 역(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韓國古代史研究』 50, 185쪽

다. 국연과 간연의 역할 분담이나 신분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연과 간연의 비율이 1 : 10으로 국연이 간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국연이 상설직인데 반해 간연은 번상 교대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단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필자는 국연과 간연의 역할 차이를 상설직과 임시직의 차이라고 보고 싶다.

국연과 간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능의 관리와 보존, 그리고 제사 준비 등의 담당으로 보이는데, 평상시 능의 관리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평상시에는 국연이 능묘를 순찰하고 관리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소분(掃墳)이나 손상된 능묘의 보수 및 제사 준비 등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간연들이 동원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그럴 경우 본 비의 역할은 국연과 간연의 출석을 확인하는 출석부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 비 앞에서 국연과 간연들이 모두 모여 본 비의 기록대로 역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경우 비의 글자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읽힐 수 있도록 크고 똑똑히 보여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비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가 결정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나아가 본 비가 위치한 지역은 현재에도 민가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평상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위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비의 근처에 국연과 간연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 비를 세우는 이들이 고려한 비의 첫 번째 독자는 바로 국연과 간연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추론이 옳다면 광개토왕비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허술한 입비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러한 목적에서 세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비의 형태가 이렇게 거칠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러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두 번째 가설은 이 비가 광개토왕 사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상당히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광개토왕비의 형태가 선돌과 비슷하다는 견해는 이미 있어온 것이다.[6] 만약 광개토왕비가 원래 이 자리에 서 있던 선돌인데 광개토왕릉의 공역이 끝난 다음 수묘인연호의 착오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선돌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 비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여러 의문점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선돌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몽골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대표적인 선돌 분포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돌 가운데에는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적지 않다(그림 9~17 참조). 우리나라의 선돌은 대개 크기가 1~2m 정도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산 온석동의 경우처럼 6m에 달하는 것들도 있으며, 대부분 자연석을 일부분만 가공하여 세운다는 점이나 경우에 따라 간단한 대석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광개토왕비와 유사한 점이 많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허용될 수 있다면 광개토왕비의 형태와 위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성 지역의 선사 유적이나 만주 지역의 선돌 분포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앞으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金膺顯(1973), 「高句麗 書法考」, 『書通』 1



그림 9_ 구미시 도계면



그림 10_ 군위군 부계면



그림 11_ 울주군 삼남면



그림 12_ 순창군 동계면



그림 13_ 프랑스(높이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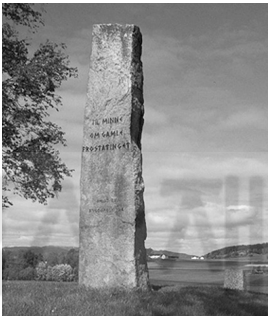


그림 14_ 스칸디나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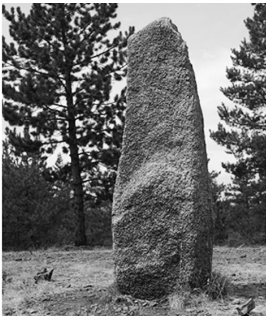


그림 15_ 프랑스



그림 16_ 우크라이나



그림 17_ 몽골의 사슴돌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이상에서 상상에 가까운 추론을 전개하여 광개토왕비의 유래에 대해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여 보았다. 물론 이러한 가설이 하나의 학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광개토대왕비가 세워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입비의 목적과 의미를 조망(眺望)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광개토왕비의 건립은 왕이 죽은 지 2년째 되는 해인 414년 9월의 일인데, 이로부터 불과 13년 후인 427년(장수왕 15)에 장수왕은 수도를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에서 남쪽의 평양으로 옮겼다.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 오랜 기간의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의 사후 15년 만에 천도를 단행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의 평양 천도 사업은 이미 광개토왕대에 계획되어 준비가 진행되었음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광개토왕대에 이미 수묘제가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개토왕비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묘와 입비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 윗 조상과 선왕 이래로 무덤가에 석비(石碑)를 안치하지 않아 수묘인(守墓人) 연호(烟戶)가 뒤섞이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께서 모든 조왕(祖王)과 선왕(先王)을 위해 무덤가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기록하여 뒤섞이지 않게 하였다.
>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이 기록은 광개토대왕 이전에도 역대 왕들의 능에는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묘인들이 있었으나, 명확한 명단을 기록하지 않은 까닭에 수묘인들이 뒤섞여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에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이러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왕의 무덤가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기록하였다는 것인데, 최근에 발견된 지안고구려비는 바로 광개토왕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7)]

어쨌든 고구려의 수묘 제도는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대폭 정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선대왕의 무덤가에 비를 세워 수묘인연호의 착오를 방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비 또한 수묘인의 차착(差錯)을 방지하는 것이 입비의 주된 목적이었던 만큼, 이 또한 광개토왕대의 사업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조상이 묻혀 있는 국내성(國內城)을 떠나 평양으로 천도를 결정한 광개토왕이나 이를 실천에 옮긴 장수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선왕의 무덤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내성과 평양 사이는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까닭에, 장수왕대 이후로 왕이 직접 국내성까지 와서 선왕의 묘를 둘러보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성에 있는 선왕의 능 관리는 평양에서 정기적으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평양에서 능의 관리를 위해 파견된 관리들

7) 다만 이 비의 건립 연대에 대해서는 비문의 간지(干支) 부분 판독에 정설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비를 광개토왕대에 건립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와는 달리 장수왕대에 세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비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보다 본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언급하고자 한다.

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지안고구려비나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수묘인 연호들이 제대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평양에 보고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광개토왕비나 지안고구려비의 건립 목적이 바로 이러한 수묘인 관리에 있는 것이라면, 이들 비는 왕릉의 주변이 아니라 바로 수묘인들의 마을이나 이들이 모이기 용이한 장소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광개토왕비의 위치가 인근의 왕릉과 연결 짓기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릉에 비해 돌을 다듬은 정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이 비가 원래 능비로 건립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사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조선고적도보』

단행본

고구려연구회(2002), 『광개토태왕과 고구려 남진정책』, 학연문화사

王健群 著·林東錫 譯(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池內宏(1938), 『通溝』 上

논문

金膺顯(1973), 「高句麗 書法考」, 『書通』 1

白承玉(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余昊奎(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41

李成市 저·류미나 역(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韓國古代史研究』 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권인한(權仁瀚)
국어사·한국한자음 전공,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1998, 태학사), 『중세한국한자음훈집성』(2005/2009, 제이앤씨), 『국어사와 한자음』(공편, 2006, 박이정),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공편, 2009, 성균관대출판부),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공편, 2010, 성균관대출판부), 『학문장과 동아시아』(공저, 2013, 성균관대출판부) 등이 있다.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권인한**

I. 머리말

이 글은 우리의 현존 최고(最古) 금석문인 「광개토왕릉비문(廣開土王陵碑文)」[1](이하 필요시 '이 비문'으로 줄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비문이 발견되어 연구된 지도 어언 1세기가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업적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2] 다만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국어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비문에 대한 국어학적 논의는 홍기문(1957),

1) 이 비의 명칭에 대해서는 '廣開土王碑, 廣開土大(/太)王碑, 好太王碑, 廣開土好太王碑'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필자는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 중 盧泰敦 선생의 역주문에 의거하여 '廣開土王陵碑文'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2)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http://gsm.nricp.go.kr)의 해설에 따르면 이 비문은 1880년 무렵에 이끼와 넝쿨을 제거하고 능비를 새롭게 조사한 결과 광개토왕릉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동 사이트에 제시된 참고문헌 목록에 의하면 이 비문에 대한 논의는 邨岡良弼(1888), 「高句麗古碑」, 『如蘭社話』 8을 필두로 2004년경까지 430여 편이 제시되어 있다.

김영만(金永萬)(1980 · 1981 · 2005), 이기문(李基文)(1981), 장세경 · 최병선(1997), 남풍현(南豊鉉)(2000 · 2006), 정광(鄭光)(2003), 김영욱(金永旭)(2004), 이용(李勇)(2006) 등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주로 초기 이두 요소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광개토왕릉 비문에 수많은 고유명사 표기와 함께 다양한 한자어들도 등장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종래와는 달리 음운 · 문법 · 어휘 등 국어학의 전 부문에 걸쳐 이 비문이 국어사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이 비문에 대한 필자의 해석문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비문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유명사 표기자의 음운학적 분석을 통한 한반도 일원의 음운 상태에 대한 재구(음운사 연구), ② 한문 문법면에서 다소 특이한 문장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이두 요소의 존재 여부 재론(문법사 연구), ③ 중국 역대 문헌 용례와의 대조를 통한 한자어 수용 정도의 분석 · 고찰(어휘사 연구) 등이 그것이다. 아무쪼록 이 글을 통하여 이 비문에 대한 국어학계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한편, 고대국어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모색 및 사학계 논의들과의 학제적 소통에도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비문의 해석

여기에서는 '광개토왕릉비문'의 초기 원석계(原石系) 탁본 7종과 가장 최근에 채탁(採拓)된 탁본 1종 등 8종의 탁본[3]에 의거한 필자의 해석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필자 나름대로 정확한 판독과 문면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한 것인바,[4] 다음 장에서 행할 국어학적 논의의 기본 텍스트로 활용될 것이다.

---

3) 이 글에서 의거한 탁본들의 약호와 명칭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① 酒匂本 : 酒匂景信 將來本(墨水廓塡本), 武田幸男 編(1988), 216~223쪽
② 北大本 : 李龍 精拓整紙本(原石 拓本), 林基中 編(1995), 11~60쪽
※潘祖蔭이 쓴 題簽의 일치로 보아 徐建新(2006)에 소개된 '北京大A本' 및 박진석(1997)에서의 '북경대학도서관 3호본'과 同一本으로 판단된다.
③ 水谷1本 : 水谷悌二郎 舊藏本(原石 拓本), 武田幸男 編(1988), 40~87쪽
※이 탁본은 최근 일본의 歷史民俗博物館에 기증된 것인데, 2011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문자 그 이후')에 출품된 바 있다.
④ 靑溟本 : 靑溟 任昌淳 舊藏本(原石 拓本), 任世權·李宇泰 編(2002), 8~247쪽
※현재 泰東古典硏究所藏. 李亨求(1996)에 따르면 이 탁본은 현재 1, 2책만 남아 있는데, 규장각 소장의 原石精拓本(등록번호 : 古929.5-G994)과 한 조를 이루던 것이 흩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한 바 있다. 필자도 최근 규장각 소장본을 열람한 결과 靑溟本의 결락 부분(3·1·1~3·6·35, 4·3·3~4·5·40) 중에서 3면 초반부의 결락 부분과 규장각 소장본이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음을 밝혀둔다.
⑤ 中硏本 : 傅斯年 舊藏甲本(原石 拓本), 武田幸男 編(1988), 90~137쪽
⑥ 金子本 : 金子鷗亭 所藏本(原石 拓本), 武田幸男 編(1988), 140~211쪽
⑦ 水谷2本 : 水谷悌二郎 新藏本(原石 拓本?), 『書品』 100號(1959), 1~70쪽
⑧ 周雲台本 : 吉林省 集安市博物館 所藏本(1981년 採拓本), 王健群 著·林東錫 譯(1985), 426~445쪽
4) 여기에서는 분량 관계상 최종 해석문만을 실었다. 좀 더 자세한 판독 및 해석 과정에 대해서는 『木簡과 文字』 제8호에 실린 졸고 「廣開土王陵碑文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추모왕~광개토왕의 세계(世系)(1·1·1~1·6·39)

1) 추모왕의 탄생(1·1·1~1·1·39)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

【생각건대 옛적에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우셨도다. [왕은] 북부여 출신으로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움이 있었다. □□□□□□】

2) 추모왕의 순행(1·1·40~1·3·4)

命駕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

【수레를 명하여 순행(巡幸)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경유하게 되었다. 왕이 나루에 이르러서 "나는 천제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 떠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소리에 응답하여 곧바로 [엄리대수 또는 그 수신(水神)이] 이어진 갈대와 뜬 거북이의 다리[부교(浮橋)]를 만들었는데, 그런 다음에 비로소 강물을 건넜다[강물을 건널 수 있었다].】

3) 추모왕의 건도(建都)~대주류왕의 소승(紹承)(1·3·5~1·4·23)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天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왕이] 세위(世位)를 즐겨하지[좋아하지] 않으시니, 하늘이 황룡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

이하게 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서 승천하였다. [그 후] 고명세자(顧命世子)인 유류왕(儒留王)은 도리로써 정치를 진흥시키고, 대주류왕(大朱留王)은 국가의 대업을 계승하였다.】

4) 광개토왕의 훈적(1·4·24~1·6·39)

遝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永樂太王, 恩澤格于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 晏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辭曰.

【17세손인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에 이르러 18세에 왕위에 올라 영락태왕(永樂太王)으로 칭하였는데, 그 은택이 하늘에까지 감통(感通)할 정도였고, 위무(威武)는 사해(四海)에 떨쳐서 덮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없애서 서민들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니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백성은 넉넉해졌으며, 오곡은 풍성하게 익었다. 하늘이 [고구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39세에 안가(晏駕)[붕어(崩御)]하여 나라를 버리셨다. 갑인(甲寅)년(414) 9월 29일 을유(乙酉)에 산릉(山陵)으로 옮겨 모시었다. 이에 비를 세우고 훈적(勳績)을 기록하여 후세에 보이고자 한다. 그 사(辭)에 가로되,】

2.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무훈(武勳)(1·7·1~3·8·15)

1) 영락 5년조(1·7·1~1·8·33)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久,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城·力城·北豊·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영락 5년 간지(干支)로 을미(乙未)인 해(395)에 왕은 패려(稗麗)가 오랫동안 □□하지 않으므로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패(?)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러 그 세 개 부락 600~700영(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 말과 양떼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왕이 수레를 돌려 양평도(襄平道)를 지나 동으로 □성(□城), 역성(力城), 북풍(北豊), 오비렵(?)(五備獵)으로 오면서 국경을 천천히 살펴보고, 사냥을 하면서 돌아왔다.】

2) 영락 6년 병신(丙申)조(1·8·34~2·3·19)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海破百殘□□新羅, 以爲臣民. 以六年丙申, 王躬率□軍, 討伐殘國. 軍□□□攻取壹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弖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須耶羅城·莫□□□□城·芬而耶羅·瑑城·於利城·□□城·豆奴城·沸□□利城·彌鄒城·也利城·太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賣城·散那城·那旦城·細城·牟婁城·于婁城·蘇灰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城·林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閏奴城·貫奴城·彡穰城·普□·□古盧城·仇天城·□□□, □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橫□侵穴, 就便圍城. 而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太王恩赦先迷之愆, 錄其後順之誠. 於是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

【백잔(百殘, 백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屬民)이었는데, 그런 까닭으로 조공을 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辛卯)년(391)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을 파(破)

하고 신라를 □□하여[백잔, □□, 신라를 파하여] 신민(臣民)으로 삼았다. 그래서 [영락] 6년 병신(丙申, 396)에 왕이 친히 □군(□軍)을 이끌고 [백(百)]잔국(殘國)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하여 일팔성(壹八城), 구모로성(臼模盧城), 각모로성(各模盧城), 간저리성(幹弖利城), □□성, 각미성(閣彌城), 모로성(牟盧城), 미사성(彌沙城), □사조성(□舍蔦城), 아단성(阿旦城), 고리성(古利城), □리성(□利城), 잡진성(雜珍城), 오리성(奧利城), 구모성(勾牟城), 고수야라성(古須耶羅城), 막□□□□성(莫□□□□城), 분이야라성(芬而耶羅城), 전성(瑑城), 어리성(於利城), □□성, 두노성(豆奴城), 비□□리성(沸□□利城), 미추성(彌鄒城), 야리성(也利城), 태산한성(太山韓城), 소가성(掃加城), 돈발성(敦拔城), □□□성, 누매성(婁賣城), 산나성(散那城), 나단성(那旦城), 세성(細城), 모루성(牟婁城), 우루성(于婁城), 소회성(蘇灰城), 연루성(燕婁城), 석지리성(析支利城), 암문□성(巖門□城), 임성(林城), □□□□□□□리성(□□□□□□□利城), 취추성(就鄒城), □발성(□拔城), 고모루성(古牟婁城), 윤노성(閏奴城), 관노성(貫奴城), 삼양성(彡穰城), 보□성(普□城), □고로성(□古盧城), 구천성(仇天城), □□□성을 공격하여 취하고, 그 도성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의(義)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감히 나와 수없이 싸우니, 왕이 떨쳐 대노(大怒)하여 아리수(阿利水)[한강]를 건너 자(刺)[정탐병]를 보내어 성[한성(漢城)]을 강박(强迫)하였다. 옆으로 □하여 소굴을 침박(侵迫)하고, 나아가 곧 한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제왕이 곤핍(困逼)해져 남녀 생구(生口)[포로] 천 명과 세포(細布) 천(千) 필(?)(丌)을 바치고서 왕 앞에 꿇어앉아 스스로 맹서(盟誓)하기를 이제부터 영구히 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노라고 하였다. 태왕이 앞서 어지럽힌 잘못을 은혜로이 용서하고, 그 뒤에 순종한 성의(誠意)를 [마음에] 새겨두었다. 이때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제왕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거느리고 군사를 되돌려 환도(還都)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영락 8년 무술(戊戌)조(2·5·33~2·6·30)

八年戊戌, 敎遣偏師, 觀扈愼土谷, 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영락] 8년 무술(戊戌, 398)에 교(敎)를 내리셔서 편사(偏師)를 보내시어 식(?)신(扈愼)의 토곡(土谷)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그리하여 곧 막□라성(莫□羅城),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300여 명을 뽑아서 취하였다. 이 이후로 [식(?)신에서] 조공하고, 논사(論事)하였다.】

4) 영락 9년 기해(己亥)조(2·6·31~2·8·8)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云 :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遣使還告以□計.

【[영락] 9년 기해(己亥, 399)에 백제가 맹서를 어기고 왜와 화통(和通)하였다. 왕이 순행(巡幸)하여 평양으로 내려갔는데, 신라가 사신을 보내어 왕께 아뢰어 말하기를, "왜인이 신라 국경에 가득 차 성지(城池)를 부수고 노객(奴客)을 그 백성으로 삼고 있으니, 왕께 귀복(歸服)하여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태왕이 은자(恩慈)하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겨 …… 사신을 보내어 돌아가서 [고구려 측의] □계(□計)로써 [신라왕에게] 고하게 하였다.】

5) 영락 10년 경자(庚子)조(2·8·9~3·3·6)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侵背急追, 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委潰. 城內十九, 盡拒隨倭, 安羅人戍兵捕□□□□其□□□□

□□□□□□□□□□□□□潰, 亦以隨□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開土境好太王, □□□□寐□□家僕勾, □□□□朝貢.

【[영락] 10년 경자(庚子, 400)에 교를 내리셔서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가서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을 거쳐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그곳에 가득하였다. 관군이 막 도착하자 왜적이 물러났다. …… 뒤를 습격하여 급히 쫓아가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귀복(歸服)하였다. 안라인(安羅人) 수병(戍兵)이 신라성과 □성을 □하였다. 왜구가 위축되어 궤멸되니, 성 안의 십분지구(十分之九)는 다 왜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다. 안라인 수병이 …… 을 사로잡으니 …… 궤멸되어 역시 안라인 수병에게 수□(隨□)하였다. 옛날에는 신라 매금(寐錦)이 몸소 와서 논사(論事)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 광개토경호태왕(廣開土境好太王) …… [신라] 매금 …… 의 가복(家僕) 구(句)를 …… 하여 조공하였다.】

6) 영락 14년 갑진(甲辰)조(3·3·7~3·4·20)

十四年甲辰,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和殘, 至石城□, 連船□□□, 王躬率□□,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영락] 14년 갑진(甲辰, 404)에 왜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대방계(帶方界)를 침입하여 잔(殘)[국(國)]과 화통하고, 석성(石城)에 이르러 □하여 배를 연결하여 …… 하였으므로 왕이 몸소 □□를 거느리고 평양을 거쳐 …… [적의] 선봉(先鋒)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왕당(王幢)이 매복 공격과 이동 공격을 펴부으니 왜구가 궤멸되었다. 참살(斬煞)한 것이 무수히 많았다.】

7) 영락 17년 정미(丁未)조(3·4·21~3·6·2)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師□□合戰, 斬煞蕩盡.

所獲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不可稱數. 還破沙溝城·婁城·□□城·□城·□□□□□□城.

【[영락] 17년 정미(丁未, 407)에 교를 내리셔서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 하게 하였다. …… [고구려] 군사(軍師)가 [적과] 합전(合戰)하여 참살하고 탕진(蕩盡)시켰다. 노획한 갑옷이 만여 벌이고, 군수물자나 병기(兵器)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돌아오면서 사구성(沙溝城), 누성(婁城), □□성, □성, □□□□□성을 격파하였다.】

8) 영락 20년 경술(庚戌)조(3·6·3~3·8·15)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舉國駭□□□□歸□. 王恩普覆.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瑞社婁鴨盧·肅斯舍鴨盧·□□□鴨盧.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영락] 20년 경술(庚戌, 410)에 동부여는 옛날부터 추모왕의 속민이었는데, 중도에 반란을 일으켜 조공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군사가 부여의 도성에 도착하자 부여는 온 나라가 놀라 복종하고 □□□□을 바치고 귀복하였다. 왕의 은덕이 널리 덮었다. 이에 군대를 돌려 돌아왔다. 또 이때에 왕의 교화를 사모하여 관(官)을 따라 귀화해온 자는 미구루압로(味仇婁鴨盧), 비사마압로(卑斯麻鴨盧), 타사루압로(瑞社婁鴨盧), 숙사사압로(肅斯舍鴨盧), □□□압로 등 [5명]이었다. 무릇 [왕이] 공파(攻破)한 성은 64개, 촌은 1,400개에 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수묘인 제도(3·8·16~4·9·41)

1) 수묘인연호(3·8·16~4·5·4)

守墓人烟戶. 賣句余民國烟二看烟三, 東海賈國烟三看烟五, 敦城民四家盡爲看烟, 于城一家爲看烟, 碑利城二家爲國烟, 平穰城民國烟一看烟十, 訾連二家爲看烟, 俳婁人國烟一看烟卌三, 梁谷二家爲看烟, 梁城二家爲看烟, 安夫連廿二家爲看烟, 改谷三家爲看烟, 新城三家爲看烟, 南蘇城一家爲國烟.

新來韓穢, 沙水城國烟一看烟一, 牟婁城二家爲看烟, 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 勾牟客頭二家爲看烟, 求底韓一家爲看烟, 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 古耶羅城一家爲看烟, 炅古城國烟一看烟三, 客賢韓一家爲看烟, 阿旦城, 雜珍城合十家爲看烟, 巴奴城韓九家爲看烟, 臼模盧城四家爲看烟, 各模盧城二家爲看烟, 牟水城三家爲看烟, 幹氏利城國烟一看烟三, 彌鄒城國烟一看烟七, 也利城三家爲看烟, 豆奴城國烟一看烟二, 奧利城國烟一看烟八, 須鄒城國烟二看烟五, 百殘南居韓國烟一看烟五, 太山韓城六家爲看烟, 農賣城國烟一看烟七, 閏奴城國烟二看烟廿二, 古牟婁城國烟二看烟八, 瑑城國烟一看烟八, 味城六家爲看烟, 就咨城五家爲看烟, 彡穰城廿四家爲看烟, 散那城一家爲國烟, 那旦城一家爲看烟, 勾牟城一家爲看烟, 於利城八家爲看烟, 比利城三家爲看烟, 細城三家爲看烟.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는 다음과 같다. 매구여민(賣句余民)은 국연(國烟)2 간연(看烟)3으로 하고, 동해가(東海賈)는 국연3 간연5로 하고, 돈성민(敦城民) 4가(家)는 모두 간연1로 하고, 우성(于城) 1가는 간연1로 하고, 비리성(碑利城) 2가는 국연1로 하고, 평양성민(平穰城民)은 국연1 간연10으로 하고, 자련(訾連) 2가는 간연1로 하고, 배루인(俳婁人)은 국연1 간연43으로 하고, 양(?)곡(梁谷) 2가는 간연1로 하고, 양(?)성(梁城) 2가는 간연1로 하고, 안부련(安夫連) 22가는 간연1로 하고, 개곡

(改谷) 3가는 간연1로 하고, 신성(新城) 3가는 간연1로 하고, 남소성(南蘇城) 1가는 국연1로 한다.

새로 들어온 한예(韓穢)의 경우 사수성(沙水城)은 국연1 간연1로 하고, 모루성(牟婁城) 2가는 간연1로 하고, 두비압잠한(豆比鴨岑韓) 5가는 간연1로 하고, 구모객두(勾牟客頭) 2가는 간연1로 하고, 구저한(求底韓) 1가는 간연1로 하고, 사조성한예(舍蔦城韓穢)는 국연3 간연21로 하고, 고수야라성(古須耶羅城) 1가는 간연1로 하고, 경고성(炅古城)은 국연1 간연3으로 하고, 객현한(客賢韓) 1가는 간연1로 하고,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을 합한 10가는 간연1로 하고, 파노성한(巴奴城韓) 9가는 간연1로 하고, 구모로성(臼模盧城) 4가는 간연1로 하고, 각모로성(各模盧城) 2가는 간연1로 하고, 모수성(牟水城) 3가는 간연1로 하고, 간저리성(幹氐利城)은 국연1 간연3으로 하고, 미추성(彌鄒城)은 국연1 간연7로 하고, 야리성(也利城) 3가는 간연1로 하고, 두노성(豆奴城)은 국연1 간연2로 하고, 오리성(奧利城)은 국연1 간연8로 하고, 수추성(須鄒城)은 국연2 간연5로 하고, 백잔남거한(百殘南居韓)은 국연1 간연5로 하고, 태산한성(太山韓城) 6가는 간연1로 하고, 농매성(農賣城)은 국연1 간연7로 하고, 윤노성(閏奴城)은 국연2 간연22로 하고, 고모루성(古牟婁城)은 국연2 간연8로 하고, 전성(琢城)은 국연1 간연8로 하고, 미성(味城) 6가는 간연으로 하고, 취자성(就咨城) 5가는 간연1로 하고, 삼양성(彡穰城) 24가는 간연1로 하고, 산나성(散那城) 1가는 국연1로 하고, 나단성(那旦城) 1가는 간연1로 하고, 구모성(勾牟城) 1가는 간연1로 하고, 어리성(於利城) 8가는 간연1로 하고, 비리성(比利城) 3가는 간연1로 하고, 세성(細城) 3가는 간연1로 한다.】

2) 광개토경평안호태왕의 존시교언(存時教言)(4·5·5~4·7·32)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

備洒掃.’言敎如此, 是以如敎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이 살아 계실 때에 교하시어 ‘조왕(祖王)과 선왕(先王)들이 다만 원근(遠近)의 구민(舊民)들만을 데려다가 묘를 지키고 소제(掃除)를 맡도록 하셨는데, 나는 이들 구민이 점점 몰락하게 될 것이 염려된다. 만일 내가 죽고 나서도 [나의] 무덤을 안전하게 수묘하려 한다면, 내가 몸소 다니며 약취(略取)해 온 한예인(韓穢人)들만을 데려다가 무덤을 소제하는 데 충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왕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므로 명에 따라 한예(韓穢)의 220가를 데려다가 수묘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묘를 지키는 법도를 모를 것이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더 데려왔다. 신·구의 수묘호(守墓戶)를 합치면 국연 30, 간연 300으로서 도합 330가에 달한다.】

3) 수묘 규정(4·7·33~4·9·41)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위로 조왕(祖王) 선왕(先王) 이래로 묘에다 석비(石碑)를 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연호들로 하여금 섞갈리게 하기에 이르렀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만이 [총력을] 다하여 조왕 선왕들을 위하여 묘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수묘인들로 하여금] 착오가 없게 하셨다. 또한 규정을 제정하여 ‘수묘인은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라도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영(令)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판 사람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산 사람은 제(制)하여 [그로 하여금] 수묘하게 한다’ 하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I.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1. 음운사적 측면

음운사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이 비문에 보이는 국명·지명·인명·관명류의 고유명사 표기들을 수집·정리하여 그 표기자들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비문이 세워진 5세기 초엽 한반도 일원의 음운 상태를 재구하는 데 초점을 모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문의 102종의 고유명사 표기들을 부여계(북방계)와 한(韓)계(남방계)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음운학적 분석을 행할 것이다.

1) 고유명사 표기의 수집과 정리

먼저 부여계는 ①에서 보듯이 총 31종의 고유명사들로 종합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① 부여계 고유명사

국명 : (북/동)부여

지명 : 비류(沸流)[곡(谷)], 홀본(忽本), 평양[성(城)], 대방(帶方)[계(界)], [석성(石城)], 매구여(賣句余), [동해가(東海賈)], 돈(敦)(성), 우(于)(성), 비리(碑利)(성), 자(訾)[연(連)], 배루(俳婁), [양(?)곡(梁谷)], [양(?)성(梁城)], 안부(安夫)(연), 개(改)(곡), [신성(新城)], 남소(南蘇)(성)〈고구려〉 // 엄리(奄利)[대수(大水)], 미구루(味仇婁), 비사마(卑斯麻), 타사루(塘社婁), 숙사사(肅斯舍), (□□□)〈부여〉

인명 : 추모(鄒牟)(왕), 유류(儒留)(왕), (대)주류(朱留)(왕), 국강(國岡)[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영락태왕)〈고구려〉

관명 : 압로(鴨盧)〈부여〉

①의 예들 중에서 한문 요소로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석성(石城), 신성(新城), 동해가(東海賈), 영락태왕', 미상의 자형+한문적 요소로 구성된 '양(?)곡(梁谷), 양(?)성(梁城), □□□'를 제외하면 분석 대상은 24종의 표기로 줄어들게 된다. 이 중에서도 '北-, 東-' 등의 한어계 접두소나 '-谷, -城, -界, -連, -大水, -王' 등의 한어계 접미소들은 분석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의 경우는 '국강(장지명)+상(조사)+광개토경평안[치적(治績)]+호태왕[미칭(美稱)]'으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5] 장지명인 '국강'만이 분석 대상자가 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부여계 고유명사 표기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② 부여계 고유명사 표기자(가나다순)

岡, 改, 仇, 句, 國, 南, 帶, 敦, 盧, 婁[3], 流, 留[2], 利[2], 麻, 賣, 牟, 味, 方, 俳, 本, 夫[2], 卑, 沸, 碑, 斯[2], 社, 舍, 蘇, 肅, 安, 鴨, 穰, 奄, 余, 餘, 于, 儒, 訾, 朱, 鄒, 端, 平, 忽[자종(字種) 43, 연자수(延字數) 49]

다음으로 한(韓)계는 ③에서 보듯이 총 71종의 고유명사들로 종합된다.

③ 한계 고유명사

국명 : 백잔(百殘)[국(國)] // 신라(新羅) // 안라(安羅), 임나가라(任那加羅)

지명 : 일팔(壹八)[성(城)], 구모로(臼模盧)(성), 각모로(各模盧)(성), 간저리(幹氐利)(성), (□□성), 각미(閣彌)(성), 모로(牟盧)(성), 미사(彌沙)(성), (□)사조(舍蔦)(성), 아단(阿旦)(성), 고리(古利)(성), (□)리(利)(성), 잡진(雜珍)(성), 오리(奧利)(성), 구모(勾牟)(성), 고수야라(古須

5) 그 의미는 대체로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 다음, 國岡(의 묘역)에 묻히신 훌륭한 太王" 정도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上'字에 대한 자세한 것은 3장 2절 (2)의 논의 참조

耶羅)(성), 막(莫)(□□□□성), 분이야라(芬而耶羅)(성), 전(琠)(성), 어리(於利)(성), (□□성), 두노(豆奴)(성), 비(沸)(□□)리(利)(성), 미추(彌鄒)(성), 야리(也利)(성), 태산한(太山韓)(성), 소가(掃加)(성), 돈발(敦拔)(성), (□□□성), 누매(婁賣)(성), 산나(散那)(성), 나단(那旦)(성), 세(細)(성), 모루(牟婁)(성), 우루(于婁)(성), 소회(蘇灰)(성), 연루(燕婁)(성), 석지리(析支利)(성), 암문(巖門)(□성), 임(林)(성), (□□□□□□□□)리(利)(성), 취추(就鄒)(성), (□)발(拔)(성), 고모루(古牟婁)(성), 윤노(閏奴)(성), 관노(貫奴)(성), 삼양(彡穰)(성), 보(普)(□성), (□)고로(古盧)(성), 구천(仇天)(성), (□□□성), 아리(阿利)[수(水)], 사구(沙溝)(성), 누(婁)(성), (□□성), (□성), (□□□□□□성), 두비압잠(豆比鴨岑)[한(韓)], 구저(求底)(한), 객현(客賢)(한), 파노(巴奴)[성한(城韓)], 백잔(百殘)[남거한(南居韓)]〈백잔〉 // (□성), 신라(성)〈신라〉 // 종발(從拔)(성)〈가야〉

인명 : 구(勾)〈신라〉

관명 : 매금(寐錦)〈신라〉

③의 예들 중에서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城)[2], □□성[3], □□□성[2], □□□□□□□성'을 제외하면 분석 대상은 63종의 표기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서도 '-國, -城, -水' 등의 한어계 접미소와 '남거(南居)'와 같은 한어적 표현, 그리고 신민(新民)에 대한 구별 표지로 판단되는 '-韓'은 분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상에 따라 한(韓)계 고유명사 표기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④ 한계 고유명사 표기자(가나다순)

加[2], 各, 閣, 幹, 客, 古[4], 貫, 仇, 勾[2], 求, 溝, 臼, 錦, 那[3], 奴[4], 旦[2], 敦, 豆[2], 羅[6], 盧[4], 婁[6], 利[10], 林, 莫, 寐, 賣, 模[2], 牟[4], 門, 彌[3], 拔[3], 百[2], 普, 芬, 比, 沸, 沙[2], 舍, 山, 散, 析, 細, 掃, 蘇, 須, 新[2], 彡, 阿[2], 安, 巖, 鴨, 也, 耶[2], 穰, 於, 燕, 奧, 于, 閏, 而, 壹, 任, 殘[2], 岑, 雜, 底, 氐, 琠, 蔦, 從, 支, 珍, 天, 鄒[2],

就, 太, 巴, 八, 韓, 賢, 灰[자종(字種) 81, 연자수(延字數) 130]

이상 ①~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개토왕릉비문' 속의 고유명사 표기는 부여계는 31종에 걸쳐 자종 43자(연자수 49), 한계는 71종에 걸쳐 자종 81자(연자수 130)의 한자가 쓰인 것으로 종합·정리될 수 있다. 양 계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한어(漢語) 중고음(中古音) 체계에 대해서는【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결과와 그 의의

앞서 정리된 부여·한(韓) 양 계의 고유명사 표기자들에 대하여 성모(聲母)·운모(韻母)·성조(聲調) 및 음소 분포 제약별(制約別)로 각각 의미 있는 특징을 찾아 그 같고 다름을 대비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⑴ 성모(聲母)

첫째, 【부록 2】의 〈표 1〉·〈표 2〉에서 보듯이 성모면에서 전청음(全淸音) : 차청음(次淸音)의 비율이 「동이전(東夷傳)」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6] 49.0% : 2.0%(부여계), 38.7% : 4.6%(한계)로, 미세한 차이를 제하고 나면 양쪽 모두 차청음, 즉 유기음(有氣音)의 비율이 저조한 상태임이 공통적이다. 이는 당시 양계어(兩系語)에서 유기음의 발달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둘째, 【부록 2】의 〈표 1〉·〈표 2〉에서 조음 방법별 각 성모군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해보면, '전청(全淸) 24.0(49.0%)>차탁(次濁) 19.0(38.8%)>전탁(全濁) 5.0(10.2%)>차청(次淸) 1.0(2.0%)'(부여계), '차탁 56.0(43.1%)>전청 50.3(38.7%)>전탁 17.7(13.6%)>차청 6.0(4.6%)'(한계)의 순서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

6) 「東夷傳」 : 全淸音 : 次淸音 ⇒ 55.4% : 3.6%(夫餘系), 41.0% : 3.4%(韓系)

다. 이를 무성음(無聲音)[전청+차청] : 유성음(有聲音)[전탁+차탁]의 비율로 환산해보면 51.0% : 49.0%(부여계), 43.3% : 56.7%(한계)로 나타나 한계의 유성음자(有聲音字) 비율이 부여계에 비하여 7%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차탁음 중에서 공명음(明·微·泥·娘·來·日·疑母)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32.7% : 40.0%)와 평행되므로 여기에서 비롯된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권인한(2011 : 229쪽)의 「동이전」 분석 결과[7]와 평행되므로 부여계에 비하여 한계어가 조금은 부드러운 소리로 실현되었을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⑵ 운모(韻母)

첫째, 【부록 1】에서 보듯이 이 비문은 운모상 「동이전」에서와는 달리 부여계는 여전히 모운(模韻)의 '노(盧)'자만 보일 뿐 가운(歌韻)의 '나(羅)'자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한계는 모운의 '노(盧), 노(奴)'자뿐 아니라 가운의 '나(羅), 나(那)'자도 보여 양자가 공존함이 주목된다. 이는 한계에 모운과 가운의 분화가 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사실이거니와, 이와 같은 양운간(兩韻間) 분화의 정립은 당시 한계의 음운 상태가 모운과 가운의 핵모음이 각각 /o/, /a/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위진대(魏晉代) 한자음[8]의 특징과 평행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는 5세기 초기 한계어(韓系語)의 기층 한자음으로 위진대, 즉 3~4세기경의 음계가 이식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9]

---

7) 「東夷傳」 : ① "全淸 46.0(55.4%)>次濁 25.0(30.1%)>全濁 9.0(10.8%)>次淸 3.0(3.6%)"의 순서(夫餘系), "全淸 98.0(41.0%)>次濁 87.0(36.4%)>全濁 46.0 (19.2%)>次淸 8.0(3.4%)"의 순서(韓系), ② 무성음(全淸+次淸) : 유성음(全濁+次濁)의 비율 ⇒ 59.0% : 40.9%(夫餘系), 44.4% : 55.6%(韓系), ③ 次濁音 중 共鳴音(明·微·泥·娘·來·日·疑母)의 비율 차이 ⇒ 21.7%(夫餘系) : 30.9%(韓系)

8) Ting(1975 : 239쪽)은 東漢代까지 핵모음이 /a/로 再構되는 模韻의 핵모음이 /o/로 변화되는 시기를 魏晉代로 보고 있다.

둘째, 【부록 2】의 〈표 3〉·〈표 4〉에서 보듯이 음성운(陰聲韻) : 양성운(陽聲韻) : 입성운(入聲韻)의 비율은 각각 74.5% : 19.4% : 6.1%(부여계), 67.0% : 22.3% : 10.7%(한계)로 전체적으로 음성운>양성운>입성운의 순서를 보이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이를 개음절(開音節)[음성운] : 폐음절(閉音節)[양성운+입성운]의 비율로 환산해보면 74.5% : 25.5%(부여계), 67.0% : 33.0%(한계)로 나타나 「동이전」의 분석 결과[10]와 비교하여 수치상의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여계에서 개음절 선호 경향이 여전한 가운데 한계어(韓系語)에서도 개음절 선호 경향이 다소나마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⑶ 성조(聲調)

성조상으로는 【부록 2】의 〈표 5〉에서 보듯이 부여계는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입성(入聲)'의 순서로 나타나는 반면에 한계는 「동이전」과 마찬가지로 '평성>거성>상성>입성'의 순서로 나타나 상·거성의 순서 차이를 볼 수 있을 뿐이다. 대체로 「동이전」과 동일하게 평성자(平聲字) 선호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이러한 韓系語에서 魏晉代 音系의 移植은 예상과는 달리 백제보다는 신라 쪽에서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정리된 ③ 韓系 고유명사에서 보듯이 '盧·奴'字의 쓰임이 각각 4회로 모두 백제 지명에서만 보임에 비하여, '羅·那'字의 쓰임은 각각 6회와 3회로 신라 쪽에 3/6('羅'), 0/3('那')의 비율로 나타남이 그 근거가 된다. 이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신라 쪽이 중국 측의 변화를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權仁瀚(2011 : 231~232쪽)은 「東夷傳」의 자료에서 '羅'字의 결핍 분포를 토대로 3세기경 한반도의 기층 한자음으로 前漢音 정도를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5세기 초 한반도의 기층 한자음에 대하여 略述하자면, 고구려·백제 쪽이 후기 상고음에 가까운 漢代音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신라에서는 이보다 후대인 3~4세기경의 魏晉代音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0) 「동이전」 : 개음절 : 폐음절 ⇒ 78.8% : 21.1%(부여계), 61.8% : 38.2%(한계)

⑷ 음소(音素) 분포 제약

음소 분포 제약면에서 어두(語頭) /l/의 분포 제약을 확인할 수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부록 2】의 〈표 6〉을 보면 양계 모두 내모자(來母字)가 어두에 분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유일한 예외가 한계의 '임성(林城)'인데, 이것도 한화(漢化)한 지명이거나 '임(林)'자를 석독(釋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부여계나 한계어 모두 어두에 내모(來母)가 설 수 없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두음법칙의 연원이 매우 오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거니와, 「동이전」의 내모자 분포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그 연원을 3세기경까지 소급시킬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유명사 표기자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 결과를 보면 부분적으로는 부여·한 양계어의 차이가 드러난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양계어의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5세기 초 한반도의 언어 상황은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두 /l/의 분포 제약은 알타이계어에 공통된 특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양계어의 계통적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증거의 하나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2. 문법사적 측면

문법사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종래의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비문의 문장 중에서 한문 문법적으로 다소 특이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초기 이두 요소의 존재 여부를 재론함에 초점을 모을 것이다.

1) 기존의 논의 현황

먼저 이두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국어학계의 논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권인한, 2010 참조).

비문에 이두 요소가 있다는 지적은 홍기문(1957)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와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黃龍負昇天"의 두 구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구두어의 어순으로 해석해야만 문리가 통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어학자로서 광개토왕릉비문의 이두적 요소에 대한 지적은 이기문(1981)이 비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其有違令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에서 '守墓之'의 之는 목적어로 볼 수 없으므로 문장의 종결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 최초이다.

남풍현(2000)은 홍기문과 이기문의 두 견해를 소개함에 그치고 있는데, 비문의 이두 요소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즉 정광(2003)이 "王於忽本東岡" 부분을 "왕을 성 밑 동쪽 언덕에서"라고 해독하여 '於'를 고구려어의 대격 '-을'을 표기한 이두적 요소로 본 점, 김영욱(2004)이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부분을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여랑(女郎)인 추모왕이다"로 해석하여 한자를 한국어의 어순에 맞게 재배치한 현상을 지적한 것과 "黃龍負昇天" 부분을 "황룡이 (왕을) 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여 한국어 문법에서 일반적인 목적어 생략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한 것, 그리고 "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 "而倭以辛卯年來" 부분을 각각 "고명세자(顧命世子)는 유류왕으로 도를 일으켜 다스렸다", "왜로 신묘년이 되어서"로 해석함으로써 '以'를 각각 자격,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본 점 등이다. 이 밖에 "買人制令守墓之"에 대하여 김영만(2005)은 "산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령을 제정하여 그에게 묘를 지키게 한다"로 해석함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써 '賣者刑之'의 '刑'과 대등하게 '制令守墓'에 사동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이 바로 '之'에 있다고 봄으로써 종래 '之'의 종결사설을 비판한 반면, 남풍현(2006)은 "매입한 사람은 제령(制令)으로 수묘하게 한다"로 해석하고 이 부분이 한문으로서는 불완전한 국어적인 표현으로 봄으로써 결국 문말의 '之'를 후대 자료들에 자주 쓰인 국어의 종결어미 '-다'의 뜻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본 점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용(2006)은 정광(2003), 김영욱(2004)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남풍현(2006)이 지적한 '之'의 이두적 용법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은 이두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국어학계의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이두 요소의 존재 여부 재론

지금까지의 논의들에서 초기적 이두 요소의 존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었던 예들을 중심으로 그 사실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하자. 우선 기존에 이두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거론된 바 있으나, 판독상의 문제 또는 한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예들은 다음과 같다.

⑤ (a)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b)黃龍(c)負昇天.
⑥ 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
⑦ 而倭以辛卯年來 ……

⑤의 예에 대한 기존의 주장들은 밑줄 친 세 글자에 대한 판독상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의 원석계 탁본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각각 '천(天)', '이(履)', '수(首)'자로 판독되어야 한다.[11]

	酒匀	北大	水谷[1]	青溟	中研	金子	水谷[2]	周雲台
①								
②								
③								

따라서 ⑤의 문장을 "天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하늘이 황룡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게 하였다.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밟고서 승천하였다)으로 고치게 되면, 더 이상 "王於忽本東岡" 부분에서의 '於'를 고구려어의 목적격조사 '-을/를'을 표기한 이두 요소로 본다거나, "履龍首昇天" 부분을 종전 판독에 따라 "황룡이 [왕을] 지고서 하늘로 올라갔다"로 해석하여 한국어 문법에서 일반적인 목적어 생략 현상이 나타남을 지적한 기존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

⑥, ⑦의 예에서 '以'를 우리말의 조사 '-로'를 반영한 이두 요소로 본 주장은 한문 문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⑥은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로 끊어 읽어 "고명세자인 유류왕은 도리로써 정치를 진흥하고"로 해석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⑦도 "而倭以辛卯年, 來渡海破百殘□□新羅, 以爲

11)  ⑤의 (c)에 대하여 최근까지 필자는 '頁'字로 판독하는 안을 주장하였으나, 이 글에서 '首'字로 수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왼쪽의 탁본에서 보듯이 이 글자를 '頁'字로 판독하기에는 그 다음의 '昇'字와의 거리가 너무 좁다는 점(우측 행의 '葭浮'의 字間 비교), 둘째로 이 비문에서 다른 글자들과 비교할 때( 其 1·7·31,  愼 2·6·2,  貢 3·6·20 등) 하부 '八'字 자형의 가로 : 세로의 비율에 약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조차 한자어 '龍頁'의 용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臣民”으로 끊어 읽어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百殘)을 파하고 신라를 □□하여[/백잔, □□, 신라를 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以’는 때의 정점을 표시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역사학계의 논의에서 ⑦의 “以辛卯年來”를 “신묘년 이래”로 해석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여기에서의 ‘來’는 ⑤의 “天遣黃龍來下迎王”에서의 ‘來下’와 마찬가지로 ‘來+VP’ 용법[12]으로 보아 ‘바다를 건너오다’로 해석한 것이며, 그 동안 논란이 계속되어온 ‘來渡海’에 대한 판독은 다음의 원석계 탁본들에 의한 것임을 밝혀둔다.

	酒匂	北大	水谷[1]	青溟	中研	金子	水谷[2]	周雲台
④								
⑤								
⑥								

이상의 예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두 요소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토 대상은 다음의 두 문장으로 좁혀지게 된다.

⑧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나는 천제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⑨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판 사람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산 사람은

12) ‘來+VP’는 連動式으로 ‘와서 V-하다’로 풀이함이 원칙이나, 대부분 ‘V-아/어 오다’로 풀이할 수 있고, 때로는 본동사만 풀이해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竺家寧(2004) 참조

제(制)하여 [그로 하여금] 수묘하게 한다)

⑧의 예는 마지막 '추모왕' 부분이 없을 때는 한문 문법에 큰 손색이 없는 문장이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문장 구성상 '추모왕' 부분은 '母河伯女郎'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13] 종래의 주장대로 국어의 어순에 맞게 재배치한 문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중국 사서에서 이 부분이 '추모왕' 없이 옮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⑧′ ⓐ朱蒙告水曰 : 我是日子, 河伯外孫, 今日逃走, 追兵垂及, 如何(『위서(魏書)』 고구려전)
ⓑ朱蒙告水曰 : 我是日子, 河伯外孫, 今追兵垂及, 如何得濟?(『북사(北史)』 고구려전)
ⓒ朱蒙曰 : 我是河伯外孫, 日之子也. 今有難, 而追兵且及(『수서(隋書)』 고려전)

⑧′에서 보듯이 중국 사서에서 문제의 '추모왕' 부분이 생략된 채 나타난다는 사실은 ⑧의 문장이 한문으로서는 어색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순 재배치 현상은 이두 발달의 첫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 비문을 우리 이두발달사의 출발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 고구려에서 추모왕을

13) 王健群 著·林東錫 譯(1984/1985 : 297쪽)에서는 이 예에 대하여 "나는 皇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신의 딸이다. 추모왕이 곧 나다"로 해석함으로써 한문 문법의 어색함을 피하고자 한 듯하다. 그러나 '我是' 부분이 생략되었다고 보지 않는 한, '鄒牟王' 부분만으로 "추모왕이 곧 나다"로 해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할 때 이런 식의 고정된 표현이 발달된 데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비문과 거의 동시대의 문자 자료인 '모두루묘지명(牟頭婁墓誌銘)'에서도 "河泊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하백의 손자이며 일월(日月)의 아들인 추모성왕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와 같이 마지막에 문제의 '추모왕'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특별히 한문 문법에 어긋난 점이 보이지는 않지만, 비문에서 '我是' 다음에 문제의 고정된 표현이 나타남으로써 한문 문법을 어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⑨의 '買人制令守墓之'에서의 '之'에 대해서는 종결사(終結詞)로 봄이 일반적이다. 필자도 처음의 생각과는 달리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한문 문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守墓之'의 '之'를 "左之右之, 坐之起之, 以觀其習變也"(좌로 가게하고 우로 가게하며, 앉게 하고 일어서게 하여 그 변화에 익숙한지를 살핀다)[(『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서와 같이 VP '수묘'를 사동사로 만들어 주는 요소로 보아 "제령(制令)으로 수묘하게 한다"로 해석하는 방안은 '수묘'와 같은 타동사구 뒤에 '之'가 결합되어 사동의 용법을 보이는 예를 달리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외견상 김병준(2009/2011 : 74쪽)이 제시한 "駕傳馬, 一食禾, 其顧來又一食禾, …… 駕縣馬勞, 又益壹禾之"[수레를 끄는 전마(傳馬)에게 사료[禾]를 한 차례 먹이고, 돌아올 때에 또 한 차례 먹인다. …… 수레를 끄는 현마(縣馬)가 지쳤을 때에는 한 차례 더 사료를 준다], 즉 『수호지진간(睡虎地秦簡)』「진율18종(秦律十八種)」에서의 '益壹禾之' 부분이 '타동사구+之'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주목되나, 사동 용법이 아니어서 유례로 보기 어렵다.

둘째, '제령'의 '令'을 사동 보조사로 보면, '之'는 사동사구 '영수묘(令守墓, 수묘하게 하다)'의 목적어로 보아 "제하여 그로 하여금 수묘하게 한다"로 해석하는 방안은 '之'의 위치가 문제가 된다. 한문 문법상 목적어는 사동 보조사와 동사 사이에 위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예 :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5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문제의 '之'가 특별히 도치되어 문장 끝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부분의 "銘其烟戶, 不令差錯" 구절을 참조하면 '令'의 목적어인 '買人'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까우므로 이 구절은 "산 사람은 제하여 [그로 하여금] 수묘하게 한다"로 해석하는 편이 최선의 해석안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때의 '之'는 목적어가 아니라 문장 종결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之'자에 대하여 모리 히로미치[森博達](2009/2011 : 317쪽, 2010 : 62쪽)가 강조한 바와 같이 문제의 '之'자가 없다면 최종 행의 제41자 자리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메우려는 의도에서 쓰인 글자일 수 있다는 견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의 북경대(北京大)본 탁본에서 보듯이 4·9·40의 '墓'자는 그 우측에 있는 '差'(4·8·40)나 '墓'(4·7·40)에 비하여 그 길이가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의 '之'자도 그 위의 '刑之'의 '之'자에 비해 글자 크기도 작을 뿐더러 자형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 비문의 '序' 이후에는 전혀 종결사가 쓰이지 않다가 이곳에서만 '之'자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한문 문법적인 필요에서 쓰인 글자라기보다는 '수묘'로 문장을 끝맺으려 했으나 그로 인해 생겨난 공격을 어떻게든 메우려는 의도에서 문제의 '之'자가 들어간 것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문제의 '之'자는 기원적으로 비언어적인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우리 선조들에게 문



그림 1_ 광개토왕릉비문 4면 좌측 하단 부분

말(文末) 종결사로 인식됨으로써 후대에 이두자(吏讀字)로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 필자의 결론임을 밝혀둔다. 요컨대 ⑧, ⑨의 예들은 광개토왕릉 비문이 이두발달사에서 첫 출발선상에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지지해줄 자료로는 광개토왕의 시호(諡號)를 들 수 있다.

⑩ (a)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광개토왕릉비문」(414)]
(b)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광개토왕호우명문(廣開土王壺杅銘文)」(415)]
(c)國岡上大開土地好太聖王[「모두루묘지명」(413~491?)]

⑩에서 보듯이 이 비문의 시호 중 왕의 치적을 나타내는 '광개토경(廣開土境)' 부분이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금석문에서 '광개토지(廣開土地)'나 '대개토지(大開土地)'로도 나타남으로써 '廣↔大', '境↔地', 즉 의미가 비슷한 글자들 사이의 교체를 보인다는 점이다. 만약 '광개토경' 부분을 음독하였다면 이러한 교체가 나타날 수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5세기 초에 이미 고구려에서 석독 표기가 발달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예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김영욱, 2008 : 180~181쪽, 최진열, 2012 : 37쪽). 이러한 석독 표기의 시작도 이두 발달의 한 징표로 삼을 수 있다.

이 시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대상은 장지명 '국강상(國岡上)'의 '上'자의 용법이다. 앞서 이 글자가 조사 용법으로 쓰임을 말한 바 있는데,[14] 여기서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주목되는 자료는 광개토왕을 전후한 왕들의 시호에서 문제의 '上'자가 자주 생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임기환(2002), 장세경(2007), 최진열(2012) 등이 국내외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를 종

14) '國岡上'의 '上'字가 처격조사의 용법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年前에 윤선태 교수로부터 도움 말씀을 들었기에 여기에 밝혀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합해볼 때, 특히 『삼국사기』의 왕호 중 '原'자를 포함하는 일부 왕들의 시호에서 '…岡上…~…岡…'의 이표기를 보인다. '고국원왕(故國原王, 331~371) : 國岡上王~國岡王~國原王~岡上王~國崗上聖太王', '안원왕(安原王, 531~545) : 鵠香岡上王~(貊國)香岡王~安岡上王', '양원왕(陽原王, 545~559) : 陽崗上好王~陽岡王', '평원왕(平原王, 559~590) : 平崗上好王~平岡王~平國王' 등이 그것이다. 이 비문을 비롯한 고구려 자료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시호에서는 '上'자가 고정 표기된 '국강상(國岡上)'으로만 나타나 국사학계에서는 왕의 장지명을 '국강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위에 제시한 시호들을 고려할 때 문제의 '上'자가 '…月中~…月'의 이표기를 보이는 조사 용법의 '中'자와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한 글자라는 점에서 그 문법적 지위를 조사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비문의 문장들 중에 처격조사 용법의 '上'자의 예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過富山·負山, 至鹽水上[부산, 패(?)산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러]",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위로 조왕 선왕 이래로 묘에다 석비를 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연호들로 하여금 섞갈리게 하기에 이르렀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만이 …… 묘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수묘인들로 하여금] 착오가 없게 하셨다)"가 그것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기원한[15] 조사 용법의 '上'이 당시 고구려에 수용되고 변용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上'의 용례들도 이두 발달의 초기 사례로서 새롭게 주목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15) *上①:14. 用在名詞后。表示一定的處所或範圍。…… "人生世上, 勢位富貴, 蓋可忽乎哉!"≪戰國策·秦策一≫, "有一人姓許名武, 字長文, 十五歲上, 父母雙亡。"≪醒世恒言·三孝廉讓産立高名≫ …… (『漢語大詞典』)

3. 어휘사적 측면

어휘사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이 비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한자어들을 중심으로 역대 중국 문헌에서의 출현 양상과 대조하여 5세기 초 고구려가 중국을 통하여 한자어를 수용한 정도를 살펴봄에 초점을 모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통한 한자·한문의 수용에 관한 논의에서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의 2차 사료들이 이용된 적은 있으나(박영섭, 1995 등), 정작 1차 사료인 광개토왕릉 비문에서의 한자어는 관련 논의에 이용된 적이 없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1) 한자어의 추출과 중국 문헌에서의 출현 빈도 조사

먼저 이 비문의 '서(序)' 부분에서 주요한 한자어들을 추출하여 중국 문헌에서의 출현 빈도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대만의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에서 제공하는 면비판(免費版) '한적전자문헌자료고(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chi.ihp.sinica.edu.tw/ihp/hanji.htm)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⑪ 한자어의 추출(〈 〉표시)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 〈命駕〉〈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應聲卽爲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天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岡, 履〈龍首〉〈昇天〉.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 〈紹承〉〈基業〉. 〈遝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二九〉〈登祚〉, 號爲

永樂太王, 〈恩澤〉格于〈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不軌〉,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 〈晏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辭曰.

⑫ 중국 역대 사서에서의 출현 빈도수 검색표[16)]

문헌 / 한자어	한		위진	남북조					당						
	史記	漢書	三國志	後漢書	宋書	南齊書	魏書	晉書	隋書	梁書	陳書	北齊書	周書	南史	北史
〈始祖〉		10			10	2	36	11	12	2			4	1	12
〈創基〉			4	3	4		2	9	1		2		2	1	5
〈天帝〉	1	5	1	6	4	3	10	4	14			1		2	3
〈河伯〉	16	1	1	2	1		2		3				2	2	5
〈女郎〉						1	3		1					1	
〈剖卵〉					2		1		1						
〈降世〉							1		1						2
〈命駕〉					3	4	3	8	1	8	1	1		17	3
〈巡幸〉		1			6	4	5	2	9	2	2	6	2	3	14
〈皇天〉	1	53	9	33	16	4	21	41	8	6	1	4	2	4	7
〈建都〉		1		3	2		5	3	4						4
〈世位〉			1	1			3	2						1	
〈黃龍〉	14	37	37	34	72	4	3	13	17		3	7	3	3	15
〈龍首〉	1	1		8	4	3	3	4	10	2	1		2		5
〈昇天〉			1				1					1	1		2
〈顧命〉	1	3	6	8	20	10	12	38	6	2	4	6	5	23	17
〈世子〉	5	29	17	2	144	31	54	152	29	38	18	26	19	131	83
〈紹承〉					1			2							
〈基業〉		2	1	2	2	2	2	3	2	1	1	1		3	3
〈遷至〉															
〈二九〉	32	1			6		2		1						1

16) 이는 '漢籍電子文獻資料庫'를 이용하여 본문 검색시에 나타난 한자어별 命中數를 漢~唐代에 간행된 史書의 순서에 따라 재정리한 것이다. 다만 『晉書』의 경우는 唐 태종대에 편찬된 것이지만, 그 편찬에 臧榮緖(415~488)의 (舊)『晉書』를 저본으로 삼았으므로 南北朝代의 史書로 배치하였음을 밝혀둔다.

문헌 / 한자어	한		위진	남북조					당						
	史記	漢書	三國志	後漢書	宋書	南齊書	魏書	晉書	隋書	梁書	陳書	北齊書	周書	南史	北史
〈登祚〉					1		2					4			2
〈恩澤〉	2	18	5	18	3	3	7	9	6	1	1	2	1		12
〈威武〉	4	16	5	11	9	2	10	11	7		1	3	1	1	13
〈掃除〉		3	3	4	2			17	5	1		1	1	2	3
〈不軌〉	11	17	10	25	2	1	16	19	15	1	3	4	3	3	28
〈五穀〉	16	36	5	23	15	1	21	28	20	3			3	4	22
〈豊熟〉	1	1			1	1									
〈昊天〉	2	3	5	9	17	8	11	21	26	3	5	1	2	3	2
〈晏駕〉	7	16		19	41	7	19	26	2	3	2	1	2	20	9
〈遷就〉		1	1					1							
〈山陵〉	4	13	7	14	17	9	28	64	13	2	16	4	4	20	29
〈銘記〉							2			1					1
〈勳績〉		1		1	2	1	3	5	3				1		4

2) 분석 결과 및 의의

⑫의 출현 빈도 조사는 한(漢)~당(唐)대에 간행된 사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으로 대상 문헌과 시기를 확대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의 결과만으로도 당시 고구려에서의 한자어 사용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이 비문의 한자어들이 위진·남북조대에 간행된 사서들과 용례 출현 빈도에서 가장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⑫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한대, 위진·남북조대, 당대로 나누어 시기별로 출현 빈도 일치율을 조사해보면, '위진·남북조대(33/34=97%)>당대(30/34=88%)>한대(23/34=68%)'의 순서로 나타나 이 비문과 거의 동시대에 기록된 위진·남북조대 사서들(『위서(魏書)』>『송서(宋書)』>『진서(晉書)』 등)의 한자어와 높은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문의 한자어 쓰임이 중국과의 시간적인 격차가 크지 않음을,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거의 동시대에 쓰이고 있던 어휘들을 수용하여 언어생활에 적극 활용

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조사 대상의 사서에서 전혀 쓰임이 관찰되지 않은 '답지(遝至)'의 경우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 한자어는 후대 사서인 『명사(明史)』에서만 오늘날과 같이 '한 군데로 몰려들거나 몰려오다'(예 : 전국적으로 주문이 답지하다 등)의 뜻으로 쓰이는 용례들이 검색되는데, 이 비문에서처럼 '~에 이르러'의 뜻으로 쓰인 용례는 필자의 과문(寡聞)인지 모르나 오로지 『묵자(墨子)』에서만 찾을 수 있음이 주목된다. 즉 『묵자』「비공(非攻)」 하(下)에 나오는 "遝至乎商王紂, 天不序其德"[상(商)나라 임금 주(紂)에 이르러서는 하늘이 그의 덕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이 그것이다. 이는 기원전 5~4세기대의 인물인 묵자와 그의 후학들의 설을 모은 『묵자』에만 나오는 어휘가 이 비문에서 그 쓰임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이 비문이 세워질 당시(또는 그 이전에) 고구려에서 『묵자』를 읽었거나 교육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만큼 고구려의 한자어 수용 역사가 상당히 이른 시기까지 소급될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漢)대부터의 쓰임이 관찰되는 '시조(始祖), 천제(天帝), 하백(河伯), 순행(巡幸), 황천(皇天), 건도(建都), 황룡(黃龍), 용수(龍首), 고명(顧命), 세자(世子), 기업(基業), 이구(二九), 은택(恩澤), 위무(威武), 소제(掃除), 불궤(不軌), 오곡(五穀), 호천(昊天), 안가(晏駕), 산릉(山陵), 훈적(勳績)' 등은 대부분 오늘날에도 잘 쓰이고 있는 한자어들이기에 그만큼 우리말에 수용된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다만 한대의 문헌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창기(創基), 여랑(女郎), 부란(剖卵), 강세(降世), 명가(命駕), 세위(世位), 승천(昇天), 소승(紹承), 등조(登祚), 명기(銘記)' 등은 대부분 위·진 남북조대 사서들을 중심으로 그 쓰임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고구려 당대에 수용된 한자어들의 숫자도 상당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에 중국과의 용법이 일치하는 한자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아직 비문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비문 속 한자어

중에서는 고구려적인 변용을 보이는 예들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락(部洛)'과 '선미지연(先迷之衍)'에서의 '낙(洛)', '연(衍)'자는 각각 '낙(落)', '건(愆)'자와 통가자(通假字)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문 당시에 이미 중국에서와 유사한 통가(通假) 용법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이 비문을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 내 한자어 수용과 변용 양상에 대한 정밀한 고찰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우선 비문 건립 당시에 고구려의 한자·한문 수용 양상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광개토왕릉비문'의 국어사적 가치 구명을 목표로 음운·문법·어휘사 등 국어학의 전 부문에 걸쳐 이 비문이 국어사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상론한 바 있다. 본론에서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운사 방면의 고찰 결과 우리말의 두음법칙의 연원이 최소한 광개토왕릉비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부여계와 한계의 구분이 없어 양계어의 계통적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문법사 방면의 고찰 결과, 종결사 용법의 '지(之)'와 조사 용법의 '상(上)'을 통하여 이 비문이 이두 발달의 초기 사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휘사 방면의 고찰 결과에서도 비문에 쓰인 한자어들이 중국의 용법과 대부분 일치함으로 보아 당시 고구려에서의 한자어 수용 정도가 아직은 초기 단

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중국으로부터 한자·한문을 수입하여 자국화하기 시작한 단계의 구체적 모습을 1차 사료인 이 비문을 통하여 구명할 수 있었음에 이 글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탁본자료집·사서류 등

干寶 著·黃滌明 校譯·李元吉 韓譯(2007),『搜神記』I, 外文出版社·延邊人民出版社

國立文化財硏究所 編(1996),『廣開土大王陵碑 拓本圖錄(國內所藏)』

국립중앙박물관 편(2010),『금석문 자료①: 삼국시대』, 예맥

국립중앙박물관 편(2011),『문자 그 이후』, 통천문화사

權悳永(2002),『韓國古代 金石文綜合索引』, 學硏文化社

金學主 譯(2003),『新完譯 墨子·上』, 明文堂

武田幸男 編(1988),『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徐復 等 編(2007),『辭海版 古代漢語大詞典(新一版)』, 上海辭書出版社

書品編集部 編(1959),『書品』100(好太王碑 特輯號), 東洋書道協會

遼寧省博物館(1982),『好太王碑 原拓(一~四)』(pdf file)

李家源·安炳周 監修(2003),『敎學 大漢韓辭典』, 敎學社

林基中 編(1995),『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任世權·李宇泰 編(2002),『韓國金石文集成(1): 高句麗1 廣開土王碑』(解說篇·圖錄篇), 韓國國學振興院·靑溟文化財團

佐藤進·濱口富士雄 編(2008),『全譯 漢辭海』, 三省堂

陳萬雄·王濤 總策劃(1993/2000),『漢語大詞典』(CDR2.0版), 商務印書館有限公司

編輯部(2007),『大書源』, 二玄社

단행본

耿鐵華(1994),『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권오엽(2007),『廣開土王碑文의 世界』, 제이앤씨

김영황(2010/2011),『고구려의 언어유산』,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역락

金完鎭(1980),『鄕歌解讀法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金泰洙(2010),『한문 문법』, 한국학술정보

김현구 외 3인(2002),『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II)』, 일지사

박시형(1966/2007),『광개토왕릉비』, 푸른나무
朴英燮(1995),『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박진석(1993),『호태왕비와 고대 조일관계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白崎昭一郎 著·권오엽·권정 譯(1993/2004),『廣開土王碑文 研究』, 제이앤씨
徐建新(2006),『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出版
손영종(2001),『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중심
王健群 著·林東錫 譯(1984/1985),『廣開土王碑研究(原題 : 好太王碑研究)』, 역민사
李進熙(1972),『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李亨求·朴魯姬(1986),『廣開土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장세경(2007),『한국 고대 인명사전』, 역락
주보돈(2002),『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홍기문(1957),『리두 연구』, 과학원출판사(1989 태동, 1995 한국문화사 영인)
黃六平 著·洪淳孝·韓學重 譯(1973/1994),『漢文文法綱要』, 미리내

논문

權仁瀚(2010),「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국어학계의 연구동향과 과제」,『한국고대사연구』57, 한국고대사학회
權仁瀚(2011),「『三國志』·魏書·東夷傳의 固有名詞 表記字 分析」,『口訣研究』27, 구결학회
김병준(2009/2011),「낙랑군의 한자 사용과 변용」,『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金永萬(1980),「廣開土王碑文의 新研究(1)」,『新羅伽耶文化』11, 영남대 新羅伽耶文化研究所
金永萬(1981),「增補文獻備考本 廣開土王碑銘에 대하여-廣開土王碑文의 新研究(II)」,『新羅伽耶文化』12, 영남대 新羅伽耶文化研究所
金永萬(2005),「口訣文과 漢文文法-몇 개 虛詞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金永旭(2004),「漢字·漢文의 韓國的 受容」,『口訣研究』13, 口訣學會
金永旭(2008),「한국어 表記의 기원과 전개과정」,『한국문화』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金在弘(1991),「新羅 中古期의 村制와 地方社會構造」,『韓國史硏究』72, 한국사연구회
金賢淑(1989),「廣開土王碑를 통해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韓國史硏究』65, 한국사연구회
南豊鉉(2000),「廣開土大王碑文」,『吏讀硏究』, 태학사
南豊鉉(2006),「上古時代에 있어서 借字表記法의 發達」,『口訣硏究』16, 口訣學會
南豊鉉(2007/2009),「古代韓國에 있어서 漢籍·佛典의 傳來와 受容에 대하여」,『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 물레
盧泰敦(1992),「廣開土王陵碑」/「牟頭婁墓誌」,『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1권(고구려·백제·낙랑 편)』, (財)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武田幸男(1989/2007),「廣開土王碑釋文/讀とみ下し文/譯文」,『廣開土王碑との對話』, 白帝社
朴性鳳(1996),「'廣開土好太王' 王號와 世界觀」,『廣開土好太王碑 硏究 100年』,『고구려발해연구』2, 고구려발해학회
박진석(1997),「북경대학 도서관에 보존된 호태왕비탁본(3021326-3)의 採拓연대 고증」,『高句麗硏究』3, 고구려학회
森博達(2009/2011),「한·일 속한문의 세계-『일본서기』 구분론과 종결사 '之'」,『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森博達(2010),「コラム①：朝鮮俗漢文と吏讀」, 石井公成 編,『新アジア佛敎史10(朝鮮半島·ベトナム)』, 佼成出版社
水谷悌二郎(1959),「好太王碑考」,『書品』100, 東洋書道協會
余昊奎(2009),「〈廣開土王陵碑〉에 나타난 高句麗 天下의 공간 범위와 주변 族屬에 대한 인식」,『역사문화연구』32,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연민수(1998),「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대외관계」,『고대한일관계사』, 혜안
李藤龍(1990),「廣開土大王碑文에 쓰인 '烟'字의 語彙的 意味」,『碧史李佑成敎授定年退職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창작과비평사
李勇(2006),「廣開土大王碑文의 吏讀的 要素」,『口訣硏究』17, 口訣學會
李基文(1981),「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52, 震檀學會
李明植(1992),「慶州 南山新城碑」,『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2권(신라1·가야편)』, (財)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李成市 著·박경희 譯(2001),「표상으로서의 광개토왕비문」,『만들어진 고대』, 삼인
李亨求(1986),「國內所藏 廣開土大王陵碑拓本 調査研究」,『廣開土大王陵碑 拓本圖錄(國內所藏)』, 國立文化財研究所
임기환(2002),「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28, 한국고대사학회
임기환(2004),「100년 동안의 논쟁, 광개토왕릉비」,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 분과,『고대로부터의 통신』, 푸른역사
장세경·최병선(1997),「광개토호태왕 비문의 성 이름 연구」,『韓國學論集』31,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鄭光(2003),「韓半島에서 漢字의 受容과 借字表記의 變遷」,『口訣研究』11, 口訣學會
鄭杜熙(1972),「廣開土王陵碑文 辛卯年 記事의 再檢討」,『歷史學報』82, 역사학회
정인보 著·정양완 譯(2006),「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릉비문 대충 풀이」,『薝園文錄 中』, 태학사
정재영(2009/2011),「한국 고대 문자자료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之'」,『고대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趙法鍾(1995),「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守墓制研究」,『한국고대사연구』8, 한국고대사학회
최진열(2012),「高句麗 廣開土大王 전후 王號의 性格-五胡諸國·北魏의 謚號·廟號 및 遊牧國家의 '生謚'와의 비교」,『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沖森卓也(2008),「古代 東아시아의 漢文 變容」,『口訣研究』20, 口訣學會
竺家寧(2004),「晉代佛經和『搜神記』中的'來/去'」,『政大中文學報』1
韓炅澔(2009),「中古音 三等韻의 前舌母音化」, 成均館大 文學碩士 學位論文(중어중문학)
TING, Pang-hsin(1975), *Chinese Phonology of the WEI-CHIN Period : Reconstruction of the Finals as reflected in Poetry*, Taipei :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Academia Sinica Special Publications No. 65

【부록 1】 고유명사 표기자들의 한어(漢語) 중고음(中古音) 체계

1. 부여계

韻類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계
韻尾音		−Ø		−i			−u	−m		−n		−ŋ		−p		−t		−k		
攝		假·果	遇	蟹		止	流	咸	深	山	臻	宕	梗	咸	深	山	臻	曾	通	
聲母 \ 韻母		戈_ *麻二 ^麻三 #果_	模_ *魚三 ^虞三	咍_ *泰_	皆二 ^佳二	支三 *脂三 ^微三	侯_ *尤三	覃_ *鹽三		寒_	魂_	唐_ *陽三	庚三	狎二			沒_	德_	屋三	
脣音	幫 p					碑[1] 卑[1]					本[1]									3
	滂 p^h																			0
	並 b				俳[1]								平[1]							2
	明 m	*麻[1]			^賣[1]		*牟[1]													3
(輕脣)	非 f		^夫[2]			^沸[1]						*方[1]								4
	微 ɱ					^味[1]														1
舌音	端 t	#㘝[1]		*帶[1]							敦[1]									3
	透 t^h																			0
	定 d																			0
	泥 n							南[1]												1
	來 l		盧[1]			*利[2]	婁[3] *留[2] *流[1]													9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齒音〈齒頭—正齒—齒上〉	精 ʦ					𠙵[1]															1
	淸 ʦʰ																				0
	從 dz																				0
	心 s		蘇[1]			斯[2]														肅[1]	4
	邪 z																				0
	章 ʨ		^朱[1]																		1
	昌 ʨʰ																				0
	船 dʑ																				0
	書 ɕ	^舍[1]																			1
	禪 ʑ	^社[1]	^儒[1]																		2
	日 ɲ											*穰[1]									1
	莊 tʂ						*鄒[1]														1
牙音	見 k			改[1]			句[1]					岡[1]						㊢[1]			4
	溪 kh																				0
	羣 g						*仇[1]														1
	疑 ŋ																				0
喉音	影 ʔ							*奄[1]		安[1]				鴨[1]							3
	曉 h																	㊧[1]			1
	匣 ɦ																				0
	以 j		*余[1] *餘[1]																		2
	雲 ɦ		^于[1]																		1
계		4	9	2	2	9	10	2	0	1	2	3	1	1	0	0	1	1	1	49	

※1) 글자 우측의 위첨자 숫자는 빈도수임.
2) ○가 겹쳐진 글자들은 합구자(合口字)임.

2. 한(韓)계

韻類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계
韻尾音		−Ø		−i			−u	−m		−n		−ŋ		−p		−t		−k		
攝		假·果	遇	蟹		止	效·流	咸	深	山	臻	宕	通	咸	深	山	臻	宕	梗	
聲母 \ 韻母		麻二 *麻三 #歌一	模一 *魚三 ^虞三	灰一 *泰一	皆二 ^齊四	支三 *脂三 ^微三 #之三	侯一 *尤三 ^豪一 #蕭四	銜二	侵三	寒一 *山二 ^仙三 #先四	魂一 *文三 ^眞三	唐一	鍾三	合一 *狎二		黠二	質三	鐸一	陌二 *錫四	
脣音	幫 p	巴[1]				*比[1]													百[2]	5
	滂 p^h		普[1]																	1
	並 b															拔[3]				3
	明 m		模[2]		賣[1]	彌[3] *寐[1]	*牟[4]				門[1]							莫[1]		13
(輕脣)	非 f ○敷 f^h					^沸[1]					θ芬[1]									2
	微 ɱ																			0
舌音	端 t ○知 ʈ				^氐[1] ^底[1]		#蔦[1]			旦[2]	㊀[1] θ珍[1]									7
	透 t^h			太[1]						#天[1]										2
	定 d ○澄 ɖ						豆[2]			θ璨[1]										3
	泥 n	#那[3]	奴[4]																	7
	來 l	#羅[6]	盧[4]			*利[10]	婁[6]		林[1]											27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齒音〈齒頭—正齒—齒上〉	精 ʦ																			0
	淸 ʦʰ																			0
	從 ʣ						*就[1]			殘[2]			從[1]	雜[1]						5
	心 s		蘇[1] ^須[1]		^細[1]		^掃[1]			散[1]	^新[2]								*析[1]	8
	邪 ʑ																			0
	章 ʨ					支[1]														1
	昌 ʨʰ																			0
	船 ʥ																			0
	書 ɕ	*舍[1]																		1
	禪 ʑ																			0
	日 ɲ					#而[1]			任[1]		^㊐[1]	穫[1]								4
	莊 ʧ						*鄒[2]													2
	生 ʃ	沙[2]						彡[1]		*山[1]										4
	崇 ʤ								岑[1]											1
牙音	見 k	加[2]	古[4]				溝[1] 勾[2]		錦[1]	幹[1] ㊒[1]								各[1] 閣[1]		14
	溪 kʰ																		客[1]	1
	羣 g						*臼[1] *求[1] *仇[1]													3
	疑 ŋ							巖[1]												1
喉音	影 ʔ	#阿[2]	*於[1]				^奧[1]			安[1] #燕[1]				*鴨[1]			壹[1]			8
	曉 h			灰[1]																1
	匣 ɦ									韓[1] #賢[1]										2
	以 j	*耶[2] *也[1]																		3
	雲 ɦ		^于[1]																	1
계		20	19	2	4	18	24	2	4	14	7	1	1	2	0	4	1	3	4	130

※ 으로 표시된 성모 및 운모는 부여계에 없던 신출 유형임.

【부록 2】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표

〈표 1〉 부여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성모 분포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		全濁		계
脣音		幫 p	6.0	滂 pʻ		並 b	2.0	明 m	4.0					12.0
舌音	舌頭	端 t	3.0	透 tʻ		定 d		泥 n	1.0					4.0
	舌上	知 ʈ		徹 ʈʻ		澄 ɖ		娘 ɳ						
	半舌							來 l	9.0					9.0
齒音	齒頭	精 ts	1.0	淸 tsʻ		從 dz				心 s	4.0	邪 z		5.0
	齒上	莊 tʂ	1.0	初 tʂʻ		崇 dʐ				生 ʂ		俟 ʐ		1.0
	正齒	章 tɕ	1.0	昌 tɕʻ		船 dʑ				書 ɕ	1.0	禪 ʑ	2.0	4.0
	半齒							日 ȵ	2.0					2.0
牙音		見 k	4.0	溪 kʻ		羣 g	1.0	疑 ŋ						5.0
喉音		影 ʔ	3.0	曉 h	1.0	匣 ɦ		雲 以 j	1.0 2.0					7.0
계			19.0		1.0		3.0		19.0		5.0		2.0	49.0

〈표 2〉 한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성모 분포

		全清		次清		全濁		次濁		全清		全濁		계
脣音		幫 p	5.3	滂 pʻ	2.0	並 b	3.7	明 m	13.0					24.0
舌音	舌頭	端 t	5.5	透 tʻ	2.0	定 d	2.0	泥 n	7.0					16.5
	舌上	知 ʈ	1.0	徹 ʈʻ		澄 ɖ	1.0	娘 ɳ						2.0
	半舌							來 l	27.0					27.0
齒音	齒頭	精 ts		淸 tsʻ		從 dz	5.0			心 s	8.7	邪 z		13.7
	齒上	莊 tʂ	2.0	初 tʂʻ		崇 dʐ	1.0			生 ʂ	3.3	俟 ʐ		6.3
	正齒	章 tɕ	1.5	昌 tɕʻ		船 dʑ				書 ɕ	1.0	禪 ʑ		2.5
	半齒							日 ȵ	4.0					4.0
牙音		見 k	14.0	溪 kʻ	1.0	羣 g	3.0	疑 ŋ	1.0					19.0
喉音		影 ʔ	8.0	曉 h	1.0	匣 ɦ	2.0	雲 以 j	1.0 3.0					15.0
계			37.3		6.0		17.7		56.0		13.0			130.0

※위의 표에서 0.5와 같은 소수점이 나타나는 것은 複數音의 用字인 경우 "延字數÷聲母數"의 값을 제시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見·匣의 複數 聲母를 지니면서 延字數가 1인 「蓋」字의 경우는 1÷2=0.5의 값을 見·匣 양 쪽에 配分한다는 뜻이다(이하 韻母·聲調의 경우도 이와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부여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운모 분포

韻類 / 韻尾音 / 攝 / 聲母	陰聲韻						陽聲韻/入聲韻						계
	−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脣音	1.0	2.0	2.0	4.0		1.0			1.0/0.0	1.0/0.0	1.0/0.0		13.0
舌音	1.0	2.5	1.5	2.0		4.5	1.0/0.0		0.5/0.0				13.0
齒音	2.0	3.0		3.0		1.0				1.0/0.0		0.0/1.0	11.0
牙音		0.5	1.0			1.5				1.0/0.0	0.0/1.0		5.0
喉音		3.0					1.0/1.0	1.0/0.0	1.0/0.0				7.0
계	4.0	11.0	4.5	9.0		8.0	2.0/1.0	1.0/0.0	3.0/0.0	3.0/0.0	1.0/1.0	0.0/1.0	49.0
	36.5(74.5%)						9.5(19.4%)/3.0(6.1%)						

〈표 4〉 한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운모 분포

韻類 / 韻尾音 / 攝 / 聲母	陰聲韻						陽聲韻/入聲韻						계
	−		−i		−u		−m/p	−n/t		−ŋ/k			
	果 假	遇	蟹	止	效	流	咸 深	山	臻	宕 江	曾 梗	通	
脣音	1.0	3.5	1.0	6.0		4.0		0.0/4.0	2.0/0.0	0.0/1.0	0.0/2.0		24.0
舌音	9.0	8.0	3.0	10.0	1.0	8.0	1.0/0.0	4.0/0.0	2.0/0.0				46.0
齒音	3.0	2.0	1.0	2.0	1.0	3.0	3.0/1.0	4.0/0.0	3.0/0.0	1.0/0.0	0.0/1.0	1.0/0.0	26.0
牙音	2.0	4.0				6.0	2.0/0.0	2.0/0.0		0.0/2.0	0.0/1.0		19.0
喉音	5.0	2.0	1.0		1.0		0.0/1.0	4.0/0.0	0.0/1.0				15.0
계	20.0	19.0	6.0	18.0	3.0	21.0	6.0/2.0	14.0/4.0	7.0/1.0	1.0/3.0	0.0/4.0	1.0/0.0	130.0
	87.0(67.0%)						29.0(22.3%)/14.0(10.7%)						

〈표 5〉 부여·한계 고유명사 표기자의 성조 분포

	平聲	上聲	去聲	入聲
부여계	28.0(57.1%)	10.0(20.4%)	7.0(14.3%)	4.0(8.2%)
한 계	70.8(54.5%)	15.9(12.2%)	29.8(23.0%)	13.5(10.3%)

광개토대왕비 연구재단 GWANGGAETO STELE RESEARCH FOUNDATION

〈표 6〉 부여·한계 고유명사에서의 내모자(來母字) 분포

	語頭	語中
부여계	----	盧[1] 鴨盧 婁[3] 味仇婁, 俳婁, 瑞社婁 流[1] 沸流谷 留[2] 大朱留王, 儒留王 利[2] 碑利城, 奄利大水
한 계	林[1] 林城	羅[6] 古須耶羅城, 芬而耶羅城, 新羅, 新羅城, 安羅, 任那加羅 盧[4] □古盧城, 各模盧城, 臼模盧城, 牟盧城 婁[6] 古牟婁城, 婁城, 婁賣城, 牟婁城, 燕婁城, 于婁城 利[10] □利城, □□□□□□□利城, 幹氏利城, 古利城, 沸□□利城, 析支利城, 阿利水, 也利城, 於利城, 奧利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부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국제관계(1)

1. 연민수 _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2. 스즈키 야스타미 _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
3. 이용현 _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
4. 하마다 코사쿠 _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민수(延敏洙)
일본고대사(한일관계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고대한일관계사』(1998, 혜안), 『고대한일교류사』(2003, 혜안), 「발해의 대일교류와 상호인식」(2012, 『한일관계사연구』 41), 「일본율령국가의 신라관의 형성과 실태」(2011, 『8세기 동아시아의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5~6세기 북구주호족의 대한교류와 다원성」(2012, 『백제연구』 55) 등이 있다.

광개토왕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

동북아역사재단 **연민수**

I. 머리말

광개토왕비가 재발견된 지 1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이 비를 둘러싸고 일본학계의 전통적 학설에 대한 비판을 주축으로 하여, 동아시아 고대사 논쟁의 중심에서 격론이 벌어져왔다. 이러한 흐름에는 비문연구의 시대적 규제를 받던 일본근대사학에 대응하여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학문적 반발과 지역적 민족주의, 그리고 비문변조론 등이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이후 원석탁본의 발견과 비문의 구조적인 특징, 내재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새로운 연구시각으로 신묘년조의 해석문제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인식에 접근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개토왕 재위 22년간은 전쟁의 시대라고 할 만큼 주변제국과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이 전개된 격동기였다. 비문에는 8개년 8개조에 걸쳐 고구려군의 사방으로의 전투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광개토왕비는 훈적비(勳績碑)라는 특성 때문에 광개토왕의 공훈을 미화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고도

의 기획된 필법을 구사하고 있다. 게다가 모든 전쟁에 승전보만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왜와의 전쟁기록이 과도하게 표출되어 있고, 후연과 같이 치열했던 전쟁의 상황은 누락시키는 등 객관적인 사실이 은폐되어 있어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필법은 광개토왕시대 고구려의 국가의식, 대외인식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포착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광개토왕시대는 고구려사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이고, 대외전쟁 성공률도 높았던 까닭에 주변제국에 대한 우월적 대국의식이 강하게 발현하였다. 비문에는 '천제지자(天帝之子), 황천지자(皇天之子)'라고 하여 고구려왕가의 천손의식(天孫意識)이 나타나 있다. 또 고구려의 상대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태왕(太王)과 노객(奴客), 조공(朝貢)·논사(論事), 귀왕(歸王), 궤왕(跪王) 등의 용어 선정, 태왕의 무위(武威)와 은덕(恩德)을 강조하는 등 고구려적 천하관이 투사되어 있다. 비문에 내재된 고구려의 세계관, 즉 고구려를 주변제국의 패자(覇者)로 두는 역사인식,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창출은 고구려 국가의 지향점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였다고 생각된다.

비문에 적힌 8개조의 전쟁 기사에서 남방 관련 기사는 북방의 3개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5개조에 걸쳐 전투의 경과와 전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남방에 대한 강한 인식과 광개토왕 시대의 영토관, 국제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그간의 연구를 재점검하면서 남방기록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주변제국에 대한 세계관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백제관의 형성과 이중구조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백제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묘년조의 '백잔(百殘)', 영락 6년조의 '잔국(殘國)'이다. '잔(殘)'은 백제에 대한 비칭으로 한자 자전에 나타난 의미는 '해치다', '잔인하다', '포악하다' 등 상대에 대한 증오와 적대심을 표현한다. 백잔→잔국→잔, 잔주(殘主)라는 기술의 순서는 '백잔'이 곧 '백제'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 것이며, '잔국'은 '백(百)'자를 떼어 낸 백제의 국명임을 알리고, 마지막 '잔'은 외자로서 최악의 멸칭(蔑稱)으로 백제를 연상시키는 수법이다. 백제왕을 '잔주'로 표현한 것은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구려의 태왕에 대한 상대적 비칭으로 존귀·상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1] 상대의 국명을 비칭해 호칭하는 사례로 『후한서』 고구려전에서 한왕조의 왕권을 찬탈한 왕망(王莽)이 고구려를 하구려(下句麗)로 부른 일이 있다. 이 기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도 인용되어 '망열지(莽悅之) 경명오왕위하구려후(更名吾王爲下句麗侯) 포고천하(布告天下)'라고 기록하고 있다.[2] 이는 왕망이 흉노를 치기 위해 고구려에 파병을 요청했으나 고구려가 거절하자 분노의 표시로 국명을 비하한 것이다.

국호는 그 나라의 얼굴이고 존엄의 상징이다. 상대국에 대한 국명을 원래의 명칭을 버리고 비칭, 멸칭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다. 증오에 가득찬 고구려의 언어 선택은 백제와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나온 것으로 고구려의 백제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으로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야기된 원한과 증오의 심적상태를 알 수 있다.

---

1)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43쪽
2)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31년조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대백제전은 광개토왕 초년에 집중되어 있다. 진사왕기 8년(392) 7월에, 고구려왕 담덕이 4만의 병력으로 석현성 등 10여 성을 함락시키고, 동10월에는 관미성을 비롯한 한수 이북의 여러 부락이 함락되었다고 한다.[3] 이어 이듬해 백제는 관미성·석현성 등의 탈환을 위해 10,000병의 병력으로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실패하였다. 고구려는 394년 수곡성 전투, 395년 패수 전투에서 백제군을 패배시켰다. 광개토왕 즉위 후 수년간은 고구려군의 대대적인 군사적 공세에 백제는 한강 이북의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광개토왕 초년의 대백제전은 고구려 측의 일방적인 승리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비문은 영락 6년조(396)에 일어난 이들의 전투상황을 집약적으로 기술한 것으로[4] 58성, 700촌의 전과를 명기하고 있다.

광개토왕대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는 선대(先代)의 피해에 대한 보복전이다. 시기적으로는 4세기 초 낙랑군·대방군의 해체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었지만, 직접적으로는 371년 백제 근초고왕 부자가 평양성을 공격했을 때 백제군의 유시(流矢)에 맞아 고국원왕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양국은 대방계를 사이에 두고 375년, 376년 공방전을 벌였고, 377년에는 백제 근구수왕군이 3만의 병력으로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국양왕 3년(385)에 광개토왕 담덕은 태자로 책공되었다. 태자로 책봉된 그해 8월,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였다. 백제군에 의한 조부 고국원왕의 전장에서의 죽음은 차기 왕위계승자인 광개토왕에게 선대의 숙원인 대백제 복수전을 강하게 의식하였을 것이다.

비문에 보이는 백제 관련 기록은 신묘년조를 비롯하여 영락 6년조, 9년조, 14년조, 17년조이고, 10년조의 경우도 백제가 관여한 전투로 추정해도 큰 오

3)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 8년조
4) 武田幸男(1989), 앞의 책 196쪽

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신묘년조와 영락 6년조는 '이(以)'로 연결된 인과관계로 서술된 구문으로, 6년조에 고구려의 백제공격은 고구려의 구시속민(舊是屬民)인 백제 등이 왜의 신민(臣民)으로 전환된 결과를 말하는 것이 비문의 논리이다. 영락 6년 전투장면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자.

①「王躬率□軍討伐殘國軍」
②「南攻取 ……」
③「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渡阿利水」
④「侵穴」
⑤「殘主困逼」
⑥「跪王自誓從今以後永爲奴客」
⑦「太王恩赦先迷之愆錄其後順之誠」
⑧「得五十八城村七百」

①의 왕궁솔(王躬率)은 비문 특유의 필법으로 국왕이 직접 전투부대의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영락 14년조 '왕당(王幢)'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왕군(王軍)의 잔국군(殘國軍)에 대한 '토벌(討伐)'은 악자(惡者)에 대한 응징을 의미하고 고구려의 군사적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어 ③ '잔(殘)'이 '의(義)'에 불복하고 감히 대항하자 왕의 위세는 분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왕성을 공격한다. 이는 ④'침혈(侵穴)'이라 썼듯이 백제 왕성을 소굴을 뜻하는 '혈(穴)'자를 사용하여 이른바 악의 소굴을 섬멸한다는 뜻이다. 그러자 ⑤ 잔주는 어찌할 바 몰라 하다가 ⑥왕에게 무릎을 꿇고 금후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서한다. 이에 ⑦ 태왕은 은혜로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고 앞으로 순종하는 정성을 살폈다. 이때 백제로부터의 전과는 ②「남공취(南攻取) ……」,

⑧「득오십팔성촌칠백(得五十八城村七百)」이라고 하듯이 58성과 700촌을 공취하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비문에서 영락 6년의 전투는 다른 전투기사에 비해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고, 8행에 걸쳐 전투의 상황, 백제왕의 굴복 모습, 공취한 58개 성 전체를 명기하고 있다. 이 백제전의 기록은 고구려가 백제에 당한 그간의 굴욕을 일소하여 남방으로의 영역확대를 과시하고, 대백제 우위의 국제관계를 구축했음을 알리는 선언문이다. 특히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와야 할 '잔국'이 정의로운 성전에 대항하는 불의를 저질렀으므로 '잔불복의(殘不服義)', '궤왕', '자서(自誓)', '노객', '은사(恩赦)', '선미지건(先迷之愆)' 등의 용어를 선정하여 군사적 응징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백제가 영원히 노객이 될 것을 맹서하자 그간의 허물을 태왕의 은덕으로 용서한다는 것이다. 비문에는 중국 고전의 용례를 차용했다는 연구사례가 있다. 이에 따르면 맹자의 탕무방벌론(湯武放伐論)의 논거가 되는 '적인자위지적(賊仁者謂之賊), 적의자위지잔(賊義者謂之殘)'[양혜왕편(梁惠王篇)]이라는 일절에 의(義)를 해치는 존재를 잔(殘)이라고 하듯이 비문의 '잔불복의'와 상통하고 있다. 이것은 맹자의 왕도론(王道論)에 입각하여 광개토왕을 중국의 성군(聖君)으로 비유하고 백제를 의를 해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5] 이것은 고구려 유교의 덕치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구현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인식에 이중성이 보인다. 신묘년조 고구려의 속민관계에서 왜의 신민으로 변화한 것을 전제로 영락 6년에 대백제전으로 나아가지만, 왜의 신민 상태에서의 구원이 아닌 응징과 정복의 대상으로 그

5) 川崎晃(1992), 「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 黛弘道編, 『古代國家の歷史と傳承』, 吉川弘文館, 63쪽

인식이 바뀌어 있다. 게다가 영락 6년 전투에는 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전투는 백제만을 대상으로 한 기록이다. 이것은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신묘년조가 고구려의 남방전투 전체를 아우르는 전제문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영락 6년 전투는 고구려 남하정책 최초의 과정 속에서 자리매김되어 있고, 그 후의 전투에 백제와 '화통(和通)'한 왜가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 신라와 침공하고 있어 논리적 난점은 해소된다.

그럼 고구려의 백제 속민관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는 백제 개로왕이 472년에 북위(北魏)에 보낸 상표문의 '부여동원설(夫餘同源說)'[『위서(魏書)』 백제전(百濟傳)]을 들면서 고구려는 추모왕을 시조로 받드는 본원(本源)이 있고 백제는 본원으로부터 분파된 제(弟)였다고 한다. 조공과 속민의 일은 시조 추모왕 이후, 태고 이래 극히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기억이 눈앞의 급박한 상황에 의해 역으로 과장되고, 재차 조공과 속민으로 강조되었을 것이라고 한다.[6] 여기서 5세기 후반, 백제 지배층의 고구려 동원동족의식(同源同族意識)은 북위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감성적 전략으로 1세기간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현실적 실체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다. 고구려 측에서는 400여 년 전의 시조 추모왕대의 분파지족(分派枝族)에 대한 동원의식을 역사적으로 기억해 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건국주체세력의 분파 이후 시간적 단절이 크고 낙랑군·대방군의 해체로 시작된 교류도 전쟁이라는 군사적 교통으로 전개되었다. 게다가 4세기 후반 반세기에 걸친 고구려의 굴욕적인 패배의 역사가 비문에는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 영락 6년조에 집약되어 있듯이 광개토왕 즉위 수년간의 정토전이 빛을 발하는 일에 의해 굴욕의 역사는 일소되어 버렸던 것이다. 신묘년조에 설정된 백제에 대한 조공·속

6) 武田幸男(1989), 앞의 책, 114쪽

민관은 사적(史的) 전제 위에서 기술된 것이 아니고, 광개토왕의 즉위 후 백제에 대한 열세로부터 반전(反轉)하여 전승이 거듭됨에 따라 백제왕을 복속시킨 우월의식에서 기술되었다. 즉 당시의 현실적 관계가 과거의 역사에 투영되어, 이후 태왕의 정토를 정당화하는 기술체계로 되었던 것이다.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속민의식은 동원론(同源論)이나 과거사의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과정에서 백제왕을 복속시킨 혹은 복속시켜야 될 대상으로서의 현실과 미래의 기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은 ⑥의 고구려의 '궤왕'과 '노객'인식이다. 다케다 유키오는『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고구려전의 '궤배신일각(跪拜申一腳)', 중원고구려비의 '궤영지(跪營之)' 등의 사료를 들며, 궤배(跪拜)는 고구려의 오랜 습속으로 이것이 정치적인 장면에까지 확대, 의례화하여 국제관계 중에서도 강요되었을 것으로 본다.[7] 광개토왕비의 궤왕도 승자의 패자에 대한 복속의례이며 백제왕을 굴복시킨 고구려 태왕의 승리를 알리는 의식이다. 노객에 대해서는 백제왕이 고구려왕에게 스스로를 비하한 비칭으로서 노객의 주체인 백제왕 즉 '잔주'에 어울리는 용어이다. 백제왕이 고구려왕 면전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서하는 장면은 백제에게 최대의 굴욕을 안겨준다. 대비되는 극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복속의례를 연출한 것은 그동안 고구려를 괴롭혔던 숙적 백제에 대한 증오심의 반영이며 고구려 우위의 국제질서를 명확히 규정짓고 내외에 알리려는 비문 특유의 필법이다.

영락 9년조는 '백잔위서여왜화통(百殘違誓與倭和通)'으로 시작하여 신라 사신이 왜인(倭人)이 신라의 영내에 침략한 전황을 고구려에 알리고 구원을 요청하자 영락 10년에 고구려군이 왜병을 격퇴하는 등 다양한 국제전이 전개되고 있

7) 武田幸男(1989), 앞의 책, 132~133쪽

다. 백제가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에 백제의 전투상황은 비문에서는 불명이다. 전투의 장면을 기술했다고 보이는 2면10행과 3면1행의 마모가 심하지만, 왕지엔췬[王健群]은 제3면1행 39~40번째 글자를 잔왜(殘倭)로 판독하였고, 원비를 세밀하게 조사한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도 잔왜로 판독하고 백제와 왜의 연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8] 그런데 10년 경자조 전투의 상황을 보면, 고구려 관군이 신라성(新羅城)에서 왜병을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 종발성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고, 이어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이 신라성, □성(□城)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이때 왜는 궤패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안라인수병이 신라방면에서 무언가 행동을 취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결자가 계속되어 있고, '잔왜궤도□□□안라인수병(殘倭潰逃□□□安羅人戍兵)'이라는 문구를 끝으로 10년 경자조의 전투기사는 끝난다. 이러한 상황전개로 보아, 결자 부분은 안라인수병과 왜가 연합해서 고구려, 신라 연합군과 교전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잔여(殘餘)의 왜구가 궤멸되고, 안라인수병이 …… 되다'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잔왜는 '왜구의 잔여 무리'일 가능성이 높다. 문맥의 전개로 보아 백제의 행동은 감지되지 않고, 그와 같은 공간을 설정하는 것도 무리이다. 경자년의 전투에 백제가 어떤 형태로 개입했다고 보이지만, 비문에는 백제의 직접적인 참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백잔위서여왜화통(百殘違誓與倭和通)'의 사실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신왕 6년(397)조에 왕자 전지(腆支)를 왜국에 파견했다는 기사와 대응하듯이 백제의 동향은 이미 고구려 측에 포착되었다. 이후 백제는 아신왕 11년(403)에 왜국에

8) 鈴木靖民(1985), 「好太王碑文の倭記事」,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 18쪽. 필자도 이 설을 취한 바 있으나(「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의 檢討」, 『東國史學』 21, 1987), 그 후의 논고(「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대외관계」, 『韓國古代史研究』 10, 1994)에서는 '나머지 倭'로 수정하였다.

사신을 보내고,[9] 동14년(405)에는 왜국에서 사신을 보내 오는 등[10] 당시 백제의 대고구려전에 대응하여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비문에서는 백제가 주체가 된 행위를 고구려 남방전쟁의 전제로 기술하면서 백제전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논리구조상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백제와 왜의 화통기사는 단지 영락 10년 전쟁의 명분일 뿐 아니라 14년 갑진조, 17년 경자조까지 이어지는 백제·왜전투의 전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백잔'이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위서(違誓)'와 '여왜화통(與倭和通)'에 대한 응징의 논리이다. 고구려 측에서 본 백제와 왜는 함께 움직이는 적대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영락 17년조는 전쟁대상이 판독불능 상태로 최근 논란이 가중되어 기존 백제설에 대한 후연설이 여러 논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후연설의 주요 근거는 양국이 요동지방의 영유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상황론에 기초하여 이 해밖에 비정할 곳이 없다고 하는 당위론 때문이다. 그러나 비문에서는 고구려 정복전쟁이 해당연도에 맞춰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정된 공간에 광개토왕의 정복활동을 정치적 이념 속에서 선별적으로 편집했기 때문이다. 후연은 고구려의 요동지방 지배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남방의 백제와 비견되는 적대국이었음에도, 비문에서는 후연을 배제하였다. 또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영락 6년(396)에는 후연과 책봉관계를 맺을 만큼 현실적인 굴욕외교도 추진하였다.[11] 그러나 고구려는 후연과의 관계에서 영락 16년(406) 경에는 요동영유를 확보하였고, 영락 17년에는 긴장관계가 고구려 우위로 일단락되었다. 게다가 후연을 이은 북연왕(北燕王) 고운(高雲)이 고구려 이주민의 후예였던 사실과 의희(義熙) 4년(408)에는 고구려에서 사절을 보내 전투관

9)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신왕 11년조
10)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신왕 14년조
11) 『梁書』 卷54 고구려전

계에서 평화관계로 전환하였다.[12]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전승국의 입장과 피책봉국이라는 갈등 속에서 비문의 후연관련 기록을 누락시키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고구려국의 향후 예측되는 상황, 성공 가능한 목표로서의 지향성이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비문 작성자인 장수왕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비, 즉 후연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고구려의 남방 중시책에 대한 왕권의 메시지였다고도 볼 수 있다. 후연 관련 기사의 누락은 후연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강렬하게 의식한 역반응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문의 수묘인연호에 보이는 고구려의 구민(舊民)지역인 신성(新城)과 남소성(南蘇城)은 후연과의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던 서북방 최전선의 요충지로서, 그 지역으로부터 수묘인의 차출은 고구려와 후연의 전쟁 흔적으로 그 잔영을 남기고 있다.

이상에서 고구려에 있어 백제는 광개토왕의 무훈(武勳)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대상이었고, 증오와 복수의 적시국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광개토왕 일생의 전과로 기록한 64성 1,400촌은 백제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64성 전체는 백제전에서의 공적만을 기록하고 기타 지역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백제중심 기술은 고구려의 천하질서의 핵인 남방에서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정미 17년조의 '敎遣步騎五萬', '合戰斬殺蕩盡所獲鎧鉀一萬餘領軍資器械不可稱數'라는 전투기술은 백제군에 대한 철저한 응징, 완벽한 승리임을 과시하는 필법이다. 동시에 고구려에 '위서(違誓)'하고 고구려적 천하질서에의 순응을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필패(必敗)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武田幸男(1989), 앞의 책 214~215쪽 ; 노태돈,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광개토왕 훙거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한국고대사학회, 2012. 2. 16~17 서울역사박물관, 8~9쪽) 참조

마지막 수묘인연호조에 보이는 구민을 제외한 36개 신래(新來)지역의 성 중 21개가 백제지역의 성명(城名)과 일치하고 있다. 원래 광개토왕은 자신이 공파한 지역에서 데리고 온 '한예(韓穢)'를 수묘시키라고 하였다[取吾躬率所略來韓穢]. 광개토왕의 묘역을 지키는 수묘인의 상당수를 백제지역의 백성들로 배치시킨 것은 비문에 나오는 백제전투의 승전보를 물증(物證)하는 것이다. 비문과 전리품으로서의 수묘인을 일체화시킨 것은 고구려가 백제우위의 국제관계를 현실의 장에서 확인하고, 동시에 백제에 대한 강한 대항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왜병과 대왜 인식

고구려가 왜를 처음 적성국으로 인식한 것은 신라와의 관계 속에서 구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신라국가형성기 왜병의 출몰사건은 신라 동방대책의 주요 현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내물왕 26년(381)에 신라사 위두(衛頭)를 고구려사신을 따라 전진(前秦)에 보낸 것은 고구려와 신라의 통교를 전제로 한 것으로, 왜병의 신라변경 침입 사실은 이 시기에 전해졌을 것이다. 내물왕 9년(364)에 침공한 왜병에 대한 대응으로 신라에서는 토함산 밑에 수천의 초우인(草偶人)과 용사 1,000병을 잠복시켜 격퇴시켰다는 사건[13]에서도 뒷받침되듯이 고구려의 초기 왜인관은 신라로부터의 정보에 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국경을 넘나드는 왜인의 침입은 신라를 종속화하려는 고구려의 의도에 반하는 적대행위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고 왜인 적시관의 형성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3)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왕 9년조

신묘년 기사는 종전에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잔, 신라는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래로 도해(渡海)하여 백잔을 파(破)하고, 신라를 □□해서 왜의 신민(臣民)으로 삼았다'라는 해석이 비문의 논리적 구조에서 올바른 독법이다. 백제·신라가 고구려의 속민에서 왜의 신민으로 전환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비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14] 결자 2개의 공간에 국명 혹은 지명으로 고유명사가 들어갈 여지는 없다. 문제는 '파(破)'의 목적어 '백잔신라(百殘新羅)'를 연기(連記)할 수도 있는데, 왜 구분했는가이다. 또 '파백잔(破百殘)'이면 그에 상응하는 단어로 '□신라(□新羅)'로 충분한데 '□□'이라는 2자를 선택하고 있다. 광개토왕비의 초기 탁본 일에 종사한 중국인 초균덕(初均德)의 비문 초록에 결자의 제1자를 '동(東)'으로 간취하였다.[15] 제1결자가 '동'으로 판독될 수 있는지는 미정이지만, 연속적으로 동사가 나오기는 어렵다. 비문의 서술 주체인 고구려 측이 왜의 백제·신라에 대한 침략을 시간적인 순서, 방향, 방식 등에 차이를 둔 결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문의 정복기사에서 왜는 고구려의 남방정토에 중요한 전제가 되어 있다. 전란를 통해 비춰진 고구려의 왜에 대한 이미지는 종전 고구려가 인식하고 있었던 세계의 종족과는 이질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 고구려의 왜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 체험에 기초하고 있지만, 전부 실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신묘년기사는 영락 6년 고구려의 백제정토의 명분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후의 영락 10년의 신라구원전쟁, 14년조, 17년조 등 고구려의 남방전투를 포괄하는 전제문으로써 기능한다. 즉 신라로부터의 정보, 백제와 왜의 군사적 동맹에 대한 포착, 신라 국경의 성지(城池)를 공파하고 대

14) 濱田耕策(1974), 「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10쪽

15) 王健群 저, 임동석 역(2004), 『廣開土王碑 研究』,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52쪽

방계를 침입하는 등 고구려의 천하질서를 착란하는 존재, 남방정토의 저해요인이 되는 응징의 대상으로서의 인식이다. 신묘년조의 기술은 고구려의 대왜인식의 집약문이다.

고구려는 광개토왕의 왕성한 정복활동으로 주변제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 시점에서 그 이전 시기와는 일선을 긋는 독자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4세기 이래 선진화된 중국문물의 수용과 제도적 정비에 의한 지배체제의 구축, 그리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정복활동은 고구려의 국가의식을 크게 고조시켰고, 중화사상은 5세기 대에 나타난다. 광개토왕비문에 묘사된 건국시조의 혈통을 천제와 결부시키는 신통사상(神統思想), 성왕관(聖王觀)에 의한 태왕호(太王號)의 출현, 영락 연호의 제정, 주변제국에 대한 노객, 귀왕, 속민, 조공 등의 차별적 개념의 사용 등은 국가와 왕권의 성장에 따른 고구려적 중화의식의 발로이다.[16]

이러한 중화사상에 의해 고구려는 주변 제국가, 제종족에 대한 차등적 개념을 적용시키게 되는데, 즉 백제·신라·동부여 등은 고구려의 속민이 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패려(稗麗)는 정토의 대상, 숙신은 조공의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왜에 대한 기술체계는 특이하다. 고구려에 있어서 왜는 속민, 조공이라던가 영토적 정벌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고구려 영토권 내에 들어온 이질적 집단에 대한 경계와 응징의 대상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 응징에만 머물지 않고 도의적 책임론까지 문제 삼고 있다. 영락 14년에는 대방계에 침입한 왜를 '불궤(不軌)'라 하여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왜구궤패참살무수(倭寇潰敗斬殺無數)'라는 군사적 응징을 가하고 있다. 다

16) 고구려의 중화사상, 천하관을 다른 논고로는 武田幸男(1989), 앞의 책, 第9~10章 ; 양기석(1983),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대하여」, 『湖西史學』11 ; 노태돈(1988), 「5세기 高句麗人의 천하관」, 『韓國史市民講座』 3, 참조

케다 유키오에 의하면 고구려군주가 발휘한 군사적 성격과 도의적 성격은 대조적이지만 그러나 상호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군주의 인격에 있어서 내부에서 통일되고 영락태왕(永樂太王)으로서 일체화 되어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무위(武威)'를 휘두르는 왕(군사적 성격)으로부터 '은자(恩慈)'를 베푸는 태왕(도의적 성격)으로의 승화이며, 동시에 도의적 성격에 어긋날 때에는 군사적 행위에 의하여 바로잡는다는 것이다.[17] 이러한 지적은 비문해석에 대단히 유효하며 고구려의 대외정토사업은 이러한 도의적 성격에 의하여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비문에 있어서 왜라는 존재는 고구려의 남방경영, 나아가 국토통일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자로서 고구려 측에 인식되고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신묘년 기사는 고구려의 남방경영이라는 정당한 행위를 왜의 도의적 책임론에 의해 합리화시키는 필법이다. 고구려의 속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백제·신라에 대해 성전(聖戰)을 수행하는 데 왜는 명분 만들기의 소재로써 이용되었다. 이 소재에 대한 착안은 영락 10~14년의 2차에 걸친 고구려의 대왜 군사적 충돌에 의한 인식의 결과로 생각된다. 고구려적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왜의 행위에 대해 군사적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할 존재로서 규정하고 모든 도의적 책임을 왜의 행위에 전가하였다.

한편 비문에서는 고구려의 세계질서를 파괴하는 독자적 세력으로서의 왜와 현실적으로는 고구려의 속민인 백제의 군사동맹자로서의 왜라는 2개의 인식이 상존한다. 비문의 9년 기해조의 '백잔위서여왜화통(百殘違誓與倭和通)', 14년 갑진조의 '화통잔병(和通殘兵, 왕지엔췬석문)'에서 보듯이 백제와 왜의 연합전선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고구려의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사실(史實)의 문(文)이다. 고구려가 백제에 대해서는 '백잔'·'잔국'으로, 왜에 대해서는 '왜구'·

17) 武田幸男(1989), 앞의 책, 255쪽

'왜적'이라는 적대적 용어를 사용하고, 또 '잔불복의'에 대해서 '왜불궤(倭不軌)'라는 도의적 부당성을 강조하는 문구의 구사도 유사하다. 이는 양측의 군사적 충돌에 의한 고구려 인식의 반영이다. 고구려는 백제를 속민으로 간주하고 왜의 신민 상태로부터 해방전쟁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백제는 왜와 함께 고구려의 군사적 응징의 대상이다.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속민관은 왜의 '신민론(臣民論)'을 빙자하여 남방전쟁의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법이었다. 현실과 관념 속에서 비문기술자는 고구려·백제-왜, 혹은 고구려-백제·왜라는 이중적 기술체계를 취했던 것이다. 한반도남부까지를 세력권으로 간주한 고구려 남방인식의 결과 한반도에 출현한 왜는 고구려적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비문에서는 왜를 백제와 함께 묶어 공동의 적으로 보았다. 관념적인 고구려적 세계질서 아래에서는 독자적, 이질적인 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공동의 적인 백제와는 달리 왜는 오로지 침략자이자 격퇴와 섬멸의 대상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신라 속민관과 조공·논사

비문에서 신라 관련 기록은 신묘년조와 영락 9~10년조이다. 신묘년 기사에서 고구려의 신라 속민관은 백제와는 달리 일정한 역사성, 현실성을 갖고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신라 내물왕대에 전진(前秦)으로 사신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고, 동해안을 급습하는 왜병의 빈번한 신라 침공 사태와 말갈로 기록되어 있는 예(濊)의 신라 동해안 북변 침입 사건[18] 등이 발생했을 때, 신라는 고구려와 정치적, 군사적 연계성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물왕 37년(392)에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니, 왕은 고구려가 강성하므로 이찬 대서지의 아들인 실성(實聖)을 보내어 볼모로 삼았다'는 기사는 양국관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의 인질외교는 '고구려의 강성'이 원인이고 고구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종속을 함의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신라가 처해 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고구려와의 정치적 연계를 통한 국가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때 고구려사의 신라입국은 이러한 신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신라 속민관은 이러한 양국관계의 전개과정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영락 9년의 신라의 구원요청은 이러한 양국관계 속에서 나왔다고 보인다.

>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白王雲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稱其忠誠□遣使還告以□計

이 기사는 접속사 '이(而)'를 전후로 2개의 문단으로 구분된다. 앞 문장은 백제가 왜와 '화통(和通)'한 것을 계기로 고구려왕이 평양으로 순시한 것이고, 영락 6년 백제의 '맹서사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이다. '이(而)' 이하는 신묘년조 고구려의 '구시속민'인 신라가 왜의 '이위신민(以爲臣民)' 상태로의 전환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전제와 연결되어 있다. 왜인의 신라국경 침투사건을 비문에 의거해보면, 신묘년 기사의 전제를 보다 구체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신라사의 전언대로 왜인이 국경에 밀집하여 성지(城池)가 궤파되었다는 구체적인 전황이 당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왕 38년(393) '왜인이 와서 금성(金城)을 에워싸고 5일 동안 풀지 않았다.

18) 『삼국사기』 내물왕 40년조

…… 적이 아무 성과 없이 물러가자 왕이 날쌘 기병 200명을 보내 귀로를 막고, 보병 1,000명을 보내 독산(獨山)까지 추격해 협공하여 크게 쳐부수니, 살획(殺獲)이 매우 많았다'[19]라는 기사와 실성왕 4년 '왜병이 명활성(明活城)을 치다가 돌아가니, 왕이 기병을 이끌고 독산 남에서 협격하여 두 번 싸워 3백여 명을 살획했다'[20]라는 기사가 대응된다. 비문과 『삼국사기』의 내용은 사건의 모티브는 유사하지만, 비문에서 나오는 신라의 구원요청과 파병을 『삼국사기』는 신라 독자로 격퇴하였다고 서술하는 등 크게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의 왜병 침입기사는 신라인의 왜인관이 반영되어 있지만, 신라 독자의 전승사료로서의 가치는 높다. 반면 비문 동시대의 금석문임에도 불구하고 훈적비라는 특성 때문에 고구려 구원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신라의 위기상황이 크게 부각시키는 등 자국중심의 과장된 필법이 구사되고 있다. 특히 이 신라사의 상소문에 자국의 국경을 '아국경(我國境)'이 아닌 '기국경(其國境)'이라고 간접화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절은 고구려의 입장으로부터 판단을 투입시켜 10년 경자의 신라구원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21] 위 상소문에 보이는 '이노객위민(以奴客爲民)', '귀왕청명(歸王請命)', '태왕은자(太王恩慈)', '칭기충성(稱其忠誠)' 등은 문구는 고구려가 창출해 낸 예속민에 대한 대국주의(大國主義) 언어들이다.

신라사의 상소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노객위민(以奴客爲民)'으로, 노객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제설은 '신라왕인 저 노객은, 고구려왕인 당신의 민(民)' 이라는 고구려왕에 대한 신라왕 자신의 비칭설,[22] 신라인 일반에 대한 고구려의 입장으로부터의 멸칭으로 보는 설,[23]

19) 『삼국사기』 신라본기 내물왕 38년
20) 『삼국사기』 신라본기 실성왕 4년
21) 濱田耕策(1974), 앞의 글, 19~20쪽
22) 朴時亨(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 全浩天 譯(1985), 『廣開土王碑』,

노객을 신하의 의미로 보고 '태왕의 신하인 신라왕'이라고 해석한 설,[24] 또 노객이라고 하는 개념은 고구려왕의 국제질서 중에 있고, 신종할 만한 객체를 호칭한 당시 고구려의 독특한 용어로 보는 설[25]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다케다 유키오는 신라사의 상언(上言)에 고구려를 비롯하여 왜, 신라, 백제가 모두 등장하는 국제관계를 보여주는 '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왜인은 ① (신라에 대해서는) 그 국경에 차서 성지를 궤파하고, ② (동시에 백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고구려왕의 노객이 되어 있는 백제)를 (왜의) 민으로 삼았다는 2개의 사건이고 영락 6년조의 '노객'과 문자를 공유한다고 한다. 이는 고구려가 백제 관계에 한정해서 선택한 용어로 적대 관계로 일관된 백제관을 반영한다.[26] 그런데 이때의 노객을 백제왕으로 본다면, 왜와 화통한 백제가 역으로 왜의 민이 되어 부자연스럽다. 즉 백제의 동맹군으로 온 왜가 백제를 쳤다는 논리적 모순을 해소하기 어렵다.

특히 노객을 백제로 볼 경우, 비문의 독자가 백제로 읽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개토왕비야말로 무엇보다 독자를 의식한 훈적비인데, 해석에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표현을 했을까 하는 물음이 생긴다. 노객을 백제로 본다면 '백잔'으로 표기해야 의미전달이 명료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상소는 신라왕을 주체로 해서 신라의 긴박한 사정을 강조하고 있듯이, (왜의) 민의 상태에 빠진 노객은 신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そしえて, 221쪽

23) 濱田耕策(1974), 앞의 글, 20쪽

24) 王健群 저, 임동석 역(2004), 앞의 책, 358쪽

25) 鈴木靖民(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畵古墳』, 木耳社, 54쪽

26) 武田幸男(1989), 앞의 책, 140~144쪽, 山尾幸久도 이 설을 따르고 있다[『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1983), 岩波書店, 289쪽].

한편 고구려 측의 신라 속민관은 현실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속민관은 속민관계로 고정불변의 연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는 유동적 성격이었다. 신라 측에서 그것은 전략적인 연휴로 고구려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변화에 따라 속민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영락 10년조 신라사의 구원요청에 따라 고구려군이 개입하였고, 그 전쟁기사의 마지막에 '① 昔新羅寐錦未有身來論事, ②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寐錦□□□勾□□□□朝貢'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기록은 신묘년조의 고구려의 속민관이 얼마나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나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앞 문장 ①은 "옛적에 신라매금은 몸소 고구려에 논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여기서 말하는 '옛적[석(昔)]'의 시점은 영락 10년 이전 시기다. 다음 마모된 ②의 첫 글자 □는 신묘년조에 보이는 전환의 접속사 '이(而)'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어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은 [신라]매금을 …… 하여 조공하게 되었다"라고 해석된다. 즉 고구려에서 볼 때 신라는 조공·논사를 이행하지 않다가 영락 10년 신라구원전쟁이 성공하자 비로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문의 논리에서 보면, 영락 10년 기사는 신묘년 기사의 '구시속민', '유래조공(由來朝貢)'과는 상충하고 있다. 고구려의 신라 속민의식이 그대로 현실적 관계로 전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락 10년 전투에는 안라인수병이 세 차례 등장한다. 안라인수병의 실체에 대해서는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일본군 별동대'[27]설 이후에 라인(羅人, 신라인)을 안치한다는 설,[28] 고구려의 주도하에 움직이는 안라인수병설,[29] 고

27) 末松保和(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74쪽
28) 王健群 저, 임동석 역(2004), 앞의 책, 312~314쪽 ; 鈴木英夫(1986), 「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 『千葉史學』 8 :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1996), 青木書店
29) 山尾幸久(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202쪽

구려가 자국의 순라병을 안치하여 수병시켰다는 설,[30] 최근에는 임나가라라는 돌발적인 설까지 제기되는 등 비문해석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설의 난무는 결자로 인한 판독의 차이로 문의(文意)를 자연스럽게 읽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설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31] 전쟁 상황에 따라 고구려의 친위부대를 현지에 주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유독 영락 10년의 신라구원전쟁에만 그것도 3차에 걸쳐 라인(羅人, 고구려군 혹은 신라병)을 배치시킬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비문의 '이환(而還, 1면8행)', '환도(還都, 2면5행)' '선환(旋還, 3면7행)' 등에서 보이듯이 고구려군은 전투가 종료하면 귀환하는 구조적인 경향성을 보인다.[32] 그러므로 종전의 해석대로 함안의 안라인(安羅人)으로 구성된 수병(戍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자년 전투에 가야제국이 참전한 것은 고구려의 남하에 대한 공동전선이고 현실적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비문에는 임나가라의 귀복(歸服) 기사가 보이고, 안라인수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안라인수병은 왜병이 퇴각한 후에 신라성 등을 공격한 주체로 등장한다. 다시 왜병이 궤패(潰敗)한 후에는 '안라인수병[만(滿)]'이라 하여 세력을 규합한 모습을 보이고 전투의 마지막에 고구려군에게 궤멸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적으로도 부산 복천동고분군 10·11호분에서 출토된 갑주류, 마구류 등은 고구려계통으로 그 배후에는 광개토왕비문 경자년의 전투 사적(史的) 사실과 관계

30) 高寬敏(1990), 「永樂十年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作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162~163쪽 ; 金泰植(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31) 拙稿(1998),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국제관계」,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82~86쪽

32) 吳吉煥(2005), 「廣開土王碑文紀年記事にみえる廣開土王の軍事活動」, 『古代文化』 57-12, 20~21쪽

가 있고,[33] 함안(咸安) 말이산(末伊山) 34호분, 고령(高靈) 지산동 32·44호분, 경주(慶州) 황남동 109호분 등지에서도 고구려의 계보를 잇는 혹은 그 영향으로 추정되는 갑주, 마구류도 출토되었다고 한다.[34] 가야제국 지배층의 묘에서 고구려 계통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의 결과로서 경자년조의 전투양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구려에서 볼 때 가야제국은 백제나 왜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적대세력에 대한 멸칭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원래의 국명을 명기하고 있다. 이것은 안라·임나가라가 원래부터 고구려의 주적이 아니었고, 백제·신라·숙신·동부여와 같이 조공·논사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 측에서는 남하의 과정에서 파생된 적대행위로 인식하였지만, 이후에는 고구려전선에서 살았기 때문에 백제나 왜와 같은 적시관은 생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맺음말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남방 세계관은 고구려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비문의 기술은 전란 후에 국가적 이념을 사실적 바탕 위에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광개토왕이 추구하고자 했던 국가적 과제는 그동안 숙적이었던 백제를 토벌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왜의 출병과 전투, 신라·가야 방면으로의 전선이 확대되었고 승전이 거듭됨에 따라 고구려 중심의 중화사상, 천하관을 형성하게 된다. 정복기사 8년, 8개조 중에서 5개조에 걸쳐 남방전쟁을 기록하고, 그 내용도 북방전선에 비해 5배

33) 『東萊福泉洞古墳群(I)』(1983), 부산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5집, 146~172쪽
34) 위의 책, 164~165쪽

이상이나 많은 것도 남방에 대한 강한 인식과 관심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5세기대 고구려의 국가적 지향성은 장수왕의 평양천도와 그 후의 남방으로의 팽창정책에서 보이듯이 남방에 대한 천하질서의 구축이었다.

비문의 왜는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백제의 동맹세력으로 출현했지만, 고구려의 눈에 비친 왜는 고구려 남방정책의 방해자였고 비문 기술의 핵심적 전제로서 자리매김되었다. 광개토왕의 즉위 해인 신묘년 기사의 탄생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으며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강한 왜의 이미지를 출현시켰다. 비문에서 왜는 '왜적퇴(倭賊退)', '왜궤(倭潰)', '왜구궤패(倭寇潰敗)'와 같이 격퇴와 섬멸의 대상으로 백제나 신라·임나가라와 같은 항복·복속의 맹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맹서 속에는 고구려왕의 덕화에 감화되는 것을 전제로 고구려적 천하질서의 일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왜에게는 그런 도의적 책임을 전가할 뿐 감화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고구려의 영토권, 세력권 밖의 존재로서 왜를 인식한 결과이다. 비문에서 고구려는 백제와 왜를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각각 속민과 적(賊)·구(寇)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백제에는 '잔(殘)'이라는 멸칭을 사용하였지만, 왜에 대해서는 특정된 적·구와 같은 적대용어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부와 타자의 차별성을 나타낸 것이고, 왜가 고구려의 동류의식으로부터 벗어난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백제는 고구려가 남방정책에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광개토왕은 선대의 과제였던 복수와 복속의 염원을 완성해야 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승전은 백제의 복속 맹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이른바 고구려의 덕화가 훼손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구려는 백제에 대해 '잔불복의'라고 명기하듯이 자국의 천하질서로부터의 이탈한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백제에 대한 응징은 백제를 멸망시켜

고구려국에 합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세력권 내에 편입시켜 조공·논사의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영락 6년 아신왕의 항복과 광개토왕의 은혜로운 용서는 고구려의 백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구려의 대신라 속민관은 4세기 후반 내물왕 이래 신라가 처해있던 국제환경 속에서 고구려에 의존하려고 한 사실에 기인한다. 고구려를 통한 신라의 전진(前秦)으로의 사신파견은 양국의 정치적 관계를 성립하게 했고, 동해안을 기습 공격해오는 왜인들의 침략행위, 동해안 예족(穢族)과의 충돌 등은 양국의 정치·군사적 동맹의 요인이 되었고, 고구려 인질사건은 신라의 대고구려 정치적 예속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본 신라는 조공·논사가 지켜지지 않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경자년 신라구원전쟁을 계기로 고구려 천하질서 속에 편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야제국으로의 전선은 확산되어 고구려의 세력은 임나가라·안라국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고구려의 남방정책은 정복지에 군대를 주둔시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속의례를 통한 정치적 상하관계를 맺고 조공·논사를 받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주변제국에 대한 천하질서의 구현과 나아가 고구려의 한반도 남방에 대한 통일적 공동체의 실현이 국가적 지향점이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高寬敏(1990),「永樂十年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作戰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金泰植(1994),「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韓國古代史論叢』6
노태돈(1988),「5세기 高句麗人의 천하관」,『韓國史市民講座』
노태돈(2012),「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동래복천동고분군』I(1983), 부산대학교박물관유적조사보고 제5집
鈴木英夫(1986),「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千葉史學』8:『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1996), 青木書店
鈴木靖民(1985),「好太王碑文の倭記事」,『東アジアの古代文化』44
鈴木靖民(1988),「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好太王碑と集安の壁畵古墳』, 木耳社
末松保和(1956),『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武田幸男(1889),『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朴時亨(1966),『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 全浩天 譯(1985),『廣開土王碑』, そしえて
濱田耕策(1974),「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1
山尾幸久(1989),『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양기석(1983),「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대하여」,『湖西史學』11
吳吉煥(2005),「廣開土王碑文紀年記事にみえる廣開土王の軍事活動」,『古代文化』57-12
王健群,『廣開土王碑 研究』: 임동석 역(2004),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延敏洙(1998),「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국제관계」,『고대한일관계사』, 혜안
川崎晃(1992),「高句麗好太王碑と中國古典」,『古代國家の歷史と傳承』, 黛弘道 編, 吉川弘文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
일본고대사 전공, 요코하마시 역사박물관장
대표논저로는『增補 日本古代國家史의 발자취』(1983, 新人物往來社),『古代對外關係史의 硏究』(1985, 吉川弘文館),『日本의 古代國家形成과 東아시아』(2012, 吉川弘文館),『倭國史의 展開와 東아시아』(2012, 岩波書店),『日本古代의 王權과 東아시아』(공저, 2012, 吉川弘文館) 등이 있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

요코하마시 역사박물관 **스즈키 야스타미**

I. 머리말

2012년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사후 1600년에 해당한다. 오래간만에 일본·한국·중국에서 광개토왕비의 역사연구가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는 정탁본(精拓本)이 강산현(岡山縣) 천구시(淺口市)의 금광도서관(金光圖書館)에서 재발견되었다.[1] 이 탁본은 광개토왕비 탁본 소장자이고 연구자로 알려진 미즈타니 데이지로[水穀悌二郎]가 소장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재불명이었다. 또 쉬젠신[徐建新][2]은 2012년 집안(集安)에서 1881년경 묵본(墨本)의 작성상황과 입수과정을 표시하는 이초경(李超瓊)의 『요좌일기(遼左日記)』 43책(冊)을 북경(北京)

1) 稻田奈津子(2012), 「金光圖書館所藏『初拓好太王碑』と水穀舊藏精拓本」, 『東京大學史料編纂所附屬畫像史料解析センター通信』 58. 10월 9~10일, 나는 武田幸男·稻田奈津子 두 사람과 함께 동도서관에서 정탁본의 일부를 조사했다. 武田氏에 의하면, 著墨패턴, 용지 사용법 등을 관찰하여 1930년경의 C3형 이전의 석회탁본을 剪裝本으로 했기 때문에 독특한 제작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2) 徐建新(2005), 「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發見」, 『中國史研究』, 第1期

에서 발견하고, 그 조사의 개요를 공표했다.[3] 쉬젠쉰은 2003년 중국에서 사코 가게노부[酒匂景信]가 일본에 갖고 온 묵수곽전본[墨水廓塡本, 쌍구전묵본(雙鉤塡墨本)]과 동류의 탁본이라고 보이는 묵본(墨本)을 발견한 인물이다. 그리고 2012년 7월 7일에는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날 동대학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1920년대 중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회탁본의 조사·연구성과가 공개되었다. 이들 새로운 사료의 출현을 계기로 금후 연구는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倭)' 기사를 기초로 하여 광개토왕 치세 시기(391~410) 고구려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시아 세계 속 왜의 실태와 그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광개토왕비 및 탁본의 연구사

광개토왕비 기사가 1884년 일본에 전해지고 연구가 개시된 이래 130년 가까이 지났다. 근년의 획기적인 학설은 북한에서 신묘년조의 신해석을 계승하여 1972년에 탁본, 사진에 의한 편년연구를 정리한 이진희의 일본육군에 의한 석회개찬설이다.[4] 이에 대해 1984년 왕지엔췬[王健群]은 비면의 치밀한 관찰과 초기탁본 사정에 의한 석문(釋文) 연구를 행했다.[5] 그 후 내외의 탁본을 조사한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는 1988년, 석회도부 이전의 원석탁본 수종을

3) 徐建新(2012), 「『遼左日記』與好太王碑發現史」, 明治大學·中國社會科學院學術研究會(第2次)資料, 7月 26日

4) 李進熙(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5) 王健群(1984), 『好太王碑研究』, 雄渾社

집성하여 판독하고,[6] 1989년 간행한 논문집에도 논거를 서술하여 석문을 실었다.[7] 다케다는 2009년 다수의 석회탁본에 묻은 먹물을 유형화하여 제각기 변천 연대를 표시했다[착묵(著墨), 패턴법].[8]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는 탁본 용지의 배열순서 등으로 편년방법을 시도하였다. 한편 쉬젠신은 2006년 탁본마다 자형(字形) 비교를 통해 편년을 시도했다.[9] 이들 다양한 연구로부터 1881년을 상한으로 하는 묵수곽전본(墨水廓填本)→원석탁본(原石拓本)→석회탁본(石灰拓本)이라고 하는 채탁(採拓), 즉 탁본작성의 순서는 거의 확실하게 정립되었다.

광개토대왕비 연구로는 20년 이상 중국 현지에서 비면을 직접 해독해 온 왕지엔췬의 이전 책들과 1994년 경철화(耿鐵華)를 비롯한[10] 1996년 박진석(朴眞奭)[11] 등 현지 연구자의 석문연구가 있다. 이에 대해 다케다의 석문은 현 비면에서는 소멸하거나 파손되어 석독하기 어렵고 풍화방지를 위해 화학수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석탁본을 중시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현재 광개토왕비의 원석은 풍화 등의 영향도 있고, 원비조사에 의한 명문해독은 절망적인 상태라는 견해가 있다.[12] 다만 1,775자인 비문 전체로서는 왕지엔췬, 다케다 유키오와 공통하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왜의 기사에 관해서 원석탁본과 현 비면은 서로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87~1988년 길림대학(吉林大學) 체재를 포함하여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수차례 비면의 왜 관계 기사를 집중적으로 실견·관

6) 武田幸男(1988),『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7) 武田幸男(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8) 武田幸男(2009),『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9) 徐建新(2006),『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書店
10) 耿鐵華(1994),『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11) 朴眞奭(1996),『高句麗好太王碑研究』, 韓國·アセア社
12) 稻田奈津子 前揭註(1) 論文

찰해 왔는데, 그때의 조사를 기초로 하여 선학의 석문을 확인하면서 검토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13]

III. 왜 기사의 사실

광개토왕비에는 광개토왕이 주도한 고구려의 대외관계(전쟁)가 기록되어 있고, 그 상대국이나 민족은 8개이다. 왜는 판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11회이고, 다음이 백잔(百殘, 백제)이 9회, 신라가 7회, 안라(安羅) 3회, 동부여 3회, 임나가라(任那加羅) 1회, 패려(稗麗) 1회, 백신[帛愼, 숙신(肅愼)] 1회로 나타난다. 왜도 고구려의 대외관계의 일환으로서 나타나 있고, 수차 보이는 바와 같이 고구려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적대적 존재였음은 다케다 유키오 등이 언급한 대로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 □(東)□新羅, 以爲臣民.(I-8-34~I-9-24)
＊숫자는 면(面) - 행(行) - 자(字)를 표시

이 조문의 왜 기사에 의해 광개토왕비는 중요 사료로써 간주되어 왔다. "백제와 신라는 원래부터 고구려의 속민이고, 고구려에 조공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왕의 즉위한 영락원년, 391년) 이래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를 파(破)하고 신라를 …… 해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된다. 이 조문은 문장 구조상 다음의

13) 상세한 것은 鈴木靖民(2012), 「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 『倭國史の展開と東アジア』, 岩波書店 참조

영락 6년(396)조에 "왕 스스로 백제를 '토벌(討伐)'한다"는 내용을 정당화하는 전치문(前置文)이고 그 위에 이하의 모든 전쟁기사에 걸린 대전치문(大前置文)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고구려에 대해 백제, 신라는 조공의 관계였다는 표현과 같이 그 이전 아마도 4세기 중엽으로부터 동아시아(동북아시아)에서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 국제인식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속민(屬民)'이란 말은 영락 20년조에 동부여에 대해서 쓸 때도 이용되어 있다. '신민(臣民)'이라는 말은 나라와 나라(민족) 간의 지배, 즉 예속관계를 가리킨다. 신(臣)은 주군(主君)에 대한 말로, 비문을 쓴 사관 등은 신민을 통치하는 왕을 가진 왜를 백제·신라보다 우월한 고구려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인식하였다.

그 후 비에 의하면, 영락 6년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여 국성(한성)을 제압했다. 대패한 백제는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奴客)'이 되어 복속할 것을 맹세했다. 백제왕은 '궤왕(跪王)'이 되어 다시 예속관계로 들어갔다.

> (2) 九年己亥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 白王雲, 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稱其忠誠, 特遣使, 還告以密計 (II-6-31~II-8-8)
> 백제가 [아화왕 6년(영락 7년, 397)], 고구려와의 맹서를 어기고 왜국과 통교했기 때문에 영락 9년(399), 고구려왕은 순찰하여 평양으로 내려왔다. 이에 신라는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신라의 국경(국토)에 가득차 성지를 파괴하고 또 '노객'을 민(民)으로 삼았다. 고구려왕에게 귀복하여 왕의 명을 청하고자 한다. 고구려왕은 은자로서 신라왕의 충성을 칭송하여 사신을 보내고, 신라의 사신은 복명하여 왕에게 밀계를 고했다.

백제가 1년도 안 되어 맹서를 어기고 고구려를 이반한 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일본서기』 응신(應神) 8년조 백제기(百濟記) 모두에서 나타나듯이 백제

왕자 전지(腆支)가 왜에 인질이 되어 통호(通好)를 맺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는 백제가 왜의 민이 된 상황을 지적한 뒤에, 왜의 침략에서 신라를 구원한 국제 연휴와 신라왕이 고구려왕에게 귀복한 연속적인 국제관계 구축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의 대외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3)十年庚子敎遣步騎五萬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侵)背急追, 至任那加羅, 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拔新羅城·□(鹽)城, 倭寇大潰. 城六(內)十九盡拒隨倭安羅人戍兵新羅城(滿□□)□□其□□□□□□□言□□□□□□□□□□□□□□興□□□□□□□□□□辭□□□□□□□□□□殘倭潰逃, 拔□城安羅人戍兵(II-8-9~III-2-9)

※( )안은 전자(前字) 별로의 석문(釋文)

영락 10년(400), 고구려는 왕이 보병·기병의 대군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남거성(男居城)으로부터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렀다. 왜가 그중에 차있었는데, 관군이 이르자 왜적은 물러났다. 관군은 왜를 추격하여 임나가라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렀다. 안라인(安羅人)의 수병(戍兵)은 신라성과 염성(鹽城)을 빼앗았다. 왜구는 대궤(大潰)하고 성(城)내 열에서 아홉 명은 모두 왜와 안라인의 수병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다. 신라성 …… 고구려는 …… 하고, 잔왜(殘倭)는 흩어져 도망하였다. □성(□城)의 안라인의 수병을 축출했다.

비면이 떨어져 나가 판독 불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영락 10년 혹은 이듬해에 걸쳐 고구려군은 신라령으로 침입한 '왜적'과 처음으로 전투한 것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고구려군은 신라성을 점거하는 왜를 격파하고 임나가라까지 추격하였다. 또 신라인은 왜 및 연휴한 신라성 이하를 점거했다고 해석되는 안라인의 수병을 거절하여 축출했다고 한다. 전반부는 신라성·임나가라에서의 전황의 경과를 서술하고, 후반부는 신라인의 항전 모습을, 마지막에는 전투의 결과를 설명하였다. 안라인의 수병 즉 국경 내지 영내의 수비병 참전

이 두드러지는데, 왜는 안라 및 임나가라 등 가야제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백제에 가담하기 위해 출병하여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에 속한 신라를 공격하였고, 구원하는 고구려군과도 대전하였지만,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왜적·왜구라는 표현은 고구려의 국제질서에 반한 적대세력을 비자(卑字)나 비칭(卑稱)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백제를 백잔·잔주(殘主)·잔병(殘兵)으로, 동부여를 여성(餘城)·여(餘)라고 부른 것과 같이 멸시의 호칭이다. 왜라는 한 글자를 다른 비자로 바꾸어 표현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적(賊)이나 구(寇)를 더하여 고구려에 위반하는 국명을 표현한 것이다. '왜구'를 해적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3)에서의 왜적·왜구는 영락 10년조의 왜를 가리키는 것이고 기타 조문의 왜와 같다. 상술한 대로 (1)의 신묘년조에서 백제·신라가 왜의 '신민'이 되었다고 명기한 일, 즉 주군의 존재를 암시하는 왜의 실태와 동일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고구려는 신라를 하위에 두고 '조공'을 상례화한다. 게다가 정사(政事)·군사(軍事)를 서식으로 진상하여 고구려왕의 재가를 받는 '논사(論事)'관계에 들어간다. 이 논사관계는 국제적인 예속관계를 나타낸다.

다만 『삼국사기』 실성왕 원년, 눌지왕 2년조, 『삼국유사』 금제상전(金堤上傳), 『일본서기』 신공(神功) 5년조에 의하면, 신라는 고구려의 예속하에 들어가는 한편, 왜에도 인질을 보내고 왜와 우호관계를 맺는 2면외교책을 취했다.

> (4)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 和通殘兵□石城, □連船□□□. 王躬率往討,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殺無數. (III-3-7~III-4-20)
>
> 영락 14년(404), 그런데 왜는 무궤도(無軌道)하게도 고구려의 대방계(帶方界)에 침입했다. 백제의 병과 화통하여 석성(石城)을 …… 하고, □(왜)는 선(船)을 연이어 ……, 거기에서 고구려왕은 스스로 군을 이끌고 정토하고, 평

양으로부터 ……, 선봉이 적과 서로 맞부딪혀 왕군(王軍)은 적의 진로를 차단하고 그 속으로 돌격했다. '왜구'는 궤패(潰敗)하고 왕군(王軍)은 무수한 적을 참살했다,

왜군은 고구려 영역으로 관념화되어 있는 대방지역에 수군으로 침입했다. 왜의 행동은 백제와 통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국제질서를 왜가 파괴했기 때문에 고구려왕은 친정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평양을 거점으로 교전하였다. 그 전투 결과 왜구를 대파했다. 평양에 기지를 두고 남하책을 취한 고구려에 대항하여, 왜와 백제가 침공하여 격돌하는 격동의 국제정세를 알 수 있다.

(5) 十七年丁未敎遣步騎五萬, □□□□□□□□. 王師四方合戰, 斬殺蕩盡. 所穫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婁城·牛住城·□□□·□□□·那□城. (III-3-7~III-4-20)
영락 17년(407), 고구려왕은 보병·기병의 대군(大軍)을 보내고 ……. 왕의 군은 사방에서 포위하여 적과 싸우고 ……, 모두 참살했다. 개갑(鎧鉀) 1만여 벌을 획득하고 군자(軍資), 기계(器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도중에 사구성(沙溝城)·누성(婁城)·우주성(牛住城)·□□성(□□城)·□□성(□□城)·나□성(那□城)을 파(破)하다.

이 조문은 오만(五萬)에 이어서 비면의 문자가 마모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의 장소와 상대가 불명이다. (4)의 영락 14년 전투의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고, 고구려에 참패한 것은 왜군의 가능성이 있다. 또는 왜와 함께한 백제일지도 모른다. 도중에서 탈취하였으나 판독할 수 없는 성은 20년조에 보이는 총계 64성 중에 58성이 보이기 때문에, 17년조의 4성을 더하면 나머지 빈칸은 2성이 들어간다. 사구성 이하는 대방군보다도 남쪽 백제령의 제성으로 추측된다. 그 후 영락 20년(410)조에 친정군이 동부여를 토벌한다고 한 기술이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광개토왕의 훈적을 서술한 전쟁기사는 종료한다.

IV.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391~407년에 걸쳐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왜는 주로 백제와 연휴하였다. 임나가라·안라라고 하는 가야의 유력국과도 손을 잡은 왜는 고구려와 관계를 강화한 신라를 침략하고 또 고구려의 영토와 같은 대방에까지 원정했다. 왜는 한결같이 고구려의 남하책, 대백제, 신라책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했다. 다만 왜는 백제, 가야의 국, 왕권과의 제휴로 장년에 걸친 전쟁을 계속하고, 단독으로 군세를 움직이는 일은 없었다. 왜는 백제 등의 제국과 통일적인 공동전전을 펴고 고구려 본위의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세계구조에서 격렬히 대립했다. 이 움직임은 백제가 주도하고 왜가 추종하는 형태일 것이다. 신라는 고구려 중심의 '궤왕', '조공', '논사' 등의 관계로 표징되는 국제질서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의 주요한 외교·전쟁의 목적은 긴밀한 교류가 있던 백제·임나가라·안라 등과의 관계 유지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왕 자신의 군, 또는 장병을 이끄는 군을 출동시킬 정도의 상대로서 기록하는 '왜'라는 존재는 왜의 국가형성과정 속에서 보면 4~5세기 단계에서 왕권(공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던 군사이고,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한 왜 왕권 아래에 있는 군세임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가 고구려와 싸우는 백제·가야 측에 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다. 출병도 장기적이고 계속적이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는 일본열도 내의 수장층이 조직한 군대와 병력일 것이다. 열도의 심장부가 된 대화(大和)·하내(河內)의 유력 수장층을 대표하는 왜왕의 최고 군사지휘권에 따라 관계를 맺은 각지의 수장들이 휘하에서 징발·편성한 육해 양면에 걸친 군대의 연합을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왜 출병의 선구는 내량현(奈良縣) 석상신궁(石上神宮) 소장의 칠지도(七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刀) 명문에도 알려지고 있다. 369년의 고구려의 백제침공, 371년의 백제의 반격 전쟁에 왜가 백제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참전한 것이 확인된다. 이때 고구려는 전연(前燕)·전진(前秦)과 손을 잡고 신라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기세에 있었는데, 한편의 백제는 왜와 맺고, 동진(東晉)에 입조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국제연계를 구축했다. 동아시아세계의 국제관계에는 2개의 중심축이 있고, 대항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왜의 왕과 왕권이 등장한 것이다.

4세기 중엽 왜왕권의 소재와 교류를 시사하는 고고학 등의 성과로 내량현 신산고분(新山古墳) 출토의 삼엽문계대금구[三葉文系帶金具, 귀인(貴人)과 장사(將士)가 사용하는 요대의 버클]는 서진제(西晉製)이고,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 152호 고구려묘에서 출토한 것과도 유사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전쟁 이전 부여인을 매개로 가야로부터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내량분지(奈良盆地) 서남부의 어소시(禦所市) 추진(秋津)유적은 대규모의 방형구획시설군을 갖는 4세기 전반 이래의 갈성(葛城)의 지역집단의 거점이고, 왕권에 참가한 대화(大和) 수장층의 실재를 말해주고 있다.[14]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의 5세기대에 상당하는 천황의 혼인은 가쓰라기[葛城] 씨족 등 대화의 수장과 자녀인 예가 많다. 이것은 6세기 제기(帝紀) 성립시의 전승에 의한 것이지만, 대화 수장층들의 연휴·연합을 반영하는 개연성이 많다는 것[15]을 지적해 둔다. 4세기 후반에서 말엽에 걸쳐 왜의 국제교류를 주도한 것은 대화북부와 하내 세력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왜의 17년 전쟁의 결과는 왕권에 있어서는 패배의 연속이고 그 국제전략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백제와의 결속은 5세기의 왜왕들의 외교에도 계승되었다.

14) 松田度(2012), 「秋津遺跡」, 『明日への文化財』 67
15) 鈴木靖民(2011), 「反正天皇雜考」, 『國學院雜誌』 112－11

• 참고문헌

稻田奈津子(2012),「金光圖書館所藏『初拓好太王碑』と水穀舊藏精拓本」,『東京大學史料編纂所附屬畫像史料解析センター通信』58
鈴木靖民(2011),「反正天皇雜考」,『國學院雜誌』112－11
鈴木靖民(2012),「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倭國史の展開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李進熙(1992),『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武田幸男(1988),『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武田幸男(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武田幸男(2009),『廣開土王碑墨本の研究』, 吉川弘文館
朴眞奭(1996),『高句麗好太王碑研究』, 韓國 · アセア社
徐建新(2005),「高句麗好太王碑早期墨本的新發見」,『中國史研究』, 第1期
徐建新(2006),『好太王碑拓本の研究』, 東京堂書店
徐建新(2012),「『遼左日記』與好太王碑發現史」, 明治大學 · 中國社會科 學院學術研究會 第2次 資料
松田度(2012),「秋津遺跡」,『明日への文化財』67
王健群(1984),『好太王碑研究』, 雄渾社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용현(李鎔賢)
한국고대사 전공,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대표논저로는 『백제목간』(2008, 국립부여박물관), 『가야와 동아시아제국』(2009, 통천문화사), 『한국목간기초연구』(2009, 신서원), 전시 및 도록으로는 『나무속 암호, 목간』(2009, 국립부여박물관), 『문자, 그 이후』(2011,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집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 조사 보고 : 금석문1 – 삼국시대』(2010,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있다.

광개토왕비문의 고구려와 가야

백제의 대응을 축으로

국립춘천박물관 **이용현**

I. 머리말

4세기 후반~5세기 초엽에 걸친 가야지역의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사료가 광개토왕비문[이하 비문(碑文)이라 약칭][1]이다. 이에 관한 업적은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いて」[2]이래 이진희(李進熙)의 석문에 관한 문제제기,[3]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의 미즈타니탁본[水穀拓本]에 관한

1) '碑文'의 주인공인 廣開土王의 이름에 관해서는 好太王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그러나 好太王은 어디까지나 美稱에 지나지 않으며, 고유명사는 아니다. 고로 '廣開土王'이라 불러야 한다. 또한, 비문에 대해서도 '——碑文', '——陵碑文'의 양쪽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자를 취한다. 그 이유는 ①비에는 왕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하여, 공적현창비의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守墓人의 규정을 넣은 守墓人法令碑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②실제로 장군총과 비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능과 비 사이에는 아마도 守墓人煙戶집단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단순히 '陵碑'로 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久米邦武(1915), 『日本古代史』 下(訂正增補大日本時代史 8), 早稻田大學出版部

3) 李進熙(1972), 『廣開土王陵碑の研究』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 최근의 논문으로는 「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論爭」, 『靑丘學術論集』 2, 1992

연구, 왕지엔췬[王健群]의 현지 비(碑)에 관한 조사, 쉬젠신[徐建新]의 북경 원석탁본(原石拓本) 발견 등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반드시 의견의 공유 내지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4세기 후반~5세기 초의 동아시아를 논함에 있어 비문은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4세기 말의 가야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더듬을 때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 가야 내지 고대한일관계의 관점에서 비문을 논한 근년의 업적에는 왕지엔췬[4]·스즈키 히데오[鈴木英夫][5]·고관민(高寬敏)[6]·김태식(金泰植)[7]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기 여러 설을 들어 사견(私見)을 개진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王健群(1984),『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5) 鈴木英夫(1996),『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初出,『千葉史學』8, 1985)
6) 高寬敏(1990),「永樂一〇年, 高句驪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27
7) 金泰植(1994),「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韓國古代史論叢』6

II. 비문의 석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문의 탁본에 관해서는 복잡한 논쟁이 있어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논설의 전제가 되는 석문(釋文)을 확정해야만 한다. 미즈타니탁본, 즉 수곡제이랑(水穀悌二郎) 탁본에 관해서는 원석탁본이라는 입장[8]과 석회도부후(石灰塗付後) 탁본이라는 입장[9]이 대립하고 있다. 필자는 전자에 뜻을 같이한다.

① 武田幸男(1988), 『廣開土王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② 林基中(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出版部
③ 早乙女雅博(1996), 『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東京國立博物館
④ (水谷本拓本寫眞)(2011), 『(특별전)문자, 그 이후』, 國立中央博物館
⑤ (靑溟本拓本)任世權 · 李宇泰 편저(2002), 『韓國金石文集成(1) 高句麗1 廣開土王碑(圖錄編)』

비문의 사진과 탁본을 바탕으로 관찰하고 또 현지방문을 바탕으로 한 기록인

⑥ 王健群(1984), 『好太王碑の研究』
⑦ 鈴木靖民(1990), 「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 『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

도 참조하면서 제I면 9행에서 제III면 6행까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석문을 시도해본다.

8) 水谷悌二郎(1959), 『書品』 100, 東洋書道協會
9) 李進熙(1972), 앞의 책 및 글

×: 척출(拓出)되지 않음.　　△: 금이 가서 읽지 못함.

□: 자획은 확인되지만 읽지 못함.　　新: 新으로 추독할 수 있음.

【제III면】

□□□□△□城□城□×××××××□□□□

III. 관련 각년조의 고찰

1. 영락 6년(396)조

(1)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2)①以六年丙申, ②王躬率□軍, 討□殘國, ③軍□□□攻取寧八城·臼模盧城·各□盧城 (……) 仇天城·□□□城. ④△其國城, 殘不服義, 敢出百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侵穴□便□城, 而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太王恩赦□迷之愆, 錄其後順之誠. ⑤於是△五十八城·村七百, 將殘主弟, 竝大臣十人, 旋師還都.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개토왕비문은 서설(序說), 왕의 업적,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의 3단으로 구성된다.[10] 이 글에서는 제2단 가운데 가야와 관련되는 부분을 고찰한다. (1)은 독립적으로 '신묘년(辛卯年)'조(條)라고 불렸는데, 이어 6년 병신조(丙申條)의 전치문(前置文) 혹은 대전치문(大前置文)으로 여겨져[11] 이하의 3점을 근거로 필자도 이에 따른다.

이 조는 마에자와 가즈유키[前澤和之]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간지(幹支)만의 연호 표기가 이질적이다.[12]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리는 제2단은 편년체식의 기록이며 그 연호 표기는 '(숫자)년+간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최초로 '영락(永樂) 5년 세재을미(歲在乙未)'에 이어 '6년 병신(丙申)', '8년 무술(戊戌)' 등으로 표기되

10) 三宅米吉(1989), 「高麗古碑考」, 『考古學雜誌』 2-1·2·3

11) 浜田耕策(1974),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研究」,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12) 前澤和之(1972), 「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二·三の問題－辛卯年部分を中心に」, 『續日本紀研究』 159, 16쪽

고 있다. '6년 병신'은 '영락【6년】'(a)과 '세재【병신】'(b)에서 '영락'과 '세재'를 생략한 생략형이다. 그 점에서 비문의 기년(紀年)은 (a)+(b)의 조합이다. 하지만 '신묘년'은 (a)가 없고, 더욱이 (b)에는 '년(年)'을 더한 점이 이질적이다.

다음에 역시 마에자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6년병신(以六年丙申)'의 문제다. 다른 연조(年條)와 달리, 글의 첫머리에 '이(以)'가 온다. 그것은 6년 병신조까지 있는 '백잔신라구시속민 …… (百殘新羅舊是屬民 ……)'을 받는 접속사일 것이다.[13] 또한, 비문 2단의 편년서술은 연차순이다. 신묘년은 영락 원년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영락 5년과 영락 6년 사이에 개재하고 있는 것은 연차순기록 원칙에서도 벗어나서 부자연스럽다.

①은 연호, ②는 왕=광개토왕이 몸소[궁(躬)] 군(軍)을 이끌고[솔(率)] 출동하여 잔국(殘國)=백제(百濟)를 '토벌(討伐)'한 것, (1)은 그 토벌의 대의명분, ③은 진격코스와 '공취(攻取)'된 제성(諸城)의 명세(明細)다. ④의 '국성(國城)'은 백제국성(百濟國城), 즉 한성[漢城, 대성(大城)]이며, 백제의 저항을 밀어붙이고, 백제를 정복. ⑤의 '견(遣) 박성(迫城)'과 '□편위성(□便圍城)'의 성(城)은 ④의 '국성'이며 ⑤는 '국성'을 둘러싼 고구려와 백제의 처절한 공방전이다. 백제국성을 공격할 때에 고구려는 '침혈[侵穴, 위성(圍城)]'하는 국성포위작전을 펼쳤다. 국성고립화작전은 멋있게 성공을 거두었으며, '곤핍(困逼)'에 빠진 백제왕[잔주(殘主)]이 투항(投降)한다. 남녀 포로 1,000명[男女生口一千人]과 세포(細布) 1,000필은 전쟁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포로 말하면 3세기경에는 '광폭세포(廣幅細布)'의 변한포(弁韓布)가 유명한데,[14] 이 396년 백제의 세포는 가야에서 수입된 것인지, 아니면 가야로부터의 기술이입(技術移入)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13) 前澤和之(1972), 앞의 글, 17쪽
14)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의 弁辰部

또한 백제왕은 '궤(跪)'예(禮)로서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될 것을 맹서함과 동시에 왕의 제(弟)와 대신(大臣) 10명이 볼모[질(質)]가 되는 대참패를 맛보았다. ⑥에서는 '어시(於是)', 즉 '궤왕(跪王)'의 결과, '58성·700촌'을 고구려가 획득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성포위·궤왕·서노객(誓奴客)의 앞에 이미 ③에서 탈취한 영팔성(寧八城) 등에 다름 아니며, 영팔성 등 58성의 고구려소유를 백제가 공인하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 왕자(王者)는 은사(恩赦)하는 유덕(有德)의 군주이며, 또 의(義) 그 자체인 것이므로, 왕자에 도전하는 것은 의에 불복하는 것이 된다. 당연히 왕은 단지 고구려왕, 나아가서는 광개토왕뿐이며, 백제왕은 왕이 될 수 없는 '주(主)'에 불과한 것이다. 고로 백제의 응전(應戰)은 '감(敢)'히 한 행위가 된다. 그 왕자에 대한 도전행위는 ⑥과 같이 '왕(王)'의 직접관여에 의해 해결된다. 왕자가 원정(遠征)하는 명분은 백제의 '선미지건(先迷之愆)'이며 그것은 (1)즉 백제의 속민에서 신민으로의 변화에 있었다. 백제는 원래 고구려의 속민이어야 하는 것이며 6년 병신의 원정은 그 백제를 속민으로 삼아 되돌릴 타당한 조치였던 것이다.

여기서 (1)정토(征討)의 명분, 예를 들어 정토대상국의 불의→(2)왕의 '궁솔군(躬率軍)' '토벌'→(3)전과(戰果)→(4)은사와 전리품획득→(5)개선(凱旋)·환도(還都)의 패턴을 본다.

2. 영락 9년(399)조

①九年己亥. ②百殘違誓, 與倭和通. ③王巡下平穰, ④而新羅遣使白王雲「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⑤太王恩慈, 稱其忠誠. □遣使還告以△計.

①은 예(例)의 기년(紀年), ②는 ③의 왕의 '순하(巡下)' 원인, 즉 명분이다. 그 화통(和通)이란 일찍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화왕(阿華王) 6년조의 '王與倭國結好, 以太子 支爲質'이며, 그 '결호(結好)'사실과 부합된다. 이에 중첩되는 사료는 『일본서기』 응신(應神) 16년 8월 봄 3월조에 인용된 백제기(百濟記)다.

> 阿花王立無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 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於天朝, 以脩先王之好也.

왕자(王子) 직지(直支)의 파견을 통한 '수선왕지호(脩先王之好)'의 일은 사실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수호(脩好)'는 『삼국사기』의 '결호(結好)'와 일치한다. 단 '무예어귀국(無禮於貴國)'이라든지 토지탈취 기사는 신빙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토지할양기사에 관해서는 응신 16년조의

>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東韓者, 甘羅城·高難城·爾林城是也.)

에 등장하는 토지수여에 대한 복선 내지 전제가 되는 기사로서 『일본서기』 편자가 설정한 데 불과하고, 실제 토지할양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 '순하'에서 신라의 견사(遣使)·청명(請命)에 조우하여 ⑤에서 신라의 '충성(忠誠)'을 '칭(稱)'하고 '견사'하여 '□계(□計)'를 '환고(還告)'함으로써 일단락을 짓는다. 9년조에서는 특별한 군사행동은 보이지 않고 단순한 '환고이□계(還告以□計)'로 끝난다.

왕이 타개해야할 현상은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이었다. '궤파성지(潰破城池)'로부터 신라의 성(城)은 성과 지(池), 즉 성과 해자(垓子)였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신라 경주(慶州)의 월성(月城)에는 해자[호(濠)]가 있어서 그와 부합한다.

신라사(新羅使)가 아뢴 보고 내용은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인데 그 보고의 말, 즉 '운(雲)'에 걸치는 것은 '이노객위민(以奴客爲民)'까지 혹은 '귀왕청명(歸王請命)'까지 일 것이다.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보고의 내용은 간접화법과 직접화법이 섞여 있으며, 그 가운데서 논쟁이 되는 것은 '이노객위민'이며 '노객'과 '민(民)'이 가리키는 대상이다.

【A1】[생각컨대(以爲), 奴客은 대저 太王의 民이다]라고 하고, 新羅人이 高句麗에 救援을 求하는 意味로 보는 案[15]

【A2】奴客을 新羅王, 民을 高句麗民으로 보고, [奴客(新羅王)은 (高句麗王의) 民이기 때문에]라고 보는 案[16]

【B】奴客을 百濟(人), 民을 倭의 民으로 보고, [以前부터 高句麗(王)의 奴客이 되어 있는 百濟(主)로서 倭의 民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보는 案[17]

【C】奴客을 新羅人, 民을 倭의 民으로 보는 案[18]

【A1】, 【A2】는 노객과 민을 보는 관점이 동일하며 궤(軌)를 함께하는 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단지 【A1】안에서 '이(以) …… 위(爲) ……'를 [이위(以爲)=생각컨대]로 해석하는 것은 예(例)가 없으므로 무리다. 또한, 【A2】안에서 '이노객위민'이라면, '노객위민(奴客爲民), 고(故)'와 같은 표현도 있어서 부자연스럽다.

15) 鄭寅普(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白樂濬博士還甲記念國學論叢』(『薝園文錄』 3, 1967)
16) 박시형(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
17) 武田幸男(1989), 『高句麗と東アジア』
18) 浜田耕策(1974), 앞의 글

거기에 '노객' 그 자체가 후술할 바와 같이 단순한 자신의 비칭(卑稱)에 그치지 않고 고구려왕의 신종(臣從)관계를 포함하는 복속민의 개념이므로 그 점에서 '민'을 고구려의 민이라고 한다면 중복되는 것이므로, 결국 【A】안은 '민을 고구려의 민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무리한 해석이 된다.

【B】안은 비문의 '영위노객(永爲奴客)'의 '노객'이 백제왕인 6년조의 예를 근거로, 동일비문에서의 '노객'은 동일하다는 것을 고증하여 '노객'을 타칭(他稱)으로 삼는 데 특징이 있다. 확실히 비문의 전기(前記) 영락 6년조에 나오는 '노객'은 그 말의 주체인데 잔주(殘主), 즉 백제주(百濟主, 백제왕)다.

> 殘主困逼, 獻△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跪王自誓,「從今以後, 永爲奴客.」

하지만 9년조는 언급의 주체는 백제가 아니라 신라다.

> 新羅遣使白王雲「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즉, '노객'은 배타적으로 백제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왕을 정점으로 삼는 고구려적 질서 속에서 고구려에 신종하는 자의 겸칭이라고 보고자 한다. 그것이 비문에서는 2례 모두 자칭으로 사용된 것이다.

유명한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도 모두루(牟頭婁)는 '노객모두루(奴客牟頭婁)'라 자칭하고 있다. 이 시대 고구려 지배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신하를 '노객'으로 칭하였다고 보이며,[19] 그것은 고구려왕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종하고

19) 高寬敏(1991),「廣開土王陵碑文における辛卯年條について」,『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研究所年報』2, 18쪽

군신관계에 있는 자의 비칭이었다.[20] 거기서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에 '본시노인(本是奴人)', '노인법(奴人法)'의 '노인(奴人)'이란 일찍이 고구려 민이었는데, 새로이 신라에 복속한 지역의 민을 가리킨다는 지적이 있다.[21] 그렇다면 고구려왕을 정점으로 군신관계에서 〈왕(王)→노(奴)〉의 관념이 설정되며 모두루와 같은 고구려 조정 내에서의 신하가 '노객', 봉평비(鳳坪碑)에 보이는 바와 같은 일반민은 '노인'이라는 고구려왕의 신하인 '노(奴)' 가운데서도 상하의 구분이 있는 '노객'-'노인'의 이층구조가 있었던 것이 된다. 그것이 고구려 국내로부터, 고구려적 질서 혹은 고구려적 중화사상에서 포섭된 이웃 나라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웃 나라의 지배자도 고구려왕의 신하로 관념하여 '노객'이라 불렀을 것이다. 6년조의 백제왕이 그 전형적 예다. 그것은 '백잔신라구시속민(百殘新羅舊是屬民), 유래조공(由來朝貢)'이라고 관념되는 비문의 맥락으로부터는 신라왕도 백제왕과 다르지 않은 고구려왕의 '노객'이었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다. 이상에서 전통적인 C안을 지지한다.

④는 고구려왕이 출동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 동시에 신라 측이 고구려에 구원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 즉 명분이다. 그 점에서 사실 이상의 과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 신라의 호소, 즉 남부전선·신라지역에서의 불의에 대한 답은 다음의 10년조에 보인다. 왕의 순하에 신라왕이 사신을 파견하고, '노객'을 자칭하여 '청명(請命)'을 받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충성'의 행동이었다.

9년조의 특징은 다른 연조(年條)와 달리 국외전장(國外戰場)에 대한 '궁솔왕토(躬率往討)'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내의 평양(平穰)으로의 '순하'이며, 거기서

20) 武田幸男(1981),「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99·100, 70쪽
21) 李成市(1989),「蔚珍鳳坪新羅碑の基礎的研究」,『史學雜誌』98-6, 21쪽

는 신라로부터의 '귀왕청명'이 있었다. 귀왕(歸王)이란 왕, 즉 광개토왕에게로의 귀복(歸服)이며, 청명(請命)이란 그 광개토왕의 명령을 청(請)하는 것이며 결국 신라왕 자신의 신속(臣屬)을 칭하는 것이다. 고구려 측은 그것을 신라의 '충성'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비문의 필자는 9년조에서 그 귀왕청명을 특필해서 '태왕(太王)'의 '은자(恩慈)'의 현현(顯現)으로 기리고 있다. 거기서 '궁솔왕토'가 아니라 '순하'일 이유가 있었다.

그 점에서 9년조 전체는 10년조의 전치적(前置的) 역할을 행했다고 할 수 있다. 9년조에서도 왕은 여전히 '은자'의 상징으로 충성의 대상이 되었다. ⑤의 사(使)는 '□견사환고이□계(□遣使還告以□計)'의 '환(還)'으로부터, ③에서 본 신라의 견고구려사(遣高句麗使)라고 생각된다. 감히 억측한다면 고구려는 견신라사(遣新羅使)를 별도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견고구려사의 귀국 무렵에 광개토왕의 칙(勅)을 보냈을 것이다. 거기서 고구려는 '□계(□計)'를 신라에 제시하였는데, 그 계책은 '청명'에 대한 답이며, 그 내용은 곧바로 다음 10년조에 보인다. 신라 구원전(救援戰)의 확약 내지는 구원전을 행할 무렵의 공동전선의 전략·공격계획이었을 것이다. 신라의 '노객'외교는 고구려에서 군원(軍援)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3. 영락 10년(400)조

①十年庚子, ②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③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④官□方至, 倭賊退□, 侵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⑤安羅人戍兵□新□□□城倭□大潰(α)城大××盡×□□安羅人戍兵□□城□□其□□□□△△△言□□□□△□城□城□×××××××××□□□□□□□□辭□□□□□□□□□□□□□潰(γ)□□□□安羅人戍兵. ⑥昔新羅寐

錦, 未有身來論事. □□□□□開土境好太王□□□□寐錦□□勾□□□
□朝貢.

①은 기년(紀年), ②출동의 규모와 목적, ③의 '종남거성(從男居城), 지신라성(至新羅城)'은 신라의 영역일 것이다. 위기에 닥친 신라의 현상이 그려져 있다. ④에서는 관군의 출동에 의해 위기가 해소된다. 즉, 고구려군보기(高句麗軍步騎) 5만의 출동에 의해, 왜는 격퇴되고 또한 그 왜적의 근거지 내지 발신기지격(發信基地格)의 종발성(從拔城)을 귀복(歸服)시킨 것이다. ⑥에서는 난국이 수습되고 일찍이 없었던 신라매금(新羅寐錦)의 '신래론사(身來論事)' 혹은 그에 준하는 조처가 실현되고 또한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조공도 실행되게 된다. 이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실질적인 조공신속(朝貢臣屬)관계가 개시되었음을 나타낸다. 10년조의 전투는 ③, ④에 보이는 임나가라 종발성의 추격·함락에 그치지 않았던 모양이다. 공격이 많은 ⑤, 즉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에서 '안라인수병'까지의 하선부의 내용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안라인수병'에서 '안라인수병'까지 (⑤)의 내용

⑤'안라인수병'에서 '안라인수병'까지는 공백이 많으며 정확히 읽는 것은 매우 어렵다. 확실히 읽을 수 있는 것은 '안라인수병', '신라성', '왜'이며, 잔편(殘片)으로서 '궤(潰)', '진(盡)', '만(滿)', '기□(其□)', '언(言)', '사(辭)'가 있다. ⑤의 내용을 상상하는 데서 '(왜)궤[(倭)潰]', '□궤(□潰)', '□진□□(□盡□□)'이 도움이 된다. 첫째 ⑤에 2곳(α)(γ)에 '궤(潰)'가 등장한다. 이 10년조 이외의 비문에서 보이는 '궤'의 용례를 살펴보자.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9년조 新羅使의 보고)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殺無數.」(14년조)

(α)와 (γ)는 위의 용례와 같이 왜(倭)혹은 왜와 우호관계에 있었던 세력에 의한 신라의 궤파정황(潰破情況)이나 고구려의 원정에 의한 왜의 궤패정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구려의 적대세력인 왜와 관련이 있음이 중요하다. 그 점에서 (α)(γ)의 '궤'는 고구려가 왜를 쳐부순 내용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②의 5만의 보병·기병은 ④임나가라종발성(任那加羅從拔城) 포위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에도 최소한 1회나 2회의 전투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⑤의 '진(盡)'인데 비문의 '진' 글자의 다음의 세 가지 예가 있다.

「斬殺·蕩盡」(17년조)
「敦城民四家盡爲看烟」(守墓人烟戶段)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盡爲祖先王」(守墓人烟戶段)

'다한다·끝나다'라는 동사의 일례와 '남김없이'라는 부사의 2례가 있다. ⑤의 '진'은 그 다음에 부사 '경(更, 더욱이)'이 오는 것으로 보아 부사로 보기 보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시 17년조의 용법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즉, 그것이 17년조에도 있듯이 힘이 다한 상태이며 고구려가 아니라 아마도 왜라고 생각되는 고구려의 전투상대에 관한 서술이라고 보아도 상관없을 것이다. 즉, 왜의 섬멸소진(殲滅消盡)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⑤는 ⑥ 앞에 있는 점으로 보아 혼란과 그 타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倭□倭潰(1)城大□□盡(2)'倭□大潰(α)城大××××□尖安'라고 글의 첫머리에 왜가 있어서 흐름으로도 부합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③은 9년조에서 신라사(新羅使)가 보고한 '왜인만기국경(倭人滿其國境)'의 정황과 다름이 없고, ④는 ②의 고구려의 '왕구신라(往救新羅)'이다. 그렇다면 다음 ⑤도 신라사가 보고한 '왜인만기국경(倭人滿其國境). 궤파성지(潰破城池)'와 같은 신라의 궁상(窮狀)과 그에 답한 고구려 보병과 기병 5만의 '왕구신라'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상기(上記)의 '궤(潰)', '진(盡)'의 분석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 결국, 고구려의 신라구원전쟁은 신라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⑥에서 신라가 일찍이 없었던 조공을 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 신라가 조공할 정도의 결과라는 것은 신라구원(新羅救援)의 성공, 즉 왜의 격퇴이다.

2) '안라인수병'의 여러 학설

우선 '안라인수병'이 3회 등장한다. 여기서 '안라인수병'의 '안라인(安羅人)'에 관해서는 '안(安)'을 명사라고 볼 지, 동사로 볼 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A안과 B안으로 나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 '安羅人의 戍兵'으로 보는 案
B. '羅人戍兵을 安하는'것으로 보는 案

A는 안라(安羅)를 지명·국명의 안라[아라(阿羅), 지금의 함안(咸安)]로 보아 '안라인의 수병(戍兵)'으로 읽는 전통적 안(案)이다. B는 안(安)을 동사로 보고 "라인수병(羅人戍兵)을 안[安, 안치(安置)]한다"고 해독하는 안이다. 그 B안에서도 '라인(羅人)'을 두 가지 안으로 해독한다.

B1. '新羅人'의 略稱이라고 보는 案

B2. '巡邏人'으로 파악하는 案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필자는 A안에 동의한다. 이하에서는 B안의 의문점을 열거하여 A를 보강하고자 한다.

통설적인 위치를 점하는 A안에 대해서, B안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왕지엔췬이다. 현비실사(現碑實査)를 바탕으로 왕지엔췬은 종래 읽을 수 없었던 글자를 새롭게 읽어내고 또한 종래의 석자(釋字)를 다시 읽었는데 관련부분을 들면 다음과 같다.

II九

8 10 15 20 25 30 35 40

自侵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城卽歸服安羅人戍兵拔新羅城鹽城倭寇大潰城內

十·十一

17 20 25 30 35 1 3 10

十九盡拒隨倭安羅人戍兵新羅城□□其□□□□□□□言□□且□□□□□□□

III一

11 20 25 27 31 35 40

□□□□□□□□□□□□□□□□□□辭□□□出□□□□□□□殘倭潰

二

1 5 9

逃拔□城安羅人戍兵

왕씨는 이것을 바탕으로 '안라인수병'은 3곳 모두 고구려의 군대가 모성(某城)을 점령한 뒤를 잇고 있는 점, 『삼국사기』에 신라인을 라인이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고구려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후의 부대배치로서 신라인을 수비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왕지엔췬의 논거가 되기도 하는 석독 가운데 논점이 되는 2점만을 살펴보자.

⑴ III十28·29·30의 '신라성'

이 부분은 중요하다. 28자는 종래 '만(滿)'으로 간주되었다. 왕석문(王釋文)은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다. 다케다 유키오 석문은 만(滿)으로 하고, 임창순(任昌淳),[22] 임기중(林基中)도 만(滿)이라 하였다. 그에 대해 스즈키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고관민은 비문을 실제로 보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방(旁)에 '근(斤)'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왕지엔췬의 가설을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실제 비문을 조사한 박진석(樸眞奭)은 만(滿)이라 한다.

방(旁)에 '근(斤)'은 옆의 八28 신(新)의 방(旁)과 비교하면 명백한 바와 같이 '근'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十29 라(羅)는 확인할 수 없다.

⑵ III二1·2도발

도발(逃拔)이라고 까지 읽을 수 있는 자화(字畫)를 확인하기란 곤란하다.

이상과 같이 왕지엔췬이 주장하는 단락말미(段落末尾) 위치설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독특한 석독(釋讀)은 반드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23] 신라인만을 라인(羅人)이라고 했다는 것은 주도면밀한 비문의 서법(書法)으로 보아 문제가 되는 '안라(安羅)'는 제외하더라도 '임나가라'와의 혼동을 초래하는 애매한 표현이다. 따라서 신라인안치설(新羅人安置說)은 찬성하기 어렵다.

22) 任昌淳 석문, 任世權·李宇泰 편저(2002), 「高句麗『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 『韓國金石文集成(1) 高句麗1 廣開土王碑(圖錄編)』, 6~7쪽

23) 武田幸男(1989), 앞의 책

또한, 스즈키 히데오[24]는 고구려에 적대적인 상대는 백잔(百殘)·왜적(倭賊)·왜구(倭寇)와 같이 멸칭을 사용하는 것이 비문의 서법이라고 하고 그 점에서 고구려와 적대했던 안라를 안라인(安羅人)이라기 보다는 안라적(安羅賊)이나 안라구(安羅寇)로 불러야 할 것으로 보고 안라인을 안라의 인(人)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또한, 고구려가 가야와 통교를 갖는 것은 광개토왕시대이며 그 이전은 '라인(羅人)'과 신라인을 약칭해도 혼동할 우려는 없으며 그것이 비(碑) 건립의 장수왕시기에 남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문에서 신라의 표기는

新羅(I八36·37, I九19·20, II七89, II八21·22)
新羅城(II八28·29·30, II九31·32·33)
新羅寐錦(III二11·12·13·14)

이어서 생략형이 전혀 없는 것은 신라인생략설(新羅人省略說)의 약점이다. 또한 고구려 적대관계국(敵對關係國)에 대한 칭호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百濟】百殘, 殘國, 殘主
'百殘新羅舊是屬民'I八, '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I九, '討伐殘國軍□□'I九, '其國城殘不服義'II三, '殘主困逼'II四, '殘主弟'II五, '百殘違誓'II六, '百殘南居韓'IV二
【倭】倭, 倭人, 倭賊, 倭寇
'倭以辛卯年來渡□破…'I九, '與倭和通'II六, '倭人滿其國境'II七, '倭滿其中'II八, '倭賊退'II八, '倭□'II九, '倭潰'II九, '倭不軌侵入帶方界'III三, '倭

24) 이하는 鈴木英夫(1996), 「高句麗『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61~64쪽(初出, 『千葉史學』 8, 1985)

寇潰敗'III四
【任那加羅】
'任那加羅'II九

백제의 경우는 예외 없이 백잔(百殘)이라 쓰여 있으며, 약칭할 경우는 '잔(殘)'을 써서 멸칭을 관철하고 있다. 그 철칙은 수묘인연호(守墓人煙戶)의 기재 무렵에도 철저하였다. 하지만 왜의 경우는 총계 9회[25]의 용례 가운데 비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왜적', '왜구'의 2회에 그치며 나머지는 '왜'가 5회, '왜인(倭人)' 1회다. 가야의 경우 임나가라는 단지 1회로, '임나가라(任那加羅)'로 적고 있다. 그렇다면 같이 전쟁한 적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멸칭의 도(度)에는 단차(段差)가 있는 듯 보인다. 즉, 고구려에 있어서 백잔(백제)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철두철미한 적(敵)이며, 왜는 불궤(不軌)의 적(賊)·구(寇)이긴 했지만 백잔만큼은 아니었다. 반면 임나가라는 백제·왜와는 현격한 차가 보여 멸칭이 사용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비문에 보이는 패려(稗麗), 배루인(俳婁人)과 동일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멸칭의 도(度)는 동시에 고구려의 경계도(警戒度)와도 관련된다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임나가라와 같이 가야제국(加耶諸國)의 일원이었던 안라에 멸칭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순은 없다.

다음에 상기의 생략설을 보완한 것이 라인(羅人)=라인설(邏人說)이며 그것은 고관민에 의해 체계화되었다.[26] 그는 우선 III十28이 '만(滿)'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왕(王)의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문말등장설(文末登場說)을

25) 鈴木靖民(1990), 「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最近の研究成果をめぐって」, 唐代史研究會 편, 『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 刀水書房에 의하면, 武田釋文과 王釋文을 비교·검토하여, 또한 鈴木씨 본인의 現碑조사 및 사진관찰을 바탕으로, 碑文의 倭는 9회 보인다고 한다.
26) 高寬敏(1990), 앞의 글

지지하고 또한 라인(羅人)을 라인(邏人)이라고 해서 순라병(巡邏兵)·유병(遊兵)의 뜻이라 하였다. 또 사료를 들어서 고구려에 라병(邏兵)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비문'에서 '인(人)'에는 다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A. '男女生口一千人'II四 '大臣十人'II五
'莫□羅城加太羅穀男女三百餘人'II六

B. '倭人'II七 '俳婁人'III九

C. '守墓人'III八, Ⅳ八, Ⅳ九 '買人'Ⅳ九

D. '以稗麗不□□人'I七

다케다가 지적한 바와 같이 A는 사람의 숫자, B는 종족 혹은 국가명을 가리킨다.[27] C는 "무엇을 하는 자(者)"란 의미일 것이다. 또한, D는 빈칸에서 불명이다. 그래서 가령 라인(羅人)=라인(邏人)이라면 그것은 C의 용례에 있어 "순(巡)라(邏)하는 자(者)"라는 뜻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문에서 '라인(羅人)=라인(邏人)'과 '수병(戍兵)'의 의미상에 중복이 있는 표현을 3회나 사용하여 '라인수병(羅人戍兵)'이라 구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즉, '라수병(邏戍兵)'이나 '라수인(邏戍人)' 쪽에서 충분하였을 것인데 그것을 '라인(羅人)·수병(戍兵)'으로 나누어 써서 3곳이나 강조한 것은 위화감이 있다.

돌아보면 비문에서는 군관계의 것을 서술할 때 '군(軍)', '병(兵)', '당(幢)', '사(師)' 등을 사용하여 '인(人)'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가) '殘國軍'I九(I面 9行), '官軍'II八 '□軍'I九 '軍'III六

27) 武田幸男(1989), 앞의 책, 82쪽

(나) '偏師'II五, '□師'III五
(다) '步騎'II八, III四
(라) '戍兵'II九, II十, III二
(마) '王幢'III四

'군(軍)', '병(兵)', '사(師)', '당(幢)', '보기(步騎)'는 군사(軍師)를 가리키는 용어다. (가)의 '군(軍)'의 경우 고구려의 군을 가리킨다. 또한, '관군(官軍)'의 '관(官)'은 당연히 고구려군을 나타낸다. '□군(□軍)'의 □은 불명인데, 앞의 '왕궁솔(王躬率)'에서 고구려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잔국군(殘國軍)'의 '잔국(殘國)'은 백잔(百殘), 즉 백제이며 백제군을 가리킨다. (나)의 '사(師)'의 경우, '편(偏)'은 사(師)의 소속·배속(配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사(師)의 규모를 한정하는 수식어에 불과하다. '□사(□師)'는 □이 사(師)가 한정하는 말인지 어떤지 명확하지 않다. (다)의 '보기(步騎)'는 (가)(나)(마)와 달리 병종(兵種)을 특정하여 쓰는 법인데 군사일반(軍師一般)을 칭하는 말임에는 변함이 없다. '보기'의 앞에 오는 말이 없어 전후관계로 보아 고구려의 보기다. (라)의 '수병(戍兵)'은 반드시 '안라인(安羅人)'과 조합을 이룬다. 여기서의 쟁점이므로 보류해둔다. (마)의 '당(幢)'도 '왕(王)'이 덧붙여져 있어 고구려군임은 이를 나위도 없다. 이상을 보면 병종(兵種)의 용어 앞에 오는 말 즉 '관(官)', '왕(王)', '잔국(殘國)'은 한정되는 병종의 소속을 나타낸다. 소속을 나타내는 관어(冠語)가 없는 것은, 고구려인데 그것은 '비문(碑文)'의 성격으로 보아 당연할 것이다. '편사(偏師)'의 편(偏)은 소속을 보여주는 한정어가 아니라 수식어인 점에서 관칭(冠稱)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기(前記)의 관칭어(冠稱語)없는 고구려 소속의 원칙에 적용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라병(邏兵)', '라군(邏軍)', '라사(邏師)'가 아닌 '라인(邏人)'이라는 표기는 부자연스러우며, 또한 순라병(巡邏兵)·라병(邏兵)을 '라인(羅人)'이라는 용자(用字)에 집착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은 '라(邏)'인 용자를 일부러

국명(國名)과 혼동하기 쉬운 '라(羅)'글자를 사용하였다는 것, 또한 '수인(戍人)'이 아니라 '수병(戍兵)'으로 한 데 대해, '라병(羅兵)'이 아니라 '라인(羅人)'이라고 한 것도 크게 의문이 남는다.[28]

상술한 바와 같이 '수병'이라는 군사(軍師)관계 용어 앞에 소속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안라인(安羅人)'은 수병(戍兵)의 소속, 즉 상기에서 본 비문의 '인(人)'의 용법 중 B에 해당한다. 이상의 제검토로 보아 A안, 즉 '안라인[安羅人, 아라인(阿羅人)]의 수병'이라고 보는 설을 지지한다. 이 경우 안라인 D의 인(人)은 상기의 용법 B, 즉 종족 내지 국가명에 해당할 것이다. 즉, 안라인은 수병의 출자·소속을 한정하는 말로 간주된다.

〈표 1〉 군사관계 용어의 접두자의 분류표

	군(軍)	편사(偏師)	사(師)	당(幢)	보기(步騎)	수병(戍兵)	소속
'잔국(殘國)'	1						백제[백잔(百殘)]
'안라인(安羅人)'						3	안라(安羅)
없음	1	1			2		고구려
'왕(王)'				1			고구려
'관(官)'	1						고구려
□	1		1				고구려

3) 안라인수병의 실태

안라인수병은 안라인의 수병이다. 수병은 변방(邊防)의 병(兵)이다. 하지만 A설이라고 하더라도 구래(舊來)의 논자의 시좌(視座)를 그대로 계승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최초의 견해는 아오에 히데[靑江秀]에 의해 표명되었는데, 그는

28) 金泰植(주7의 논문)도 B2설을 제창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高寬敏을 중심으로 한 B설 주장자들의 근거와 중복되므로, 그에 대한 반론은 생략한다.

일본 속령으로서의 안라와 수병을 연상하고,[29] 또한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는 일본의 속령 일부로서 안라가 이 전역(戰役)에서 공동출병하였다고 하였다.[30] 즉, 안라를 왜(倭)로의 복속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안라인수병도 그 위에 자리매김하였는데, 오늘날 그러한 부류의 시점은 성립하지 않는다.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안라인으로 조직된 변방군(邊防軍)이며, 일본군의 별동대(別働隊)로 여겼다.[31] 스에마쓰가 말하는 "안라인으로 조직된 변방군"은 유효할 수 있지만, '일본군의 별동대'란 왜의 용병(傭兵)으로 해석되는데, 그것은 근거가 부족해[32] 따를 수 없다.

400년(영락 10, 경자년)경에 왜는 남거성(男居城)에서 신라성(新羅城)에 이르기까지 가득차 있었던—'만(滿)'상태였다. 신라성이란 신라국내의 제성에 대한 범칭(汎稱)이거나 신라의 왕성이라는 고유명사일 것인데, 남거성이 고유명사인 점에서 신라성도 고유명사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고구려의 구원군은 먼저 그 남거성—신라성 전선에 투입되어 왜를 패퇴시키고,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추격하여 종발성을 '귀복'시켰다. 임나가라는 후술한다.

종발성에 대한 추격전에 고구려군이 투입될 무렵에, 안라인수병은 다시 배후의 '신□□□성(新□□□城)'에 대한 공격을 하여 이에 왜도 연루되었다. 그 후는 흠자(欠字)가 많고, 확실하게 읽을 수 없지만 안라인수병이 다시 2회나 등장한다. 또한 최후의 매듭에서도 고구려의 안라인수병에 관한 공세였던 것은 남부전선에서 안라인수병이 맹활동(猛活動)했었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한다.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구원전은 대성공을 거두고 신라는 일찍이 없었던 매금[寐

29) 靑江秀(1884), 『東扶餘永樂大王碑銘解』
30) 池內宏(1947), 『日本上代史の硏究』, 75쪽
31) 末松保和(1996), 『古代の日本と朝鮮』, 57쪽(初出, 『任那興亡史』, 74쪽)
32) 鈴木靖民(1990), 앞의 글, 254쪽

錦, 왕(王)]의 '신래론사(身來論事)', 조공을 단행하여 고구려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33] 이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남부전선에서 왜가 참패하였던 것과 같다. 주의해야할 것은 경자 전투에 가야제국(加耶諸國)이 깊게 관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왜의 패주(敗走)의 종저역(終著驛)이 임나가라였다는 것은 왜의 남거성-신라성 진공에 임나가라가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또한 안라도 그 수병이 왜의 대신라-고구려전에 연휴(連携)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자 전투의 주전장(主戰場)은 임나가라와 안라 부근, 즉 경상도로 여겨진다.[34] 단 안라가 아니라 안라인수병만이 확인할 수 있어서 어디까지나 안라출신의 수병활동에 관련된 것이며 안라까지 전장(戰場)이 되었는지 어떤지는 확인할 수 없다. 남거성-신라성의 전선(戰線)이 어디까지인가는 불분명하지만, 왜가 임나가라를 발신지로 해서 출동한 것, 종발성이 임나가라인 점과 신라성이 신라왕도(新羅王都) 부근인 점으로 보아 신라의 왕도(王都)에서 임나가라에 걸친 제성(諸城)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전장은 경주(慶州)에서 김해(金海)를 연결하는 경상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임나가라·안라가 왜와 함께 고구려·신라에 참패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전장에서의 안라출신 수병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4세기 말 5세기 초의 가야제국의 동정(動靜)을 보는 데 있어 중요하다.

안라는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한조(韓條)에 보면 3세기경 변진사회(弁辰社會)에서 구야(狗邪)와 함께 양축을 이루고 있었던 안야(安邪)였다.[35] 또한

33) "僕句"라는 판독이 확실하다면, 王族 僕句(=葛戶)의 出質도 비문에 명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4) 武田幸男(1989), 앞의 책, 120쪽.

35) 『三國志』 魏志 韓傳條에 보이는 臣智의 呼稱 "臣雲遣支報安邪踧支濆臣離兒不例拘邪

6세기경은 가라(加羅)와 함께 2강(强)을 형성하고 있었다.[36] 당해(當該)사료는 그 3세기의 안야가 4세기 말 5세기 초에도 여전히 임나가라(김해)와 함께 가야제국의 유력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4) 임나가라

임나와 가라의 칭호는 5세기 후반의 왜 오왕(五王)의 칭호를 보면 왜 측은 임나와 가라를 다른 객체·국(國)으로 병칭하고 있다. 또한, 『일본서기』에서는 임나는 광의의 제국(諸國)을 가리키는 반면, 가라는 고령(高靈) 일국(一國)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예에서 임나와 가라 사이에 상호 충돌은 없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기』 열전 〈강수(强首)〉조의 '임나가량(任那加良)'이다. 가야(加耶), 가라(加羅), 가량(加良) 모두 다른 표기다. '임나가라'라고 할 때 임나와 가라의 관계에서 ①임나가 가라를 포섭하는지, 아니면 ②가라가 임나를 포섭하는지, 혹은 ③양방 모두 포섭하지 않고 병립대치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임나가라종발성(任那加羅從拔城)', 즉 임나가라의 종발성이라는 어구로 보면 ③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안라가 동시에 '임나안라(任那安羅)'라고 칭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②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임나는 넓은 의미가 아니라, 특정지역 혹은 가라에 한정되는 것이다.

임나가라의 위치에 관해서는 경북 고령과 경남 김해의 두 설이 있으며, 양자 모두 절대적인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며 고령보다도 김해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비문의 임나가라가 임나와 관계있다고 한다면, 왜의 퇴각로에 있는 것으로 보아 김해가 보다 적합하다. 즉, 임나가라는 왜와 밀접하게 연계되

秦支廉" 武田幸男(1995·1996), 「三韓社會における辰王と臣智(上)·(下)」, 『朝鮮文化研究』 2·3 참조

36) 拙稿(1998), 「加耶諸國の權力構造」, 『國史學』 164

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구야, 즉 김해가 더 어울린다. 고령세력이 역사의 무대에 부각되는 것은 5세기 후반경부터이며,[37] 3세기경에 가야제국 가운데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김해(구야)와 함안[阿羅, 안야(安邪)]지역이었음을 고려하면 임나가라를 고령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38]

또한, 임나가라는 왜 오왕의 칭호에서는 임나와 가라의 2국(國)이 되고 있는데, 비문에서는 '임나가라종발성', 즉 '임나가라의 종발성'이라고 한 문언으로 보아 2국이 아니라 1국이었다.

종발성이 임나가라의 어디인지를 특정하기란 곤란한데, 고구려군이 도망가는 왜를 추격해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는 것은 임나가라가 왜와 밀접한 연휴를 갖고 있었으며 종발성은 신라공격 거점의 하나로써 기능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전쟁 속의 가야 여러 나라

영락 10년 고구려의 신라구원은 그 작전영역이 신라를 넘어 ④에 있는 바와 같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도 전화(戰火)에 연루되었다. 그 전쟁에 참가한 것은 제국 가운데 임나가라와 안라였다. 양국은 3세기경부터 변진제국(弁辰諸國)을 대표하는 유력국이었는데, 4세기 말~5세기 초까지도 그 구도에

37) 倭 五王의 칭호에서 加羅가 등장하는 것은 541년부터다.

38) 그 외에 任那加羅가 昌原의 任那國과 金海의 加羅國의 합칭으로 보는 신설이 제출되어, 慶尙南道 昌原의 4세기 이전의 국명은 彌烏邪馬國이며, 그것은 任那國이라고 한다.(金泰植, 주7의 논문, 107쪽) 이 가설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입론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4세기 말의 昌原－金海연합국가가 任那加羅라고 하는 주장은 찬동하기 힘들다. 특히 6세기에 昌原의 卓淳과 金海의 南加羅(金官)가 각각 분립되어 있고, 金官의 왕족의 후예가 任那의 왕족을 자칭하여, 그것이 新金氏라고 하는 점(『鎭鏡大師碑文』)에서, 任那는 金海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양국은 왜와 협력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는데 특히 활동이 두드러진 것은 안라였다.

임나가라의 종발성이 고구려에 귀복함과 동시에 전장이 된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은 타격을 받고 이후 가야사회의 재편성이 가속화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같은 가야제국(加耶諸國)의 유력국, 지역적으로는 동남부가야(東南部加耶)의 전쟁참가 배경은 4세기 후반에 걸친 칠지도(七支刀), 또한 신공기(神功紀) 46년조에 보이듯, 동진(東晉) – 백제 – 왜 동맹관계의 성립[39]과 그 라인에 임나가라와 안라 양국이 편입된 것에 있다.

종발성의 '귀복'을 단지 임나가라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로 연계짓는 것은 속단이다. 비문의 문면(文面)으로 보아 정복후의 백제, 숙신(肅愼), 동부여(東扶餘)와 군원후(軍援後)의 신라가 '조공'관계로 설정된 것과 비교해서 임나가라는 지배복속관계의 구축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일시적인 성(城)의 강복(降服)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안라(지금의 경남 함안)는 수병을 파견하는 형태로 참전하였다. 하지만 고구려가 신라구원을 위해 출동한 바, 왜가 가득차 있던 신라성에 남거성으로부터 이르자 전술한 바와 같이 신라의 왕도에서 임나가라에 걸친 제성(諸城)이었다고 추측되며 또한 안라인의 수병이 활동한 무대도 그와 중복된다고 보인다. 안라인의 수병이 기능한 장(場)은 가야의 대신라전선이며, 가야제국의 병력동원과 작전의 단위가 소국별(小國別)로 행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안라는 병력

39) 鈴木靖民(1983), 「石上神功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日本史學論集』上卷(坂本太郎博士頌壽記念), 217~220쪽에서는 七支刀를 중심으로 東晉 – 百濟 – 倭의 관계성립을 입증한다. 金鉉球(1994), 「4世紀加耶와 百濟·야마토倭의 關係」, 『韓國古代史論叢』 6, 124쪽은 神功紀 46년의 해석을 통하여 百濟 – 倭의 관계성립을 제창하고 있다.

을, 임나가라는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왜에 협력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록에는 가야와 신라의 교전기사가 자주 나타나며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 脫解尼師今二一年秋八月, 阿飡吉門與加耶兵, 戰於黃山津口, 獲一千餘級, 以吉門爲波珍, 賞功也.
b. 婆娑尼師今十五年春二月, 加耶賊圍馬頭城, 遣阿飡吉元, 將騎一千擊走之.
c. 婆娑尼師今十七年九月, 加耶人襲南部, 遣加召城主長世拒之, 爲賊所殺. 王怒, 率勇士五千, 出戰敗之, 虜獲甚多.
d. 婆娑尼師今二十七年秋八月, 命馬頭城主, 伐加耶.
e. 婆娑尼師今二十九年夏五月, 遣兵伐比只國·多伐國·草八國, 竝之.
f. 祇摩尼師今四年春二月, 加耶寇南邊.
g. 祇摩尼師今四年秋七月, 親征加耶, 師步騎度黃山河, 加耶人伏兵林薄, 以待之, 王不覺直前, 伏發圍數重, 王揮軍奮擊, 決圍而退.
h. 祇摩尼師今五年秋八月, 遣將侵加耶, 王帥精兵一萬, 以繼之. 加耶嬰城固守, 會久雨, 乃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장으로 등장하는 것은 황산진(黃山津)·황산하(黃山河, a, g), 마두성(馬頭城, b, d), 남변(南邊)·남부(南部, c, f)다. 황산하는 낙동강(洛東江) 하류의 그것이며, 황산진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 마두성도 그 낙동강 하류의 북안(北岸)지역으로 보이며,[40] 또한, 남변·남부도 그들과 관련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와의 전쟁 주체가 된 '가야'란 김해세력과 관계가 깊다. 이상의 기사 기년(紀年)을 그대로 받

40) 馬頭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慶尙南道 居昌郡 馬利로 보는 설과 慶尙北道 淸道郡 馬耳山頂으로 보는 설이 있다. 제설의 정리는 李永植(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164쪽 참조

아들일 수는 없지만, 기사에서 낙동강 하류를 경계로 신라와 김해세력이 공방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e의 비지국(比只國)·다벌국(多伐國)·초팔국(草八國)은 그 비정에 정견이 없지만 그들이 가야제국과 관련 있다고 한다면[41] 신라의 가야지역에 대한 공격이 격화일로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라와 김해세력의 공방이 격화되었던 것을 비문과 결부지어 생각하면 그것은 400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 대충 4세기 후반의 상황이라고 추단된다. 즉, 신라와의 항쟁이 격화되는 한편에 임나가라는 왜의 군사력을 대신라전선에 투입하였다고 보인다. 경자년의 왜가 신라를 휘어잡았던 것과 그 전진기지가 임나가라였다는 점, 그 왜의 작전에는 임나가라와 안라 등이 깊이 연루되었던 사실 등은 그를 이야기한다.

두 나라는 대신라전선에 참가하였는데 다른 가야제국의 사정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야제국 가운데 임나가라, 안라라는 동남부제국(東南部諸國)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 시기에 북부가야제국(北部加耶諸國)의 동향을 알 수는 없는데, 대신라전선에 대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북부가야가 대신라전선에 참가하지 않았던가, 참가했더라도 특기할 만한 활동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요컨대 10년조에서는 가야제국 가운데 임나가라와 안라의 남부가야가 대신라전선의 중심이 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신공(神功) 62년조에서 인용한 바 『백제기』의 가라 기사는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 壬午年, 新羅不奉貴國. 々々遣沙至比跪令討之. 新羅人莊飾美女二人, 迎誘於津. 沙至比跪, 受其美女, 反伐加羅國, 々々々王己本旱岐, 及兒百久至·

41) 예를 들면, 比只는 比斯伐(昌寧)로 보는 것 등이다.

阿首至·國沙利·伊羅麻酒·爾 至等, 將其人民, 來奔百濟. 百濟厚遇之.

여기서 '가라'가 고령으로 간주되어 4세기 후반에 고령세력[당시의 이름은 '반파(伴跛)', '반로(半路)'[42]였을 것으로 추정]은 왜의 가야지역에 대한 진출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백제에 구원을 구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임오년(壬午年)은 382년으로 간주되며, 영락 10년 전쟁부터 18년 전의 사건이다. 북부가야(北部加耶)는 영락 10년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배경은 임오년 사건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반파, 다라(多羅) 등의 움직임을 비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양세력이 아직 3세기 말의 단계에서는 유력세력으로 성장하지 않았거나 백제－왜 노선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다. 만약 후자라면 가야지역은 남부와 북부가 각각 정치적·대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통합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일 따름이다.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왜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부가야지역을 주목하기로 한다.

이상에서 백제－안라－임나가라－왜의 공동전선 성립 및 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영락 14년(404)조

①十四年甲辰. ②而倭不軌. 侵入帶方界. (a)□□□□□石城□連船□□□□ ③躬率□□. 從平穰□□□鋒相遇. ④王幢要截盪F. 倭寇潰敗. 斬殺無數.

42) 伴跛와 半路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은 那珂通世(『那珂通世遺書』)이다.

①은 연차(年次)와 간지(幹支), ②는 전치문이며 그것이 어디까지 걸리는가인데, 계(界)에서 궁솔(躬率)까지의 사이의 어딘가 일 것이다. 전치는 물론 왜의 대방(帶方)침입과 그 구체상황을 썼다고 한다면, (a)부분의 석성(石城) 등은 그 왜가 공격한 성(城) 등이 된다. 또한 연선(連船)은 ③궁솔부에 걸리는 어구인지 ②의 왜불궤(倭不軌)와 관련되는 바인지 확정할 수 없다. ③궁솔의 앞 빈칸의 어딘가에 '왕(王)' 글자가 있는 것이 궁솔형의 패턴일 것이다. 그 뒤의 '종평양(從平穰) ……'은 정복 코스다. (a)부분은 동시에 왕의 군대, 즉 왕당(王幢)이 왜를 탕자(盪刺)하고, 궤패시킨 무대이기도 하다. 즉, 왜의 침입에 대한 방어전이었다. 대방계란 고구려 남서부의 남계(南界)이며 왜가 적진의 깊숙이까지 침입한 것은 400년의 신라-임나가라전선에서의 참패에 대한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단지 왜가 고구려의 남계까지 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병참선이 너무 길어서 아마도 백제에 군량을 지원받아 대방계의 지리에도 상세하였을 백제의 협력을 얻어 수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즉, 왜의 침입은 백제의 지원 아래 수행되고 백제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대방계까지의 왜군은 아마도 해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육로든 해로든 가야제국과 백제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작전은 백제-가야제국-왜의 동맹관계 아래 수행되었다고 보인다. 갑진년(甲辰年, 404)의 전투는 백제의 대고구려최전선에 왜군을 투입하였다는 측면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영락 17년(407)조

①十七年丁未. ②敎遣步騎五萬. ③□□□□□□□□□師□□合戰. ④斬殺蕩盡. 所穫鎧鉀, 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⑤還破 (b)沙溝城·婁城·□住城·□□□□□□·那□城.

②의 고구려군 파견 규모는 경자 전투의 파견규모와 동일한 '보병과 기병 50,000[步騎五萬]'이다. '사(師)'는 고구려왕의 사(師)로 추정되며, '□□합전(□□合戰)'은 교전 상대와의 합전일 것이다. ④는 전투의 결과이며, 그 표현과 획득한 전리품으로 보아 압승이라고 할 수 있다. ⑤는 돌아오는 도중에서 획득한 성들이다. 무너뜨린 여러 성은 합전 상대를 추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다케다 유키오는 a의 사(沙), b의 루(婁), e의 나(那)가 예전 백제 성의 이름임을 지적하고, 합전의 전장은 백제라고 하였다.[43] 수묘인연호조(守墓人煙戶條)와 6년조의 모루성(牟婁城)·고모루성(古牟婁城), 6년조의 어루성(於婁城)·연루성(燕婁城)·고추루성(古鄒婁城) 등 △루성(△婁城)이라는 이름의 성이 많아서, b의 루성도 그러한 루계열의 성명일 것이다. 이것은 백제에도 고구려에도 보이는 지명이다. 더욱이 e나□성(那□城)은 나단성(那旦城)일 가능성이 있으며, a사구성(沙溝城)은 사수성(沙水城)과 중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영락 6년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빼앗은 성과도 중복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 부근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전투 상대에 백제가 포함되었다는 지적은 올바르다. d는 3성(城) 내지 2성일 것이다.

43) 武田幸男(1989), 앞의 책, 216~217쪽

〈표 2〉 17년조에 보이는 성(城)

번호	성명(城名)	비고
a	사구성(沙溝城)	사수성(沙水城)과 중복될 가능성 있음
b	루성(婁城)	
c	□주성(□住城)	
d	□□□□□성(□□□□□城)	최대한 3성(城)의 가능성 있음
e	나□성(那□城)	나단성(那旦城)일 가능성 있음

〈표 3〉 각년조의 출동상황

영락년 간지	출동명목/대상	정토 규모/방법	전과·전리품/조치
六年丙申 (396)	百濟의 臣民化/ 討伐殘國(百濟)	王躬率□軍討伐/ 南攻取寧八城 등 五十八城	① 男女生口一千人 ② 細布千匹 ③ 跪王自誓 ④ 得五十八城村七百 ⑤ 百殘主弟並大臣十人
九年己亥 (399)	百濟와 倭의 和通/?	【巡下】/歸王請命	太王恩慈, 稱其忠誠□遣使還告以□計
十年庚子 (400)	往救新羅/倭	敎遣步騎五萬/ 倭·任那加羅·安羅人戍兵을 潰·服	新羅寐錦의 身來論事와 朝貢開始
十四年甲辰 (404)	帶方界侵入/倭	□躬率□□. 從平穰□□□鋒相遇. 王幢要截盪刺.	倭寇潰敗. 斬殺無數
十七年丁未 (417)	不明/百濟+a	敎遣步騎五萬.	斬殺 盡. 所穫鎧. 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 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광개토왕의 남진과 남부 여러 나라의 대응

1. 고구려의 남진과 백제의 패배

1) 고구려 남진의 유형

고구려 광개토왕의 중국을 제외한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진출에는 ①'궤왕'관계 ②'귀왕청명'관계[44] ③'조공·논사'관계[45]의 3가지가 있다.

②'귀왕청명'은 영락 9년에 보이는 신라의 경우다. '귀왕'의 '귀'는 '비문'의 표현에 의하면 '귀복'하는 것, '왕'은 물론 광개토왕을 가리키며, '광개토왕에 귀복하는 것'이고, '청명'은 명령·지령을 바라는 것이어서, 백제가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명령을 청하는 것이다. 『의예(儀禮)』, 『빈예(賓禮)』에 의하면 '幾筵旣設, 擯者出請命'이라는 주(註)에 '請受賓所以來之命'이라고 되어 있다. 즉, 신라왕의 사신이 신라왕 대신에 고구려 광개토왕 조정의 기연(幾筵)에 나온 이래 명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왕자(王者)의 덕화에 감화시킨 자발적인 귀순이다. 이는 '귀왕청명'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③의 '조공'은 제후·속국이 천자의 조정에게 내조해서 공납물을 헌상하는 행위다. 즉, 신속을 전제로 내조와 공물을 공반하는 관계이다. 영락 8년의 숙신과 영락 19년의 신라의 관계가 그것에 해당한다. 신라의 경우에서 보면 '귀왕청명'단계는 '조공'단계보다는 느슨한 앞 단계다.[46] 또한, '논사'란 사를 논

44) 武田幸男(1989), 「高句麗勢力圏の展開過程」(주17의 책)에서 '跪王', '歸王'관계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

45) 武田幸男(1989), 「〈朝貢〉關係の基本性格」(주17의 책)에서는 朝貢관계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

46) 武田幸男(1989), 앞의 책

하여 설의(說議)하는 것을 일컫는다. '논사'란 '조공'과 조합이되는 불가분의 관계이며,[47] 이것은 '조공·논사'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①의 '궤왕'은 왕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며 왕은 물론 광개토왕이다. 궤배(跪拜)란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며, 공경의 예(禮)다. 궤배예는 중국고래(中國古來)의 것이다. 즉, 이것은 중국에서 양성(釀成)되어 고구려에서 이차적으로 의례화한 것이다. 일찍이 3세기 단계에서 고구려에서는 '궤배'의 예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백제의 전신이었던 한(韓)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의 의예를 백제에게 밀어붙여 강요한 점에서 '귀왕청명'과는 다르다.

'비문'에서 '왕'은 광개토왕이다. 즉, 광개토왕 이외에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백제왕은 어디까지나 백잔 '주(主)'이며, 신라왕도 신라 '매금(寐錦)'이어서 결코 '왕'일 수 없다. 즉, 고구려왕을 정점으로 한 고구려중심천하관의 성립을 본다. 주변각국은 '조공(논사)'·'귀왕청명'·'궤왕'관계를 통해 고구려왕의 노객·속민이 되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백제의 패전과 항복

396년(영락 6)의 고구려의 백제격파에 의해 백제는 북부의 58성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또한 왕성한성(王城漢城, 지금의 서울)이 포위되어 백제의 아화왕[阿華王, 아신왕(阿莘王)]은 남녀 포로 1,000명과 세포 1,000필을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봉헌하고 또한 이미 고구려에 빼앗긴 58성·700촌에 관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궤(跪)'하여 영원히 고구려의 '노객'이 될 것을 서약하였다. 이는 패자의 패배선언이며 백제 아화왕의 고구려

47) 八年戊戌, 教遣偏師, 觀肅愼土穀, 因便抄得莫□羅城加太羅穀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論事.

광개토왕에 대한 복속의례였다. 그 패배는 전쟁배상과 영토이양이라는 실질적인 손실을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인질 및 궤왕·노객서약의 복속의례 조차 강요받았다. '궤왕'의 궤의 의례는 '한쪽 다리를 펼치는' 고구려 독특한 풍습으로 남(南)의 한(韓) 사회에서는 그 궤배의 예는 없었다.[48] 그 궤왕관계는 귀왕청명과는 다르며, 무력·강제에 의한 점에서 특징이 있다. 즉, 고구려는 자기중심세계에 백제를 편입하여 고구려식의 의례를 패전국 백제에게 강요한 것이다. 백제의 '노객' 서약은 그러한 분위기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이 서약은 폐쇄적인 고구려일원외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화왕 정권에게는 왕권의 위신실추이며 백제 존립의 위기이기도 하였다.

2. 백제의 대응 : '화통'과 후방공격

1) 왜와의 '화통'관계

굴욕을 맛본 백제는 '궤왕'사건 후, 고구려가 물러나자 이듬해 397년(아화왕 6) 왜국과 결호(結好)를 맺고 태자인 전지(腆支)를 인질로 보낸다.[49] 고구려 속민 상태를 왜와의 수호에 의해 타파하려했던 것이다. 아화왕의 '여왜국결호(與倭國結好)'는 비문 영락 9년조의 '여왜화통(與倭和通)'과 같다. 즉, 백제는 왜와 '화통' 관계를 맺고, 고구려 종속의 고착화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백제는 왜와의 연맹으로 왜의 군사력을 대고구려전선 혹은 백제의 대외확장전선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영락 10년과 14년에 왜가 신라지역과 대방지역에 군사적 진출을 보인 것은 백제와의 '화통'관계에 바탕을 둔 활동이었다고 보인다.

48) 『三國志』 高句麗傳 및 韓傳
49) 『三國史記』 百濟本記 阿花王 6

2) 가야 여러 나라와 연계

400년에 임나가라와 안라가 경상도 대고구려전선에서 고구려군과 전투하였다. 임나가라는 종발성을 왜의 도망처로 제공하였으며, 안라는 수병을 대고구려 후방전선에서 활동케 하였다. 임나가라와 안라는 백제-왜의 연맹에 가담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단 영락 연간에 왜와 같이 대방지역까지 원정하거나 신라성까지 진격하는 등 전선의 전방에서 활동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즉, 영락 연간 혹은 백제 아화왕 연간에도 가야제국은 백제의 대고구려연맹에 참가하였지만 왜가 백제의 대고구려 최전선인 대방지역까지 동원되고 또한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걸쳐서의 신라지역에서 신라 교란활동을 펼치는 등 전선의 도처에서 활동하게 되어 경상지방에서의 활동에만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기지제공·수비병파견 등의 후방전선에서의 활동에 제한되고 있다.

대고구려전선에 전력을 기울이던 백제는 가야제국과는 기본적으로 우호·연맹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대신라견제의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된다. 백제는 신라가 고구려와 연맹하여 백제의 후방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이다.

가야제국은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백제와 왜에 비해 그다지 경계 대상이 될 정도의 위협을 준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신라사신의 보고에서 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야제국은 문제시되지 않았던 점이 그것을 잘 이야기한다.

또한, 고구려 측에 '가야'라는 일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임나가라라든가 안라 등의 개별적 개념에서 인식되고 있었던 점에서 가야제국은 영락 연간에는 제국분립 내지 병립의 상태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영락 9년의 '여왜화통'의 시점에서 백제-왜-임나가라·안라의 가야제국 연합이 성립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고구려에 대한 간접공격

백제는 왜 및 가야와의 연맹 아래, 고구려의 후방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고 왜의 군사력을 살리려고 하였다. 즉 '화통' 이후, 조선반도 내 왜의 활동은 활발하여, 399년에는 왜가 신라의 남부전선을 흔들고 또한 400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인 대방계를 공격하였다. 왜의 고구려공격과 신라공격의 배후에는 각각 재지의 백제와 가야제국의 협력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가야제국의 군량과 보급, 기지의 조달·제공 등 절대적 후원 아래 이루어졌다. 왜의 행동은 백제와의 연계에 의한 것이었으며, 백제는 왜를 전면에 세워 우선은 고구려 배후에 있는 신라를, 다음은 고구려 남부인 대방계를 공격하게 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직접대전을 회피하고, 백제가 전장이 되는 것을 해소하면서도 고구려를 위협하는 간접적이면서 효율적인 고구려 견제책을 취하였다. 또한, 406년 백제가 20년 만에 중국의 진(晉)에 견사조공(遣使朝貢)을 시도한 것도[50] 백제의 국면타개책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고구려의 백제 재침과 '노객'관계의 해소

고구려 5만의 보기(步騎)를 출동하였던 신라남부와 가야남동부를 걸치는 원정은 신라구원을 달성하고, 왜와 임나가라·안라에는 타격을 주었지만, 고구려가 얻은 것은 신라의 조공개시 이외에는 없고, 또한 왜와 가야제국의 배후에 있는 백제에 다대한 손상을 주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아직 고구려 남방

50) 『三國史記』 百濟本紀 腆支王 2년. 이 조공 사실은 『晉書』 등 中國史書에 없는 『三國史記』만의 독특한 기사이지만, 거기에 적어도 百濟 측이 조공하려고 한 의도는 인정해도 좋을 것이다.

에 백제의 지뢰는 남아 있었다. 이에 영락 17년(407)에 고구려는 5만의 보기를 출동하여 백제를 토벌하여 이완한 '노객'관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실로 400년에서 7년만의 대군 출동이었다. 그러나 400년에 거둔 대승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396년처럼 백제에게 '궤왕'을 강제하고 느슨해진 노객관계를 재확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백제의 완강한 항전에 부딪혀, 사구성(沙溝城)·루성(婁城)·□주성(□住城)·□□□□□□·나□성(那□城) 등을 획득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 때문에 종래 고구려·백제의 주종관계, 즉 '궤왕'관계는 소멸을 맞이하였다. 396~399년에 걸쳐 성립을 본 고구려의 백제·신라 속민화는 400년의 경상지방원정을 정점으로 신라의 복속이 심화되는 한편에, 백제의 이탈이 시작되어 404년에는 백제의 노객관계 해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진에 체증을 가져와 410년(영락 20년)에 남쪽이 아니라 동쪽의 동부여(東夫餘)에 대해 검을 향하게 되는 것이 이를 상징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 광개토왕비문의 가야 : 결론을 대신하여

비문에 비친 임나가라·안라의 모습은 고구려에 있어서 백제와 왜 만큼 경계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고구려에 백제와 왜, 가야제국이 위협적 존재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396년의 패전(敗戰)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고 또한 고구려로부터 '궤왕·노객'관계를 강화한 백제의 아화왕은 고구려의 철퇴에 이어 곧바로 이듬해인 397년, 왜와 우호를 맺고 태자 전지를 왜에 파견하는 적극적 남방외교를 추진하였다. 백제의 남방외교란 왜를 중심으로 가야제국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4세기 후반부터 개시된 남방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협조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왜와 가야제국의 군사력을 백제의 대고구려전선에 넣어두는 구상이다. 그것은 남방세력과의 연맹을 통해 우선 배후의 남방에 대한 안전보장의 부담을 덜고 또한 왜와 가야에 의한 신라견제로 신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다음에 직접 고구려에 대한 공격에도 왜의 군사력을 충분히 동원한다는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계획이었다. 계획은 백제의 의도대로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백제－왜의 동맹에 들어 온 가야제국은 당연 신라와 고구려가 당면의 적이 되었다. 흠명(欽明) 2년 4월조의 성명왕(聖明王)의 언급에서 '석(昔)①신라청원어고려(新羅請援於高麗), ②이공격임나여백제(而攻擊任那與百濟), 상불극지(尙不剋之)'는 실로 '비문'의 사실과 일치한다. ①은 399년 신라의 구원요청을 말하며, ②는 400년 고구려의 신라구원전을 가리킨다.

삼한시대 이래, 철의 수출을 통해 변한[弁韓, 변진(弁辰)]·왜의 교역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지리적으로 그 교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가야['구야(狗邪)'·'가라(加羅)', 이른바 '금관(金官)', 지금의 김해]였다. 한편 변한의 유력국이었던 구사, 즉 가야는 진한(辰韓)의 강자 사로국(斯盧國)과의 경쟁관계에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의 가야관계기사에서 가야와 신라의 빈번한 전쟁은 황산강(黃山江)을 무대로 하고 있다.[51] 기사의 신빙성과 연대관에는 문제가 많지만, 황산강이란 지금의 낙동강 하류를 가리키는 점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그것은 사로국의 영역확대와 구사국의 성장에 의해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충돌한 것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래 신라와 경합하였던 가야, 즉 임나가라 등 남부가야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 왜 및 백제와 우호관계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 4세기 중엽 탁순(卓淳)이 백제를 왜에 중개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4세기 중엽 이후의 가야제국의 대외정책은 396년 대참패를 맛본 백제가 대고구려 방어전선의 강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왕 왜와의 연휴를 강화·회복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며, 가야제국 특히 임나가라와 안라는 한층 그 왜의 신라공격에 임하여 공동전선에 서게 되었다. 남부가야 참전의 배경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1) 脫解尼師今 21년, 祇摩尼師今 4년. 각각 서력으로 환산하면 77년과 115년이 된다.

高寬敏(1991),「廣開土王陵碑文における辛卯年條について」,『大阪經濟法科大學アジア研究所年報』2
久米邦武(1915),『日本古代史』下(訂正增補大日本時代史 8), 早稻田大學出版部
金泰植(1994),「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韓國古代史論叢』6
金鉉球(1994),「4世紀加耶와 百濟 · 야마토倭의 關係」,『韓國古代史論叢』6
鈴木英夫(1996),「高句麗『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鈴木英夫(1996),『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鈴木靖民(1983),「石上神功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日本史學論集』上卷(阪本太郎博士頌壽記念)
鈴木靖民(1990),「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最近の研究成果をめぐって」, 唐代史研究會 편,『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 刀水書房
李成市(1989),「蔚珍鳳坪新羅碑の基礎的研究」,『史學雜誌』98-6
李進熙(1972),『廣開土王陵碑の研究』
林基中(1995),『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出版部
末松保和(1996),『古代の日本と朝鮮』
武田幸男(1988),『廣開土王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武田幸男(1989),『高句麗と東アジア』
武田幸男(1995 · 1996),「三韓社會における辰王と臣智(上) · (下)」,『朝鮮文化研究』2 · 3
박시형(1966),『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
浜田耕策(1974),「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研究」,『朝鮮史研究會論文集』11
三宅米吉(1889),「高麗古碑考」,『考古學雜誌』2－1 · 2 · 3
水谷悌二郎(1959),『書品』100, 東洋書道協會
王健群(1984),『好太王碑の研究』
王健群(1984),『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이용현(2011),『(특별전)문자, 그 이후』, 國立中央博物館
이용현(1998),「加耶諸國の權力構造」,『國史學』164
任世權 · 李宇泰 편저(2002),「高句麗『廣開土王碑文』'加羅'關係記事の基礎的研究」,『韓國金石文集成(1) 高句麗1 廣開土王碑(圖錄編)』
前澤和之(1972),「廣開土王陵碑をめぐる二 · 三の問題－辛卯年部分を中心に」,『續日本紀研究』159
鄭寅普(1967),「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白樂濬博士還甲記念國學論叢』
早乙女雅博(1996),『高句麗廣開土王碑拓本』, 東京國立博物館
池內宏(1947),『日本上代史の研究』
靑江秀(1884),『東扶餘永樂大王碑銘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마다 코사쿠[濱田耕策]
한국고대사 전공, 규슈대학 교수
대표논저로는 『渤海國興亡史』(2000, 吉川弘文館), 『新羅國史의 硏究』(2000, 吉川弘文館), 『朝鮮古代史料硏究』(2012, 吉川弘文館), 「新羅의 遣唐使와 崔致遠」(2008, 『朝鮮學報』 206) 등이 있다.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하여

장수왕대 전기의 고구려 통치·평양천도까지

규슈대학 **하마다 코사쿠**

I. 머리말

고구려 제20대왕인 장수왕(長壽王)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91년조에 '왕흥(王薨), 98세[年九十八歲]'라고 기록되어 그 시호와 같이 장수하였다. 또 『위서(魏書)』 권100 고구려전에서도 '태화(太和) 15년(491)'에 흥거하여 '년(年), 백여 세(百餘歲)'로 되어 있다. 2개의 기록에는 수년의 차가 있다. 장수왕은 광개토왕의 장남이지만, 오늘날 장수왕의 치적은 아버지의 고명(高名)에 가려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다.

장수왕의 치세는 광개토왕의 치적을 토대로 국가운영을 추진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상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재위 79년간은 일본고대사로 따져보면 '왜(倭)의 오왕(五王)'의 시대에 해당한다. 그것은 왕의 치세가 중국의 남북조의 대외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고구려뿐 아니라 한반도의 백제·신라·가야와 왜국의 국가형성 과정과 이들 왕권에 커다란 영향을 직접·간접으로 미쳤을 것임을 생각하게 한다.

본론에서는 광개토왕시대가 고대사학계에서 주목받아 온 것과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장수왕의 치세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제국 국가형성과정의 문제로 부왕의 치적의 계승과 발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장수왕의 휘와 생몰년

장수왕의 휘(諱)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거련[巨連, 일작련(一作璉)]'이고, 『송서(宋書)』 권97 고구려전과 『위서』 권100 고구려전에서는 '련(璉)'이다. 후자의 '련'을 편(篇)과 방(旁)으로 2분하면 '왕련(王連)'이 되고, 전자의 '거련'과는 글자꼴이 유사하다. '거련'이 본래의 휘라면, '거(巨, 크다)련(連, 이어지다)'이라는 뜻으로 아버지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해야 한다는 기대로 명명했다고 추찰된다.

북위(北魏)와 송(宋)에 견사하여 책봉을 받는 중에, '거련' 뜻과 통하고 한 글자의 휘로서 '련(璉)'이 작자(作字)되었던가, 혹은 현재의 『삼국사기』가 인쇄되는 과정에서 '련'이 편과 방의 '왕련'으로 분리되지 않고 '거련'으로 잘못되었던가 하는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 광개토왕의 휘가 '안(安)' 한 글자였던 것으로 보아 아들인 장수왕의 휘도 '련' 한 글자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후자의 이해에 선다면 '거련' 휘의 표기는 현행 『삼국사기』가 '련'자를 잘못 읽고 그 오랜 치세와 업적을 평가한 나머지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하고, 혹은 계승했다는 평가에 서서 그 휘를 '거련'으로 했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는 광개토왕의 원자(元子)인 '련(璉)'이 409년(광개토왕 18)에 태자로 책봉되고, 413년에는 부왕의 훙거로 인하여 왕으로 즉위했다고 전한다. 또 『삼국사기』의 즉위기에는 장수왕에 대해서 '모습이 걸출하고 지기(志氣)가 호

협하다'라고 그 개성을 전하고 있다.

장수왕이 재위 79년인 98세에 훙거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로부터 역산하면 부왕의 즉위 3년인 393년에 탄생하고 태자로 책립된 해는 16세이며, 20세에 즉위했다는 것이 된다.

『위서』에서 장수왕은 '쇠(釗)'의 증손으로 되어 있다. 이 '쇠'를 『삼국사기』의 계보에서 찾아보면 광개토왕의 조부인 고국원왕이다. 또 『송서』 고구려전에 의하면, 즉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수왕은 '진(晉)의 안제(安帝) 의희(義熙) 9년(413)'에 동진에 견사하여 고구려왕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앞의 『삼국사기』 즉위기사는 모순되지 않는다.

게다가 『위서』에서는 '태화 15년'에 '백여 세'로 훙거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앞의 『송서』 기록과 조합해 보면, 왕의 재위는 79년간이고 이 점에서도 『삼국사기』와 모순하지 않는다. 다만 향년을 『위서』에서는 '백여 세'로 전하고, 『삼국사기』에서는 '98세'로 전하여 왕의 출생년에 오차가 생기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I. 광개토왕의 치적과 유훈

장수왕은 광개토왕대의 백제·왜국과의 충돌 중에 태어나 유소년기를 거쳤다.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영락(永樂) 6년(396) 부왕이 남방의 백제에 친정했을 때에는 3세였다. 동10년에 고구려는 신라를 침입한 왜군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 5만의 대군을 남하시켰는데, 일부는 임나가라에까지 왜군을 격퇴시키는 등 작전을 우세하게 전개하였다. 당시 장수왕은 7세였다. 동14년(404)에도 광개토왕은 평양에서 출진하여 대방계의 왜구를 친정했는데, 이때는 11세였다.

장수왕은 그 5년 후인 16세에 태자가 되었고, 20세에 즉위할 때까지 부왕은 사방으로 친정과 파병의 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장수왕은 광개토왕이 이민족 통치의 체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였다. 부왕의 치적 중 가장 첫 번째는 고구려에 조공하는 주변과의 국제관계를 구축한 일이다. 남방에서는 신라의 왕자를 인질로 맞이하여 종속관계를 보다 확고히 했다. 북방에서도 동부여(東夫餘)의 이반을 억제하여 종속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고구려 중심의 국제관계를 위협하는 세력은 신라를 공격하는 왜와 북방의 연(燕)이었다.

장수왕은 치세의 첫 시작으로 부왕의 유훈을 실행하고 치적을 견지하는 일부터 시행하였다. 광개토왕비에는 왕위 재위 5년인 영락 5년에서 20년까지 인접지역으로 친정과 파병의 군사행동을 행한 왕의 치적이 영역의 확대와 왕의 은덕에의 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구려가 이민족을 영역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고, 그러한 까닭에 과제도 떠안게 되었다.

광개토왕의 조부 고국원왕이 371년 겨울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후, 숙부 소수림왕과 아버지 고국양왕은 대백제전을 추진했지만, 백제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못했다. 이때 백제군은 왜군과 공동으로 참전했다고 추정된다. 4세기 후반에 백제는 남조의 동진을 배경으로 왜왕에게 칠지도(七支刀)를 보내고 군사동맹을 요청했다. 광개토왕시대에도 고구려는 대백제전에 반드시 우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 백제와 왜의 공동전선과 양자의 침입에 곤경에 처한 신라를 세력권에 포함하지 못했던 정세 때문이었다.

광개토왕 치세 후반의 정치과정은 장자인 장수왕이 계승해야 할 정치과제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왕이 412년 '동10월(冬十月)'에 훙거했다고 전한다. 비문에서는 '갑인년(甲寅年, 414) 9월 29(廿九)'에 장수왕이 부왕을 산릉(山陵)에 장사지내고, 부왕의 치적을 현창하는 거대한 석비를 건립했다고 적고 있다.

장례의식은 무릇 2년간이고, 6세기 초 백제 무령왕과 왕비의 장례가 2년 3개월이었던 것과 비슷하다.

광개토왕비는 '태왕(太王)'으로 칭송된 광개토왕을 정점으로 '태왕'의 은덕을 추모하고 여기에 조공하게 된 패려(稗麗)·숙신(肅愼)·신라·동부여와 신속관계로 맺어진 국제관계에 대해서 적고 있다. 또 이 신속관계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백제와 그 배후에 있는 가야와 왜국과의 적대관계는 아들인 장수왕이 계승해야 할 국제관계의 출발점이었다.

장수왕이 계승한 고구려의 국제관계는 부왕의 유훈을 실행해서 왕도인 국내성의 성역인 '국강(國岡)'을 비롯한 왕묘(王墓)의 능원(陵園)에 신지배민(新支配民)이 된 '한예(韓穢)'의 민을 수묘인연호(守墓人煙戶)로서 배치한 점에도 나타나 있다.

부왕의 대(代)까지 수묘인연호는 고구려 구래의 지배민인 '구민(舊民)'으로 구성되었다. 거기에서 부왕은 '구민'이 빈궁해지는 것을 배려하여 수묘인연호에는 부왕이 친정하여 획득한 '한예', 즉 왕이 획득한 구백제의 북부지역의 신영역인 '한(韓)'과 역시 '패려' 지역에 사는 '예(穢)'의 민과 사민시킨 '숙신'의 민을 징발하여 수묘인연호를 편성하라고 유훈을 남겼다. 그러나 장수왕은 신래의 이 '한예'만으로는 그들이 고구려의 소묘의 법칙에 숙지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한예'로부터는 120가(家)를, '구민'으로부터는 100가를 징발하여 왕가(王家)의 능묘(陵墓)를 수묘(守墓)시키는 제도를 확립했다.[1)]

이때 장수왕은 부왕이 시작한 능묘 주변에 상당의 수묘인연호를 명기한 비를 세우는 제도를 계승하고, 더욱이 수묘인연호의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판 사람은 '형(刑)'에 처하고, 이를 산 사람이야말로 '수묘'를 부담시킨다는 제령(制令)을 내렸다.

---

1)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第1編 廣開土王の領域支配, 岩波書店

이 수묘의 제도는 신영역의 민을 왕도로 이주시켜 능묘의 '쇄소(灑掃)'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표현되었는데, 이 외에도 부왕대의 국제전쟁의 결과, 고구려 국내의 이종족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비문 외에 '영락 18년(408)'에 평안남도(平安南道) 덕흥리(德興裏)에 개장(改葬)된 중국계 '진(鎭)'[2]의 묘의 묵서명과 북부여 출신의 '모두루(牟頭婁)'묘의 묵서명에서도 확인된다.[3] 이러한 이종족에 대한 통치도 장수왕이 계승해야 할 과제다.

장수왕은 부왕의 유훈을 실행한 수묘인연호제와 병행하여 외교에서는 우선 동진에 견사했다. 부왕은 396년에 후연에 견사하여 모용보(慕容寶)로부터 「평주목료동대방이국왕(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에 봉해졌으나, 399년에의 '예(禮)'가 '만(慢)'이라고 질책 받아 모용성(慕容盛)이 이끄는 3만 군대의 침입을 받았다. 그리하여 신성(新城)과 남소성(南蘇城) 2성을 빼앗기고, 700여 리의 토경과 5천여 호의 백성을 상실하는 대손해를 입었다.[4] 이후 후연과의 공방전은 402년, 404년, 405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후연에서는 모용보의 양자이자 조부가 고구려왕가의 '지서(支庶)'출신이라고 하는 모용운[慕容雲, 고운(高雲)]이 북연을 세우면, 광개토왕은 408년에 견사하고, 또 북연으로부터도 보빙사를 맞이하여 고구려는 일단 서방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때 고구려는 산동(山東)에 거점을 갖는 남연(南燕)에도 '천리마(千裏馬), 생비(生羆), 피장니(皮障泥)'를 바치고, 남연으로부터는 '수우(水牛), 능언조(能言鳥)'가 보내졌다.[5]

---

2) 武田幸男(1989), 「德興裏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朝鮮學報』 第130輯

3) 武田幸男(1981),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第99·100合輯. 후에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1989年 6月에 所收)

4) 『晉書』 卷124·載記24·慕容寶·慕容盛

5) 『太平禦覽』 卷359·兵部90·障泥 「蕭方等三十國春秋曰高句驪以千裏馬生羆皮障泥獻於南燕, 燕王超大悅, 答以水牛能言鳥」

이러한 부왕이 역경 속에서 서쪽의 연(燕)과의 외교로 안정을 구축했다. 아들 장수왕은 즉위하자마자 413년에 동진에 장사(長史) 고익(高翼)을 보내어 상표하고 '자백마(赭白馬)'를 바치자 '사지절도독영주제군사정동장군고구려왕락랑공(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驪王樂浪公)'으로 책봉되었다. 이것은 부왕이 견사하고 있던 산동반도에 거점을 둔 남연이 동진의 장군 유유군(劉裕軍)에게 멸망한 정세에 대응한 장수왕의 기민한 외교였다.[6] 이때 고구려와 동시에 왜국도 견사했다는 내용이 『진서(晉書)』 권10의 안제기(安帝紀)에 보인다.[7] 왜국사는 표피(豹皮)와 인삼을 바치고 세생(細笙)과 사향을 하사했다고 『태평어람(太平禦覽)』 소인(所引)의 「의희기거주(義熙起居注)」에 적고 있다.[8]

그런데 이 헌상품이 왜국산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토산(土産)이라는 점에서 왜국사는 부왕이 백제와 왜국의 연합군을 격파한 전투에서 획득한 왜인의 포로를 고구려가 왜국사로서 가장하여 동진에 파견한 사절에 동반시킨 것으로, 외교를 유리하게 이끈 교묘한 외교책으로도 이해되고 있다.[9] 한편 이 왜국사는 고구려사와 동시에 공동으로 동진에 견사했다는 설도 있다.[10]

고구려와 왜국이 동진에 견사한 외교에 대해서 주목되는 것은 양자가 공동

6) 川本芳昭(1988), 「倭の五王による劉宋遣使の開始とその終焉」, 『東方學』 第76輯(후에 同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汲古書院, 1998年 11月)

7) 『晉書』 卷10 帝紀第10 安帝 「(義熙)九年 □是歲, 高句麗, 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 竝獻方物」

8) 『太平禦覽』 卷981 香部1 香麝 「義熙起居注曰倭國獻貂皮人參等, 詔賜細笙麝香」 및 池田溫 「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集·歷史編』(1997), 山川出版社, 후에 同 『東アジアの文化交流』, 吉川弘文館, 2002年 3月 所收]

9) 阪元義種, 『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第一章 東晉交涉の謎」 教育社, 1981年 9月)

10) 橋本增吉, 『改訂增補 東洋史上より見たる日本上古史研究』, 「一六 風俗習慣に關する疑問」(東洋文庫, 1956年 3月) ; 川本芳昭 「倭國の四一三年東晉遣使」(『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新版[古代の日本]二, 角川書店, 1992年 5月)

이든 개별이든 이때 백제의 동진외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보다도 일찍인 372년에 동진에 견사하고 '진동장군령락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에 책봉되었다. 또 384년에도 견사하고, 386년에는 세자인 여휘[餘暉, 후에 진사왕(辰斯王)]가 백제왕으로 책봉되었다.[11] 현재의 칠지도는 동진으로부터 백제왕이 하사받은 '칠지도'를 백제왕이 복제하여 왜왕에게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12] 현존하는 칠지도의 증여 이래 백제와 동진과의 관계에서는 백제와 왜국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왜국사가 백제사를 매개로 하지 않은 고구려가 세운 위사(僞使)였다고 하면, 이 외교는 동진이 의심을 가졌을 것이다. 또 왜국 단독의 파견이라면, 왜국이 이제까지의 동진과 백제와의 우호관계를 경시해서 백제와는 적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고구려와 나란히 동진에 견사했을 경우에 역시 동진이 의심하는 왜국의 외교가 되었을 것이다.

광개토왕대 고구려는 백제와 그 원군인 왜국과 연합으로 전개된 격렬한 싸움에서 우위로 나아갔다. 그리고 장수왕이 즉위한 직후 고구려와 왜국은 동진에 견사하였다. 이때 왜국이 동진에 바친 '표피'와 '인삼'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물품들은 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토산품이다. 표피는 고구려를 포함한 북방산일 것으로 생각되고, 인삼은 고구려산 혹은 백제산으로 볼 수 있다. 5세기 말 양(梁)나라 도홍경(陶弘景)이 편찬한 『본초경집주(本草經集注)』에는 양나라에서 백제산 인삼이 고구려산보다 중보로 인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13] 이 왜국의 헌상품 기록에 착오가 없다면 왜국이 동진으로 향한 외교의

11) 『晉書』 卷9 帝紀第9 孝武帝 「太元十一年夏四月, 以百濟世子餘暉爲使持節都督鎭東將軍百濟王」

12) 山尾幸久(1989), 「3章 金石文 · 中國史料が語る日朝關係」,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 拙稿(2005), 「四世紀の日韓關係」, 『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 第1分科篇, 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13) 陶弘景, 『本草經集注』 卷第3 草木上品 「人參 …… 中略 …… 百濟者, 形細而堅白, 氣

과정에 백제의 동진으로 향하는 외교 자세를 미루어 짐작하는 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즉 왜국의 이 동진외교에는 백제가 완전히 관계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는 일찍이 372년과 384년에 동진에 견사하고, 386년에는 세자[후에 진사왕(辰斯王)]가 '사지절도독진동장군백제왕(使持節都督鎭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되었다. 그 후 아신왕대는 광개토왕비에도 보이듯이 고구려의 공격에 고전하고 있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아신왕이 405년에 훙거하여 왜국에 인질로 와 있던 전지(腆支)가 왜국병의 호위를 받아 귀국하여 즉위하고, 이듬해 406년에 견사입진조공(遣使入晉朝貢)했다는 고립된 사료가 있다. 416년에도 전지왕은 동진으로부터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진동장군백제왕(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將軍百濟王)'으로 책봉되었는데,[14] 『양서(梁書)』 백제전에도 "의희중(義熙中, 405~418), 왕여영견헌생구(王餘映遣獻生口)"라고 견사의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백제의 동진으로 향한 견사의 외교를 고려하면, 왜국이 413년에 동진에 견사한 외교는 백제의 동진외교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막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와 나란히 왜국이 동진에 조공했다는 『진서』 등의 기록에서, 왜국사가 고구려사로부터 '중역(重譯)' 등의 편의를 얻었다는 내용은 없고, 왜국사가 고구려사에게 종속한 관계로 외교를 추진했다고 하는 것도 사료에서 읽을 수 없다. 말하자면 『일본서기』 417년에 해당하는 응신천황 28년 9월에 고구려의 사절이 왜국에 왔는데, 표문에 "高麗王敎日本國也"라고 적어 왜국

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卽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 高麗所獻兼有兩種」

14) 『宋書』 卷97 列傳57 夷蠻百濟 「義熙十二年, 以百濟王餘映, 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將軍百濟王」

의 분노를 사, 그 표문은 파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표문에는 '왜국(倭國)'이었던 기록이 『일본서기(日本書紀)』의 편찬과정에서 '일본국(日本國)'으로 개서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왜국은 고구려를 자기의 상위에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문을 파기했던 것이다.

이처럼 413년에 동진에 파견된 왜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국의 토산품을 바친 외에, 고구려산 '표피'와 백제산 '인삼'을 동진에 조공견사했다고 생각된다. 이 조공품의 구성은 왜국이 광개토왕과의 싸움을 거치고, 왜의 주관으로는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에 대해 우위의 국제관계에 있다는 것을 동진에 과시하는 일면을 갖는 외교였다고 생각된다.

광개토왕대에 신라를 왜병으로부터 구원하고 조공관계를 구축했던 고구려의 대신라관계는 장수왕대 초기에도 계승되고 있었다고 봐도 좋다. 부왕대에 신라로부터 인질로 맞이한 신라왕자 복호(訶好)를 신라에 귀환시킨 것은 418년의 일이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왜인의 신라침공은 끊이지 않고 고구려가 신라를 비호하는 자세는 '을묘년(乙卯年, 415)'에 만든 청동제 호우(壺杅)가 신라 왕도의 고분[호간총(壺杅塚)]에, 또 '연수 원년(延壽 元年, 451)'에 제작된 은제합(銀製盒)[15]이 경주시(慶州市) 노서리동(路西裏洞)의 서봉총(瑞鳳塚)에 부장되었는데, 이렇듯 고분에 부장된 고구려제품만 보아도 고구려와 신라왕족의 친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왜국을 경계한 부왕 광개토왕대의 신라와의 관계는 장수왕대 초기에도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삼국사기』 고구려·신라본기에 의하면, 424년에 신라가 고구려에 견사하여 '수빙(修聘)'했다고 한다. 이것은 장수왕대 고구려 우위의 신라관계가 변

15) 國立博物館古蹟調査報告弟一册『壺杅塚引 引銀鈴塚』(1948) 및『壺杅塚銀鈴塚 硌醉恥精敬恥』(降閏60爽鰍奄割 宿匂走疊, 國立中央博物館, 2006年 5月)

화하는 조짐으로 주의된다. 이 변화의 배경은 동진이 송(宋)으로 바뀐 데 있었다. 고구려는 413년 동진에 견사하여 책봉을 받았으나 420년 유유(劉裕)가 송조(宋朝)를 일으킴으로써 다시 송조의 책봉을 받았다. 그런데 송이 통치하고 있는 산동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백제가 송과 통교를 맺었고, 고구려는 이에 대항하여 신라를 한층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고구려에서는 부왕대에서부터 비호해 온 신라가 백제나 왜국으로 향하지 않고 고구려 세력권내에 잔존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에 신라 측에서도 대고구려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으며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IV. 천도와 신민통치

장수왕은 재위 15년(427)에 고구려가 209년 동안 압록강중류 우측의 완만한 구릉지에 도읍한 국내성에서 대동강중류의 평양성(平壤城)으로 천도했다. 고구려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이 천도의 의의는 실로 크다. 국내성은 후방의 산곡에 환도산성을 구축하였는데, 그 뒤에는 백두산이 위치하고 전면에는 압록강을 낀 6백여 개의 산들이 동북으로부터 남서로 병풍처럼 이어진 배산임수의 천연요새다.

전한(前漢)으로부터 5호 16국(五胡十六國)에 이르는 서방 세력이 흥망 하는 중에서 그 침공으로부터 왕도를 지키면서 압록강의 수리를 활용하는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 5호(五胡) 세력이 소멸하고 북위(北魏)가 세력을 확대하여 남조의 송과 병립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는 동진으로부터 송으로 이어지는 중국 남조와 한반도남부에도 통교에 편리하다.

신도(新都) 평양성은 장수왕의 증조부인 고국원왕이 371년에 백제의 북상군

을 맞이하여, 백제병이 쏜 화살에 맞아 사망한 지역이듯이, 백제에 대해서는 요충지였다. 현재 평양시에서 대동강을 약 6km 거슬러 올라간 대성산성(大城山城)과 그 산록에 있는 평지의 청암리토성(淸岩裏土城)과의 복합왕도였다고 보인다.[16] 구도인 국내성과 환도산성이 복합왕도였던 기능을 계승한 구도다. 평양성과 청암리토성의 구조와 규모에 대해서는 『주서(周書)』 권49 이역(異域) 상(上) 고려(高麗)에 '治平壤城. 其城, 東西六裏, 南臨浿水. 城內唯積倉儲器備, 寇賊至日, 方入固守. 王則別爲宅於其側, 不常居之'라고 복합왕도의 기능을 전하고 있다.

이 지역이 427년 이전부터도 천도를 의식하고 고구려의 요충지로서 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었음은 출토 기와로부터 알려져 있고,[1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고국원왕 4년(334)조에 '평양성을 증축했다'고 적고 있다. 고구려가 평양지역에 대한 충실한 대책은 후술하듯이 고국원왕이 355년에 전연(前燕)에 견사하여 사은(謝恩)하자, 왕이 '영주제군사정동대장군영주자사악랑공고구려왕(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18]이라는 '악랑공(樂浪公)'으로 봉해진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고국원왕은 전술한 바와 같이 371년에 이곳을 공격해 온 백제 근초고왕의 군에게 전사했다. 또 광개토왕은 393년에 평양에 9개 사(寺)를 창건하고 동비문에는 404년에 '불궤(不軌)'하게도 대방계(帶方界)에 침입한 왜를 친정했는데, 그 출정한 지역이 평양이었음을 기록하

16) 永島暉臣愼(1981), 「高句麗の都城と建築」, 『難波宮址の研究』 7 ; 田中俊明(1984), 「高句麗長安城の位置と遷都の有無」, 『史林』 第67卷 第4號 : 「高句麗の平壤遷都」(2004), 『朝鮮學報』 第190輯

17) 穀豊信(1989), 「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關する若幹の考察」,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紀要』 第108輯

18) 『晉書』 卷100 載記第10 慕容儁 「高句麗王釗, 遣使謝恩, 貢其方物, 儁以釗爲營州 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 封樂浪公, 王如故」

고 있다. 게다가 동비에는 수묘인연호에도 '평양성의 민(民)'으로부터 '국연일(國煙一)'호(戶), '간연십(看煙十)'호(戶)가 편성되었다고 한다. '평양성의 민' 11호는 '구민(舊民)'의 지역에서 징발한 수묘인연호의 합계 110호의 1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대읍인 평양성은 백제에 대비한 고구려의 요충지였다. 복합왕도인 국내성이 3~4세기 중반에 위(魏)와 전연(前燕)으로부터 침입을 받아 파괴된 일이 있는데, 5세기에서는 장수왕은 북연 및 북위로부터 책봉을 받아 북방관계가 안정되면, 동남방으로 향하는 요충지인 평양성의 존재가치는 높았던 것이다.[19]

평양성은 이러한 전략적이자 외교적인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낙랑군·대방군 이래 현재에도 평안도에서 황해도 일대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들 민정의 거점이기도 하다. 1949년 봄에 황해북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안악삼호분(安嶽三號墳)'의 묵서명에 의하면, 묘주인 동수(冬壽)는 '영화(永和) 13년(357) 10월'에 69세로 사망했는데, 이 동수는 336년에 전연의 모용황(慕容皝)이 요동에 세력을 갖는 동생 모용인(慕容仁)을 공격하여 죽이는데, 이때 모용인의 세력하에서 고구려로 도망친 이들 중 한사람이었다.[20]

또 1976년에 대동강하구에 가까운 남포시 강서구 덕흥리에서 발견된 덕흥리고분 묵서명에서는 중국에 출자를 갖는 묘주인 진(鎭)이 '영락 18년(408)'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진은 77세였다.[21]

1932년 4월 평양역 구내에서 발견된 고분 출토에는 '영화 9년(353) 3월 10일 요동한현토태수령동리조(遼東韓玄菟太守領佟利造)'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 1세

19) 田中俊明(2004), 앞의 글

20) 岡崎敬(1964), 「安嶽三號墳(冬壽墓)の研究－その壁畫と墓誌銘を中心として」, 『史淵』 第93輯(후에 同 『シルクロードと朝鮮半島の考古學』, 第一書房, 2002年 7月 所收)

21) 武田幸男(1989), 「德興裏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 참조

기 후에 왕도가 된 평양성 일대에도 요동의 씨족인 □진씨(□鎭氏)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평안도에서 황해도의 고분 등으로부터 후한(後漢)·위(魏)·진(晉)·동진(東晉)의 연호와 한족(漢族)의 성(姓)인 손(孫)·한(韓)·왕(王)·장(張)을 새긴 명문이 발견되었고, 낙랑군과 대방군 이래 중국계 씨족이 5세기 초에도 고구려왕권으로부터는 귀속의식의 차원에서 반은 자립한 존재로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22]

그러나 이러한 반자립 사회는 불안정했다. 고구려가 313년과 이듬해 낙랑·대방을 요동으로 철퇴시킨 후에는, 이 지역은 신흥 백제가 남쪽으로부터 노린 곳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371년에 고구려는 대백제전에서 불의에 고국원왕을 잃고, 백제와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그런 까닭에 평양의 민정은 긴요한 과제였고, 광개토왕은 393년에 여기에 9개 사찰을 창건하고 또 평양성을 거점으로 군사를 배치하여 404년에는 이 지역으로부터 출진하여 왜병을 패퇴시키는 등 성과를 올렸다. 409년에는 국내성의 동방에 6성을 쌓고 남방에 대비하였으며 여기에 평양의 민호를 사민시켰다는 것으로부터,[23] 이 지역의 중국계 거주민은 고구려의 지배하에 점차 순응하여 들어가게 된다. 그때까지 동진의 연호를 새긴 부장품을 묘실에 안치했지만, 그 후 이 지역에서 동진 이후 중국 남조의 연호를 새긴 형적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덕흥리고분에서는 광개토왕대의 연호인 '영락 18년(408)'을 묵서하여 묘주인 진은 고구려 관위를 갖고 있듯이 중국계 씨족이 고구려왕권에 귀의한 속도는 빨랐다.

---

22) 『昭和七年度古蹟調査報告弟一册(永和九年在銘文出土古墳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33年 3月

23)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十八年秋七月, 築國東禿山等六城移平壤民戶」

평양성 천도의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도 좋다. 대동강 하류역으로부터 발해만·황해를 항해해서 남조로, 더욱이 한반도 중남부에 연이은 수상·해상교통의 요지를 중시한 것이다.[24] 수상·해상교통의 유적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정보는 얻을 수 없지만, 413년에 고구려는 동진과 통교하고 있었다. 이 경로는 산동반도가 410년에 동진이 지배하게 되어, 양자강 하류의 도읍인 건강(建康)으로 통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던 사실이 배경이 되고 있다.[25] 이로부터 고구려에서는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송으로 활발한 견사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송과 적극적으로 통교하게 된다. 고구려가 북위와도 통교하고 송에도 통하는 외교를 추진한 것은 북위와 송의 대립의 시대에서는 쌍방에게 고구려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었다. 고구려가 송에 견사하는 대외전략의 지향은, 한편으로는 대동강이 형성한 평야에 거주하는 낙랑, 대방군 이래의 중국계 주민의 사회를 고구려의 국가체제 중에 편성하는 지향과도 겹친다. 이것도 고구려가 대동강 중하류역을 전망하는 평양성에의 천도를 거행한 요인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 천도는 고구려가 그때까지의 '산곡(山谷)에 따라 거주한다'[26]라는 전통적인 사회를 지배대상의 중심에 둔 국가로부터, 나아가 한반도 서북부에 펼쳐진 평야부의 농경사회를 지배의 대상으로 편성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성의 충실책과 이곳으로의 천도는 전통적인 5부를 핵으로 한 고구려의 지배체제를 크게 변용시켜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27]

---

24) 尹明喆, 『壹姥形 背丞紫』 4. 壹姥形夅降穿奄稅 背丞醱踶疑－舌呪企腎稅 害遭舛奪引 背丞醱踶疑－(紫域箭, 2003年 8月)

25) 川本芳昭(1988), 앞의 글 참조

26) 『三國志』 魏書·高句麗傳

27) 徐永大, 「高句麗平壤遷都稅動機－王權貢中央集權的支配體制稅强化引舛引 淫惠馬食」(『韓國文化』2, 翫郵遖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 1981년 12월)은 평양천도를 경제적 측면

게다가 평양천도의 요인에는 고구려왕이 남조에서 '악랑공'으로 책봉받은 그 국제적인 명목의 실질화를 생각해도 좋다. 고구려왕은 광개토왕의 조부인 고국원왕이 355년에 모용준(慕容儁)으로부터 '악랑공고구려왕(樂浪公高句麗王)'으로 책봉받았는데, 광개토왕은 후연의 모용보로부터 '평주목료동대방이국왕(平州牧遼東帶方二國王)'에 책봉되어 부관(府官)을 두고 이윽고 요동군을 공략하여 영유하였다.[28] 장수왕은 413년 동진으로부터 '도독영주제군사정동장군고려왕악랑공(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麗王樂浪公)'으로 책봉되고, 420년에는 송으로부터 '사지절도독영주제군사정동장군고구려왕락랑공(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으로 책봉된[29] 이래, 남조로부터는 '고구려왕악랑공(高句麗王樂浪公)'을 기본으로 책봉되었다. 이것은 앞의 부왕이 후연으로부터 '요동대방이국왕(遼東帶方二國王)'으로 책봉되고, 또 장수왕이 북위로부터 435년에 '도독료해제군사정동장군령호동이중랑장료동군개국공고구려왕(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라고 책봉된 것[30]을 보면, 북조에서는 '요동군국[遼東郡國. 군(郡)]왕[개국공(開國公)]'과 또 남조에서는 '악랑공'으로 책봉된 양자의 의제적인 군공(郡公)의 명목은 대조적이다. 이 중에서 장수왕은 427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은 413년과 424년에[31] '악랑공'으로 책봉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을 생각하

과 왕권강화의 면에서 논하고 있다.

28) 『梁書』 卷第54 列傳第48 東夷「(高句驪)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29) 『宋書』 卷第87 列傳第47 夷蠻「(東夷高句驪國)高祖踐阼, 詔曰, 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麗王樂浪公璉 …… 竝執義海外, 遠修貢職, 惟新告始, 宜荷國休, 璉可征東大將軍」

30) 『魏書』 卷第100 列傳第88「(高句麗)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 方物, 竝請國諱, 世祖嘉其誠款, 詔下帝系名諱於其國, 遣員外散騎侍郎李敖拜璉爲都督 遼海諸軍事征東將軍, 遼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및 『資治通鑑』 卷第122 宋紀4 太祖文皇帝上之下「元嘉十二年」 참조

면 천도의 의지는 장수왕이 '악랑공'이라는 실질화에의 길로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실질화는 552년에 평원왕이 현재의 평양시의 중추인 장안성을 구축하고 이어서 586년에 이 장안성으로 옮김으로써 크게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32]

그런데 부왕이 건원한 '영락' 연호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고구려 최초의 연호이다. 이 이전에 고구려 독자로 건원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는 현재 나타나지 않는다. 영락 연호는 광개토왕의 재위 22년간에 고구려의 정치권에서 사용되었는데, 부왕을 계승한 장수왕도 건원의 제도를 계승했음은 확실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장수왕대에 건원의 예제(禮制)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건원을 정지할 만한 정치상황은 장수왕의 즉위시에나 재위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재위 79년간 수차의 건원이 실시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 413년에는 즉위의 건원이, 또 427년에는 평양성 천도의 개원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금일 장수왕대의 연호일 가능성이 강하게 지적되는 실례(實例)로는 '연수원년명은합간(延壽元年銘銀合杆)'의 '연수원년신묘(延壽元年辛卯)'의 해가 451년으로 장수왕 39년에 해당한다. 또 '연가칠년명금동불광배(延嘉七年銘金銅佛光背)'의 '연가칠년세재기미(延嘉七年歲在己未)'는 419년·479년·539년·599년의 각년으로 비정된다. 그렇다면 그 '연가(延嘉) 원년'은 419년·479년·539년·599년 중에 어느 해에 해당된다.[33] 413년은 광개토왕의 훙거 이듬해이고, 유년칭원법을 취

31) 『宋書』 卷第97 列傳第57 夷蠻「(東夷高句驪國)少帝景平二年, 璉遣長史馬婁等詣闕獻方物, 遣使慰勞之, 曰皇帝問使持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征東 大將軍高句驪王樂浪公, 纂戎東服」

32) 『三國史記』 卷第19 高句麗本紀「(平原王)八年, 築長安城. 同二十八年, 移都長安城」 및 永島暉臣愼(1981), 앞의 글 ; 田中俊明(1984 및 2004), 앞의 글

33) 田中俊明(1981),「高句麗の金石文－研究の現狀と課題」,『朝鮮史研究會』 No18

하면 장수왕 즉위 원년에 해당한다. 이 '연가'가 장수왕의 즉위 건원이 될 가능성도 생긴다. 부왕의 즉위 건원인 '영락'의 원호(元號)와 '연가'의 글자 뜻이 통하는 점도 유위된다.

게다가 '건흥오년명광배(建興五年銘光背)'에서는 '건흥오년세재병진(建興五年歲在丙辰)'이 536년에 비정되고 그 원년은 532년이 되는데, 이것은 앞의 '연가' 비정안의 하나로써 접근되고, 476년도 후보가 된다면 그 원년은 472년이 된다. 이것도 '연가 원년'의 대비안과도 접근되는데, 모두 개원의 요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471년 8월에 북위의 현조(顯祖) 헌문제(獻文帝)가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에게 양위하고, '연흥(延興)'이라고 개원했는데, 이때 고구려왕실은 헌문제로부터 왕녀의 헌납을 요구받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듬해 472년 2월에 고구려가 북위에 견사조공한 일로부터 고구려의 '건흥(建興)' 개원이 472년이라고 하면, 북위의 '연흥' 개원에 예제를 합치시킨 것으로도 추찰된다.[34]

다만 고구려가 4세기 말 이래 고유의 연호를 제정했던 것은 5호 16국으로부터 남북조에 걸쳐 중국왕조의 천하가 분열되고 있던 국제환경이었고, 고구려왕권의 통치권 속에서 자율 의식이 고양하고 있었던 때문이었다.[35] 고구려가 건원한 것을 북위와 송이 질책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그 낌새도 없다. 7세기에는 신라가 독자적인 건원으로 당조로부터 질책을 받은 일이 있었고,[36] 또 백

34) 李丙燾(1980),「第六編 高句麗史上の諸問題, 五 中原高句麗碑について」,『韓國古代史研究』, 學生社

35) 酒寄雅志(1993),「華夷思想の諸相」,『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Ⅴ·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學出版會(후에 酒寄『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2001年 2月에 所收) 및 盧泰敦,『壹姽形紫尻姽』(3採. 愼蝕廄亞端薦稅 莫失引企須淫惟 2. 榎汐庚拭 左戚澗 壹姽形昔稅 探馬淫, 2003년 8월, 紫域箭)

36)『三國史記』卷第5 新羅本紀 第5「(眞德王2年)冬, 使邯帙許朝唐, 太宗勅禦史問, 新羅臣事大朝, 何以別稱年號. 帙許言, 曾是天朝未頒正朔, 是故先祖法興王以來, 私有紀年, 若大朝有命, 小國又何敢焉. 太宗然之」

제의 건원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37] 발해에서는 시호와 건원의 예가 계속되었다. 이것은 후의 조송(趙宋)의 사관(史官)의 의식에서는 '사(私)'의 예(禮)이고, 당의 외신(外臣)의 예를 일탈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38]을 고려하면 고구려의 부자 2대의 건원의 예제는 고구려 왕권이 남북조의 대립 속에서 자기위치를 확인하고 자율성을 고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구려가 갖고 있던 독자적인 건원의 예제는 고구려의 종속으로부터 5세기 중반 이래 이탈하기 시작한 신라가 536년에 건원했는데, 고구려와는 대립을 계속한 백제에서는 건원이 보이지 않은 것에 주의하면, 신라가 북위와 양에 견사하면서도 독자의 건원의 제를 세워 유지했던 것은 고구려에 배운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7) 拙稿(2005),「百濟紀年考」,『史淵』第142輯

38)『新唐書』卷219 列傳卷144 北狄「(渤海)玄宗開元七年, 祚榮死, 其國私 謚爲高王.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私改年曰仁安」

39) 李成市(2006),「東アジアからみた高句麗史の位相」,『文化財保護を問い直す－高句麗·高松塚シンポジウム』,予稿集은 고구려의 정치제도, 지방통치제도와 문화면에서 동아시아제지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후 신라 建元制의 국제환경도 고찰하면 좋을 것이다.

V. 맺음말

광개토왕과 장수왕 부자 2대의 재위는 391년에서 491년 동안 이어졌고 이 기간은 100년에 이른다. 이 1세기는 광개토왕이 요동과 요서의 전연·후연과의 관계를 배려하면서 국가발전의 길을 한반도에서 구하고, 그 실행의 속도를 재촉한 시대였다. 그 속도는 북위와 남조의 송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장수왕 시대에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악랑공'인 고구려왕으로서의 직무 수행이기도 했다.

이 가속은 한반도의 백제·신라·가야 그리고 해역을 넘은 왜국에서 본다면 '북방(北方)의 임팩트'였다. 칠지도의 증여로 상징되는 동진을 배경으로 한 백제와 왜국의 연대는 광개토왕대의 남하공격에 대항한 수차의 공동전투를 거쳐 강화되었다.[40] 그 위기에 대응한 공동의 경험은 왜국왕으로 하여금 백제·신라·가야 등의 한반도 남부 지역의 군사를 '도독(都督)'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동시에 고양시켰다고 생각된다.

또 장수왕대의 고구려에서는 평양지역의 민정을 추진하여 427년에는 이곳으로 천도하고, 드디어 반세기 후의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여 그 세력을 남쪽으로 후퇴시키는 데 성공했다. 고구려의 이 동향은 단지 기마전술의 능력만이 아니고 평안도·황해도 일대의 통치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경제와 사회를 일정한 비율로 지탱하고 있던 농업생산의 비중이 종래보다 한층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장수왕은 부왕의 군사를 계승했지만, 그 기초는 고구려 사회의 농업생산이 높아져, 백 년의 성세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부왕은 '평안호태왕(平安好太王)'

40) 拙稿(2005), 앞의 글 참조

으로 시호가 정해지고, 아들 장수왕도 긴 시호가 주어졌을 것이지만, 북위에서는 단지 '강(康)'이라고 했다. '강'의 뜻은 부왕의 그것에 보이는 '평안(平安)'과 통하고, 두 왕의 시호는 부자 2대의 치세가 '악랑공(樂浪公)'으로서 외교와 군사와 민정을 진행시켜 고구려에 성세를 가져온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장수왕은 98세라는 장수를 누리고 491년에 훙거했다. 왕자 조다(助多)가 왕보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손자 나운(羅雲)을 궁중에서 양육하여 '대손(大孫)'으로 임명했다. 왕자 조다의 사후를 이어 왕위를 계승해야 할 지위에 놓였던 것이다. 장수왕은 조다 이외에 왕자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운이 왕위를 계승하여 치세가 28년간이었기 때문에 즉위시에는 상당한 연령이었고, '대손'으로서 장수왕의 치세를 배웠을 것이다. 그런 영향도 있었던가, 나운의 문자명왕(文咨明王) 혹은 명치호왕(明治好王)이라는 시호로 추측하면 명군(名君)이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장수왕은 '대손'에게 족적을 위탁하고 훙거하는데, 그 능묘는 명확하지 않다. 이제까지 고구려 왕의 시호는 매장 지명을 사용했지만 장수왕은 장수(長壽)한 까닭에 매장의 지명을 시호로 붙이지 않고, 장수왕으로 호칭하였다. 그 때문에 왕의 능묘는 고도인 국내성(집안) 중에서 부왕의 능묘와 나란한 묘역인지, 신도읍인 평양의 묘역인지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41]

【부기】 이 글은 2005년 11월 5일, 규슈대학[九州大學] 한국연구센터·고구려연구재단의 공동주최로 규슈국립박물관에서 열린 「高句麗シンポジウム"日本と高句麗：人とサラムの交流"」에서의 발표를 정리하여 「高句麗長壽王という時代－父王廣開土王の治績を繼いで」(『朝鮮學報』 第199·200輯 합병호, 2006년 7월)로

41) 拙稿(1986), 「廣開土王陵墓比定論の再檢討」, 『朝鮮學報』 第119·120輯 ; 田村晃一(1984), 「高句麗の積石塚の年代と被葬者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靑山史學』 第8號 (후에 同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2001年 4月, に所收). 또는 永島暉臣愼은 「高句麗の都城と建築」에서 東明王陵을 장수왕릉으로 보았다.

서 공표한 논문 중에서 전반부의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치적을 계승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문제의 시점을 구성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岡崎 敬(1964),「安嶽三號墳(冬壽墓)の研究−その壁畫と墓誌銘を中心として」,『史淵』第93輯 :『シルクロードと朝鮮半島の考古學』(2002), 第一書房
穀豊信(1989),「四－五世紀の高句麗の瓦に關する若幹の考察」,『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紀要』第108輯
橋本增吉(1956),『改訂增補 東洋史上より見たる日本上古史研究』,「一六 風俗習慣に關する疑問」, 東洋文庫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弟一册(1948),『壺杅塚引 引銀鈴塚』
盧泰敦(2003),『壹姥形紫尻姥』
李丙燾(1980),「第六編 高句麗史上の諸問題, 五 中原高句麗碑について」,『韓國古代史研究』, 學生社
李成市(2006),「東アジアからみた高句麗史の位相」,『文化財保護を問い直す－高句麗·高松塚シンポジウム』予稿集
武田幸男(1981),「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朝鮮學報』第99·100合輯 :『高句麗史と東アジア』(1989), 岩波書店
武田幸男(1989),「德興裏壁畫古墳被葬者の出自と經歷」,『朝鮮學報』第130輯
武田幸男(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の領域支配』第1編, 岩波書店
山尾幸久(1989),「3章 金石文·中國史料が語る日朝關係」,『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徐永大(1981),「高句麗平壤遷都稅動機－王權貢中央集權的支配體制稅强化引舛引 淫惠馬食」,『韓國文化』2, 嶺南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永島暉臣愼(1981),「高句麗の都城と建築」,『難波宮址の研究』7
尹明喆(2003),『壹姥形 背丞紫』4
田中俊明(1981),「高句麗の金石文－研究の現狀と課題」,『朝鮮史研究會』No18
田中俊明(1984),「高句麗長安城の位置と遷都の有無」,『史林』第67卷 第4號
田中俊明(2004),「高句麗の平壤遷都」,『朝鮮學報』第190輯
濱田耕策(2005),「百濟紀年考」,『史淵』第142輯

濱田耕策(2005),「四世紀の日韓關係」,『日韓歷史共同研究報告(第1分科篇)』, 日韓歷史共同研究委員會
酒寄雅志(1993),「華夷思想の諸相」,『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V · 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學出版會 :『渤海と古代の日本』(2001), 校倉書房
池田溫(1997),「義熙九年倭國獻方物をめぐって」,『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集 · 歷歷史編』, 山川出版社 :『東アジアの文化交流』(2002), 吉川弘文館
川本芳昭(1988),「倭の五王による劉宋遣使の開始とその終焉」,『東方學』第76輯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1998), 汲古書院
川本芳昭,「倭國の四一三年東晉遣使」,『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古代の日本』2(1992), 角川書店
阪元義種(1981),「第一章 東晉交涉の謎」,『倭の五王−空白の五世紀』, 教育社
『昭和七年度古蹟調查報告弟一册(永和九年在銘文出土古墳調查報告)』(1933), 朝鮮總督府
『壺杆塚銀鈴塚 硌醉恥精敬恥』(2006), 降閏60爽鰍奄割 宿匂走疊, 국립중앙박물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3부

광개토왕시대의 동아시아국제관계(2)

1. 윤명철 _ 광개토태왕의 국가발전 정책과 현재적인 의미
2. 이성제 _ 4세기 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3. 서영수 _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윤명철(尹明喆)
한국사(고구려사 및 동아시아 해양사) 전공,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대표논저로는 『고구려 해양사연구』(2003, 사계절), 『한국 해양사』(2003, 학연문화사),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2005, 삼성경제연구소),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8권(2012, 학연문화사), 『해양사연구방법론』(2012, 학연문화사) 등이 있다.

광개토태왕의 국가발전 정책과 현재적인 의미

동국대학교 **윤명철**

I. 머리말

현재 한민족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비롯한 문제가 있다.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과정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위상과 역할이 결정되는 기로에 있다. 아울러 세계화의 과정과 인류문명의 대전환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직접·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비일상적인 상황을 맞아 위기를 극복하는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적합한 대응방법론(對應方法論)을 만들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일은 지성계의 역할이다. 필자는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하에 이론과 실천적 예를 발표해왔다.[1] 역사학은 유사한 상황을 선택하여 정책적인 입장에서 해석하

1) 필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몇몇 연구성과들이 있다. 윤명철(2003), 「장보고를 통해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 남덕우 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비롯한 일련의 논문들이 있고, 저서로는 윤명철(2005),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 삼성경제연구소 ; 윤명철(2007), 『장수왕 장보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포름 등이 있다. 이 글은 저서로 발표한 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의 형식을 취해서 작성하였다.

고,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2)]

현재 상황은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과 장수왕(長壽王)이 역사로 존재했던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이르는 시대와 유사하다. 이 글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대안 모델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의 성공 비율이 높고 실패율은 낮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시대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세계관과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정책이 현재 및 미래에 적용될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개토태왕 시대의 군사활동 및 영토확장 과정을 국가발전 정책이라는 틀에서 분석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와 고구려의 실상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재조명하고 싶었다. 전통역사학이 가진 사료 위주의 소재 선택과 각론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으로는 복잡한 우리 역사상을 조명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따라서 사회과학적인 접근방식을 혼용하여 해석모델을 설정해놓고 연역적이고 거시적인 분석을 가하여 또 다른 역사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글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전체를 계기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제1단계는 광개토태왕이 정치했던 시대, 제2단계는 장수왕이 정치했던 전기, 즉 북위(北魏)가 통일을 이룩하여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가 정립한 시대까지, 제3단계는 후기에 해당하는 시대다. 이 구분 방식은 광개토태왕이 구상하고 실천했던 국가발전 정책이 장수왕에 의해 완성되고, 성공했던 시대를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제1단계인 광개토태왕의 정책을 분석하면서, 그의 정책적 성공과 실패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각 시대 상황과 사건 및 공간에

2) 필자는 동북아역사재단 출범 당시에 제출한 운영방안 보고서에서 이러한 연구방식을 역사의 정책적인 연구 즉 '歷政硏究'라고 표방한 바 있으며, 역사이론을 전개할 때 이런 용어와 개념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분석이 어려운 탓에 사실들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선에서 그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연역적으로 모델을 설정해서 분석한다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현대의 용어와 개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민족' '국가' '동아시아' '국제질서' 등 특정한 함의를 지닌 현대 용어들은 역사상의 이해에 다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글은 역사에서 공간이 가진 비중과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필자가 주장해온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모델' '터 이론'[3] '해륙사관(海陸史觀)' 등의 역사해석 모델과 글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그동안 논문이 아닌 저서로 발표한 몇 개의 성과물을 갖고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였음을 밝힌다.[4]

II. 현재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들 – 민족문제 및 대외관계

필자는 역사의 과정과 연관 지어 민족을 '역사유기체'로 인식하고 있다.[5] 이는 혈연을 비롯하여 어느 특정한 요소가 주도적이며, 고정적인 역할을 담당

3) '터 이론'의 정식명칭은 '터와 다핵(field & multi core)이론'이다. '줄인다'는 의미에서, 또 터는 다핵을 포함한 개념이므로 약칭하여 '터 이론'이라고 한다. 아래 문장에서는 터 이론이라고 줄여서 사용한다.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은 윤명철(2006),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 동아지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집,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 윤명철(2005), 「동해문화권의 설정 검토」, 『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속원 참조

4) 이 글과 관련되어 발표한 논문들은 『고구려의 정신과 정책』,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8권』 및 『해양사연구방법론』 및 기타 저서에 수록되어 있다.

5) 유기체라는 용어는 단순하게 기계적인 것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필자의 의도는 다르다. 초유기체라는 용어도 병행하고 있으나 다른 글에서는 '生命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몇몇 요소들이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배율로 혼합하여 작용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단위를 말한다.[6] 또한 거시적(巨視的)인 역사의 맥락 속에서 현재의 우리라는 결과를 구성해온 과정을 '한민족사'라고 설정하면서, 핵(核)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역사적인 존재들을 '한민족'이라고 설정하고 명명한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동아시아 문명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부분이며 전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과는 다르지만 현재의 우리와 관계가 깊은 단위를 '한민족'이라고 설정한다.[7]

1. 통일의 문제

현재 한민족이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실현'이다. 한 존재에게 분열 또는 분단이란, 특히 민족이라는 역사적 공동체에 강요된 분열은 다양한 의미와 함께 결과를 갖고 있다. 한민족의 역사 과정은 원조선의 붕괴로 인한 분열 이후 '통일과 분열, 통일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정치적인 영토를 부분적으로 상실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터'의 상실을 의미한다. 자연환경의 다양성 상실, 생활공간과 문화의 다양성 상실, 집단 구성원들의

6) 민족주의 및 민족에 대해서는 성격·기능·탄생 등 정의에 대해서 무수한 논쟁이 있었다. 성과물로는 신용하(1985),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 ; 신상석(1989), 『민족논쟁의 결산』, 일송정 ; 진덕규 편(1982), 『한국의 민족주의』, 현대사상사 ; 차기벽(1978), 『한국민족주의 이념과 실태』, 까치사 ; 칼톤 헤이즈 지음, 차기벽 옮김(1972),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한길사 참조. 기타 논문으로는 韓興壽(1985),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주의의 탐구』, 정신문화연구원, 189~192쪽 참조. 기타 민족 및 민족주의 관련한 필자의 견해는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개진한 바 있다.

7) 윤명철(2008a), 「한민족 형성의 질적 비약단계로서의 고구려 역사」, 『한민족 연구』 5집, 한민족학회 ; 윤명철(2009), 「한민족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성격」, 『한민족학』 7집, 한민족학회. 시간적으로 첫 번째의 原核 國家는 '(原)朝鮮'이다.

긴밀하고 자연스러운 연관성이 깨짐을 의미한다. 즉 유기체적인 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생물학적 역사적 유전자의 불완전한 계승이 발생한다. 또한 패배와 상처로 인하여 자의식을 상당한 부분 상실하게 된다. 총체적으로 역사적 공동체의 균열과 파손을 낳는다.[8] 특히 근대 이후의 분열과 남북분단은 중국·일본·러시아·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에게 분단의 극복과 통일의 실현은 식민질서의 청산, 냉전질서의 극복, 총체적인 역사의 극복이다. 아울러 우리의 원존재(原存在)가 생성되는 과정과 역할에 대한 이해, 파괴되고 상처 난 가치관의 극복 과정이며, 나아가 21세기 생존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2. 동아시아[9] 질서재편의 문제[10]

현재 세계의 각국들은 군사동맹 외에도 나름대로 EC(유럽공동체)·EU(유럽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역사유기체론을 비롯하여 공간의 문제, 시간의 문제, 문화의 문제 등 이와 관련된 필자의 글들은 논문들 외에 종합적으로 정리한 윤명철(2012),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에 실려 있다.

9)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와 '東洋'을 혼동하고 사용하고 있다. 東洋이라는 단어는 오리엔트 또는 오리엔탈리즘과 무관하게 존재했고 사용되어 왔다. 중국역사에서 해양을 중요하게 여겼고, 국가적으로 동남아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시대가 있었다. 송을 거쳐 원나라시대에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바다를 동양이라고 불렀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은 서구인들의 오리엔트를 동양이라고 번역했다. 그 후 동양은 오리엔트 또는 오리엔탈리즘과 혼합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東아시아'라는 용어와 개념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 개념, 역할 등에 대해서 삼국 모두가 수긍할 만한 통설은 없다.

10) 근래에 나온 동아시아의 질서재편과 관련된 연구물은 한광섭(2012), 『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한울 참조. 윤명철(2012),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그 배경과 해소대안 – 東亞地中海(EastAsian-mediterranean-sea)모델을 중심으로」, 『아

합)·NAFTA(북미자유협정)·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등 국가 간의 결합을 매개로 광범위한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유사한 문명권, 종족, 지역을 중심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자집단주의(自集團主義)'를 실현하고 있다. 가산 살라메(Ghassan Salame)는 지역화는 새로운 영향권 형성을 위한 완곡한 위장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이 초강대국을 선언하고 있고, 유럽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을 계기로 유럽연합(EU)을 결성한 후에 이미 유로화를 발행하여 사용권을 넓혀가고 있다. 토플러는 향후의 세계질서는 세 개의 축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았다. 세 개의 축이란 워싱턴·베를린·도쿄를 말한 것이다.[11] 이것은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쓴 이후에 맥루한의 지구촌 개념을 비롯하여 이미 신질서를 구상한 미국인들의 미국 위주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양세계는 세계화와 지역화(regionalizaion)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유행했던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는 규모나 질에서 다른 점이 많다.[12] 이른바 유사한 문명권, 종족, 지역을 중심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자집단주의(自集團主義)'를 실현하고 있다.[13]

한편 아시아는 오래전부터 APEC·ASEAN 등 협력체를 만들어 통합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이제 성년이 된 아시아는 세계 최고라는 꿈을 꾸고 있다"

시아의 지역갈등과 협력』, 2012 아시아 경제공동체포럼, 한국아시아학회

11) 앨빈 토플러, 이규행 역(1990), 『POWER SHIFT(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2) Hans P. Martin Harald Schuman 지음, 강수돌 옮김(1997),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3) 조지 프리드먼 저, 김홍래 역(2011), 『넥스트 디케이드』, 쌤앤파커스, 96쪽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사람들은 자국의 국가주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국의 금융과 통화체계를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행동에 대해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 다음 10년간의 추세는 경제주권(economic sovereighy)에서 이탈해 경제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는 마이클 블라오스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말레이시아 국제전략연구소장인 누르딘 소피에(Noordin Sopiee)는 동아시아혁명을 이야기하면서 서기 2000년이 되면 동아시아의 GNP가 북미나 서유럽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황인종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세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14]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목표로 삼았다. 2020년에는 완벽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심지어는 IMF를 대체하는 '아시아 통화기금(AMF)'을 창설하고, 달러와 유로화에 대응하는 아시아 가축통화를 만들자는 움직임까지도 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기존의 회원국가들 외에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인도를 참가시켰다. 그러나 냉전질서의 종언 이후 본격적인 세계화(globalization)체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IMF 사태'를 겪고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다.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자각해가면서 강력한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한국·중국·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연해주)가 포함된 이른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의 핵(核, core)국가들의 위상은 높다. 정치력·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군사력은 실질적인 군사력·국방비 지출, 해양력 등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다.[15] 오랜 역사, 유례없는 강력한 통일국가를 경영해 본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통적인 동아시아는 세계라는 큰 틀 속에서[16] 두

14) 조르쥬 V. 바실리우(1996), 「7장, 아시아의 통합」, 클라우스 슈밥 엮음, 장대환 감역, 『21세기 예측(Overcomming Indifference)』, 매일경제신문사 및 『휘치월드』를 참고했다.

15) 21세기위원회(1992),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110쪽.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급속히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제임스 미케너(James Michener)는 "오늘날 태평양은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고속도로'로써 ……"

가지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강력한 몇몇 지역블록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하나는 추후 협력 또는 통합의 상대인 동남아시아 지역과는 중간과정으로서 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모색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속의식과 결속력을 지닌 블록(정치적·경제적인 의미를 지닌)을 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필자는 1993년 이래 '동아지중해'라는 모델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누릴 수 있는 느슨한, 혹은 결속력이 강한 연방형태(동아시아연방)를 지향해야 하고, 중간단계로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를 지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17]

그렇지만 현실은 비긍정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군사적인 역할과 영향력, 경제력의 향상과 체제의 개편, 정치적인 영향력의 확대 등 많은 면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1980년 이래로 경제특구전략 등을 통해서 시장경제체제를 연착륙시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지금은 G2의 반열에 올랐다.[18] 최근에는 중국·대만·홍콩·마카오에 싱가포르 등을

16) 필자와는 다른 견해이므로 소개한다. 백낙청 외 지음(2004), 『21세기의 한반도 구상』, 206쪽. "20세기에 그토록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가져온 민족주의를 제거하려는 고심의 결단이 유럽연합의 핵심에 있다면, 대체로 동아시아에는 바로 이런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아직 민족주의가 생명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는 집단행동을 통해 미국의 압도적 힘에 맞서려는 의지도 없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는 너무나 공통점이 없는 지역이어서 국가들은 서로 극히 다른 발전단계와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17) 윤명철(2000), 「고구려의 東亞地中海 모델과 21세기적 意味」, 『아시아文化硏究』,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윤명철(2003), 「동아시아의 상생과 동아지중해모델」,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세계생명문화포럼

18) 한광섭(2012), 앞의 책, 63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010년 일본을 누르고 GDP 규모에서 세계 2위에 도달하여 …… 1980년대 말 개혁개방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타오광양후이[韜光養晦, 능력을 감추고 실력을 준비함]' 외교노선을 표방했다." 그런데 21세기위원회(1992), 앞의 책, 46~47쪽은 오히려 일본의 부상을 예견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합쳐 '대중국(大中國, great china)'을 건설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나아가 동남아시아의 바트(Baht, 태국 화폐) 경제권을 중국의 시장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19]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강한 영향력 아래에 넣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지역을 '동북 4성화(省化)'시킨다는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20] 2006년 4월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과 나진·선봉(나선시)을 50년 동안 공동관리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나진항의 3호 부두 사용권, 나선시의 5만 km^2 토지사용권을 얻었고, 2012년 9월에는 청진항 사용권까지 획득하였다. 이로써 동해로 연결되는 물류망뿐만 아니라 해군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조중연합함대(朝中聯合艦隊)'가 동해에서 결성될 것이라는 등의 여러 설과 함께 각종 시나리오들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동아시아의 질서를 놓고 잠재적인 적국으로 서로를 주시하고 있다.[21] 중국과 비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지원하면서 외곽포위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중의 센카쿠(조어도) 영토분쟁문제와 남중국해(南中國海) 영토분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계 정치·군사질서가 3각정립의 방향으로 재편됨에 있어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들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둘째,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 및 일본과 중국의 위상변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의 역내 주도국으로서의 부상이 예상되지만 미국이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세력균형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함으로써 불안한 세력균형질서가 예견된다."

19) 윤명철(2009), 앞의 글

20) 윤명철(2007), 「'東北工程'의 歷史外的인 문제와 韓民族役割論」, 『인문학논총』 제12집 1호, 경성대학교

21) 한광섭(2012), 앞의 책, 37쪽.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PwC)도 2008년 3월에 낸 보고서에서 2025년이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책은 중국과 연관한 최신 자료들을 열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문제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22)]

남한은 현재 경제력이란 측면에서만 본다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 10위의 경제권을 달성하였다. 비록 빈부 간에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생활의 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2008년의 위기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이후 경제상태가 악화됐고, 최근에 들어서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은 경제 및 이념 갈등을 비롯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와 맞물려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맺고 있으나,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는 우호적이다. 물론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기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고, 앞으로도 갈등이나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 윤명철(2012),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그 배경과 해소대안 – 東亞地中海(EastAsian-mediterranean-sea)모델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지역갈등과 협력』, 2012 아시아 경제공동체포럼. 한국아시아학회. 제2장 2절은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갈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23) 다음의 글은 한중관계의 우호적인 측면을 소개한 글이다.
"한중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문화적으로 생활과 풍습 등이 매우 유사하며, 둘째, 자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셋째,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양국 최고지도자 모두가 긴밀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한광섭(2012), 앞의 책, 35~36쪽]."
그런데 조지 프리드먼과 필자는 견해가 다르다. 다음 글처럼 중국을 덜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전략 1단계는 우선 중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이 약해질수록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의 대미 수출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일본 경제의 재부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의미에서도 무엇이 됐든 미국에 이득이 된다[조지 프리드먼 저, 김홍래 역(2011), 앞의 책, 291쪽]."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복잡미묘한 경쟁 및 대결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센카쿠제도 – 댜오위다오 등의 영토분쟁도 그 가운데 하나다.[24] 한국과 일본은 우호협력 내지 경쟁관계이지만, 과거 청산과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러시아는 1992년 1월 1일에 군사항인 블라디보스토크를 개방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대(大)아시아 전략의 틀 속에서 프리모르스키(연해주) 지역을 다시 중요하게 여기고 정책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 두만강 하구의 군사전략적 가치와 하산(Хасан) 등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일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2001년에 중·러 선린우호조약을 맺은 데 이어 2005년에는 중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국경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고 중국과 공동으로 경제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갈등과 경쟁의 관계다. 비록 한시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지만 연해주 영유권과 두만강 하구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흑룡강 이북의 지역은 청나라의 영토였으며, 특히 연해주 지역은 1860년에 맺어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다.[25] 따라서 중국은 연해주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4) 조지 프리드먼 저, 김홍래 역(2011), 앞의 책, 270쪽
"일본 – 중국의 관계는 전쟁(중일전쟁)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남아 있는 적대심과 불신감의 일부분은 미국의 존재에 의해 통제되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중국 및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산업적 역량을 필요로 했으며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25) 劉惠瑞·劉恩瑞 저, 손준식 역(2012),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36~50쪽
1689년 7월 24일 청과 러시아는 「네르친스크조약」을 체결
1858년 5월 28일 「중·러 아이훈성 강화조약」(약칭 「아이훈조약」) 조인
1860년 「중·러 북경조약」(중·러 「북경續增조약」이라고도 부름) 체결. 이 조약에 따라 중국은 흑룡강 이남과 우수리강 이동의 40만km²의 토지를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복을 원하고, 패권을 장악하고 러시아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서 동해로 진출하고자 한다.[26] 이 정책은 동북공정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는 이른바 북방 4개 도서인 남쿠릴열도의 영토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며, 동해북부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다.

또한 일본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있다. 북한은 2002년에 신의주 경제특구전략을 발표했다가 중국의 압력을 받고 즉시 철회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하여 한국과 함께 개성공단을 개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시 압록강과 바다가 만나는 비단섬(단동시 외곽의 북한 측 섬)을 중국과 공동으로 경제특구화 시키겠다고 하였다. 물론 중국의 양해와 협조 아래 진행되는 것이다.[27] 중국과는 간도문제, 백두산 천지(장백산 공정) 등의 문제가 있고, 러시아와는 녹둔도(鹿屯島)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의 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다.

동아시아 각국들은 군사비 지출과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예산이 1년에 370억 불(98년 기준)로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며, 특히 해양력은 2위이다. 또 1994년 이후에 발효된 해양영토의 기준을 적용하면 세계 5위에 달한다. 중국도 해군비를 급작스럽게 증액하고 2012년 10월에 항공모함 1척을 취역시키는 등 해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8]

했다. 러시아는 극동의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를 획득하였고, 태평양함대 창설의 시발점이 되는 영구적인 해군기지를 갖게 되었다. 1850~1860년대까지 러시아는 중국에 세 건의 불평등조약을 강요해 150만km²의 토지를 강제로 점령했다.

26) 윤명철(2010), 「연해주 지역의 역사 및 현재적 의미」, 『한러 관계사의 연구현황과 한러 관계증진의 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러시아 아카데미 극동지부

27) 황금평 경제특구는 2011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6월 초 착공식을 가졌다.

28) 21세기위원회(1992), 앞의 책, 46~47쪽. "세계 정치·군사질서가 3각정립의 방향으로 재편됨에 있어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들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동아시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가 발호하고 있다. 과거 약소국들이 추구하던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소박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패권을 장악하는 도구로 삼고 주변 국가들의 진실을 왜곡하며, 다른 존재를 말살하려는 제국적인 민족주의다. 중국은 '동북공정(東北工程)'·'서북공정(西北工程)'·'서남공정(西南工程)' 등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을 일삼고 일본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역사교과서 왜곡·독도영유권에 대한 시비·중국과 영토분쟁(센카쿠제도, 조어도) 등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을 적대국으로 삼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해양력 대결의 불가피'와 '항로의 배타적 독점권' 등의 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자칫하면 과거처럼 종주권 및 패권 쟁탈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29] 거기다가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제2차 남해대전(南海大戰), 즉 남중국해의 해상권을 놓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상 시나리오를 유포하고 있다.[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다. …… 둘째,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균형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 및 일본과 중국의 위상변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일본의 역내 주도국으로서의 부상이 예상되지만 미국이 일본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세력균형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함으로써 불안한 세력균형질서가 예견된다." 이 전망에 오류가 있었음은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29) 21세기위원회(1992), 위의 책, 111쪽. "일본· 중국·인도 등 지역패권국가들은 힘의 공백을 이용하여 지역패권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 지역 혹은 局地 차원의 세력균형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제 일반화되고 있다.

30) 劉惠瑞·劉恩瑞 저, 손준식 역(2012), 앞의 책, 102쪽. 남해의 영문 명칭 'South China Sea'를 중국어로 번역한 '남중국해'는 국제사회와 동남아국가들이 사용하는 남해의 통상적인 이름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4대 영해 중 하나로 총면적은 3,589,100km^2(나머지 세 영해인 발해와 황해·동중국해를 합친 면적의 3배)이고, 해역 안에는 동사군도(Pratas Islands)·서사군도(Paracels Islands)·중사군도(Macclesfield Islands)·남사군도(Spratly Islands) 등 통칭 남중국해 제도라 불리는 총 280여 개의 섬과 암초 등이 있다.

이렇게 대혼란을 수반하며 재편되는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최소한이라도 자주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면 변화가 무쌍한 세계질서의 대양 속에서 우선 전략적으로 세계사적인 입장과 동아시아적인 입장, 민족적인 입장을 함께 고려하면서 국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는 고구려가 발전했던 당시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지정학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북방의 유목종족, 중국, 우리와 일본이라는 4각의 기본적인 구도와 정치적인 역학관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 다만 일본이 7세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존재였고, 고구려의 발전기에 중국은 남북조(南北朝)로 분단되어 있었던 반면, 현재는 우리가 분단된 것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중국은 동아시아의 강력한 중심부였고, 패권을 오랫동안 장악해왔다.

이러한 기본구도 속에서 고구려는 자기의 대응방식을 갖고 발전하면서, 동아시아의 강국이 되었다. 우리민족사에서 중국세력과 대등하게 관계를 맺고, 때로는 외교적으로 주도권을 쥐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전면전을 치른 나라는 고구려였다. 우리는 고구려의 정치체제와 외교전략, 경제체제 및 주변국에 대한 문화정책, 군사전략 등에 대한 기본패턴을 이해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향후 전개될 질서재편의 방향과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또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구려가 추진한 정책을 '동아지중해 중핵조정론(中核調整論)'이라고 설정하고 그것을 모델로 하여 동아시아의 기본구도와 함께 향후 우리 민족의 위치와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I. 광개토태왕의 국가발전 정책과 성과

광개토태왕은 재위하는 22년 동안 끊임없이 정복활동을 했다. 『삼국사기』의 '광개토왕(廣開土王)', 비문의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그리고 모두루총 묘지석의 '국강상광개토지호태성왕(國岡上廣開土地好太聖王)',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굴된 청동합 명문의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 등으로 표현했다. 이 명칭들은 태왕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넓힌 임금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가 벌인 영토 확장전 및 군사활동 등의 사업과 그로 인한 성과들을 분석하면 그는 단순한 정복군주가 아니며, 뛰어난 정치가임을 알 수 있다. 넓게 확대했다는 토(土)는 토지나 영토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고, 동아시아의 질서이며, 국제역학관계였다.

이 글은 태왕이 추진한 국가발전정책과 그 성과를 군사작전 및 영토확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국제질서의 변동과 영토팽창과정

태왕이 추진한 정책배경과 집행과정을 이해하려면 전 시기인 4세기 고구려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4세기에 접어들어 동아시아에는 정치적 변동이 생기고 특히 중국은 북쪽은 5호 16국, 남쪽은 동진(東晋)의 건국이라는 대혼란시기가 도래했다. 이러한 남북분열과 호한(胡漢)체제[31]의 성립은 동아시아 전체에 분열과 질서의 변동을 야기시켰으며, 역학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첫째, 중국지역은 남북으로 이원화되고 종족적·문화적·역사적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다. 둘째, 동아시아 정치·외교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한(漢)·후한 및 삼국시대와 달리 해양활동이 약화되었고, 중간에 위치한 유목종족의 국가들로 인하여[32] 황해를 내해(內海, inland-sea)로 한 중국의 남북지방과 한반도의 국가들, 그리고 일본열도로의 연결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육상전 외에 해양전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33] 남북의 대치상태에서 해로(海路)는 각국 간을 연결하는 교섭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즉, 요동반도 남부 일대에 있었던 연(燕)·동진(東晋)·고구려·후조(後趙) 등은 상호 간에 외교·군사동맹·문화교류·무역 등을 해양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4세기 중반 북방에서 형성된 역학관계는 각국이 육자와 해양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복잡해졌다.

이러한 복잡성은 대(對)남방관계에서도 나타났다. 고구려는 낙랑 대방을 축출한 황해도 일대의 정치적 공백을 메우고, 대외교섭에서 발생하는 정치·외교·경제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출을 시도했다. 미천왕과 고국원왕은 북방뿐만 아니라 남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반면에 백제는 근초고왕 20년(366)에 왜와 교섭한 이후[34] 대중(對中)교역을 추진하고, 일본열도와 한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1) 胡漢體制에 대해서는 朴漢濟(1989), 「胡漢體制의 展開와 그 構造」,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편, 『講座 中國史』 2, 지식산업사, 64쪽

32) 유목사회와 정주사회의 문화적 차별성에 대해서는 김호동(1989), 「고대유목국가의 구조」, 『강좌 중국사』 2, 지식산업사, 257~263쪽

33) 南朝에서의 해양활동 상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李永采 外 編著(1990), 『海洋開拓 爭覇簡史』, 海洋出版社, 56쪽 ; 孫光圻(1989),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212~235쪽 ; 彭德清 編(1988), 『中國航海史 – 古代航海史』, 人民交通出版社, 84~100쪽

34) 『日本書紀』 卷9 神功紀 攝政 46年. "春 三月 …… 遣于百濟國 慰勞其王. 時百濟肖古王深之歡喜 而厚遇焉 ……."

도 중부이남, 그리고 중국지역을 잇는 광범위한 교역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황해중부 해상권을 확보해야 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북방진출을 꾀해야 했다. 따라서 고구려의 남방진출 의도와 근초고왕의 북방진출 의도는 정면충돌을 하였고, 결과는 고구려의 좌절로 일단락됐다.

그런데 4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국가 간에 형성되었던 역학관계는 폭발적으로 변동을 일으켰다. 화북에서는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전진(前秦)이 멸망하면서 분화되었으며, 후에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北魏)가 성립되었다. 요동지역에서는 전연(前燕)이 멸망하고 후연(後燕)이 들어섰고, 산동반도에는 남연(南燕)이 성립하였다. 바야흐로 북중국은 통일되기 직전의 대혼란시대에 들어섰다. 남쪽에서는 동진(東晋)이 잔명을 유지하는 상태였다. 한편 백제는 계속해서 고구려의 남쪽 국경을 침략하여 약탈하고 백성들을 끌어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고구려는 서쪽으로는 연, 남쪽으로는 백제 등과 간헐적으로 전투를 벌이고, 때로는 패배도 당했다. 또한 국내상황도 심각하였다. 388년에는 가뭄이 들었고, 여름에는 메뚜기 떼들이 습격해서 민심이 흉흉했다. 이듬해에는 기근이 심했다. 광개토태왕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지정학적인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구려를 동아시아 세계의 강력한 패자(覇者)로 만들어야 했다.[35]

35) 고구려의 패자의식은 廣開土王陵碑文과 비를 건설한 長壽王의 의도에서 확인이 된다.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201~317쪽에는 비문에 나타난 당시 고구려, 특히 長壽王의 대외인식태도가 기술되어 있다. 고구려인들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當時代人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백제와 신라 역시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2. 광개토태왕의 영토팽창과정

태왕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정책을 입안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영토를 팽창시켰는가를 알기 위하여 군사활동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광개토태왕의 정복활동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고, 필자 또한 해양과 연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큰 틀 속에서 논리전개에 필요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건들을 단순하게 거론하기로 한다.

광개토태왕은 즉위 첫 해에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고 뒤이어 곧 북으로 거란을 정벌하였다.[36] 즉위 직후에 동시에 남과 북으로 전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전쟁수행능력 또는 군사작전능력이 성숙되었고, 정책방향 혹은 정복대상이 남·북·서를 동시에 지향하는, 즉 전방위 정복활동이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군사전 위주의 이러한 대외정책은 재위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감행되었다.

먼저 북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글에서 사용한 '북방'이란 용어는 지역적으로는 북쪽과 요동 등의 서쪽지역, 그리고 동해와 타타르해로 이어지는 동쪽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규정하면 서북쪽과 동북쪽이다. 『삼국사기』에는 즉위 초에 거란을 정벌하여 500여 명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되어 있다. 반면에 『능비문(陵碑文)』에서는 비려(碑麗)를 토벌하고 3부

36) 『陵碑文』에는 양국 간의 격전기록이 396년에 처음 일어난 것으로 되어있는 데 반하여 『三國史記』에는 392~395년간에 몇 차례 교전을 벌인 것으로 되어있다. 『三國史記』와 王碑文 간에 연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전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인용자료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陵碑文』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자 한다.

락 6,700영을 공파하고 수없이 많은 우마군양(牛馬群羊)을 노획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려와 거란의 동일성 문제가 있고, 비려의 위치도 요하 이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지역은 요동과 동몽골 지역을 가로지르는 시라무렌 강 상류와 난하(灤河) 상류 사이에 있는 염호(鹽湖) 일대로 추정한다.[37] 시라무렌 강은 내몽골과 요서지방이 만나는 지역으로 지금의 적봉지구와 가깝다. 태왕은 402년과 404년에 후연을 공격하고 405년에는 요동성, 406년에는 3,000여 리를 행군해 와서 목저성(木底城)을 침입한 후연을 물리침으로써 요하 이동지역을 완전히 수복하였다.

태왕은 즉위 8년인 398년에는 식신을 정벌하였다. 이것이 숙신(肅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38] 대체로 한국학계에서는 숙신설을 따르면서 동만주 연해주 방면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왕 시대에 고구려는 동류송화강(松花江) 하류지역과 흑룡강(黑龍江)이 마주치는 지역, 그리고 주변 일대의 평원과 삼림지대를 장악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즉위 20년인 410년에는 동부여를 친정하여 복속시켰다. 이 당시 동부여의 위치는 영흥만(永興灣) 또는 두만강 하류라는 설이 있으나,[39] 계루부의 고지(故地)일 경우 두만강 유역이 보다 타당하다.[40] 이때 동부여의 세력 속에는 매구루(味仇婁)가 속하였으므로 연해주 일대도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41]

37) 徐榮洙(1982), 「廣開土大王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 上」, 『歷史學報』 96, 99쪽
38) 千寬宇(1979), 「廣開土王碑再論」, 『全海宗華甲紀念論叢』, 537쪽
39) 申采浩는 琿春, 李丙燾는 文川說을, 천관우는 농안방면으로 비정했다가 두만강 하류로 수정하였다.
40) 오늘의 牧丹江 유역 일대에서 연해주에 걸쳐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손영종(1986),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영역」, 『력사과학』 1986-2, 25쪽
41) 徐榮洙(1985),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征服記事 再檢討 中」, 『歷史學報』 106~107쪽. 千寬宇는 「廣開土王陵碑文再論」, 517쪽에서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는 견해를 보였다.

북부여의 고지도 이때 고구려의 영토였다. 모두루총 묘지석에는 "…… 교견(敎遣) 영북부여수사(令北夫餘守事)"라는 글자가 있다. 관리를 파견하여 북부여 지역을 통치했음을 알려준다. 초기 북부여의 위치는 눈강(嫩江) 상류지역인 치치하얼[齊齊哈爾], 혹은 눈강 하류와 북류 송화강이 만나는 대안(大安)을 중심으로 한 송눈평원(松嫩平原)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42] 태왕 당시의 북부여 위치를 놓고 개원(開原) 일대 등 여러 설이 있지만 최소한 장춘(長春) 농안(農安)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북부여의 유민들은 두막루국이 고구려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구려는 만주 지역의 역사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직접 점령하는 외에 간접지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도 채택한 듯하다. '터 이론'을 적용할 경우 간접지배방식이 가능한 유목초원지역 및 수렵삼림지역의 특성상 군사작전지역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은 더 광범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남방을 목표로 삼은 군사작전이다. 광개토태왕이 즉위하기 직전인 389·390년에 백제는 연속적으로 고구려의 남변(南邊)을 침입하였다. 광개토태왕은 2년(392) 7월, 4만의 군사로 백제를 공격하여 석현(石峴) 등 10현(縣)을 함락하고 10월에는 수군을 동원하여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함락시켰다.[43] 『능비문(陵碑文)』에 의하면 즉위 2·3·4년[44]에도 백제와 수차례 전투를 벌이는 등 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2) 池內宏도 유사한 견해를 표명했고, 중국학자들은 동명이 건넌 掩遞水를 嫩江 하류로 보는 견해가 많다. 傅朗云·楊暘(1989), 『東北民族史略』, 吉林人民出版社, 37쪽

43) 關彌城(『三國史記』)과 閣彌城(『陵碑文』)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王健群, 앞의 책, 187쪽 참조). 그러나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에 지장이 없으므로 한시적으로 關彌城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필자는 關彌城을 『陵碑文』 丙申조에 공취된 이외의 성이고, 해양전략적인 입장을 고려해 해안지역이면서 방어적 성격을 갖춘 강화도 해안북부로 보고 있다.

기에는 주로 백제와의 전투에 임했다. 대왕은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 6년(396)에는 다시 수군을 투입하여 백제를 쳐서 58성 700여 촌을 탈취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공파된 성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황해도·충청도 일부지역으로 보인다.

399년에 태왕은 평양을 순행하였는데, 이는 평양지역을 보다 확실하게 경영하고, 전략적인 가치를 재확인하며, 국가정책에 더욱 비중을 두기 위함이었다. 이어 400년에 백제·가야·왜의 연합군이 공격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하기 위해 보기(步騎) 5만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신라 영내를 거쳐 임나가라(경북 고령 일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전방위 정복정책'을 통해서 고구려는 요하 – 개원 – 영안(寧安, 추정) – 혼춘(琿春) 이남의 남만주에서 임진강 이북까지 영토화했으며 군사행동은 경기만을 비롯하여 고령과 김해까지 미쳤다.[45] 한반도 중부 이북과 요하 전선, 북만주 지역, 그리고 동만주 남쪽 일대를 영토화 또는 영역화시킨 것이다. 이를 계승한 장수왕 때는 북연의 멸망에 개입하면서 요하전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475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영토를 서부해안의 아산만 유역까지 확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영토까지도 공격하고 탈취하였다.

그런데 이 확장된 역사공간들은 몇 개의 범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첫째, 압록강 하구를 포함하여 전시대에 확보한 영토가 기본 핵이며, 둘째, 요동반도 일대와 주변해양, 셋째, 북만주 일대, 넷째, 두만강 하구와 연해주 남

4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第6 廣開土王 2~4年條

45) 千寬宇(1979), 「廣開土王陵碑文再論」, 『전해종 화갑기념논총』, 566쪽. 그런데 徐榮洙는 앞의 글(1985), 124쪽에서 광개토왕은 大陵河선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 일대, 다섯째, 평양 및 대동강 하구 일대, 여섯째, 경기만 일대 및 한성 일대, 일곱째, 신라영역에서 가야영역으로 이어지는 경상도와 동해중부 이남 해양이다.

이 공간들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나며, 또한 일정한 틀과 논리가 작동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위치상 육지와 해양이 만나는 접점으로 항구 도시가 발달한 곳이다. 둘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충돌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교류에 적합한 전략적 거점이다. 셋째, 수도권인 중핵(中核)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지만 교통상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다. 넷째, 국가체제를 이루는 데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섯째, 모든 공간들을 하나의 체제 속에 편재시킬 경우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망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망은 해양교통망·수로교통망·육로교통망 등을 연결한 해륙교통망이다.

여섯째, 결론적으로 지정학적·군사적·지경학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전략지구였다. 이 공간들은 만주 일대와 한반도를 중간에 두고 황해 동중국해 남해 동해 타타르 해 등이 둘러싸고 있는 해륙적 환경 속에서 각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필자가 설정한 모델에 따르면 동아지중해의 중핵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제이고, 해양과 육지영토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해륙국가의 형태였다. 결론적으로 광개토태왕이 실천한 영토확장 작업은 뚜렷한 목표와 실천방식을 준비한 '국가발전정책의 일환'이었으며, '국토재편계획의 일환'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V. 국가발전 정책의 성격과 의미

앞 장에서 광개토태왕의 영토확장정책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및 한민족 질서 내부의 역학관계라는 관점, 역사적 명분 및 정통성 획득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인식과 연구성과들을 토대로 국가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유형화시키는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필자는 역사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터와 다핵(多核, field & multi-core)이론'을 제기해왔다. 역사공간은 지정학적(geo-politics)인 관점으로는 강력한 정치체의 영토 또는 영역이다. 관리와 지배방식, 사회제도와 정치구조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한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다르다. 지경학적(地經學的, geo-economics)인 관점으로는 생산장소와 시장으로서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의 취득뿐만 아니라 공급 및 교환과 직결되어있다. 산업 체계 및 상업 체계, 물류망 등과 직결되어있다. 획득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다. 또한 지문화적(地文化的, geo-culture)인 관점으로는 문화의 생성 및 변형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생산물의 종류가 다르면 생산방식이 달라지고 의식주의 형태와 성격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민속 등 대부분의 문화는 성격과 질에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공간은 지심학적(地心學的, geo-mentalogy) 관점으로 인간과 집단이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관점, 즉 세계관·인성·가치관 등이 생성되는 공간이다. 사유의 내용과 형식, 신앙의 성격과 형태에 영향을 끼친다.[46] 그러므로 공간에 바탕을 둔 역

46) 와쓰지 데쓰로의 다음과 같은 시각은 유사한 문화권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인간존재의 공간적·시간적 구조는 풍토성·역사성으로서 자기를

사와 문화 또는 문명은 인문환경뿐만 아니라 생태와 풍토 문제 등 자연지리의 개념과 틀을 포함하면서 이해해야 한다.[47]

1. 정치외교의 중핵 – 균형과 조정

첫째는 정치외교의 중핵(中核, core)역할이다. 동아시아 세계는 분열과 분단의 시대였고, 고구려·백제·신라·가야·왜 등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광개토태왕이 선택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정치·외교·군사의 중핵조정역할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토를 넓게 확장하여 국력을 강화시켜야 했다. 그것은 전략적 효율성과 군사체제, 고구려의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는 정책이었다.[48]

요동지방을 영토화시킨 사업은 지정학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고구려를

나타내 간다. 주체적 인간의 공간적 구조에 기반하지 않고는 모든 사회적 구조는 불가능하며, 사회적 존재에 기반하지 않고는 시간성이 역사성이 되지 않는다. 역사성은 사회적 존재의 구조인 것이다. 풍토성도 또한 사회적 존재의 구조다." 와쓰지 데쓰로 저, 박건주 역(1993), 『풍토와 인간』, 장승

47) 이시 히로유키·야스다 요시노리·유아사 다케오 지음, 이하준 옮김(2003),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경당 ; H.H 램 지음, 김종규 옮김(2004), 『기후와 역사』, 한울 아카데미 참조
이러한 관점으로 작성한 필자의 논문으로는 윤명철(2006), 「東아시아의 海洋空間에 관한 再認識과 活用 – 동아지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 ; 윤명철(2008b),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 – '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을 통해서」, 『한민족』 4호 ; 윤명철(2008c), 「渤海 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 – '터(場, field)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대학』 17집 등 참조

48) 영토와 영유, 직접지배와 간접지배 영향권, 면·선·점의 분류와 성격 가능 등은 윤명철(2012), 『해양사연구 방법론』, 학연문화사, 84~97쪽 및 윤명철(2008c), 앞의 글 ; 윤명철(2008b), 앞의 글 등 참고

직접 단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연(燕)이라는 정치세력을 제거했고, 북방종족들의 남하를 저지하는 1차 방어선이며, 산해관 너머 화북세력 사이에 군사적인 공백지대를 설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 외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 중국을 동북부로부터 직접 압박할 수 있고, 북방종족들과 결탁하면 중국 북부를 협공하거나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요동반도 해안의 도서지역과 장산군도 등을 장악하고, 해양방어체제를 쌓아 해상봉쇄와 항로보호에 유효적절하다. 특히 요동만·서한만·대동강 하구·경기만을 잇는 황해 동안의 연근해항로를 확보하고, 황해중부 이북의 동쪽 바다를 안정된 내해(內海, inland sea)로 삼아 영역권화할 수 있었다. 북조 세력과 교섭하는 데 교류환경이 유리했다.

북부여 지역을 직접 통치구역화 시키면서 선비 계통의 여러 부족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로 활용할 수 있었다. 두만강 하구 및 연해주 지역은 410년에 친정하므로써 동예·옥저 등의 토착세력들을 직접관리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동쪽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자연환경상 서쪽이나 남쪽보다는 이익과 관심이 적었으나 동해와 연결되었으므로 외교나 군사전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이 무렵 고구려가 동해북부 해양을 건너 혼슈 북부나 홋카이도, 사할린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무역을 했을 경우에는 거점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압록강 하구는 북서쪽의 중국세력과 남쪽에 있었던 한군현의 잔재세력들이 양쪽으로 가하는 압박을 타개하고, 교류망을 끊을 때 유리했다. 양 세력의 육로연결망을 차단하고, 동시에 서한만 일대 즉, 황해북부항로의 해상권을 장악하여 해로연결망을 차단하고자 할 때 이를 추진하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압록강 하구이며, 그 중심이 현재 단동지역이었다.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압록강 하구 유역은 언제나 여러 세력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특히 고구려와 후한, 고구려와 위 등 사이에 치열한 경쟁과 전쟁이 벌어졌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기만은 한반도 및 환황해권의 역학관계가 결정되는 거점핵이다. 선사시대부터 중국지역, 남만주지역, 한반도지역, 일본열도를 이어주는 황해연근해항로가 경유하면서 한반도 중부와 산동반도를 연결하는 황해중부횡단항로와 만나는 해양교통의 십자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부지역의 정치세력을 통합하고, 백제·신라·왜가 중국과 교섭하려면 꼭 통과해야 하는 해역이므로 황해해상권을 장악하는 군사 외교상의 거점이다.

고구려는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동아지중해의 중핵국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백제와 구속력이 있는 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일부지역을 점령하여 배후를 안정시키는 전략이 필요했다. 또한 중국지역이 남북조로 분단되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제외교에서 중심부를 차지해야 한다. 여기서 '외교통로의 장악과 관리'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으며, 지역적으로 특히 경기만은 중요했다.

평양지역은 군사적으로 효용가치가 컸다. 주력전선인 북방전선과의 방어거리를 넓힐 수 있는 반면에 남방으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전진거점이었다. 또한 경기만을 완전하게 장악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관미성 전투나 396년 전투에서 활용된 수군 작전은 대동강 하구와 해역을 기지로 삼았을 것이다. 또 하나 평양지역은 육로교통과 대동강 수운을 이용한 내륙수로교통은 물론 해양교통에도 적합하다. 그러므로 황해해상권을 확보하고, 해상로를 통제하는 데는 적합한 조건을 갖춘 도시다. 고구려는 평양을 사신선 등의 발진기지로 삼아 대중(對中)교통, 특히 대남조(對南朝) 교통로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등거리 외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았다. 이러한 평양지역 중시 정책은 장수왕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동아지중해 중핵조정역할을 실현할 수 있었다.

한편 신라와 가야 영토도 고구려에게는 정치·외교적으로 중요했다. 태왕

은 한민족 남부질서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큰 틀 안에서 백제 공략이라는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음 목표인 신라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태왕은 실성왕(實聖王)에게 불평등외교를 강요하면서 지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400년에는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신라의 국경 안으로 진격시켰다. 이 작전은 백제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신라에 대한 종주권을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 즉 국제질서의 시각에서 보면 백제와 왜[49]가 해양을 연결고리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보고 신라를 이용하여 남부중심의 외교질서를 붕괴시키려는 것이었다.

고구려군은 신라 영내에 주둔하면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고구려는 이후 신라에 대한 지배권을 강력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50] 태왕은 백제와 우호적인 가야까지 세력권에 넣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51] 가야의 고분군에서 발견된 기마관련 유물들은 그 작전 이후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52] 김해지역은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가는 출구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9) 당시 왜의 성격에 대해서는 李鍾旭(1992),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正體」, 『韓國史市民講座』 11 ; 李鍾旭(1991), 「新羅를 비롯한 韓 倭의 政治勢力과 中國郡縣과의 關係」, 「新羅와 周邊諸國의 文化交流」,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9, 新羅文化宣揚會 ; 延敏洙(1990), 「任那日本府論」, 『東國史學』 24 ;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204~211쪽 참조. 이 글에서는 지역에는 상관없이 일본열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세력을 倭로 보고자 한다.

50) 경주의 壺杅塚에서 발견된 청동호의 명문은 글씨체도 集安에 있는 陵碑文의 것과 동일하다. 鶴巢壹一區 3號墳, 慶州皇南洞 10號墳 등에서 고구려 유물들이 발견됐다.

51) 千寬宇(1972), 「韓國史의 潮流」, 『신동아』, 129쪽에서 당시 東北亞의 정세를 고구려 – 신라 – 前秦(北中國)과 백제 – 가야 – 왜(北九州) – 東晋(南中國)의 계열적 동맹과 대립의 형세가 정립되었다고 하였다.

52) 咸安 末伊山 34호분, 高靈 池山洞 32호, 44호분에서는 高身分層의 전용방어장비인 기마용의 복발유철제주가 출토되었다. 東萊 福泉洞 10, 11호분에서 출토된 甲冑類, 馬具類는 거의 고구려계통의 것이고, 특히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되어 있는 무인의 장비와 일치하고 있다. 福泉洞 21, 22호분에서도 고구려계의 武具가 출토됐다. 『東萊福

할을 하였으며 고대부터 교섭의 창구였다. 따라서 고구려가 남해일부까지 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은 해양활동능력의 확대를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광개토대왕은 백제세력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재기를 막도록 왜를 제압해야 했다. 백제는 중부 해상권의 약화로 말미암은 대중외교의 고립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왜와 동맹을 맺어야 했다. 그런데 왜는 백제·가야와 함께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고구려의 대왜전에 명분을 제공했다. 이어 태왕 14년인 404년에는 백제와 왜 연합군이 전세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수군을 동원하여 대방계를 침입하였으나 태왕의 친정군이 궤멸시켰다. 태왕의 남진정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백제를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농경지를 확보한다는 기본적인 동기 외에 국제전적 성격을 띠면서 해양력 확대를 통한 동아질서재편을 유도한다는 좀 더 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을 계승한 장수왕 시대에 고구려는 만주 일대, 한반도 중부 이북의 북부지역 등 거대한 육지영토를 차지하였고, 거기에 황해 중부 이북, 동해 중부 이북의 해양영토를 확보하여 명실공히 해륙국가가 되었다. 곳곳에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여 질서의 축을 세우고,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함으로써 자국 중심(core)의 거대한 망(net)을 구성하고 동아시아 삼각축의 하나로서 명실 공히 중핵국가가 되어 조정능력을 가지면서 한민족 질서의 패자가 되었다.

泉洞 古墳群』 1(1983), 부산대학교 유적조사보고 제5집, 146~172쪽 ; 「東萊福泉洞古墳群의 調査內容과 그 性格」, 『韓國文化硏究』 4(1991),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5~27쪽

2. 경제 물류의 거점 – 집산과 중계무역

둘째는 경제물류의 거점(hub)을 확보하는 일이다. 광개토태왕릉비문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히 삶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다. 백성들은 그 삶이 안정되었고 국가는 부유하고 백성도 은실했다. 오곡이 풍요롭게 잘 익었다(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태왕은 경제정책에서도 성공한 군주임에 분명하다. 그가 추진한 영토팽창은 한편으로는 경제영토와 경영방식의 확장이다. 국가경영과 관련하여 태왕이 펼친 경제정책은 두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하나는 자원 확보와 수급을 위한 '경제영토의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물류거점의 확보와 무역'이다.

1) 자원의 확보

광개토태왕이 요동지방을 점령한 사업은 에너지자원을 확보하는 경제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요동지방은 석재나 철·동·아연 등 지하자원이 풍부했다.[53] 한나라가 염관과 철관을 두었던 평곽현은 요동군에 속했고, 고구려에서 건안현으로 불렸다.[54] 안시성은 『요사』 지리지에 나오는 철주(鐵州)일 가능성도 크다.[55] 철은 농기구를 비롯하여 각종의 무기를 만드는 기본재료이었고, 값비싼 무역품목이었다. 『수서(隋書)』 남실위전에는 "그 나라에는 철이 없어서 고구려로부터 공급받았다(其國無鐵 取給於高麗)"[56]라는 내용이 있다. 『당서(唐書)』

53) 요동지방의 철 등 지하자원의 가치를 주목한 사람은 이용범(1989), 『한만교류사연구』, 동화출판공사

54) 『漢書』 卷28 地理志 第8 下1 遼東郡. 平郭은 漢이 鹽官과 鐵官을 둔 곳으로 소금이 생산되던 곳이다. 요동반도의 瓦房店 普蘭店 등은 지금도 대규모 염전이 발달해 있다.

55) 『遼史』 卷 38 地理志 2 東京道

56) 『수서』 권 84 열전 제 49 실위

실위전에도 "토지는 적고, 금과 철은 고구려에서 사왔다(土少金鐵 率貿於高麗)"[57]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른바 마철(馬鐵)교역이 이루어졌다.

북만주 일대 또한 자원의 공급지였다. 『삼국지』에는 "부여에서 붉은 구슬[赤玉]과 아름다운 구슬[美珠]이 산출되는데, 구슬은 대추만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위서(魏書)』 동이전 고구려조에도 '황금은 부여로부터 나왔다(黃金出自夫餘)' 라고 하였다. 『위서』에는 장수왕이 한 번에 황금 200근, 백은 400근을 조공했다고 하였으며, 고조 때는 전보다 두 배로 조공을 하여 답례품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있다. 엄청난 규모의 황금무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자원 가운데에는 전략물자이기도 한 말이 있었다. 북부여 지역인 장춘·농안의 이북에서 눈강(嫩江) 유역까지는 초원지대로서 '출명마(出名馬)' 지역이다. 고구려는 전투용 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했다. 태왕은 거란을 정벌한 후에 우마군양(牛馬群羊)을 노획해서 귀국했다. 산동반도에 자리잡고 있었던 남연에서 물소나 앵무새 등을 수입하고 말, 모피, 화살 등을 수출하였다. 『태평어람』에는 고구려가 천리마·곰가죽·말에 흙이 튀어 오르는 것을 막는 장니(말다래)를 보냈다고 한다. 장수왕은 439년에 강남지방에 있었던 송나라에 800필의 말을 배에 실어 보내기도 했다. 그만큼 말은 고구려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한편 광개토태왕이 북만주와 동만주 일대를 장악하면서 고구려에는 수렵경제, 삼림경제가 발달하였다. 『삼국지』 부여전에는 부여에서 여우·삵·원숭이·담비 가죽 등이 생산된다고 기록되어 있다.[58] 담비 가죽은 사치품이면서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동만주 일대와 연해주 지역은 각종 침엽수가 울창한 삼림지대였다. 목재는 전근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자원으로서 건축, 선박 건

57) 『당서』 권 219 열전 제 144 실위
58) 『삼국지』 동이전 부여 "大人加狐狸白黑貂之 以金銀飾帽."

조, 야철업에 활용되었다. 이 일대에서는 약재와 꿀·버섯·산삼 등의 식용작물도 산출되었다.[59] 담비 가죽은 읍루에서도 명산으로 취급됐다. 고구려는 동옥저에서 담비가죽, 베, 어염(魚鹽), 해중(海中)식물 등을 조세로 받았다. 두만강 하구, 우수리강, 흑룡강 등에서 어렵(漁獵)도 하였다.

태왕의 경제영토 확장은 농경지 확보와 직결되었다. 3세기의 상황을 기록한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좋은 밭이 없어서 비록 힘들여 농사를 지어도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다'[60]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5세기 초에 세운 광개토태왕릉비에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도 많아졌으며, 오곡이 잘 익었다'[61]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식량생산지를 확보한 결과를 반증한다.

광개토태왕에게 농경지 확보와 식량의 증산은 근본적인 정책과제였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보리·피·조를 재배했고, 쌀도 생산했다. 요동지방은 토지가 넓었으며, 콩은 이 지역의 특산물이었다. 『삼국지』 부여전에 "夫餘 ……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62]라는 기록이 있다. 실제로 동북평원의 일부인 길림이나 장춘 등 송요(松遼)평원은 토질이 비옥해서 농경에 적합하다. 동만주 일대인 돈화분지와 경박호를 비롯한 지역들, 연변분지 등은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현재 화룡(和龍)인 노성은 발해시대 때 쌀 산지로 유명했다. 두만강 하구에는 고구려의 책성이 있었던 혼춘(琿春)이 있는데, 분지가 발달하여 농경이 이루어졌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고

59) 숲의 중요성은 존 펄린 저·송명규 옮김(2002), 『숲의 서사시』, 따님 참조

60)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

61) "……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62) 『삼국지』 동이전 부여

구려에 정복되었던 부여와 동옥저에는 다섯 가지 종류의 곡식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은 당시 이 지역의 영토화가 식량자원 확보와 연관 있음을 보여준다.

대동강 유역은 생산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서 지경학적(geo-economics)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황해도 일대, 한강유역의 경기만 지역은 벼농사의 최적지였다. 남진정책이 농경, 특히 벼농사에 적합한 곡창지대를 확보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설은[63] 설득력이 있다. 식량의 증산은 기아에 허덕거리던 고구려 사회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면서 윤택하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요동의 해안가에는 어업과 함께 소금생산이 활발했다.[64] 부여의 옛 땅에 살고 있는 예인(濊人)들은 송화강과 눈강 초원지구에 거주하던 어렵(漁獵)부락의 사람들이었다.[65] 동류 송화강 일대, 목단강 일대, 흑룡강 일대에서는 강상어업이 활발했다. 고구려는 초기부터 동해에서 고래잡이를 하였다.[66] 동예와 옥저 등으로부터 어·염 및 해산물을 징수하였다.[67] 그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 어업을 하였고,[68] 동예는 반어피라는 독특한 물고기 껍질을 생산하였다.

63) 朴性鳳(1979),「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韓國史研究』27, 1~27쪽 ; 徐永大(1981),「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韓國文化』2, 121~124쪽

64) 이 시기 동아시아지역에서 소금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은 西嶋定生著, 卞麟錫 譯(1983),『中國古代社會經濟史』, 學文社, 124~128쪽 참조

65) 송화강변에 있는 西團山文化 역시 초기에는 古肅愼族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東北考古發掘團(1964),「吉林西團山 石棺墓發掘報告」,『考古學報』第1期] 최근에 李健才, 孫進己[『東北各民族文化交流史』(1992), 春風文藝出版社, 43쪽] 등은 예맥인의 유지로 보고 있으며, 백금보 문화 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66)『삼국사기』에는 4대 閔中王 때 동해사람 高朱利가 고래눈을 바쳤으며, 西川王 때(288)에 또 海谷太守가 고래눈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67)『후한서』동이전 동옥저 ;『삼국지』

68)『삼국지』동이전 동옥저 "…… 耆老言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島."

2) 물류 거점의 확보

경제영토 확장정책의 두 번째는 물류거점의 확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큰 물류거점은 크게 나누면 다섯 지역으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요동반도 남단 일대, 둘째 압록강 하구 일대, 셋째 두만강 하구 및 연해주 남부해안 일대, 넷째 평양 및 대동강하구, 다섯째 한강하구 및 경기만 일대다.

요동반도는 지리적으로 다양한 물자들이 몰려들고 공급될 수밖에 없는 물류거점이었다. 북쪽 내륙의 유목을 주로 하는 북방경제권과 교류하는 공간이었고, 남쪽으로는 황해북부와 요동만, 발해만을 이용하는 해양물류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고구려는 전성기에 요동만, 서한만, 대동강 하구, 경기만을 잇는 황해 동안의 연근해항로를 구축하였다. 황해 중부 이북의 동쪽 바다를 내해(inland-sea)로 삼아 영역권화 했다. 요동반도는 발해만을 이용하여 산동반도 및 화북지역과 해양교섭을 벌이는 데 유리했다. 그래서 요동반도의 해안지역과 장산군도 바다 한가운데에 항구를 만들어 물류망을 구축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압록강 하구는 만주에서 황해로 나가는 출해구(出海口)이며, 반대로 황해에서 만주로 진입하는 입구다. 서한만(西韓灣)은 만주와 한반도가 만나는 황해북부 연근해항로의 중요한 거점으로 정치·외교뿐만 아니라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물류거점이었다. 또한 하구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육로를 잠시 이용하다가 북류(北流) 송화강을 타고 북상하여 북만주 지역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두만강을 거쳐 연해주 지역이나 동해안으로 빠질 수도 있다.

두만강 하구에는 고구려의 책성(柵城)으로 추정되는 혼춘지역이 있다. 비록 바다에서 강 하구의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만 해양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였다.

두만강 하구지역을 출항지나 경유지로 하는 항로는 몇 개가 있다. 동해 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북 연근해항로는 연해주의 북부 해안 일대에서 남부 해안, 두만강 하구, 동해의 북부와 중부 해역을 거쳐 남해의 여러 지역과 이어지는 항로다.[69] 또 일본 열도로 향하는 동해북부 종단 항로 및 사단 항로가 있고, 그 외에 연해주 항로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로서는 두만강 하구와 연해주남부 해안을 동해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는 발해의 대일 무역활동에서 나타난다.

대동강 하구와 평양 지역은 서해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환황해 연근해항로의 중간기점에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해양교류의 길목이었다. 또한 대동강을 이용하는 강상수운(江上水運)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강의 수로를 통해서 내륙지방과 연결이 원활하므로 산간과 평야, 바다를 연결하여 교역에 활용할 수가 있다. 특히 외국과 무역을 할 경우에는 무역상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평양은 교역의 중심지, 상업도시의 성격이 있었고, 후배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역·경제에 비중을 둔 도시로서 성장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기만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한반도 및 환황해권의 역학관계가 결정되는 거점핵이다. 선사시대부터 환황해 연근해항로와 황해중부 횡단항로가 만나는 해양교통의 십자로일 뿐만 아니라 한강과 바다로 이어지는 물류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해륙교통망을 활용하여 물류의 거점 역할을 담당했고, 국제무역의 수출입항 역할을 담당했다. 그 외에도 동해중부해안 일대 또한 물류의 거점이었을 것이다.

광개토태왕은 전방위로 추진한 영토팽창을 통해서 각각의 물류거점을 장악하고 해양로와 육상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전체를 원(circle)으로 연결

69) 연해주 일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역사활동이 있었으며, 해양과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역사와 문화유적들이 우리 문화와 해양을 매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볼 수가 없다.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를 동아지중해의 허브라는 독특한 지경학적인 위치를 만들어 주변 국가들과 무역하였다.

3. 문화의 터전 – 융합과 재창조

셋째는 문화[70]의 터전(인터체인지, I.C)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1) 문화의 다양성

영토 및 영역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문화영역의 확장이기도 하다. 광개토태왕이 동서남북으로 벌인 정복활동은 제국의 건설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혈연적으로 다른 종족들의 흡수과정이었다. 자연과 지리는 인간과 결코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이고 경제이며 또 문화이다.[71] 영토 및 영역의 확장은 자연환경의 확장과 다양성을 가져왔고, 이는 그곳에 거주하는 생태계의 확장과 다양성을 의미한다.

새로운 고구려의 자연환경은 바다와 대륙과 반도가 만나는 해륙적 성격의

70) 문화란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 짓는 가장 분명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문화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가장 까다로운 두세 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1952년에 알프레드 크로버와 크락혼이 『문화 : 개념과 정의의 한 비판적인 검토』에서 175개의 서로 다른 정의를 검토해 보았을 정도로 문화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71) 고대 사회에서는 환경이나 기후가 역사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예는 이시 히로유키·야스다 요시노리·유아사 다케오 지음, 이하준 옮김(2003),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경당 ; H.H 램 지음, 김종규 옮김(2004), 『기후와 역사』, 한울 아카데미 참조

지역으로 수도권이라는 중핵지역을 중심으로 네 개의 터가 둘러싸고 있으며, 동서 양쪽에 바다와 이어지고 있다. 기후대는 대륙성과 해양성이 만나는 전형적인 터로서 따뜻한 온대기후와 사막과 유사한 초원의 건조한 기후, 겨울에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아한대, 한반도 남부와 일본열도의 온대기후지역이 혼재해 있다.[72] 이렇게 변화된 지리, 기후 등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계와 문화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했다.

광개토태왕은 남으로는 황해도와 경기만의 비옥한 농토를, 동과 북으로는 연해주 지역의 울창한 삼림, 그리고 요동의 넓은 평원과 북방의 초원을 차지하였다. 요동지방·대동강하구·경기만 등의 지역에서는 농경문화가 굳건한 토대를 이루었다. 거란 정벌 등을 통해서 내몽골 지역의 전형적인 유목민의 일부를 세력권에 편입시킴으로써 전형적인 이동성(mobility)문화인 유목문화의 영향도 초기보다 광범위하고 강하게 받게 되었다. 부여의 옛 땅은 농목문화 지역이다. 동부여를 병합하고 물길지역을 정복하면서 두만강 하구와 연해주 일부지방의 수렵삼림문화도 수용하였을 것이다.[73]

두만강 하구와 연해주 남부의 일부는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함경북도 회령 오동(五洞)에서는 함경북도 북부 해안지대 및 연해주 남부지역을 포괄하는 문화가 존재했고, 그것을 옥저와 관련시키는 연구가 있었다.[74] 또한 근래 고고학자들의 연구를 거친 결과 단결(團結)문화[75]가 옥저문화임이 확정되었다. 도문강(圖們江) 유역을 포함한 수분하(綏芬河) 유역, 목릉하(穆稜

72) 윤명철(2008b), 앞의 글 참조

73) 윤명철(2005), 앞의 글 ; 윤명철(2006), 앞의 글 ; 윤명철(2008b), 앞의 글 ; 제임스 포사이스 지음, 정재겸 옮김(2009),『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출판사 참조

74) 송호정(2008),「두만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정치집단의 성장」,『호서사학』제50집, 28~29쪽 참조

75) 團結文化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까지의 문화로 알려져 있다.

河) 상류 및 이 일대의 해변지역이 이러한 옥저문화지역이다.[76] 연해주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던 해양민적 성격을 가진 집단인 옥저는 고구려의 체제로 편입되었다.

또한 동류(東流) 송화강, 요하, 눈강, 목단강 등이 새로운 영토의 내부로 흐르면서 강 문화 또한 발달하였다. 그리고 서해안과 동해안의 중부 이북이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어업, 조선술, 항해술 등의 해양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상업무역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다양해진 자연환경과 문화들은 기존의 사회체제와 국가의 성격을 질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2) 주민의 다양성

확장된 영토로 인하여 고구려 체제 안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 점령한 백제·신라·가야의 일부 주민들이 있었고, 동부여·북부여 주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고구려와 다른 정치체였지만, 종족은 동일하였고, 역사 공동체의식을 지녔었다. 한족(漢族)들도 유이민으로 들어왔으며,[77] 황해도 지역에 일부 남았던 한족계 주민들도 완전히 흡수됐다. 그리고 만주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있었는데, 독특한 지형과 자연환경을 갖춘 만주는 서로 간에 왕래가 활발하지 못하여 점차 문화적·언어적으로 차이가 생겼고, 급기야는 다른 종족으로 분화되기도 하여, 일종의 복합문명을 이룬 공간이었다.

고구려는 일찍부터 선비족 등 북만주세력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여 세력권 아래에 넣었다.[78] 선비(鮮卑)·오환(烏桓)을 비롯해, 거기서 갈라져 나

76) 孫進己(1987), 『東北民族源流』, 262쪽
77) 『삼국사기』 고구려, 고국양왕 2년 "流移民多來投 ……."
78) 朴京哲(1988), 「高句麗 軍事力量의 再檢討」, 『白山學報』 35, 150쪽

온 실위(室韋)[79] · 거란해(契丹奚) · 고막해(庫莫奚) 등의 일부는 고구려 영역 안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거란은 문화·언어상은 물론이고, 혈통상으로 친연성이 깊다.[80] 『위서』 및 『북사』 실위에 "실위어는 고막해·거란·두막루와 같다[語與 庫莫奚 契丹 豆莫婁國同]"고 했다. 그런데 두막루국은 북부여의 후손이니, 결국 실위어는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81] 고구려와 관련이 깊은 이들의 활동범위를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고구려의 영향권을 추측할 수 있다. 물길[82] 등 북방 퉁구스계도 일부는 고구려에 편입되었다. 『삼국지』 옥저전에는 "옥저의 언어가 고구려와 크게는 같으나 때때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기록들이 있다.[83]

이렇게 전성기의 고구려는 하나의 국가영토 안에 색다른 자연환경,[84] 이질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혼합적인 역사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결속력이 강한 생활공동체, 정치공동체로 변모하였다. 하나의 역사공간에서는 비록 혈

79) 『魏書』 및 『北史』 室韋에 "실위어는 고막해 거란 두막루와 같다(語與 庫莫奚 契丹 豆莫婁國同)"라고 했는데 거란어는 몽골어에 속한다. 그런데 북사에 奚는 宇文의 別種이라고 되어있다.

80) 거란은 특히 고구려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미천왕·고국원왕 시기에 화북의 후조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후조는 흉노계이며 유목생활을 하던 종족이다. 『위서』 石勒傳에는 그의 외모를 서구인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81) 『魏書』 열전 豆莫婁, "豆莫婁國在勿吉北千里, 舊北夫餘也. 在室韋之東, 東至於海, 方二千餘里(두막루국은 물길 북쪽 천여 리에 있다. 옛날의 북부여다. '실위'의 동쪽에 있고, 동쪽은 바다와 닿아있고, 사방 2,000리다)" ; 『北史』 열전 豆莫婁國, "豆莫婁國. 在勿吉北千里, 舊北夫餘也" ; 『신당서』 流鬼傳, "達末婁自言北夫餘之裔. 高麗(즉 고구려)滅其國, 遺人渡那河 因居之, 或曰他漏河 東北流入黑水."

82) 숙신·읍루·말갈로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하는 종족이다.

83) 高靑山 외(1988), 『東北古文化』, 春風文藝出版社, 백산자료원 再刊, 1994 ; 方衍主 편(1993), 『黑龍江少數民族簡史』, 中央民族學院出版社. 고구려와 옥저의 후예일 수 있는 赫哲(나나이족)은 종족적·언어적·문화적 연관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84) 윤명철(2008b), 앞의 글에서 고구려 전성기의 자연환경에 관하여 터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통과 언어·문화가 약간씩 달라도, 또 중심부와의 거리가 멀거나, 국부적인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의 차이가 있어도 느슨한 하나의 '통일체' 또는 '역사유기체' '문명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3) 정체성의 강화

역사에서 진보의 동력은 자아의식에서부터 나온다.[85] 자아의식이야 말로 사회를 밝게 하고 민족과 역사를 진보시키는 에너지다. 정체성이란 하랄드 뮐러(Harald Muller)의 말처럼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족이 민족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자각, 민족에 대한 자각이 투철해야 한다. 민족은 항상 다른 민족과 구별하려고 하며, 경쟁의식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자아가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외적으로 팽창을 지향하는 국가, 혹은 대외관계 모순이 심한 국가는 내부 모순을 잠재우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정통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정복국가인 경우에는 이미 정치·군사적으로 패배한 피정복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사상적으로 친화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선행국가 및 다른 집단과는 계승성 내지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만 한다.

고구려는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강국이 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성숙하였다. 건국 초기부터 원조선(原朝鮮) 계승성과 부여 정통성을 표방하였던[86] 고구려는 이 시대에 이르러 내적발전과 함께 외

85) 윤명철(1991), 『역사는 진보하는가』, 온누리 참조

86) 윤명철(2002),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성에 관한 연구 1」, 『고구려연구』 13호, 고구려연구회 ; 윤명철(2002), 「단군신화와 고구려 건국신화가 지닌 정체성(identity)탐구」, 『단군학연구』 6호, 단군학회 ; 윤명철(2006), 「고구려의 고조선 계승성에 관한 연구

적팽창으로 인한 자기성장, 다종족적·다문화국가로서의 변화를 인식하게 되었다. 고구려의 역할과 국가의 탄생과정 및 목적 등 자기정체성을 자각하고 승화시켜가는 '고구려의 재발견(re-dicovery) 시대'였다.

광개토태왕은 건국 후부터 자의식이 강했던 고구려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천손의식을 강조하였고, 부여계와 백제·신라·가야 등 동일종족의 흡수와 포용정책을 실현하였다. 예를 들면 광개토태왕 17년(408)에 고구려는 사신을 보내 후연(後燕)의 왕인 모용운에게 종족의 예를 베풀어 화친을 맺었다. 광대한 지역과 다양한 종족을 지배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체제 및 문화의 방향을 조절하고,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87]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토확장 정책은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연관이 깊었다.

광개토대왕은 평양지역을 또 다른 관점에서 중시하였다. 고구려에게 평양지역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장소였다. 때문에 미천왕도 평양지역에 관심을 기울였고, 평양성을 증축하였다. 광개토태왕도 백제와 전쟁을 벌이는 와중인 393년에 평양에 9사(寺)를 세웠다. 399년에는 평양에서 신라의 사신을 만났다. 평양지역은 고구려가 조선을 계승하고, 정통성을 부여받은 국가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명분이 있었다.

요동지방은 고구려로서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으로 가치가 막대하였지만, 그와 함께 일종의 '원토(原土)수복'이라는 국가의 발전목표와 관련 깊었으며, 조선계승성을 구현하는 숙원사업이었다. 영락 5년의 순수는 고구려의 구

2」, 『단군학연구』 14호, 단군학회

87) 윤명철(1995), 「高句麗人의 時代精神에 대한 探究試論」, 『韓國思想史學』 7集, 212쪽 참조

토(舊土)로 인식하는 행위였다.[88] 이는 410년에 행한 동부여 정벌 또한 마찬가지였다. 동부여·북부여 지역을 복속시키고 점령한 사업은 영토팽창 및 전략적인 목적 외에 종족적·문화적 통일과 관련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89]

고구려는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시대에 이르러 정치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되었고, 정치체제도 다른 점들이 부각되었다. 문화의 내용에도 차이점이 발생하는 등 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완전한 의미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는 못 미쳤다. 하지만, 옛[原] 조선의 영토를 대체적으로 회복하고,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원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였으며, 문화 또한 다양성을 토대로 질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민족의 근간이 생성되는데 중요한 기본틀을 확립하였다.[90]

광개토태왕은 판갈이 하는 국제질서의 미묘한 변화와 복잡한 시대상황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지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하여 육지 위주의 질서를 기본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해양적 질서를 수용하면서 복합적인 정책을 구사했다. 5개 정도의 전략적인 거점을 확보하여 질서의 기본축(軸)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함으로써, 자국 중심의 거대한 망(net)을 구성하였다. 즉 대륙의 남부와 한반도 중부 이북의 거대한 육지영토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황해 중부 이북과 동해중부 이북의 해양영토를 확보하여 해륙국가의 위용을 갖추

88) 徐榮洙(1985), 앞의 글, 124쪽

89) 盧泰敦(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39~40쪽에서 계루부 왕실뿐만 아니라 고구려족 全體神, 超種族的神으로 되었다고 한다. 朴京哲(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試論」, 『白山學報』 49, 49~50쪽에서 주몽집단이 고구려 국가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동명설화와 상사성이 있는 자기들의 건국과정을 주몽신화화, 지배이데올로기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90) 이러한 견해는 윤명철(2008a), 앞의 글 참조

었다. 이는 일종의 국토개편 전략이었다. 그 결과 고구려는 동아시아 삼각축의 하나이면서 동아지중해의 중핵국가가 되어 정치·외교·군사·경제, 그리고 문화 등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광개토태왕이 추진하고 성공을 거둔 영토확장 정책들은 단순한 영토의 팽창, 인구의 획득이란 차원을 넘어 동아 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작업이었다. 즉 '동아지중해 중핵조정역할'이었다.

V. 현재적 의미와 가치 – 결론을 대신한 제언

국제관계에서는 힘이 현실이다. 한민족이 당면한 문제는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관계가 있고, 이 문제는 내부문제, 남북문제와 맞물려가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 한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는 외부주역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라는 4강대국 및 기타 국가들이다. 전 근대시대에도 동일했지만 현대는 영토의 개념이 정치·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영토, 문화영토도 있다. 동아시아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간·민족 간 경쟁이 격화될 것은 분명하다.[91]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경제영토(N.E.T)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질서 재편기에

91) 정치·영토·군사·외교 심지어는 문화와 역사 분야로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관점과 현상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주에서 언급한 필자의 저서들 및 논문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역사와 관련해서는 졸저『역사전쟁』[윤명철(2004), 안그라픽스] 참고하기 바란다. 현재의 국가 및 구성원들을 축으로 한 정체성은 단위공간 및 코드의 확장으로 동아시아라는 공간(터)과 주민들로 변화하고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해 동아시아는 내부의 자기민족뿐만 아니라 '타(他)'를 의식하면서, 공동의 대응이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생각해야만 한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거점에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 된다. 필연적으로 국토의 이용계획은 동아시아의 질서변동을 염두에 둔 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에 맞게, 또 세계질서의 변화에 걸맞게 입안해야 한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은 그러한 전략을 구사했었다. 광개토태왕이 추진하였고 장수왕이 성공시킨 국가발전 정책은 필자의 모델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해륙국가의 완성'이며 '동아지중해 중핵조정역할'이다.

'동아지중해 중핵조정역할'은 과거와 동일하게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에도 유효하다. 국제관계에서 정치·외교의 핵심은 중핵역할을 차지하는 일이다. 중핵으로 모든 힘을 흡수하든, 선별적으로 분배하든, 모든 나라들과 힘을 공유하며 조정역할을 하든, 우선 중핵을 차지해야만 한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은 중핵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했다. 그 시대에 중국지역은 남북으로 분단됐고, 만리장성 너머에는 소비에트연방 공화국(USSR)처럼 유연(柔然)같은 유목국가들이 있어 중소(中蘇)분쟁 같은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고구려는 남북만주, 충청도 이북의 한반도 전역, 양쪽의 바다를 장악하여 거의 통일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으며, 더불어 해양력을 갖추었다.

현재는 중국이 과거 고구려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역사상 최대의 영토[청(淸)과는 다른 체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으며, 경제성장에 성공해서 GDP지표로는 이미 G2의 반열에 들어섰다. '대중화경제권', '중화연방론(中華聯邦論)',[92] '신중화제국주의' 등의 우회적인 단어들이 국제사회에서 난무하고 있다.[93] 상대적으로 한민족은 남북분단, 남남갈등, 친미, 반미, 반중(일부지

92)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가 『중화연방(中華聯邦)』이라는 책에서 2005년에 중국과 대만이 연방제 형식으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예측들은 빗나갔지만 중국이 생각 이상으로 강대국이 된 것은 분명하다.

93) 한광섭(2012), 앞의 책, 62쪽.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010년 12월 6일 중국

만), 반일 등 난제들이 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하려면 '터(공간, 위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는 강대국들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둘러싸여 있다. 또 그 해양을 강대국들의 육지가 둘러싸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국제관계는 지중해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남한은 육지와 바다를 잘 활용할 경우에 등거리 외교를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고구려도 분단된 중국을 상대로 해륙외교인 등거리외교를 추진했고, 백제·신라·가야·왜 등을 관리체제에 두면서 동아지중해를 '다중방사상 외교형태'로 만드는 정책을 성공시켰다. 그렇다면 현재도 동아시아 전체를 육지와 대륙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동아지중해라는 하나의 '터(field)'로 삼고 전략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륙에서의 중핵역할을 확보하는 좀 더 거시적인 정치와 외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경쟁국 내지 잠재적국으로 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심한 일본의 고립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시켜주면서, 백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보유한 해양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 연해주를 영역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므로 러시아는 다만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시키면서 우호적인 입장을 맺어간다. 이것은 고구려가 수(隋)나라를 공동적으로 삼은 돌궐에는 실패한 외교전략이지만, 중국의 성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또 장수왕이 유연과 맺은 것처럼 중국의 숙적인 몽골과 정치동맹을 맺어 배후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평화발전 노선 견지[堅持走和平發展道路]'라는 기고문에서 "반패권주의는 이미 중국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중국공산당 당헌에도 명시되어 있다. 패권을 다투지 않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것(不爭霸, 不稱霸)이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아울러 중국의 패권주의에 두려움을 느끼는 실크로드 서쪽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국가들과는 정치동맹을 맺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교류,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고구려의 음악, 미술, 춤이 이 지역과 관계가 깊었던 현상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94]

한편,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들 국가들은 2,000여 년 동안 중국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경계심을 품고 있고, 실제로 언제든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중국은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인 1979년에 국경을 넘어 '중월(中越)전쟁'을 도발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해양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돌입했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종족들이 중국의 변방 지대에 소수민족으로 포진해 있으므로 중국 내부를 흔들고자 할 때에 유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친디아(차이나+인디아의 합성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인도는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의 가장 힘든 경쟁국가가 될 수 있다. 역사와 불교적 인연을 앞세워 경제와 함께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망명 중인 티베트 정부에게도 인도적인 우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렇게 범아시아 질서를 이해하고 우리의 정책을 거시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이 만약에 패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의 공존을 깨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위협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켜주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미국에 이용당하는 방어막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우리의 중국 방어선 역할자임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이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다. 다만 구도와 방식만을 학습하고 언제든 실전에 활용할 준비를

94) 劉惠瑞·劉恩瑞 저, 손준식 역(2012), 앞의 책에서는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벌이는 영토갈등을 다루고 있다.

해놓아야 한다.

21세기는 한민족은 물론 모든 국가들에게 경제성장이 최고의 과제다.[95]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화는 다름 아닌 경제전쟁이다. 미국이 1994년 1월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등과 함께 만든 자유무역지대(NAFTA), 유럽이 만든 EC·EU 동남아시아의 ASEAN 등은 경제통합이다.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가동시킬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군사들도 잘 훈련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 즉 전장(field)이다. 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전장의 목[項, point], 즉 전략적 거점(foothold)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이 선전·상해·천진·대련 등을 택했듯이 우리는 경기만을 핵심전략거점으로 삼고, 부산·목포를 중요한 부거점(sub foothold)으로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을 염두에 두면서 동해에서 영향력을 끼쳐가는 중국을 의식한다면 동해시나 삼척 또한 부거점으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가정이지만 통일을 이룩할 경우에는 압록강 하구와 두만강 하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나아가 요동반도의 남부와 연해주 남부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영향력을 강화시키면 더욱 좋다. 지금 당장 현실성 여부를 판단하고, 무조건 포기하는 태도보다는 경제영토(N.E.T)란 개념을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강화시켜가고, 앞으로 다가올 혹은 추진할 목표를 염두에 두는 정책을 입안할 필요는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문

95) 조지 프리드먼 저, 김홍래 역(2011), 앞의 책, 96쪽. "금융위기로 인해 사람들은 자국의 국가주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국의 금융과 통화체계를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행동에 대해 취약성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 다음 10년간의 추세는 경제주권(economic sovereignty)에서 이탈해 경제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말은 시사성을 제공한다.

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과도기에는 문화력이 정치나 군사는 물론이지만 경제질서의 방향과 위치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특성을 간파한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The Crash of Civilizations』[96]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말들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문화정책이 가진 과제는 두 가지로 유형화 시킬 수 있다. 하나는 역사상의 굴곡을 거쳐 정체성이 훼손되고 서구화 혹은 세계화의 조류에 떠밀려 혼돈 속에 있는 자아, 즉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고대역사 속에서 계승성과 정통성을 구하고, 선택된 민족 혹은 집단이라는 소명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재발견하면서 새로운 시대와 변화된 상황에 걸맞게 부흥시켜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문화 혹은 지구문명이 생성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고구려가 동아시아 문명이 발전하는 데 역할을 담당했듯이 민족과 동아시아를 넘어 인류 전체에까지 관심을 확장시키면서 문화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구에게 동양은, 비록 자이드(said)의 동양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서구에 너무 종속되어 있었고, 문화는 교류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식(移植)이었다.[97]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는 '타(他)'를 의식하면서 공동의 대응이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생각해야만 한다.

한민족이 갖고 있는 지문화적(地文化的) 환경은 지중해처럼 다양성이 모여들

96) 사무엘 헌팅턴은 세계정치는 다극화·다문명화 했으며, 문명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탈냉전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이나 정치·경제가 아니라 바로 문화이며, 가장 중요한 국가군은 일곱 내지 여덟 개에 이르는 주요문명이라는 의미 있고 중요한 말을 하였다.

97) Edward W. Said 著, 박홍규 譯(1991),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2004),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 문예출판사

고 다시 떠나가는 인터체인지(I.C)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했다. 오랜 역사적인 경험은 이질적인 문화들을 단순 중개하는 다리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용해시켜 또 다른 자기 것을 만들고, 전파하는 심장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른바 'collaboration', 'melting-pot'형 문화의 터(field)였다.

통일한국은 동아지중해의 중핵(core)에 위치해 있으므로 대륙과 해양을 공히 활용하며, 동해·남해·황해 동중국해 전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해륙 네트워크의 허브다. 통일한국이 중요한 해로(sea-lane)를 장악하고, 해양조정력을 갖고 거기다가 대륙을 관통한 육로(TSR, TCR)와 해로를 연결하여 망(net)으로 만들어 핵(core)자리를 차지하면 교류의 주도권은 물론 정치갈등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주요한 물류체계의 거점(hub)으로서 교통정리가 가능하고 동아시아의 경제구조나 교역형태를 조정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문화 또한 우리를 핵심 로터리(I.C)로 삼아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다.

만약 세 국가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힘이 유달리 강하거나, 한국이 두 강대국 간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한국지역의 지렛대 역할은 동아시아의 단결과 상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중간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여 양 지역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던 경험이 많다. 한국지역의 중핵조정역할은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의 수립과 상생, 공동체 구성에 더욱 필요하다.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 해양력의 강화, 대륙의 중시,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시대에 고구려가 중핵조정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그 시대에 동아시아에 평화구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가 힘이나 문화·경제 등에서 대등하였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志』, 『後漢書』, 『魏書』, 『北史』, 『日本書紀』

『東萊福泉洞 古墳群』 1, 부산대학교 유적조사보고 제5집, 1983

「東萊福泉洞 古墳群의 調査內容과 그 性格」, 『韓國民族文化』 4, 1991,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단행본

21세기위원회(1992),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Ernest Gellner, 이재석 역(1988), 『민족과 민족주의』, 예하

H.H 램 지음, 김종규 옮김(2004), 『기후와 역사』, 한울 아카데미

高靑山 外(1988), 『東北古文化』, 春風文藝出版社 ; 백산자료원 再刊, 1994

김호동(1989), 「古代遊牧國家의 構造」, 『講座 中國史』 2, 지식산업사

劉惠瑞 · 劉恩瑞 著, 손준식 역(2012), 『중국 근현대 영토문제 연구』, 군사편찬연구소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方衍主 編(1993), 『黑龍江少數民族簡史』, 中央民族學院出版社

傅朗雲 楊暘(1989), 『東北民族史略』, 吉林人民出版社

孫光圻(1989),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孫進己 著, 林東錫 역(1992), 『東北民族源流』, 동문선

신용하 편(1986), 『민족이론』, 문학과 지성사

윤명철(1991), 『역사는 진보하는가』, 온누리.

윤명철(2005),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 삼성경제연구소

윤명철(2007), 『장수왕 장보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포름

윤명철(2012),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이시 히로유끼 · 야스다요시노리 · 유아사 다케오 지음, 이하준 옮김(2003),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경당

李永采 外 編著(1990), 『海洋開拓 爭覇簡史』, 海洋出版社

이용범(1989),『韓滿交流史硏究』, 동화출판공사
조지 프리드먼 저, 김홍래 역(2011),『넥스트 디케이드』, 쌤앤파커스
진덕규 지음(1983),『現代民族主義의 이론구조』, 지식산업사
차기벽 편(1983),『民族主義』, 종로서적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엮음, 장대환 감역(1996),『21세기예측(*Overcomming Indifference*)』, 매일경제신문사
彭德淸 編(1988),『中國航海史－古代航海史』, 人民交通出版社
한광섭(2012),『새로운 물결의 동아시아를 본다』, 한울

논문

노태돈(1988),「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의 天下觀」,『韓國史論』19
박경철(1988),「高句麗 軍事力量의 再檢討」,『白山學報』35
박성봉(1979),「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한국사연구』29
박한제(1989),「胡漢體制의 展開와 그 構造」,『講座 中國史』2,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편, 지식산업사
서영수(1982),「廣開土大王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上,『歷史學報』96
서영수(1985),「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征服記事 再檢討」中,『歷史學報』106
손영종,「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고구려의 영역」,『력사과학』1986-2
송호정(2008),「두만강 유역의 고대문화와 정치집단의 성장」,『호서사학』제50집
연민수(1990),「任那日本府論」,『東國史學』24
윤명철(1995),「高句麗人의 時代精神에 대한 探究試論」,『韓國思想史學』7集
윤명철(2003),「장보고를 통해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윤명철(2003),「동아시아의 상생과 동아지중해 모델」,『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 세계생명문화포럼
윤명철(2005),「동해문화권의 설정 검토」,『동아시아 역사상과 우리문화의 형성』, 민속원
윤명철(2007),「'東北工程'의 歷史外的인 문제와 韓民族役割論」,『인문학논총』제12집 1호, 경성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윤명철(2008a), 「한민족 형성의 질적 비약단계로의 고구려역사」, 『한민족 연구』 제5호, 한민족학회
윤명철(2008b),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 – '터와 多核(field & multi-core)이론'을 통해서」, 『한민족』 4호
윤명철(2008c), 「渤海 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 – '터(場, field)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대학』 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윤명철(2009), 「한민족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성격」, 『한민족학』 7집, 한민족학회
이종욱(1992),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正體」, 『韓國史市民講座』 11
천관우(1979), 「廣開土王碑再論」, 『全海宗華甲紀念論叢』
한흥수(1985), 「민족주의와 민족공동체 형성」, 『민족주의의 탐구』, 정신문화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성제(李成制)
고구려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高句麗의 西方政策 硏究』(2005, 國學資料院), 『中國 소재 高句麗城 사진자료집 – 吉林省 東部』(편저, 2010),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 – '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2011, 『韓國古代史硏究』 64), 「高句麗와 倭의 관계 – 570~572년 고구려 사절의 越 漂着과 歸還 과정을 중심으로」(2011, 『東國史學』 53) 등이 있다.

4세기 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396년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이성제**

I. 머리말

고구려가 요하(遼河) 이동(以東)의 지역을 확보하여 요하를 자연 국경선으로 삼았던 것은 광개토왕대의 일이다. 이때 확보한 서북 영역은 이후 고구려가 요하 저편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중국세력을 가로막는 최전선이 되었다. 또한 요동(遼東)을 고구려가 확보함으로써 중원왕조의 동방 거점은 서쪽으로 후퇴하여 줄곧 요하 이서(以西)의 용성[龍城, 현재의 조양(朝陽)]에 머물게 되었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하 이서를 경계로 삼아 서방(西方)으로부터의 여러 위협에 대처하고 동북아시아 세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1)]

이와 관련하여 385년 요동·현도(玄菟) 2군(郡)을 둘러싼 고구려와 후연의 공방전이 벌어진 뒤, 395년 무렵에 이르면 이들 지역은 고구려의 차지가 되어

* 이 글은 학술회의 발표 후 『韓國古代史研究』 68, 2012에 게재되었다.

1) 이후 고구려는 요하 저편의 제 세력을 상대로 한 서방정책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李成制(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國學資料院 참조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 이러한 이해의 일차적인 근거 자료는 '광개토왕릉비'의 영락(永樂) 5년조 기록과 『양서(梁書)』 고구려전이다. 비문은 광개토왕이 패려(稗麗)를 정벌하고 귀로에 양평도(襄平道) 등 요동의 주요 지역을 토경순수(土境巡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서』의 기록은 후연의 모용보(慕容寶)가 광개토왕을 책봉했다는 내용으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후연이 인정하게 된 조치라고 여겨왔다. 특히 후연 모용보가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을 책봉했다는 『양서』 고구려전의 기록은 '광개토왕릉비' 영락 5년조의 내용을 받아서 요동의 확보를 둘러싼 양국의 공방전이 고구려의 승리로 일단락되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와 후연의 대결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고구려가 요동을 언제쯤 확보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에서 지표와 같은 구실을 담당해 온 자료치고는 내용의 분석이 미진하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동안의 책봉 이해에서는 사료의 성격에 대해 주의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396년 후연의 고구려왕 책봉을 고구려 측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수여된 일방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왔지만,[3] 이는 책봉과 짝한 조공이 없다면 그것은 제도적 외교관계를 맺지 못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徐榮洙(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 中, 『歷史學報』 119, 94~103쪽 ; 武田幸男(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14쪽 ; 田中俊明(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北方境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時代」, 『高句麗研究』 2, 514~516쪽 ; 井上直樹(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契丹戰」, 『韓國古代史研究』, 204~213쪽, 236쪽

3) 책봉은 후연의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며 고구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던 논문으로는 堀敏一(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中華的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138~139쪽 ; 林起煥(2003), 「南北朝期 韓中 册封·朝貢 關係의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32, 16쪽 ; 篠原啓方(2005), 『高句麗的國際秩序의 成立과 展開』, 高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06쪽 ; 井上直樹(2012), 앞의 글, 209쪽이 있다. 이 가운데 篠原啓方은 책봉이 397년 4월에서 398년 5월 사이에 있었다고 하여 책봉의 시점을 다르게 보았다.

일방적인 선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때의 책봉이 과연 일방적인 책봉의 유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396년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은 355년 전연(前燕)의 고국원왕 책봉을 전제로 한 개봉(改封)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4] 이를 최초의 책봉으로 이해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양서』 고구려전의 책봉 내용을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으로 이해해왔으나, 이때의 '평주목(平州牧) 요동(遼東)·대방이국왕(帶方二國王)'은 355년 전연이 고국원왕에게 수여한 책봉호['(都督)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樂浪公 高句麗王']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져야 한다.

다음으로 '광개토왕릉비' 영락 5년조를 보자. 광개토왕이 순수(巡狩)한 지역들은 영락 5년 무렵 고구려가 이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지역들이 과거 요동군과 현도군의 속현(屬縣)이었던 점에서 요하 이동의 요동·현도 2군을 고구려가 확보하고 있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이해되었다.[5] 하지만 이때의 순수가 영토의 확인이라는 차원에서[6]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구려가 확보한 영역의 범위는 좀 더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후연이 요하 이동의 거점으로 삼았던 평곽(平郭)이 광개토왕의 순행 경로 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4세기 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후연의 동향이다.[7] 395년 참합파(參合陂) 전투에서 북위(北魏)에 대패한 후연은 이후 급속

4) 金翰奎(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歷史學會編, 『韓國 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 재수록(1997), 『古代東亞細亞幕府體制研究』, 一潮閣, 338~339쪽

5) 田中俊明(1996), 앞의 글, 514~515쪽

6) 土境은 광개토왕이 관할하는 영역[武田幸男(1989), 앞의 책, 212~213쪽]이며 왕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遊觀土境과 田獵으로 이루어진 순수를 시행하였다[徐榮洙(1988), 앞의 글, 101~102쪽 ; 金瑛河(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45~46쪽]

도로 쇠퇴해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요하 일대에서 고구려가 후연군을 몰아냈다거나 후연의 전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사료에서 찾을 수 없다. 적어도 후연의 고구려왕 책봉이 있던 396년 5월 무렵까지는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고구려가 후연을 압도하게 되었던 듯이 여기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II. 고구려의 요동 영유설에 대한 재검토

광개토왕대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로 우선 주목되는 것이 『양서』 고구려전의 기사다.

A.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양서』 권54 고구려전, 中華書局, 802쪽. 이하 기사에서는 中華書局 생략)

위의 기록은 후연을 세운 모용수(慕容垂)가 죽고 그 아들 모용보가 즉위하여 고구려왕 안(安), 즉 광개토왕을 책봉했음을 전해준다. 이 책봉은 모용보가 396년 4월에 즉위하였다는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으로 보아, 그의 즉위에 즈음하여 이루어진 책봉이라고 보인다.[8] 이 기록은 385년 요동·현도군을 둘

7) 후연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지배선(1986), 『中世東北亞史研究-慕容王國史』, 一潮閣 ; 三崎良章 저·김영환 옮김(2007), 『五胡十六國』, 景仁文化社(원저 東方書店, 2002), 94~96쪽 ; 李椿浩(2008), 「五胡十六國時期 後燕의 中樞之官에 關한 研究」, 『中國古中世史研究』 19 참조

8) 井上直樹(2012), 앞의 글, 209쪽

러싸고 양국이 교전한 이래, 처음 등장하는 교섭의 기록이며 그 내용이 후연이 고구려왕을 책봉하였음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자료라고 여겨진다.

이 기록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모용보가 즉위하여 광개토왕을 책봉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때의 책봉은 후연이 일방적으로 행한 책봉으로 고구려가 조공사절을 보냈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모용보의 즉위는 후연이 북위와의 대결에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던 무렵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에 수반한 책봉의 수여도 이러한 불리한 정세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9] 하지만 이때의 책봉을 후연의 일방적인 행위였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중국왕조가 일방적으로 책봉을 행한 경우는 상대국의 의향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곤 했지만, 그것은 신왕조의 개국 시기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10] 이에 반해 모용보의 즉위는 부황(父皇) 모용수의 뒤를 이은 것으로 신왕조의 개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책봉을 행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모용보가 즉위하면서 행한 책봉이기에 고구려의 의사와는 무관했다는 이해에는 더더욱 따를 수 없다. 다음의 이유에서 그러하다. 당시 후연이 처

9)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후연을 압도해가고 있었다고 본다[林起煥(2003), 앞의 글, 16쪽 ; 篠原啓方(2005), 앞의 글, 106쪽]. 한편 井上直樹는 이때의 책봉이 북위와의 대결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동방의 안정을 꾀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井上直樹(2012), 앞의 글, 209쪽]

10) 南朝의 宋은 건국 직후 武都·西涼·西秦·高句麗·百濟王을 책봉하였고, 梁은 건국한 지 이틀 후에 高句麗·百濟·倭·宕昌·吐谷渾王을 책봉하였다. 이들 국가에 대한 책봉은 책봉을 요청하는 사절이 파견되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성립을 기념하고 自祝하는 의미에서 행해진 것으로, 신왕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金鍾完(1995), 『中國南北朝史硏究-朝貢·交聘關係를 중심으로』, 一潮閣, 117~118쪽

해있던 상황으로 보아, 모용보는 즉위를 자축하고 기념할 계제가 아니었다. 후연은 참합파에서의 패전을 설욕하기 위해 395년 12월 대군을 모아 북위 공격에 나섰지만 부황 모용수의 죽음으로 퇴각하였고, 북위의 예상되는 반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었다.[11] 대내외적 위기가 모용보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모용보의 즉위에 수반해서 행해진 조치들은 그 대책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12]

특히 후연의 고구려왕 책봉은 385년의 교전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양국 관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모용보가 광개토왕을 책봉한 조치는 위기의 국면에서 나온 대책의 하나로서 책봉을 내세운 대(對)고구려외교라고 볼 수 있다. 후연은 북위라는 강적을 상대하기 위해 동방의 안정이 필요했고 대고구려외교로서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후연이 고구려왕을 책봉하고 관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기왕의 연구들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인다.

모용보가 광개토왕을 책봉했다는 것은 후연이 385년 이래의 적대관계 대신 양국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랐음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것은 고구려 광개토왕이 후연의 책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후연의 의도에 고구려가 화답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의 개선은 무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관건이 되는 광개토왕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후연이 일방적으로 책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양서』 고구려전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고

11)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 21年(396) 3~5월조, 3426~3427쪽

12) 모용보는 모용수의 죽음을 숨기고 귀국하여 發喪하였고, 즉위와 함께 慕容農에게 都督6州諸軍事, 즉 河北의 군권을 맡겨 북위에 대비케 하였다. "壬寅 太子寶卽位 大赦改元永康. 五月 辛亥 以范陽王德爲都督冀兗靑徐荊豫六州諸軍事·車騎大將軍·冀州牧鎭鄴 遼西王農爲都督并雍益梁秦涼六州諸軍事·并州牧 鎭晉陽(『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 21年(396), 3426~3427쪽)."

구려의 반응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책봉 기사에 이어 고구려 광개토왕이 이때 비로소 장사(長史)·사마(司馬)·참군(參軍)의 관원을 두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광개토왕이 장사·사마·참군의 관원, 즉 막료(幕僚)를 두게 되었다는 것은 막부의 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13] 이때의 막부는 후연이 책봉으로 수여한 '도독모주제군사(都督某州諸軍事)'·'모장군(某將軍)'의 자격으로 열게 되었던 것이었다. 여기에서 후연의 책봉이 그 전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은 후연의 책봉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관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양국관계에 대해 고구려의 입장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을까. 후연의 입장이 책봉 수여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에 짝하는 고구려의 행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책봉조공관계'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조공과 책봉은 이 둘이 짝을 지어야만 제도적 외교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일방적인 견사(遣使)와 선언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광개토왕이 후연의 책봉을 수용하였다는 것에서 후연의 책봉에 짝을 이루는 고구려의 사절 파견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위의 기록은 책봉과 조공을 통해 양국 간에 책봉조공관계라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관계의 개선이 과연 후연에게만 필요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양국의 적대적 관계가 부담스럽기는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백제와의 공방전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14] 고구려가 직면해 있던 현안 가운데 백제와의 대결이 보다 시급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고구려는 요동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백제의

13) 金翰奎(1997), 앞의 책, 338~339쪽

14)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었음은 백제 측 기록에 잘 남아 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辰斯王 2年條(386)에서 阿莘王 8年條(399)까지의 관련 기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광개토왕이 후연의 책봉을 수용하여 책봉조공관계를 성립시켰던 까닭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15]

그러면 이렇게 성립된 양국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가 이때의 책봉으로 후연은 고구려가 요하 이동의 지역을 차지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를 처음 제기한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는 "모용보의 즉위에 따른 수작(授爵)에 의해 광개토왕은 후연의 외신(外臣)이 되어 그 책봉체제 아래 편입되었고, '요동·대방이국왕(帶方二國王)'으로서

록이 그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百濟王曆/高句麗王曆(西紀)	관련 내용
辰斯王 2년/ 故國壤王 3년(386)	(백) 봄 靑木嶺에서 西海까지 關防 施設
	(고) 8월 백제 공격
진사왕 3년/ 고국양왕 4년(387)	(백) 9월 關彌嶺에서 (말갈)에 패배
진사왕 5년/ 고국원왕 6년(389)	(백) 9월 고구려 南邊 공격
진사왕 6년/ 고국원왕 7년(390)	(백) 6월 고구려 都坤城 함락
진사왕 7년/ 廣開土王 원년(391)	(말) 4월 백제 赤峴城 함락
진사왕 8년/ 광개토왕 2년(392)	(고) 7월 4만의 군대로 石峴 등 10城 함락. 10월 關彌城 함락
阿莘王 2년/ 광개토왕 3년(393)	(백) 8월 관미성 회복전 실패
아신왕 3년/ 광개토왕 4년(394)	(백) 7월 水谷城에서 교전, 패배
아신왕 4년/ 광개토왕 5년(395)	(백) 8월 浿水에서 교전, 패배. 11월 패수 보복전 실패
아신왕 6년/ 광개토왕 7년(397)	(백) 7월 漢水 남쪽에서 閱兵
아신왕 7년/ 광개토왕 8년(398)	(백) 8월 고구려 공격 시도, 중도 귀환
아신왕 8년/ 광개토왕 9년(399)	(백) 8월 고구려 공격 위해, 무리한 징발

※(백)은 백제, (고)는 고구려, (말)은 말갈.

여기에서 보이는 말갈은 고구려의 附庸세력으로 이해된다. 특히 397년 백제 阿莘王은 太子 腆支를 倭에 보내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했다. 이는 고구려와의 대결을 위해 취해진 외교정책의 일환이었다. 李基東(1999), 「百濟의 勃興과 對倭國關係의 成立」, 『古代韓日文化交流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252쪽

15) 이와 관련하여 후연의 책봉에 앞서 고구려가 조공사절을 후연에 보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孔錫龜(2003), 「高句麗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 『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4쪽 ; 余昊奎(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册封關係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高句麗硏究財團, 48~50쪽].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요하 이동 일대에 군림하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하였다.[16] 즉 이 이해에 따르면 양국이 다투었던 요동지역은 이미 고구려의 차지가 되어 있었고, 후연의 책봉은 이것을 추인하는 조치였다. 후연이 책봉호로 수여한 '요동·대방이국왕'이나 '평주목(平州牧)'[17]의 관작은 고구려의 요동 영유를 인정하는 관작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양서』에 보이는 책봉호가 고구려의 요동 영유를 인정하는 관작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양서』가 전하는 관련 기사는 후연이 고구려왕에게 수여한 책봉호 전부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B-1.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양서』 권54 고구려전, 802쪽)

B-2. 世祖時 …… 遣員外散騎侍郎李敖 拜璉爲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위서』 권100 고구려전, 2214~221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1은 앞에서 살펴본 『양서』 고구려전의 기록을 다시 인용한 것이고, B-2는 435년 북위 태무제(太武帝)가 고구려 장수왕을 책봉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18] 먼저 B-1 기록에서 보이는 관작은 '평주목'과 '요동·대방 2국왕'

16) 武田幸男(1989), 앞의 책, 214쪽

17) 井上直樹(2012), 앞의 글, 206~207쪽

18) 비교 대상으로 435년의 책봉 기록을 선택한 까닭은 다음의 이유에서다. 우선 이것은 고구려와 북위 사이의 최초 책봉조공관계로, 새로운 양국관계가 열렸다는 점에서 396년의 일과 견주어볼 만하다. 또한 그 과정과 책봉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어 참고가 된다. 한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李成制(2004), 「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 『歷史學報』 181 ; 재수록(2005), 앞의 책

으로 요동지역의 지배권과 관련 있는 책봉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를 435년 북위의 장수왕 책봉과 비교하여 보면, 이때의 책봉이 '평주목'과 '요동·대방 2국왕'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보다 『양서』 고구려에는 '도독모주제군사'·'모장군'의 관(官)과 장군호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방장관인 주자사(州刺史)와 장군은 한(漢)대에 출현하여 위진대를 거치면서 제도화되었다. 이 시대에 이르면 주자사는 장군직을 겸령함과 동시에 사지절(使持節)·지절(持節)·가절(假節) 혹은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감군(監軍)·독제군사(督諸軍事) 등의 가호(加號)를 갖게 되었다. 이 가운데 사지절 등은 장군이 군주로부터 독자적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의미한다. 도독제군사 등은 장군이 독자적 권한으로 통감(統監)할 수 있는 군사지구를 규정한다.[19] 그리고 이러한 지절·도독이 책봉을 통해 인접국가의 군주에게도 수여되었다는 점에 시대적 특징이 있었다. 여기에서 책봉에는 독자적 통치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범위가 명시되었음에 주의하고 싶다.

그러므로 '도독모주제군사'는 지배권이 행사되는 지역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봉호의 중요한 요소였다. 이를 B-2의 사례에서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요해(遼海)'라는 다소 모호한 내용이더라도 특정의 지역을 명시하여 지배권이 행사되는 범위를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396년 후연이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도독제군사'의 내용으로 수여되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B-1의 기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후연이 고구려왕에게 수여한 책봉의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후연이 광개토왕에게 수여한

19) 金翰奎(1997), 앞의 책, 319~323쪽 ; 金鍾完(1995), 앞의 책, 157~164쪽

책봉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책봉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겠다.

III. 요동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와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서』 고구려전의 광개토왕 책봉 기사는 후연의 모용보가 광개토왕에게 수여한 책봉호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불완전한 기록이다. 그러면 원래의 책봉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이 기사에 '(도독)영주제군사[(都督)營州諸軍事]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 등이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20] 즉 396년의 책봉은 355년 전연의 황제 모용준이 고구려 고국원왕에게 수여한 책봉을 전제로 한 가관(加官)이나 진작(進爵)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서』의 기록은 고구려가 앞서 받은 관작을 생략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불완전한 기사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는데, 이를 참고하여 후연의 책봉호를 복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C-1. 高句麗王釗遣使謝恩 貢其方物. 僞以釗爲營州諸軍事·征東大將軍·營州刺史 封樂浪 公 王如故
[『진서(晉書)』 권110 모용준재기(慕容儁載記), 2835쪽]

C-2. 都督營州諸軍事 征東大將軍 營州刺史 平州牧 樂浪公 遼東·帶方二國王

20) 金翰奎(1997), 앞의 책, 339쪽

C-1은 355년의 책봉 기사를 제시한 것이며, 원래의 책봉 내용이라고 추정해 본 것이 C-2이다. 위의 복원 내용에서 '도독' 이하 '평주목'까지는 관(官)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그 연원에 따라 다시 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도독영주제군사(都督營州諸軍事)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 영주자사(營州刺史)'는 전연이 355년 고구려 국왕에게 수여했던 책봉호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396년의 책봉에서 추가된 것(가관)이 '평주목'이다.[21] 한편 '낙랑공 요동·대방이국왕'은 작(爵)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종래의 '고구려왕'에서 '요동·대방이국왕'으로 변화한 왕호가 보인다.[22]

위의 책봉호를 정리해보면, 대략 이때의 책봉으로 후연은 고구려 광개토왕을 정동대장군에 임명하고 도독제군사로서 '영주(營州)'의 군사지휘권·민정권(民政權)을 인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관할권은 355년의 책봉에서 이미 보이는 것으로 광개토왕대의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기존의 연구에서 고구려의 요동 영유와 관련 있다고 보는 '평주목'의 평주가 '도독제군사'에 관할 구역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도독제군사의 권한과 범위로 보아서 '평주'에 대한 고구려왕의 지배권은 군사적 권한이 없이 주목(州牧)으로서의 민정권만 수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396년 이전 언제인가에 요하 이동의 지역 즉 요동·현도 2군을

21) 실제 수여 내용은 앞서 받은 관직(營州刺史)과 추가된 것(平州牧)을 '營平二州刺史' 내지 '營平二州牧'으로 連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문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병기하였다.

22) 왕호의 변경이 의미하는 바는 잘 모르겠다. 다만 '遼東·帶方二國王'이라는 중국 군현에서 유래한 왕호라는 점에서, 이 시기 중국의 여러 왕조가 책봉을 통해 주변국가의 수장에게 內臣과 동일한 관작을 수여함으로써 외형상으로나마 국가체제 안으로 편입시켰던 노력이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짐작된다.

차지하게 되었고 후연의 책봉이 이를 인정하는 조치였다면, 그 책봉에는 평주를 도독제군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396년의 책봉에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에서 기존의 이해가 과연 온당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달리 말하면 396년의 책봉은 고구려의 요동 영유를 인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396년의 책봉호에 보이는 '평주목'은 355년 전연의 책봉에는 없던 새로운 관직이다. 평주목이 가관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고구해 보아야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이 과거와 달라진 396년 무렵의 새로운 정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해볼 수 있다. 이제 문제가 되는 평주를 중심으로 한 정세의 변화를 살펴보자.

평주는 후연의 지방행정구역으로 동북방에 위치하였다. 아래 기사의 대방왕 모용좌(慕容佐)의 활약상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D-1. 二年(385) 夏六月 王出兵四萬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 鎭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 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 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初 幽冀流民多來投 農以范陽龐淵爲遼東太守 招撫之.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D-2. 燕王垂以農使持節 都督幽平二州·北狄諸軍事 幽州牧 鎭龍城. 使平州刺史帶方王佐鎭平郭. 農於是創立法制 事從寬簡 淸刑獄 省賦役 勸課農桑 居民富贍 四方流民前後至者數萬口. 先是幽冀流民多入高句麗 農以驃騎司馬范陽龐淵爲遼東太守 招撫之.

[『자치통감』 권106 진기(晉紀)28 효무제태원(孝武帝太元) 10년(385)]

385년 6월 고구려는 후연을 기습하여 요동·현도 2군을 얻었지만, 11월 모용농이 이끈 후연군의 반격으로 잃고 말았다. 385년 요동·현도군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양국의 쟁탈전은 후연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이 공방전의 결과 대방왕 모용좌는 본래 머물렀던 용성(龍城)에서 평곽(平郭)으로 주둔지를 옮기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D-2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주자사(平州刺史)로서 평곽을 진(鎭)하였다. 이때 보이는 평주자사의 관직은 후연이 요동·현도군을 회복한 뒤 모용좌가 새로 맡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D-1의 기록으로 보아 모용좌는 당초부터 평주자사로서 용성에 부임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평주는 후연이 그 동북방에 마련한 지방행정구역이었고, 요동·현도군은 평주자사의 관할이었던 것이다. 고구려군이 이들 군을 공략해 들어가자 모용좌가 수하를 보내 맞서게 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후연은 요동·현도군을 회복한 뒤, 평주자사부(平州刺史府)를 용성에서 평곽으로 옮겼다. 이것은 평주의 치소를 요서에 두고 요동·현도군을 관장하던 과거와 달리, 요하 이동으로 평주자사를 전진 배치했음을 알려준다. 예상되는 고구려의 진출에 맞서 요동·현도군을 지켜내려는 적극적인 조치였던 셈이다. 이러한 모습은 후연이 요동·현도군 회복의 임무를 달성한 모용농을 복귀시키지 않고 용성을 거점으로 '유(幽)·평이주(平二州)·북적(北狄)'을 도독케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에게 후연의 동북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겼던 것이다. 모용농이 '도독유평이주북적제군사(都督幽平二州北狄諸軍事)'하게됨에 따라, 모용좌는 그 예하에 배속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평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유주와 평주에 배치된 군사력이 동원될 것이었다. 평곽의 평주자사는 '도독유평이주북적제군사'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고구려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과거 고구려와 전연 간의 공방전을 상기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23] 전연 건국의 토대를 놓은 모용외(慕容廆)가 요동을 차지한 뒤 요동(성)과 평곽을 진수하게 되자, 고구려의 요동 진출이 가로막

혔고, 그 뒤를 이은 모용황(慕容皝)에게는 고구려의 왕도(王都) 국내성이 함락당해 5만의 고구려인이 포로로 끌려가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전대(前代)의 경험을 살려 후연은 평곽에는 평주자사를, 양평(襄平)에는 요동태수[24]를 전진 배치하는 군사력 강화의 조치로써 고구려를 상대하였던 것이다. 그런 만큼 고국원왕대 입은 피해의 기억이 남아 있었을 고구려가 느낀 위협의 정도는 실제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모용농은 389년 정월 모용융(慕容隆)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이때의 전출로 후연의 동방정책에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여길 수 없다.[25]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E. 遼西王農在龍城五年 庶務脩擧 乃上表曰 臣頃因征卽鎭 所統將士安逸積年 靑·徐·荊·雍遺寇尙繁 願時代還 展竭微效 生無餘力 沒無遺恨 臣之志也. 庚申 燕主垂召農爲侍中·司隷校尉 以高陽王隆爲都督幽·平州二州諸軍事·征北大將軍·幽州牧 建留臺於龍城 以隆錄留臺尙書事. 又以

23) ①"(崔)毖與數十騎棄家奔高句麗 其衆悉降於廆. 廆以其子仁爲征虜將軍 鎭遼東"[『資治通鑑』 卷91 晉紀13 元帝太興 2년(319), 2874쪽]
②"(320년) 高句麗寇遼東 慕容仁與戰 大破之 自是不敢犯仁境"(위의 책, 2888쪽)
③"(321년 12월) 廆徙慕容翰鎭遼東 慕容仁鎭平郭 翰撫安民夷 甚有威惠 仁亦次之"(위의 책, 2891쪽)
④"(341년) 燕王皝 以慕容恪爲渡遼將軍 鎭平郭 自慕容翰慕容仁之後 諸將無能相繼者 及恪之平郭 撫舊懷新 屢破高句麗兵 高句麗畏之 不敢入境"(『資治通鑑』 卷96, 3046쪽)
위의 기록에서 襄平에 더하여 平郭이 요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음을 본다. 특히 ③의 기록은 두 곳이 나란히 진수의 거점으로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④는 평곽이 요동의 중심 거점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24) D-2 기록 말미에 驃騎司馬 龐淵을 遼東太守로 삼아 유민의 초무를 맡겼던 사실이 보인다.

25) 井上直樹는 모용융의 역량이 형인 모용농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판단하여 그의 재임 시기에 고구려의 요동 진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井上直樹(2012), 앞의 글, 235~236쪽]. 그러나 '遼·碣遂安'의 표현이 있으므로 따를 수 없다.

護軍將軍平幼爲征北長史 散騎常侍封孚爲司馬 竝兼留臺尙書. 隆因農舊規 脩而廣之 遼·碣遂安

[『자치통감』 권107 진기29 효무제태원 14년(389)]

모용농의 후임인 모용융 역시 요(遼)·갈(碣) 지역을 안정시켰다는 언급으로 보아 그의 재임 기간 중(389~395) 요서·요동지방에는 별다른 정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모용농이 세운 규범을 이어받아 더 체계화했다는 평가로(因農舊規 脩而廣之) 보더라도 용성을 중심으로 평곽과 양평의 두 방향에서 고구려를 상대한다는 전략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모용융이 도독제군사한 관할범위에는 평주가 들어가 있어, 고구려를 상대하는 책임도 승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용농의 파견과 그 뒤를 이은 이가 모용융이라는 사실은 당시 후연이 요동을 비롯한 동북방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둘은 모용수(慕容垂)의 뒤를 이어 난세를 헤쳐나갈 재목으로 지목될 정도의 인물이었다.[26] 또한 모용농이 전출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삼았던 서남 지역의 불안정[청(靑)·서(徐)·형(荊)·옹유구상번(雍遺寇尙繁)]처럼 후연을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였다. 쓰임새가 적지 않았을 상황임에도 후연은 이들을 보내 요서·요동지역의 영유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후연의 조치로 보아, 385년 11월 이후 후연의 고구려왕 책봉이 있던 396년까지 양국의 관계를 알려주는 기사가 없는 까닭도 짐작할 수 있다. 후연이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인선(人選)으로 요동을 진수하고 있었던

26) "後段后嘗言於垂曰 太子遭承平之世 足爲守成之主 今國步艱難 恐非濟世之才. 遼西·高陽二王 陛下之賢子 宜擇一人 付以大業"[『資治通鑑』 卷108 晋紀30 孝武帝太元 20年(395), 3427쪽]

만큼, 고구려가 틈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적었던 것이다. 반면 후연으로 보아서는 이들의 장기간 진수가 필요할 만큼 동북방의 정세가 유동적이었다는 점도 살필 수 있다. 395년 5월 후연이 거국적으로 북위 공격군을 편성하면서도 용성의 모용융과 그 휘하 병력을 제외하였던 연유를 여기에서 간취할 수 있다.[27]

그런데 이처럼 평곽을 전진기지로 삼아 고구려의 진출을 가로막던 후연의 동방정책은 머지않아 위기에 봉착하였다. 무엇보다도 참합파의 패전이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대군을 편성했음에도 패하였다는 사실은 북위를 일거에 멸할 수 있다고 여겼던 후연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후연이 더 이상 고구려와의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후연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사실은 후연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양국이 적대관계를 뒤로 하고 책봉조공관계를 맺게 된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395년 후연의 참합파 패전과 그 이후의 정세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7) "五月 甲戌 燕主垂遣太子寶·遼西王農·趙王麟帥衆八萬 自五原伐魏 范陽王德·陳留王紹別將步騎萬八千爲後繼"[『資治通鑑』 卷108 孝武帝太元 20年(395), 3421쪽]

IV. 고구려와 후연의 책봉조공관계와 그 의미

모용융과 휘하 병력이 결국 용성을 떠나 북위 공격군에 편성되었던 것은 396년 1월의 일이다.[28] 아껴두었던 용성의 병력과 모용융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후연이 참합파에서 입은 피해는 상당한 것이었고,[29] 그런 만큼 설욕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런데 모용융과 휘하 병력이 용성에서 빠져나감으로써 후연의 전력에는 변화가 생겼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서진(西進)하기에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기 위해 후연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후연이 북위 공격군의 편성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조치를 병행했던 것이다.

F. 燕太子寶恥於參合之敗 請更擊魏. …… 垂乃以淸河公會錄留臺事 領幽州刺史 代高陽王隆鎭龍城 以陽城王蘭汗爲北中郎將 代長樂公盛鎭薊 命隆·盛悉引其精兵還中山 期以明年大擧擊魏.

[『자치통감』 권108 진기30 효무제태원 20년(395), 3425쪽]

모용융을 대신하게 된 이는 모용회(慕容會)였다. 기록에 보이는 그의 관직은 '녹유대사(錄留臺事) 영유주자사(領幽州刺史)'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 용성에 진

28) "(396년) 春 正月 燕高陽王隆引龍城之甲入中山 軍容精整 燕人之氣稍振"[『資治通鑑』 卷108 孝武帝太元 20年(395), 3425쪽]

29) 관련 기록은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 20年(395), 5月~11月條, 3421~3424쪽 참조. 이때의 전쟁결과로 후연은 정예병 대부분을 상실했고 10만에 가까운 대군에서 생환자는 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후연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朱大渭·張文强(1998), 『中國軍事通史』 第8卷(兩晉南北朝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236쪽

(鎭)하여 동북의 일을 맡았다고는 여길 수 없다. 다른 기록에는 모용회가 '정북대장군(征北大將軍) 유(幽)·평이주목(平二州牧)'이었음을 전하기 때문이다.[30] 모용융의 임무를 대신하게 되었던 만큼 그가 맡았던 권한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31] 그러므로 요동·현도 2군을 포함한 평주도 그가 관할했다고 여겨진다.

북위와의 전쟁에서 후연은 결국 패배하지만, 이때의 공격은 꽤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북위왕 탁발규(拓跋珪)가 도주할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후연군의 공세는 매서운 것이었다.[32] 그러던 전세에 변화를 준 것은 모용수의 죽음이었다. 예기치 못한 부황(父皇)의 죽음에 놀란 모용보는 중산(中山)으로 귀환한 후 발상(發喪)하고 즉위하였다. 이때가 396년 4월이었다.[33]

30) "燕征北大將軍 幽·平二州牧 淸河公會母賤而年長 雄俊有器藝 燕主垂愛之. 寶之伐燕也 垂命會攝東宮事 總錄 禮遇一如太子. 及垂伐魏 命會鎭龍城 委以東北之任 國官府佐 皆選一時才望. 垂疾篤 遺言命寶以會爲嗣 而寶愛小子濮陽公策 意不在會. 長樂公盛與會同年 恥爲之下 乃與趙王麟共勸寶立策 寶從之. 乙亥 立妃段氏爲皇后 策爲皇太子 會·盛皆進爵爲王"[『資治通鑑』 卷108 晉紀 30 孝武帝太元 21年(396), 3430쪽]

31) 여기에서 모용융이 '征北大將軍 幽州牧'이었으며 '錄留臺尙書事'한 사실과 비교된다. 또한 모용수는 모용보에게 모용회를 후사로 삼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각주30 참조). 모용회는 重任에 걸맞은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32) "三月 庚子 燕主垂留范陽王德守中山 引兵密發 踰靑嶺 經天門 鑿山通道 出魏不意 直指雲中. …… 以遼西王農·高陽王隆爲前鋒以襲之. 是時 燕兵新敗 皆畏魏 唯龍城兵勇銳爭先. 虔素不設備 閏月 乙卯 燕軍至平城 虔乃覺之 帥麾下出戰 敗死 燕軍盡收其部落. 魏王珪震怖欲走 諸部聞虔死 皆有貳心 珪不知所適"[『資治通鑑』 卷108 晋紀30 孝武帝太元 21年(396), 3426쪽]

33)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太元 21年 4月~5月條(3426~3427쪽). 모용보 시대 후연이 하북을 북위에 잃고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급속히 쇠락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396년 무렵의 정세를 재단하는 것은 온당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慕容寶가 慕容會를 후계로 삼지 않음으로써 그의 모반을 불러왔고 中山을 固守하지 않고 포기하여 민심을 수습할 기회를 놓치는 등의 실책이 없었다면 전쟁의 승패는 오히려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이를 말하여 준다. 臺灣 三軍大學 編(1972), 『中國歷代戰爭史』 5, 軍事譯文出版社, 1652쪽

모용융의 용성군(龍城軍)까지 동원했던 공격이 실패로 끝나고 후연은 북위의 반격에 대비해야 하였다. 모용보가 즉위하자마자 시행한 일이 모용농에게 하북(河北)의 군권을 맡겨 북위의 남진(南進)에 대비케 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하여 준다. 한편 고구려 광개토왕이 후연의 책봉을 받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는데, 후연이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을 서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연의 책봉으로 양국은 책봉조공관계를 맺게 되었고, 양국의 국경선에는 오랜만에 긴장감이 해소되었을 것이다.[34]

이제 미루어 온 질문에 답할 차례다. 후연이 광개토왕에게 수여한 책봉호에 가관된 '평주목'은 어떤 사정에서 나온 것일까. 이때까지 고구려가 요하 이동의 지역을 석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요동의 세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하는 의문들이 그것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모용융·모용회는 평주를 '도독제군사'하였다. 다만 이때의 평주가 후연이 설정한 원래의 관할 범위 모두였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것은 후연이 광개토왕에게 수여한 책봉호 가운데 '평주목'이 있기 때문이다. 후연의 책봉이 355년 전연의 책봉호을 승계하는 한편 '평주목'을 가관했다는 것은 이전의 고구려와 다르게 변모한 광개토왕대의 고구려를 감안한 조치였을 것이다. 비록 일시적인 점거로 그쳤지만 385년 고구

34) 위기를 넘긴 북위가 반격에 나선 것은 같은 해 8월의 일이었다. 40만의 군대를 동원한 북위의 공세에 후연은 河北의 諸城을 잃고 中山·鄴·信都 3곳만을 겨우 보존하는 형편이었다[『資治通鑑』 卷108 晉紀 太元 21年(396) 8월~11월조]. 397년 2월에는 후연 내부에서 모용보를 살해하고 慕容麟을 옹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3월 모용보는 중산에서 용성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하였다. 용성을 지키고 있던 모용회는 이 기회를 틈타 반란을 시도하였고[『資治通鑑』 卷109 晉紀 隆安 元年(397) 4월조)], 모용보는 북위에게 빼앗긴 하북을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군대를 일으키는 등 무리를 거듭하다가 결국 398년 시해당하고 말았다(『資治通鑑』 卷110, 晉紀 隆安 2年).

려가 요동·현도 2군을 차지했던 것처럼, 평주 관내 요하 이동의 영역 모두가 고구려에 속했던 적도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후연이 광개토왕에게 '평주목'을 포함한 책봉호를 수여했다는 것은 평주의 영역,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주 관내 요하 이동의 지역을 후연과 고구려가 분점(分占)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요동지역의 분점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광개토왕릉비' 영락 5년조라고 생각한다.[35]

G. 永樂五年歲在乙未 ①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落六七百營牛馬群羊不可稱數 ②於是旋駕 因過襄平道東來(候)
城力城北豊五備□遊觀土境田獵而還.[36]

영락 5년조는 내용으로 보아 광개토왕의 패려(稗麗) 정벌과 이후 거가(車駕)를 돌려 양평도(襄平道)[37] 이하의 여러 지역을 유관토경(遊觀土境)한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G-② 부분이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패려 정벌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양평도[38]를 따라 동으로

35) 그동안 이 기록의 내용은 다음해의 광개토왕 책봉 기사와 짝을 이루어, 고구려의 요동 확보를 보여준다고 이해되어 왔다. 武田幸男(1989), 앞의 책, 213~214쪽 ; 田中俊明(1996), 앞의 글, 514~515쪽

36) 판독문은 武田幸男의 견해를 따른다[武田幸男(1989), 앞의 책, 212쪽]. 양평의 요동군에서 보아 그 동쪽이라면 현도군의 속현이 들어갈 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武田幸男은 '因過襄平 道東來 ……'로 문장을 해석하고 있으나, 『譯註 韓國古代金石文』의 것을 따라 '因過襄平道 東來 ……'로 해석하겠다[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1992), 17쪽].

37) '襄平'이 아니라 '望平'으로 판독하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田中俊明(1996), 앞의 글, 512~513쪽

38) 양평도란 양평을 중심으로 뻗은 교통로를 말한다. 여호규(2005), 「'광개토왕릉비'에

와서 (辛)성[(候)城]·역성(力城)·북풍(北豊)·오비□(五備□) 등지를 유관토경하고 전렵(田獵)하였다. 왕의 행로 상에 보이는 양평은 요동군의 치소였으며 (辛)성·역성·북풍 등은 현도군과 요동군의 속현이었던 곳이다. 이 점에서 광개토왕이 옛 현도·요동군 고지(故地)를 유관토경하였다는 것은 새로 획득한 영토에 대한 순수(巡狩)로 이해되고 있다.[39] 달리 말해 고구려가 이들 지역을 후연으로부터 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경유지를 근거로 고구려가 요하 이동의 지역 모두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있다. 우선 광개토왕의 순수 경로에서 평곽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평곽은 4세기 중반 전연과의 항쟁에서 고구려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었던 곳으로, 후연도 평주자사를 진수시켜 이곳을 대(對)고구려전선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었다. 그런 만큼 고구려가 요하 이동의 지역을 석권했다면 응당 평곽의 점령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순수의 경유지로서 이런 곳을 빼놓았을 리도 만무하다. 특히 경유지의 하나인 북풍은 평곽으로 이어지는 경로상에 있다는 점에서[40]

나타난 고구려의 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37쪽

39) 徐榮洙(1988), 앞의 글, 103쪽 ; 金瑛河(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45쪽 ; 武田幸男(1989), 212~214쪽 ; 林起煥(1998), 「高句麗前期 山城 硏究」, 『國史館論叢』 82, 79~80쪽 ; 田中俊明(1996), 앞의 글, 514~516쪽. '광개토왕릉비'는 '巡狩' 혹은 '巡幸'이 아닌 '遊觀土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역시 秦始皇의 순수에서 '游'로써 순수를 표현했다는 점[金瑛河(1979),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民族文化硏究』 14, 209쪽]에서 순수를 풀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길 수 있겠다. '游' 대신 '遊'를 사용하기도 했음은 巡遊가 있음에서 알 수 있다.[최진열(2011),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출판문화원, 2쪽]

40) 평곽은 현재의 蓋州市로 비정된다. 개주시의 현성 아래에서 漢代 성곽이 나왔던 것이다[孫進己·馮永謙 主編(1989), 『東北歷史地理』 第2卷, 黑龍江人民出版社, 24쪽]. 북풍의 위치는 稻葉岩吉이 현재의 개주시 부근으로 비정한 이래[稻葉岩吉(1913), 「漢代の滿洲」, 『滿洲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 211~212쪽] 평곽과 함께 요하의 동안에 위치했다고 여겨져 왔다. 240년 요동의 汶縣과 北豊縣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山東半島

북풍에 이른 왕의 어가가 어째서 평곽에는 나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양평이 경로상에서 언급되고는 있지만 '양평도'의 표현으로 보아 광개토왕이 양평에 갔던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41] 한편 (후)성의 위치는 현재의 심양시(瀋陽市)로 추정된다.[42] 양평을 기점으로 (후)성은 동북쪽에 해당되어 '동래(東來)'의 표현에 부합한다. 하지만 전체의 경로를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양평도에서 북풍·오비□까지의 경로는 동(동북)→서(서남)→남→동의 방향을 보인다. 이 가운데 (후)성에서 보았을 때 역성과 북풍은 그 서남쪽이

로 이주했다는 사실(『三國志』 卷4, 19쪽)이 그 근거가 된다. 하지만 북풍이 평곽과 함께 요동반도 서부의 해안가에 위치했다면 평곽을 경유해서 남하했을 것이고, 그 중요도로 보아 평곽이 언급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이 점에서 북풍의 위치를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한다.

필자는 북풍이 평곽에서 太子河를 거슬러 國內城에 이르는 경로와 관계있다고 여긴다. 長壽王 26년(438) 고구려는 영입해온 北燕王을 평곽에 두었다가 북풍으로 옮겼다. 당초 장수왕이 북위군과의 충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연왕 풍홍의 영입에 나섰던 것은 그를 확보하여 북위의 세력확대를 막는 억제력으로 삼고자 함이었다. 이에 영입 당시에는 平郭에 두어 북위의 和龍城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李成制(2003), 「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意義」, 『白山學報』 67 ; 재수록(2005), 앞의 책, 74~77쪽]. 馮弘을 북풍으로 옮긴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林起煥은 북풍으로의 移置는 북위의 강제송환이나 풍홍의 탈출을 염려한 때문으로 북풍은 요동 內地로 깊숙한 지역이라고 본다[林起煥(1998), 앞의 글, 81쪽]. 이렇게 볼 때 북풍은 평곽에서 요동 내륙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한 곳으로, 평곽에서 북풍을 경유하는 하나의 노선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각주 23의 ④기록에는 후연과 고구려 간의 戰場이 평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가 된다. 즉 북풍을 확보함으로써 고구려는 후연의 전진기지 평곽에 한 걸음 다가가 있었던 것이다.

41) 어째서 양평이 아니라 '양평도'라고 표현하였을까 하는 점에 유의하여 보면, 양평을 경유하는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양평을 거쳤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42) 후성의 위치는 심양 부근으로 비정된 이래[稻葉岩吉(1913), 앞의 글, 114~115쪽] 여러 지점이 지목되었으나 瀋陽 舊城區 淸代 古宮의 지하에서 발견된 漢代 古城址로 보는 견해[馮永謙(1986), 「漢候城 高顯考辨」, 『東北歷史地理』 1卷, 283쪽 ; 田中俊明(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研究』 1, 29쪽]에 따른다.

되어 양평도에서 일단 동진하여 (후)성에 이르렀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경로를 바꾸었다는 이상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역성의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양평 이남으로, (후)성에서는 서남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었다고 여겨진다.[43] 이 점에서 양평도에 들어섰다면 양평을 경유하여 평곽에 이르고 북풍 등을 거치는 것이 무난한 행로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광개토왕의 행렬은 (후)성으로 동진했다가 거가를 돌렸다는 부자연스러운 행적을 보여준다.

북풍의 위치가 평곽에서 고구려의 남도로 이어지는 전선 상에 있었다고 보면, 앞서의 (후)성이 옛 현도군의 속현이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간다. 지리적 관계로 보아 (후)성은 양평으로, 북풍은 평곽으로 각각 나아가는 경로 상에서 동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조금만 서진하면 닿을 수 있는 양평과 평곽에 왕의 어가가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후)성과 북풍이 각각 후연의 양평과 평곽을 상대하고 있던 고구려의 서북방 최전선이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아닐까 한다. 광개토왕이 부자연스러운 행적으로 이들 지역을 순수해야 했던 연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 너머의 지역은 후연의 영토였던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영락 5년조의 후반부 내용은 고구려가 요하 이동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정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후연이 평

43) 力城은 후연의 요동군에 소속된 속현이었다["遼東國. 襄平〈東夷校尉所居〉·汶·居就·樂就·安市·西安平·新昌·力城"(『晉書』 卷14 地理志上 平州 遼東國條, 427쪽)]. 역성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지만, 다른 속현들의 위치를 감안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汶縣은 현재의 海城市 析木漢城, 居就縣은 遼陽市 東南 亮甲村 東岸의 古城, 安市縣은 營口市 英守溝城址, 西安平은 丹東市의 靉河尖古城址, 新昌은 요양 남쪽의 鞍山 남부의 楊柳河 舊堡村 부근의 古遺址로 비정된다[孫進己·馮永謙 主編(1989), 앞의 책, 62~64쪽].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없는 樂就縣을 제외하면, 양평 이하의 속현 모두가 현재의 요양 남쪽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성의 위치도 대략 여기에 있었다고 보인다. 『東北歷史地理』에서는 本溪 境內로 비정하고 있다.

곽과 양평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어 요동을 양국이 분점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영역 순수라면 마땅히 왕의 행렬이 이르렀어야 할 두 곳 대신 정치적·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기재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영락 5년 요동을 순수한 광개토왕은 이듬해 백제 친정에 나서 58성·700촌의 획득이라는 다대한 전과를 거둔다. 이 한가운데에 고구려와 후연 양국은 책봉조공관계를 성립시켰다. 고구려가 396년 후연과의 관계에서 이룬 책봉조공관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고구려는 책봉조공관계를 통해 군사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던 대후연관계를 개선해 서방에 대한 우려를 덜고, 남방 경략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양서』고구려전의 396년 후연이 고구려 광개토왕을 책봉한 기록은 양국이 책봉조공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그 배경과 새로운 관계의 내용에 대해 살핀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후연의 광개토왕 책봉은 후연이 고구려의 요동 영유를 인정하는 조치라고 보고, 그 전제로서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이해해왔다.

후연의 고구려왕 책봉은 모용보의 즉위와 짝을 이룬 것이었다. 당시 후연이 북위와의 대결에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고 있었기에, 이때의 책봉은 북위의 예상되는 반격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이었다. 즉 위기의 국면에서 책봉을 내세운 대고구려외교로서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보아 후연의 책봉은 후연이 고구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양국이 책봉조공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책봉의 수여에 대해 고구려가 화답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의 개선은 무망하였다. 이 점에서 관건이 되는 광개토왕의 의향과 무관한 책봉일 수가 없었다.

양국 관계의 개선이 소망스럽기는 고구려도 다르지 않았다. 남방의 백제를 상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후연과의 적대적 관계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이 점에서 후연의 책봉에 짝하는 고구려의 사절 파견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추정은 후연의 책봉에 후속하여 광개토왕이 '장사·사마·참군'의 막료를 두었다는 『양서』 고구려전의 기록에서 확인이 된다. 이들 막료는 '도독모주제군사'·'모장군'의 자격으로 두게 된 것으로 후연의 책봉이 그 전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개토왕은 후연의 책봉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한편 『양서』 고구려전의 광개토왕 책봉 기사는 후연의 모용보가 광개토왕에게 수여한 책봉호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한 불완전한 기록이다. 396년의 책봉은 355년 전연의 모용준이 고구려 고국원왕에게 수여한 책봉을 전제로 한 개봉(改封)에 해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에게 수여된 책봉호를 복원해 본 결과, 후연이 고구려의 요동 영유를 인정하였다면 마땅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 '평주(平州)'에 대한 지배권이 '도독제군사'가 아닌 '주목(州牧)'으로서의 민정권만 수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평주목이 고구려왕의 책봉에 가관된 배경은 396년 당시의 정세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동을 둘러싼 후연과 고구려의 공방전에서 후연이 평주자사를 요동의 평곽에 전진 배치하고 요동성과 함께 고구려에 대적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요하 이서의 용성에 진수하고 있던 후연군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후연 내에서 인재로 꼽히던 모용농과 모용융 그리고 모용회가 용성의 진수를 맡았다는 사실

은 후연이 요동을 비롯한 동북방 지역을 중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평주를 중심으로 한 후연의 동방정책은 평주 관내 요하 이동의 지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요동과 현도 2군 지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시 요동지역은 후연과 고구려가 분점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후연은 광개토왕에게 '평주목'을 포함한 책봉호를 수여함으로써 평주의 영역,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주 관내 요하 이동의 지역을 양국이 분점하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요동지역의 분점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사료가 바로 '광개토왕릉비' 영락 5년조라고 생각한다. 왕이 순행한 경로상에 평곽의 모습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또한 양평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양평도'의 표현으로 보아 광개토왕이 양평에 갔던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 특히 양평을 경유하여 평곽에 이르고 북풍 등을 거치는 무난한 행로 대신, 경로를 여러 차례 바꾸었다는 부자연스러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역 순수라면 이르렀어야 할 평곽과 양평 대신 정치적·군사전략면에서 비중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왕의 어가가 나아갔던 [후(候)]성과 북풍은 각각 후연의 양평과 평곽을 상대하는 고구려의 서북방 최전선이었고, 그 너머의 지역은 후연의 영토였던 것이다.

영락 5년 요동을 순수한 광개토왕은 이듬해 후연과 책봉조공의 관계를 맺었다. 왕이 백제 친정(親征)에 나서서 58성·700촌을 획득하는 다대한 전과를 거둔 것은 후연과의 관계가 개선된 뒤의 일이었다. 고구려가 396년 후연과의 관계에서 이룬 책봉조공관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고구려는 책봉조공관계를 통해 서방에 대한 우려를 덜고, 남방 경략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사료

『晉書』, 『資治通鑑』, 『三國史記』

단행본

臺灣 三軍大學 編(1972), 『中國歷代戰爭史』 5, 軍事譯文出版社

池培善(1986), 『中世東北亞史硏究 – 慕容王國史』, 一潮閣

孫進己 · 馮永謙 主編(1989), 『東北歷史地理』 第2卷, 黑龍江人民出版社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堀敏一(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 中華的世界と諸民族』, 岩波書店

金鍾完(1995), 『中國南北朝史硏究 – 朝貢 · 交聘關係를 중심으로』, 一潮閣

李成制(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硏究』, 國學資料院

朱大渭 · 張文强(1998), 『中國軍事通史』 第8卷(兩晉南北朝軍事史), 軍事科學出版社

최진열(2011),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출판문화원

논문

稻葉岩吉(1913), 「漢代の滿洲」, 『滿洲歷史地理』 1, 南滿洲鐵道

金瑛河(1979),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民族文化硏究』 14

金瑛河(1985),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金翰奎(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 古代의 國家와 社會』(韓國歷史學會 編), 一潮閣 ; 재수록(1997) 『古代東亞細亞幕府體制硏究』, 一潮閣

馮永謙(1986), 「漢候城 高顯考辨」, 『東北歷史地理』 1卷, 黑龍江人民出版社

徐榮洙(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 再檢討」 中, 『歷史學報』 119

武田幸男(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田中俊明(1994),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硏究』 1

田中俊明(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 北方境域形成史에 있어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廣開土王時代」,『高句麗硏究』 2
林起煥(1998),「高句麗前期 山城 硏究」,『國史館論叢』 82
林起煥(2003),「南北朝期 韓中 册封·朝貢 關係의 性格」,『韓國古代史硏究』 32
李基東(1999),「百濟의 勃興과 對倭國關係의 成立」,『古代韓日文化交流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三崎良章 저, 김영환 옮김(2007),『五胡十六國』, 景仁文化社(원저 東方書店, 2002)
孔錫龜(2003),「高句麗와 慕容'燕'의 갈등 그리고 교류」,『강좌 한국고대사』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李成制(2003),「高句麗 長壽王代의 對宋外交와 그 意義」,『白山學報』 67 ; 재수록(2005),『高句麗의 西方政策 硏究』, 國學資料院
李成制(2004),「長壽王의 對北魏交涉과 그 政治的 意味－北燕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對北魏關係의 전개」,『歷史學報』 181 ; 재수록(2005),『高句麗의 西方政策 硏究』, 國學資料院
篠原啓方(2005),「高句麗的國際秩序의 成立과 展開」,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여호규(2005),「『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對中認識)과 대외정책」,『역사와 현실』 55.
余昊奎(2006),「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册封關係 연구」,『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高句麗硏究財團
李椿浩(2008),「五胡十六國時期 後燕의 中樞之官에 關한 硏究」,『中國古中世史硏究』 19
井上直樹(2012),「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契丹戰」,『광개토왕 훙거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영수(徐榮洙)
한중관계사 전공,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2007, 공저), 「廣開土大王陵碑文의 정복기사 재검토」(1982, 『역사학보』 96 ; 1988, 『역사학보』 119), 「삼국시대 한중외교의 전개와 성격」(1986, 『고대한중관계사의 연구』),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1988, 『한국사시민강좌』 2),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1999, 『東洋學』 29), 「광개토태왕비문의 고구려와 倭」(2007, 『동아시아 속에서의 고구려와 왜』) 등이 있다.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1)]

단국대학교 **서영수**

I. 머리말

광개토태왕(廣開土太王)의 무훈을 전하는 능비문(陵碑文)의 정복기사 첫머리에 "영락 5년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부산(富山)과 부산(負山)을 지나 소금강이 흐르는 구릉지대에 이르러 패려(稗麗) 세 부족 육칠백 영을 공파한 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말, 양 무리를 획득하였다"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고구려 전성기를 상징하는 화두인 광개토경(廣開土境)의 출발점이 당대 고구려의 호적수인 백제나 후연(後燕)이 아니라 정체가 모호한 패려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 정체는 무엇이며, 부산·부산을 지나 도착한 소금강이 흐르는 지역[염수구(鹽水丘)]은 어디일까? 능비문에는 농업지대인 한반도 내의 전투장면과는 상

1)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광개토왕 1600주기 국제학술회의 – 광개토왕비의 재조명(2012년 10월 18일~19일)'에서 발표한 「광개토태왕의 패려 정벌과 북방정책 – 능비문의 영락 5년조 기사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하여 『백산학보』 95호에 실린 글이다.

이한 소금강과 우마군양(牛馬群羊) 등이 기술되어 있어 종래부터 그 정복지역의 비정과 작전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왔다.

한편 패려를 정벌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영락 5년 후반부의 기사는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필자가 영락 5년 기사를 패려 정벌과 요동(遼東) 순수(巡狩)로 나누어 보기 시작한 이후[2] 최근에는 오히려 패려 정벌 기사보다 관심이 집중되어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종래의 연구가 원정 대상과 지역 등 구체적 사실(史實)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면 최근의 연구는 기사의 사실(事實) 여부나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역사적 함의 등 비문의 성격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관련 문헌사료를 망라하여 능비문은 물론 광개토태왕대 고구려의 국제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까닭에 연구는 심화되었으나[3] 반면 비문의 사료적 가치는 오히려 퇴색되어 가는 느낌도 든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염두에 두고 비문의 구조는 물론 패려의 정체나 원정 지역에 대해 재검토하는 동시에 요동 순수 기사를 분석하여 왜 패려 정벌 기사가 훈적비문의 서두에 실려 있으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능비문의 구성과 북방관계기사

『삼국사기(三國史記)』, 『진서(晉書)』, 『자치통감(資治通鑑)』 등 문헌사료와 〈능비

2) 서영수(1982), 「廣開土大王陵碑文의 정복기사 재검토」 上, 『역사학보』 96
3) 여호규(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표 1〉 능비문의 기사 구성과 내용

분류	수록 비면	연대 (서기)	기사 내용	기사성격 및 정복대상	쟁점
제1부	1면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履龍頁昇天.	시조추모왕의 건국신화	
	1면		顧命世子儒留王~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후사와 세계	
	1면		二九登祚, 號爲永樂~卅有九, 晏駕棄國.	광개태왕의 약력	
	1면		以甲寅年九月~立碑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辭曰：	비의 건립경위	
제2부	1면	영락 5년 (395)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 不……躬率住討.~遊觀土境, 田獵而還.	패려의 정체와 위치 및 요동 순수의 성격	패려의 정체와 위치 및 요동 순수의 성격
	1면	신묘년 (391)	百殘·新羅, 舊是屬民, 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 以爲臣民.	백제·신라·왜의 정벌 명분과 결과	주체가 고구려인가 왜인가, 어떤 문자가 변조되었는가
	1~2면	영락 6년 (396)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伐殘國.~於是得五十八城村七百……旋師還都.	백제 정벌	6년의 작전인가 아니면 종합기사인가
	2면	영락 8년 (398)	八年戊戌, 教遣偏師觀帛愼土谷~自此以來, 朝貢服事.	백신토곡 관찰과 인접국 복속	만주의 숙신인가, 한반도 남부지역인가
	2면	영락 9년 (399)	九年己亥, 百殘違誓與倭和通……新羅遣使白王~太王恩慈矜其忠誠,特遣使…….	백제와 왜의 화통, 신라 구원요청	
	2~3면	영락 10년 (400)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新羅寐錦……朝貢.	신라 구원, 가야·왜 정벌	임라가라의 대상, 왜의 성격
	3면	영락 14년 (404)	十四年甲辰, 而倭不軌侵入帶方界.~倭寇潰敗, 斬煞無數.	대방계에서 백제·왜 연합군 격파	왜 단독침입인가, 백제·왜 연합작전인가
	3면	영락 17년 (407)	十七年丁未, 教遣步騎五萬~還破沙溝城……那△城.	백제남부지역 정벌	백제 정벌인가, 후연 정벌인가
	3면	영락 20년 (410)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雜牟王屬民, 中叛不貢~又其慕化隋官來者.味仇婁鴨盧…….	동부여 정벌	동부여의 위치
	3면	총결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태왕이 공파한 성촌의 총수	동부여 지역인가, 태왕이 정복한 총수인가
제3부	3~4면		守墓人烟戶~細城三家爲看烟.	수묘인연호 명단	신래한·예의 지역
	4면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教言~所略來韓穢, 令備灑掃.	광개토태왕의 수묘 교령	한·예의 성격
	4면		言教如此, 是以如教令~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장수왕의 수묘인 대책	매매대상이 무엇인가

문〉,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 등 금석문 사료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광개토태왕대의 북방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은 '요동 확보와 요서 진출, 후연 공략, 거란과 숙신 정벌, 북부여의 고지 점령과 동부여 정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고구려를 둘러싸고 있던 북방 세력 모두가 그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태왕의 무훈(武勳)을 현창하기 위해 세워진 능비의 좁은 지면에 모두 반영·기록되어 있을까. 패려 정벌 기사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능비문 정복기사의 구성과 북방관계기사를 검토하기로 한다.

능비문은 '고구려 시조인 추모왕(鄒牟王)의 건국신화를 비롯한 세계(世系)와 태왕의 약력 및 비의 건립 경위, 영락(永樂) 5~20년까지의 정복 활동, 수묘인연호(守墓人烟戶)와 규정'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비문의 정복기사인데 대체로 두 개의 종합기사와 영락 5~20년에 이르는 여덟 개의 기년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복기사 중 신묘년(辛卯年) 기사와 영락 6년(백제 정복), 9년[(신라의 구원요청과 태왕의 평양 순하(巡下)], 10년(신라 구원과 임나가라 정복 및 왜구 토벌), 14년(대방계에서 백제와 왜 연합군 격파)기사는 남진 기사다.

영락 5년의 경우 패려 이외에도 북풍(北豊) 등 요동 일원에 대한 순수 기사가 보이며, 영락 20년의 경우 동부여의 위치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으나 북방 관계기사임은 분명하다.

영락 8년과 17년 기사의 경우 문자의 결락에 따라 정복대상이나 지역에 대한 이론이 분분하여 남진기사인지 북방 경략기사인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영락 8년조의 경우 북방의 숙신(肅愼) 정벌기사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나[4] 백제나

4) 千寬宇의 「廣開土王陵碑再論」(『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일조각, 1979) 이래 한

동예에 대한 정복기사로 보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5] 필자도 신라와 관련된 작전기사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6] 영락 17년조의 경우 백제와 관련된 남진기사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최근 후연 정복기사로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어[7] 재검토가 필요하다.

능비문의 북방 관계기사로 거론되어 왔던 기사를 발췌하여 쟁점이 되어 온 문자를 청명본[8]을 중심으로 각종 탁본과 비교하여 비문을 교정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락 5년 기사

永樂五年, 歲在乙未, [A] 王以稗[9]麗不□□人, 躬率往討.[10] 過富山·負山,

국학계의 대다수가 숙신설을 지지하고 있다.

5) 王健群은 영락 6년에 이어지는 백제관계 기사로 보았으며(『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1984), 浜田耕策(「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 『조선사연구회논문집』 11, 1974)과 이도학은 강원 일대의 濊 관계기사로 보았다(『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 2006).

6) 서영수(1988), 「광개토대왕능비문의 정복기사 재검토」 中, 『역사학보』 119

7) 천관우의 후연설 이후에도 백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문의 '所穫鎧鉀一萬餘領' 등의 표현을 분석한 후연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문상종(2001), 「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조 기사에 대한 재검토」, 『호서고고학』 4·5 ; 강재광(2009), 「고구려 광개토왕의 요동확보에 관한 신고찰－광개토왕비 정미년조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 2 ; 정명광(2012),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후연정벌」, 『백산학보』 92 ; 공석구(2012), 「광개토왕의 요서진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등이 있다.

8) 靑溟本은 임창순 구장 담묵 탁본으로 국내에 소장된 가장 이른 시기의 탁본으로 여기서는 『한국금석문집성(1)－고구려(1) 광개토왕비』(한국국학진흥진흥원, 2002)의 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9) 碑자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원석정탁본에는 稗자가 분명하다.

10) 往을 住로 쓰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往討'로 읽어 왔으나, 혼동하기 쉬운 글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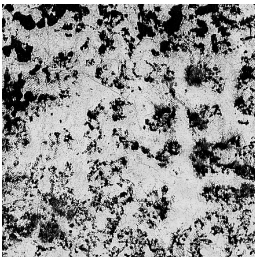


그림 1_ 패(稗)(1-7-11)



그림 2_ 구(丘)(1-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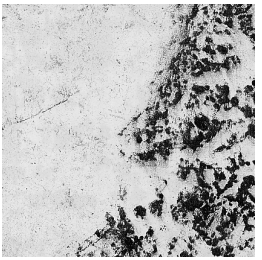


그림 3_ □(□)[1-8-17 후(候)?]

至鹽水丘,[11]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B]於是旋駕, 因過襄[12]平道, 東來□[13]城·力城·北豊, 五備獵,[14] 遊觀土境, 田獵而還.

영락 5년 기사는 지적한 바와 같이 전반부의 패려 정토기사와 후반부의 요동 일부지역의 순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태왕의 친정(親征) 기사로 전반부의 기사는 정토명분과 경과 및 결과가 모두 기술되어 있으나 후반부 기사는 토경(土境)을 순수한 기사이므로 당연히 정토명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관 기사이기는 하나 작전지역은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광개토왕비연구재단 GWANGGAETO STELE INSCRIPTION RESEARCH FOUNDATION

약자로 썼을지는 의문이다. 비문의 표기 그대로 '住討'로 석독하고 '주둔하면서 토벌하였다[林基中(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석문]'고 볼 여지가 있다.

11) 上으로 읽어 왔으나 丘자에 가깝다. 林基中(1995), 위의 책

12) 駕, 望으로 읽기도 하였으나 왕건군(앞의 책, 1984)의 석독을 따랐다.

13) 候로 석독하기도 하나 원석 탁본에는 우측 획이 '𠂢'로 명확하지 않다.

14) 海로 읽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方起東(중국명저비첩선집 27 『好太王碑』, 길림문사출판사, 1999)의 석독에 따른다.

2. 영락 8년 기사

八年戊戌 [A]教遣偏師, 觀帛[15]愼土谷. [B]因便抄得莫□羅城 加太羅谷男女三百餘人, 自此以來 朝貢服[16]事.

영락 8년 기사도 5년 기사와 마찬가지로 단일 기사가 아니라 전반부의 '관백신토곡(觀帛愼土谷)' 기사와 후반부 '초득막□라성·가태라곡(抄得莫□羅城·加太羅谷)~조공복사(朝貢服事)'의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다. 교견형 기사이며, 전반부는 국내영토를 관찰한 것이므로 정토명분을 담은 문장을 기록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의 기사는 정토명분이 앞선 다른 기사(신묘년 기사)에 명기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백신토곡(帛愼土谷)'의 백(帛)은 숙(肅)자로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자 판독과 관계없이 이를 북방의 숙신 정벌기사로 볼 수는 없다.[1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肅, 息으로 석독하는 경우가 있으나 帛에 더 가깝다.

16) 종래 論으로 보아 왔으나 服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17) 肅愼은 『三國史記』 西川王 十一年(280)의 "冬十月, 肅愼來侵屠害邊民, 遣達賈王伐之, 降部落六七所, 以爲附庸. 王大悅, 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愼諸部落" 기록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미 1세기 전에 고구려의 영역에 편입된 집단으로 역사상에서 사라진 존재다. 따라서 숙신을 새로운 정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당대 고구려에 있어 북부여의 잔여세력과 결합하여 새로이 성장한 동부여 이외에는 이미 동북방영역내에 고구려가 재차 정복을 감행할 만한 독립정치세력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이때에 이미 복속된 숙신을 재차 정벌하였다는 견해는 고구려의 영역적 확대에 대한 찬양이기보다는 오히려 4~6세기 간에 걸쳐 발전해 온 고구려의 역사발전을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오히려 滿洲 동북부에 대한 영토 확장은 영락 20년조의 동부여 정복기사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영수(1988),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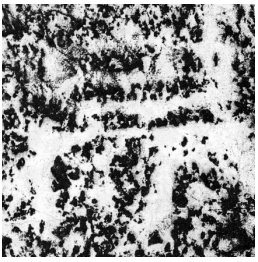


그림 4_ 백[帛, 2-6-1 백신(帛愼)의 백]



그림 5_ 숙[肅, 3-7-34 숙사(肅斯)의 숙]

3. 영락 17년 기사

十七年丁未, 敎遣步騎五萬, □□□□□□□□□師, 四方合戰, 斬煞蕩盡, 所穫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稱數. 還破沙溝城 · 婁城 · 朱由城 · □□□□□□ · 那□城.

영락 17년 기사는 정토명분이 생략되고 공교롭게도 정토대상의 국명 부분의 문자가 결락된 까닭에 백제 응징전과 후연 정벌전이 대립되고 있다. 다만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는 능비문의 구조상 정토명분이 보다 앞선 기사에 제시되어 있을 것인데, 앞선 기사는 대체로 백제 관계기사다. 따라서 후연설보다는 백제설이 더 유력해 보인다.

또한 '소획개갑일만여령(所穫鎧鉀一萬餘領), 군자기계불가칭수(軍資器械不可稱數)'의 표현을 분석하여 후연 정벌기사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개갑의 출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후연 정벌로 비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수묘인기사의 '백잔남거한(百殘南居韓, 4면 2행)'이 주목된다. 이는 백제의 수도 남부에 사는 한족을 차출하여 수묘인연호로 삼았다는 것인데,

영락 5년에 획득한 성촌(城村) 대부분이 예성강~한강유역에 분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락 17년의 전쟁은 백제 남부의 평야지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4. 영락 20년 기사와 총결 기사

> 廿年庚戌, 東夫餘舊是雛牟王屬民, 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 而餘擧[18]國駭□獻□□□□□□, □王恩普覆.[19] 於是旋還. 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卑斯麻鴨盧·椯社婁鴨盧 ·肅斯舍□□·□□□鴨盧.
>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영락 20년 조는 친정기사이며, 정토명분과 결과가 명료하여 동부여의 위치 논쟁을 제외하면[20] 큰 쟁점이 없는 기사다. 다만 동부여 정복전은 치열한 전쟁의 흔적이 없다는 점과 결과도 영토의 획득보다는 '기모화수관래자(其慕化隨官來者)'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영토의 획득보다는 조공지배를 재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어지는 총결 기사의 64성, 1400촌의 공파는 동부여와는 별개로 태왕의 치세에 획득한 전과를 명기한 기사로 생각된다.[21]

---

18) 城으로 석독하는 경우도 있다.
19) 處로 석독하는 경우도 있다.
20) 공석구는 비문의 동부여를 한반도 동해안의 예족으로 파악하고 그 주지를 영흥만 일대로 비정하였으며(「廣開土王陵碑의 동부여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 70, 1990 ;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이도학은 옥저로 보고 두만강하류로 비정하였다(「고구려와 부여관계에 대한 재검토」,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2006). 필자는 두만강 유역에서 연해주 일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았다(앞의 글, 1988).
21) 武田幸男은 營을 城一村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대왕의 정복활동의 결과로 획

능비문의 북방관계 기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소략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작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첫머리의 패려는 당시 고구려인이 알고 있던 만주의 서북쪽 끝이며, 마지막 기사의 동부여는 동북방의 끝이었다. 즉 당시 고구려인에게 만주 중심부는 이미 고구려의 구토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영락 5년의 서쪽과 20년의 동쪽 먼 지역의 원정은 그러한 세계를 광개토태왕이 모두 통합하여 통일된 지배질서를 구축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영락 5년의 패려 정토전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광개토태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요동 전체를 점령하고 후연과의 전쟁에서 요하를 넘어 요서의 대능하 부근까지 진출하여 그 일부를 영역에 편제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능비문에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당대 고구려인의 입장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왕의 전과를 정리한 총결 기사에도 북방 정복전쟁의 결과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당시의 고구려인이 '광개토경'을 외형적인 영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서령기업(庶寧基業), 국부민은(國富民殷), 오곡풍숙(五穀豊熟)."(비문 제1면 5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지대를 획득하여 국가와 백성을 풍요롭게 한 업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닐는지?

득한 村數 1,400村의 700村에 비정하고 있으며[武田幸男(1979), 「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8, 104~109쪽], 최근 여호규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데[여호규(2012), 「4세기~5세기초 고구려와 모용연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한국고대사연구』 67], 이는 부정수인 600~700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동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촌락수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영락 17년의 정복지역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패려 정토전의 내용과 성격

이제 패려의 정체와 원정지인 염수구의 위치 및 패려 정토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住討. 過富山 · 負山, 至鹽水丘,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영락 5년 을미년에 왕은 패려가 □□□하지 않자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주둔하여) 토벌하였다. 부산과 부산을 지나 소금강이 흐르는 구릉지대에 이르러 그 세 부족 육칠백 영을 공파한 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말, 양 무리를 획득하였다.

1. 패려의 정체와 염수구의 위치

패려의 정체와 원정지인 염수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북방 유목민족의 분포와 동향이며, 또 다른 방법은 비문 자체에 표현된 '부산(富山) · 부산(負山), 염수' 등의 지명과 전과로 기술된 '우마군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표현이다.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북방 제민족과 국가는 동북의 동부여 · 숙신 · 읍루 · 물길(말갈), 북방의 북부여 · 실위(室韋), 서북방의 유연(柔然) · 지두우(地豆于) · 고막해(庫莫奚) · 거란(契丹), 서쪽의 모용선비(慕容鮮卑) · 우문선비(宇文鮮卑) · 탁발선비(拓拔鮮卑) 등인데, 비문의 서술이나 당시의 형세로 보아 패려로 비정할 만한 세력으로는 서북방의 거란뿐이다.

종래에도 패려를 나려(裸麗)로 판독하여 흉노의 후예인 유연으로 본 견해가 있었으나,[22] 대체로 『삼국사기』 소수림왕 8년조(277)의 "거란범북변(契丹犯北邊),

함8부락(陷八部落)"이나, 광개토왕 원년조(392)의 '9월(九月), 북벌거란(北伐契丹), 노남녀5백구(虜男女五百口). 우초유본국함몰민구1만이귀(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에 나오는 거란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거란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대상과 주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려 있어 아직 분명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천관우는 『진서(晉書)』 동이전(東夷傳)의 비리(裨離)를 곧 거란으로 추정하였으며,[23] 박시형과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는 『위서(魏書)』 거란전의 거란8부 가운데 하나인 필결부[匹潔部, 또는 필려이(匹黎爾)]로 보고,[24] 왕건군은 『요사(遼史)』와 『발해국지(渤海國志)』의 비리군[碑離郡(國)]으로 보아[25] 그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견해는 엇갈려 있다.

원래 거란은 고막해와 더불어 우문부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선비 모용씨의 전연에 의해 우문부가 격파된 후 흩어졌다가 388년 북위 도무제(道武帝)의 고막해 토벌을 계기로 독자적으로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8부 연맹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26] 패려는 이러한 8부 중 패려와 음이 비슷한 『통전』의 필려부(匹黎部), 『위서』 본기의 필려이(匹黎爾), 「거란전」의 필결부(匹絜部), 「물길전」의 필려이국(匹黎爾國)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나 빈번한 용례로 보아 패려는 거란의 일부라기보다는 고구려인이 거란 자체를 지칭한 비칭의 가능성도 있다. 즉 『요사』의 '부락왈부(部落曰部), 씨족왈족(氏族曰族), 거란고속(契丹故俗), 분지이거(分

22) 申采浩(1972), 「廣開土王의 北進政策과 鮮卑征服」, 『朝鮮上古史』 단재신채호전집(상), 을유문화사, 198쪽 참조
23) 千寬宇(1979), 앞의 글, 521쪽
24) 박시형(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154~155쪽 ; 武田幸男(1979), 앞의 글, 104~109쪽
25) 王健群(1984), 앞의 책, 130쪽 ; 임동석(1985), 국역본 『광개토왕비연구』, 223쪽
26) 이재성(1993), 「거란 고팔부 연맹의 형성과 해체」, 『동국사학』 27

地而居), 합족이처(合族而處)'[27]라는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란의 옛 풍속에는 지역을 나누어 거주하는 부락이 곧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문의 부락은 단순한 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영락 5년조의 정토기사는 거란8부 중 염수구(鹽水丘) 부근에 분거하고 있던 3부를 정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8]

원정지인 염수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학계에서는 염수를 음이 비슷한 염난수(鹽難水, 압록강이나 혼강)나[29] 연수(衍水, 요동반도의 태자하)로 보아[30] 고구려 국도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보아왔다. 이는 고구려의 발전이나 판도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견해다.

고국원왕대에 이미 남만주 경영을 위해 무순(撫順) 부근에 신성(新城, 오늘의 무순 고이산성)을 축성하였는데, 신성에서 서북쪽으로는 일망무제의 요동벌이 있을 뿐 산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문에 나오는 부산(富山)은[31] 요서의 의무려산(醫巫閭山)을, 또 다른 부산(負山)은 그 북쪽의 노노아호(努魯兒虎) 산맥으로 추정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7) 『遼史』 卷33 영위지 중 部族 上

28) 서영수(1988), 앞의 글

29) 那珂通世는 遼 東京道 集州 懷衆軍의 옛 명칭이 '陴離郡'이었음을 근거로 심양의 동남으로 보고 있다. 那珂通世(1915), 「高句麗古碑考」, 『史學會雜誌』 47

30) 王健群(1984), 앞의 책

31) 부산은 『三國志』 卷30 東夷傳 고구려조 "嘉平中, 伯固乞屬玄菟,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兵助度擊富山賊, 破之"와 『삼국사기』 권16 신대왕 5년조의 "王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 將兵助玄菟太守公孫度, 討富山賊"에도 나오는 지명이나 무순의 서북쪽으로 추정될 뿐이다. 최근 이재성은 『大元大一統志』의 부산을 근거로 당시의 원정지를 요서 객좌현 일대로 비정한 바 있으나[이재성(2002), 「4~5세기 고구려와 거란」, 『고구려연구』 14], 객좌는 후연의 도성 서쪽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박경철(2005), 「고구려의 동몽고 경영」, 『백산학보』 71] 이는 富山과 연속한 負山을 지명이 아니라 왕건군의 해석에 따라 '산을 등지고'로 잘못 해석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림 6_ 소금밭이 된 시라무렌하 지류

문제의 '염수'는 원래 있던 중국계 한자 지명이 아니라 고구려 원정군을 따라갔던 사관(史官)이 당시 자연 풍광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싶다. 염수는 문자 그대로 '소금강'을 뜻하기 때문이다. 필자도 문헌사료를 검토하여 요(遼)나라 시기의 대염박이 있었던 광제호[廣濟湖, 오늘의 액길탁니(額吉桌尒) 염호(鹽湖)]일대로 비정한 바 있었는데,[32] 그 후 몇 차례의 답사 결과 시라무렌하[西拉木倫河]의 본류와 지류 여러 곳이 바로 염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라무렌하 본류에서 상경 임황부[上京 臨潢府, 오늘의 파림좌기(巴林左旗)] 사이에는 낮은 구릉 초원지대가 전개되는데 당시의 원정 지역인 '염수구'는 바로 이 일대가 아닐까 생각된다.

32) 서영수(1988), 앞의 글

전과(戰果)로 대서특필한 헤아릴 수 없는 우마군양 역시 당시의 원정 지역이 초원에 있는 전형적인 유목민족의 주거지를 뜻한다.

2. 패려 정벌 기사의 성격

이상의 검토로 패려는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유목하던 거란 8부 중 일부이며, 당시의 원정은 『삼국사기』의 광개토왕 원년 9월조 기사에 대응되는 거란 정벌 작전임이 분명해졌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비문의 영락 5년 기사는 『삼국사기』 광개토왕 원년에서 5년까지의 사실을 종합하였다든지 5년 정벌을 위한 대대적인 준비로 보거나 또는 『삼국사기』는 실제 일어난 사실을 기술하였는데 비문의 기사는 찬자의 입장에서 재구성되었으리라는[33]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추론을 검토하기 위해 두 기사를 비교해보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거란 정벌 기사 비교표

연도	삼국사기	연도	능비문
원년 (392)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5년 (395)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 · 負山, 至鹽水丘,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 力城 · 北豊, 五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33) 여호규(2005), 앞의 글 ; 여호규(2011), 「광개토왕릉비의 서사구조와 훈적기사의 서술체계」, 『특별전 문자, 〈그 이후〉 기념 심포지엄 광개토대왕비와 탁본』, 국립중앙박물관 ; 박경철(2005), 앞의 글 ; 이성제(2012), 「광개토왕의 요동공략과 영락 5년 기년의 의미」, 제127회 한국고대사학회 발표요지

『삼국사기』의 광개토왕 원년(392)조 기사도 "九月, [A]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B]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락 5년 기사와 『삼국사기』의 기록은 구체적인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먼저 패려, 거란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국경지대를 순수하고 주민을 초무하였다는 점에서 거의 같은 작전임을 알 수 있다. 비문이 보다 상세하며 전과의 경우도 "3부락 600~700영을 공파하고 획득한 우마군양은 헤아릴 수 없다" 등 초원 유목 민족과의 전쟁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듯이 생생하다. 정벌작전에 종군한 당대 사관의 기록과 후대 사료의 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후반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간혹 "또한 본국의 함몰민구 일만을 초무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을 거란에 잡혀갔던 포로를 구해가지고 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34] 이는 거란의 침구로 피해를 본 국경지대의 주민 1만을 초무하고 돌아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두 기사는 '초무'와 '순수'라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후연과 요동을 두고 일진일퇴하던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아 후연의 배후인 초원지역에 대한 원거리 군사 작전을 여러 차례 감행한다는 것은 무리로 생각된다. 따라서 『삼국사기』의 기록이 5년 원정의 대대적인 준비라든지, 실제 기년과 가깝다는 최근의 새로운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후연은 394년에 서연(西燕)을 멸망시키고 395년에는 북위(北魏)에 대한 원정을 결행하였다. 패려 정벌은 후연이 이처럼 북위와의 싸움 등 서방 진출에 몰두하던[35] 당시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한 고구려의 초원 원정이었다.

34) 이병도(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35) 篠原啓方(2005), 『고구려적 국제질서의 성립과 전개』,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일반적으로 당대의 금석문사료와 후대 문헌사료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금석문사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상식이나, 최근의 능비 연구는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여기에서 『삼국사기』의 기년이나 광개토왕 원년조 기사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七月, 南伐百濟, 拔十城. 九月, 北伐契丹, 虜男女五百口. 又招諭本國陷沒民口一萬而歸. 十月,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攻擊, 二十日乃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8세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태왕이 즉위하자마자 남으로 백제를 치고, 이어 생경한 초원 지대를 친정한 뒤 바로 다음 달에 기수를 돌려 수륙양군을 동원하여 백제의 관미성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더욱이 당시는 모용수(慕容垂)가 후연을 세우고(384) 요동벌로 다시 나오는(385)[36] 동시에 하북으로 그 세를 펴던 전성기였으며, 백제가 고구려 남변을 자주 침입 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태왕이 한강유역으로부터 만주의 서쪽 끝 초원 지대에 이르는 원거리를 남정북벌하였다는 것은 의문이다.

특히 백제의 관미성 공략은 『삼국사기』에서 "그 성은 사면이 초절하고 해수로 둘러 싸여 왕이 군을 7도로 나누어 공격하여 20일이 걸려 함락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미성으로 추정되는[37] 교

36) 『三國史記』 고국양왕 3년조, "冬11月, 燕慕容農將兵來侵,復遼東 玄菟二郡."

37) 관미성은 비문에는 閣彌城으로 표기 되었는데 교동도설[이병도(1976), 「광개토왕의 웅략」,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과 오두산성설[김윤우(1989), 「광개토왕의 남하정복지에 대한 일고－관미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차문섭교수 화갑기념 사학논총』; 윤일녕(1990), 「관미성위치고－광개토대왕비문, 『三國史記』, 대동지지를 바탕으로」, 『북악사론』 2]이 있으나, 몇 차례 답사한 결과 교동도가 섬의 지세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도 그 전략적 위치를 고려하여 三道統禦使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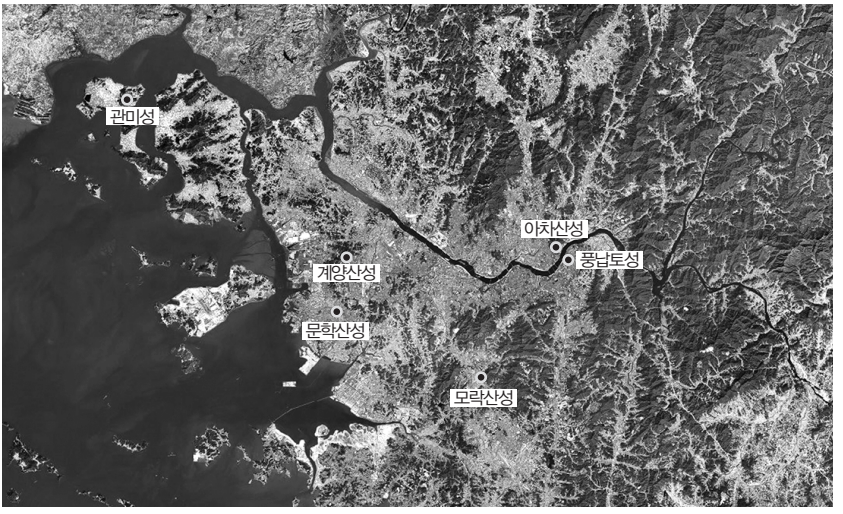


그림 7_ 한강하류지역 주요산성 위치도

동도는 북으로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접전이 거듭되었던 예성강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 임진강과 한강구가 보이며 강화도와의 사이에 좁은 해협을 이루고 있어 고구려 수군이 서해에서 한강구와 인천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다. 적국인 백제의 도성 가까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수륙 양군을 동원하여 어렵게 점령하고 난 뒤 몇 년 쉰 다음 다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광개토왕 원년의 백제 공격과 관련된 기사를 제외하면 고국양왕 후기부터 광개토태왕 초기에는 오히려 백제가 공세적이고 고구려는 방어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광개토태왕 즉위 후 고구려는 고국양왕대부터 공세를

두었으며 산 정상에는 화개산성이 있다.

〈표 3〉 고구려와 백제의 공수 상황(왕력은 『삼국사기』 기년으로 표시)

연도와 왕력	고구려와 백제의 공수(攻守) 상황	참고 사항
383년 고국양왕 3년 진사왕 2년	(고) 8월,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	(「백제본기」) 청목령(靑木嶺)에서부터 북으로는 팔곤성(八坤城), 서쪽으로는 바다까지 관방(關防)을 설치
389년 고국양왕 6년 진사왕 5년	(백) 9월, 고구려 남쪽 변경 침공	
390년 고국양왕 7년 진사왕 6년	(백) 9월, 달솔 진가모를 파견하여 고구려 도곤성(都坤城) 공취	
392년 광개토왕 원년 진사왕 8년	(고) 7월, 남쪽으로 백제를 정벌하여 10성 공취. 10월,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	(「백제본기」) 7월, 고구려왕 담덕 군사 4만으로 북쪽 변경 침공, 석현성(石峴城) 등 10여 성과 한수(漢水) 북쪽의 여러 부락 함몰
393년 광개토왕 2년 아신왕 2년	(백) 8월, 장군 진무를 파견 고구려 남경 석현성, 관미성 탈환작전을 전개했으나 실패	(「고구려본기」) 평양에 9사(九寺) 창건
394년 광개토왕 3년 아신왕 3년	(백) 7월, 고구려와 수곡성(水谷城)에서 싸웠으나 패전	(「고구려본기」) 나라 남쪽에 7성을 쌓아 백제의 침구에 대비
395년 광개토왕 4년 아신왕 4년	(백) 8월, 진무를 파견 담덕의 7천군과 패수(浿水)에서 교전, 대패. 11월, 패수전을 설욕하기 위해 청목령까지 진격했다가 한산성(漢山城)으로 퇴각	
396년 광개토왕 5년 아신왕 5년		(「백제본기」) 왜국과 결호, 태자 전지(腆支)를 인질로 파견
398년 광개토왕 7년 아신왕 7년	(백) 3월, 쌍현성(雙峴城) 축성. 8월, 고구려 정벌을 위해 한산북책(漢山北柵)에 이르렀으나 큰 별이 떨어져 중단	
399년 광개토왕 8년 아신왕 8년	(백) 8월, 고구려 공격 위해 무리한 징발로 민호 신라로 도망	
409년 광개토왕 18년 전지왕 5년		(「고구려본기」) 7월, 나라 동쪽에 독산(禿山) 등 6성을 축조해 평양의 민호를 옮김. 8월, 남으로 순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취하던 백제를 맞아 남진의 거점인 평양에 9사(九寺)를 창건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백제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 지대에 7성을 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왕의 치세 초기에는 백제와의 혈전에 대비하여 힘을 비축한 것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의 검토로 『삼국사기』의 광개토왕 원년조 기사는 후대에 전해진 사료를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원년조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되는 백제본기의 기록을 분석해 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진사왕 8년조의 "秋七月, 高句麗王談德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城, 王聞, 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기사는 석현성 등 10여 성과 한강 북안의 여러 부락 및 관미성이 함몰된 전황을 기록하는 등 보다 상세한데,[38] 이는 고구려가 단순히 백제 일부 지역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전면전의 양상을 띠고 있어 오히려 능비문 영락 6년조의 "왕이 친히 수군을 이끌고 백제의 각미성(관미성)·아단성(아차산성)·미추성(인천문학산성)·대산한성(북한산성)·고모루성(고구려의 수사가 파견된 남진의 거점 성) 등 58성과 700촌을 공취하고 아리수(한강)를 건너 백제의 항복을 받아내었다"는 기사와 대응된다.

『삼국사기』에는 이듬해인 아신왕 2년 8월에 장군 진무가 병사 1만으로 고구려의 남쪽을 치고 관미성 탈환 작전을 벌이다 실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광개토왕 원년조에 대응되는 기사로 원년조와 마찬가지로 꼭 이 해(393)에 일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38) 최근 여호규는 석현성을 경기도 파주, 관미성은 오두산성, 쌍현성은 마식령산맥과 임진강 사이로 비정하는 등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교전지역을 임진강유역으로 보았다. 여호규(2012),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더욱 이상한 것은 아신왕 3년(394) 7월의 "고구려와 수곡성 밑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는 기사인데 황해도 신계에 비정되는 수곡성은 예성강 북쪽으로 평양에 가까운 지역이다. 『삼국사기』의 기년대로라면 이미 한수 북안을 점령한 고구려가 "8월에 나라 남쪽에 7성을 쌓아 백제의 공격에 대비하였다"라고 하여 황해도에 침입한 백제를 막기 위해 축성한다는 것은 선후가 전도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39] 이러한 차이는 『삼국사기』 본기 기사는 백제 측 자료를 원전(原典)으로 하는 편찬 기록이고, 광개토왕비문의 기사는 고구려의 인식을 담고 있는 당대의 기사라는 차별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40] 출전과 성격이 다른 사료를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재편집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문의 영락 6년 기사도 광개토태왕 원년에서 6년까지의 전과를 종합 기술하였다든지,[41] 일정기간 백제와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성과를 광개토왕의 업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광개토왕 친정(親征)시의 성과로 기술한 것이[42] 아니라 오히려 오랜 인고 끝에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틈타 구원(舊怨)의 숙적인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39) 여호규도 『삼국사기』 기록의 착종을 지적하고 있다[여호규(2012), 위의 글]. 광개토태왕의 백제 정벌과 정복지역 및 성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론하고자 한다(미간 졸고, 「광개토태왕의 백제공략과 한·예」)

40) 임기환(2005), 「廣開土王碑에 보이는 百濟관련 기사의 檢討」, 『漢城百濟文獻史料研究』

41) 浜田耕策(1974), 앞의 글 ; 武田幸男(1978), 「廣開土王碑文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 上 ; 李基東(198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백제관계 기사의 검토」, 『백제연구』 17 ; 李基東(1996), 『백제사연구』, 일조각, 250~253쪽 ; 김경남(2004), 「백제 한성시대 후기의 북방경역」, 『백산학보』 69

42) 임기환(2005), 앞의 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마군양'을 획득한 패려 정벌이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투 양상을 역전시킨 계기가 된 것은 아닐까?

IV. 요동 순수의 역사적 의미

1. 요동 순수

패려를 정벌하고 개선하는 길에 요동 일부 지역을 순수한 영락 5년 후반부 기사와 이에 대응하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 □城·力城·北豊, 五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어가를 돌리시어 양평도를 지나 동쪽으로 □성·역성·북풍으로 와서, 다섯 차례에 걸쳐 사냥을 준비시키고 국경을 시찰한 뒤 사냥을 하고 돌아오시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영락 5년 후반부의 기사가 단순한 귀로가 아니라 요동 순수에 대한 사실이 기록 되어 있는 까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동 순수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요동지배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하나는 영락 5년(395) 이전에 요동지역을 장악하였다고 보는 견해이고, 또 다른 견해는 400~402년 무렵에 요동지역을 확보하였다는 견해이다.[43]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고구려가 395년 이전에 이미 요동을 확보하였

43) 395년 이전에 요동을 장악했다고 보는 견해는 武田幸男(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田中俊明(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

다면 능비문의 기사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비문의 기사는 허구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당시 요동은 후연의 관할 아래 있었으므로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400년 이후 대 후연 전쟁의 결과를 외교전략상 직접 기술하지 못하고 영락 5년에 이미 고구려 영역이었던 것처럼 둔갑 기술하였다든지,[44] 반대로 순수기사가 아니라 후성, 역성 북풍 등 요동군과 현도군의 속현을 공략한 전쟁기사로 보기도 하여[45] 비문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요동진출 시기와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비문에 보이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는 이 기사의 일부 문자가 판독이 어렵고 일부 성(城)의 당시 위치가 불투명한 까닭에 분명한 견해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양평도, (후?)성, 오비렵(해)' 등은 문자가 불명확하고 역성·북풍 등은 당시의 위치가 모호하다. 역성 앞의 모호한 □성의 문자를 후(候)자로 보아 현도군의 중부도위인 후성으로 추정하고 그 위치를 심양 부근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46]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문의 문자는 후자로 읽을 수 없다. 따라서 귀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 『廣開土王碑文』－北方境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時代」, 『高句麗研究』 2 ; 孔錫龜(2012), 「廣開土王의 遼西지방 진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 井上直樹(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契丹戰」, 『한국고대사연구』 67 ; 임기환(2012),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등이며, 400년 이후로 보는 견해는 여호규(2001), 「백제의 요서진출설 재검토」, 『진단학보』 91 ; 여호규(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對中認識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 여호규(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册封關係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제(2012), 「4세기 말 高句麗와 後燕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68 등이다.

44) 여호규(2005), 앞의 글

45) 이성제(2012), 「광개토왕의 요동공략과 영락 5년 기년의 의미」 및 「4세기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46) 田中俊明(1996),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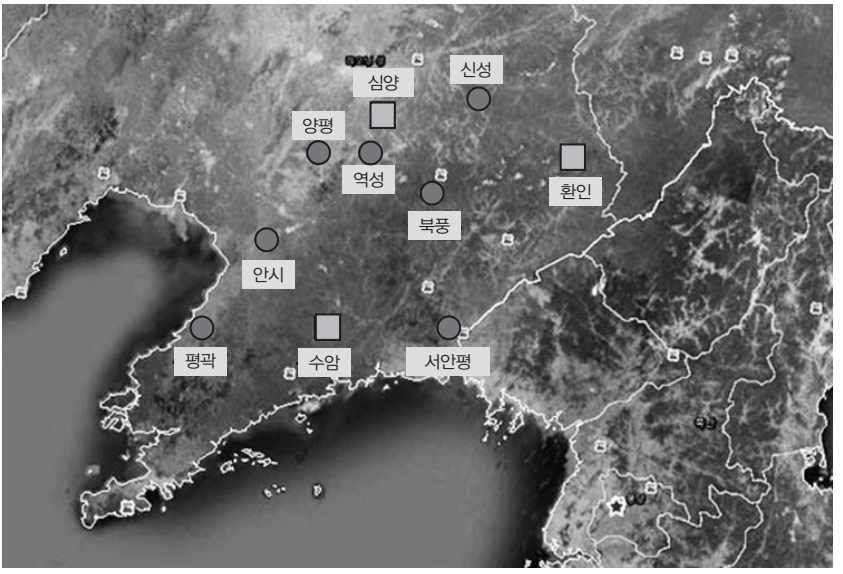


그림 8_ 요동지역의 현성 분포도(●는 고지명, □는 현 지명)

로의 첫 번째 성의 위치는 심양보다는 양평(오늘의 요양)에 가까운 지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성(力城)은 비문의 표현에 따르면 양평도를 지난 동쪽 지점이고, 『진서(晉書)』 지리지에 의하면 요동군의 속현으로 안시·서안평 등과 같이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요동의 중심지인 양평의 동남쪽 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보인다.[47] 북풍(北豊)은 요동군, 현도군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일찍부터 문현(汶縣)과 이웃한 요동 서부지역으로 비정되기도 하였으나,[48]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

47) 孫進己·馬永謙 편, 『東北歷史地理』 2권, 흑룡강인민출판사, 141쪽에서는 本溪 경내의 上牛村 老官砬子의 官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48) 武田幸男은 삼국지의 문현과 북풍현 유민이 산동의 제군으로 이주한 사실을 근거로 문현과 함께 요동반도 서안으로 비정하였으나[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212~213쪽],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紀要)』에 의하면 심양의 서북이라 하였으며, 최근에는 내륙 지역이나[49] 후연의 평주자사 치소가 있는 평곽에서 고구려의 남도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있었으리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50] 비문의 '전렵이환(田獵而還)'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북풍이 해안가보다는 본계(本溪) 등 내륙 산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비문의 서술에 따르면 원정로와 귀로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고구려군의 출발점은 고구려의 북도 노선에 있는 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순에서 시라무렌하로 가는 길은 무순－철령－통요－시라무렌하의 노선과 무순－심양－신민－부신－의무려산 북계－노로어호산－노합하－시라무렌하의 두 가지 길이 있다. 비문의 "부산·부산을 지나 염수구에 이르렀다"는 표현에 유의하면 두 번째 길이 원정로일 가능성이[51] 보다 높다.

한편 귀로의 경우 양평도를 지났다고 표현한 것은 양평을 통과하였다기보다는 고구려의 국도에서 양평으로 가는 길, 즉 국내성－홀본－양평으로 가는 남쪽 길을 통해 국도로 개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평을 망평(望平)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9) 임기환은 장수왕 26년(438) 고구려가 영입해온 北燕王 풍홍을 평곽에 두었다가 북풍으로 옮긴 이유가 북위의 강제송환이나 풍홍의 탈출을 염려한 때문이므로 북풍은 요동 內地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기환(1998), 「고구려전기 산성연구」, 『국사관논총』 82

50) 이성제(2012), 「4세기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참조. 『東北歷史地理』에는 公孫氏의 풍현으로 요동군의 東境이라고 하였으며, 本溪縣 경내의 下堡村 동쪽 산의 小城子로 보고 있다. 임기환은 최근 요남의 수암으로 추정하였는데[임기환(2012),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영역」], 이 경우는 양평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51) 박경철은 '양평도－신민－부신－북표－내몽골－시라무렌하'로 파악하였는데[박경철(2005), 앞의 글], 대체로 필자와 같은 의견이지만 양평도를 출발점으로 잡은 것은 비문과 어긋난다. 고구려의 북방교통로에 대해서는 전론을 준비하고 있다(미간 졸고, 「고구려의 북방교통로 연구－광개토태왕의 정복로를 중심으로」)

보고 망평 – 후성 – 역성 – 북풍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으나,[52] 비문을 망(望)자로 읽기가 어렵고 망평을 철령으로 비정한다면 원정로와 겹치게 되며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망평도'는 성립하기 어렵다.[53]

이와 같이 원정로나 귀로가 모두 모호하지만 유의되어야 할 점은 출발점이나 귀로가 모두 현도군이 있었던 무순이나 심양 및 요동군의 중심인 요양 부근을 지나고 있으며, 후연의 경우 현도를 관리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성에서 가까운 현도군 관할 지역은 395년 이전에 이미 고구려의 통제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귀로의 경우 당시 후연이 요동반도를 가로지르는 천산산맥 이서의 해안에 가까운 평곽을 거점으로 둔 것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요동군의 동부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즉 광개토태왕은 원정지인 시라무렌하에서 남하하여 요동군의 중심지인 양평(요양) 동쪽에 위치한 □성과 역성(본계)·북풍 일대에서 사냥을 하고 국경지대의 민심을 수습한 뒤 홀본(忽本, 오늘의 환인)을 거쳐 수도인 국내성으로 귀환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광개토태왕이 순수하였던 요동 동부지역은 언제부터 고구려의 소유가 되었던 것일까. 고구려가 요동에 처음 진출한 것은 고국양왕 2년으로 요동성과 현도성을 점령하였으나, 곧 반격을 받아 요동성은 후연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54] 이후 후연은 평곽(平郭)에 평주자사, 양평에 요동태수를 두어 요동을 관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후연은 왜 요동을 관할하는 평주자사의 치소를 요동의 중심지인 양평이 아니라 평곽에 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52) 田中俊明(1996), 앞의 글

53) 임기환(2012), 앞의 글

5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故國壤王, "二年(385) 夏六月, 王出兵四萬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鎭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一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初, 幽冀流民多來投, 農以范陽龐淵爲遼東太守, 招撫之."

한 현도군의 관리나 현도태수 임명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요동성과 현도성을 탈환한 모용농(慕容農)의 귀환 이후 고구려가 다시 현도군 일대를 회복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55] 이후 후연이 평곽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양평이 평지성인 까닭에 방어에 불리한 점도 있을 테지만 고구려의 요동진출에 따른 공방이후 불안정한 국경지대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후연은 수도 용성(龍城)으로의 후퇴가 용이한 천산(千山) 이서의 해안에서 가까운 평곽[오늘의 개주(蓋州)]을 거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평주자사의 치소는 『자치통감』의 "고구려가 숙군성을 공격하자 연의 평주자사 모용귀(慕容歸)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56]는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부터인가 요서의 숙군성으로 옮겨져 있었다. 이는 평곽을 거점으로 한 후연의 요동지배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곽은 요서로의 퇴로는 용이하지만 천산산맥 이서에 편재된 지역으로 요동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불리한 지역이다. 후연이 이러한 지역을 택했다는 것은 그 자체 요동 동부지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즉, 고구려와 후연은 고국양왕의 요동진출 이후 양평의 요동성을 두고 일진일퇴하였으나 현도군이 있었던 요동 동북부와 요동반도를 가로지르는 천산산맥을 경계로 그 이동은 고구려의 통제하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57] 따라서 능비문의 영락 5년의 순수 기사에 나오는 토경(土境)은 물론 『삼국사기』의 국경지대의 함몰민구(陷沒民口) 1만여 호는 단순히 거란의 침구에 의해 피

55) 井上直樹(2012), 앞의 글 ; 임기환(2012), 앞의 글

56) 『자치통감』 宋紀 元興 원년

57) 이성제도 광개토왕이 양평과 평곽을 모두 경유하지 않는 경로를 택한 사실은 곧 후연이 평곽과 양평을 차지하고 있고, 고구려가 후성과 북풍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는 형세 즉 요동을 양국이 分占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성제(2012), 「4세기말 고구려와 후연의 관계」

해를 본 주민이란 의미 이외에도 후연과의 국경지대에 거주하던 민호의 일단을 의미한다.

『양서』와 『북사』의 "모용보가 구려왕 안(安)을 평주목으로 삼고 요동·대방(帶方) 2국왕(二國王)에 봉했다. (안은) 처음으로 장사·사마·참군을 설치하고 후에 요동군을 경략하였다"[58]는 기록에 나오는 책봉관계의 허실을 두고 논쟁이 있으나,[59] 북위와의 참합파(參合陂)의 싸움에서의 패전(395)과 모용수의 사후(396) 국력이 약해진 후연이 고구려의 요동 일부 지역의 지배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60] 요동 전체가 후연의 지배하에 있었더라면 형식적인 책봉이라 하여도 요동국왕을 제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후약유요동군(後略有遼東郡)'이라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요하 이동을 요동군의 관할 범위로 생각하기 쉽지만 행정적으로 요서군과 요동군은 의무려산을 경계로 하였다.[61] 따라서 이는 후일 요동성은 물론 평곽, 요서의 숙군성(402), 나아가 연군(404) 등을 공략한 고구려의 팽창을 시사해 주는 기록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8) 『梁書』 고려전, "垂死, 子寶立, 以句麗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始置長史·可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책봉시기에 대해서는 396년설과 397년설이 있으나 대체로 396년으로 보고 있다.

59) 최근 고구려와 후연의 외교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호규(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册封關係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 왕조의 조공 · 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이성제(2012), 「4세기 말 高句麗와 後燕의 관계」 ; 임기환(2012), 「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60) 武田幸男은 광개토왕이 후연의 외신이 되어 책봉체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고구려가 요하 이동 일대에 군림하게 된 것을 인정받았다고 하였는데[武田幸男(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이에 대한 논의는 임기환(2003), 「남북조시기 한중 책봉조공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참조

61) 김한규(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 서영수(2008),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5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고구려가 요동 동북부 일대에 진출한 시기를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후연의 유주(幽州)·평주(平州)를 관할한 모용농과 모용융(慕容隆)의 동향을 분석하여 389~395년 사이일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62] 또한 광개토태왕이 요서의 숙군성을[63] 공파한 402년 이전에 요동 전 지역은 고구려의 관할 하에 들어왔을 터인데, 그 시점과 관련하여 『삼국사기』 광개토왕 9년조의 "二月, 燕王盛以我王禮慢, 自將兵三萬襲之, 以驃騎大將軍慕容熙爲前鋒, 拔新城·南蘇二城, 拓地七百餘里, 徙五千餘戶而還"의 기사에 나오는 700여 리에 착안하여 후연군의 출발점이 양평이 아니라 요하 서쪽의 후연 경내라고 보아 당시에(400) 이미 양평을 비롯한 요동 전 지역이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64]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여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지배과정을 정리하면 고구려는 고국양왕대인 385년에 처음으로 요동·현도성을 공략하여 요동에 진출한 이후 후연과 양평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면서 386~391년 사이에 요동 동부지역을 장악하였고, 광개토태왕대에 들어와 395년에 요동 동부 일원을 순수함으로써 후연을 압박하여 396년 후연으로부터 요동 일부의 지배권을 인정받고 396~402년 사이에 요동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402년부터 후연의 도성에 가까운 숙군성 등을 공략하며 요서로 진출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영락 5년조 후반부의 순수기사는 새로운 지역의 정복을 위한 전쟁기사도 아니며, 더욱이 400년 이후 대 후연 전쟁의 결과를 외교전략상 직접 기술하지 못하고 영락 5년에 이미 고구려 영역이었던 것처럼 둔갑 기술하였

62) 井上直樹(2012), 앞의 글
63) 숙군성의 위치와 고구려의 요서진출에 대해서는 공석구(2012), 앞의 글 참조
64) 임기환(2012), 앞의 글

다는 견해는 성립할 수 없다. 이때의 순수 지역은 3개 현성으로 요동의 일부에 국한된 것이다. 만일 고구려 사관이 이러한 의도가 있었더라면 요동의 중심지인 양평이나, 후연의 요동경략의 거점인 평곽 등을 순수하였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영락 5년의 요동 순수 기사는 당시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며, 패려 원정로로 귀환하지 않고 남하하여 양평도로 우회하여 개선한 것은 국경지대의 민심수습과 395년 이후 북위와의 전쟁에 여력이 없었던 후연을 압박·견제하려는 전략적 행위였다. 태왕의 요동순수는 후연을 축출하여 요동전체의 지배권을 확립함은 물론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된다.

2. 패려 정벌과 요동 순수의 역사적 의미

광개토태왕은 내치를 바탕으로 즉위 5년째 되는(22세) 해에 초원지역의 유목민족인 패려, 곧 거란원정을 감행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첫 번째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림왕대부터 국경지대를 침구하던 유목민족 거란의 본거지를 직접 공격하여 우환을 더는 동시에, "본국의 함몰민구를 초무하였다"는 표현대로 새로이 개척한 국경지대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능비문에서 그 전과를 "우마군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대서특필한데서 알 수 있듯이 그 정벌의 목적이 양마(良馬)를 비롯한 전략물자의 획득에 있었음을 말해 준다. 후연의 경우도 고구려에 이어 여러 차례 거란을 공격하였는데, 이는 고구려가 거란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목적도 있

었지만 후연 모용농의 "그 우마를 취해서 군자로 충당해야한다"라는 발언에서[65] 보듯이 전략물자의 획득이 필요하였던 때문이었다.

후연보다 먼저 패려 정벌을 통하여 군마를 다량으로 획득한 고구려가 그 이듬해 숙적인 백제를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한강유역의 58성 700촌에 달하는 생산지대를 획득한 것은 초원 원정의 효과로 대 백제전의 승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세 번째는 후연과 북위의 전쟁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후연과의 국경을 이루었던 양평도로 우회하여 요동일원을 순수함으로써 후연을 압박하였다. 이듬해 후연은 어쩔 수 없이 고구려의 요동일부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책봉의 형식을 통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이후 후연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광개토태왕이 후연보다 앞서 거란을 정벌한 것은[66] 국경을 침구하던 유목민족을 물리친 단순한 1회적 승리가 아니라 광개토태왕대 고구려의 대외 팽창의 전기가 되는 대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사관이 훈적비의 서두를 패려 정벌 기사로 장식하였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5) 『자치통감』 晉紀 隆安 2년(398) 1월조, "遼西王農言於寶曰, 今遷都尙新, 未可南征, 宜因成師襲庫莫奚, 取其牛馬以充軍資, 更審虛實, 依明年而議之. 寶從之."

66) 전략 물자의 획득뿐 아니라 대 모용선비와의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박경철(2005), 앞의 글, 133쪽

V. 맺음말

광개토태왕의 무훈을 전하는 능비문의 정복기사 첫머리는 패려 정벌 기사로 장식되어 있는 데, 왜 고구려 전성기를 상징하는 화두인 광개토경의 출발점이 당대 고구려의 호적수인 백제나 후연(後燕)이 아니라 정체가 모호한 패려로 기술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기사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탁본을 비교해서 모호하였던 문자를 '稗, 住, 負, 丘, 襄, □, 獵' 으로 새로이 읽거나 판정하여 기사를 다음과 같이 석독하였다.

> 永樂五年, 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住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丘,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力城·北豊, 五備獵, 遊觀土境, 田獵而還.

영락 5년 기사는 단일 기사가 아니라 패려 정벌과 요동순수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후반부의 요동 순수 기사가 요동을 두고 대립하였던 후연과의 항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소재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관련 문헌사료를 망라하여 광개토태왕대 고구려의 국제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한 까닭에 연구는 심화되었으나 반면 능비문의 사료적 가치는 오히려 퇴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패려의 정체와 위치를 재검토하여 패려는 시라무렌하 유역에서 유목하던 거란의 일부임을 재확인하고 그 원정로와 주지인 염수구의 위치를 추적하여 소금강이 흐르는 지역은 시라무렌하에서 요(遼)제국의 수도인 상경 임황부 사이의 구릉지대임을 밝혔다. 그리고 능비문의 원정기록을 『삼국사기』 광개토왕 원년조 기사와 비교하여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작전임을 논증하였다.

후반부의 요동순수 기사의 사실성 여부와 관련하여 고구려의 요동 지배 시점에 대해서는 395년을 경계로 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400년 이후 대 후연 전쟁의 결과를 외교전략상 직접 기술하지 못하고 영락 5년에 이미 고구려 영역이었던 것처럼 둔갑 기술하였다는 견해까지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후연과의 전쟁과정을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고국양왕이 요동에 진출한 385년 이후 요동의 중심지인 양평(襄平)은 오히려 고구려와 후연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국경지대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후연은 요동에 대한 전면적인 관할을 포기하고 방어와 후퇴가 용이한 천산산맥 이서의 해안가에 가까운 평곽(平郭)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현도군이 관할하였던 요동 동북부와 천산산맥 이동의 요동 동남부는 고구려가 지배하였음을 지적하고 비문의 기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음을 밝혔다.

패려 정벌은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광개토태왕 즉위 후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후연이 서연(西燕), 북위(北魏) 등과의 싸움으로 서방 진출에 몰두하던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감지한 고구려가 양마(良馬) 등 군수 물자의 획득을 위해 감행한 영락 5년의 원정이었다. 원정 후 굳이 양평도로 남하 우회하여 귀환한 것은 후연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었다. 후연도 국세의 위축과 고구려의 팽창을 무마하기 위해 태왕을 '요동·대방 2국왕'에 봉하는 책봉을 통한 우호외교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후약유요동군(後略有遼東郡)'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구려가 요동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하고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패려 정벌을 통하여 군마를 다량으로 획득한 고구려가 그 이듬해 숙적인 백제를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한강유역의 58성 700촌에 달하는 생산지대를 획득한 것은 초원 원정의 효과로 대 백제전의 승리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

다. 즉 영락 5년의 패려 정벌은 유목민족을 물리친 단순한 1회적 승리가 아니라 광개토태왕대 고구려 대외 팽창의 전기가 되는 대사건이었다. 후반부의 요동 동남부 지역의 순수 기사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는 기록으로 이후 후연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구려사관이 훈적비의 서두를 패려 정벌 기사로 장식하였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당대의 금석문사료와 후대 문헌사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석문사료를 우선시하는 것이 상식이나, 최근의 능비 연구는 거꾸로 가는 느낌도 든다. 초심으로 돌아가 광개토태왕능비문을 재음미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志』, 『晉書』, 『梁書』, 『北史』, 『遼史』, 『資治通鑑』

탁본 자료집

武田幸男(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 東京大學出版會

方起東(1999), 『중국명저비첩선집 27 好太王碑』, 길림문사출판사

林基中(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東國大學校出版部

任世權 · 李宇泰(2002), 『한국금석문집성(1) – 고구려(1) 광개토왕비(圖錄篇)』, 한국국학진흥원

단행본

공석구(1998),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김한규(2004),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武田幸男(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박시형(1966),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손진기 · 마영겸 편(1989), 『東北歷史地理』 1~2, 흑룡강인민출판사

王健群(1984), 『好太王碑研究』, 吉林人民出版社

王健群 저 · 임동석 역(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李基東(1996), 『백제사연구』, 일조각

이도학(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

이병도(1977),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논문

강재광(2009), 「고구려 광개토왕의 요동확보에 관한 신고찰 – 광개토왕비 정미년조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한구고대사탐구』 2

공석구(1990), 「廣開土王陵碑의 동부여에 대한 고찰」, 『한국사연구』 70

공석구(2012), 「광개토왕의 요서진출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6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경남(2004),「백제 한성시대 후기의 북방경역」,『백산학보』69
김윤우(1989),「광개토왕의 남하정복지에 대한 일고－관미성의 위치를 중심으로」,『차문섭교수 화갑기념 사학논총』
那珂通世(1915),「高句麗古碑考」,『史學會雜誌』47
武田幸男(1978),「廣開土王碑文辛卯年條の再吟味」,『古代史論叢』上
武田幸男(1979),「廣開土王碑からみた高句麗の領域支配」,『東洋文化研究所紀要』78
문상종(2001),「광개토왕릉비 영락 17년조 기사에 대한 재검토」,『호서고고학』4·5
박경철(2005),「고구려의 동몽고 경영」,『백산학보』71
浜田耕策(1974),「高句麗廣開土王陵碑文の研究」,『조선사연구회논문집』
서영수(1982),「廣開土大王陵碑文의 정복기사 재검토」上,『역사학보』96
서영수(1988),「광개토대왕능비문의 정복기사 재검토」中,『역사학보』119
서영수(2008),「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35『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申采浩(1972),「廣開土王의 北進政策과 鮮卑征服」,『朝鮮上古史』단재신채호전집(상), 을유문화사
여호규(2001),「백제의 요서진출설 재검토」,『진단학보』91
여호규(2005),「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對中認識과 대외정책」,『역사와 현실』55
여호규(2006),「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册封關係연구」,『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여호규(2011),「광개토왕릉비의 서사구조와 훈적기사의 서술체계」,『특별전 문자, 〈그 이후〉기념 심포지엄 광개토대왕비와 탁본』, 국립중앙박물관
여호규(2012),「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역사와 현실』84
여호규(2012),「4세기~5세기초 고구려와 모용연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한국고대사연구』67
윤일녕(1990),「관미성위치고－광개토대왕비문, 三國史記, 대동지지를 바탕으로」,『북악사론』2
李基東(1986),「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백제관계 기사의 검토」,『백제연구』17

이도학(2006),「고구려와 부여 관계에 대한 재검토」,『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
이병도(1976),「광개토왕의 웅략」,『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이성제(2012),「4세기 말 高句麗와 後燕의 관계」,『한국고대사연구』68
이재성(1993),「거란 고팔부 연맹의 형성과 해체」,『동국사학』27
이재성(2002),「4~5세기 고구려와 거란」,『고구려연구』14
임기환(1998),「고구려전기 산성연구」,『국사관논총』82
임기환(2003),「남북조기 한중 책봉조공관계의 성격」,『한국고대사연구』32
임기환(2005),「廣開土王碑에 보이는 百濟관련 기사의 檢討」,『漢城百濟文獻史料研究』
임기환(2012),「고구려의 요동진출과 영역」,『高句麗渤海研究』45
田中俊明(1996),「高句麗의 北方進出과『廣開土王碑文』－北方境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時代」,『高句麗研究』2
정명광(2012),「고구려 광개토왕대의 후연정벌」,『백산학보』92
井上直樹(2012),「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契丹戰」,『한국고대사연구』67
千寬宇(1979),「廣開土王陵碑再論」,『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일조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4부

광개토왕비의 건립 배경과 수묘제

1. 김현숙_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
2. 김택민_중국 고대 수릉 제도와 율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현숙(金賢淑)
한국고대사(고구려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표논저로는 『다시 보는 고구려사』(공저, 2004,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 영역지배방식 연구』(2005,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한국고대사연구의 새동향』(공저, 2007, 서경문화사),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1989, 『韓國史硏究』 65) 등이 있다.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

동북아역사재단 **김현숙**

I. 머리말

고구려의 제19대 왕인 광개토왕(391~412)은 18세에 즉위하여 재위 22년 만인 412년에 39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광개토왕의 이름은 안(安)이고,[1] 휘(諱)는 담덕(談德)이다.[2] 광개토왕비에는 왕의 정식 시호(諡號)를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라고 새겨놓았다. '나라의 언덕 위에 묻히셨으며 영토를 넓게 개척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신 좋고 크신 왕'이란 뜻이다. 또한 연호로 영락(永樂)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락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 학계에서는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시호의 끝 부분을 따서 호태왕(好太王)을 공식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개토왕은 고려시기에 편찬된 『삼국사기(三國

1) 『晉書』 卷124 載記 第24 慕容盛, "高句驪 王安遣使貢方物. 有雀素身綠首, 集於端門, 棲翔東園, 二旬而去, 改東園爲白雀園" ; 『梁書』 卷54 列傳 第48 諸夷 東夷傳 高句驪, "垂死, 子寶立, 以高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 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 司馬, 參軍官, 後略有遼東郡."

2)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卽位年

史記)』에 나오는 왕호다.[3] 한국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광개토왕이라 부르고 있다. 비석에 나오는 '태왕'에 비중을 두어 광개토왕을 광개토호태왕, 비석을 광개토호태왕비, 또는 광개토태왕비라고 부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4] 광개토왕비로 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광개토왕비란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광개토왕의 사후 2년 뒤인 414년 9월 29일에 그 아들인 장수왕(長壽王)이 세운 석비의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학계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다. 능비설, 훈적비설, 수묘연호령비설 등이 그것이다. 이 설들은 이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새롭게 거론되는 등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글이 많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비석을 '광개토왕릉비'라고 관례적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과연 이 비석을 '광개토왕릉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비의 건립목적 및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비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새로운 방향에서 짚어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비 건립 당시 고구려의 상황과 비 건립자인 장수왕의 의도 등이 자연스럽게 밝혀지리라고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4) 박성봉(1996), 「'廣開土好太王' 王號와 世界觀」, 『고구려연구 2 -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특집』, 第Ⅲ部 廣開土好太王 時期의 高句麗 社會, 고구려연구회, 617~635쪽

II. 광개토왕비의 위치와 비문의 내용

광개토왕비는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의 역에서 동북으로 4km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다. 비는 고구려의 왕릉급 무덤들이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우산(禹山)을 뒤로 하고 압록강을 앞에 둔 위치에서 동쪽으로 45° 정도 치우친 동남향으로 서 있다. 비석 주위에는 크고 작은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비의 서남쪽 360m가량 되는 지점에 있는 태왕릉(太王陵)과 동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장군총(將軍塚)을 들 수 있다.[5] 장군총과 광개토왕비, 태왕릉은 서남방향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그림 1 참조).

지안시의 고구려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에서는 고구려 고분 발굴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그에 따라 해당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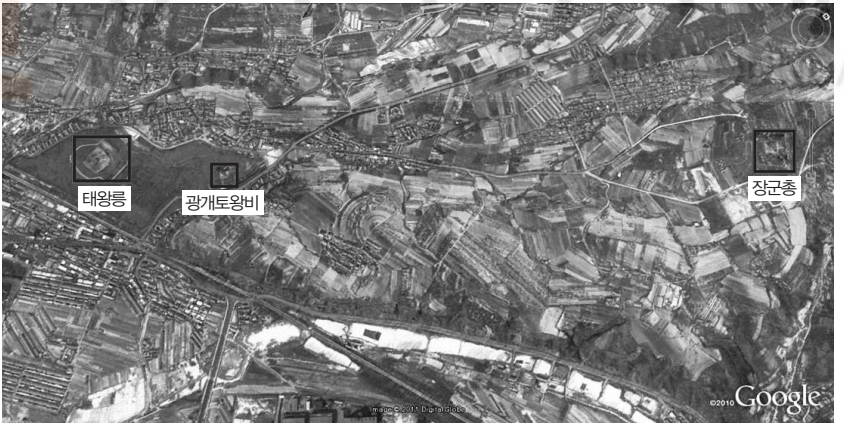


그림 1_ 태왕릉, 광개토왕비, 장군총의 위치

5) Google earth의 눈금자를 이용하여 광개토왕비와 장군총의 거리를 재보면 1,752.45m이고, 광개토왕비에서 태왕릉까지는 411.87m이다.

고서와 관련 연구논문 등 비중 있는 결과물들이 출판되었다.[6] 그리고 이후 보장왕을 제외한 고구려 역대 왕의 무덤 모두가 중국 지린성 지안시에 있다고 하며 지안 소재 대형무덤을 고구려 역대 왕릉으로 각각 비정한 논문[7]과 책[8]이 나와 학계 내외로부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글들에서도 그러했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원태왕릉안여산고여악(願太王陵安如山固如嶽)'이라는 글자가 양각된 벽돌이 나온 태왕릉을 광개토왕릉, 장군총을 장수왕릉에 비정하는 것이 거의 통설화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여전히 학설이 나뉘어 있다.[9] 간단히 정리하면 조법종,[10]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11] 미카미 츠기오[三上次男],[12] 모모자키 유스케[桃崎祐輔][13] 등은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이라 보고 있고,

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2),『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魏存成(2007),「集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研究」,『社會科學戰線』2007－4

7) 張福有·孫仁傑·遲勇(2007),「高句麗王陵通考要報」,『東北史地』2007년 4기(7·8월호)

8) 張福有·孫仁傑·遲勇(2007),『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孫仁傑·遲勇(2007),『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張福有(2007),『高句麗王陵統鑒』, 香港亞洲出版社

9) 지안 지역 소재 왕릉 비정에 대한 연구사는 정호섭(2011),『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참조

10) 조법종(2005),「廣開土王陵 守墓人 構成과 陵園體系」,『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4; 조법종(2012),「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地圖와 陵碑文을 중심으로」,『廣開土王碑의 再照明』, 廣開土王 1600주기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동북아역사재단 : 본서 수록

11) 池內宏(1938),「廣開土王碑發見の由來と碑石の現狀」,『史學雜誌』第49編 第1號, 東京帝國大學史學會;『通溝』上卷, 日滿文化協會

12) 三上次男(1966),「古代朝鮮の歷史的推移と墳墓の變遷」,『日本考古學 IV』, 河出書房

13) 桃崎祐輔(2005),「高句麗太王陵出土瓦, 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說の評價」,『海と考古學』, 六一書房 : 桃崎祐輔(2009),「고구려왕릉출토 기와, 부장품으로 본 편년과 연대」,『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도학,[14] 백승옥,[15] 이희준,[16] 임기환,[17] 여호규,[18] 정호섭,[19] 세키노 다다시[關野貞],[20]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21] 타무라 고이치[田村晃一],[22] 아즈마 우시오[東潮][23] 등은 장군총이 광개토왕릉이라고 보고 있다.[24] 한일 양국 학계에서는 비석과 장군총·태왕릉의 위치와 방향, 신도(神道)의 존재 여부, 무덤의 규모, 와당의 연대비교, 태왕릉 출토 청동방울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방향에서 논리적 검증을 통해 논지를 펼쳤다. 하지만 태왕릉과 장군총 가운데 어느 쪽을 광개토왕릉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광개토왕

14) 이도학(2005), 「환인(桓仁), 집안지역 고구려유적 발굴성과의 검토 ; 태왕릉과 장군총의 피장자(被葬者) 문제 재론」, 『고구려연구』 ; 이도학(2008), 「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에 관한 신고찰」, 『고구려 발해 연구』 30 ; 이도학(2009), 「고구려 왕릉연구의 현단계와 문제점」, 『고구려발해연구』 34 ; 이도학(2011), 「고구려왕호와 장지에 관한 검증」, 『경주사학』 34

15) 백승옥(2005), 「'辛卯年銘 청동 방울'과 太王陵의 주인공」, 『역사와 경계』 56 ; 백승옥(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16) 이희준(2006), 「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 『한국고고학보』 59

17) 임기환(2009),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비정」, 『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8) 여호규(2006), 「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41

19) 정호섭(2008), 「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43 ; 정호섭(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20) 關野貞(191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の遺蹟」, 『考古學雜誌』 第5卷 第3號

21) 梅原末治(1973), 「高句麗廣開土王陵碑に關する旣往の調査と李進熙氏の同碑の新說について」, 『日本歷史』 302

22) 田村晃一(1984), 「高句麗の積石塚の年代と被葬者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 『靑山史學』 8 ; 「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2001), 同成社

23) 東潮(2006), 「高句麗 王陵과 巨大 적석총」, 『朝鮮學報』 199·200합집 ; 東潮(2009), 「고구려왕릉과 능원제」, 『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4) 선학들의 광개토왕릉 비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에 수록된 조법종 교수의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地圖와 陵碑文을 중심으로」 참조

비와의 거리 및 무덤과 비석의 방향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광개토왕비의 성격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비석과 광개토왕릉 비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어떤 무덤이 광개토왕릉인가 하는 것은 현재 지안시에 있는 왕릉급 고분들의 조성시기 차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장수왕 사후 지안으로의 귀장여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광개토왕릉 비정문제는 이 글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아니므로 별고(別稿)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광개토왕비 자체에 대해서만 검토해나가려고 한다.

1,775자에 이르는 광개토왕 비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왕계가 적힌 부분으로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추모왕, 유류왕, 대주류왕 3대의 왕위계승과 광개토왕의 행장(行狀)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제2부에는 광개토왕이 즉위 후 수행했던 정복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연대 순서대로 기록했다.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영락 5년(395)에 시라무렌 강 유역에 거주하던 거란족 일파를 정벌하고 포로와 노획물을 획득해왔고, 그 다음해에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에 있던 58성(城) 700촌(村)을 취했다. 또 영락 8년(398)에는 이전에 이미 고구려에 예속되어 조공을 바쳐오던 동만주의 숙신(肅愼) 지역에 소규모의 군대를 파견해 지배권을 재강화했다. 영락 10년(400)에는 신라의 원군 요청을 받아들여 보기(步騎) 5만의 군대를 파견해 신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던 왜 세력을 내쫓고 가야지역까지 추격전을 벌여 물리침으로써 백제-가야-왜 동맹군의 기세를 꺾어 놓았고, 영락 14년(404)에는 황해도 지역에 쳐들어온 왜를 쳤다. 그리고 영락 20년(410)에는 동부여의 성을 쳐 속민(屬民)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응징하고, 다시 조공관계를 재강화했다. 이처럼 제2부는 광개토왕의 훈적(勳績)을 원인, 경과, 결과의 순으로 연대기식으로

서술한 부분이다.

비문의 제3부에는 수묘인연호를 차출해 온 지역과 어느 성, 촌에서 몇 가의 연호를 차출해 왔는지 일일이 리스트를 적어두었다. 그리고 광개토왕의 교언에 따라 능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신래한예로 수묘인을 구성하려 했으나, 법칙을 모를까 염려되어 신래한예와 구민을 합쳐 330가로 구성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한 이전에는 묘에 석비를 안치하지 않아 수묘인연호에 차착이 있었는데 광개토왕이 명하기를 묘상입비하고 연호를 새겨 차착이 일어나지 않게 했고, 또 수묘인 전매시 판 자는 형을 주고 산 자는 수묘를 하게 한다는 영(令)을 만들게 했다는 내용을 새겨놓았다.[25]

즉 비를 건립한 414년을 기준으로 보면 비문 제1부는 대과거, 제2부는 과거, 제3부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글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보느냐에 따라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달리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5) 이성시는 비문의 내용을 시조왕의 건국으로부터 광개토왕에 이르는 고구려 왕가의 세계를 약술한 서론 부분과 광개토왕의 업적을 적은 본론의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었다. 이때 본론은 다시 첫째, 광개토왕 일대의 무훈을 8년 8조의 연대기적으로 열거한 부분과 둘째, 광개토왕릉의 수묘인 330가의 내역과 그들에 관한 금지령 및 벌칙을 기록한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을 다시 두 개로 분할해서 제3면 8행의 열여섯 번째 문자 '수묘인연호'로 시작되는 수묘인연호에 관한 목록 부분과 제4면 5행 다섯 번째 글자로 시작되는 광개토왕의 '교언' 이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를 구분했다. 즉 본론이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성시(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176~177쪽

III. 광개토왕비의 성격

앞에서 보았듯이 광개토왕비의 네 면에는 왕의 훈적과 고구려의 역대 왕들 및 광개토왕의 능을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 차출해온 수묘인들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광개토왕비는 어떤 성격의 비석이라고 보아야 할까?

필자는 광개토왕비가 능비나 훈적비적인 성격 외에 수묘연호령비적인 성격 또한 강하게 지닌 비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26] 이후 광개토왕비의 성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검토한 논문들이 나와 논의의 수준을 높여주었다.[27]

하지만 능비나 훈적비라고만 보는 시각은 여전히 다수설에 해당한다. 그래서 광개토왕비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비의 다른 부분에 대해 서술한 연구성과나 일반 대중서 중에는 '광개토왕릉비', '광개토호태왕릉비'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능비이자 훈적비라고 보는 설은 비문 앞부분에 나오는 다음 구절에 의거하고 있다.

---

26) 金賢淑(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韓國史硏究』 65, 14쪽

27) 李成市(1996), 「廣開土王碑の立碑目的と高句麗の守墓役制」, 『高句麗硏究』 2집(특집 : 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 681~696쪽 ;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2001), 「표상으로서의 광개토왕비문」, 『만들어진 고대 – 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주)도서출판 삼인 ; 이성시(2008),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한국고대사연구』 50 ; 백승옥(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가) 17세손에 이르러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대왕(永樂大王)이라 하였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무는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 39세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니, 갑인년 9월 29일 을유에 산릉(山陵)으로 모시었다. 이에 비(碑)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28] 그 말씀은 아래와 같다. 패려(稗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 5년 을미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중략) 무릇 공파(攻破)한 성(城)이 64개, 촌(村)이 1,400이었다. (이하 생략)[29]

광개토왕 서거 후 2년 뒤에 산릉으로 모시고 비를 세웠다고 하니, 당연히 왕의 무덤 앞에 세운 능비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비를 세워 그 공훈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한다"는 구절이 적혀 있고, 이 구절 뒤에 광개토왕의 정복전쟁과 그 결과 획득한 영역에 대해 연대순으로 서술했으므로 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개토왕릉이 어느 능이냐를 두고 논란이 진행되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으로 보고, 장군총을 장수왕릉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아직도 장군총=광개토왕릉설과

28) 이 글에서 인용하는 광개토왕비 釋文 및 해석문은 모두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고구려·백제·낙랑편),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에 의거했다. 이하 같음.

29) [遝]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 號爲永樂大王 恩澤[洽]於皇天 武威[振]被四海 掃除□□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 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其詞曰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中略) 凡所攻破城六十四 村一千四百 (下略)(廣開土王碑文)

태왕릉=광개토왕릉설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장군총이 광개토왕릉이라고 보는 경우[30] 장군총의 현실 정면으로부터 2km 정도 되는 신도(神道)가 있었고,[31] 그 신도 위에 신도비인 광개토왕비를 세웠다고 본다.[32] 그렇다면 태왕릉과 임강총에도 신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군총의 신도를 그렇게 길게 본다면 그 선대 왕릉에도 그 정도 길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길이의 신도가 설정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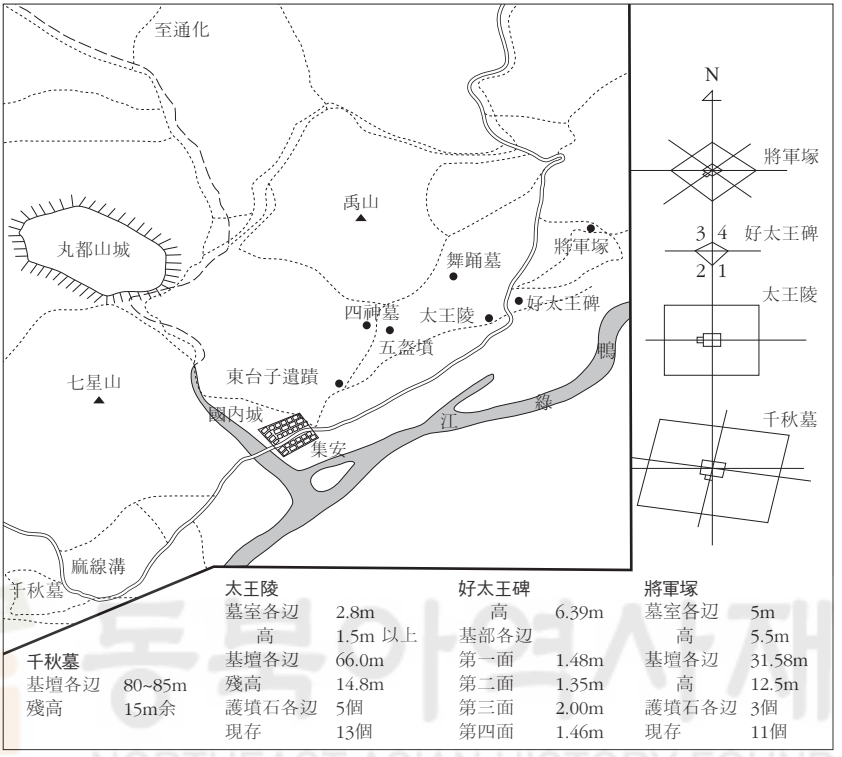
또 만약 장군총의 묘역이 광개토왕비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그 선대왕들이 묻힌 태왕릉과 임강총의 묘역도 고려해봐야 한다. 광개토왕비를 포함한 범위를 모두 장군총의 묘역이라고 본다면 장군총의 묘역이 태왕릉과 임강총의 묘역을 침범해 들어간 것이 된다. 묘역을 상정한다면 능비와 가장 가까운 위치

30) 關野貞(1914), 「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の遺蹟」, 『考古學雜誌』 第5卷 第3·4號 ; 이도학(2005), 「太王陵과 將軍塚의 被葬者 問題 再論」, 『고구려연구』 19 ; 백승옥(2006), 「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 『한국고대사연구』 41

31) 일반적으로 神道는 묘 앞에서 입구까지 낸 길, 즉 돌아가신 분의 幽宅이나 영혼이 머무르는 곳과 또 이와 관련하여 낸 길을 말한다. 신도는 유택이나 영혼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는 참도까지도 의미한다.

32) 신도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漢나라 楊震의 '故大尉楊公之神道碑'라고 한다. 한대부터 성행했지만 처음에는 석비를 세우거나 간단한 제액을 써서 표시하는 정도였다가, 晉宋 때인 5세기 초에 와서 묘비에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이후 천자 및 제후들 묘소에 모두 신도비를 세웠다. 金膺顯(1991), 「神道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3) 물론 조선시기 신도비의 경우 몇 예를 제외하고는 묘역 90步 이내에 세워진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한다. 즉 묘역으로부터 훨씬 먼 구역에 있으며, 심지어 묘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때 신도비는 대개 길가나 촌락 어귀 등에 위치했다. 즉 조선시기의 신도비는 묘역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고 귀한 분의 묘소가 근처에 있음을 알려주는 標識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趙連美(2000), 「朝鮮時代 神道碑 硏究」,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1쪽]. 이것은 시기가 많이 떨어진 후대의 예이므로 고구려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2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선대 왕릉이 이미 두 기나 조성되어 있는 곳에 신도비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도면 1_ 광개토왕비와 태왕릉, 장군총의 위치와 방향[方起東(1988), 「千秋塚 太王陵 將軍塚」, 『好太王碑と高句麗遺跡』, 讀賣新聞社, 226쪽에서 인용]

에 있는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오늘날 중국 현지에서 광개토왕비와 태왕릉을 같은 공간 안에 넣어 묘역 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능비 혹은 신도비설은 비와 현실(玄室)의 방향이 일치하는 무덤이 없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비의 제1면은 동남방향이고, 장군총의 현실은 서남향이며, 태왕릉의 현실은 서향이기 때문이다. 신도는 원래 묘실의 동남향 길이므로 신도비는 묘소의 동남향에 많이 세워졌다. 이에 따라 장군총의 현실에서 보면 비가 동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도비로서의 위치나 방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34] 하지만 비가 현실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과 비의 정면, 즉 1면이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한다. 비의 현실을 기준으로 하면 현실과 비석의 정면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해 있는데, 이렇게 묘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도면 1 참조).

다른 묘비나 묘지석과 내용면, 형식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능비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대개 묘비나 묘지석에는 주인공 가문의 시조(始祖)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 그 가문을 중흥시킨 위대한 중시조(中始祖)가 등장한 뒤 고조(古祖), 증조(曾祖), 조부(祖父), 부(父)에 대해 거론한 후 주인공의 생전 업적이나 성품, 역임한 관직 등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시기나 사람에 따라 뒤에 헌시를 붙인다거나 후손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글을 붙이는 등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대개는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하지만 광개토왕비는 시조의 건국신화 다음에 유리왕, 대무신왕을 거론한 후 바로 광개토왕의 죽음에 대해 서술했다. 그 다음에 업적을 연대순으로 적은 후, 수묘인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했다.[35] 그리고 비문의 끝에는 다음의 구절로 글 전체를 마무리했다.[36]

---

34) 백승옥(2006), 앞의 글, 58~60쪽

35)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灑掃 吾慮舊民轉當羸劣 若吾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吾躬巡所略來韓穢 令備灑掃 言教如此 是以如教令 取韓穢二百卄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煙卅看煙三百 都合三百卅家.

36) 흥미로운 것은 위 인용문의 마지막 구절인 '買人制令守墓之'의 '之'가 비 4면의 마지막 칸에 적혀있다는 점이다. 광개토왕비는 불규칙한 직사각형 모양이어서 각 면마다 폭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제1면(동남측)은 1.48m, 제2면(서남측)은 1.35m, 제3면(서북측)은 2m, 제4면은 1.46m이다. 각 면의 글자는 가로 세로로 줄을 맞추어 규칙적 장방

(나) 선조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연호들이 섞갈리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선조왕들을 위해 묘상(墓上)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하도록 하라"고 하셨다.[37]

즉 광개토왕이 선조 왕들을 위해 묘상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여서 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묘인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자들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밝혀 놓았다.

이처럼 광개토왕비문에는 수묘인 관련 내용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점에서 능비나 훈적비라고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 비가 수묘역제와 관련이 있는 비석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광개토왕비는 수묘역 체제의 창출을 칭송하기 위해 건립된 송덕비 내지는 현창비로 보자고 하는 설이 제기되었다.[38] 이 주장은 비문의 건국신화, 왕의 훈적 기사 등도 모두 수묘제에 대한 서술을 하기 위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

형을 이루고 있다. 行間은 12.5~13.8cm이며, 매 행의 가장 끝 자는 비석 기초 부위에서 25cm 떨어져 있다. 광개토왕비문의 글자는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지만, 글자의 배합과 간격은 비교적 균등한 편이다. 4면의 비문은 모두 44행, 1775자인데, 마지막 글자인 '之'가 4면의 맨 끝 칸을 채우며 긴 비문을 마무리한 것이다. 비석의 전체 크기와 간격, 글자 크기, 그에 들어갈 글자 수를 모두 계산해서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37)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煙戶差錯 唯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煙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38) 이성시(2008), 앞의 글, 188쪽

다. 즉 수묘역 체제가 제도화되고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공문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비석에 새긴 것으로, 이런 점에서 문서비로서의 일면을 갖는다고 간주했다.[39]

이처럼 수묘와 관련된 비라고 보면 묘역 문제도 해결된다. 특히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330가의 수묘인들이 광개토왕릉만이 아니라 우산묘역에 조성된 왕릉이나, 더 넓게 보아 국내성 전체에 조성된 왕릉들을 모두 관리했다고 보면 태왕릉, 장군총, 임강총 묘역과 광개토왕비의 관련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역대 왕릉에 배치된 수묘인의 전체 숫자를 고려하면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330가의 수묘연호는 광개토왕릉 한 기만이 아니라 국내성 지역 소재 왕릉 전체를 청소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광개토왕이 수묘제 정비를 계획한 이유 자체가 평양 천도를 염두에 둔 데 있다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즉 천도 후에도 부수도로서 지위를 유지할 국내성이지만, 아무래도 왕성이 있는 수도보다는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비문에 나오듯 이전의 수묘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겠지만, 그와 함께 천도 이후의 관리도 고려했으리라 보는 것이다. 사실상 당시 비 건립의 총 지휘자였던 장수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건비 목적은 바로 부왕을 비롯한 역대 고구려왕들의 능을 만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수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공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40]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료 (가)에 보이는 구절들을 무시해버릴 수도 없다.

39) 이성시(2008), 앞의 글, 187쪽

40) 金賢淑(1999), 「廣開土王碑文의 守墓制와 守墓人」, 『廣開土王碑文의 新硏究』, 서라벌군사연구소, 163~164쪽

따라서 광개토왕비는 능비나 훈적비, 수묘연호비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성격만을 가진 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41] 이런 성격을 모두 종합하고 있는 특수한 성격의 비석인 것이다. 그러므로 광개토왕비를 광개토대왕비, 광개토태왕비, 호태왕비 등으로 부르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광개토왕릉비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42]

41) 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관련하여 임기환은 "광개토왕의 사후에 장수왕은 부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해서 훈적비문을 작성하고 이를 비석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래한예 및 구민을 동원하여 수묘인을 설정하고, 부왕의 敎言에 따라 '墓上立碑'하고자 수묘인의 연호수와 출신지 및 수묘인의 매매 등을 금하는 법제를 기록한 비문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비를 세우고자 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수왕은 처음에는 부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해서 훈적비를, 부왕의 왕릉 수묘를 위해서는 수묘인연호비 등 2개의 비석을 세우려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遷就山陵. 於是立碑"하는 과정에서 훈적비와 수묘인연호비를 하나의 비석에 합쳐 기록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비문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미 작성해놓은 2개의 비문을 새로 수정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합쳐 하나의 비문으로 만들었던 듯싶다. 1, 2부와 3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은 점도 아마 그런 결과일 것이다"라고 했다[임기환(2011), 「울진봉평비와 광개토왕비, 중원고구려비」, 『울진봉평리신라비와 한국 고대 금석문』,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개관기념 학술회의(2011. 6. 23~24) 발표자료집]. 상당히 흥미로운 추정이지만 이전의 연구성과들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광개토왕비문은 전체적으로 문장구성이 잘 짜여 있고, 6.39m의 거대한 비석에 1,775자에 이르는 글자를 새기면서 비의 끝 면까지 글자와 문장을 맞추어 넣은 것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견해다.

42) 이와 관련 광개토왕비를 건립한 주체가 장수왕이며, 비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광개토왕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장수왕의 그것으로서 'by 장수왕, for 장수왕, of 장수왕'으로서의 장수왕비로 불러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台植(2012), 「廣開土王碑, 父王의 運柩 앞에서 靑年王이 보낸 경고」, 『韓國古代史探究』 10, 韓國古代史探究學會, 6쪽, 22~26쪽 참조

IV. 광개토왕비의 건립 목적

광개토왕비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그것의 건립 목적일 것이다. 이때 먼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사람은 건립자인 장수왕이다. 실용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수묘인 관련 내용의 공시(公示)라는 것이 가장 먼저 다가온다. 비문에는 수묘인과 관련해 광개토왕이 생전에 여러 가르침을 남겼고, 그에 따라 장수왕이 수묘제를 정비하고 수묘인을 차출해왔다고 한다. 즉 수묘제는 광개토왕과 장수왕 두 사람의 의지와 계획이 합쳐져서 정비되었고, 그 결과와 관련 법령이 비석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국내성 소재 역대 왕들과 왕족들의 무덤을 향후에도 계속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장수왕은 왜 하필 부왕을 무덤에 모시면서 건국신화와 아버지의 훈적내용을 적고 수묘인의 차출지역, 수묘제 정비내용, 관련 법령을 새긴 비석을 세웠을까? 도대체 그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거대한 비석을 세웠을까?

여기서 잠깐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자. 광개토왕비 건립 13년 뒤인 427년에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신라가 경주에서 달구벌로 수도를 옮기려다 실패한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나 지금이나 천도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득권층의 반발이다. 장수왕의 천도 과정에서도 당연히 많은 귀족들의 희생이 있었다. 새로 옮겨갈 수도에 왕궁을 만들고 도시개발을 하는 등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며, 상당히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천도를 단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옛 수도에 남아있을 역대 왕릉에 대한 관리문제도 미리 고려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생각이 여기에 미치게 되면 광개토왕이 생전에 역대 선조 왕들의 능을 안전하게 수호하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에 따라 수묘인 교체 문제, 관련 법령 등을 장수왕에게 교언했다는 점도 자연히 떠오르게 된다. 즉 평양 천도 역시 장수왕대에 갑자기 단행된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대에 이미 구상되었고, 필요한 조처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개토왕이 즉위한 다음 해에 바로 평양 지역에 아홉 개의 절을 창건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43] 고대시기에 불교 사원은 관청과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평양에 9사를 조성했다는 것은 천도할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비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광개토왕이 나라 동쪽에 독산(禿山) 등 6성(城)을 쌓고 평양의 민호를 옮긴 것도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44]

또 다른 측면에서 비석을 바라보면 새로운 면도 떠오른다. 대부분의 적석총과 봉토석실분, 산성의 성벽 등이 잘 다듬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이 비석은 손질을 거의 하지 않은 자연석을 사용했고, 재질도 화강암이 아닌 데사이트질 용결래필리 응회암을 사용했다.[45] 주변에 있는 대형 적석총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비가 건립되던 당시 고구려의 치석기술은 오늘날에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3)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2년

44)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6 廣開土王 18년 7월

45) 2005년에 지질학 전문가들과 함께 환인과 집안 일대의 고구려 적석총과 산성, 석주, 광개토왕비 등 고구려 유적에 사용된 석재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본 적이 있다. 그때 집안 시내의 동북쪽에 있는 운봉-양민 일대와 환인의 오녀산성이 위치한 오녀산 일대에서 광개토왕비의 원석과 동일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직접 답사를 할 수 없어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지는 못했지만, 암석의 분포로 보아 집안 건너편 북한 지역 등에도 같은 암석이 분포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이 조사의 가장 주된 목적이 광개토왕비를 만든 원석을 어디에서 가져왔을지 찾아보자는 것이었는데, 원석 분석 및 답사 과정에서 운반상의 조건이나 거리 등을 볼 때 운봉-양민 일대에서 겨울철 압록강이 얼었을 때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인정할 만큼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장문의 비문을 짓고 그것을 대단히 공을 들여 비의 네 면 전체에 빼곡히 끝 부분 한 글자까지 칸을 맞추어 일일이 새겨 넣은 이 비석은 왜 매끈하게 다듬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 비석 자체가 이전부터 신앙의 대상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46]

즉 장수왕(재위 413~491)은 이전부터 고구려민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비신(碑身)에 하늘의 자손인 주몽[朱蒙, 동명성왕(東明聖王), 재위 기원전 58~기원전 19]의 건국신화와 광대한 영토를 이룩하고 백성들을 윤택하게 만든 광개토왕의 업적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신성한 존재들인 고구려 역대 왕들의 사후 유택을 관리할 수묘인들의 차출지와 그와 관련한 광개토왕의 유언 등에 대해 적었다. 이런 점에서 이 비석은 4세기 말~5세기 초 고구려의 왕권과 종교적인 신성성이 결합된 최고의 신성물(神聖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모두 종합해본다면 광개토왕비의 건립 목적을 지금까지와는

46) 이에 대해 그동안 광개토왕비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점은 거대한 계단식 적석총에 세워둔 호석에서도 발견된다. 적석총의 둘레에 세로로 기대어 놓은 돌을 흔히 호석이라고 부른다. 적석총의 내부를 채운 자갈돌이 장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오지 못하도록 세운 바위로 보기 때문이다. 호석은 계단식 적석총뿐 아니라 그 이전의 기단식 적석총 등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무덤의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 바위들이 호석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형태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장군총을 볼 경우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또한 기단석과 석실을 쌓은 돌은 그렇게 잘 다듬었으면서 왜 호석들은 손질을 하지 않고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잘 손질된 거대한 바위들을 정연하게 쌓아올려 적석총을 완성한 다음 자연석 그대로의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을 네 면에 세 개씩 기대어 놓은 것을 보면, 부조화 속의 조화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다듬지 않은 거대한 바위에서 풍겨져 나오는 장엄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점에서 다듬지 않은 이 바위들이 곧 신성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광개토왕대에는 이미 고등종교인 불교도 도입되었고 유교도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연신앙도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민간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던 거대석들을 모아 존엄한 존재인 聖王, 聖太王들의 무덤에 사용함으로써 그 신성성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광개토왕비는 가장 크고 발전한 적석총인 태왕릉과 임강총(臨江塚), 장군총 등이 모여 있는 우산하(禹山下) 묘역에 세워졌다. 장수왕과 가장 가까운 직계 조상 왕들이 묻혀 있는 곳이면서 고구려인들과 외국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세운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 비문의 내용도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향으로 읽을 수 있다. 장수왕은 이전부터 고구려인들이 신성시해왔던 거대한 선돌을 고구려 역대 왕들을 모신 묘역으로 옮겨와, 천제지자(天帝之子)이고 하백지손(河伯之孫)인 고구려 시조의 건국 창시 이야기와 그로부터 국가의 틀을 마련한 유리왕, 대무신왕을 거쳐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고 돌아가신 부왕인 광개토왕이 고구려 천하를 이룩해온 과정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광개토왕의 즉위 후 고구려 천하를 완성해간 과정을 연대기식으로 상세히 정리했다. 이것은 광개토왕의 업적이자, 곧 자신이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아 통치해나가야 할 대상들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고구려 역대 왕들과 부왕인 광개토왕릉의 안전수호를 담당할 수묘인들의 출신지를 일일이 나열해 적고, 수묘제의 구성내용과 개혁방안, 수묘제의 안전유지를 위협하는 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 등을 부왕의 교언을 받들어 만들고 시행하게 되었음을 전하며, 법령 내용 자체를 비문 마지막 부분에 새겨 넣었다. 이는 곧 광개토왕의 유언을 전하는 동시에 수묘인 관련 법령을 공시(公示)하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장수왕이 부왕을 거대한 적석총에 안장하면서 광개토왕비를 건립한 이유와 목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광개토왕비는 단순히 광개토왕릉에 소속된 능비로서 광개토왕의 생전 업적을 기리거나 왕릉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만 세워진 것은 아니다. 비석은 고구려왕족의 신성성을 국내외에 표방하고, 시조로부터 광개토왕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이 구축한 고구려천하의 위상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중국, 거란, 왜와는 다른 독자적인 자신의 천하에 속하는 백제, 동부여, 신라, 숙신 등의 속민(屬民)들이 고구려왕의 품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도 적었다. 이는 곧 고구려왕의 천하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들에게 고구려왕의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속민들에게도 고구려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다.[47] 그리고 고구려 역대 왕들의 무덤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수묘인들의 출자지를 꼼꼼하게 적고, 전체 구성 및 관련 법령까지 새겨 넣었다.

그렇다면 장수왕이 이런 내용을 새긴 비석을 세움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단순히 부왕의 훈적을 기리고 고구려 왕릉들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을까? 장수왕은 자신의 부왕을 유택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전래의 신성성과 부왕대에 이르러 더욱 강화된 고구려 왕족의 존엄성이 합쳐져 신성성이 극대화된 광개토왕비를 세웠다. 이 비석을 본 사람들은 광개토왕과 고구려 역대왕들의 존엄성을 되새기는 한편 그 신성한 피를 이어받은 현재의 고구려왕, 즉 장수왕의 위대함과 신성성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장수왕의 통치행위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광개토왕비의 건립 배경에 고구려의 번영을 가져온 위대한 부왕(父王)과 신성한 선조왕(先祖王)들의 권위를 배경으로 자신의 향후 정치적 구상을 거침없이 펼쳐가고자 하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방하려 한 장수왕의 의도 또한 담겨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47) 김태식도 광개토왕비를 "장수왕이 親政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빌려 왕국을 통치하고자 한 기념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태식(2012), 앞의 글, 6쪽].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비의 설립 목적을 갈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V. 맺음말

이상 여러 방면에서 광개토왕비를 재검토한 결과 비의 성격과 건립 목적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장례를 맞이하여 왕의 훈적을 기리는 동시에 수묘제 관련 개혁 내용과 수묘인의 구성, 그들의 출신지 등을 명기하고 수묘인의 불법 매매시 처벌규정을 공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 비 건립자인 장수왕의 현실적인 목적 또한 내재하고 있었다.

즉 광개토왕비는 천제지자이자 하백지손인 시조 주몽 이래 그 신성성을 물려받은 고구려 역대 선조왕들의 성스러움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영토를 널리 확장시키면서 그와 함께 고구려천하 안에 살고 있는 고구려민과 속민들에게 풍성한 오곡을 선사해 번영을 구가하게 해준 위대한 부왕의 업적을 강조했다. 또한 부왕 이전에 고구려가 복속시켜 수묘의 임무를 맡겼던 구민과 부왕이 직접 데리고 온 신래한예로 수묘인을 새로 구성하고, 수묘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영원토록 왕릉을 안전하게 유지해갈 수 있도록 수묘인 매매금지에 관한 법규를 부왕의 유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포했다. 그런 다음 그동안 수묘인을 마음대로 매매함으로써 왕권에 누를 끼쳐 온 부족지자(富足之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로 보아 광개토왕비는 단순히 능비이자 훈적비, 또는 수묘인연호에 관한 법령을 공시하기 위한 석비라고만 한정해서 부르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의 비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석의 건립에는 선조왕 및 부왕의 권위를 배경으로 자신의 향후 정치적 구상을 거침없이 펼쳐가고자 하는 의지를 국내외에 표방하려는 장수왕의 의중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참고문헌

단행본

耿鐵華(1994),『好太王碑新考』, 길림인민출판사

고구려연구회 편(1996),『광개토호태왕비 연구 100년』, 학연문화사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2),『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2004),『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1984),『集安縣文物志』

武田幸男(1988),『廣開土王陵碑原石拓本集成』

武田幸男(1989),『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박시형(1966),『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박진석(1993),『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손영종(2001),『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중심

孫仁杰·遲勇(2007),『集安高句麗墓葬』, 香港亞洲出版社

水谷悌二郎(1977),『好太王碑考』, 開明書院

王健群(1984),『好太王碑研究』, 吉林

이도학(2006),『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출판사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2001),『만들어진 고대－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주)도서출판 삼인

李進熙(1972),『廣開土王陵碑の研究』, 吉川弘文館

李進熙(1979),『好太王碑と任那日本府』, 學生社

張福有(2007),『高句麗王陵統鑒』, 香港亞洲出版社

張福有·孫仁杰·遲勇(2007),『高句麗王陵通考』, 香港亞洲出版社

田村晃一(2001),『樂浪と高句麗の考古學』, 同成社

정호섭(2011),『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佐伯有清(1974),『研究史 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佐伯有清(1977),『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池內宏(1938),『通溝(上, 下)』, 日滿文化協會

韓國古代社會硏究所 編(1992),『譯註韓國古代金石文』I,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논문

關野貞(1914),「滿洲輯安縣及び平壤附近に於ける高句麗の遺蹟」,『考古學雜誌』第5卷 第3·4號

金台植(2012),「廣開土王碑, 父王의 運柩 앞에서 靑年王이 보낸 경고」,『韓國古代史探究』10, 韓國古代史探究學會

金賢淑(1989),「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 守墓人의 社會的 性格」,『韓國史硏究』65

金賢淑(1999),「廣開土王碑文의 守墓制와 守墓人」,『廣開土王碑文의 新硏究』, 徐羅伐軍事硏究所

기경량(2010),「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왕릉과 수묘제」,『한국사론』56

김현숙(2011),「광개토왕비의 성격과 건립목적」,『동북아역사문제』2011-12, 동북아역사재단

桃崎祐輔(2005),「高句麗太王陵出土瓦·馬具からみた好太王陵說の評價」,『海と考古學』, 六一書房

桃崎祐輔(2009),「고구려왕릉출토 기와, 부장품으로 본 편년과 연대」,『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東潮(2006),「高句麗 王陵과 巨大 적석총」,『朝鮮學報』199·200합집

東潮(2009),「고구려왕릉과 능원제」,『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梅原末治(1973),「高句麗廣開土王陵碑に關する旣往の調査と李進熙氏の同碑の新說について」,『日本歷史』302

박성봉(1996),「'廣開土好太王' 王號와 世界觀」,『고구려연구』2, 고구려연구회

方起東(1988),「千秋塚 太王陵 將軍塚」,『好太王碑と高句麗遺跡』, 讀賣新聞社(東京)

백승옥(2005),「'辛卯年銘 청동 방울'과 太王陵의 주인공」,『역사와 경계』56

백승옥(2006),「광개토왕릉비의 성격과 장군총의 주인공」,『한국고대사연구』41

三上次男(1966),「古代朝鮮の歷史的推移と墳墓の變遷」,『日本考古學 IV』, 河出書房

여호규(2006),「집안지역 고구려 초대형 적석묘의 전개과정과 피장자 문제」,『한국고대사연구』41

魏存成(2007),「集安高句麗大形積石墓王陵硏究」,『社會科學戰線』2007-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도학(2005),「太王陵과 將軍塚의 被葬者 問題 再論」,『고구려연구』19
이도학(2008),「집안지역 고구려 왕릉에 관한 신고찰」,『고구려 발해 연구』30
이도학(2009),「고구려 왕릉연구의 현단계와 문제점」,『고구려발해연구』34
이도학(2011),「고구려왕호와 장지에 관한 검증」,『경주사학』34
李成市(1996),「廣開土王碑의 立碑目的과 高句麗의 守墓役制」,『고구려발해연구』2
李成市(2008),「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한국고대사연구』50
이희준(2006),「太王陵의 墓主는 누구인가?」,『한국고고학보』59
임기환(2009),「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비정」,『고구려왕릉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임기환(2011),「울진봉평비와 광개토왕비, 중원고구려비」,『울진봉평리신라비와 한국 고대 금석문』,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개관기념 학술회의(2011. 6. 23~24) 발표자료집
張福有·孫仁杰·遲勇(2007),「高句麗王陵通考要報」,『東北史地』2007년 4기(7·8월호)
田村晃一(1984),「高句麗の積石塚の年代と被葬者をめぐる問題について」,『青山史學』8
정호섭(2008),「고구려 적석총의 피장자에 대한 재검토」,『한국사연구』43
정호섭(2012),「廣開土王碑의 성격과 5세기 高句麗의 守墓制 改編」,『선사와 고대』37
조법종(2005),「廣開土王陵 守墓人 構成과 陵園體系」,『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4
조법종(2012),「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地圖와 陵碑文을 중심으로」,『廣開土王碑의 再照明』, 廣開土王 1600주기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동북아역사재단
趙連美(2000),「朝鮮時代 神道碑 硏究」,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池內宏(1938),「廣開土王碑發見の由來と碑石の現狀」,『史學雜誌』第49編 第1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택민(金鐸敏)
중국중세사 전공,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대표논저로는 『역주당률소의』(공역, 1994, 한국법제연구원), 『중국토지경제사연구』(1998, 고려대학교출판부), 『중국고대형법』(2002, 아카넷),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2005, 신서원), 『역주당육전』(공역, 2008, 신서원) 등이 있다.

중국 고대 수릉 제도와 율령

고구려 수묘인 제도의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고려대학교 **김택민**

I. 머리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개호태왕비문의 내용은 대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건국신화와 왕실의 세계(世系), 그리고 광개토왕의 업적에 대한 개괄 및 타계 사실에 대한 기록, 2부는 광개토왕의 대외정복활동에 대한 기록, 3부는 수묘인연호(守墓人煙戶), 즉 왕릉 수위를 위한 호의 내역과 수묘인의 관리 규정에 관한 기록이다. 이 중 3부는 전체 비문 1,775자 가운데 1/3 이상인 640여 자로 되어 있는데, 다시 내용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은 수묘인연호의 출신 지역명, 연호의 종류 및 인원수를 나열한 부분이다.

②는 "선조왕대에는 다만 원근의 구민(舊民)을 취하여 수묘하고 소제하게 했으나, 나는 구민이 점차 영렬(羸劣)해지는 것이 염려스럽다. 내가 죽은 후 안전하게 수묘할 자로는 내가 몸소 약취해온 한(韓)·예(穢)뿐이니 그들만으로 소제를 담당케 하라"고 한 광개토왕의 유언을 기록한 부분이다.

③은 "광개토왕의 말씀이 이와 같으므로 교령과 같이 한·예(韓·穢) 220가를 취했으나 그들이 법칙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다시 구민 110가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수묘 호는 신·구를 합해 국연(國煙) 30, 간연(看煙) 300으로 도합 330가로 편성하였다"고 한 수묘 연호의 편성 내역에 관한 기록이다.

④는 "위로 조선왕(祖先王) 이래로 묘에는 석비(石碑)를 안치하지 않아 수묘인 연호가 차착(差錯)에 이르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호태왕만이 모든 조선왕을 위하여 묘에 비를 세우고 그 연호를 명기하여 섞갈리지 않게 했다"고 한 부분이다. 요지는 광개토왕이 선대왕들의 수묘 연호를 정비했다는 것이다.

⑤는 "또 제(制)하기를, 지금부터 수묘인은 서로 전매(轉賣)할 수 없다. 비록 부유한 자라도 역시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런데도 영을 어기고 판 자는 형에 처하고 산 자는 제령(制令)에 따라 수묘케 한다"고 한 부분으로, 수묘인의 전매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1]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①~③은 왕릉의 수위를 위한 인적 규모와 그 구성에 관한 것이며, ④는 수위제도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것, ⑤는 왕릉 수위인 전매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자를 처분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고구려왕의 명령이자 국가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개호태왕비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수묘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발표된 몇 편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2] 그나마 비문에 기록된 제령의 법제사적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3] 그렇지만 제령의 법제사적 연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1) 이상은 金賢淑의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인의 社會的 性格」(『韓國史研究』 65, 1989) 2~5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이인철(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155~156쪽 주 83 참조
3) 손영종도 "광개토왕릉비 뒷부분에는 왕릉 수호를 위한 수묘인연호(수묘연호)들의 지역

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법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3년조에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다"고 한 기사 외에는 극히 엉성한 편린만이 전하므로, 누구라도 비문에 기록된 법의 체제와 성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4] 그러므로 필자는 중국 고대 황제릉의 수위 제도 및 관련 법령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광개호태왕비문에 보이는 수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중국 고대 황제릉의 조영과 수위 조직

1. 황제릉의 조영과 능읍의 치폐

1) 황제릉의 조영과 그 규모

중국에서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부터 각국의 군주들이 다투어 호사스러운 능묘를 대규모로 조영하였다. 이는 고전 기록이나 최근의 고고조사 발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5] 황제릉이라면 진시황제가 조영한 여산릉이 대표성을 띤다. 여산릉은 최초의 황제릉이고, 그 규모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위별 숫자들이 쓰여 있고 그 구성과 임무, 수묘연호 성원들의 매매금지령, 그것을 어기는 현상에 대한 징벌규정 등이 지적되어 있다. 법규정을 새겨 넣은 이 부분은 일종의 석각법전으로 된다"고 언명했지만(『광개토왕릉비문 연구』, 도서출판 중심, 100쪽), 법의 성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다.

4) 사죄를 범한 죄인의 처자는 노비로 삼고, 절도한 자는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아야 한다는 정도의 편린만이 전한다. 고구려의 법은 관습법을 따랐고, 그 입법정신은 夫餘律과 같았다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이상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延正悅(1996), 『韓國法制史』, 학문사, 24~27쪽

5)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옮김(2005), 『중국역대 陵寢 제도』, 서경출판사, 9~67쪽

게 한 병마용이 부장된 능이라는 점 등에서 그렇다.

70만의 형도(刑徒)를 동원한 여산릉 조영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진 멸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의 위정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검박한 황제로 잘 알려진 문제(文帝)의 패릉(覇陵)은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백괴(柏槐)만을 심었다.[6]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황제들은 여전히 대규모의 능묘와 침전을 조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다만 한의 황제릉 규모는 진시황릉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다. 예를 들면 고조의 장릉(長陵)은 4방 120보, 높이 13장으로,[7] 진시황릉의 경우 원래 봉분의 높이 50여 장, 주회(周迴) 5리로 설계된 데[8] 비하면 많이 축소된 셈이다.

한 황제릉에 관한 제도를 집록(集錄)한 『한구의(漢舊儀)』에 따라 능의 조영 절차와 규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즉위하면 다음해부터 장작대장(將作大匠)이 7경(頃) 면적의 능(陵) 용지를 조성한다. 7경의 가운데 1경에는 깊이 13장(丈)을 파서 능의 현실(玄室) 등을 조성하며 당단(堂壇)은 높이 3장으로 하고, 봉분은 높이 12장으로 조성한다. 그러나 무제(武帝)의 능은 이보다 규모가 커서 봉분은 높이가 20장이며, 명중(明中)은 높이 1장 7척, 4방 2장이었다.[9] 그런데 무제는 재위 기간이 길어 자주 능중(陵中)이 무너져 물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며, 이는 곽광(霍光)이 대체(大體)에 어두워 사치가 과도한 까

6) 『太平禦覽』 卷954, 木部 栢槐, 4235쪽 下에 인용된 『三輔黃圖』. 그렇지만 현재 전하는 『三輔皇圖』(陳直 校證本,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0)에는 이 기사가 없다.

7) 『史記』 卷8, 高祖本紀, 394쪽 주 5 「集解」 皇甫謐曰

8) 『史記』 卷6, 秦始皇本紀, 266쪽 주 7 「集解」 皇覽曰. 현재 남아 있는 진시황릉의 실측 결과는 아랫부분이 485×515m, 높이는 76m이다(『中國國家地理』, 2005년 6월 陝西特輯).

9) 後漢 衛宏, 『漢舊儀』 下, 『漢官六種』, 中華書局, 1990, 106쪽. '明中'은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漢語大詞典』에 이 용어가 採錄되어 있지 않다.

닭에 그렇게 되었다는[10] 비판이 있다. 이로 보면 무제릉은 앞서 조영된 고조의 장릉이나 경제의 양릉(陽陵)보다 크고 호사스럽게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제릉의 능원에는 침전(寢殿)과 편전(便殿)이 있고 이곳에서는 때에 따라 제(祭)·사(祠)를 올리는데, 황제릉 외에 태후의 능이나 여태자(戾太子) 등의 능에도 침원(寢園)이 있어 이곳에도 제·사를 올렸다. 원제(元帝) 때 사(祠)를 올리는 능은 모두 30개 소였다고 하는데,[11] 이때 선대 황제는 일곱이므로 황제릉 외에도 제·사를 올리는 능이 23개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큰 전기가 마련되는 원제 때까지의 황제릉 조영과 규모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이후 전한·후한 시기 및 역대 왕조의 황제들은 유사한 규모로 능묘를 조영했고, 황제가 아니더라도 황제의 명에 따라 특별히 능을 조영하고 관리하는 예가 많이 있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대해서는 논리 전개의 필요에 따라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게 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황제릉의 수위

한(漢)의 황제릉 수위(守衛)에 관해서는 유명한 고사(故事) 하나가 있다. 진시황 7년(기원전 240) 장양왕(莊襄王)의 모 하태후(夏太后)가 죽었다. 장양왕은 조나라에 인질로 가 있다가 여불위의 책략으로 효문왕의 태자가 되어 왕위를 계승한 자초이고, 하태후는 그의 모 하희(夏姬)를 가리킨다. 당시 효문왕은 정후(正后)인 화양태후(華陽太后)와 합장되어 있었고, 장양왕은 지양(芷陽)에 묻혔는데, 하태후는 따로 두원(杜原) 동쪽에 묻히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동으로 나의 아들을 보고 서로 나의 남편을 본다. 백 년 뒤에는 옆에 마땅히 만

10) 『文獻通考』 卷124, 王禮考 19 山陵, 1115쪽 下
11) 『漢書』 卷73, 韋玄傳, 3115~3116쪽

가읍(萬家邑)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12]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색은(索隱)에서는 "선제(宣帝) 원강(元康) 원년(기원전 65)에 두릉(杜陵)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한구의(漢舊儀)』에 따르면 무제(武帝)·소제(昭帝)·선제(宣帝)의 세 능은 모두 (수릉호가) 3만 호인데, 이때부터 계산하면 160여 년이다"[13]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두릉(杜陵)은 선제의 능으로, 원강(元康) 원년 봄에 두현(杜縣)의 동쪽 들에 초릉(初陵)을 조성하고, 두현(杜縣)을 두릉현(杜陵縣)으로 고쳐 승상(丞相)·장군(將軍)·열후(列侯)·이이천석(吏二千石) 및 자산 100만 이상인 자들을 이주시켜[14] 수릉호가 3만 호에 이른 것이며, 이로써 하태후가 죽은 뒤 160년 만에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고사는 전국시대 군주의 능에 많은 수릉호가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며, 아울러 중국 고대인들이 능묘 수위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착과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한 전기에 황제릉을 건립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사민을 단행하여 거대한 수릉읍을 조성한 의미를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의 창업 후 최초로 대규모의 능묘를 조성하고 수위를 갖춘 것은 고조 10년(기원전 197) 7월 유방의 부친인 태상황(太上皇)이 죽었을 때였다. 『한서』에는 "10년 가을 7월[秋七月] 계묘(癸卯)에 태상황이 붕어하여 만년(萬年)에 매장하고, 역양(櫟陽)의 죄수는 사죄(死罪) 이하 모두를 사면했다"[15]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사고(顔師古)는 『삼보황도(三輔黃圖)』를 이용하여 "고조가 처음 역양에 거주하

12) 『史記』 卷85, 呂不韋列傳, 2511쪽
13) 『史記』 卷85, 呂不韋列傳, 2512쪽
14) 『漢書』 卷8, 宣帝紀, 元康 원년, 253쪽
15) 『漢書』 卷1, 高帝紀, 67쪽

였으므로 태상황이 역양에 있게 되었고, 10년 태상황이 붕어하자 그 북쪽 들에 매장하고 만년읍(萬年邑)을 세워 장(長)과 승(丞)을 두었다"고 주석하였고, 신찬(臣瓚)은 "만년릉(萬年陵)은 역양현의 경내에 있으므로 특별히 그 현의 사람들을 사면한 것이다"라고 주석하였다.[16] 또한 『문헌통고』에 인용된 『한구의(漢舊儀)』에는 "태상황의 만년읍은 천호(千戶)이며, 천하의 민(民) 가운데 자산 300만 이상을 이주시켜 전택(田宅)을 주고 수릉(守陵)케 했다"고 되어 있다.[17]

건달이던 유방이 황제가 되어 그의 부친이 사망하자 그 능묘를 위해 읍을 세우고 부호 1천 호를 이주시켜 수위케 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수묘 중시 풍속의 일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방은 다음해 12월 진시황제(秦始皇帝)·초 은왕(楚隱王)·진섭(陳涉)·위 안리왕(魏安釐王)·제 혼왕(齊湣王)·조 도양왕(趙悼襄王)이 모두 후사가 없으므로 10가(家)를 내려 수총(守塚)케 했고, 진시황제는 20가, 위공자(魏公子) 망기(亡忌)의 묘에는 5가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는데,[18] 이 처사 역시 군웅들을 진압한 이후 인심 수습을 위해 수묘를 중시하는 습속을 이용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한 초의 사민은 원래 강간약지(强幹弱枝), 즉 관중을 충실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태상황릉으로의 사민이 있기 전인 고조 9년(기원전 198) 흉노(匈奴)에 사자로 갔다가 돌아온 유경(劉敬)의 건의에 따라 시작되었다.[19] 유경은 흉노의 백양왕(白羊王)과 누번왕(樓煩王)이 장안(長安)에서 700리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어 경기(輕騎)로 하루 낮밤이면 관중[진중(秦中)]에 이를 수 있다는 것, 관중은 전쟁으로

16) 『漢書』 卷1, 高帝紀, 68쪽
17) 『文獻通考』 卷140, 王禮考19 산릉, 1115쪽 中
18) 『史記』 卷8, 高祖本紀, 391쪽 ; 『漢書』 卷1, 高帝紀, 76쪽 ; 『史記』 卷48, 陳涉世家 1961쪽에는 陳涉의 守塚家가 30家로 되어 있다.
19) 閔斗基(1957), 「前漢의 陵邑徙民策－疆幹弱枝策으로서의 그 具體的 內容에 對한 論攷」, 『歷史學報』 9, 2~3쪽

파괴되어 인구가 적은데 육국(六國)의 족속은 세력이 커서 황제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제(齊)의 전(田)씨들과 초(楚)의 소(昭)·굴(屈)·경(景), 연(燕)·조(趙)·한(韓)·위(魏)의 후예들 및 호걸·명가(名家)들을 관중(關中)에 이주시켜 평상시에는 흉노에 대비하고 제후들이 모반을 일으키면 이들을 이끌고 동으로 가서 토벌하자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본약말(彊本弱末)의 술책을 건의했다. 이 건의에 따라 제·초의 대족(大族) 소씨(昭氏)·굴씨(屈氏)·경씨(景氏)·회씨(懷氏)와 다섯 전씨(田氏)를 관중에 이주시키고 좋은 전택(田宅)을 주었는데,[20] 이주자가 10여만 구에 이르렀다.[21] 그런데 이주민 가운데는 고조릉의 수위를 위해 설치한 장릉현(長陵縣)에 정착시킨 민의 비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평제(平帝) 원시(元始) 2년(기원전 2) 장릉현의 인구는 50,057호, 179,469구로 24개 현을 가진 좌풍익(左馮翊)의 인구 235,101호, 917,822구의 1/4에 가깝기 때문이다.[22]

고조와 혜제의 뒤를 이은 문제(文帝)의 경우 검박해서 자기 능에 봉분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아마도 수릉을 위한 사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경제(景帝)는 즉위 5년(기원전 152) 3월 자신의 능을 위해 양릉읍(陽陵邑)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위교(渭橋)를 놓았으며, 민을 모집하여 이주시키고 이주민에게는 20만 전씩 주었다.[23] 무제도 즉위 다음해(기원전 140)에 자신의 능을 위해 무릉읍(茂陵邑)을 설치하고[24] 원삭(元朔) 2년(기원전 127)에는 군국(郡國)의 호걸 및 자산 300만 이상의 부호들을 무릉에 이주시켰으

20) 『史記』 卷8, 高祖本紀, 386쪽 ; 『漢書』 卷1下, 高祖紀 下, 66쪽
21) 『史記』 卷99, 劉敬傳, 2719~2720쪽
22) 『漢書』 卷28 上, 地理志 上, 1545쪽
23) 『史記』 卷11, 孝景本紀, 443쪽 ; 『漢書』 卷5, 景帝紀, 143쪽
24) 『漢書』 卷6, 武帝紀, 158쪽

며,[25] 태시(太始) 원년(기원전 96)에도 군국의 이민(吏民)과 호걸들을 무릉에 이주시켰다.[26] 이 같은 누차의 사민 때문인지 평제 원시 2년(기원전 2)의 무릉현 인구는 61,087호, 277,277구로 우부풍(右扶風)의 총인구 216,377호, 836,070구[27]의 1/3.5에 달한다.

무제의 뒤를 이은 소제(昭帝) 때에도 능읍으로의 사민이 계속되었다. 소제 시원(始元) 3년(기원전 84) 민을 모집하여 운릉(雲陵)에 이주시키고 전(錢)·전(田)·택(宅)을 주었고,[28] 다음해도 삼보(三輔)의 부자들을 운릉에 이주시키고 호(戶)마다 전(錢) 10만을 주었다.[29] 또한 본시(本始) 원년(기원전 73)에는 군국의 이민과 자산 100만 이상을 모집하여 자신의 능을 위한 평릉읍(平陵邑)에 이주시켰다.[30] 선제의 두릉과 두릉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능읍으로의 사민은 선제의 뒤를 이은 원제(元帝) 때 중단되었다. 원제는 태자 시절 부황제(父皇帝)인 선제에게 유생을 등용할 것을 건의했다가 "우리 왕실을 어지럽힐 자는 태자다!"[31]라고 힐난을 들을 정도로 유교에 경도되어 있던 황제답게 능묘의 조영과 수위 및 그 의례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그는 즉위 9년째인 영광(永光) 4년(기원전 40) 9월 여태자의 모친 위사후(衛思后)의 능원(陵園) 및 여태자의 능원을 폐지하였다.[32] 10월에는 군국에 있는 조종(祖宗)의 묘를 폐

25) 『漢書』 卷6, 武帝紀, 170쪽
26) 『前漢紀』 卷15, 武帝紀 6
27) 『漢書』 卷28 上, 地理志 上, 1545쪽
28) 『漢書』 卷7, 昭帝紀, 221쪽. 雲陵은 昭帝의 母인 趙倢伃의 陵이다. 武帝로부터 심한 견책을 받아 울분으로 죽었는데, 昭帝가 즉위하여 皇太後로 追尊하고 卒 2만 명을 동원하여 雲陵을 일으켰으며, 3,000호의 陵邑을 조성하였다(『漢書』 卷97 上, 外戚 孝武趙倢伃傳, 2956~2957쪽).
29) 『漢書』 卷7, 昭帝紀, 221쪽
30) 『漢書』 卷8, 宣帝紀, 239쪽
31) 『漢書』 卷9, 元帝紀, 277쪽

지하고 제릉현(諸陵縣)을 삼보(三輔)에 분속시켰다. 안사고(顔師古)의 주에 따르면 앞서 제릉현은 모두 태상(太常)에 속했는데, 이때 그 지역의 경계에 따라 삼보에 속하게 한 것이다. 또 원제(元帝)는 이때에 와서 비로소 위성(渭城)의 수릉정부(壽陵亭部)의 들에 자신을 위한 초능(初陵)을 세웠다. 복건(服虔)의 설명에 따르면 원제가 처음 능을 설치했는데 이름이 없었으므로 '초(初)'라고 했다가[33] 뒤에 위릉(渭陵)이라 했다고 한다.[34] 그리고 조(詔)를 내려 자신의 수릉에는 현을 설치하지 말고 사민도 하지 말 것을 명했으며, 아울러 선대 황후들의 부모의 묘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봉읍도 모두 폐지하게 했다.[35] 이어서 의관출유(衣冠出遊)와 침원에서 매일과 매월에 드리는 제사도 폐지하게 했으며, 효문태후 등 태후들의 침원에서 드리는 제사도 폐지하게 했다.[36]

원제는 방만한 묘제(廟制)도 정리했다. 처음 고제(高帝)는 제후왕들에게 모두 자기 봉국에 태상황묘(太上皇廟)를 세우게 했다. 혜제(惠帝) 때는 고제묘를 태조묘로 높였고, 경제(景帝)는 문제묘(文帝廟)를 태종묘(太宗廟)로 높였으며, 행행(行幸)하는 군국에 각각 태조묘와 태종묘를 세우게 하였다. 선제(宣帝) 본시(本始) 2년(기원전 72)에는 효무묘(孝武廟)를 세종묘(世宗廟)로 높이고 순수(巡狩)하는 곳마다 세종묘를 세우게 했다. 이 결과 조종묘(祖宗廟)는 군국에 있는 68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67개소가 되었으며, 경사(京師)에 있는 고조에서 선제까지의 황제묘와 태

32) 衛思后는 武帝의 皇后 衛后이고, 戾太子는 武帝의 태자였다. 巫蠱 사건으로 주멸되었으며 뒤에 戾太子의 孫子인 宣帝가 즉위하여 衛后를 衛思后로 추존하고 園邑 300家를 두었으며(『漢書』 卷97 上, 孝武衛皇後傳, 3949~3950쪽), 戾太子의 謚를 戾로 하고 奉邑 200家를 두었다가 뒤에 300家로 더했다(『漢書』 卷63, 武五子 戾太子據傳, 2748~2749쪽).

33) 『漢書』 卷10, 元帝紀, 292쪽

34) 『漢書』 卷10, 元帝紀, 298쪽

35) 『漢書』 卷10, 元帝紀, 292~293쪽

36) 『漢書』 卷73, 韋玄傳, 3120~3121쪽

상황과 도황고(悼皇考)[37]의 능 옆에 세운 묘를 합하면 모두 176개소가 되었다. 또 모든 능원에는 각각 침전과 편전이 있었다. 침전에는 매일 제(祭)를 올리고, 묘에는 매월 제를 올리며, 편전에는 계절마다 제를 올렸다. 침전에는 하루에 네 번 음식을 올렸다. 묘에는 1년에 25번 사(祠)를 올렸다. 편전에는 1년에 네 번 사를 올리고 매월 한 번 의관(衣冠)을 출유(出遊)했다. 선제 때 선대 황제와 후(後)와 여태자 등의 침원은 모두 30개소였다. 1년 동안 사(祠)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24,455번이고, 위사(衛士)는 45,129인이고 축(祝)·재(宰)·악인(樂人)은 12,147인이었으며, 희생을 키우는 졸병은 그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38]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인용된 『한구의』에 따르면 "당시 법에 따르면, 천자가 즉위하여 1년이 되면 능을 조성한다. 천하 공부(貢賦)의 1/3은 종묘를 위해 쓰이고, 1/3은 빈객을 접대하는 데 쓰이고, 1/3은 산릉(山陵)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39]고 하였다. 이 기사는 음미해야 할 점이 적지 않지만, 산릉의 조영과 수위 및 제사를 위한 비용이 과다하여 국가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던 당시의 사정을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그러나 원제는 병이 나자 결심이 흔들려 폐지했던 침원들의 제사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했다.[40] 원제의 뒤를 이은 성제(成帝)도 즉위 15년째인 홍가(鴻嘉) 2년(기원전 19) 여름 군국의 호걸과 자산 5백만 이상 5천 호를 창릉(昌陵)에 이주시키고, 승상(丞相)·어사(禦史)·장군(將軍)·열후(列侯)·공주(公主)·중이천석(中二千石)에게 총지(塚地)와 제택(第宅)을 주었다.[41] 창릉은 장작대장 해만년(解萬年)과 흉노

37) 悼皇考는 宣帝의 父 史皇孫을 말한다. 史皇孫은 戾太子의 子이다(『漢書』 卷63, 武五子 戾太子據傳, 2747~2748쪽).

38) 『漢書』 卷73, 韋玄傳, 3115~3116쪽

39) 『讀禮通考』 卷88, 『文獻通考』

40) 『漢書』 卷73, 韋玄傳, 3121~3130쪽에 寢園 제사 치폐의 경위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의 질지선우를 암살하여 공이 높았던 진탕(陳湯)이 서로 의논하여 능읍 건설로 출세와 상을 노리고 적극 주청한 것이었다.[42]

창릉(昌陵)은 인부가 수만 명이나 동원되었고 군국의 이민 5천여 호를 이주시켜 능읍(陵邑)을 받들게 했으나,[43] 본래 지대가 낮아 능과 읍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비용과 요역이 많이 들었다. 심지어는 사망자가 속출하기도 했으며[44] 많은 작폐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능읍을 영작(營作)하는 과정에서 귀척(貴戚)과 근신(近臣)의 자제와 빈객들이 이익을 독점하는가 하면,[45] 5년이 되어도 완성되지 못하였다. 마침 이때[홍가(鴻嘉) 3년, 기원전 18년] 광한(廣漢)에서 죄수들이 반란을 일으켜 1년 만에 진압되었고, 4년 후에는 위씨(尉氏)의 번병(樊竝) 등이 모반하여 진류태수 엄보를 죽이고 장군을 자칭했으며, 산양(山陽)에서 도망한 소령(蘇令) 등의 무리 수백 명이 창고의 무기를 훔쳐 40여 군국을 횡행하다가 해를 넘겨 복주되는[46] 상황이 벌어졌다. 때문에 성제(成帝)는 창릉읍을 폐지하고 이주민들을 본향으로 귀환시켰으며,[47] 사업 폐지를 건의한 사람들에게 두터운 상을 내리고 사업을 주청한 자는 돈황에 유배시켰다.[4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1) 『漢書』 卷10, 成帝紀, 317쪽
42) 『漢書』 卷36, 楚元王傳, 1956~1957쪽 ; 卷70, 傅常鄭甘陳段傳, 3023~3024쪽 ; 卷85, 谷永傳, 3462쪽
43) 『漢書』 卷27 上, 五行志 上, 1341쪽 및 1342쪽 주 7의 師古曰
44) 『漢書』 卷10, 成帝紀, 322쪽
45) 『漢書』 卷84, 翟方進傳, 3416쪽
46) 『漢書』 卷27 上, 五行志 上, 1341쪽
47) 『漢書』 卷27 上, 五行志 上, 1341쪽 및 1342쪽 주 7의 師古曰
48) 『漢書』 卷10, 成帝紀, 322쪽

2. 역대 왕조의 수릉 조직

전한 원제(元帝) 때까지는 황제의 능을 위해 현을 설치하고 능현에는 일반 지방행정구역처럼 현령 및 기타 관속이 배치되었으나, 그 현들은 지역의 상급기관인 경조부 또는 삼보의 지휘를 받지 않고 중앙정부의 봉상 또는 태상에 직속된 특별한 행정구역이었다. 그러다가 원제 영광 원년(기원전 43) 모든 능읍을 삼보(三輔)에 분속시켰는데,[49] 이는 능현을 더 이상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 편제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묘와 침원(寢園)의 식관령(食官令)·장(長)·승(丞)은 그대로 태상(太常)에 속해 그 지휘를 받았던 것 같다.

이상은 『한서(漢書)』 백관공경표의 봉상(奉常)조 기사를 통해 전한대의 수릉 기구를 재구성해 본 것인데,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서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는 황제릉과 묘의 기구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기사를 전하고 있다. 우선 중이천석의 태상경(太常卿)은 매월 그믐 전에 능과 묘를 찰행(察行)하는 책임을 맡으며,[50] 모든 묘령(廟令)과 능령(陵令) 및 능식관령(陵食官令)은 그 속관이 된다. 다만 묘령은 고묘령(高廟令)과 세조묘령(世祖廟令)의 기사만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밖의 황제들의 묘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고묘령은 질(秩)이 600석이고 묘를 지키며 안행(案行)하고 소제(掃除)하는 일을 담당하며, 승(丞)은 없다. 또 『한관(漢官)』에 따르면 원리(員吏)는 4인이고 위사(衛士)는 15인이 있다. 세조묘령도 질석과 직무는 고묘령과 같으나 원리는 6인이고 위사는 20인으로[51] 고묘보다 많다.

49) 『漢書』 卷19 上, 百官公卿表 上, 726쪽
50) 『後漢書』 志25, 百官2, 3571쪽
51) 『後漢書』 志25, 百官2, 3573쪽

선제(先帝)들의 능은 각각 능원령(陵園令)이 1인이며 질은 600석으로 능원(陵園)을 지키고 안행소제(案行掃除)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승과 교장(校長)은 각 1인이다. 교장은 병융(兵戎)과 도적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또한 선제릉에는 각각 능식관령 1인이 있는데, 질은 600석으로 망회(望晦) 및 시절(時節)의 제사를 관장한다. 식관(食官)은 식감(食監)으로 칭한 때도 있었던 같다. 『후한서(後漢書)』에 인용된 『한관』에 따르면 "능마다 능식감(陵食監)은 1인이고 질은 600석이다. 감승(監丞)은 1인이고 질은 300석이다. 중황문(中黃門)은 8인이고 종관(從官)은 2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현(李賢)의 주(注)도 "살피건대 식감은 곧 식관령(食官令)의 다른 칭호이다"[52]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제릉은 전한의 황제를 포함한다.[53]

황제릉 외에도 순제의 생모 이씨처럼 사후에 황후로 추시되고 능에 안장되어 능원령과 식감령이 배치된 경우도 있다. 원래 이씨는 낙양성 북쪽에 묻혔는데 황제가 알지 못했다. 태후가 죽은 뒤 좌우에서 이를 말하자 황제가 깨닫고 슬퍼하며 직접 묻힌 곳으로 가서 예로써 염하고 공혼황후(恭湣皇後)의 시호를 올리고 공북릉(恭北陵)에 안장하였으며, 책서(策書)를 금궤(金匱)에 넣어 세조묘(世祖廟)에 보관하였다. 『한관의』에 따르면 이 능에는 능원령과 식감 각 1인을 두었는데, 질은 모두 600석이라고 하였다.[54]

이같은 수릉조직은 조위(曹魏)에 이르러 변화를 보인다. 후한 말 전권을 행사한 조조는 고릉(高陵)에 안장되었고, 한의 제도에 따라 능 위에 제전(祭殿)을 세웠다. 그렇지만 위(魏) 문제(文帝)는 황초(黃初) 3년(222)에 "선제는 절검을 몸소

52) 『後漢書』 志25, 百官2, 3574쪽

53) 예를 들면 段熲은 孝廉으로 천거되어 憲陵園丞과 陽陵令을 지내면서 치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憲陵은 順帝陵이고 陽陵은 景帝陵이다(『後漢書』 卷65, 段熲傳, 2145쪽).

54) 『後漢書』 卷10 下, 皇後紀 下, 437~438쪽

실천하였으며 생약(省約)을 유조로 남겼다.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효이고 신하는 사업을 잇는 것을 충으로 삼는다. 옛날에는 묘제(墓祭)를 행하지 않고 모두 묘에 (제물을) 진설했다. 고릉(高陵) 위의 전(殿)은 모두 헐어버리고 거마(車馬)는 모두 마구간으로 들이고 의복은 부(府)에 보관해서 선제의 절검의 덕에 따르라"라는 조칙을 내렸다. 그는 스스로 「종제(終制)」라는 글을 짓고,[55] 자신의 "수릉(壽陵)에 침전을 짓거나 원읍(園邑)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여 이후 비로소 침전의 제도가 끊어지게 되었다.[56]

이때의 침전 폐지는 황제릉 수위 조직에도 변화를 초래했던 것 같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후한대까지 황제릉에는 수위와 소제를 맡는 능령(陵令) 계통과 시절의 제사를 맡는 능식관령(陵食官令) 계통이 같이 있었다. 위(魏)의 경우는 사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진(晉)에서 당(唐)까지 제왕조의 수릉 조직은 능령 계통만 있고 능식관령 계통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이후 역대 왕조의 능에 침전이 설치되지 않아 능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된 사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에서 남북조에 이르는 시기 제왕조의 수릉 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왕조의 정사(正史) 지(志)에는 관련 기사가 매우 소략한 데 비하여 『당육전(唐六典)』 태상시(太常寺) 제릉서(諸陵署)조의 주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일부 내

55) 『後漢書』 志6, 禮儀 下, 3149~3150쪽 주에 『古今注』와 『帝王世記』를 인용하여 광무제의 원릉에서 헌제의 선릉까지 12릉의 규모와 소재를 소개하고서 다음의 기사를 기재하였다. 蔡質『漢儀』曰, "十二陵令(今)見在(在는 衍文)河南尹無敬也." 魏文帝「終制」略曰, "漢文帝之不發霸陵, 無求也. 光武之掘原陵, 封樹也. 覇陵之完, 功在釋之, 原陵之掘, 罪在明帝. 是釋之忠以利君, 明帝愛以害親也. 忠臣孝子, 宜思釋之之言, 察明帝之戒, 存於所以安君定親, 使魂靈萬載無危, 斯則聖賢之忠孝矣. 自古及今, 未有不亡之國, 亦無不掘之墓也. 喪亂以來, 漢氏諸陵無不發掘, 至乃燒取玉柙金鏤, 骸骨并盡, 是焚如之刑也, 豈不重痛哉. 禍由乎厚葬封樹, 桑·藿爲我戒, 不亦明乎!"

56) 『晉書』 卷20, 禮中, 634쪽

용은 이 책에만 기록되어 있어[57]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요약하기로 한다. 우선 진의 수릉조직은 태상 밑에 능령(陵令)·승(丞)·주부(主簿)·녹사(錄事)·호조사(戶曹史)·금비리(禁備吏) 각 1인과 시(侍) 1인을 두었다.[58] 송은 태상 밑에 능령을 두었다. 남조 제(齊)는 『제직의(齊職儀)』[59]에 "능마다 영은 1인으로 제7품이고 질은 400석이며 동인·묵수·진현일량관 및 강조복을 착용한다. 예전에는 3품 훈위였는데 효건 3년(456)에 모두 2품으로 고쳤다"라고 되어 있다. 양(梁)은 태상 밑에 능감을 두었다가 뒤에 능령으로 고쳤는데, 제2반이었고 정9품이었다. 진(陳)은 양의 수릉 제도를 계승하였고 능령의 질은 600석이었다. 그리고 북제는 태상시 밑에 능령을 두었으며, 북주는 능마다 상사(上士) 1인을 두어 능을 수위했다. 한·위·진은 능령 밑에 능승을 두었고 송·제·양·진은 모두 능승을 두지 않았는데, 북제는 승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당은 수의 제도를 따랐는데 수릉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당육전』에 "『수령(隋令)』[60]에 '여러 (능)서(署)에는 능마다 영(令) 1인을 두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은 이를 따랐다. 수(隋)의 능승은 1인이었고 그 밑에 주의·주련·주약 등의 인원을 두었으며 당은 이를 따랐다"고 기술하였으나, 수

57) 『唐六典』 卷14, 太常寺(『역주당육전』 중 卷14, 태상시 제릉서 등, 367~371쪽)

58) 『晉書』 職官志에는 태상의 속관으로 능령이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晉書』 卷24, 職官志, 735쪽). 晉의 수릉 조직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전하는 기사는 이것이 유일하다. 『欽定歷代職官表』 卷29에는 晉의 守陵 조직으로 『唐六典』의 이 기사를 그대로 채록하였다. 다만 기사 끝 부분에 "凡吏四人, 卒一人(대개 이가 4인이고 졸은 1인이었다)"이라고 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59) 『齊職儀』는 南齊의 長水校尉 王珪之가 撰한 南齊의 職官에 관한 책으로, 모두 50권이며 현재는 산일되었다. 『南齊書』 卷52, 王逡之傳, 從弟珪之, 903쪽 ; 『隋書』 卷33, 經籍2, 史, 職官, 968쪽

60) 『隋開皇令』 30권 ; 『隋大業令』 30권(『隋書』 卷33, 經籍2, 973쪽) ; 『令律』 12권, 裴寂 撰(『舊唐書』 卷46, 經籍 上, 2010쪽)

의 능령은 종8품, 능승은 종9품인데 비하여[61] 당의 황제릉의 능령은 종5품상, 능승은 종7품하로 관품이 현격하게 높다. 그밖에 녹사(錄事) 1인이 있는데 이는 수에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당육전』에 기재된 당의 황제릉은 고조의 헌릉(憲陵), 태종의 소릉(昭陵), 고종의 건릉(乾陵), 중종의 정릉(定陵), 예종의 교릉(橋陵)이 있고, 황제릉에 준하는 상제(殤帝)의 공릉(恭陵)[62]이 있다. 능령은 산릉을 관장하며 능호를 거느려 수위하는 일을 맡고, 승은 그 차관이 된다. 무릇 삭망·원정·동지·한식에 모두 제릉을 정돈하고 제사를 올린다.[63] 교릉의 경우에는 매일 술과 음식[헌수(獻羞)][64]을 올리는데, 이는 이 능이 『당육전』 편찬 당시 황제 현종의 부황제(父皇帝)의 것이기 때문이다.

건릉·교릉·소릉에는 각각 능호(陵戶) 400인을 두고, 헌릉·정릉·공릉에는 각각 300인을 두었다. 모든 능에는 유수(留守)를 두어 갑사를 거느리고 능령과 더불어 좌우를 경계하게 하였다.[65] 또한 경기의 능을 받드는 현에서는 능묘 및 묘에 읍호를 충당하는데 여기에는 각기 차등이 있다. 교릉은 봉선현인(奉先縣人) 전부를, 헌릉은 삼원현(三原縣)에서, 소릉은 예천현(醴泉縣)에서, 건릉은 봉천현(奉天縣)에서, 정릉은 부평현(富平縣)에서 각각 3천 호를 내서 읍호로 충당했다.

61) 『隋書』 卷28, 百官 下, 788~789쪽

62) 『唐會要』 卷1, 帝號 上, 2~5쪽. 각 陵의 소재지는 京兆府의 三原縣[獻陵]·醴泉縣[昭陵]·奉天縣[乾陵]·富平縣[定陵]·奉先縣[橋陵]이다. 殤帝는 中宗의 4子로서 睿宗에 양위하였고, 開元 2년 殤皇帝로 追謚되었다(『唐會要』 卷2, 追謚皇帝)

63) 『新唐書』 卷13, 禮樂4, 拜陵, 362쪽. "凡國陵之制, 皇祖以上至太祖陵, 皆朔·望上食, 元日·冬至·寒食·伏·臘·社各一祭. 皇考陵, 朔·望及節祭, 而日進食. 又薦新於諸陵, 其物五十有六品. 始將進禦, 所司必先以送太常與尙食, 滋味薦之, 如宗廟."

64) 『周禮注疏』 卷4, 庖人 ; "備品物曰薦, 致滋味乃爲羞."

65) 『唐會要』 卷21, 陪陵名位 ; "凡諸陵皆置留守, 領甲士, 與陵令相知. 巡警左右兆域內."

공릉에는 100인을 두었다.[66]

기록은 없지만 위진남북조의 왕조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당대에는 황제릉 외에 국가 차원에서 품관을 두고 수위하는 두 단계의 능이 있었다. 우선 고조 이연의 조부인 이호(李虎)의 영강릉(永康陵)과 부친인 이병(李昞)의 흥령릉(興寧陵)[67]의 능령은 종7품하이고, 능승은 종8품하였다. 그리고 은태자(隱太子)·장회태자(章懷太子)·의덕태자(懿德太子)·절혼태자(節湣太子)·혜장태자(惠莊太子)·혜문태자(惠文太子)·혜선태자릉(惠宣太子陵)[68]의 능령은 종8품하이고, 능령은 산릉과 능역[영조(塋兆)]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능호를 통솔하여 능을 지켰다.

헌조(獻祖)[69]·의조(毅祖)[70]의 두 능에는 각각 쇄소(灑掃) 30인을 두었으며 흥녕·영강 두 능은 각각 100인, 태자 7릉은 각각 30인을 두었다. 그밖에 모든 친왕의 무덤에는 10인, 공주의 무덤에는 5인을 두었다. 북주의 문제와 수 문제의 능에는 각각 20인을 두고, 북주와 수의 여러 황제의 능에는 각각 10인을 두었다. 모두 근처에 있는 하호를 취하여 충임하고, 네 교대로 나누어 근무케 하였다.[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6) 『唐六典』 卷3, 尙書戶部(『역주당육전』 上, 卷3, 상서호부, 332~334쪽)

67) 永康은 고조 李淵의 조부인 景皇帝 李虎의 능묘이고 興寧은 이연의 부친인 元皇帝 李昞의 능묘로 각각 京兆府 三原縣과 鹹陽縣에 있다(『唐會要』 卷1, 帝號上).

68) 隱太子 建成은 高祖의 長男, 章懷太子 賢은 高宗의 6子, 懿德太子 重潤은 中宗의 長子, 節湣太子 重俊은 中宗의 3子(『唐會要』 卷4, 儲君, 43~48쪽)이며, 惠莊太子 撝는 睿宗의 2子, 惠文太子 範은 睿宗의 4子, 惠宣太子 業은 睿宗의 5子인데, 惠莊太子 이하는 追謚太子이다(같은 책, 54쪽).

69) 당고조 李淵의 고조부다.

70) 당고조 李淵의 증조부다.

71) 『唐六典』 卷3, 尙書戶部(『역주당육전』 上, 卷3, 상서호부, 333~335쪽)

III. 수릉 관련 율령

1. 『한의』와 『고사』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에는 "고조가 죽고 혜제가 즉위한 뒤 숙손통에게 말하기를 '선제(先帝)의 능원침묘(陵園寢廟)에 대해 군신(群臣)이 모두 모른다'고 하면서 그를 봉상으로 임명하고 종묘 의법을 정하게 했다. 한의 여러 의법이 정해지게 된 것은 모두 숙손통이 논저한 바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숙손통은 원래 진의 박사였는데, 유방에게 항복한 사람이다. 유방이 황제로 칭한 뒤 숙손통은 노나라의 유생 및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고례(古禮)와 진(秦)의 의법(儀法)을 채취하여 조회 의례에 관한 법률 규정을 수정, 증감해서 천자의 칭호 및 관료의 명칭을 정하여 봉상으로 제수된 바 있다.[72]

그런데 『진서(晉書)』 형법지에는 소하(蕭何)가 진의 제도를 이어 율(律)을 정하면서 사율(事律) 3편(篇)을 더하여 9편이 되었고, "숙손통이 율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더하여 『방장(傍章)』 18편을 편찬했으며", 장탕(張湯)의 월궁률(越宮律) 27편, 조우(趙禹)의 조율(朝律) 6편을 합해 60편이었다고 되어 있다.[73] 이 기사로 보면 숙손통이 지은 종묘의법은 율의 일부로 제정된 것으로 『방장율(傍章律)』로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한의(漢儀)』로 불렀던 것 같다.[74] 예를 들면 『후한서』 조포전(曹褒傳)에는 "장화(章和) 원년(87년) 조포를 불러 가덕문에 이르니 소황문에게 반고가 올린 숙손통의 『한의』 12편을

72) 『漢書』 卷43, 叔孫通傳, 2114~2129쪽
73) 『晉書』 卷30, 刑法志, 922쪽
74) 程樹德(1983), 『九朝律考』, 中華書局, 16쪽

가져오게 했다"고 하였고, 또 조포에게 칙하기를 "이 제도는 산략(散略)되어 경(經)에 많이 부합되지 않으니……"라고 하면서 조포에게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관혼길흉종시(冠婚吉凶終始) 제도 150편을 편찬케 하여 2척 4촌의 간(簡, 법률문서)에 기록하였다고 한다.[75] 그런가 하면 『한서』 예악지(禮樂志)에는 "숙손통이 편찬한 『예의』는 율령과 같이 기록되어 법관[이관(理官)]에 수장되었다"[76]고 하였는데, 『한의』가 정해진 뒤 율령과 같이 기록되어 법관에 수장되었다는 것은 관질의품(官秩儀品)의 제도가 중요한 법률규정이었음을 의미한다.[77]

이상으로 볼 때 『한의』는 조근(朝覲), 종묘, 혼상(婚喪) 등의 예의제도 및 법률규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의』는 숙손통에 의해 편찬된 뒤 그대로 준용되는 불변의 의법(儀法)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황제의 상장(喪葬) 등 관련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제도와 규정을 다시 정해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한 무제(武帝) 때 이미 "율령이 모두 359장이고, …… 문서가 창고에 차고 넘쳐 관리자도 다 볼 수 없는 정도였다"[78]고 하는 바와 같이 율령의 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법령을 정리하여 계통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데, 다음에 보는 『진서(晉書)』 형법지(刑法志)의 기사는 주로 결사비(決事比)와 같은 판례를 정리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후한 이래 법령의 정리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75) 『後漢書』 卷35, 曹褒傳, 1203쪽

76) 『漢書』 卷22, 禮樂志, 1035쪽

77) 실제로 『周禮』 春官 小祝의 注에 인용된 『漢儀』 佚文에 "每街路輒祭"가 있고, 『禮記』 祭法의 疏에 인용된 『漢儀』 佚文에 "高帝廟主九寸, 前方後圓, 圍一寸"이라고 한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한의』에 제사와 葬制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程樹德(1983), 위의 책, 16쪽 ; 楊一凡 主編, 『中國法制史考證』 甲編 第三卷, 歷代法制考·兩漢魏晉南北朝法制考, 三, 「漢代法律體制考述」(執筆 徐世虹), 136쪽 참조. 단, 이 글은 『周禮』 春官 小祝의 春官을 地官으로 誤記했다.

78) 『漢書』 卷23, 刑法志, 1101쪽

"또 한대의 결사(決事)는 모아서 영갑(令甲) 이하 300편으로 만들었고, 사도(司徒) 포공(鮑公)이 가취사송결(嫁娶辭訟決)을 법비도목(法比都目)으로 편찬한 것이 모두 906권으로 시대에 따라 증손(增損)이 있다. 모두 종류별로 모아 편(篇)으로 하고, 같은 사항을 모아 장(章)으로 하니 1장(一章) 중에 사항이 수십이 넘는가 하면 사항의 종류가 같으나 경중이 완전히 다른데도 조문만을 연결하여 서로 이어놓으니 비록 편을 나누어 놓긴 했으나 실은 서로 섞여 들어있다. 예를 들면 도율(盜律)에 적상지례(賊傷之例)가 들어 있고, 적율(賊律)에 도장(盜章)의 조문이 들어 있으며, 흥율(興律)에 상옥지법(上獄之法)이 있고, 구율(廐律)에 체포지사(逮捕之事)가 있으니 이와 같이 되어서는 틀리고 섞여 항상됨이 없었다. 뒤에 사람들이 노력하여 각각 장구(章句)를 만들었는데, 숙손선(叔孫宣), 곽령경(郭令卿), 마융(馬融), 정현(鄭玄) 등 제유(諸儒)의 장구(章句) 10여 가(家)가 수십만 언(言)이었다. 무릇 재판에 쓸 수 있는 것만도 모두 26,272조 7,732,200여 언(言)이어서 조문 수가 많아지니 보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에 천자가 조(詔)를 내려 단지 정현(鄭玄)의 장구(章句)만을 쓰고 다른 학자의 장구는 쓰지 못하게 했다."[79]

이 같은 일련의 법률 정리 작업은 위(魏) 문제가 사공(司空) 진군(陳群) 등에게 명하여 위나라의 법을 정하게 해서 "신율(新律) 18편, 주군령(州郡令) 45편, 상서관령(尚書官令)·군중령(軍中令)을 합하여 모두 180편으로"[80] 편찬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율 18편의 편명은 『당육전(唐六典)』의 주(注)에 기재되어 있으나[81] 영(令)의 편명은 일부만 확인되고 있다.[82]

율령의 정리 작업은 진(晉)에 들어와 보다 진보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79) 『晉書』 卷30, 刑法志, 922~923쪽
80) 『晉書』 卷20, 刑法志, 923쪽
81) 『唐六典』 卷6, 尙書刑部(『역주당육전』 上, 卷6, 556~557쪽)
82) 程樹德, 『九朝律考』 魏律考, 213~220쪽

사마소(司馬昭)가 진왕(晉王)으로 보정할 때 가충(賈忠) 등에게 명하여 율 20편, 영 40편, 모두 합해서 2,926조, 12만 6천 언, 『고사(故事)』 30권을 편찬케 해서 진 무제 태시(泰始) 3년(267)에 완성하고 다음해 반포했던 것이다. 다만 이 율령은 전하지 않고 편명만 전하므로, 숙손통이 정한 『한의』 및 양한대(兩漢代)의 황제릉의 조영과 수위에 관한 제법령이 어느 편 안에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오직 영의 편명 가운데 상장령(喪葬令)이 있어 이 편 안에 모아져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전하는 당령의 상장령 중에는 극히 일부 금령이 전할뿐 황제릉의 조영이나 수위와 관련된 조문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당회요(唐會要)』 권20의 능의(陵議)에 "태종 정관(貞觀) 9년(635) 고조(高祖)의 사망 뒤 산릉제도를 정하라는 조칙을 내리면서 한 고조의 장릉고사(長陵故事)에 따라 숭후(崇厚)하게 할 것을 명했다"는 기사가 있어, 한대의 황제릉과 관련된 제도는 진의 『고사』 30권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대에도 황제릉에 관한 제도는 불변의 율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 산릉제도를 정해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태종이 고조의 능을 숭후하게 조영할 것을 명했지만, 비서감 우세남(虞世南), 사공(司空) 방현령(房玄齡) 등이 검소하게 할 것을 주장하여 산릉제도가 많이 감성(減省)되었다고 하는 바와 같이 별도로 산릉제도를 정해 조영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83]

83) 『唐會要』 卷20, 陵議, 世界書局(臺北), 1981, 393~395쪽

2. 수릉에 관한 형률

전제적인 황제지배체제 아래에서 황제릉을 범한 행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했음은 당연하겠으나, 지금까지 출토된 진한율(秦漢律) 간독(簡牘) 자료에서 황제릉 관련 법조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직 사서에 전하는 관련 기사를 이용해서 몇몇 조문을 복원할 수 있을 뿐이다.

전한 고후(高后) 때는 신하들이 선제(先帝)의 종묘침원관(宗廟寢園官)을 함부로 책망할 것을 염려하여 감히 멋대로 의논하는 자는 기시(棄市)에 처하도록 영을 정했다. 원제(元帝) 때에 이르러 이 영을 폐지했으나, 성제 때 후사가 없었으므로 종묘를 함부로 의논하는 것에 대한 명을 부활했다.[84] 이 기사로 보면 전한 원제 때까지 종묘나 능침에 관해서는 일체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은 기시였음을 알 수 있다.

전한 문제 때 어떤 사람이 고조묘(高祖廟) 신좌(神坐) 앞의 옥환(玉環)을 훔쳤다가 체포되자 문제가 노하여 정위(廷尉)에게 치죄하라 명했다. 정위 장석지(張釋之)는 율을 살펴 종묘의 복어물(服禦物)을 훔친 죄에 따라 기시형이 마땅하다고 상주했다. 황제가 대노하여 말하기를 "인간이 무도하여 마침내 선제의 묘기(廟器)를 훔친 것이며, 내가 사안을 정위에게 맡긴 것은 그를 족형에 처하고자 한 것인데, 당신이 상주한 심판 문안은 내가 종묘를 받들고자 하는 뜻과 어긋난다"고 하였다. 이에 장석지가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며 말하기를 "법률에 따르면 이같이 판결해서 처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수해서 시체를 전시하는 형과 멸족의 형은 사죄인 점에서는 같은데, 역과 순으로 차이

84) 『漢書』 卷73, 韋玄傳, 3125쪽(위의 『九朝律考』 130쪽). 韋玄傳의 3115~3130쪽에 寢廟園에 관한 장문의 기록이 실려 있다.

를 둘 뿐입니다. 지금 종묘의 기물을 훔친 자를 족형에 처할 경우 만에 하나라도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에서 한 잔의 흙을 취한다면 폐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이보다 더 가중한 형벌을 내리시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윽고 문제가 황태후와 논의한 끝에 정위의 심판 안건을 승인했다.[85] 이 기사를 통해 당시의 법에 종묘의 복어물을 훔친 행위는 기시형에 해당했고, 황제릉의 흙을 한 잔만큼이라도 훔친 자는 족주(族誅)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법으로는 일반인의 묘를 발굴하는 행위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던 것 같다.[86]

무제 때 어떤 사람이 효문제의 능원을 발굴하여 전[예전(瘞錢)]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승상 엄청적(嚴青翟)이 자살했으나,[87] 범인을 어떤 형벌로 처단했는지는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승상이 자살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전개과정은 복잡하고 애매하다.[88] 한의 제릉(諸陵)은 모두 태상에 속하였는데

85) 『史記』 卷102, 張釋之列傳, 2755쪽

86) 『淮南子』 卷13, 氾論訓(앞의 『九朝律考』 111쪽). "今人所以犯囹圄之罪, 而陷於刑戮之患者, 由嗜慾無厭, 不循度量之故也. 何以知其然? 天下縣官法曰 …… '發墓者誅, 竊盜者刑.' 此執政之所司也."

87) 『漢書』 卷59, 張湯傳, 2643~2646쪽(앞의 『九朝律考』 113쪽)

88) 이해를 돕기 위해 『漢書』 張湯傳(2643~2646쪽)에 실린 사건의 내용을 요약해둔다. 張湯과 사이가 좋지 않은 李文이 禦史中丞이 되자 장탕을 해칠만한 문서를 찾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장탕은 그에 대한 감정이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 장탕이 아끼는 史 魯謁居가 이를 알고 사람을 시켜 李文의 姦事를 긴급 奏章으로 아뢰었다. 이후 사안이 장탕에게 내려오자 그를 심리하여 사형에 처했다. 장탕은 노알거가 주동한 것을 알았으나 황제가 사건의 발단을 물었을 때 사실대로 답하지 않았고, 노알거가 와병 중일 때는 문병하며 발을 주물러 주었다. 趙王은 鐵官의 일로 여러 차례 송사했으나 장탕에게 배척당했으므로 그를 원망하여 황제에게 "장탕은 대신으로서 史 알거가 병이 나자 발을 주물렀으니 큰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안이 정위에게 내려졌다. 노알거가 병사하자 그의 弟가 연루되어 導官에 구금되었는데, 장탕은 은밀히 돕고자 못 본척 했지만 노알거의 제가 장탕을 원망하여 사람을 시켜 장탕과 노알거가 음모하여 이문의 변고를 급보했음을 상서케 했다. 사안은 減宣에게 내려왔다. 장

능의 백(栢)을 훔친 사람은 기시형에 처했다[89]는 것이 확인되고 또 능의 흙 한 잔을 훔친 죄가 족주였으니, 능묘의 예전(瘞錢)을 도굴한 자에 대한 형도 족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晉)의 황제릉 제도와 금령(禁令)에 대해서는 혜제(惠帝) 때 배위(裴頠)의 상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진의 제도에서는 산릉의 봉분을 쌓지 않고 원읍(園邑)도 갖추지 않고 풀이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놓아두었습니다. 능과 조역(兆域)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는 훼손하고 발굴한 경우에만 멸족의 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만약 산릉에 올라 공경을 다하지 않은 경우는 그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원강(元康) 8년(298) 노복이 다른 사람의 교사를 받아 주룡(周龍)이 (산릉의) 풀을 태웠다고 무고하여 정위가 주룡 일족을 주멸할 것을 상주하여 그 일가 8인이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만, 마침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형을 면했습니다. 정상을 따져보고 전대의 교훈에 비추어 보면 그 같은 처벌은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금년 8월 능위에 있는 둘레 7촌 2분의 나뭇가지 하나가 찍힌 사건 때문에 사도와 태상이 도로를 분주히 달렸는데, 사안이 비록 작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처리의 결과

탕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감선이 철저히 조사하여 그를 궁지에 몰고자 했는데, 그때 孝文園의 瘞錢이 도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상 嚴青翟과 장탕은 입조할 때는 같이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했으나 황제 앞에서 장탕은 승상은 四時에 陵園을 순시해야 하니 응당 사죄해야 하지만 자신은 관계가 없어 사죄할 수 없다고 했다. 승상이 사죄하니 황제가 이 사안을 어사에게 심리하라 명했다. 장탕은 승상을 見知故縱의 조문에 따라 처리하니 승상이 이를 근심했다. 이에 승상의 三長史가 장탕을 음해하고자 황제에게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장탕의 左右인 田信을 체포해서 장탕이 주청하려는 案件을 전신 등에게 먼저 알리고 이익을 나누려 했다고 말했다. 장탕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결국 자살했다. 장탕의 사후 재산이 오백금을 넘지 않았고 그것도 황제의 賞賜 외에 없는 것이 확인되자 三長史를 조사하여 주멸했고, 승상은 자살했다.

89) 『太平御覽』(卷954, 木部 柏槐, 4235쪽 下)에 인용된 『三輔舊事』; 『九朝律考』 113쪽

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주히 뛰어다니며 책임을 벗어나려 했으나 태상(太常)은 지금까지 수금되어 석방되지 않고 있습니다."[90] 이 기사를 통해 진의 황제릉에 관한 금령은 한(漢)의 그것에 비해 매우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능의 풀을 태운 것으로 무고된 자가 족주에 처해질 뻔했고, 능위의 나뭇가지가 잘린 것으로 태상이 수금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여전히 중죄였음을 알 수 있다.

당률은 완정한 법전 『당률소의(唐律疏議)』가 남아 있어 황제릉에 관한 율 조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 산릉(山陵)의 조역문(兆域門)[91]에 난입한 자는 도형 2년에 처한다(위금률 1-1). 조역문은 산릉을 출입하는 문이며, 산릉의 구역은 모두 숙위(宿衛)를 두어 막고 지키며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명적(名籍)이 있다. 따라서 명적이 없는데도 들어간 자는 도형 2년에 처한다(위금률 1-1의 소의). 만약 이유 없이 산릉에 올라간 자는 유형 3천 리에 처한다(위금률 1-1의 소의). 산릉의 담을 넘은 자는 도형 3년에 처하고, 수위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 2등을 감하여 처벌하며(위금률 1-2와 소의), 숙위 감독관은 또 1등을 감하여 처벌한다(위금률 1-3). 고의로 놓아준 자는 각각 죄인과 죄가 같다(위금률 1-4).

이상은 산릉의 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가 들어갔다든가 담을 넘어 들어갔다든가 산릉 위에 올라가는 등 산릉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는 행위 등에

90) 『晉書』 卷30, 刑法志, 934~935쪽

91) 山陵은 황제의 陵墓를 말한다. 戰國時代 이후 陵廟는 대부분 평지에 흙을 쌓아 무덤을 만들었지만, 唐에서는 太宗의 昭陵 이후 산 중턱에 墓坑을 뚫어 玄室을 만들고 무덤은 쌓지 않았다. 兆域은 묘지의 구역을 말하며, 주위에는 담장을 둘러치고 문을 설치하였다.

대한 처벌 규정이다. 만약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든가, 또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미 훼손했다면 이는 명례율 6조 십악(十惡)의 두 번째 죄인 모대역죄(謀大逆罪)가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된다.[92]

모대역은 종묘·산릉·궁궐을 훼손하려고 꾀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훼손하려고 모의하는 단계에서 이미 모대역죄가 성립하여 중죄가 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경우와 꾀하는 단계에 그친 경우의 사법적 효과는 차이가 크다. 즉 산릉의 훼손을 꾀하여 실행에 옮긴 자는 적도률 1조 1항이 적용되어 정범은 모두 참수형에 처하고, 부(父)나 16세 이상의 자(子)는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15세 이하의 자(子)나 모(母)·녀(女)·처(妻)·첩(妾), 자의 처·첩, 조(祖)·손(孫)·형(兄)·제(弟)·자(姉)·매(妹)와 부곡(部曲)·자재(資財)·전택(田宅)은 모두 관에 몰수한다. 다만 남자 나이가 80세 이상이거나 독질(篤疾)이거나, 여자(女子)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폐질(廢疾)인 경우에는 모두 연좌(緣坐)를 면제한다. 백숙부(伯叔父)·형제의 자는 호적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유형 3천 리에 처한다. 그렇지만 모의 단계에 그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자는 교수형에 처하는데(적도율 1-2), 이 조문에서 '개(皆)'라 칭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연루된 자만 수범과 종범으로 나누어 처벌하며(적도율 1-2의 소의), 연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한율에서 황제릉의 백수(栢樹)를 훔친 자는 기시형에 처하는 데 비하여 당률에서는 원릉 안의 초목을 훔친 자는 도형 2년 반에 처하도록(적도율31)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소의에 "원릉의 초목을 합법적으로 간벌(間伐)하거나 가지치기[삼

92) 명례율 6조는 十惡조이며, 십악은 명분에 따른 禮敎를 훼손하고 사대부의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하고서 謀反에서 內亂까지 열 가지 항목의 죄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항목 "謀大逆은 종묘, 산릉 및 궁궐을 훼손하려고 꾀하는 것으로"(명례율 6-2의 注), "이 조항에 해당하는 자는 紀綱을 해치고 순리를 따르지 않으며, 道理를 어기고 德을 배반하여, 反逆 행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大逆이라고 한다(명례율 6-2의 소의)"고 설명하였다.

예(芟刈)]할 때에 훔친 자는 도형 2년 반에 처한다"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허용되지 않은 시간 또는 간벌이 허용되지 않은 수종을 베거나 훔친 자에 대한 처벌은 훨씬 무거웠을 것이다.

IV. 읍호·능호의 신분 – 결론을 대신하여

광개토왕비문에는 수묘인은 서로 전매할 수 없고 살 수 없으며, 영(令)을 어기고 판 자는 형에 처하고 산 자는 제령(制令)에 따라 수묘케 한다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광개토왕은 자신이 죽은 뒤 안전하게 수묘할 자로 자신이 몸소 약취해온 한(韓)·예(穢)를 지목했는데, 이로 보면 수묘인은 전쟁포로로 천인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당의 율령에서 산릉 수위 인원의 전매 금지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고 그 신분도 대개 양인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때문에 한·당의 읍호·능호의 신분에 대해 얕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마치는 글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한(前漢) 전기에 능읍으로 사민된 자들은 승상에서 이천 석에 이르는 관인과 자산이 백만 전에 이르는 부유한 자들로, 직접 능을 수위하는 자들이라기보다는 능읍과 관중의 위상을 제고시켜 이른바 강간약지와 같은 국가적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주된 자들이기 때문에[93] 매매 금지 운운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한 원제 때 176개소에 달하는 능·묘를 수위하는 위사(衛士)가 45,129인이고 축(祝)·재(宰)·악(樂)이 12,147인이며, 또 희생을 키우는 많은 병졸이 있었는데, 이들은 신분이 확인되지는

93) 閔斗基(1957), 앞의 글, 1~4쪽

않지만 적어도 고정된 직역인인 것만은 틀림없는 만큼 그 직역을 함부로 이탈하는 것은 금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의 능 수위 인원에는 읍호와 능호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읍호의 경우 교릉은 봉선현민 전원, 헌릉·소릉·건릉·정릉은 각각 삼원·예천·봉천·부평현에서 3천 호를 뽑아 충당하여 역을 면제하고 대신 능의 시향비를 부담케 했으므로,[94] 그들의 신분이 양인임에 틀림없다. 능호의 경우도 『당육전』 상서호부(尙書戶部) 호부랑중조(戶部郎中條)의 주에 "모두 (능묘) 부근의 하호를 취하여 충당한다"[95]고 하였고, 『구당서(舊唐書)』 태종본기(太宗本紀)에도 "양(涼) 무소왕(武昭王)의 묘 부근의 20호의 역을 면하여 수위에 충임하고 꼴 베거나 가축을 먹이고 나무 채취하는 것을 금한다"[96]고 한 것을 보면 양인으로 충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 학자 하마구치 시게쿠니[濱口重國]는 『당대조령집(唐大詔令集)』(권17) 전례(典禮) 친알조(親謁條)의 사문(赦文)에 "[오제(五帝)의] 능호의 천한 신분을 해방하여 양민으로 삼되, 종신토록 능침을 쇄소(灑掃)케 하라"고 한 구절이 있는 것을 들어 당 전기에는 원래 천인이었으나 개원 17년(729) 현종의 명으로 신분이 해방되어 724년에 편찬된 『당육전』에는 양인 신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97] 일단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능호가 반드시 천인으로 충당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능

94) 『舊唐書』 卷8, 玄宗 開元17년 11월조, 194쪽. "…… 制奉先縣同赤縣, 以所管萬三百戶供陵寢, 三府兵馬供宿衛, 曲赦縣內大闕罪已下. …… 每陵取側近六鄕供陵寢."

95) 『唐六典』 卷3, 尙書戶部 戶部郎中 凡京畿充奉陵縣及諸陵墓及廟邑戶條의 注(『역주당육전』 上, 상서호부, 333~334쪽)

96) 『舊唐書』 卷3, 太宗下, 48쪽

97) 濱口重國, 「唐の陵·墓の良賤に就いで」, 『唐王朝の賤人制度』, 391~396쪽

호는 능령의 통솔 아래 능을 수위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였고,[98] 『당육전』(권14) 태상시(太常寺) 제릉서(諸陵署)와 영강흥녕이릉서(永康興寧二陵署)의 표목에도 직장의 하나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전(通典)』에는 능호가 제랑(齊郎)·부사(府史)·정장(亭長)·장고(掌固)·주선(主膳)·막사(幕士)·습어(習馭)·가사(駕士)·문복(門僕)의 뒤에 내직장(內職掌)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데, 직장은 관부에 복무하는 역인들로 이른바 서리(胥吏)였다.[99] 또한 제랑과 같은 직장은 7품 또는 5품관의 자로 취역케 하고,[100] 몇 년 동안 근무하면 간시(簡試)를 거쳐 유내(流內)로 입사할 수 있는 관인후보군이기도 했다.[101] 그 밖의 직장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 품관의 자나 양인을 차출하여 취역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102] 따라서 직장 가운데 능호만 유독 천인으로 충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위의 "능호의 천한 신분을 해방하여 양민으로 삼되"라고 한 사문(赦文)의 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능호 가운데 일부 천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8) 『唐六典』 卷14, 太常寺, 獻陵·昭陵 등 署(『역주당육전』 中, 卷14, 태상시 (고조)헌릉 등 서, 369쪽)

99) 內職掌은 본문에 열거한 것 외에 樂工·供膳·獸醫·執鐻·門事·學生·俊士·魚師·監門校尉·直屯·備身·主仗·典食·監門直長·親事·帳內가 더 있다. 外職掌은 州縣倉督·錄事·佐史·府史·典獄·門事·執刀·白直·市令·市丞·助教·津吏·里正 및 嶽廟齊郎과 아울러 折衝府 旅師·隊正·隊副 등으로 총 349,863인이다. 내직장과 외직장을 합하여 諸色胥吏라고 불렀다(『通典』 卷40, 職官22, 內外文武官員條).

100) 『舊唐書』 卷25, 禮儀5, 949쪽

101) 『唐六典』 卷2, 尙書吏部 考功郎中員外郎條(『역주당육전』 上, 卷2, 상서이부, 262~263쪽)

102) 예를 들면 위의 주에 열거된 직장 가운데 親事·帳內는 王公 이하를 위해 복무하는 자들인데 親事는 6·7품의 자로, 帳內는 8·9품의 자로 충당하고, 10년 근무하면 簡試에 응시해서 流內官으로 入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唐六典』 卷5, 尙書兵部 兵部郎中條(『역주당육전』 卷5, 상서병부, 496~497쪽)

• 참고문헌

사료

『史記』, 中華書局 點校本

『漢書』, 中華書局 點校本

『前漢紀』, 中華書局本

『三輔皇圖』, 陳直 校證本 1980,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漢舊儀』, 『漢官六種』本 1990, 中華書局

『後漢書』, 中華書局 點校本

『晉書』, 中華書局 點校本

『隋書』, 中華書局 點校本

『唐六典』, 中華書局 點校本

『唐會要』, 中華書局本

『舊唐書』, 中華書局 點校本

『新唐書』, 中華書局 點校本

『太平御覽』, 中華書局本

『文獻通考』, 中華書局本

『讀禮通考』, 中華書局本

단행본

董新林(2005), 『中國古代陵墓考古研究』, 福建人民出版社

손영종(2001),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도서출판 중심

楊寬 著, 장인성 · 임대희 옮김(2005), 『중국역대 陵寢 제도』, 서경출판사

延正悅(1996), 『韓國法制史』, 학문사

이인철(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程樹德(1983), 『九朝律考』, 中華書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金賢淑(1989),「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인의 社會的 性格」,『韓國史硏究』 65

閔斗基(1957),「前漢의 陵邑徙民策-疆幹弱枝策으로서의 그 具體的 內容에 對한 論攷」,『歷史學報』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ㄱ〉

가관(加官) 391
가야제국 241, 242, 244, 253
각력응회암(角礫凝灰岩) 156
간도문제 340
간연(看烟) 85, 88, 164, 165, 183~185, 315, 478
간접지배방식 348
강간약지(强干弱枝) 483
강상수운(江上水運) 362
개로왕 227
개봉(改封) 383
거대한 망(net) 356, 369
거란 414, 421~423, 425, 426, 440~442
거란해(契丹奚) 366
거련(巨連) 304
거시적 330
거시항고개(巨柴項古介) 57
거유령(車踰嶺) 56
거점(hub) 352, 357
건립 목적 170
『건주기정도기(建州紀程圖記)』 54, 58
경기만 354
경영방식 357
경제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 374
경제영토(N.E.T) 357, 370
경제주권(economic sovereignty) 374
계단광실묘(階壇壙室墓) 108
계단적석광실묘(階壇積石壙室墓) 98, 100, 107, 113
계단적석석광묘(階壇積石石壙墓) 98, 99, 106, 113
계승성 367
계장(階牆) 99
계장적석석광묘(階牆積石石壙墓) 98, 99
고구려 석독 표기 200
고구려에서의 한자어 사용 204~206
고구려의 재발견(re-dicovery) 시대 368
고구려의 정신과 정책 331
고국양왕 428, 436, 437, 439, 443
고국원왕 224, 305, 306, 313, 314, 316, 318, 383
고막해(庫莫奚) 366
고사(故事) 498
고예(古隸) 123
고유명사 표기자 분석 189

고환도(古丸都) 64, 65
관계망 350
관구검기공비 153
관묘(串墓) 113
관미성 224, 427, 430
광실 100
『광여도(廣輿圖)』 63
교견 26, 27
교동도 427
구랑합천(仇郎哈川) 56
구려왕 안 438
구로이타 가쓰미 159
구민 457, 471
구시속민 225, 237, 240
구체명석서(舊體銘石書) 123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343
국내성(國內城) 169
국연(國烟) 85, 88, 164, 165, 183~185, 315, 478
국제질서 331
국토재편계획의 일환 350
군사활동 346
궤왕(跪王) 222, 226, 228, 251, 255, 265, 293, 294, 297, 298
귀왕(歸王) 222, 234
귀왕청명(歸王請命) 238, 267, 270, 292, 293, 294
근초고왕 345
금국성(金國城) 67
금석학 155
기상참(氣象站) 서유지(西遺址) 79
기후대 364

〈ㄴ〉
낙랑군 224, 315, 316
남거성(男居城) 252
남부가야 287, 288, 299
남북조 342
남북조시대 330
남소성(南蘇城) 231, 308
남실위전 357
남중국해(南中國海) 337
남쿠릴열도 340
남해대전 341
내륙수로교통 354
내해 344
노객(奴客) 222, 225, 226, 228, 230, 234, 238, 251, 265, 268~270, 293, 294, 297, 298
노성 359
녹둔도(鹿屯島) 문제 340
논사(論事) 222
누르하치 54
눈강 3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능비문 411, 412, 414, 415, 418, 420, 430, 433, 437, 440, 442
능비설 452, 462
능원(陵園) 485
능읍 485
능장(陵牆) 97
능현 489
능호(陵戶) 493, 494, 504~506

〈ㄷ〉
다중방사상외교형태 372
단결(團結)문화 364
담덕 224
담비 가죽 358
당대조령집 505
당률소의(唐律疏議) 502
대동강 하구 354
『대동여지도』 64
대방군 224, 254, 315, 316
대방이국왕(帶方二國王) 383
대전치문설 28~30
대좌 159
대좌실측도 160
대중국(大中國, great china) 337
대중화경제권 371
도독모주제군사(都督某州諸軍事) 387
도독제군사 390, 392, 400
『동국지도』 59, 63
동부여 414, 419~421
동북 4성화(省化) 337
동북공정(東北工程) 341
동아지중해 중핵조정론 342
동아지중해 중핵조정역할 370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모델 331
동아지중해의 허브 363
『동역도(東域圖)』 63
동예 360
동옥저 359
동진 256, 305, 306, 308~313, 316~318, 322, 343
동진예서(東晋隸書) 123
동해 374
동해북부 종단 항로 362
두막루국 348
두만강 361
두만강 하구 339
두음법칙 192, 206
등거리외교 372

〈ㄹ〉
러시아 333, 335, 339, 340, 370, 372

〈ㅁ〉
마선향(麻線鄕) 10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melting-pot 376
모대역죄(謀大逆罪) 503
모두루묘지명 198, 200
모용귀 437
모용농 393~396, 400, 406, 437, 439, 441
모용보(慕容寶) 308, 318, 382, 384~386, 388, 391, 399, 400, 405, 406, 438
모용성 308
모용수 384~386, 396, 399, 427, 438
모용외(慕容廆) 394
모용운(慕容雲) 308, 368
모용융 395~398, 400, 406
모용인 315
모용준(慕容儁) 318, 391, 406
모용황(慕容皝) 315, 395
모용회(慕容會) 398~400, 406
모장군(某將軍) 387
목단강 365
목릉하(穆陵河) 364
몽골 166
묘령(廟令) 489
묘상입비(墓上立碑) 53, 84, 89, 90
묘역 460, 461, 464, 469
묘제(廟制) 486, 491
무광적석묘(無壙積石墓) 98
묵수곽전본 24, 30, 31, 42, 44, 46, 47, 248, 249
민족주의 221, 341
민주교동유지(民主橋東遺址) 80
민주촌유지(民主村遺址) 80

〈ㅂ〉
반어피 360
발해 321, 359, 362
방단적석묘(方壇積石墓) 114
방장율(傍章律) 495
백잔(百殘) 223, 230, 233, 235, 250, 253
베트남 373
벼농사 360
봉석석실묘(封石石室墓) 98
봉토동실묘(封土洞室墓) 114
봉토묘 98
봉토석실묘 98, 101
부산(富山) · 부산(負山) 421
부여 358
부여계 고유명사 186, 187
부족지자(富足之子) 471
북방 346
북부여 348
북위(北魏) 330
북풍(北豊) 402, 404, 407, 414, 433~436
「비공(非攻)」 205
비단섬 340
비려 3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ㅅ〉

사구성 254
사단 항로 362
사마(司馬) 387
사무엘 헌팅턴 375
사민 483
삼림경제 358
『삼보황도(三輔黃圖)』 482
삼척 374
상경 임황부 424, 442
상업도시 362
상활용촌(上活龍村) 103
서구묘군(西區墓群) 103
서남공정(西南工程) 341
서북공정(西北工程) 341
서사(書寫) 문화 120
서산 온석동 166
서학원본 35~37
서한만(西韓灣) 361
석광 96
석성(石城) 253
석장(石牆) 96
석현성 224, 430
석회탁본 24, 25, 30, 31, 33~35, 41, 44, 47, 248, 249
선돌 166
성모 189
성조 189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구장본 38~40
속민관 227, 236, 237, 240, 244
송덕비 463
송화강 347
수곡성 431
수곡성 전투 224
수군 254, 348, 349, 354, 356, 428, 430
수릉읍 482
수릉호 482
수묘연호령비설 452
수묘인(守墓人) 53, 84~90, 457, 462~464, 466
수묘인연호 164, 166, 169, 170, 183, 185, 231, 263, 277, 290, 307, 315, 418, 463, 457, 471, 477, 478
수묘제 168, 463, 464, 466, 469, 471
수분하(綏芬河) 364
숙군성 437, 438, 439
숙손통 495
숙신(肅愼) 234, 242, 307
순하 26, 266, 269, 270
시라무렌 강 347, 456
시라무렌하 422, 424, 425, 435, 436, 442
식신 347
신도비 460, 461
신라구원전쟁 233, 238, 240, 241, 24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신라성 229, 241
신래한예(新來韓穢) 85, 457, 471
신묘년조 25~30, 221, 223~227, 234, 236, 240, 248
신민(臣民) 28, 29, 225, 226, 233, 236, 250, 251
신성(新城) 231, 308
신성물(神聖物) 468
신중화제국주의 371
신충일(申忠一) 54
실성(實聖) 237
실성왕(實聖王) 355
실위(室韋) 366
쌀 359

〈ㅇ〉
아단성 430
아신왕 430, 431
악랑공 314, 318, 322
안라(安羅) 242, 250, 253, 255
안라인(安羅人) 241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 229, 240, 241, 271, 273, 274, 277, 280~282
안시성 357
양평 434, 437, 439, 440, 443
양평도(襄平道) 382, 401, 407, 433~435, 440, 441, 443
『어석(語石)』 164
여산릉 479, 480
『여지도』 66
역사유기체 331, 367
역성(力城) 402, 404, 432~434, 436
연꽃 61, 62, 70, 71, 74, 89
연방형태(동아시아연방) 336
연역적 330
연해주 361
연해주 항로 362
연화지건축유지(蓮花池建築遺址) 79
열연교 70, 73
열연하(閱蓮河) 81, 82
염수구 421, 423, 424, 435, 442
엽창치(葉昌熾) 164
영주(營州) 392
예서(隸書) 123
예전(瘞錢) 501
예족(穢族) 244
예해지간(隸楷之間) 123
오국성(五國城) 58, 59, 61, 63, 65~67
5호 16국 313, 320, 343
오환(烏桓) 365
옥환(玉環) 499
왕궁솔(王躬率) 27, 28, 225
왜구 229, 235, 252~254, 305
외신(外臣) 38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동(遼東) 381, 383, 412, 414, 434, 436~440, 442, 443
요동 순수 412, 432, 440, 442
요동 · 대방 2국왕 389, 390, 443
요동군 433, 434, 436, 438
요동성 436~438
요동지방 357
요시다 도고본 39, 41
요하 381
용성(龍城) 381, 394, 398, 406
운모 189, 190
운봉(雲峰) 75, 97
운봉댐 76
원석탁본 24, 25, 31, 42, 46, 47, 48, 221, 248, 249
원제(元帝) 485
원조선(原朝鮮) 367
원존재 333
원토(原土)수복 368
유기체 331
유단적석석광관묘(有壇積石石壙串墓) 104, 109, 110
유단적석석광묘(有壇積石石壙墓) 96, 98, 99, 100, 104~106, 108~113
유연(柔然) 371
유택 468, 470
읍루 359
읍호 493, 504, 505
의관출유(衣冠出遊) 486
이고류(二股流) 73, 77, 81, 89
이케우치 히로시[池內宏] 159
인도 335, 373
인삼 309, 310, 312
임강총 460, 464, 469
임나가라(任那加羅) 229, 241~244, 250, 252, 253, 255, 271, 275, 277, 281~289, 295, 296, 298, 299, 305, 349

〈ㅈ〉

자아의식 367
자이드(said) 375
자집단주의(自集團主義) 334
잔국(殘國) 223, 226, 235
잔불복의(殘不服義) 226, 236, 243
잔주(殘主) 223, 228, 253
장군총 158, 163, 453~455, 459~461, 464, 469
장군총 배총 158, 159
장릉(長陵) 480, 500
장릉고사(長陵故事) 498
장백산 공정 340
장사(長史) 387
장수왕(長壽王) 168, 231, 243, 304~310, 313, 315, 318, 320, 322~324, 330, 45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56, 464, 466~471
적석관묘(積石串墓) 98, 100
적석묘 98
적석석광묘(積石石壙墓) 98
적석석실묘 101
전연 383
전지(腆支) 252, 311
점제현신사비 153
정동대장군(征東大將軍) 391, 392
조공 · 논사 240, 242, 244, 292, 293
조다(助多) 323
『조선고적도보』 157
『조선고지도(朝鮮古地圖)』 66
조중연합함대(朝中聯合艦隊) 337
조지 프리드먼 374
종발성 229, 252
종제(終制) 491
『중국문물지도집(中國文物地圖集)』 78, 80, 82
중월(中越)전쟁 373
중핵(中核, core) 350, 352
중핵역할 350
중화연방론(中華聯邦論) 371
지경학적(地經學的) 351
지문화적(地文化的) 351
『지승(地乘)』 67
지심학적(地心學的) 351
지정학적(geo-politics) 351
진강유지(鎭江遺址) 79
진서(眞書) 123
진작(進爵) 391
『집안고구려왕릉(集安高句麗王陵)』 51
「집안시여유도(集安市旅遊圖)」 81, 87
『집안현 향토지』 69, 73
『집안현문물지(集安縣文物志)』 78, 80, 82
집안현성 69, 72, 75
집안현성전경십육경(輯安縣城全境十六景) 74
『집안현지(輯安縣志)』 72
『집안현지(集安縣志)』 78, 82
집청공로(集靑公路) 56, 57

〈ㅊ〉
착묵패틴법 31, 33, 34, 42
참군(參軍) 387
참전가남유지(站前街南遺址) 79
참합파(參合陂) 전투 383, 398, 438
책봉조공관계 397, 400, 405~407
책성 361
추모왕 414
출명마(出名馬) 358
출해구(出海口) 361
칠지도 255, 310, 322
침전(寢殿) 481

〈ㅋ〉

collaboration 376

키르기즈스탄 373

〈ㅌ〉

타지키스탄 373

태국 373

태상황(太上皇) 482

태왕릉 453~455, 459~461, 464, 469

태왕릉전명문(太王陵塼銘文) 161

티 이론 331

터와 다핵(多核, field & multi-core)이론 351

토구자산(土口子山) 83

통가자(通假字) 206

『통구(通溝)』 75, 159

통구하(通溝河) 56, 67

통구하구유지(洞溝河口遺址) 79

퉁구스 366

티베트 373

〈ㅍ〉

파자성천(破子城川) 67

『팔도지도(八道地圖)』 59, 62, 70, 73

팔분(八分) 123

패려(稗麗) 27, 234, 250, 307, 382, 401, 411, 412, 414, 416, 420~422, 425, 426, 432, 440~444

패릉(覇陵) 480

패수 전투 224

편전(便殿) 481

평곽 395, 402, 407, 436, 437, 440, 443

평곽(平郭) 383, 394

평양 237, 251, 254, 305, 314, 316, 323, 349

평양 천도 168, 464, 467

평양성 224, 313~315, 317, 318

평주 393

평주목(平州牧) 383, 389, 390, 392, 393, 400, 406, 407, 438

평주자사(平州刺史) 394, 395, 435~437

표피 309, 310, 312

프리모르스키(연해주) 339

필려부 422

〈ㅎ〉

하태후(夏太后) 481, 482

한계 고유명사 187, 188

한예(漢隸) 123

한예(韓穢) 232, 307

한의(漢儀) 495

『해동지도』 58, 59

해로(海路) 289, 344

해륙교통망 350

해륙국가 350

해륙사관(海陸史觀) 331
해륙외교 372
현도성 436, 437, 439
현창비 463
호대왕명(好大王銘) 53
호석(護石) 87, 100, 468
호자구(嵩子溝) 95, 97
호자구고분 95
호태왕명문 87
혼춘(琿春) 349
화통(和通) 266, 294, 296
환도산성 67
황금무역 358
황성평(皇城坪) 63, 66, 67
황제릉 479, 480~482
후연 222, 230, 231, 308, 318, 322, 381, 382, 420, 426, 427, 433, 435~438
후조(後趙) 344
훈적비(勳績碑) 221, 238
훈적비설 452
흑룡강 3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56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초판 1쇄 인쇄 2013년 5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5월 31일

지은이 다케다 유키오 · 조법종 · 쑨런지에 · 고광의 · 이우태 · 권인한 · 연민수 · 스즈키 야스타미 · 이용현 · 하마다 코사쿠 · 윤명철 · 이성제 · 서영수 · 김현숙 · 김택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e-mail book@nahf.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13

ISBN 978-89-6187-303-1 93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